

국역 서애전서
國譯西厓全書

III-1

| 개정판 |

국역 류성룡 시 I


西厓 柳成龍 지음

류명희 역주·감수
안유호


삼한 서애선생기념사업회





 류명희 柳明熙

本貫 豊山
臺灣 國立政治大 문학박사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주요논저
李清照詩詞箋釋
蘇東坡詞所表現的心路歷程研究
敦煌歌辭의 意境研究(1, 2) 외 다수

 안유호 安維鎬

本貫 順興
臺灣 國立師範大學 역사과 졸업
(前) 충북 충현고교 교사(한문·중국어)
학원강사(한문·중국어)

국역 류성룡 시 I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 복제, 기타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단
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와 역주·감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역 서애전서
國譯西厓全書

Ⅲ - 1

국역 류성룡 시 I

西厓 柳成龍 지음

류명희 역주·감수
안유호

사단
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우리 민족정신과 문화의 근간에는 유구한 역사 속에 매 시대마다 끊임 없이 발생하는 시련을 딛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고자했던 위대한 선조들의 각고刻苦的 노력들이 스며있습니다. 그 중에도 선조先祖들의 정신이 담긴 각계의 수많은 유저遺著는 바로 문화의 기층基層을 헤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누구나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선생은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중심에 서서 공적으로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불철주야 군략軍略과 시정施政의 정책을 강구하기에 고심苦心하셨고, 사적으로는 육친에 대한 효제孝悌 정신의 실천을 삶의 근간으로 하였던 대유大儒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덕正德으로 일관했던 서애 선생의 생애는 바로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선생의 유학적儒學的 경륜에 의거한 훈도訓導와 퇴계의 문하에서 심화시킨 정·주리학程朱理學의 도학道學 사상이 선생의 생애를 마름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여서 30년 간의 입조入朝에서 거의 유례없는 승진陞進을 거듭할 때마다, 한결같이 직위는 초개草芥같이 여기시나 직분職分에는 오로지 ‘충忠’으로 일관하셨던 위대한 지도자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성이 진리를 궁구窮究하시는 학자적 면모를 지니셨던 터라, 국난國難의 중심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범국가적 고초와 개인의 애환을 文文과 시詩로 하나하나 남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니 사후에도 그 음덕蔭德이 하늘에 닿습니다. 별세하신 선친先親(휘諱 찬우

繼佑)께서는 1976년 12월 21일에 사단법인(社團法人)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를 발족시켜, 15년이 넘는 각고(刻苦) 끝에 1991년 서애 선생의 저술을 집대성하여, 『서애전서(西厓全書)』 4책(冊)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어, 본회에서는 서둘러 국역(國譯)작업을 시작했으나, 역시 『서애전서(西厓全書)』 간행(間行)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2001년에서야 전서(全書)의 일부를 간행(間行)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친은 완성 단계(段階)에서 별세(別世)하셨습니다. 그때 간행(間行)된 것은 ‘문부(文部)’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크게 두 종류(種類)로 분류(分類)하여 모두 7책(冊)이었습니다. 즉 제Ⅰ부는 『서애전서(西厓全書)·별저(別著)편(篇)』을 중심으로 총 5책(冊), 즉 ‘『징비록(懲毖錄)』·『근폭집(芹曝集)』·『진사록(辰巳錄Ⅰ)』·『진사록(辰巳錄Ⅱ)』·『군문등록(軍門謄錄)』’이고, 제Ⅱ부는 문집(文集)편(篇)의 본집(本集)·별집(別集)·속집(續集)을 대상으로 총 2책(冊), 즉 ‘『잡저(雜著)』와 『서書』’를 국역(國譯)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애전서(西厓全書) 일부가 국역(國譯)으로 간행(間行)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 서야 ‘시부(詩部)’의 국역(國譯)을 착수(착수)하게 되니, 미리 번역(번역)했던 국역(國譯)본 간행(間行)사에서 말씀(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계(學界)와 사림(士林)의 인사(인사)들에게 죄송(죄송)한 마음(마음) 그지(그지)없습니다. 역자(譯者)의 선정(選定) 및 기타(기타) 여러(여러) 사정(사정)으로 인하여(인하여), 본의(本意) 아니게 늦어(늦어)졌으니 너그러우신 양해(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이번)에 출간(출간)하는 시집(詩集)은 앞의 Ⅰ·Ⅱ부(부)의 후속(後續)편(篇)으로 출간(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Ⅰ·Ⅱ부(부)의 ‘문(文)’을 통해서(통해서) 보았던, 정치(政治)가 혹은 군략(軍略)가(軍略)로서의 서애(西厓) 선생(先生)의 지극(地極)한 뜻(뜻)과 의지(意志)가, 이번(이번)에 제Ⅲ부(部)의 ‘시(詩)’에서는 서애(西厓) 선생(先生) 인생(人生)의 면면(면면)에 대한(대한) 개인(個人)적인 감회(感懷)와 처세(處世) 및 철학(哲學)과 사상(思想) 등을 엿볼(엿볼) 수 있어(있어), 서애(西厓) 선생(先生)을 연구(연구)하거나 이해(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독자)들에게 보다 직접(직접)적인 느낌(느낌)을 줄(줄) 수 있을(있을) 것입니다.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수록(수록)된 시(詩)의 총수(總數)는 총 725제(題) 888수(首)입니다. 이의(이)의 구체(具體)적인 수량(수량)을 보면(보면),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권1) 간본(刊本)편(篇) 본집(本集) 권1(권1)에 120제(題) 168수(首) ; 역시(역시)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권1) 간본(刊本)편(篇)의 본집(本集) 권2(권2)

에 102제題 147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의 별집別集 권1에 152제題 167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 속집편續集篇에 301제題 355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 관화록觀化錄에 38제題 39수首 ; 기타 시에 12제題 12수首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 시를 국역함으로써 서애 선생 친필親筆의 전문집全文集의 국역이 완료되며 앞으로도 경향각지京鄕各地에 흩어져 있는 선생의 옥고玉稿가 발견되는 즉시 추가하여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역된 제1권의 시집은 총 120제題 168수首입니다. 이 시집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이어서 후속편을 계속하여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제Ⅲ부의 첫 권을 출간하고 보니, 선친의 서애 선생에 대한 숭모崇慕의 마음과 서애 선생의 아름다운 뜻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자 애쓰셨던 선친의 큰 뜻이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끝으로 본회에서 서애시집의 국역 및 감수監修의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각방으로 물색하던 중, 바로 서애 선생의 12대 후손이 되는 한시漢詩 전공에서만 30년 경력을 지닌 류명희柳明熙 교수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류교수의 부군夫君인 안유호安維鎬 선생 역시 유년 시절부터 한학漢學을 익혔고 대만臺灣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본 시집의 국역과 감수에 공동으로 참여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애시집의 국역을 염두에 두고 번역자의 물색에서부터 본 시의 국역에 대한 제작과 실무를 모두 맡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애선생기념사업회의 류영한柳永漢 이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사단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 이사장理事長

서애西厓 13대 후손 류진柳津 삼가 씀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률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 사전적 의미의 시이다. 이렇듯이 ‘서애 생
 존시에 서애 자신이 보고 느낀 자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
 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 준 서애 선생의 인생에 대해서 혹은 시문학
 적 감흥으로 혹은 유가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살신성인적 殺身成仁의 치
 세 治世 태도로써 민생과 외교 및 전란의 현장을 통해, 함축적이고도 운률
 적인 언어로 유감없이 표현해 낸 것’이 바로 ‘서애 시’이다. 따라서 서애
 시는 서애선생 개인의 세계이면서도 조선중기의 정치적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시사 詩史’와 다름없는 우리 모두의 근원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의 애환이 깃든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애 선생 개인에
 대한 면면을 시적 詩的으로 승화시킨 풍모 風貌를 감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다지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짝
 트기를 바란다.

역자 내외는 부족함이 많은 것을 자인하면서도 서애의 사상 詩想에 마
 음이 물결치는 감흥을 지울 길 없어, 감히 서애 시를 번역한 지 근 2년
 이 되었다. 하여 2011년에 『국역 류성룡 시』 권1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역자의 바탕이 천학 淺學하여 의욕만 앞섰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
 실이었고, 중간에는 번역상 오류도 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
 편하던 차에 마침 임진왜란 420주년을 맞아 서애 선생 405주기 대기일
 大忌日에 맞추어 추모행사를 거행함에 즈음하여, 본 시집을 중간 重刊하기

로 하였기에, 이 기회에 미진했던 부분을 개정改正하게 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회를 주신 서애선생기념사업회의 류진柳津 이사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그간 번역상 오류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유림의 원로이신 이헌조李憲祖 회장과 류동주柳東柱 전구청장께도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 이후로도 독자 제위諸位의 격의 없는 고견과 격려를 간절히 바란다. 이 개정판의 준비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류영한柳永漢 이사와 출판사 ‘한스북스’의 류한경柳漢京 사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년 5월

서애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삼가 씀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에서, 서애시의 국역자國譯者를 모색하던 중 우연히 서애의 후손인 이 사람을 찾아,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수록된 친필시를 모두 국역하라는 의뢰를 해왔다. 교직에 몸을 담은 지 30년이 다 되도록 이곳 부산에 정착하여,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면서 그저 ‘강단에서의 교학敎學’만도 늘 벅차게 여기며 신고辛苦해 온 터라, 적이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를 통해서 선조先祖이신 서애 선생에 대한 이해와 그 시적경계詩的境界를 체득體得하고 싶은 열망이 앞서 부족한 점은 많지만 감히 본 시집의 번역을 수락하게 되었다.

서애西厓 선생의 유시遺詩는 약 900수에 가깝다. 막상 작업을 시작해 보니, 선생의 일생이 특히 임란壬亂 당시에는 군정軍政의 최고책임자이면서 시정가施政家이고 정치가였던 터라, 관련 시詩와 해당 소서小序 중에는 역사적 정황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선생 자신이 퇴계의 고족제자高足弟子로 성리학性理學의 대가大家였던 터여서, 사유思惟의 바탕에 도학적道學的인 처세관이 짙게 깔려있어 선생의 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공력이 또한 상당한 수준을 요했다. 마침 남편이 유년시절부터 한학漢學을 익혔고, 더욱이 함께 대만에서 유학留學을 한데다가 역사와 시에 대해서 남다른 흥취를 가지고 있어, 이 국역작업에 합류를 했다. 그리하여 ‘인간 류성룡柳成龍’의 생애를 시로써 표현한 시사詩史나 다름없는 선생의 시적경계詩的境界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면서, 1차로 서애연보西厓年譜와 기타 관련 자료

들을 정리해 나갔다. 이러한 기초과정을 마치고 나서,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의 시부詩部를 열어서 구체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 여기에는 119개의 시제詩題에 166수首의 시가 들어 있으며, 또한 서애가 차운次韻한 명나라 관료 오중주吳仲周의 원시原詩, 1제題 2수首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도합 120제題 168수首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 내외는 시詩와 소서小序에 우선 구두점을 찍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각종 시어詩語 및 인물과 역사적 사건, 관련 전고典故 등에 하나하나 주석注釋을 다는 것으로 국역작업의 첫 삽을 떴다. 이에 소요된 시간이 만만치 않았으나, 이 과정을 끝내고 나니 혼연히 가슴이 트여졌다. 마침내 우리는 대망의 초벌 국역을 마치고 나서, 틈나는 대로 교정을 거듭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둘이서만 간직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이 생겼다. 아마도 『서애전서西厓全書』의 시를 모두 번역하고 나면 더욱 많은 에피소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날이 갈수록 서애西厓 선생의 시와 그의 인생역정人生歷程에 깊이 감화되었다. 이를테면 보국안민輔國安民에 대한 충정忠情과 육친에 대한 효제孝悌, 만유萬有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구도자求道者적인 정신경계가 하나하나 역자譯者를 감동하게 하였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서애 선생의 고매한 인품과 미덕美德을 표현한 ‘시적詩의 순간’들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순간으로 뚜렷하게 살아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쁜 일상이지만, 새벽시간 서애시西厓詩와 만나는 시간이면 언제나 제한된 시공時空을 벗어나는 여유와 함께, 난세亂世의 현자賢者가 보여준 대물대인對物對人 관계에서의 다양한 면면을 체득體得할 수 있어서 많이 행복했다. 그래서 역자가 감동한 서애 선생의 ‘시적詩의 순간’들이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구체적으로 감응될 수 있도록 ‘시적형상詩的形象’을 생생하게 국역國譯해 내려고 애를 썼다. 그럼에도 역자의 번역에 표현이 미흡하여 일부 오류가 있다면, 이는 역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니, 이 점은 각계各界 선생님

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기다린다. 그러나 감히 바라건데, 역자가 국역한 이 서애시西厓時가 주는 감동이 계기가 되어서, ‘독자들이 삶의 지표를 찾는 데, 그들의 인생사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데, 나아가서 건강하고 화목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데, 또한 그들의 가슴과 마음의 안뜰에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달리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동시에 후손으로서, 이렇게 예순이 넘어서야 서애 선생의 위인 됨을 깨닫게 된 것이 못내 부끄럽고 회한悔恨으로 남는다. ‘지금의 이 감동을 내 청년시절에 가질 수 있었다면, 분명히 오늘보다는 더 보람 있는 삶의 내실을 축적하였을 것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더욱 크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자성自省도 해본다.

끝으로 선친의 유지遺志를 이어서 『서애전서西厓全書』의 국역완간國譯完刊을 다시 기획하신 서애선생기념사업회 류진柳津 이사장의 큰 뜻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서애시의 원만한 출간을 위해 줄곧 막중한 사명감을 띠고 각별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동회同會의 류영한柳永漢 이사와, 본 시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정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지적과 배려를 끊임없이 보내주신 출판사 한스북스의 류한경柳漢京 사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0월

서애西厓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삼가 씀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河回里와 역자의 고향인 가곡동佳谷洞과는 불과 십리가 채 안 되는 거리의 이웃 마을이다. 어릴 때부터 명재상名宰相으로서의 선생의 업적과 덕목에 대해 익히 들어 알았고, 성장해서는 풍산豐山 류씨柳氏의 문객門客이 된 뒤 참으로 우연한 기회이지만 환갑還甲을 넘긴 나이에 평소 존경해왔던 선생의 유시遺詩를 번역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우둔한 머리에 배운 것마저 짧은 역자가 과연 선생의 뜻 깊은 한시漢詩를 제대로 번역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선생의 시심詩心을 읽고 싶은 욕망에 사전 한 번 더 찾겠다는 정성 하나로 마음을 다잡고 번역에 임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외는 번역어의 어휘 하나를 놓고 서로가 이것이 옳다고 열변을 토하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이었고, 이로 인해 사전과 한·중 고전자료를 거듭 찾아가며 근거를 제시한 후 겨우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다다르곤 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우리 내외의 모습에 미소 지으며 서애 선생께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삶의 형식이 다를 따름이지 그 내용면에서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시적詩的 정취도 마찬가지이리라. 일렁이는 물결 속에서 잠긴 달을 보며 심야深夜의 정취를 맛보고, 떨어지는 낙엽소리와 벌레의 울음소리에서 애잔한 아픔을 감촉感觸하고, 물가의 새싹과 매화의 꽃망울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환희를 느끼고,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세정世情의 아박함을 일깨우는 시심詩心들은 고금古今을 넘나든들 이에 대한 정

취가 달라지겠는가. 서애시西厓詩를 국역하면서 세파世波에 찌든 역자譯者의 마음이 즐곳 이런 다양한 시적정취 속을 소요하다보니 흠뻑 심신이 정화되어 도연명陶淵明의 시〈음주飲酒〉의 한 구절처럼 “떠들썩하게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짓고 사는데도(結廬在人境), 오히려 거마車馬가 지나가는 소리 들리지 않네(而無車馬喧)”라는 심경心境을 헤아려보게 된다.

선생의 시를 가까이하고부터 역자는 나무 앞에 서면 마음은 맑은 바람이 되고 싶고, 구름을 보면 삶을 되새기고, 화초 곁에 다가서면 따스한 봄별이 되고 싶었다. 도道가 무엇이고 시경詩境은 또 무엇이고 달관적 경지에 이른 인생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 순간 역자는 선생이 읊었던 각종 인사人事와 자연의 경계를 통해, 내 삶을 비춰볼 따름이다.

인류 역사에 어느 한 시대인들 태평성대만 있었던 적이 있었겠는가마는 서애 선생의 생존했던 시대만큼 왜적倭賊의 침략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 속에 신음한 적도 드물었다.

어찌 일일이 다 예를 들겠는가마는, 전령戰令을 받고 협곡을 지나던 중 소낙비를 맞고 도롱이 속에 빗물이 스며들어 온 몸이 축축해진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향해 “그대들을 어찌해야 하나”(시 78, 〈丹陽峽中遇雨〉)라고 탄식하고, 원군援軍인 명나라 군대의 전투마를 점검하며 약소국의 고관인 자신을 부끄러워했으며(시 75, 〈蘆棧途中贈李叔平〉), 전란지역 병사들의 잠자리를 걱정하며 “문노니 세상사를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시 83, 〈隨天將南下路, 經利川馬上偶吟示鄭從事和伯協〉)라고 한탄하였다. 이충무공李忠武公을 탄핵한 서애 자신의 문인이자 질서姪婿, 즉 백씨 겸암謙菴 류운용柳雲龍의 만사위인 김홍미金弘微에게는 “관리가 되어서 어찌 질책에 한을 품는가”라고 질타하고, “남은 인생 무사하기만 빌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꾸짖었다(시 85, 〈贈金參議昌遠弘微〉).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에게는 “도道を 깨우치면 내 마음이 바로 우주이니, 촌음寸陰이라도 아껴 쓰라” 일깨우고(시 50, 〈寄鄭內翰景任〉), 그 역경의 시대에서도 “정좌靜坐하

여 독서하는 그 맛이 으뜸이다”(시 46, 〈遠志亭〉)라고 읊어, 선생의 수도자 修道者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선생은 또한 ‘맹물만 마시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잘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달프게 할 수 없다’는 신념 하에서, ‘(백성이 살기 좋은) 건업建業 땅의 물맛이 (백성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의) 무창武昌 땅 물고기 맛보다 낫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고사故事를 인용해서 시를 읊기도 했다(시 54, 〈再過梅湖錄寄權景安〉). 이러한 시구詩句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두고두고 되새겨 봐야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애 선생은 언제나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자세로써 국난을 극복했으며, 또한 이러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정견政見과 정도正道로 세상을 다스렸던 충정忠情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길이길이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갈등을 부추기는 이념과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서애 선생이 본다면 무엇이라 표현할까! 선생의 시를 번역하면서 웃기를 바로 잡는다.

역자가 정성은 들였지만 배움의 바탕이 얇은 탓에 일부 오류의 발생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점은 독자 제위의 아낌없는 질정叱正을 바란다.

끝으로 옛 조상의 참뜻을 이해하여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바른 삶의 지침을 알리고자 본 시집의 발행을 기획하신 서애선생기념사업회 류진柳津 이사장의 대를 이은 큰 뜻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또한 연로하심에도 이 책의 순조로운 출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동회同會의 류영한柳永漢 이사와 출판 과정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교정을 해준 출판사 한스북스의 류한경柳漢京 사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0월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삼가 씀

『국역 류성룡 시』 권1은 하회本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의 시부詩部를 저본底本으로 한 것이다. 저자는 조선 중기 임란壬亂 시기에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문무文武를 겸비했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으로, 그의 생애 66년은 ‘충효’라는 두 글자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다. 타계하던 날(1607년 5월 6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월 12일에 자손들에게 써준 7언고시 유계遺戒(〈관화록觀化錄〉에 보임)의 결구結句에서, “권하노니 자손들이 반드시 삼가하여라(勉爾子孫須慎旃), 충효 밖에 달리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임을!(忠孝之外無事業)”이라는 유시遺詩를 남겼는데, 이는 선생의 평생의 뜻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애 선생은 임란壬亂 7년 전쟁(1592-1598)을 거의 전초 기간 동안 군정軍政의 최고책임자로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부친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훈도訓導 아래, 유학儒學의 길로 입문하여, 일찍부터 퇴계退溪의 문하에서 도학道學을 전수받았던 관계로 성리학性理學이 선생의 정치생애에서 사상적 기틀이 되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국사國事에서 언제나 내적으로는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서 바르게 가지고, 외적으로는 널리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 이른바 ‘주경궁리主敬窮理’ 하는 자세로써, 현실적인 문제를 극진하게 실천하는 구도자求道者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조정朝廷 안팎에서 접했던 국사國事的 시비곡직과 개인사의 희·비·애·락을 표명한 각종 주소

문奏疏文과 서한書翰 및 시문詩文 등에는 서애 선생의 구도적求道的 풍격과 정취가 흠뻑 배어있다. 그리하여 내용은 항상 덕화德化를 지향하고 문장은 언제나 조리가 정연하고 설득력이 강해서 선생의 시문詩文은 모두 마음을 씻어주는 ‘세심경洗心經’과 같아, 독자의 개안開眼을 도와준다. 그러면 아래에서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의 출판내력을 통해 이번에 간행하는 국역시집의 전모를 개관하고, 이어서 이번에 출간하고자 하는 국역시집의 편집체제와 본 국역시집에서 사용한 시체詩體 및 내용을 개괄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서애전서西厓全書』의 출판내력과 『국역 류성룡 시 I』의 전모全貌

서애 선생의 유저遺著가 최초로 간행된 것은 선생의 막내아들인 수암修巖 류진柳珍이 합천陔川 군수로 있을 때, 해인사에서 목각판으로 간행한 『서애집西厓集』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합천본陔川本이라고도 칭한다. 이는 선생이 타계한 지 26년이 지난, 1633년(인조仁祖 11)에 간행된 것으로 20권 11책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권1~2는 시詩, 권3~4는 주문奏文·소疏·차筭, 권5는 차筭, 권6은 서장書狀, 권7~8은 계사啓辭, 권9는 정문문文·서書, 권10~12는 서書, 권13~16은 잡저雜著, 권17은 서序·기記·논論·발跋, 권18은 발跋·진箋·명銘, 권19는 제문祭文·비갈碑碣, 권20은 묘지墓誌·행장行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현재 유통되는 『서애집西厓集』의 저본으로, 1958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본影印本) 『서애문집西厓文集』으로 간행되었고, 1977년에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번역한 『국역 서애집西厓集』도 바로 이 합천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간행한 문집총간 『서애집西厓集』 52와 1991년에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에서 간행한 『서애전서西厓全書』는 안동 하회,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간행하였기로 속칭 하회본

河回本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간행하는 『국역 서애시西厓詩』는 바로 서애 선생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한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 권1 시부詩部를 저본底本으로 한 것이다.

이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는 1976년에 창립한 서애선생기념사업회에서 전집간행을 기획하여, 15년만인 1991년에, 위의 중간본重刊本을 다시 확장하여 총 4권으로 된 『서애전서西厓全書』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는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충효당忠孝堂 안의 영모각永慕閣에 소장되어 있던 초고본, 왕조실록 등의 국사國史와 야사野史 및 당시 학자들의 문집에 수록된 시문詩文과 자료 등을 모두 모은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서애가 지은 『징비록懲毖錄』과 함께 임진왜란사를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료史料가 됨은 물론이고, 서애의 인생에 대한 개인사個人史적인 희비喜悲도 조명할 수 있는 서한書翰과 시문詩文 또한 망라되어 있다.

더구나 시는 서애가 일생동안 즐겨 썼던 문학의 한 갈래로, 서애 선생의 고족제자高足弟子이기도 했던 정경세鄭經世는 수암修巖이 간행한 『서애집西厓集』 속에 있는 서애행장西厓行狀에서, “평생 지은 시문詩文이 임진병화壬辰兵禍 때 없어졌으며, 이제 문집 10권과 신종록慎終錄·영모록永慕錄·징비록懲毖錄 등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平生詩文, 失於兵火, 今有文集十卷. 慎終錄, 喪禮考證, 永慕錄, 懲毖錄等書, 藏於家.)”고 한 것을 보면 이 책에 실은 시문詩文은 그가 지은 것 중의 일부이며, 많은 시문이 임진왜란 때 유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서애선생기념사업회에서 당시 풍산豐山 회장이었던 류찬우柳繼佑가 합친본 『서애집西厓集』을 저본으로 해서, 10여 년의 작업 끝에 증보增補하여 편찬한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의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서애전서西厓全書』는 총 4권으로 되어 있다. 권1은 간본편刊本篇이고, 권2는 속집편續集篇과 별저편別著篇으로 되어 있다. 권3에도 별저편別著篇(권2·권3)이 계속 이어져 있으며, 여기에 부록편附錄篇이 합본되어 있다.

권4에는 또한 추록편追錄篇과 사료편史料篇이 합본되어 있다. 위에서도 보았지만, 그간 서애에 관한 저서는 몇 종류가 발간됐으나, 모든 저술과 자료가 망라되기는 이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어서, 2001년 서애선생기념사업회에서 총 2부로 나누어서, 국역을 시도하였다. 제1부는 『서애전서西厓全書·별저편別著篇』을 중심으로 총 5책, 즉 『징비록懲毖錄』·『근폭집芹曝集』·『진사록辰巳錄Ⅰ』·『진사록辰巳錄Ⅱ』·『군문등록軍門謄錄』을 국역하였고, 제Ⅱ부는 문집편文集篇의 본집本集·별집別集·속집續集을 대상으로 총 2책, 즉 『잡저雜著』와 『서書』를 국역하였다. 이제 남은 부분은 〈연보年譜〉 3편과 시부詩部이다.

서애시와 관련한 국역출판은, 1977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행한 고전국역총서 중의 『서애집Ⅰ』에서 보인다. 여기에는 국역 서애시 20제제가 실려 있다. 이어서 2007년에 이정화李貞和 번역의 『서애시西厓詩』가 ‘시간의 물레’에서 출간되었는데, 서애시 100題를 엮어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서애선생기념사업회가 다시 『서애전서』의 국역사업을 기획함에 따라, 2001년에 이어서 ‘시부詩部’도 국역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본회가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실려 있는 시詩를 모두 국역 간행을 기획함에 따라, 2001년에 간행한 총 2부 7권으로 된 국역본을 이어서 이번 ‘서애 국역시西厓國譯詩’는 제Ⅲ부로 분류되었다. 지금부터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실려 있는 시의 전모全貌를 적시摘示하여 시제詩題의 수 및 시詩의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의 권1은 시부詩部로, 여기에는 119개의 시제詩題에 166수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서애가 차운次韻한 명명나라 관료 오중주吳仲周의 원시原詩, 1제題 2수首가 첨부되어 있어, 도합 120제題 168수首가 수록되어 있다.

2. 간본편刊本篇에 속하는 본집本集의 권2도 시부詩部인데, 102제題 147수수가 수록되어 있다.
3. 또한 간본편刊本篇이기는 하나, 본집本集이 아닌 별집別集의 권1에도 152제題 167수수가 수록되어 있다.
4. 서대전서西厓全書 권2, 속집편續集篇에는 무려 301제題 355수수가 수록되어 있다.
5. 서대전서西厓全書 권3, 별집편別集篇(속續)에는 서아가 와명 중에 제작하여, 직접 제호題號까지 ‘관화觀化’라고 명명한 <관화록觀化錄> 시집이 있다. 여기서 ‘관화觀化’란,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면(欲安靜), 자연의 조화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還造化)”는 뜻으로, 서애 만년의 ‘도학인道學人’로서의 경지를 엿볼 수 있는 제호題號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관화록觀化錄>에는 38제題 39수수가 수록되어 있다.
6. 기타 12제題 12수수가 있다.

위의 시를 전부 합계해보면, 724제題 886수수이다. 여기에 명명나라 관료, 오중주의 1제題 2수수까지 합하면, 총 725제題 888수수가 된다. 류진柳稔의 목판본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를 저본으로 거듭 중간重刊이 되면서, 이와 같이 오늘의 『서대전서西厓全書』라는 대총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니, 시부詩部の 측면에서도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간본편刊本篇인 본집 1, 2권에서는 총 221제題 312수수이던 것이 『서대전서西厓全書』에 와서는 무려 491제題 561수수가 증가되었으니 얼마나 괄목할만한 수량인가. 비록 임란壬亂 때 유실된 것이 많다고는 하나, 이 정도이면 ‘순간의 느낌을 포착한다’는 시적 특징에 의거하여 시를 볼 때, 본 시집은 서애의 인생에 대한 감수感受의 수많은 면면을 엿볼 수 있게 될 것이니, 서애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국역 류성룡 시』 권1의 편집체제

이번에 간행하게 된 『국역 류성룡 시 I』은 바로 위의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119제題 166수首이다. 본 시집의 체제는 대체로 작시作詩연대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중에는 작시作詩의 단서가 명기된 시임에도 약간의 출입의 여지도 있다. 일례로, 시 99번의 〈초천행朝天行〉은 저자의 소서小序에 의거하여, 작시作詩연대를 산출해 보면, 임진왜란(壬辰倭亂 : 1592년 : 서애 51세)이 발발하기 전인 48세(1589년) 때 작품인데, 임란 이후에 쓰인 작품 속에 편제되어 있다. 게다가 작시作詩의 단서가 없는 시들도 있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편집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대체로 작시作詩연대를 쫓아서 편집되어 있으니 감상할 때 참고하면 편리할 것이다.

3. 『국역 류성룡 시』 권1에서 사용한 시체詩體

본 시집에 사용된 시체詩體의 종류를 보면, 7언절구·7언율시·7언고시·5언절구·5언율시·5언고시·잡언체·초사체楚辭體·의고체擬古體·악부시樂府詩 등 무려 10종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시체詩體를 사용빈도수별로 보면, 7언절구가 전체의 1/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7언율시로서 전체의 1/4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5언율시가 1/5, 그 다음은 5언고시의 순으로 내려가고 있다. 기타 악부시樂府詩, 초사체楚辭體 및 의고체擬古體도 1~2 시제詩題씩 사용하고 있어, 그야말로 시의 전시체全詩體를 종횡무진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서애 선생이 즐겨 사용한 시체詩體는 단연 7언절구와 7언율시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5언율시이며, 다시 그 다음은 5언고시임을 알 수 있다. 시율詩律의 음악성을 가지고 보면, 7언구는 5언구에 비해서, 그 절구가 무거워서 사대부의 유장한 멋을 살리기에 족하고, 5언구는 상대적으로 경쾌한 민가民歌절주이기 때문에 소박한 서민의

정서를 부각시키기에 적합하다. 서애 선생이 사용한 시체詩體를 가지고 보면, 이것만으로도 서애 선생의 풍도風度와 정서를 짐작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선생의 내심의 저변에는 유가적儒家的 사대부의 중후한 멋스러움이 깊이 깔려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적 소박한 정서가 다분히 흐르고 있어, 내면정신의 향방方向이 균형의 미美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역 류성룡 시』 권1의 내용

본 국역시의 내용을 우선 표현방법의 하나인 서정시抒情詩와 진설시陳說詩로 분류한 다음, 다시 이를 제재題材별로 나누어서 개괄해 본다.

(1) 서정시抒情詩

이는 서애 선생 내재의 경험이나 순간의 느낌을 쓴 것들로, 주로 부친의 임지任地나 고향 방문길, 혹은 절기의 변화, 유적지를 지나거나 풍경 좋은 곳을 유람할 때, 입궐소환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나, 사직상소를 올리고 귀환할 때, 혹은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들을 애도하거나 혹은 옛 현자賢者를 꿈에서 만났을 때, 또는 이미 왕사往事가 되어버린 옛 일을 회고할 때나, 전란戰亂 중 크고 작은 경험의 현장에서 느끼는 순간의 감정, 또는 전란 이후 파직당하고 귀향할 때의 정경 및 퇴직 이후 정사精舍에서 느끼는 감회 등이 시의 소재가 되거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적소재들은 모두 서애 선생 개인 특유의 감정과 사물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경心境을 이끌어내는데 실질적인 서정抒情의 재료가 되었다. 이들 언정류言情類는 대체로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충·효·제忠孝悌

보국안민輔國安民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충정과 전란으로 동분서주하

면서 혹은 공무公務로 각지를 떠돌거나 계절과 인사人事의 무상無常함 앞에서, 성은聖恩과 사친思親에 대한 애뜻한 정의情意 등을 읊고 있다. 관련 시로는 <시 8> · <시 40 · 천생산성天生山城> · <시 40 · 자탄自歎> · <시 52 · 영모재永慕齋> · <시 54> · <시 59> · <시 64> · <시 65> · <시 69> · <시 77> · <시 78> · <시 80> · <시 82> · <시 83> · <시 87> · <시 97> · <시 102> · <시 103> · <105> · <시 106> · <시 108>¹⁾ 등이 있다.

② 학문과 도심道心 및 자성自省

자연을 바라보며, 혹은 정좌靜坐를 통해 도심道心を 닦고, 학문을 궁구窮究하는 열정을 보일 뿐 아니라, 생애를 돌아보면서 학문의 길을 방치하고 드눴었던 의기意氣를 저버린 것에 대한 자성自省 등을 읊고 있다. 관련 시로는 <시 30> · <시 33-3> · <시 40 · 회귀懷歸> · <시 42> · <시 45> · <시 46> · <시 48> · <시 52 · 연어현鳶魚軒> · <시 52 · 완심재玩心齋> · <시 52 · 삼정재三靜齋> · <시 52 · 양어지養魚池> · <시 52 · 초은대招隱臺> · <시 56> · <시 61> · <시 63> · <89> · <시 97> · <시 99> · <시 108> · <시 118> 등이 있다.

③ 인생과 생명의 유한성에서 오는 회한이나 번잡한 세상사에 대한 애통함

무상無常한 인생과 생자生者 불멸不滅에 대한 회한, 길어지는 전쟁과 병사들에 대한 고초, 변화난측한 세상사 등에 대한 애통함과 괴로움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관련 시로는 <시 3> · <시 22> · <시 32> · <시 33> ·

1) 선생의 이러한 충·효·제(忠孝悌)에 대한 지극한 마음은 연보(年譜)에는 아주 상세하게 보임.

〈시 40·야은묘治隱墓〉·〈시 42〉·〈시 65〉·〈시 66〉·〈시 83〉·
 〈시 87〉·〈시 88〉·〈시 96〉·〈시 102〉·〈시 103〉·〈시 104〉·
 〈시 106〉·〈시 110〉·〈시 118〉 등이 있다.

④ 고인古人에 대한 그리움과 애도

여기에서 고인古人이란, 주로 성리학자와 관련되는 인물들이 보인다. 중국인으로는 주희朱熹, 우리나라 인물로는 퇴계와 이언적李彦迪 등이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 1〉·〈시 3〉·〈시 7〉·〈시 9-1〉·〈시 22〉·〈시 23〉·〈시 34〉·〈시 38〉·〈시 86〉·〈시 112〉 등이 있다.

(2) 진설시陳說詩

선생 개인이 인생과 사물에 대하여 자신의 지향志向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선생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증답贈答으로 혹은 송별送別과 유별留別의 형식을 통해, 은연중에 진리나 오도적悟道的 경계 및 권계勸戒 등을 진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언지류言志類에 속하는 진설시陳說詩의 내용은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구도求道와 향학向學

여기에는 자신을 닦은 다음에 타인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에 대한 유가적 도道와 만상萬象의 법리法理를 인성人性으로 귀결시켜 진인眞人の 모습을 찾기 위한 향학向學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본 시에 나타나는 설리성說理性 언지言志에는 유·불·도儒佛道の 경계가 모두 보이고 있다. 하여서 선생의 생애는 유가적 충효의 근엄함과 성실함이 바탕을 이루면서도 도·불적道佛의 풍모와 도교적道教的 취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본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아마도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유교사상에도 불·도佛道 사상과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세상

을 피해서 숨는다(避世)²⁾는 은둔사상이 내재하고 있다. 서애 선생이 현실 참여에 적극성을 띄우는 유학적 특징을 보이다가도 언제나 직위에 연연하지 않는 도·불적道佛의 처세를 취하는 것은 이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선생의 30년 정치생애가 끊임없이 귀전歸田을 주청奏請하는 소문疏文과 이를 시詩로써 음송吟誦했던 것이 유저遺著에서 드러나고 있다. 유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으로, 선생의 이러한 면모는 바로 성인聖人の 도道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입장이 되지 못하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선생자신이 이를 실천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그 자리와 직위를 떠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도求道와 향학向學의 지향志向을 드러내는 언지류言志類의 시문詩文은 사물제재事物題材에서부터 특히 생활 속에서 주고받은 증답류贈答類나 각종 유형의 차운시류次韻詩類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관련 시로는 〈시 10〉·〈시 14〉·〈시 26〉·〈시 27〉·〈시 33-3〉·〈시 39〉·〈시 40·금오산金烏山〉·〈시 40·회귀懷歸〉·〈시 48〉·〈시 49〉·〈시 52·삼정재三靜齋〉·〈시 52·탄서천歎逝川〉·〈시 53-1〉·〈시 98-2〉·〈시 98-4〉·〈시 98-9〉·〈시 111〉·〈시 118〉·〈시 119〉 등이 보인다.

이외에도 화자話者와 청자聽者가 모두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성을 띤 증답시贈答詩나 혹은 각종 차운시次韻詩를 통해서도 구도적求道的 향학向學的 언지言志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시로는 〈시 19〉·〈시 29〉·〈시 31〉·〈시 37〉·〈시 39〉·〈시 47〉·〈시 50〉·〈시 51〉·〈시 58〉·〈시 60〉·〈시 84〉·〈시 90〉·〈시 91〉·〈시 92〉·〈시 95〉·〈시 114〉·〈시 115〉 등에서 보인다.

2) 『논어論語』 현문편憲問篇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子曰), 현명한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고(賢者避世), 그 다음으로 현명한 사람은 어지러운 지역을 피한다(其次避地)”라고 하였음.

② 시정施政의 어려움과 충정忠情 혹은 명성名聲의 무가치와 귀은歸隱

이는 곧 선생의 정치생애가 ‘청백리清白吏’의 대유大儒가 될 수밖에 없었던 관건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생애에서 본인이 처한 직위와 직분을 언제나 성인聖人の 도道에 의거해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면모와 이에 한 치라도 어긋나면 즉각 사직을 상소하여 귀전歸田을 주청하곤 했다. 관련 시로는 〈시 10〉·〈시 15〉·〈시 18〉·〈시 19〉·〈시 28〉·〈시 35〉·〈시 36〉·〈시 39〉·〈시 40〉·천생성天生城·〈시 40〉·자탄自歎·〈시 44〉·〈시 51〉·〈시 52〉·양어지養魚池·〈시 52〉·초은대招隱臺·〈시 55〉·〈시 62〉·〈시 67〉·〈시 68〉·〈시 71〉·〈시 72〉·〈시 73〉·〈시 74〉·〈시 75〉·〈시 76〉·〈시 85〉·〈시 86〉·〈시 93〉·〈시 98-2〉·〈시 98-3〉·〈시 98-4〉·〈시 98-6〉·〈시 98-7〉·〈시 98-8〉·〈시 98-9〉·〈시 98-10〉·〈시 100〉·〈시 101〉·〈시 111〉·〈시 113〉·〈시 117〉 등이 보인다.

③ 관리 혹은 개인으로서의 자성自省

이는 선생의 생애가 구도적求道的으로 일관되었음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충효를 으뜸으로 하는 대유大儒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 10〉·〈시 12〉·〈시 18〉·〈시 53〉·〈시 54〉·〈시 57〉·〈시 71〉·〈시 72〉·〈시 74〉·〈시 85〉·〈시 93〉·〈시 98-6〉·〈시 98-7〉·〈시 107〉·〈시 113〉 등이 있다.

④ 문인門人이나 지기知己, 유사有司에게 권계勸誡함

여기에는 주로 복잡다단한 인생사에 대처하는 자세를 일러주고 있다. 관련 시로는 〈시 12〉·〈시 16〉·〈시 29〉·〈시 41〉·〈시 50〉·〈시 76〉·〈시 81〉·〈시 98-5〉·〈시 116〉 등이 보인다.

이상의 내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언정시言情詩나 언지시言志詩 할 것 없이 대체로 그 기저에는 유가의 도덕적 관점과 성리학적性理學的 이법관理法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여 만물이 생명을 토해내는 봄이건, 만물이 쇠락하는 가을이건, 기쁘면 기쁘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세심적洗心的 정취가 많이 풍긴다. 그러면서도 인사상人事上에서는 국사國事와 주군主君을 위한 각고刻苦의 충정심과 가정家庭과 육친을 위한 효제심孝悌心 및 지기지우知己知友나 문도門徒들과 주고받은 각종 내용들이 때로는 입세入世의 관건이 되고 때로는 피세避世의 인자因子가 되는 것들로 선생의 세계관이나 처세법이 그 안에 여실히 보인다. 이 각기 서로 다른 시적 제재題材들은 대체로 선생의 세상에 대한 자세가 구도적求道的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선생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보인다. 그러므로 선생의 시는 사실 내용별로 분류를 한다 해도 결국 그 내용에 대한 사유思惟나 처리는 모두 성인聖人の 도道와 신유학新儒學的 이법理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적 변화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역시 다른 한 끝에는 복잡한 인생사에 대한 회한과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애통함을 달관하지 못한 인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쩌면, 바로 현상세계에서는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영구적일 수 없다는 ‘생자무상生者無常’이라는 이법理法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기에서 오는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을 감내하기 위해, 선생은 그렇게도 열심히 ‘안심법安心法’을 찾아내고자 구도적 자세를 취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은 정치가였으나, 어쩌면 학자 내지는 철학인의 성향이 더욱 강열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 하여서 선생의 시는 바로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 혹은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旅程)'을 보여주는 자감록(自監錄)의 성질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가로서 애국애민에 대한 충정과 또한 정치가의 생애를 살았기에 경험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들을 시의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기에, 시대성이 또한 강렬하게 묻어나고 있다. 하여서 선생의 시는 조선의 역사를 시로 대변한 시사(詩史)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2011년 10월

서애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1. 이 책의 국역 저본은 서애선생기념사업회의 간행본인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의 권1, 시부詩部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본 시집에서 시의 배열은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의 권1, 시부詩部の 목차에 준하였다. 이 목차의 순번에 따라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번역시 제목 앞에는 ‘시1, 시2……’ 식으로 표기하였고, 원시 제목 앞에는 ‘詩1, 詩2……’ 식으로 번호를 덧붙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이 번호의 색을 열게 표기하여, 한편으로는 시제詩題의 순서를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제목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3. 원시 제목에서는 방점을 찍지 아니하고 띄어쓰기만 했으며, 원시의 서문에서는 방점 처리를 하였다. 동시에, 원시와 이에 부속된 서문의 한문은 모두 한글 음을 달았다.
4. 시의 목차에서 ‘번역시 제목’은 왼쪽 페이지에, ‘원시제목原詩題目’은 오른쪽 페이지에 두었으며, 동시에 양자兩者를 동일 행에 나란히 안배하여, 역시譯詩와 원시原詩의 시제詩題를 대조해서 즉각 해당 시제詩題의 쪽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목차에서는 시제詩題를 단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속된 서문을 생략하였다.
6. 같은 시제詩題 아래, 2수 이상의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시原詩의 목차에 준하여 [1], [2] 등으로 표기하였다.

7. 시의 1구는 1행으로 적었으며, 1구가 끝나면서 압운押韻하는 곳은 ‘ 〃 ’로, 압운하지 않는 곳은 ‘ , ’로 표기했다.
8. 연대는 공동연대Common Era로 표시하되, 필요시엔 괄호를 열어 당시 제왕의 재임연수와 서애西厓 선생의 당시 나이를 모두 표기하였다.
9. 주석注釋에서 인물과 지명에 대한 소개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인물을 소개할 때는 원문에 기록된 성씨, 직함, 자字, 이름의 순으로 번역하고, 그 아래 ① 성명, ② 직함을 별도로 주석注釋하였다. 번역문에서는 현대식으로 자字나 직함을 앞에 쓰고, 성명을 뒤에 썼다.
10. 주석注釋에서 특히 지명地名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를 열고 오늘날의 위치로써 간주間註하였다.
인명·지명·서명書名 등, 중국관련 고유명사는 중국어 발음으로 표현해야 하나, 서애 선생이 작시作詩하던 시대적 상황과 한국의 한자문화권의 정서를 고려하여, 한국어 음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인명人名과 지명地名에 관해서 각종 사전을 인용한 것은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1. 주석에서 해당 주석의 의미가 여러 갈래일 경우엔 1차로 전각기호 ①, ② 등으로 표기했고, 다시 이의 하위단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를 사용했다.
12. 주석註釋은 가능하면 사전 없이 본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달았으며, 매 작품의 끝에 각주脚註하였다. 서애西厓 선생이 단 주석도 역자譯者가 다시 번호를 붙여 각주脚註하였다.
13. 역시譯詩의 제목과 시문詩文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현대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14. 부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 : ① 해당 단어에 대한 참고사항 및 연도 혹은 연도성 성격에 준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할 때 이 부호를 사용했다.

- ② 주석란에서 한문의 인용문을 번역할 경우, 직역하면 없는 말이지만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상 생략된 의미를 살려야 하는 경우, 이때의 간단한 표현어는 ‘()’로 묶었다.
- 2) 〈 〉 : ① 작품의 편명을 표기하였다.
 ② 주석란에서 한문의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에 번역문을 앞에 쓰고 원문은 ()로 묶어 뒤에 썼는데, 이때 앞에 쓴 번역문 중에서 한자어를 사용하여 독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 〉’로 묶어서 그 독음을 표기하였다.
 ③ () 안에 ()는 ‘〈 〉’로 표기하였다.
- 3) 『 』 : 책명을 표기하였다.
- 4)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었다.
- 5) ‘ ’ : 재인용이나 강조 부분을 묶었다.
15. 권말卷末부록으로 서에연보西涯年譜 초록抄錄과 찾아보기를 수록하였다.

 목 차

간행사刊行辭_ 5

개정판改正版을 내면서_ 8

역자 서설序說 1_ 10

역자 서설序說 2_ 13

해제解題_ 17

일러두기_ 31

- 시1. 옛 사람의 정의情意에 대한 그리움 1
- 시2. 봄날 정주定州공관에서 한거閑居 중에 우연히 쓰다 3
- 시3. 동림고성東林古城을 지나가면서 5
- 시4. 정관재靜觀齋에서 봄날의 느낌 6
- 시5. 한식寒食후 어느 날, 정주定州로 부친께 문후를 드리러 가는
길에 연서촌延曙村을 지나면서 마상馬上에서 우연히 읊다 7
- 시6. 세심대洗心臺에서 유람하다가 비를 만나다 9
- 시7. 꿈꾼 내용을 적다 10
- 시8. 가을날의 상념想念 15
- 시9. 회암晦庵 선생의 시 네 수에 차운次韻하다 17
- 시10. 벽을 뚫고 이웃집 불빛을 훔치다 21
- 시11. 오중주吳仲周의 시 두 수에 차운次韻하여 부치다 28

| | | |
|------|---|----|
| 詩1. | 古意 고 의 | 1 |
| 詩2. | 春日 定州公廡 閑居偶題 춘 일 정 주 공 해 안 기 우 제 | 3 |
| 詩3. | 過東林古城 과 동 립 고 성 | 5 |
| 詩4. | 靜觀齋 春日有感 정 관 재 춘 일 유 감 | 6 |
| 詩5. | 寒食後一日 歸觀定州 過延曙村 馬上偶吟 한 식 후 일 일 귀 관 정 주 과 연 서 촌 마 상 우 음 | 7 |
| 詩6. | 遊洗心臺 遇雨 유 세 심 대 우 우 | 9 |
| 詩7. | 記夢 기 몽 | 10 |
| 詩8. | 秋思 추 사 | 15 |
| 詩9. | 次晦庵先生韻 四首 차 회 암 선 생 윤 사 수 | 17 |
| 詩10. | 鑿壁 착 벽 | 21 |
| 詩11. | 次韻寄贈吳仲周 二首 차 윤 기 증 오 중 주 이 수 | 28 |

| | |
|---|----|
| 오중주吳仲周의 원시原詩를 첩부함 | 32 |
| 시12. 남행南行길에 서극부徐克夫를 유별留別하다 | 36 |
| 시13. 걸어서 강가로 나와 배를 타고 입암立巖으로 건너가, 점암정사謙巖精舍에서 묵다 | 39 |
| 시14. 흥취에 기탁하여 | 41 |
| 시15. 1578년 음력 8월, 내가 남행하는 길에 동호東湖에 위치한 몽뢰정夢癡亭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사인舍人 이경함李景涵 · 내한內翰 이경연李景淵 · 좌랑佐郎 이백생李伯生 · 정랑正郎 홍흥도洪興道 · 목사牧使 유사영俞思永 · 내한內翰 김자침金子瞻 · 참봉參奉 허행원許行員 및 그들 선비들의 친구인 권형숙權亨叔 · 감역監役 박대의朴大宜 · 참봉參奉 이굉중李宏仲 등과 동숙하고 나서, 이튿날 그들이 남쪽 강변에서 나를 송별하였고, 나는 시를 지어 그들을 유별留別하였다 | 43 |
| 시16. 풍악서원豐嶽書院 유사有司에게 고시告示하다 | 48 |
| 시17. 정사精舍에 매화가 피기 시작함에, 매화나무 주변을 거닐면서 시를 읊는데, 마침 시 한 수를 요구하는 승려가 있어, 창졸간에 한 수 지어서 증여하다 | 51 |
| 시18. 대시간大司諫으로 소환되어 (상경하는 길에) 문경聞慶에서 묵으면서 .. | 53 |
| 시19. 경운루慶雲樓에서 이효칙李孝則의 시에 차운次韻하다 | 55 |
| 시20. 명명나라 부사副使 왕경민王敬民의 시에 차운次韻하여 | 56 |
| 시21. 오중주吳仲周 시 두 수에 차운次韻하여 답으로 부치다 | 59 |
| 시22. 재미년 가을, 정사精舍에서 우연히 읊다 | 63 |
| 시23. 회재晦齋의 고택故宅을 바라보며 | 65 |
| 시24. 도산陶山 | 67 |
| 시25. 고옥古屋 | 69 |

| | | |
|------|---|----|
| | 附仲周元韻 | 32 |
| | <small>부 중 주 원 운</small> | |
| 詩12. | 南行 留別徐克夫 仁元 | 36 |
| | <small>남 행 유 별 서 곡 부 인 원</small> | |
| 詩13. | 步出河上 船渡立巖 宿謙巖精舍 | 39 |
| | <small>보 출 하 상 선 도 입 암 숙 겸 암 정 사</small> | |
| 詩14. | 寓興 | 41 |
| | <small>우 흥</small> | |
| 詩15. | 戊寅中秋 余南行 宿東湖之夢賚亭 李舍人景涵 | |
| | <small>무 인 중 추 여 남 행 숙 동 호 지 몽 회 정 이 사 인 경 함</small> | |
| | 李內翰景淵 李佐郎伯生 洪正郎興道 俞牧使思永 | |
| | <small>이 내 한 경 연 이 좌 랑 백 생 홍 정 랑 흥 도 유 목 사 사 영</small> | |
| | 金內翰子瞻 許參奉行員 暨士友 權亨叔 朴監役大宜 | |
| | <small>김 내 한 자瞻 허 참 봉 행 원 기 사 우 권 흥 숙 박 감 역 대 의</small> | |
| | 李參奉宏仲同宿 明日 送于南岸 余作詩留別 | 43 |
| | <small>이 참 봉 홍 중 동 숙 명 일 송 우 남 안 여 작 시 유 별</small> | |
| 詩16. | 示豐嶽書院有司 | 48 |
| | <small>시 풍 악 서 원 유 사</small> | |
| 詩17. | 精舍梅花始開 方繞樹行吟 適有求詩僧 造次寫贈 | 51 |
| | <small>정 사 매 화 시 개 방 요 수 행 음 적 유 구 시 승 조 차 사 증</small> | |
| 詩18. | 以大司諫被召 宿聞慶 | 53 |
| | <small>이 대 사 간 피 소 숙 문 경</small> | |
| 詩19. | 慶雲樓 次李孝則韻 | 55 |
| | <small>경 운 누 차 이 효 칙 운</small> | |
| 詩20. | 次副天使王敬民韻 | 56 |
| | <small>차 부 천 사 왕 경 민 운</small> | |
| 詩21. | 次韻寄答吳仲周 二首 | 59 |
| | <small>차 운 기 답 오 중 주 이 수</small> | |
| 詩22. | 癸未秋 精舍偶吟 | 63 |
| | <small>계 미 추 정 사 우 음</small> | |
| 詩23. | 望晦齋舊居 | 65 |
| | <small>망 회 재 구 거</small> | |
| 詩24. | 陶山 | 67 |
| | <small>도 산</small> | |
| 詩25. | 古屋 | 69 |
| | <small>고 옥</small> | |

- 시26. 이른 봄, 원지정사遠志精舍에서 강변 모래사장으로 걸어
나왔다가 우연히 시적 영감을 얻어서 71
- 시27. 서당書堂 터를 선정하고 나서 승려와 복사나무
일만 그루를 심기로 하다 72
- 시28. 병술년 봄에 문경聞慶에서 묵으면서, 현감 허행원許行遠과
밤에 담화를 나누었다. 이튿날 행원은 옥산玉山 계곡
근처까지 따라 나와 전송해 주었다. 율시律詩 한 수로써
작별을 고한다 73
- 시29. 인동현仁同縣에 계시는 어머님께 문안드리고 남계정사에서
『주역周易』을 강설講說하려고 먼저 정사精舍의 학생들에게
시 한 수를 지어 부치다 76
- 시30. 정사精舍에서 만년晩年の 흥취 79
- 시31. 밤에 노랫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 와서 우연히 고체시古體詩
한 수를 지었기에, 날이 밝으면 학문을 닦는 제생諸生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81
- 시32. 유월 초아흐렛날, 북쪽 강가에서 배를 타고 놀던 중에
뇌우雷雨를 만나다 83
- 시33. 연좌루燕坐樓에서 가을날의 적막하고 처량한 생각을 읊은
시 세 수 85
- 시34.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의 별세를 애도하다 88
- 시35. 입궐하라는 명을 받고 용추龍湫폭포에 이르러 홀연히
두견새 소리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 90
- 시36. 옥연서당玉淵書堂에서 재미삼아 짓다 91
- 시37. 장난삼아 선어시禪語詩를 지어 승려 홍정弘靖에게 주다 93
- 시38. 옥연서당玉淵書堂에서 퇴계 선생退溪先生의 시에
차운次韻하여 벽에 쓰다 95

| | | |
|------|-------------------------------------|----|
| 詩26. | 早春自遠志精舍步出江沙偶得 | 71 |
| | <small>조춘 자원지정사 보출강사 우득</small> | |
| 詩27. | 卜得書堂與僧約將栽桃萬株 | 72 |
| | <small>복득서당 여승약장재도만주</small> | |
| 詩28. | 丙戌春宿聞慶與縣監許行遠夜話明日 | |
| | <small>병술춘숙문경여현감허행원야화명일</small> | |
| | 行遠追送於玉山溪邊以一律敘別 | 73 |
| | <small>행원추송어옥산계변이일률서별</small> | |
| 詩29. | 省覲仁同將讀易于南溪精舍先寄精舍諸生 | 76 |
| | <small>성근인동장독역우남계정사선기정사제생</small> | |
| 詩30. | 精舍晚興 | 79 |
| | <small>정사만흥</small> | |
| 詩31. | 夜聞歌聲渡江而來偶作古詩明日寄讀書諸君子 | 81 |
| | <small>야문가성도강이래우작고시명일기독서제군자</small> | |
| 詩32. | 六月九日北潭舟中遇雷雨 | 83 |
| | <small>유월구일북담주중우뢰우</small> | |
| 詩33. | 燕坐樓秋思三首 | 85 |
| | <small>연좌루추사삼수</small> | |
| 詩34. | 輓具栢潭鳳齡 | 88 |
| | <small>만구백담봉령</small> | |
| 詩35. | 承召到龍湫忽聞杜鵑聲有感 | 90 |
| | <small>승소도용추홍문두견성유감</small> | |
| 詩36. | 玉淵書堂戲題 | 91 |
| | <small>옥연서당희제</small> | |
| 詩37. | 戲作禪語贈僧弘靖 | 93 |
| | <small>희작선어증승홍정</small> | |
| 詩38. | 玉淵書堂次退溪先生韻書壁上 | 95 |
| | <small>옥연서당차퇴계선생운서벽상</small> | |

| | |
|---|-----|
| 시39. 감실龕室을 시제詩題로 쓰다 | 98 |
| 시40. 인동현仁同縣 서헌西軒의 열 가지 절경絶景 | 99 |
| 시41. 정경임鄭景任의 두 수 시에 차운次韻하여 답장으로 부치다 .. | 107 |
| 시42. 가을 밤 빛속에서 느끼다 | 111 |
| 시43. 강가에서 손님을 진송하며 | 113 |
| 시44. 세상사世上事를 느끼다 | 114 |
| 시45. 보허대步虛臺 | 116 |
| 시46. 원지정遠志亭 | 118 |
| 시47. 인동현仁同縣 관사官舍에서 시를 읊어 성우聖遇 여대로呂大老에게 보내다 | 119 |
| 시48. 남계정사南溪精舍에서 밤에 좌정坐定하여 | 121 |
| 시49. 우연히 읊다 | 122 |
| 시50. 내한內翰 정경임鄭景任에게 부치다 | 124 |
| 시51. 한거閑居 중에 감회가 생겨, 청성산靑城山에 은거하는 교분이 두터운 벗인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에게 써서 드리다 | 127 |
| 시52. 남계정사南溪精舍의 12절경絶景 | 129 |
| 시53. 무제無題 두 수 | 139 |
| 시54. 다시 매호梅湖를 들렀다가 권경안權景安에게 써서 부치다 .. | 141 |
| 시55. 원지정사遠志精舍 정원의 화초를 쓰다 | 143 |
| 시56. 벗의 초당草堂을 시제詩題로 하다 | 147 |
| 시57. 김미백金美伯군과 김회중金晦仲군, 그리고 권손행權巽行군 등이 찾아 왔길래,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읊어 써 주다 ... | 148 |

| | | |
|------|---|-----|
| 詩39. | 題書龕 제 서 곶 | 98 |
| 詩40. | 仁同西軒十絕 인 동 서 현 십 절 | 99 |
| 詩41. | 次韻寄答鄭景任二首 차 운 기 답 경 경 인 이 수 | 107 |
| 詩42. | 秋夜雨中有感 추 야 우 중 유 감 | 111 |
| 詩43. | 江上送客 강 상 송 객 | 113 |
| 詩44. | 感事 감 사 | 114 |
| 詩45. | 步虛臺 보 허 대 | 116 |
| 詩46. | 遠志亭 원 지 정 | 118 |
| 詩47. | 仁同縣齋吟贈呂聖遇大老 인 동 현 재 음 증 여 성 우 대 로 | 119 |
| 詩48. | 南溪精舍夜坐 남 계 정 사 야 좌 | 121 |
| 詩49. | 偶詠 우 영 | 122 |
| 詩50. | 寄鄭內翰景任 기 정 내 한 경 인 | 124 |
| 詩51. | 齋居有懷錄呈青城道契權章仲好文 재 기 유 회 녹 정 청 성 도 계 권 장 중 호 문 | 127 |
| 詩52. | 南溪精舍十二絕 남 계 정 사 십 이 절 | 129 |
| 詩53. | 無題二首 무 제 이 수 | 139 |
| 詩54. | 再過梅湖錄寄權景安 재 과 매 호 녹 기 권 경 안 | 141 |
| 詩55. | 遠志精舍記花 원 지 정 사 기 화 | 143 |
| 詩56. | 題友人草堂 제 유 인 초 당 | 147 |
| 詩57. | 金美伯晦仲及權生巽行來訪偶吟書贈 김 미 백 회 중 음 권 생 순 행 리 방 우 음 시 증 | 148 |

| | |
|---|-----|
| 시58. 승려 축軸에게 시 두 수를 써 주다 | 150 |
| 시59. 봄날에 집이 생각나서 | 153 |
| 시60. 산승山僧에게 주다 | 154 |
| 시61. 연좌루燕坐樓에서 쓰다 | 156 |
| 시62. 『퇴도선생문집退陶先生文集』에 이백李白의 〈자극궁紫極宮〉 시를 차운次韻한 것이 있어, 삼가 그 시의 운자韻字에 맞추어 회포를 기탁하였는데, 이날 밤 꿈에 선생을 뵈다 .. | 158 |
| 시63. 달밤에 서당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 | 162 |
| 시64. 먼 곳의 사람을 그리워하며 | 164 |
| 시65. 청풍현淸風縣의 한벽루寒碧樓에 묵으면서 | 166 |
| 시66. 재미삼아 벽에 써 보다 | 173 |
| 시67.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눈을 만나서 읊은 시 두 수 | 175 |
| 시68. 파사성婆娑城에서 승병장僧兵將 의엄義嚴 장로長老에게 써서 주다 | 178 |
| 시69. 휴가를 얻어 대부인(大夫人 : 모친)을 뵈려고 남쪽으로 귀향하는 도중, 파사성婆娑城에 숙박하면서 | 182 |
| 시70. 앞의 시운詩韻에 차운한 시를 파사성婆娑城 성주城主에게 주다 | 184 |
| 시71. 광주(廣州 : 경기도 동남부)로 가는 도중에 느낌이 있어 | 186 |
| 시72. 파사성婆娑城에서 좌랑佐郎 정경임鄭景任에게 이 시를 부쳤는데, 이때는 경임景任이 방수순심어사防守巡審御使로 남하할 즈음이었다 | 189 |
| 시73. 여주驪州로 가는 도중에, 다시 앞 시의 운자韻字에 화운和韻하여 경임景任에게 보여주다 | 191 |

| | | |
|------|---|-----|
| 詩58. | 書僧軸 二首 <small>서 승 축 이 수</small> | 150 |
| 詩59. | 春日思家 <small>춘 일 사 가</small> | 153 |
| 詩60. | 贈僧 <small>증 승</small> | 154 |
| 詩61. | 題燕坐樓 <small>제 연 좌 루</small> | 156 |
| 詩62. | 退陶先生集中 有次李白紫極宮詩 謹步韻寄懷 <small>퇴 도 선 생 집 중 유 차 이 백 자 극 궁 시 근 보 운 기 회</small> 是夜夢見先生 <small>시 야 몽 견 선 생</small> | 158 |
| 詩63. | 月夜書堂有感 <small>월 야 서 당 유 감</small> | 162 |
| 詩64. | 遠思 <small>원 사</small> | 164 |
| 詩65. | 宿清風寒碧樓 <small>숙 청 풍 한 벽 루</small> | 166 |
| 詩66. | 戲題壁上 <small>희 제 벽 상</small> | 173 |
| 詩67. | 南漢山城遇雪 二首 <small>남 한 산 성 우 설 이 수</small> | 175 |
| 詩68. | 婆娑城書贈義嚴長老 <small>파 사 성 서 증 의 엄 장 노</small> | 178 |
| 詩69. | 乞暇省親南歸宿婆娑城 <small>걸 가 심 친 남 귀 숙 파 사 성</small> | 182 |
| 詩70. | 次前韻贈婆娑主 <small>차 전 운 증 파 사 주</small> | 184 |
| 詩71. | 廣州途中有感 <small>광 주 도 중 유 감</small> | 186 |
| 詩72. | 婆娑城寄鄭佐郎景任 時景任以防守巡審御使 <small>파 사 성 기 정 좌 랑 경 임 시 경 임 이 방 수 순 심 어 사</small> 南下 <small>남 하</small> | 189 |
| 詩73. | 驪州途中再和前韻示景任 <small>려 주 도 중 재 화 전 운 시 경 임</small> | 191 |

| | | |
|------|--|-----|
| 시74. | 금탄金灘으로 가는 도중에 경임景任에게 지어 주다 | 193 |
| 시75. | 갈대숲이 우거진 잔교棧橋를 지나는 도중에 이숙평李叔平에게 지어주다 | 196 |
| 시76. | 정경임鄭景任에게 부치다 | 198 |
| 시77. | 안동安東(경북 북부)에서 경성京城으로 돌아오리는 부름을 재촉 받고, 단양丹陽(충북 북부)에 도착해서 비에 막혀, 하루를 지체하면서 | 200 |
| 시78. | 단양丹陽(충북 북부) 협곡에서 비를 만나서 | 202 |
| 시79. | 서극부徐克夫가 춘천부사春川府使로 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 | 204 |
| 시80. | 가을밤에 기러기 소리 듣고 고향이 그리워서 | 206 |
| 시81. | 이숙재李叔載가 남쪽으로 귀향하는 것을 전송하면서 | 207 |
| 시82. | 안산安山(경기도 서남부) 가는 도중에 느낌이 있어서 | 209 |
| 시83. | 명명나라 장수를 수행隨行하여 남하하다가 이천利川(경기도 동남부)을 경유하면서, 마상馬上에서 얼핏 떠오르는 시상詩想을 읊어서 정협鄭協 종사관從事官에게 보여주다 | 211 |
| 시84. | 운암雲巖 골짜기 바위에 시詩를 쓰다 | 213 |
| 시85. | 김홍미金弘微 참의參議에게 써서 주다 | 216 |
| 시86. | 희지希之 김대현金大賢 선친의 시집에 써주다 | 218 |
| 시87. | 무술년戊戌年 겨울에 관직에서 파직되어 전원으로 돌아가는데, 도미협渡迷峽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서울 부근 산을 바라보며, 네 번 절을 올린 후에 떠났다. 대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한양의 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222 |
| 시88. | 단양행丹陽行 | 224 |
| 시89. | 도심산재道心山齋에서 밤에 누워서 빗소리 듣다 | 228 |

| | | |
|------|--|-----|
| 詩74. | 金灘路中 贈景任 | 193 |
| | <small>금한로중 증경임</small> | |
| 詩75. | 蘆棧途中 贈李叔平 | 196 |
| | <small>노찬도중 증이숙평</small> | |
| 詩76. | 寄鄭景任 | 198 |
| | <small>기정경임</small> | |
| 詩77. | 自安東承催召還京 到丹陽阻雨 留一日 | 200 |
| | <small>자안동승취소환경 도단양조우 유일일</small> | |
| 詩78. | 丹陽峽中 遇雨 | 202 |
| | <small>단양협중 우우</small> | |
| 詩79. | 送徐克夫 出宰春川 | 204 |
| | <small>송서극부 출재춘천</small> | |
| 詩80. | 秋夜聞鴈 思鄉 | 206 |
| | <small>추야문안 사향</small> | |
| 詩81. | 送李叔載南歸 | 207 |
| | <small>송이숙재남귀</small> | |
| 詩82. | 安山途中 有感 | 209 |
| | <small>안산도중 유감</small> | |
| 詩83. | 隨天將南下 路經利川 馬上偶吟 示鄭從事和伯協 | 211 |
| | <small>수천장남하 로경이천 마상우음 시정종사화백협</small> | |
| 詩84. | 題雲巖石上 | 213 |
| | <small>제운암석상</small> | |
| 詩85. | 贈金參議昌遠 弘微 | 216 |
| | <small>증김참의창원 홍미</small> | |
| 詩86. | 書金希之大賢先人詩卷 | 218 |
| | <small>서김희지대현선인시권</small> | |
| 詩87. | 戊戌冬罷官歸田 到渡迷峽 下馬望京山 四拜而行 | 222 |
| | <small>무술동파관귀전 도도미협 하마망경산 사배이행</small> | |
| | 蓋過此則不復見京山故也 | |
| | <small>개과차칙불부견경산고야</small> | |
| 詩88. | 丹陽行 | 224 |
| | <small>단양행</small> | |
| 詩89. | 道心山齋 夜臥聞雨 | 228 |
| | <small>도심산재 야와문우</small> | |

| | |
|--|-----|
| 시90. 술잎을 복용하고 나서 재미삼아 써 보다 | 229 |
| 시91. 도심리道心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민가民家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시상詩想을 적다 | 230 |
| 시92. 재차 승려 학기學己 시집에 차운次韻하다 | 232 |
| 시93. 왕도王導를 읊다 | 236 |
| 시94. 승려 태운太雲에게 써 주다 | 244 |
| 시95. 승려 경천擎天에게 써서 주다 | 246 |
| 시96. 강변에 비가 내리더니 | 250 |
| 시97. 한가하게 독거獨居 중에 느낀 감회 | 251 |
| 시98. 의고시擬古詩 열 수 | 256 |
| 시99. 조천행朝天行 | 276 |
| 시100. 황하곡黃河曲 | 285 |
| 시101. 한강음漢江吟 | 288 |
| 시102. 하회河回 마을에 찾아온 벗이 있어, 여러 해 동안 만나보지 못한 사이, 온통 백발이 성성해졌기에 | 291 |
| 시103. 시골에서 어느 가을날 감상에 젖어 들어 | 293 |
| 시104. 초아흐렛날 높은 곳에 올라서 | 295 |
| 시105. 재사齋寺의 벽에 써 붙였던 구제시舊題詩의 운자韻字에 차운次韻하다 | 297 |
| 시106. 가을 어느 날, 감회感懷를 써서 생질甥姪 이찬李燦에게 보여 주다 | 300 |
| 시107. 국화를 읊다 | 302 |
| 시108. 백씨伯氏의 시운詩韻에 차운次韻하다 | 305 |

| | | |
|-------|---|-----|
| 詩90. | 服松葉 戲題 | 229 |
| | <small>복 송 업 희 제</small> | |
| 詩91. | 寓居道心里 民家偶題 | 230 |
| | <small>우 기 도 심 리 민 가 우 제</small> | |
| 詩92. | 重次學己上人詩卷韻 | 232 |
| | <small>중 차 학 기 상 인 시 권 운</small> | |
| 詩93. | 詠王導 | 236 |
| | <small>영 왕 도</small> | |
| 詩94. | 書贈僧太雲 | 244 |
| | <small>서 증 승 태 운</small> | |
| 詩95. | 贈僧擎天 | 246 |
| | <small>증 승 경 천</small> | |
| 詩96. | 江雨 | 250 |
| | <small>강 우</small> | |
| 詩97. | 閒居感懷 | 251 |
| | <small>한 기 감 회</small> | |
| 詩98. | 擬古 十首 | 256 |
| | <small>의 고 십 수</small> | |
| 詩99. | 朝天行 | 276 |
| | <small>조 천 행</small> | |
| 詩100. | 黃河曲 | 285 |
| | <small>황 하 곡</small> | |
| 詩101. | 漢江吟 | 288 |
| | <small>한 강 음</small> | |
| 詩102. | 河上有友人來訪 不見數年 鬚髮盡白 | 291 |
| | <small>하 상 유 우 인 래 방 불 견 수 년 수 발盡 백</small> | |
| 詩103. | 村居 秋日有感 | 293 |
| | <small>촌 기 추 일 유 감</small> | |
| 詩104. | 九日登高 | 295 |
| | <small>구 일 등 고</small> | |
| 詩105. | 次齋寺壁間舊題韻 | 297 |
| | <small>차 재 사 벽 간 구 제 운</small> | |
| 詩106. | 秋日書懷 示李甥燦 | 300 |
| | <small>추 일 서 회 시 이 생 찬</small> | |
| 詩107. | 詠菊 | 302 |
| | <small>영菊</small> | |
| 詩108. | 次伯氏韻 | 305 |
| | <small>차 백 씨 운</small> | |

| | |
|---|-----|
| 시109. 농 삼아 지은 시 | 306 |
| 시110. 기해년 선달 그믐날 밤에 감회가 있어 우연히 쓰다 | 308 |
| 시111. 닭이 첫 회째 회 울음을 우네 | 311 |
| 시112. 복숭아나무 베개에 대해 쓰다 | 315 |
| 시113. 사월 초이튿날 거센 바람이 불어서 | 317 |
| 시114. 한거 <small>閑居</small> 중에 우연히 삼가 퇴계 선생 <small>退溪先生</small> 시의 운자 <small>韻字</small> 로써 화답 <small>和答</small> 하여 지은 시를 정경임 <small>鄭景任</small> 에게 부치다 | 321 |
| 시115. 이정 <small>而靜</small> 김윤안 <small>金允安</small> 과 사열 <small>士悅</small> 김태 <small>金兌</small> 에게 시 네 수를 지어 부치다 | 324 |
| 시116. 구름에게 묻다 | 328 |
| 시117. 옥연서당 <small>玉淵書堂</small> 에서 거닐다가 노두 <small>(老杜 : 두보杜甫)</small> 의 시詩 〈곡강배음 <small>曲江陪飲</small> 〉의 운자 <small>韻字</small> 에 차운 <small>次韻</small> 하여 | 330 |
| 시118. 여름날 한거 <small>閑居</small> 중에 느낀 바를 쓰다 | 333 |
| 시119. 도서 <small>道書</small> 를 읽다 | 338 |

| | | |
|-------|---|-----|
| 詩109. | 戲書 <small>희서</small> | 306 |
| 詩110. | 己亥除夜有感偶書 <small>기해제야유감우서</small> | 308 |
| 詩111. | 鷄一呼 <small>계일호</small> | 311 |
| 詩112. | 書桃枕 <small>서도침</small> | 315 |
| 詩113. | 四月二日大風 <small>사월이일대풍</small> | 317 |
| 詩114. | 齋居偶奉和退溪先生韻寄鄭景任 <small>재거우봉화퇴계선생운기정경임</small> | 321 |
| 詩115. | 寄金而靜允安金士悅兌四首 <small>기금이정윤안김사열대사수</small> | 324 |
| 詩116. | 問雲 <small>문운</small> | 328 |
| 詩117. | 遊玉淵次老杜曲江陪飲韻 <small>유옥연차노두곡강배음운</small> | 330 |
| 詩118. | 夏日閒居書懷 <small>하일한기서회</small> | 333 |
| 詩119. | 讀道書 <small>독도서</small> | 338 |

부록附錄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_ 343

찾아보기 _ 375

시1. 옛 사람의 정의情意에 대한 그리움

(병인년丙寅年 : 1566년, 명종明宗 21년, 서애西厓 25세)

詩1. 古意 丙寅 의 丙寅



桂樹生高岡, 계수나무는 높직한 산마루에서 자라고,
幽蘭在空谷。 그윽한 난초는 한적한 계곡에서 성장하네.
碧幹困藤羅, 푸른 산뽕나무줄기 등 넝쿨에 얽히고,
芳心¹⁾蔽荊棘。 향기로운 꽃술은 가시나무에 가려졌네.
我欲往採之, 내가 가서 그 꽃송이를 따다가,
遠寄長相憶。 멀리 부치고 싶네 늘 잊지 못하는 마음음.
王孫²⁾去不返, 왕손王孫은 떠나더니 돌아오지 않고,

1) 방심(芳心) : ① 꽃술. ② 미인의 마음, 심경(心境).

2) 왕손(王孫) : 『초사(楚辭)·초은사(招隱士)』에 “은자는 심산에 심취되어 돌아오지 않는데(王孫有兮不歸), 어느덧 봄풀이 무성하게 자랐네(春草生兮萋萋)”라고 읊었는데, 여기서 왕손은 고대 귀족의 통칭임. 제왕의 자손을 가리키기도 함. 주희(朱熹 : 1130-1200, 송대 유학자)의 『초사집주(楚辭集注)』에서는 “굴원(屈原)은 초나라의 국성(國姓)과 동일하여(原與楚同姓), 왕손이라 칭하였다(故云王孫)”고 하였음. 여기서는 굴원(屈原)을 칭한 것으로

楚客³⁾無消息。 초객楚客은 아무런 소식도 없네.
초 객 무 소 식

竟歲⁴⁾人不識, 일 년 내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경 세 인 불 식

清香徒⁵⁾馥郁⁶⁾。 맑은 향기 부질없이 물씬 풍기네.
청 향 도 복 옥

보임.

- 3) 초객(楚客) : 초나라 굴원이 조정에서 추방된 뒤 읊은 『초사(楚辭)·어부사(漁父詞)』에서 유래한 말로서, ① 굴원(屈原)을 가리킴. 굴원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비방(誹謗)을 받고, 추방되어 타향을 유랑했기에 ‘초객(楚客)’이라고 불렀음. ② 일반적으로 타향살이 하는 사람을 가리킴.
- 4) 경세(竟歲) : 일 년 내내.
- 5) 도(徒) : ① 경(竟)과 같은 의미로 ‘뜻밖에도, 의외로, 마침내’의 뜻이 있음. ② 도연(徒然)과 같은 의미로 ‘공연허, 부질없이’의 뜻이 있음. ③ 단(但)과 같은 의미로, ‘단지, 다만’의 뜻이 있음.
- 6) 복옥(馥郁) : ① 향기가 농후(濃厚)함을 형용한 말. ② 짙은 향기를 가리킴.

시2. 봄날 정주^{定州} 공관에서 한거^{閑居} 중에 우연히 쓰다

詩2. 春日 定州¹⁾ 公廨 閑居偶題²⁾
춘 일 정 주 공 해 한 거 우 제



重門³⁾深鎖獨棲遲, 중문^{重門}까지 닫아걸고 홀로 쉬고 있는데,
중 문 심 쇠 독 서 지

靜裏幽懷只自知。 고요 속에 묻어뒀던 정감^{情感} 절로 알게 됐네.
정 리 유 회 지 자 지

1) 정주(定州) : 지금의 평안북도 서부에 위치한 구성군(龜城郡)의 옛 이름.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당시 서애(西厓)는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이 정주목사(定州牧使)로 갈 때 부친을 모시고 갔다가 여름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아마도 본 시는 그 당시(명종·명종 21년 : 1566년, 서애 25세)의 작품이 아닌가 추정됨.

① 류중영(柳仲郢 : 1515-1573) :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언우(彦遇), 호는 입암(立巖). 아버지는 간성군수 공작(公緯)이며, 어머니는 이조참의로 추증(追贈)된 이형례(李亨禮)의 딸임. 선조 때의 영의정 성룡(成龍)의 아버지임. 1540년(중종 3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지성균교수(知成均教授)가 되었음. 이어 황주·상주·양주·안동의 훈도(訓導)를 역임하면서 지방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음. 1546(명종 1) 양현고직장(養賢庫直長)을 겸하였으며, 이듬해 박사가 되었으나 파직되었음. 1549년에 전직·감찰·공조좌랑을 거쳐, 1553년에는 장령·사복시정·사간·장악원정이 되었음. 이듬해 의주목사로 나가 국경지방의 밀수행위를 조질하고 생산을 권장하여 크게 치적이 있었음. 1564년에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민폐를 제거하고 교육을 진흥하는 등 선정으로 알려졌음. 1560년에 정주목사로 부임해서도 교육의 진흥과 민생의 안정에 힘썼음. 1572년(선조 5)에 승지를 거쳐 예조참의·경연관 등을 역임하였음. 친성이 충신(忠信)스러우며 모든 일에 성의를 다하고 대소공사에는 힘을 다하며, 명예와 지위에 뜻을 두지 않았음. 저서로는 『입암집(立巖集)』이 있음. 이상은 『한국인물대사전』에서 인용하였음.

2) 공해(公廨) : 공청(公廳)이라고도 하며, 공무를 처리하는 공관(公館)을 말함.

3) 중문(重門) : 대문 안에 또 세운 문.

昨夜春風吹雨過, 간밤에 춘풍 불고 비마저 지나갔으니,
작 야 춘 풍 취 우 과

杏花新綻兩三枝。 살구나무 두세 가지에 꽃망을 곧 터지겠네.
행 화 신 탄 양 삼 지

시3. 동림고성(東林古城)을 지나가면서(동림고성(東林古城)은 철산(鐵山)에 있으며, 고려시대에 이를 축조하여, 북쪽 오랑캐의 침입을 방어하였다)

詩3. 過東林古城 城在鐵山, 高麗時築之, 以防北虜¹⁾
과 동 립 고 성 성 재 철 산 고 려 시 축 지 이 방 곡 로



古堞²⁾連雲秋草平, 옛 성(城)의 성가퀴 구름에 잇대이고
고 첩 연 운 추 초 평
 가을 풀은 가지런한데,

昔人曾此費經營。 옛 사람들 일찍이 성(城) 경영에 애썼겠네.
석 인 증 차 비 경 영

興亡百變山無語, 흥망이 수없이 바뀌어도 산은 말이 없고,
흥 망 백 변 산 무 어

落日荒原萬古情。 황야에 지는 해 만고의 정을 품고 있구나.
낙 일 황 원 만 고 정

1) 동림고성(東林古城) : 고려시대 거란족(契丹族)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지금의 평안북도 서북쪽 끝 철산군(鐵山郡)에 축조한 성(城)임.
 2) 고첩(古堞) : 고성(古城)의 성가퀴. 첩(堞)은 성가퀴로 성위에 낮게 쌓은 담을 말함. 보원(堡垣) 또는 성첩(城堞)이라고도 함.



시4. 정관재 靜觀齋에서 봄날의 느낌

(무진년 戊辰年 : 1568년, 선조 宣祖 원년 元年, 서애 西厓 27세)

詩4. 靜觀齋 春日有感 戊辰¹⁾
정 관 재 춘 일 유 감 무진

大道難從口耳傳, 대도大道는 입과 귀로는 전하기 어렵나니,
대도 난 종 구 이 전

此²⁾心隨處³⁾自悠然。 이런 마음은 어디서나 절로 유연悠然하다네.
차 심 수 처 자 유 연

靜觀軒⁴⁾外千條柳, 정관헌靜觀軒 밖 수많은 버들가지에,
정 관 헌 외 천 조 류

春入絲絲不後先。 봄기운이 울울이 스며들어
춘 입 사 사 불 후 선 선후가 따로 없네.

1) 무진(戊辰) : 1568년(선조<宣祖> 원년<元年>, 서애 27세) 2월에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에 가서 목사(牧使)로 재직 중이던 부친 관찰공(觀察公)을 뵈고, 정관재(靜觀齋)에서 본 시를 지었음.

2) 차(此) : 이러한, 그와 같은.

3) 수처(隨處) : 도처에, 곳곳이, 어디서나.

4) 헌(軒) : 헌함(軒檻)을 칭함. 헌함이란, '건넌방, 누각 따위의 대청기둥 밖으로 돌아가며 칸난간이 있는 좁은 마루'를 뜻함.

시5. 한식寒食 후 어느 날, 정주定州로 부친께
문후를 드리러 가는 길에 연서촌延曙村을
지나면서 마상馬上에서 우연히 읊다

詩5. 寒食¹⁾後一日 歸覲定州²⁾ 過延曙村³⁾ 馬上偶吟
한 식 후 일 일 귀 근 정 주 과 연 서 촌 마 상 우 음



孤村夜雨水生溪, 외딴 마을 밤비 내려 개울물 흐르더니,
고 촌 야 우 수 생 계

- 1) 한식(寒食) :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 된다. 고속(古俗)에 의하면, 이 날은 불을 급하고 찬밥을 먹었는데, 그 유래는 진(晉)나라 문공(文公)때 개자추(介子推)가 이 날 산에서 불에 타 죽었으므로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라 함. 우리나라에서 이 날은 명일(名日)의 하나로 하여 왕실에서는 종묘 및 각 능원(陵園)에서 제향(祭享)을 지냈고, 민가에서도 조상의 성묘를 하였음.
- 2) 정주(定州) : <시 2>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3) 연서촌(延曙村) : ‘연서촌’이란, 말은 ‘연서역(延曙驛)이 있는 마을’이란 뜻인데, 바로 이 연서역은 조선시대 한양 모화관(慕華館)에서 의주로 가는 서발(西撥 : 서쪽 방면으로 파발을 보내는 통신망)의 첫 번째 역사(驛舍)였음. 지금의 서울특별시 은평구(殷平區) 대조동(大漕洞) 49-24번지 일대임.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못했던 옛날에는 역원제도(驛院制度)를 운용하여 중앙과 각 지방의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공문을 전달하고 공용물자를 수송하였으며, 변방의 군대 동향과 민심을 파악하였음.
연서역의 처음 이름은 영서역(迎曙驛)이었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주목(楊州牧)에 의거하면, ‘영서역은 찰방(察訪)이 주재하던 곳으로 벽제(碧蹄)·마산(馬山)·동파(東坡)·청교(靑郊)·산예(狹狝)·중련(中連)의 6개 역을 관할하였다’고 함. 큰 역인 만큼 중국사신의 빈관(賓館)이나 왕의 행궁(行宮)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특히 인조(仁祖)는 반정(反正)전 친히 이곳 연서역에 나가서 지원군인 장단부사 이서(李曙)의 군사를 맞이하기도 하였음. 이후 『중종실록』 4년(1509)조 기사에 연서찰방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걸로 보아, 중종 즉위초에 부평으로 옮겨갔던 ‘영서역’을 다시 옮겨짓고 이름을 ‘연서역’으로 바꾼 것으로 보임. (이상은 <http://blog.daum.net/sonsang4/13739288>에서 인용하였음.)

夜草青青山鳥啼。
야 초 청 청 산 조 제

밤사이 풀잎이 파릇파릇 산새도 지저귀네.

又是一年寒食節，
우 시 일 년 한 식 절

다시 일 년 지나 한식절寒食節이 되었는데,

獨騎羸馬⁴⁾出關西⁵⁾。
독 기 리 마 출 관 서

지친 말 타고 홀로 관서關西지방에
도달했네.

4) 이마(羸馬) : 고달파 지친 말.

5) 출관서(出關西) : 관서지방에 도달하다. 출(出)은 도(到 : 도달하다)의 의미이고, 관서(關西)는 마천령(摩天嶺)의 서쪽지방. 곧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지역을 이룸.

시6. 세심대 洗心臺에서 유람하다가 비를 만나다

詩6. 遊洗心臺¹⁾ 遇雨
유 세 심 대 우 우



危臺高出白雲端²⁾, 높직한 누대는 흰 구름 너머로 우뚝
위 대 고 출 백 운 단 솟았고,

松桂蒼蒼水石間。 소나무와 계수나무는 물가 바위틈에
송 계 창 창 수 석 간 무성하네.

有客獨來還獨去, 나그네 홀로 왔다 홀로 돌아가는데,
유 객 독 래 환 독 기

風吹暮雨滿空山。 저물 무렵 몰아치는 풍우
풍 취 모 우 만 공 산 빈 산에 가득하네.

-
- 1) 세심대(洗心臺)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玉山里) 계곡에 소재함. 여기에는 퇴계 이황(李滉)의 스승인 성리학자 이언적(李彦迪 : 1491-1553)의 옥계서원(玉溪書院)이 있고, 옥산리 계곡에는 그가 이름 붙인 다섯 개의 바위가 있으니, 곧 정심대(澄心臺)·탁영대(濯纓臺)·관어대(觀魚臺)·영귀대(詠歸臺)·세심대(洗心臺).
- 2) 백운단(白雲端) : 흰 구름 꼭대기 혹은 흰 구름의 가장자리. 여기서의 ‘단(端)’은 ‘돌출해 나온 부분, 정상, 꼭대기, 혹은 가장자리’의 의미임.



시7. 꿈꾼 내용을 적다

詩7. 記夢 기몽

辛未秋, 余在謙巖精舍¹⁾, 夢見三人, 其一云晦庵²⁾, 其二南軒³⁾,
신미추 여재겸암정사, 몽견삼인 기일문회암 기이남현

1) 겸암정사(謙巖精舍) :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장자(長子)인 문경공(文敬公) 겸암(謙菴) 류운용(柳雲龍)이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정신을 수양하던 서재(書齋). 경북(慶北) 안동시(安東市) 풍천면(豊川面) 광덕동(廣德洞)에 위치하며 부용대(芙蓉臺)의 서편에 있음. 이는 하회동(河回洞)에서 부용대를 정면으로 보았을 때의 부용대 왼쪽에 있음.

① 류운룡(柳雲龍 1539-1601) :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임.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응견(應見), 호는 겸암(謙菴). 아버지는 중영(仲郢)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로 진사 광수(光粹)의 딸임. 성룡(成龍)의 형으로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음. 동생인 성룡(成龍)과는 남달리 우애가 돈독하였음.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모든 경사(經史)를 통독함으로써 사문의 촉망을 받았음.

1572년(선조 2) 친명(親命)으로 음사(蔭仕)를 받아 전함사별좌(典艦司別坐)가 된 뒤 이듬해 의금부도사로 추배되었으나 사퇴하였음. 다시 사포서별제가 된 뒤 풍저창직장(豊儲倉直長) 등을 역임하면서 청렴하고 철저한 임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내자시주부로 승진하여, 진보현감 등을 지냈음. 그러나 어머니의 신병 때문에 사퇴하였다가 다시 인동현감으로 추배되었음. 길재(吉再)의 묘역을 정화하고 사우(嗣宇)와 서원을 지어 유학의 진흥책을 도모하여 그를 칭송하는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하였음. 광홍장주부·한성부판관·평시서령·사복시첨정 등을 두루 역임하였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인 영의정 성룡이 선조에게 그를 해직시켜 어머니를 구출하도록 읍소하니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는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모두 무사하도록 하여 모두가 그의 효심을 칭찬하였음. 그해 가을에 풍기의 임시군수가 되었으며, 전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조공을 평시와 같이 함으로써 얼마 뒤 다시 정군수(正郡守)가 되어 왜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생업을 보호하는데 힘썼다. 그 뒤 원주목사로 승진되었으나 아버지의 노쇠함을 핑계하여 사퇴하였음. 군국기무(軍國機務)에 관한 소를 올려 선조로부터 인정을 받아 조의(朝議)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음. 학문에 있어서는 이기설(理氣說)이나 사칠논변(四七論辨)은 이황의 이기이원론에 근거를 두고 변증을 시도하려 하였음. 저서에는 『겸암집(謙菴集)』이 있음.

2) 회암(晦庵) : 주희(朱熹) : 1130-1200) : 회암(晦庵)은 주희의 호임. 이외에도 그의 호는 회옹(晦翁)·자양(紫陽)·둔옹(澗翁)·운곡산인(雲谷山人) 등이 있고, 자는 원회(元晦)임. 남송(南宋)의 유학자임. 주요저서로 『사서집주(四書集注)』·『근사록(近思錄)』·『주역본의(周易本義)』·『시집전(詩集傳)』·『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후인이 편찬한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과 『주자어류(朱子語類)』 등도 있음.

주희가 집대성한 송대유학은 '우주만물은 이(理)와 기(氣)의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성리학(性理學)의 이론임. 이는 우주(宇宙)의 생성(生成)과 구조(構造), 인간 심성(心性)의 구조,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세(姿勢) 등에 관하여 깊이 사색함으로써 한·당(漢唐)의 훈교학이 다루지 못하였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내성적(內省的)·실천철학적인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유학사상을 수립하였음. 고로 이를 이기설(理氣說)·태극설(太極說)·심성론(心性論)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이기설(理氣說)

이는 정이(程頤)가 주창하였고 주희가 완성한 이론임. 이(理)와 기(氣)에 대한 관념의 규정을 “천지사이에는(天地間), 이<理 : 이치>도 있고, 기<氣 : 기운>도 있다(有理有氣). 이치란 것은(理也者), 형이상학적 도이며(形而上之道也), 만물이 생성하는 근본이다(生物之本也). 기운은(氣也者), 형이하학적 도구이며(形而下之器也), 만물을 생성하는 기구이다(生物之具也)”라고 하였음. 또한 이 이(理)와 기(氣)의 전개순서에 대해서도 “아직 사물이 없을 때에도(未有事物之時), 이치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此理已具)”고 하여, ‘이치’가 ‘사물’에 우선함을 설파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이치’와 ‘기운’의 관계에 대한 존재성에도 이 “이<理>와 기<氣>는 나누어져 둘로 되지 않을 수 없으나(不能不分爲二)”, 운행상에서 보면, “이기(理氣)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다(畢竟理却只在這裏)”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타는 것과 비슷하다(如人跨馬相似)”고 하여, ‘이치’의 ‘운행’은 반드시 ‘기운’에 의거하고 있음과 동시에 운행 중에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이기설은 원래 인간의 불변적 본질인 성(性)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개된 것이어서, 만물의 변하는 요소인 현 상태를 대변하는 기(氣)와 불변하는 요소인 본질태를 대변하는 이(理)를 이원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주희가 완성한 이기론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고 칭함.

② 태극설(太極說)

이는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천리(天理)를 통해, 우주의 생성과 구조를 논한 이론임. 주희가 말하는 ‘태극(太極)’이란, 천지만물의 총화이기 때문에 태극 안에는 ‘모든 이(理 : 만리(萬里))가 다 구비 되어 있다. 그래서 “태극에는 음양과 오행의 이(理)가 다 들어 있으니(太極是五行陰陽之理皆有) 텅 빈 것이 아니다(不是空的事物)”고 하였다. 고로, 각 사물에는 그 사물이 그러한 까닭으로서의 이(理)가 구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태극의 전체도 구비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모든 사물은 그것 자신이 그러한 까닭으로서의 이(理) 이외에 또 태극(太極), 즉 모든 이(理)의 전체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극은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지만 조각조각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不是割成片去), 마치 달빛이 모든 강에 드리워지는 경우와 비슷하다(只如月印萬川相似)”라고 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③ 심성론(心性論)

이는 심성의 관계를 다루어, 마음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밝히고 있음. 그는 마음(心) 자체는 기(氣)에 속하여 이(理 : 性)에 합치될 수도 있고,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마음의 활동이 이치에 합치되면, 선(善)이 되고 이치에 합치되지 않으면 악이 된다는 것임. 인간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므로, 마음의 기능은 곧 마땅히 이(理)를 지각(知覺)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성정함양(性情涵養)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여기에서 인성의 두 가지 측면이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실천이론을 제기하였음.

☆인성(人性)의 두 측면 :

- a. 본연지성(本然之性) : 이는 『중용(中庸)』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초월적 의미의 성(性)인 것으로 구체적인 인간 이전에 이미 정해진 성(性)이며 또한 개체인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인생의 목표이며,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그 성(性)은 결코 모두다 실현 할 수 없는 의미의 성(性)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이러한 성(性)을 특별히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하여 태극(太極)과 동일시하였음.
- b. 기질지성(氣質之性) : 이는 기(氣)에서 발생함으로 ‘통합과 막힘, 치우침과 바름’의 차

林擇之⁴⁾。時余讀朱書節要⁵⁾，覺以古詩記之。
 일택지 시여독주서절요 각이고시기지

신미년(辛未年 : 1571년, 선조宣祖 4년, 당시 서애西厓 30세) 가을, 나는 겸암정 사謙巖精舍에서 꿈에 회암晦庵과 남헌南軒, 임택지林擇之 등 세 사람들

별'이 생김.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음양오행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편차이므로 여기에는 '본연지성'도 갖추어져 있음. 고로 '기질지성'에서, '본연지성'을 확충하여, '그 바르지 못함(不正)' 혹은 '이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없앤다는 '멸인욕(滅人欲)'을 통해, 명덕(明德)을 밝히는 소위 '심(心)·성(性)·정(情)과 덕(德)을 이루고자 본래의 양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함양하는 길'이 제시되었으며, 이의 실천과정으로 거경(居敬)·궁리(窮理)·격물(格物)·치지(致知) 등의 설법이 제기되고 있음.

☆실천이론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당위성의 문제로 제기하는 실천이론임.

- a. 거경(居敬) : '거경(居敬)'의 '경'은 의지(意志)의 일면인 본래의 양심을 잃지 않도록 그 착한 성품을 함양하는 관념으로, "경(敬)자는 움직임(작용)과 고요함(본체)을 관통한다(數字通貫動靜). 그러나 아직 발동되지 않았을 때, 한데 뒤섞여 있는 이것이 경(敬)의 본체이다(但未發時, 渾然是敬之體). 그것이 아직 발동되지 않았음을 알면, 경(敬)의 의지를 함양하라는 것이 아니다(非是知其未發, 方下敬工夫). 이미 발동한 뒤라면 일에 따라서 반성하고 살펴보게 되는데(既發則隨事省察), 경(敬)의 작용이 거기서 행해진다(而敬之用行焉)"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경(敬)은 만리 밖을 관통하는 실천의 이론이 되었음. 그리하여 이는 또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동력조건이 되기도 함.
 - b. 궁리(窮理)·격물(格物)·치지(致知) : "이른바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있다는 것(所謂致知在格物者)은, 나의 앎을 이루려고 하는 것(言欲致吾之知)이, 사물(物)에 임하여 그 이치를 캐물어가는 데 있음을 말한다(在即物而窮其理也)"라고 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문제 상에 '궁리(窮理)'도 포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즉 '나의 앎을 넓힌다(致吾之知)'는 말로서 '치지(致知)'를 해석하고, 그 다음은 '사물에 임하여 그 이치를 캐묻는다(即物而窮其理)'는 말로서 '격물(格物)'을 해석하여, 치지와 격물이 궁리(窮理)와 별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 양자(兩者)는 안과 밖이 서로 응하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 궁리(窮理)와 치지(致知)는 동시에 완성된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이것은 은연중 '개별적인 이치(秀別之理)'에서 '공동적인 이치(共同之理)'에 이르는 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격물(格物)의 뜻은 역시 궁리(窮理)를 통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고로 여기서, 격물궁리(格物窮理)의 목적이란, 안으로는 '내 마음의 온 본체와 큰 작용(吾心之全體大用)'의 밝음(明)을 달성하려는 데 있고, 밖으로는 '관통된 이치(貫通之理)'를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내 마음의 큰 작용이 밝혀지면, 안으로 그 덕(誠正)을 완성 할 수 있고, 밖으로는 문화를 이룰 수 있으니, 이른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이 이것임. 이 가운데 수신(修身)은 또 다른 하나의 관건이 됨(이상의 내용은 勞思光 著, 鄭仁在 譯, 『中國哲學史』(宋明篇)과 馮友蘭 著, 朴星奎 옮김, 『중국철학사』(하)를 참조하였음).
- 3) 남헌(南軒) : 남송시대의 도학자(道學者)인 장식(張式 : 1133-1180)의 호. 그의 자(字)는 경천(敬天), 주희와 친우 사이임.
 - 4) 임택지(林擇之) : 주희의 제자. 『주희집(朱熹集)·별집(別集)』 권6(卷六)을 참조 바람.
 - 5) 『주서절요(朱書節要)』 :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이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읽고 초학자를 위해 선정한 주자의 서간선집(書簡選集)임.

만났다. 그때 『주서절요朱書節要』를 읽고 있었는데, 꿈에서 깨어난 다음 고체시古體詩로 그 꿈 내용을 기록하다.

我生在今世, 나의 삶은 현세에 살고 있는데,
아 생 제 금 세

尙友在前昔。 책에서 사권 벗은 옛적에 생존했었네.
상 우 제 전 석

永懷千載人, 오랜 세월 천 년 전의 벗을 그렸는데,
영 회 천 재 인

世遠不可覲。 현세와 너무 멀어 만나 볼 수 없었네.
세 원 불 가 적

時來讀遺編, 틈을 내어 그분들의 유저遺著를 읽다보면,
시 래 독 유 편

往往見心曲。 종종 내심의 깊은 생각과 만난다네.
왕 왕 견 심 곡

玉盤薦⁶⁾明珠, 옥쟁반에 야광주夜光珠 담아 놓은 듯,
옥 반 천 명 주

淵冰映新月。 얼음 낀 연못에 초승달이 비취네.
연 빙 영 신 월

6) 천(薦) : 동한(東漢)의 학자 허신(許慎 : 30-124년)의 저서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천(薦)자는 ‘자(藉 : 진헌<進獻>하다)’의 뜻이 있다”고 하였음. 이는 전(轉)하여, ‘진(進 : 진상<進上>하다)’, 또는 ‘진(陳 : 진설<陳設>하다)’의 의미로 쓰임. 고로 본 시에서 ‘천(薦)’은 ‘진설(陳設)’의 의미로서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위에 차려 놓는다’는 경건함의 뜻을 함축한 것으로 보임.

讀罷三歎息， 독 파 삼 탄 식 글을 다 읽고 나서 찬탄을 거듭하다가,
 夜就東軒宿。 야 취 동 현 숙 밤 깊어 동쪽 방에 가서 잠이 들었네.
 忽夢二三子， 홀 몽 이 삼 자 홀연히 꿈속에서 두세 사람 나타나서,
 頽然入我室。 기 연 입 아 실 풍채 좋은 모습으로 내 방에 들어왔네.
 顧我色敷腴， 고 아 색 부 유 날 보더니 얼굴빛이 희열에 넘쳐서,
 一笑情脈脈。 일 소 정 맥 맥 미소 지으며 은근한 정 끝없이 품기네.
 定非平生親， 정 비 평 생 친 평소에 친교한 사이는 정녕 아닌데,
 想像猶面目。 상 상 유 면 목 생각해보니 이전에 꼭 본 듯한 모습이었네.
 覺坐獨沈吟， 각 좌 독 침 음 꿈 깬 자리에서 홀로 나직하게 시를 읊는데,
 曉窓風雨急。 효 창 풍 우 급 새벽 창가에 비바람 소리 거세네.

시8. 가을날의 상념 想念

詩8. 秋思 추 사



端居¹⁾意不適, 평소에 마음이 쾌적하지 않음은,
단 거 의 부 적

遠思在關河²⁾。 깊은 상념이 고향산천 맴돌고 있어서일세.
원 사 재 관 하

風雨夜來集, 간밤에 비바람이 몰아쳤으니,
풍 우 야 래 집

滿庭黃葉多。 뜰에는 낙엽이 지천으로 깔렸겠네.
만 정 황 업 다

懷人既³⁾輾轉, 그리운 사람 생각에 밤새도록
회 인 기 전 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況復⁴⁾抱沈痾。 게다가 숙병宿病마저 지녔으니 어찌하랴.
황 부 포 침 아

-
- 1) 단거(端居) : 평소, 평상시.
 - 2) 관하(關河) : ① 고향 산천. ② 관문(關門)과 하천.
 - 3) 기(既) : 물론.
 - 4) 황부(況復) : 하물며, 게다가.

百慮坐⁵⁾纏繞, 온갖 생각 까닭 없이 얽히고 설켜서,
백 려 좌 전 요

心事日蹉跎⁶⁾。 시름으로 날마다 세월만 허송하네.
심 사 일 차 타

5) 좌(坐) : 부사(副詞)로 쓰였으며, ‘이유도 없이, 공연히’의 뜻임.

6) 차타(蹉跎) : ①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다. ② 세월을 헛되이 보내다. ③ 실족(失足)하다. 전(轉)하여 ‘불운하여 뜻을 얻지 못하다’, ‘실시(失時)하다’의 뜻으로 씀. ④ 저지(역제)하다.

시9. 회암^{晦庵} 선생의 시 네 수에 차운^{次韻}¹⁾하다

詩9. 次²⁾晦庵先生²⁾韻 四首
차 회 암 선 생 운 사 수



其一
기 일

[1]

臚臚³⁾玄運⁴⁾駛, 끊임없이 천체가 빠르게 운행되어,
 미미 현운 사
 悠悠⁵⁾終復始. 연이어서 한 계절 끝나면 다시 시작되네.
 유유 종부시
 雪霜閉窮陰⁶⁾, 잔설殘雪과 서릿발이 가는 겨울 막아보지만,
 설상폐궁음
 晴輝艷桃李. 화창한 햇살이 도리화桃李花를 곱게 물들이네.
 청휘염도리
 百年能幾何, 인생살이 백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라고,
 백년능기하

- 1) 차운(次韻) : 남이 지은 시(詩)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함.
- 2) 회암(晦庵) : 주희(朱熹 : 1130-1200년) : 회암(晦庵)은 주희의 호임. 자세한 것은 <시 7>의 주석 2) ‘회암(晦庵)’ 조항을 참조 바람.
- 3) 미미(臚臚) : ① 끊어지지 않는 모양. ② 물이 흐르는 모양. ③ 행진하는 모양.
- 4) 현운(玄運) : 천체의 운행.
- 5) 유유(悠悠) : ①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모양을 형용한 말임. ② 근심하는 모양. ③ 장구(長久)한 모양, 구원(久遠)한 모양. ④ 끝없이 요원한 모양. ⑤ 떨럭이는(나풀거리는, 흔들거리는) 모양. ⑥ 떠다니는(홀러가는) 모양. ⑦ 까무잡잡한(거무스레한) 모양. ⑧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한가한 모양). ⑨ 목소리나 숨결이 완만세장(緩慢細長)한 것을 형용한 말.
- 6) 궁음(窮陰) : 음기(陰氣)가성한 엄동설한의 막바지를 이룸.

萬事雜非喜。 만사에 얽히고설켜 즐겁지 아니하네.
만 사 잡 비 희

端居⁷⁾起遠思⁸⁾, 평소엔 먼 앞날 헤아려 걱정했더니,
단 거 기 원 사

夢繞南河里⁹⁾. 꿈에 순舜임금 피신했던 남하리南河리를
몽 요 남 하 리
멤돌았네.

其二
기 이

[2]

宇宙何¹⁰⁾廣大, 우주란 것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우 주 하 광 대

吾身恨非夫。 내 자신 대장부가 아닌 듯해 한스럽네.
오 신 한 비 부

早年讀聖經, 청년시절에 성인聖인의 경전을 읽었는데도,
조 년 독 성 경

中歲違壯圖。 중년에 와서 원대한 응지雄志 어그러졌네.
중 세 위 장 도

蹉跎¹¹⁾遂不振, 실족失足한 것 결국 만회하지 못하고,
차 타 수 부 진

髮短¹²⁾形貌癯。 머리숱 적어지고 육신은 쇠약해졌네.
발 단 형 모 구

7) 단거(端居) : ① 평상시 거처. ② 한가하게 살아감. ③ 일상생활.

8) 원사(遠思) : ① 장구한 먼 날에 대한 고려(考慮). ② 심원(深遠)한 사려(思慮).

9) 남하(南河) : 고대에 황하(黃河)라고 칭했던 지금의 동관(潼關 : 낙양〈洛陽〉에서 장안〈長安〉으로 가는 요지로서, 섬서성(陝西省) 동관현(潼關縣) 동북) 이하로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일단의 강을 남하(南河)라고 함. 『사기(史記)·오제기(五帝記)』에 “순(舜) 임금이 요(堯) 임금의 장자 단주(丹朱)에게 군주의 자리를 양위(讓位)하고 남하(南河)의 남쪽으로 피했다”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장수절(張守節)은 그의 저서 『사기정의(史記正義)』에서 “하천이 요(堯)임금 도읍지 남쪽에 위치했던 까닭에 ‘남하(南河)’라고 불렀다”고 하였음.

10) 하(何) : 대단히.

11) 차타(蹉跎) : 실족(失足)하다, 전(轉)하여 불운하여 뜻을 얻지 못하다는 뜻임. 자세한 것은 〈시 8〉의 주석을 참조 바람.

紛紛¹³⁾度朝夕, 매일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지만,
분 분 도 조 석

靜念一事無。 조용히 생각하니 한 가지 일도 이룬 게 없네.
정 념 일 사 무

其三
기 삼

[3]

月出羣動¹⁴⁾息, 달이 뜨자 못 생물 혹은 활동하고
월 출 군 동 식 혹은 쉬는데,
 風泉落寒井。 밤바람 쇠인 샘은 한기寒氣 도는 우물이 되네.
풍 천 낙 한 정
 吾心適¹⁵⁾無事, 내 마음 작위作爲 없는 무위無爲 를 즐기다보니,
오 심 적 무 사
 愛此清夜景。 이같이 청명한 야경을 좋아한다네.
애 차 청 야 경
 彈琴道意長, 거문고 타니 도 닦는 마음 깊어지고,
탄 금 도 의 장
 憶友山河永¹⁶⁾。 벗을 그리워하며 산천을 읊조리네.
억 우 산 하 영
 功名久已¹⁷⁾慙, 공명功名은 일찍부터 부끄러워하였으니,
공 명 구 이 참
 苟得¹⁸⁾非吾幸。 구차한 이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네.
구 득 비 오 행

12) 발단(髮短) : 머리털이 빠져 짧아짐. 전(轉)하여 연로(年老)함. ① 단(短) : 희소해지다, 성글어지다.
 13) 분분(紛紛) : 번잡(잡다)한 모양.
 14) 군동(羣動) : 일반적으로 중인(衆人 : 못사람)을 가리킴.
 15) 적(適) : ① 즐기다. ② 스스로 만족하다.
 16) 영(永) : (시기를) 읊다. 영(永)은 영(咏) 혹은 영(詠)과 통함.
 17) 구이(久已) : 일찍부터.
 18) 구득(苟得) : ① 구차한 방법으로 얻다. ② 턱없이 탐내다.

其四
기 사

[4]

我友昔遐征, 나의 벗이 이전에 먼 길 떠날 즈음,
아 우 석 하 정

送別臨淸樽¹⁹⁾。 송별에 앞서 청주 잔을 마주 들었지.
송 별 립 청 준

遲遲²⁰⁾出長路,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 장도長途에 오르면서,
지 지 출 장 로

脈脈²¹⁾戀明君。 끊임없이 명철한 군주 그리워하였네.
맥 맥 연 명 군

萬事已掉頭, 만사가 이미 어긋나서 뒤틀렸으니,
만 사 이 도 두

餘年付兒孫。 남은 인생은 자손에게 부탁해야겠네.
여 년 부 아 손

相思江漢岸, 장강長江과 한수漢水 양안兩岸에서
상 사 강 한 안 서로 그리워함에,

靄靄²²⁾空停雲²³⁾。 자욱하게 낀 구름이 하늘에서
애 애 공 정 운 움직이지도 않는다네.

19) 청준(淸樽) : 청준(淸尊) 혹은 청준(淸罇)으로도 씀. 주기(酒器)를 의미하는 것이나 청주(淸酒)를 지칭하기도 한다.

20) 지지(遲遲) : 천천히 걷는 모양(터벅 터벅, 느릿느릿).

21) 맥맥(脈脈) : 끊임이 아니하는 모양.

22) 애애(靄靄) : ①구름이 밀집한 모양. ②혼암(昏暗)한 모양. ③'애애(靄靄)'와 같은 뜻으로 쓰여, 무성한 모양, 또는 부드럽고 상냥한 모양을 나타냄.

23) 정운(停雲) : ①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구름. 진(晉)나라 도잠(陶潛<365-427>) : 도연명(陶淵明))은 그의 시 <정운(停雲)>에서, “자욱한 안개구름 움직이지 않는데(靄靄停雲), 부슬 부슬 봄비 아득히 내리네(濛濛時雨)”라고 읊었다. 그리고 나서 자서(自序)에, ‘정운(停雲)은 벗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정운(停雲)’이라는 말을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뜻으로 사용하였음. ② 가는 구름을 머무르게 함(노랫소리가 우렁차고 아름다움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임).

시10. 벽을 뚫고 이웃집 불빛을 훔치다

詩10. 鑿壁¹⁾
작벽



漢家貴經術,
한가귀경술

한나라 왕조는 경학經學을 중시하였고,

學子頗專精。
학자파전정

학생들도 상당히 애쓰며 몰두했네.

董公²⁾下帷坐,
동공하유좌

동공董公은 휘장을 치고 학문에 정진했고,

-
- 1) 착벽(鑿壁) : 착벽투광(鑿壁偷光)이란 말의 약어임. 이 말의 고사(故事)는 『서경잡기(西京雜記 : 진(晉)나라의 갈홍(葛洪)이 저술한 것으로 전한시대(前漢時代)의 잡사(雜事)를 기록한 저서』 제2권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광형(匡衡)의 자(字)는 치규(稚圭)인데, 그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가난하여 밤이 되면 촛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 이웃집에서는 촛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불빛이 자기의 방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광형은 마침내 남몰래 벽에 구멍을 뚫어서 이웃집의 불빛을 끌어들여 이 불빛으로 책을 읽었다”고 하였다. 이 고사에서 생긴 ‘착벽투광(鑿壁偷光)’이란 말은 곧 ‘벽을 뚫어서 이웃집 불빛을 훔치다’는 뜻으로 후세에는 이를 ‘착벽(鑿壁)’으로 약칭하고, ‘모진 고생을 참아내고 열심히 공부한 표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음.
 - 2) 동공(董公) : 동중서(董仲舒 : B.C. 179-B.C. 104)에 대한 경칭(敬稱). 그는 서한(西漢) 신도군(信都郡) 광천현(廣川縣),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장산현(長山縣) 사람임. 그는 젊어서 『춘추(春秋)』를 연구했으며, 경제(景帝) 재위시기에 박사가 되었다. 그는 장막(帳幕)을 치고 제자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모르는 제자도 있었다. 3년 동안이나 정원에 나가보지 않았을 정도로 학문에 정진하였다. 무제(武帝)가 즉위하여 인재를 구하였으므로 현량대책(賢良對策) : 덕과 재능이 갖추어진 훌륭한 선비를 임용하는 대책을 건의하면서 백가(百家 : 즉 제자백가(諸子百家) : 선진시대(先秦時代)부터 한(漢)나라 초엽까지 학술사상의 각종 유파(流派)의 총칭)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학(儒學)만 존치할 것을 주장하여 무제(武帝)에게 채택(採納)되었다. 이로써 유학이 2천여 년 동안 정통학술(正統學術)의 위치를 확보한 발단이 되었음.

卜式³⁾和書耕。 복식卜式은 독서와 목축牧畜을 겸하였네.
복 식 화 서 경

匡生⁴⁾繼其後， 광생匡生이 그들의 뒤를 이었으니，
광 생 계 기 후

亦能要其成。 이 또한 그들의 성취를 추구하였네.
역 능 요 기 성

敦書與說禮， 독서에 전념하고 예禮로써 설득했으며，
돈 서 여 설 예

論說不暫停。 논설論說 역시 잠시도 멈춘 적이 없었네.
논 설 부 잠 정

世家本農夫， 명문세가名門世家 집안도 그 근본은
세 가 본 농 부
능부였으니，

그의 학문은 유학을 중심체계로 삼은 다음, 여기에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론을 혼입(混入)하여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신학적 체계를 형성하였음. ‘천인감응’은 천의(天意)와 인사(人事)가 교감하고 상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 즉 하늘이 인간사(人間事)에 간여하여 재앙의 조짐을 예시(豫示)할 수 있으며, 사람의 행위도 능히 하늘을 감동시켜 이에 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 이렇게 천의(天意)와 인간사(人間事)를 역지로 부합시켜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리는 모두 천의(天意)에서 나온다고 하여, “하늘이 변하지 않으면(天不變), 인간의 도리 역시 변하지 않는다(道亦不變)”고 주장한 것이다. 저서에 『동자문집(董子文集)』 외에 『춘추번로(春秋繁露)』 등이 있음.

3) 복식(卜式) : 서한(西漢) 하남군(河南郡),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 사람. 그는 목양(牧羊) : 양치기)을 해서 치부(致富)하였다. 무제(武帝) 시기에 상소(上疏)를 올려서 가산(家産)의 절반을 국가에 헌납하여 변경(邊境)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일조(一助)하기를 원했다. 무제는 이를 가장히 여겨 중랑(中郎 : 궁중호위 시종)에 임명하고, 좌서장(左庶長 : 20등급의 작위 중에 제10급에 해당함)의 작위를 하사하는 동시에 원유(圓圍 : 수림이 우거진 주변에 담장을 치고 수석(水石)을 안배한 다음, 정자를 지어놓고 금수(禽獸)를 방사(放飼)하는 황실의 화원)에서 목양(牧羊)을 하도록 했음.

복식(卜式)은 목양을 치민(治民)에 비유하였다. 그는 무제(武帝) 원정년간(元鼎年間 : B.C. 116-B.C. 111)에는 어사대부(御史大夫 : 승상을 보좌하여 전국의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직책)에 올랐다. 그 후 염철전매(鹽鐵專賣)를 반대해서 태자태부(太子太傅 : 명목상 직무는 국왕을 보좌하는 것이나 국정에 간여할 수 없어 실권이 없는 명예직)로 좌천되었음.

4) 광생(匡生) : 광형선생(匡衡先生)의 약칭. ‘광(匡)’은 성씨, ‘생(生)’은 선생의 약칭. 전한(前漢) 때 사람으로 자(字)는 치규(稚圭), 이름은 형(衡)임. ‘광생(匡生)’은 또한 재능과 학문이 깊은 사람을 가리키며, 학문을 닦은 사람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기도 함. 자세한 것은 본시의 주석 22)의 ‘광형(匡衡)’ 조항을 참조 바람.

食力同編氓。식력동편맹 품팔이꾼과 다름없는 평민출신이었네.

朝耕原上田⁵⁾,조경원상전 아침에는 황무지 주변에서 밭 갈고,

暮束澗底荊⁶⁾。모속간저형 저물녘엔 산골짜에서 뿔감나무 하였네.

得暇輒歸來,득가첩귀래 틈만 나면 언제나 곧 바로 귀가하여,

讀書何鏗鐃⁷⁾。독서하갱괘 글 읽는 소리 얼마나 낭랑했던가!

寸陰眞可惜,촌음진가석 촌음寸陰도 참으로 소중하거늘,

白日何易傾。백일하이경 대낮의 저 해는 왜 그리 쉽게 지는가.

螢雪⁸⁾既非時,형설기비시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 읽는 시절은
이미 아닌데,

況謀長短檠。황모장단경 하물며 등잔대가 길고 짧음에 마음 쓰랴.

永夜坐沈沈⁹⁾,영야좌침침 긴긴 밤 단정히 앉아 마음 가라앉히고,

5) 원상전(原上田) : 황무지 주변의 땅.

6) 형(荊) : 여기서 형(荊)은 작은 가시가 있는 관목으로, 이는 싸리나무로서 뿔감나무에 속함.

7) 갱괘(鏗鐃) : 목소리가 낭랑하거나 악기의 음향이 아름답게 울리는 것을 형용한 말.

8) 형설(螢雪) : 형설지공(螢雪之功), 형창설안(螢窗雪案), 형등설옥(螢燈雪屋) 등의 약어(略語)로서, ‘고생을 하며 부지런히 면학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임. 『진서(晉書)』의 〈차윤전(車胤傳)〉과 〈손강전(孫康傳)〉에 나오는 말임. 즉 진(晉)의 차윤(車胤)이 반딧불을 모아 그 불빛으로 글을 읽고, 손강(孫康)이 가난하여 겨울밤에는 눈빛에 비추어 글을 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9) 침침(沈沈) : 마음이 침착하게 가라앉아 조용한 모양.

悠然¹⁰思古情。 아득하게 옛 사람 정취 그리워하네.
유연 사 고 정

眼前對黃卷， 눈앞에 서책을 펼치기는 했는데,
안 전 대 황 권

欲讀嗟如盲¹¹。 읽으려 하니 아! (어두워서) 맹인 같구나.
욕 독 차 여 황

隔壁有隣翁， 칸막이벽 저쪽에 사는 이웃집 노인,
격 벽 유 린 웅

孤燭明深更。 촛불 하나 켜 놓고 깊은 밤을 밝히네.
고 촉 명 심 경

聊憑束縑¹²計， 삼 부스르기 비벼 살린 불씨 구하던
료 병 속 은 계 계책으로,
擘破一竅生。 (옆방 불빛 얻으려고) 벽을 뚫어 구멍 하나
작 과 일 규 생 내었다네.

容纔耿耿輝， 한 가닥 불빛이 겨우 스며들어,
용 재 경 경 휘

照我昭昭明。 반짝반짝 환하게 자기 앞을 밝혔네.
조 아 소 소 명

尋行¹³魯魚分¹⁴， 글줄마다 정독精讀해서 뜻을 이해하며,
심 행 노 어 분

10) 유연(悠然) : 심원(深遠)한 모양. 아득한 모양.

11) 황(盲) : 맹(盲)의 오자(誤字)로 보임.

12) 속은(束縑) : 속은(束縑)으로도 씀. 속은청화(束縑請火) 또는 속은걸화(束縑乞火)의 약칭임. 죽이나 삼부스르기를 비벼고 문질러서 인화물(引火物)로 만든 다음, 숯불로 소지하고 있다가 이웃집에서 불씨를 요청하면 점화(點火)하여 줌.

13) 심행(尋行) : ‘글줄마다 의미를 탐구하다’라는 의미. ‘심(尋)’은 탐구하다. ‘행(行)’은 ‘글의 줄’이란 뜻임.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본 시에서 쓰인 ‘심행(尋行)’의 뜻과 “심행수묵(尋行數墨)”이란 말의 의미를 구별해야 함. 심행수묵(尋行數墨)은 직역하면,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탐구하고, 글자의 수까지 세다’는 말이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독서를 할 때 지나치게 문구(文句)나 글자에 집중적으로 전념한 나머지, 문자의 구애를 반음으로 인해서, 문자 밖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함을 가리킨다’는 뜻임. 묵(墨)은 문자, 문구를 가리킴. 따라

運舌金石鳴¹⁵⁾
운 설 금 석 명

낭랑한 목소리로 글귀를 읽어갔다네.

辛勤¹⁶⁾妻子憐,
신 근 처 자 린

광적인 독서에 처자식도 딱하게 여기고,

慷慨傍人驚。
강 개 방 인 경

넘치는 기개에 주변 사람들도 놀라네.

三千與三百¹⁷⁾,
삼 천 여 삼 백

삼천하고도 삼백여 종의 예절과 의식儀式,

貫穿紛縱橫。
관 천 분 종 횡

종횡으로 거듭 그 내용 관철했다네.

一朝學大成,
일 조 학 대 성

일시에 변학한 학문이 대성하니,

天子聞其聲。
천 자 문 기 성

천자天子 또한 그의 명성 들었다네.

西¹⁸⁾遊說經義,
서 유 설 경 의

서쪽으로 나가 경적經籍의 뜻을 유세하자,

서 본 시에 쓰인 심행(尋行)이란, 말은 글줄에 얽매어 그 구절 밖의 뜻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노어분(魯魚分)’과 연결되는 의미에서 봐야 함. 즉, 글줄마다, 문장의 의미를 탐구하며 정독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음.

- 14) 노어분(魯魚分) : ‘노(魯)자와 어(魚)자를 구분하다’는 뜻으로 곧 유식함을 이룸. 상반되는 말로서 ‘노어불변(魯魚不辨)’이란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노(魯)자와 어(魚)자를 분변(分辨)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곧 ‘무식함’을 뜻함.
- 15) 금석명(金石鳴) : 금(金)은 쇠로 만든 종이고, 석(石)은 옥이나 돌로 만든 경(磬)인데, 이 금석을 쳐서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금석명(金石鳴)이라 함. 본 시에서는 ‘낭랑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문사(文辭)를 읊는 소리’를 가리킴. 이와 유사한 말로 ‘금석성(金石聲)’이 있음.
- 16) 신근(辛勤) : 원래는 ‘힘든 일을 맡아 애쓰며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독서를 일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의미이니, ‘매우 독실하게 독서하다(곧 광적인 독서를 하다)’는 것을 가리킴.
- 17) 삼천여삼백(三千與三百) : 삼천하고도 삼백여 종의 예절과 의식(儀式) : 『중용(中庸)』 27장에 “성인(聖人)의 도(道)는 넘치도록 위대하다(優優大哉). 큰 예절과 의식은 삼백 가지요(禮儀三百), 자갈한 의례(儀禮)는 삼천 가지다(威儀三千). 그 사람(훌륭한 사람)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위의 두 절의 내용이> 행해진다(待其人而後行)”라고 하였다.
- 18) 서(西) : 서쪽. 여기서의 서쪽은 주(周)의 수도 호경(鎬京)을 칭하는 말로, 작벽자(鑿壁者)의 입세지향(入世志向)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음.

諸儒莫能爭。제 유 막 능 쟁 수많은 유학자들 아무도 견줄 이 없었다네.

居然紐相印，거 연 뉴 상 인 뜻밖에도 재상의 인장까지 껴어차니，

赫然志氣盈。赫 연 지 기 영 놀랍게도 굳은 의지 당당한 기세 증만하였네.

借問¹⁹⁾致此何，차 문 지 차 하 묻노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섰겠는가?

立志由堅貞。립 지 유 견 정 그것은 입지^立志가 확고했기 때문이로세.

吾聞儒者道，오 문 유 자 도 내가 듣기에 유생^{儒生}의 도^道라는 것은，

學古貴能行。학 고 귀 능 행 옛 것을 배워 실천하길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네.

此公寧²⁰⁾有是，차 공 영 유 시 이 사람이 어찌 이런 것에 마음을 두었겠나?

所望公與卿。소 망 공 여 경 공경^{公卿}의 작위를 소망했기 때문이로세.

縱或得此願，종 혹 득 차 원 이러한 소원 비록 이루기는 했지만，

旋被人譏評。선 피 인 기 평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네.

虛費一生力，허 비 일 생 력 일생의 공력 모조리 허비해 버리고，

19) 차문(借問) : 고시(古詩)에서 자주 보이는 가정성(假定性)의 묻는 말. 일반적으로 상구(上句)에서 이 말을 사용하며, 하구(下句)에서 작자가 자답(自答)함.

20) 영(寧) : 어찌 ~이겠는가?

僅取²¹⁾爲匡衡²²⁾。 겨우 얻어낸 것이 일개 서민신분
 근 취 위 광 형 광형匡衡이었네.

若士有奇操， 만약 선비로서 비범한 지조가 있다면,
 약 사 유 기 조

慕道存深誠。 성인聖인의 도를 사모하고 깊은 정성을
 모 도 존 심 성 지녀야 하는 것을.

但得心中趣， 오로지 마음속에 이런 의취意趣
 단 득 심 중 취 깨우칠 수만 있다면,

不願世上名。 세상에 이름 드러내기 원하지 않으리.
 불 원 세 상 명

閉戶終不出， 문 걸어 잠그고 평생 벼슬살이 안한 탓에,
 폐 호 종 불 출

雖貧亦爲榮。 설령 빈곤해질지라도 영광으로 여기리.
 수 빈 역 위 영

21) 취(取) : 취득하다, 얻어내다.

22) 광형(匡衡) : ‘광(匡)’은 성씨이고, ‘형(衡)’은 이름임. 자는 치규(稚圭)이고, 광생(匡生)으로도 불림. 본 시의 주석 4)를 참조 바람.

광형(匡衡)은 서한(西漢)의 동해군(東海郡) 승현(承縣), 즉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담성현(郟城縣) 사람임. 그는 집안이 가난했지만 학문을 좋아하여 머슴살이를 해가면서 학자금을 마련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선제(宣帝 : B.C. 73-B.C. 49년)시대에 사책갑과(射策甲科 : 한대(漢代) 최고급 선비를 선발할 때 치르던 시험의 일종)에 급제한 뒤, 뛰어난 능력으로 승진을 거듭하다가, 원제(元帝) 건소 3년(建昭三年 : B.C. 40년)에 승상(丞相)이 되어, 낙안후(樂安侯)에 봉해졌음. 그러나 당시에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은 중서령(中書令) 석현(石顯)이었다. 그는 봉당을 조성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던 인물이었다. 광형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성제(成帝 : B.C. 32-B.C. 8년)가 등극한 뒤, 직언을 잘 하던 왕존(王尊)의 탄핵을 받아 제후국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죄명으로 면직 당하고 서인(庶人)이 되었음.

전한(前漢) 때에 재상(宰相)으로서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영화를 누린 광형(匡衡)은 학문을 좋아해서 틈만 있으면 책을 읽었음. 말할 수 없는 가난으로 하여 매일매일 품팔이하여 살림도 하고, 책도 사서 읽었다. 그러나 낮에는 품팔이를 하여야 했으므로 도저히 책을 읽을 수 없어 밤에만 책을 읽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살림에 등불을 켤 기쁨이 없었다. 생각 끝에 이웃집 벽에 구멍을 뚫고는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에 따라 책장을 넘기며 책을 읽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착벽인광(鑿壁引光)이라 함. 그는 태자소부(太子少傅), 급사중(給事中)을 거쳐 광록대부(光祿大夫 : 대부 중 최고위직이며 녹봉 2천석에 정책논의를 관장하는 벼슬자리)에 봉해졌음.



시11. 오중주吳仲周의 시 두 수首에 차운次韻하여
부치다(오중주 선생은 이름은 경京이고, 신안新安 사람이다.
선생은 연경燕京에 거주했는데, 조희석상에서 서로 만나,
대단히 의기투합했었다)

詩11. 次韻¹⁾寄贈吳仲周²⁾ 二首 名京, 新安人. 先生在燕京,
차운 기증 오중주 이 수 명경, 신안인 선생재연경
相遇於朝班, 甚相得.
상우어조반, 심상득

其一
기 일

[1]

憶向彤庭禮玉宸³⁾, 궁전 뜰에서 행한 황궁의례儀禮 장면
억향동정에옥신 회상하니,

偶逢衿珮⁴⁾屬情⁵⁾頻. 옥패 찬 관료 우연히 만나
우봉금패속정빈 우정의 교류 잦았었지.

- 1) 차운(次韻) :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함. 혹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함. 보운(步韻)이라고도 함.
- 2) 오중주(吳仲周) : 그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신안현(新安縣) 사람으로, 당시 명(明)나라의 관료였음. 정확한 이력은 미상.
- 3) 억향동정에옥신(憶向彤庭禮玉宸) : 궁전 뜰에서 황궁의례(儀禮) 장면 회상하니) :
 - ① 동정(彤庭) : 동정(彤廷)이라고도 씀. 한대(漢代)의 궁정(宮廷) : 황궁의 정원)으로, 궁전 섬돌 위의 붉게 칠한 뜰이었다. 전(轉)하여, 황궁(皇宮)을 가리킴.
 - ② 예(禮) : 의식(儀式)을 거행하다. 의례(儀禮)를 갖추다(치르다).
 - ③ 옥신(玉宸) : 제왕의 궁전, 천궁(天宮) : 천제(天帝)의 궁궐.
- 4) 금패(衿珮) : 옥패를 허리에 차다. ① 금(衿) : ☆띠를 두르다. ☆웃깃. ② 패(珮) : 옥으로 만든 패물.
- 5) 속정(屬情) : 정회(情懷)를 기탁하다.

高談⁶⁾未洽三傳譯⁷⁾,
고담 미합삼전역

직접 대화 불편하여 삼자三者가
통역했는데,

馨德猶薰一座春⁸⁾.
형덕유훈일좌춘

그의 미덕 훈풍 같아 온 좌중에
봄기운 넘쳤지.

臨別妙詞⁹⁾和¹⁰⁾淚見,
임별묘사화루견

작별 즈음에 절묘한 시구로
눈물진 화답하였고,

出關芳草哭愁新。
출관방초곡수신

관문關門 나서자 방초향기에
애수 새로워 울었네.

天涯賴有¹¹⁾吳洲月¹²⁾,
천에뢰유오주월

아득한 하늘 저쪽 대륙에도 달이 떠서,

6) 고담(高談) : 본 시에서는 ‘육성(肉聲)으로 대화하다’는 뜻으로 쓰였음. 이 밖에도 고담(高談)은 다음의 뜻이 있음 :

- 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의논하다.
- ② 고상한 대화, 식견이 높은 사람의 말투와 태도.
- ③ 실제와 맞지 않는 현실과 동 떨어진 논의.

7) 삼전역(三傳譯) : ‘제3자가 통역을 해서 의사를 전달하다’는 뜻임.

8) 형덕유훈일좌춘(馨德猶薰一座春 : 그의 미덕 훈풍 같아 온 좌중에 봄기운 넘쳤지) :

- ① 형덕(馨德) : 미덕(美德). 형(馨)은 ‘향기롭다’는 뜻인데, 전(轉)하여, ‘덕화(德化 : 덕으로 교화시키다)’ 또는 ‘명성이 멀리 미치다’는 뜻으로 쓰임.
- ② 훈(薰) : 훈풍이 불다 ; 남의 교화를 받아 감화되다.
- ③ 일좌춘(一座春) : 한 철의 봄. 좌(座)는 산이나 건축물 혹은 같은 위치가 고정되고 크며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세는 양사(量詞)임.

9) 묘사(妙詞) :

- ① 시문(詩文) 중의 절묘한 사어(詞語)를 가리킴.
- ② 아름답고 뜻이 깊어 정취를 더해주는 글.
- ③ 정취가 흠뻑 배어 있는 글.
- ④ 절묘한 문장.

10) 화(和) :

- ① 시문(詩文)으로 화답하다.
- ② 타인이 지은 시사(詩詞)의 제재(題材)나 체재(體裁 : 장르 : 표현양식)에 따라서 시사(詩詞)를 짓는 것.

11)뢰유(賴有) : 여기서 ‘뢰(賴)’는 모처(某處)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 것임. 고로 ‘뢰유(賴有)’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 상태를 가리킴.

12)오주월(吳洲月) : 여기서 ‘오주(吳洲)’는 거대한 대륙을 칭하는 것임. 고로 오주월(吳洲月)은 대륙에 뜬 달을 가리킴.

夜夜流光照客神¹³⁾
야야유광조객신

밤마다 달빛이 그의 안색 비추겠지.

其二
기이

[2]

燕雲鰈海¹⁴⁾杳西東,
연운접해묘서동

연경燕京은 서쪽 조선은 동쪽
아득히 멀지만,

別後頻煩向北風¹⁵⁾。
별후빈번향북풍

작별 후 자주 북방 소식 그리워했네.

豈有音書能自慰,
기유음서능자위

어찌 서신으로 자신을 위안할 수
있으리오만,

尙憐情義遠相通。
상련정의원상통

아직도 정의情誼 애뜻해
멀리서도 상통하네.

神交不恨關河隔¹⁶⁾，
신교불한관하격

마음 맞으니 산하山河로 막혀도 원망 않고

13) 객신(客神) : 손님의 표정, 즉 오중주(吳仲周)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임.

14) 연운접해(燕雲鰈海) : 연경과 조선을 뜻함.

① 연운(燕雲) : 연경(燕京 : 지금의 북경시)의 하늘에 뜬 구름. 본 시에서는 의미상 연경(燕京)을 가리킴.

② 접해(鰈海) : 한국의 근해(近海). 접해(鰈海 : 가자미가 많이 잡히는 바다)란 말뜻에서 보듯이, 동해에서 가자미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임. '접역(鰈域 : 가자미가 많이 잡히는 지역)'은 '한국'의 별칭으로 쓰임. 본 시에서는 의미상 '조선'을 가리킴.

15) 별후빈번향북풍(別後頻煩向北風 : 작별 후 자주 북방소식 그리워했네) :

① 향(向) : 양모하다.

② 북풍(北風) : 북쪽에서 오는 소식. 여기서의 풍(風)은 '소식, 서신'의 뜻으로 쓰였으나, 풍도(風度) 또는 교육의 뜻으로도 쓰임.

16) 신교불한관하격(神交不恨關河隔 : 마음 맞으니 관하(關河)로 막혀도 원망 않고) :

① 신교(神交) : ☆마음이 서로 맞아 사귀다. ☆심의(心意)가 투합하다. ☆신령을 통해서 상호 교류하다. ☆꿈속에서 혼령이 상호 교제하다.

② 관하(關河) : ☆관문(關門)과 하천(河川). ☆변방·변방의 요새. 일반적으로 산하(山河)를 가리킴.

③ 격(隔) : 사이를 서로 막고 있는 간격. 본 시에서는 동사로 쓰여, '막하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임.

精想¹⁷⁾空教¹⁸⁾夢寐同。 너무 그리워 오직 꿈속에서도
 정 상 공 교 몽 매 동 그를 꿈꾸네.

百歲幾時¹⁹⁾重會面, 한 백년 후쯤이면 재회할 수 있으려나,
 백 세 기 시 중 회 면

甕鷄²⁰⁾無路逐冥鴻²¹⁾。 술독 속 초파리는 하늘 나는 기러기 뜻
 웅 계 무 로 추 명 홍 알길 없네.

17) 정상(精想) : 몹시 그리워하다. ‘정(精)’은 부사로 쓰여, ‘극도로, 대단히’의 의미임.
 18) 공교(空教) : ① 공(空) : 부사로 쓰여, ‘오직’의 의미임. ② 교(教) : 사역동사로, ‘~로 하여금 ~하게 하다’.
 19) 기시(幾時) : ① 얼마동안. ② 언제. ③ 길지 않은 얼마동안의 시간을 가리킴.
 20) 웅계(甕鷄) : ‘술독 속에 있는 초파리’라는 뜻으로, ‘식견이 좁고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킴. 웅리혜계(甕裡醯雞)의 준말임.
 21) 명홍(冥鴻) :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라는 뜻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비나 이상(理想)이 원대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명(冥)은 ‘고원(高遠)하다’는 뜻임.



오중주 吳仲周의 원시 原詩를 첨부함

附仲周元韻¹⁾

부 중 주 원 윤

其一
기 일

[1]

遙持使節謁楓宸²⁾,
요 지 사 절 알 풍 신

먼 곳에서 성절사 聖節使 사명 띠고
황궁을 찾았는데,

譯語何勞詢問³⁾頻。
역 어 하 로 순 문 빈

말을 통하려고 자주 묻느라
얼마나 힘드셨소.

已訝玄譚開麗日⁴⁾,
이 아 현 담 개 려 일

경삿날 현담 玄譚에 놀라서 의이해 하던 그때,

1) 본 시는 명(明)나라 관리 오중주(吳仲周)가 서애(西厓)에게 보낸 시로서, 서애(西厓)가 성절사(聖節使)로 명의 황궁을 방문했을 당시 그의 늙음했던 풍도와 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문(詩文)임.

본 시의 제목에 붙인 ‘원운(元韻)’이란, 서애(西厓)가 앞의 〈시 11〉에서 바로 이 오중주(吳仲周)가 그에게 보낸 시의 운(韻)에 차운(次韻) 하였기로 이와 같은 시제(詩題)를 붙인 것임.

2) 요지사절알풍신(遙持使節謁楓宸 : 먼 곳에서 성절사(聖節使)로 황궁 찾았는데) :

① 요(遙) : 거리가 아주 먼 곳을 가리킴.

② 지(持) : ☆잡다, ☆(용무나 직책 또는 사명 따위를) 지니다.

③ 사절(使節) : 사자(使者).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중국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로서, 서애가 바로 이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파견되었기에,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임.

④ 알(謁) : 아뢰다, 뵈다.

⑤ 풍신(楓宸) : 궁전(宮殿).

3) 순문(詢問) : 임금이나 신하에게 묻는 것.

却憐⁵⁾丰度發陽春。
각 련 풍 도 발 양 춘

봄기운 도는 듯한 그 풍도風度
못내 존경했소.

鵷班⁶⁾鶴立⁷⁾情難訴,
원 반 곡 립 정 난 소

원추새 대열에 고니가 켜 격이라
(나의) 뜻을 전하기가 어려웠는데,

鴨水⁸⁾鴻飛恨轉新。
압 수 홍 비 한 전 신

압록강 기러기 날아오니
시름만 새로워지는구려.

別後音書那可得,
별 후 음 서 나 가 득

헤어진 후 소식을 어떻게 얻어 볼까,

神嵩⁹⁾夢寐獨傷神¹⁰⁾。
신 숭 몽 매 독 상 신

승산嵩山에서 몽매夢寐에도
홀로 애태운다오.

4) 이아현담개려일(己詒玄譚開麗日 : 경삿날 현담(玄譚)에 놀라서 의아해 하던 그대) :

① 이(己) : 부사로 쓰였으며, '상당히, 꽤'의 의미임.

② 아(詒) : 놀라며 의아하게 여김.

③ 현담(玄譚) : ☆현담(玄談)으로도 씀. 한위(漢魏) 이래로, 노장(老莊)의 도(道)와 『주역(周易)』을 근거로 사물의 명리(名理)를 분석하는 담론(談論). ☆도가(道家)나 도교(道敎)를 내용으로 하는 담론(談論).

④ 여일(麗日) : ☆행복한 시간. ☆세월. ☆화창한 날, 좋은 날.

이 구절은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거하면, 서애(西厓)가 1569년(선조 2, 己巳, 28세), 10월에 성절사(聖節使)로 연경(燕京)에 갔을 때, 명의 태학생 수백 명이 왕양명(王陽明)과 진백사(陳白沙)의 학문을 주장한데 대하여, 선생은 설문청(薛文淸)이 정통유학의 종주(宗主)임을 주장했던 사례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됨.

5) 연(憐) : ① 애호(愛護)하다. ② 중시하다.

6) 원반(鵷班) : 조정의 조희에 참석한 관료들의 행렬. 원(鵷)은 '원추새'임. 이는 봉황(鳳凰)의 일종으로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임. '원반(鵷班)'이란 말은 원추새가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한아(閑雅)하다 하여, 조정에 늘어난 백관(百官)의 질서정연함을 이룸. 유사한 말로서 '원반로서(鵷班鷺序 : 원추새와 백로가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가 있는데, 약칭으로는 원로(鵷鷺)라 하며, 뜻은 '백관의 행렬'을 가리키는 원반(鵷班)과 같다. 이 말은 일반적인 행렬을 가리키기도 함.

7) 곡립(鶴立) : 고니가 긴 목을 쳐들고 서 있는 모습을 형용한 말로서, 곧 사람이 직립(直立)한 모습을 형용한 것을 가리킴. 본 시에서는 오중주(吳仲周)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대칭(代稱)하였음.

8) 압수(鴨水) : 압록강(鴨綠江). 당시 명(明)과 조선의 국경선으로, 본 시에서는 '조선'이라는 뜻으로 차용하여 썼음.

9) 신숭(神崇) : 승산(嵩山)의 별칭. 숭(嵩)은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북부에 위치한 승산(嵩山)의 약칭. 오악(五嶽) 중의 중악(中嶽)임. 고대에는 외방(外方), 태실(太室)로 불렸으며, 숭고(嵩高)라고도 부름.

10) 상신(傷神) : 정신을 상하게 함.

其二
기 이

[2]

翹首¹¹⁾春雲望海東¹²⁾, 고개 들어 구름 낀 봄날
교수 춘운망해동
조선朝鮮 쪽 바라보며,

朝端邂逅挹高風¹³⁾。 조정朝廷에서 우연히 만난 그대의 풍격
조단해후읍고풍
흠모했소.

晤時譯語猶能記, 만났을 땐 통역내용 즉석에서
오시역어유능기
기록했는데,

別後音書未可通¹⁴⁾。 이별 후 아직까지 서신교환 없었구려.
별후음서미가통

塞外¹⁵⁾蒼山千里隔, 변경邊境 밖 청산이 천리를 격해 있지만,
새외창산천리격

峯頭明月萬方¹⁶⁾同。 산봉우리 위 밝은 달은
봉두명월만방동
천하가 공유한다오.

11) 교수(翹首) : 머리를 들고 바라봄. 대체로 몹시 기다리거나 그리움이 간절함을 비유하여 씀.

12) 해동(海東) : 발해(渤海)의 동쪽이란 뜻에서 우리나라, 곧 ‘조선’을 가리키던 말.

13) 조단해후읍고풍(朝端邂逅挹高風) : 조정(朝廷)에서 우연히 만난 그대 풍격 흠모했소) :

① 조단(朝端) : 조정(朝廷)을 칭함.

② 해후(邂逅) : 우연히 서로 만남.

③ 읍(挹) : 흠모하다, 부러워하다.

④ 고풍(高風) : 고상한 풍도.

14) 통(通) : 교환하다.

15) 새외(塞外) : 중국 고대에는 만리장성 이북의 지역을 가리킴. 또한 ‘새북(塞北)’이라고도 칭함. 일반적으로 요새 밖, 혹은 만리장성 바깥으로 칭함.

16) 만방(萬方) : ☆만국(萬國) : 각방(各方)의 제후. ☆온갖 방법. ☆만관(萬官). ☆본 시에서 는 ‘은 천하’라는 의미로 쓰였음.

相思賴有¹⁷⁾詩堪贈¹⁸⁾， 그리움에 기탁하여 시를 써서
 상 사 퇴 유 시 감 증 보낼 수 있다면,

何日瑤篇¹⁹⁾寄便鴻²⁰⁾。 언젠가 아름다운 시문詩文 지어
 하 일 요 편 기 편 홍 기러기 편에 부칠 것이오.

-
- 17) 퇴유(賴有) : ① 퇴(賴) : 의존하다. 전가시키다. 머물러 떠나려 하지 않다. ② 유(有) : 독립된 단어로 존재하지 못하고, ‘퇴(賴)’ 뒤에 붙어서 접미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굳이 의미를 새길 필요가 없음.
- 18) 감증(堪贈) : ① 감(堪) : 조동사로서, ☆ ~할 수 있다. ☆ ~하기에 족하다. ② 증(贈) : ☆기증(寄贈)하다. ☆부치다.
- 19) 요편(瑤篇) : 아름다운 시문(詩文). 요(瑤)는 사물이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형용하는데, 특히 시문(詩文)의 표현이 아름다운 것을 형용할 때 상용(常用)함.
- 20) 편홍(便鴻) : 인편(人便)에 부탁해서 보내는 서신(書信). ‘홍(鴻)’은 ‘서신(書信)’의 뜻으로 차용(借用)하였음.



시12. 남행南行길에 서극부徐克夫를 유별留別하다

詩12. 南行 留別¹⁾徐克夫²⁾ 仁元
남행 유별 서극부 인원

未見意已傷, 만나기 전에 그리워서 속으로 이미
미견의이상 애태웠는데,
既見情亦苦。 만난 후에는 이별의 정 때문에 역시 괴롭네.
기견정역고
如何萬里別, 왜 만리 밖 먼 곳으로 헤어져야 하는지,
여하만리리
屬此³⁾三秋⁴⁾暮。 때마침 가을도 저물어가는 시기거늘.
속차삼추모

-
- 1) 유별(留別) : 길을 떠나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함. 송별(送別)의 반대말.
 - 2) 서극부(徐克夫) : 서인원(徐仁元 : 1544-1604). 이름은 인원(仁元), 자(字)는 극부(克夫), 호(號)는 명암(鳴巖). 본관은 이천(利川)임. 단양(丹陽) · 금화(金化) · 부여(扶餘) · 춘천(春川) 등지에 군현부목(郡縣府牧)을 두루 역임했으며 갑자사마시(甲子司馬試)에 급제하여 학행(學行)으로 이름이 났음. 임인년(壬寅年 : 1602년, 신조 35년)에 호조참의가 되고 원주부사를 거쳐서 그 이듬해인 계묘년(癸卯年 : 1603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갑진년(甲辰年 : 1604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명암촌(鳴巖村)으로 퇴거하니 지금의 봉명(鳳鳴) 및 조양리(朝陽里)이다. 일찍이 춘천에 있을 때, 명암의 수석(水石)이 아름다움을 취하여 조그마한 정사(精舍 : 집)를 짓고 전약재(傳約齋)라고 현판을 부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성리학(性理學)을 깨우치는 근원을 만들었다. 관직 생활 중에 청렴했으며 평소에 인의(仁義)에 힘썼다고 함.
 - 3) 속차(屬此) : ① 속(屬) : ~에 속하다, 혹은 ~이다. ② 차(此) : 이 시기.
 - 4) 삼추(三秋) : 추계(秋季)의 세 번째 달, 즉 음력 9월.

淒風動遠臯⁵⁾, 찬바람이 저 멀리 강 언덕에서 불어오니,
치 풍 동 원 고

漢江生素波⁶⁾。 한강수면에 흰 물결이 이는구려.
한 강 생 소 파

孤舟從此去, 여기서 일엽편주 타고 떠나게 되면,
고 주 종 차 거

後會知在何。 먼 훗날 어디에 살고 있을지 알겠는가?
후 회 지 재 하

世累苦縻⁷⁾人, 세상사에 시달려 고통 속에 허우적대며,
세 루 고 미 인

荏苒⁸⁾芳時歇⁹⁾。 세월이 흘러 꽃다운 시절 다 보내버렸소.
임 염 방 시 혈

名節非所渝¹⁰⁾, 명절이라고 마음을 들뜨울 것도 아니고,
명 절 비 소 투

富貴非所急。 부귀 위해 마음 조릴 것도 아니라고.
부 귀 비 소 급

共保歲寒心¹¹⁾, 우리 함께 불굴의 절조節操나 보존하여,
공 보 세 한 심

努力崇明德¹²⁾。 미덕을 숭상하도록 노력하세 그려.
노 력 중 명 덕

高山有蒼桂, 높은 산에는 푸른 계수나무 살고 있고,
고 산 유 창 계

5) 고(臯) : 물가, 안(岸), 수변지(水邊地).

6) 소파(素波) : 흰 물결, 흰 파도. 소(素)는 백색(白色)의 뜻임.

7) 미(縻) : ① 속박(束縛)하다. ② 견제(牽制)하다.

8) 임염(荏苒) : ① 차츰 차츰 세월이 지나감. ② 사물이 점진적으로 변화함.

9) 혈(歇) : ① 다하다(盡). ② 소실(消失)하다.

10) 투(渝) : 본음(本音)은 '유'. 변경하다, 달라지다, 넘쳐흐르다.

11) 세한심(歲寒心) : 견정불굴(堅貞不屈)의 절조(節操)를 비유한 말.

12) 명덕(明德) : ① 광명지덕(光明之德)의 준말로써 미덕(美德)을 말. ② 재덕(才德)이 겸비한 사람을 가리킴.

清水有白石。 청결한 물에는 흰 돌이 깔려 있다오.
청 수 유 백 석

思君¹³⁾珍重意, 그대를 생각하여 품은 뜻을 증시하구려,
사 군 진 중 의

百結何由¹⁴⁾釋。 가슴에 얽힌 백가지 매듭 어디서부터 풀꼬?
백 결 하 유 석

13) 사군(思君) : 군(君)은 2인칭대명사. 여기서서는 서극부를 칭하는 것으로 보임.

14) 하유(何由) : '하요(何繇)'로도 씀.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시13. 걸어서 강가로 나와 배를 타고 입암^{立巖}
으로 건너가, 겸암정사^{謙巖精舍}에서 묵다

詩13. 步出河上 船渡立巖¹⁾ 宿謙巖精舍
보출하상 선도입암 숙겸암정사



曳²⁾杖行沙岸, 지팡이 짚고 걸어서 모래언덕에 나와,
에 장행사안

呼船過水村。 배를 불러 타고 강 건너 마을로 갔네.
호선과수촌

薄雲巖際³⁾宿, 얇은 구름 휘감긴 암벽 곁에 묵는데,
박운암제숙

孤月浪中翻⁴⁾。 외로운 달이 물결 속에서 일렁이네.
고월낭중번

煙樹⁵⁾千家靜, 안개 깔린 수목 속에 온 동네가 조용한데,
연수천가정

1) 입암(立巖) : 경북 안동시(安東市) 풍천면(豊川面) 광덕동(廣德洞)에 위치한 부용대(芙蓉臺) 중간 지점의 절벽 아래쪽 강변에 있는 바위의 명칭임.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지만, 낙동강이 범람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다 하여,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를 역임한 류중영(柳仲郢)의 자호(字號)의 유래가 된 바위임. 화회동(河回洞) 쪽에 서서, 부용대를 정면으로 봤을 때, 이 바위를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는 입암 류중영의 장자(長子), 문경공(文敬公)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이 후학 양성을 위해 세운 겸암정사(謙巖精舍)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차자(次子)인 문충공(文忠公) 서예(西厓) 류성룡(柳成龍)이 학문을 닦고 저술을 하던 옥연정사(玉淵精舍)가 있음.

2) 에(曳) : ① 짚다. ② 끌다.

3) 제(際) : 두 사물의 중간, 가장자리.

4) 번(翻) : 일렁거리다, 일렁이다, 흔들거리다.

秋蟲四壁喧⁶⁾。 가을벌레 울음소리 사방에서 요란하네.
추 충 사 벽 환

獨來無晤語⁷⁾， 홀로 와서 말 건넌 사람 없으니，
독 래 무 오 어

愁思滿江軒⁸⁾。 가을시름이 강변 난간에 가득하네.
수 사 만 강 현

5) 연수(煙樹) : 연무나 안개 또는 구름에 싸여 뽕얇게(흐릿하게) 멀리 보이는 나무.

6) 환(喧) : 요란하다, 시끄럽다.

7) 오어(晤語) : 대면(對面)하여 이야기하다, 오(晤)는 대면(對面)하다, 회견하다.

8) 현(軒) : 난간, 집.

시14. 흥취에 기탁하여

詩14. 寓興 우 흥



靜思憐虛寂¹⁾, 고요히 생각하니 적적한 시간이 아까워,
靜 사 린 허 적

閒身²⁾愛翠微³⁾。 한가한 이 사람은 푸른 산색山色 즐기네.
한 신 애 취 미

霧深玄豹⁴⁾隱, 안개가 짙어지니 흑표범 숨어버리고,
무 심 현 표 은

江晚白鷗⁵⁾稀。 강변에 날 저무니 갈매기도 뜨문뜨문.
강 만 백 구 희

-
- 1) 허적(虛寂) : ‘허무적정(虛無寂靜)’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정(淸靜)’이란 말임. 허무(虛無)는 ‘마음의 상태가 맑고 무욕(無欲)하여, 애(愛 : 좋아하거나 사랑함)·오(惡 : 싫어하거나 미워함)하는 바가 없는 것’을 말함. 적정(寂靜)은 ‘일체의 번뇌가 없는 순정(純靜)한 심경(心境)’을 말함. 요약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욕망과 일체의 번뇌가 없는 순정(純靜)하고 깨끗한 심경’이란 뜻임. 청정(淸靜)은 ‘욕망을 탈피하여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경지로 세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상태’를 이룸.
 - 2) 한신(閒身) : 한신(閑身)이라고도 씀. ① 한가한 사람. ② 옛날에는 관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켰음. ③ 일없이 노는 사람. ④ 관계(용무)가 없는 사람.
 - 3) 취미(翠微) : 먼 산에 아른아른 보이는 푸른 빛. 청록 빛의 산색(山色).
 - 4) 현표(玄豹) : 흑표범. 이는 은사(隱士)를 비유한 말임. 한(漢)나라 유향(劉向)의 저서 『열녀전(列女傳)·도담자처편(陶答子妻篇)』에서 이르기를 : “남산(南山)에 현표(玄豹) 한 마리가 사는데, 연일 비 오고 안개 낀 7일 동안에, 아무 것도 먹지를 못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현표(玄豹)가 그의 모피(毛皮)를 윤기 나게 하여, 색채와 문양이 제대로 착색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 맞고 습기에 젖는 것을 피하려고 숨어 살았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현표(玄豹)’라는 말을 ‘계주를 품었으나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있어서 은거(隱居)하는 사람에 비유했다’고 하였음.

散月千峯皓, 달빛이 흩어지니 일천 봉우리 희게 빛나고,
산 월 천 봉 호

驚霜萬葉飛。 서리에 놀라 일만 잎새 낙엽 되어 흩날리네.
경 상 만 잎 비

鐘聲⁶⁾如有省⁷⁾, 범종梵鐘 소리 듣고 깨달음에 이른다면,
종 성 여 유 성

三十六年非⁸⁾。 내 나이가 기껏 서른여섯이겠는가?
삼 십 육 년 비

5) 백구(白鷗) : 갈매기.

6) 종성(鐘聲) : 범종(梵鐘)의 소리. 절에서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나 때를 알리기 위해서 치는 큰 종.

7) 여유성(如有省) : ‘만약 깨달음에 이른다면’의 뜻임.

① 여(如) : 가정(假定)을 표시하는 접속사로서, ‘만약 ~한다면’임.

② 성(省) : 깨닫다.

8) 비(非) : 의문조사로서, ‘부(否)’자에 해당함. 현대 중국어의 ‘마(嗎)’와 같음. ‘~인가?, ~냐? ~입니까?’의 뜻임. 예를 들면 : “이 분이 천자이십니까?(是天子非?)”와 같은 것이 있음.



시15. 1578년(무인년 戊寅年 선조宣祖 11, 서애西厓 37세) 음력 8월, 내가 남행하는 길에 동호東湖에 위치한 몽퇴정夢賚亭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사인舍人 이경함李景涵·내한內翰 이경연李景淵·좌랑佐郎 이백생李伯生·정랑正郎 홍흥도洪興道·목사牧使 유사영兪思永·내한內翰 김자첨金子瞻·참봉參奉 허행원許行員 및 그들 선비들의 친구인 권형숙權亨叔·감역監役 박대의朴大宜·참봉參奉 이굉증李宏仲 등과 동숙하고 나서, 이튿날 그들이 남쪽 강변에서 나를 송별하였고, 나는 시를 지어 그들을 유별留別하였다

詩15. 戊寅中秋 余南行 宿東湖¹⁾之夢賚亭²⁾ 李舍人景涵³⁾
 무인 중 추 여 남 행 숙 동 호 지 몽 좌 정 이 사 인 경 함
 李內翰景淵⁴⁾ 李佐郎伯生⁵⁾ 洪正郎興道⁶⁾
 이 내 한 경 연 이 좌 랑 백 생 홍 정 랑 흥 도

- 1) 동호(東湖) : 지금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 1동에 위치한 수도산(修道山) 아래 있던 호수로서, 한강과 연계되어 있었다. 한양(漢陽)에서 지방으로 떠나는 선비들과 머무는 사람들과의 전별(餞別)하는 장소이기도 했으며, 이곳에 배를 띄우고 풍류를 즐기며 시문(詩文)을 남기던 장소였다. 수도산 기슭에는 봉은사(奉恩寺)가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몽퇴정(夢賚亭)이 있었음.
- 2) 몽퇴정(夢賚亭) : 위 동호(東湖)의 호숫가에 위치한 수도산 기슭에 있던 정자(亭子).
- 3) 이사인 경함(李舍人 景涵) : ‘이(李)는 성씨, 사인(舍人)은 직함, 경함(景涵)은 자(字)’임. 이름은 발(潑).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자(字)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임.
 - ① 이발(李潑 : 1544-1589) : 조선 선조(宣祖) 때의 정치가이며, 동인(東人)의 중심인물임. 1573년(선조 6년) 문과에 급제, 알성장원(謁聖壯元)에 발탁, 전랑(鎔郎)에 보직되어 세상에 이름을 떨쳤음. 선조 16년에 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고, 이듬해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음. 북인(北人)의 수령이 되어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제창하였으나,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에 연좌(連坐)되어 장살(杖殺)되었음.
 - ② 사인(舍人) : 의정부(議政府)에 두었던 정사품직(正四品職)으로 정원은 2명이었음. 왕과 의정부 사이에 연락관계의 일을 맡았음.
- 4) 이내한 경연(李內翰 景淵) : 이(李)는 성씨이고, 내한(內翰)은 직함이며, 경연(景淵)은 자(字)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例)임. 이름은 길(洁)임.

俞牧使思永⁷⁾ 金內翰子瞻⁸⁾ 許參奉行員⁹⁾ 暨士友¹⁰⁾
 유 목 사 사 영 김 내 한 자瞻 허 참 흥 행 원 기 사 우

- ① 이길(李洁 : 1547-1589)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으로 호는 남계(南溪)임. 1577년(선조 10) 태묘별시문과(太廟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사인(舍人)을 거쳐 벼슬이 응교(應敎)에 이르렀음. 이이(李珣)·성혼(成渾)과 교분이 차츰 소원해지자 서인(西人)들이 미워하므로, 시사(時事)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고향으로 물러갈 때 낙향하였음.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을 계기로 서인들이 집권하자 동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져 형 발(發)과 급(汲) 등은 모진 고문 끝에 장살(杖殺)되었고, 그도 최천(熙川)으로 귀양 갔다가 뒤에 불러 와서 역시 죽음을 당하였음. 1694년(肅宗 20)에 신원(伸冤)되고 부제학에 추증(追贈)되었음.
- ② 내한(內翰) : 조선시대 예문관(藝文館)에서 사초(史草)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정9품 벼슬인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예스럽게 이르던 말.
- 5) 이좌랑 백생(李佐郎 伯生) : 이(李)는 성씨이고, 좌랑(佐郎)은 직함이며, 백생(伯生)은 자(字)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例)임. 이름은 순인(純仁)임.
- ① 이순인(李純仁 : 1543-1592)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으로 이황(李滉), 조식(曹植)의 문인임.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병조 좌랑(兵曹 佐郎)·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 등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으나, 당시 재상의 뜻을 거슬러 사직하였음. 1586년 사간에 임명, 부승지(副承旨)·형조 참의(刑曹 參議)·승문원 제조(承文院 提調)가 되어, 동지사(冬至使)로 명(明)나라를 다녀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조 참의(禮曹 參議)로 종전과 동궁을 모시고 성천(成川)에 이르러서 과로로 병사하였음. 문장에 뛰어나 이산해(李山海) 등과 함께 '팔문장(八文章)'이라 불렸음. 저서로 『고담집(孤潭集)』 5권이 있음.
- ② 좌랑(佐郎) : 조선시대 육조(六曹) : 정무(政務)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관부의 정6품 벼슬.
- 6) 홍정랑 흥도(洪正郎 興道) : 홍(洪)은 성씨이고, 정랑(正郎)은 직함이며, 흥도(興道)는 자(字)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例)임. 이름은 가신(可臣)임.
- ① 흥가신(洪可臣 : 1541-1615)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이며, 학자임. 호는 만전당(晩全堂). 민순(閔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음. 1588년 수원부사로 있을 때, 구황(救荒)의 공(功)이 있어 표창을 받았으나, 평소예 정여립(鄭汝立)과 가까이 지냈다가 1589년 정여립 모반사건 때, 파직당하였다가 1593년 파주목사가 되고 이듬해 홍주목사로 부임하여 1596년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민병을 규합하여 무장 박명현(朴名賢) 등과 함께 난을 평정하였음. 강화부사, 형조참판, 강원도 관찰사 등을 지냈고,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영원군(寧原君)에 봉해짐. 1610년 형조판서에 이른 뒤 관직에서 물러나 아산에서 죽음.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과 온양의 정퇴서원(靜退書院)에 봉안되었으며, 저서로는 『만전집(晩全集)』과 『만전당만록(晩全堂漫錄)』이 있음. 시호는 문장(文莊)임. 그는 또한 부여(扶餘) 현감으로 있을 때, 백제(百濟)의 충신들을 위한 사당(祠堂)을 지어 그들을 역사적으로 복권시켰으며, 특히 서애(西厓)와는 절친했던 친구였으며,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과는 사돈을 맺었던 인물임.
- ② 정랑(正郎) : 조선시대에 육조(六曹)에 정5품(正五品) 벼슬.
- 7) 유목사 사영(俞牧使 思永) : 유(俞)는 성씨이고, 목사(牧使)는 직함이며, 사영(思永)은 자(字)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例)임. 이름은 대수(大脩)임.
- ① 유대수(俞大脩 : 1546-1586)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임. 이황(李滉), 이중호(李仲虎)

權亨叔¹¹⁾ 박監役大宜¹²⁾ 李參奉宏仲¹³⁾ 同宿 明日
권형숙 박감역대의 이참봉홍중 동숙명일

의 문인(門人)으로 형조, 호조, 예조의 좌랑(佐郎)을 거쳐, 경상도 도사(慶尙道 都事) 등 10년간 외직(外職)을 지낸 뒤,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이 되었음. 그 뒤 충주목사(忠州牧使), 사옹원정(司饔院正)을 거쳐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으로 내참시정(內瞻寺正)을 겸직하였음. 1584년 안동부사(安東府使)에 올랐으나 이듬해 남장(濫杖)의 죄로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음.

- ② 목사(牧使) : 조선시대 관찰사 밑에서 목(牧 : 큰 고을에 두었던 지방행정 단위)을 다스리던 정3품 외직 문관으로 병권(兵權)도 함께 가졌음.
- 8) 김내한 자침(金內翰 子瞻) : 김(金)은 성씨이고, 내한(內翰)은 직함이며, 자침(子瞻)은 자(字)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例)임. 이름은 침(瞻)임.
 - ① 김침(金瞻 : 1542-?)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 자는 자침(子瞻), 호는 하당(荷塘), 남강(南岡), 동강(東岡). 1576년(선조 9)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1579년 사기독서(賜暇讀書)하였음. 그 해에 류성룡(柳成龍) 등과 함께 이이(李珣)가 올린 상소에 대해 옳지 않다고 탄핵했으며, 1581년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서 박근원(朴謹元)을 이조참판(吏曹參判)에 등용할 것을 주청하였음. 1582년 교리(校理)를 거쳐 고경명(高敬命) 대신 경상도재상경차관(慶尙道災傷敬差官)으로 나갔음. 이듬해 중사관이 되어 중국에 다녀온 뒤 이이(李珣)를 탄핵하다가 지례현감(知禮縣監)으로 좌천되고, 1584년 파직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죽었음.
 - ② 내한(內翰) : 위의 주석 4)의 ②를 참조 바람.
- 9) 허참봉 행원(許參奉 行遠) : 허(許)는 성씨이고, 참봉(參奉)은 직함(職銜)이며, 행원(行遠)은 자(字)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例)임.
 - ① 허참봉(許參奉)의 이름과 이력이 미상임.
 - ② 참봉(參奉) : 조선시대의 관직. 능(陵), 원(圓), 종친부(宗親府), 돈녕부(敦寧府), 군기시(軍器寺), 봉상시(奉常寺), 사역원(司譯院), 사직서(社稷署),惠民서(惠民署), 내의원(內醫院) 등에 두었던 종9품의 벼슬임.
- 10) 기사우(暨士友) : 미상(未詳).
- 11) 권형숙(權亨叔) : 권(權)은 성씨이고, 형숙(亨叔)은 자(字)임. 이름은 응시(應時)임.
 - ① 권응시(權應時 : 1541-1587) : 조선 중기의 문관. 호는 송학(松鶴), 1581년(선조 14)에 천거로서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을 제수 받았음. 그 이듬해에 맡은 일에 충실한 면이 인정되어 감찰에 발탁된 후로 공조좌랑(工曹佐郎),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쳐 군위현감으로 재직 중에 지례현감(知禮縣監)인 김침(金瞻)과 함께 시주(詩酒)를 일삼다가 현내에 대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파직당하기도 하였음.
- 12) 박감역 대의(朴監役大宜) : 박(朴)은 성씨이고, 감역(監役)은 직함이며, 대의(大宜)는 자(字)임.
 - ① 박감역(朴監役)의 이름 및 이력은 미상.
 - ② 감역(監役) : 조선시대 관직의 하나, 명종 때 선공감(繕工監)에 두었던 종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 감독하는 일을 맡아 보았으며, 인원은 3명이었음.
- 13) 이참봉 굉중(李參奉宏仲) : 이(李)는 성씨이고, 참봉(參奉)은 직함이며, 굉중(宏仲)은 자(字)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뒤에 자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例)임. 이름은 덕홍(德弘)임.
 - ① 이덕홍(李德弘 : 1541-1596) : 호(號)는 간재(艮齋)이며,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

送于南岸 余作詩留別
 송 우 남 안 여 작 시 유 별

又作¹⁴臨流別¹⁵， 다시 또 유별留別 인사 나뉘야 할 즈음에，
 우 작 임 류 별

長懷去國¹⁶愁。 도성都城을 떠날 걱정 가슴 깊이 스며드네.
 장 회 거 국 수

沙平人杳杳¹⁷， 모래펄 끝이 없어 벗들 모습 가물거리고，
 사 평 인 묘 묘

天遠水悠悠¹⁸。 하늘은 아득한데 강물은 유유히 흐르네.
 천 원 수 유 유

直以名爲累¹⁹， 줄곧 명성名聲을 우환거리로 여겨왔나니，
 직 이 명 위 루

인(門人).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여 이퇴계(李退溪)로부터 자식처럼 사랑을 받았음. 특히 그는 역학(易學)에 밝았고, 1578년(선조 11) 조정에서 이름 난 선비 9명을 천거할 때 제4위에 뽑혔음. 처음 집경전(集慶殿) 참봉이 되어 종묘직장 익위사부수(宗廟直長 翊衛司副率)에 승진하였다가 양친(養親)을 위해 영춘(永春)현감으로 나갔음. 성품이 단정하고 언행이 독실했으며, 젊어서부터 대현(大賢)의 문에 출입하여 건문을 넓혔음.

② 참봉(參奉) : 위 주석 9)의 ②를 참조 바람.

14) 작별(作別) : 이별을 통지하다.

15) 유별(流別) : ‘유(流)’는 ‘留’와 통함. 따라서 유별(留別)과 같은 뜻임.

16) 거국(去國) : ① 본국을 떠나다. ② 경도(京都) 혹은 조정(朝廷)을 떠나다. ③ 국도(國都)를 떠나다.

17) 묘묘(杳杳) : ① 아득하다. ② 어슴푸레하다, 어렴풋하다, 희미하다.

18) 유유(悠悠) : ① 끊임없이 이어진 모양. ② 아득하게 먼 모양.

19) 직이명위루(直以名爲累) : 줄곧 명성(名聲)을 우환거리로 여겨 왔나니) :

① 직(直) : 줄곧.

② 이명위루(以名爲累) : 명예를 우환거리로 여기다.

其如跡似浮。
기 어 적 사 부

그것은 발자극이나 부유물浮遊物 같았네.

江南有明月，
강 남 유 명 월

강남에 밝은 달이 떠오르면,

何處獨登樓。
하 처 독 등 루

어디서든 홀로 누각에 오를 수 있겠는가?



시 16. 풍악서원 豐嶽書院 유사 有司에게 고시 告示하다

詩 16. 示 豐嶽書院 有司¹⁾ 시 풍 악 서 원 유 사

黨塾遺規此可尋²⁾, 향학 鄉學에서 전해진 향약 鄉約의 규약
당 속 유 규 차 가 심 오늘날도 연속돼야 하느니,

1) 시풍악서원유사(示豐嶽書院有司 : 풍악서원 유사에게 고시하다) :

- ① 시(示) : 고시(告示)하다.
- ② 풍악서원(豐嶽書院) : 경북 안동시(安東市) 풍천면(豐川面) 병산동(屏山洞)에 위치한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전신(前身)으로, 고려말엽에 세워졌던 풍산류씨(豊山柳氏)의 사학(私學)이었다. 풍악서당(豊岳書堂)이라고도 씀. 서애(西厓)의 사후, 1610년에 이 풍악서원(豐嶽書院)의 서당을 바탕으로 하여 서원을 건립하고 류성룡을 향사(享祀)한 것이 지금의 병산서원(屏山書院)임.
- ③ 유사(有司) : 서원에서 (조선시대의 향소<鄉所>를 비롯해서 후세의 종친회나 친목회 등 단체조직에서) 사무를 맡아보던 직무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킴.

2) 당속유규차가심(黨塾遺規此可尋 : 향학<鄉學>에서 전해진 향약<鄉約>의 규약 오늘날도 연속돼야 하느니) :

- ① 당속(黨塾) : 원래는 중국 고대의 지방 사립교육기관의 명칭이었으나, 여기서는 고려시대의 지방교육 기관인 향학(鄉學)을 가리킴. 본 시에서는 향학의 예스러운 표현으로 쓰였음. 조선시대의 향교(鄉校)와 상통함. 중앙의 국학(國學 : 즉 국자감<國子監>)을 축소한 형태로 지방에 설치되어 지방문화 향상에 이바지하였음.
- ② 유규(遺規) : 유규(遺規)의 사전적 의미는 전해지는 규례(規例), 즉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말하는 것이나, 본 시에서는 ‘향약(鄉約)의 규례’를 가리킴. 이 향약은 지방교육기관인 향학(鄉學)의 규약이자 조선시대에 덕화(德化)와 권선징악 및 상호협조 등을 목적으로 만든 향촌(鄉村)의 자치규약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로 널리 시행되었으며, 그 모체(母體)를 이룬 것은 중국 북송(北宋) 말기의 『여씨향약(呂氏鄉約)』이다. 『여씨향약』의 기본 내용은 네 가지 규약으로 즉 첫째,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德業相助). 둘째, 잘못은 서로 고쳐준다(過失相規). 셋째, 서로 사귀에 예의를 갖춘다(禮俗相交). 넷째, 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제한다(患難相助)이다.
바로 이 『여씨향약』은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실렸으므로, 주자학(朱子學)이 조선에

藏修³⁾猶恨未山林⁴⁾.
장수 유한 미 산림

진작 산림에 은거하지 않았던 게
유감이란 듯 배운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하네.

誰將靜界⁵⁾連喧界⁶⁾,
수 장 정 계 연 환 계

어떤 사람이 청정세계를 속세에
연계시킬까?

足使塵心勝道心。
족사진심승도심

속심俗心으로 도심道心을
족히 감당해낼 자일세.

絳帳⁷⁾每煩車馬過,
강장 매 번 거마과

붉은 장막 친 스승의 서재는
언제나 거마車馬 출입이 번잡하고,

전래되었을 때 동시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는 조선에 들어온 이후, 조선사회 풍교(風教)에 끼친 영향이 많았던 관계로 당시 인재교육에 힘썼던 이황(李滉)과 이이(李珣)는 이를 우리의 풍습과 민정(民情)에 맞춘 우리의 향약을 만들어서 당시 서원(書院)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이황은 『여씨향약』을 모태로 『예안향약(禮安鄉約)』을 만들었고, 이이는 『예안향약(禮安鄉約)』과 『여씨향약(呂氏鄉約)』을 모태로 『서원향약(西原鄉約)』을 만들었다. 다음 세대의 서애(西厓) 역시 이들의 영향을 받아, 향약을 모태로 <향규조(향규구조(鄉規舊條))와 <신정향약십조(新定鄉約十條))라는 향약을 만들었음. 아마도 본 시에서 말하는 ‘유규(遺規)’란, 이러한 유래에 의거하여 만든 서애의 향약(鄉約)의 규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③ 심(尋) : 연속되다.

3) 장수(藏修) : ‘장수(藏脩)’로도 씀.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마음이 항상 학문에서 떠나지 않다’ 또는 ‘진심전력하여 학습하다’ 혹은 ‘집중하여 공부하다’는 뜻임. 『예기(禮記)·학기편(學記篇)』에, “군자가 학문을 함에 대해서(君子之於學也), 배운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藏焉), 그것을 익히고 실천하며(修焉), 쉬면서도 학예(學藝)를 익히고(息焉), 놀고 즐기면서도(遊焉), 그렇게 해야 한다(夫然)”고 하였다. 이 말은 정규수업 과정에서 ‘장수(藏修)’해야 함은 물론, 정규수업 이외의 ‘유식(遊息)’하는 시간에도 마음이 학문을 떠나서는 아니 됨을 강조한 말임.

4) 산림(山林) : 산과 수림. 전(轉)하여 ‘은거하다’는 뜻으로 씀.

5) 정계(靜界) : 청정(淸靜)한 경계(境界).

6) 환계(喧界) : 시끄러운 경계(境界). 본 시에서는 속세(俗世)를 가리킴.

7) 강장(絳帳) : ‘진홍색의 장막’이란 뜻이나, 전(轉)하여, ‘스승이 앉는 자리, 혹은 학자의 서재, 스승의 문하’라는 말의 경칭(敬稱)으로 씀. 『후한서(後漢書)·마융전(馬融傳)』에 이르기를, ‘마융(馬融)은 재능이 뛰어나고 박학하여 사물에 막힘이 없었으며(融才高博洽), 고금을 통달하고 학식이 해박한 유학자가 되어(爲世通儒),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教養諸生), 그 생도 숫자가 항상 천여 명이었다(常有千數). … 그가 거거하는 집을 중시하고, 공경하며 심복하여(居宇器服), 사치스러운 장식을 많이 하였다(多在修飾). 그는 늘상 높은 대

碧崖⁸⁾間繞⁹⁾水雲深。
벽애 간요 수운심

이끼 낀 절벽엔 돌연
질은 비구름이 감싸네.

諸君有意能遷卜¹⁰⁾，
제군유의능천복

제군들이 흉조를 길조로 바꿀
의사가 있다면,

好事應須斷¹¹⁾自今¹²⁾。
호사용수단자금

좋은 일은 응당 지금부터
작심해야 하네.

청마루에 앉아서 강의하였는데(常坐高堂), 그 곳에는 진홍색 비단으로 장막을 쳐놓고(施絳紗帳), 장막 앞쪽에는 생도들을 앉혀놓고 강의하였으며(前授生徒), 장막 뒤쪽에는 여성으로 구성된 악단을 열을 지어 앉힌 다음(後列女樂), 제자들을 순차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弟子以次相傳), 그 집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숫자가 적었다(鮮有入其室者)”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글로 인해서 “강장(絳帳)”이란 말을 ‘사문(師門 : 스승의 문하)’ 혹은 ‘강석(講席 : 스승이 강의할 때 앉는 자리)’의 경칭(敬稱)으로 썼음.

8) 벽애(碧崖) : 푸른 이끼가 낀 절벽.

9) 간요(間繞) : 간(間)은 ‘간(間)’과 통하며, 이는 ‘일순간, 잠깐 동안’의 의미를 띠. 따라서 ‘간요(間繞)’는 순간적으로 에워싸는 상황을 묘사한 표현임.

10) 복(卜) : 길흉예측을 가리킴.

11) 단(斷) : 판단하다. 전(轉)하여, 작심하다.

12) 자금(自今) : 지금부터. 자(自)는 개사(介詞)로서, 장소나 시간 앞에 쓰여 그 출발점을 나타내며, ‘~부터, ~에서’의 뜻으로 쓰임.



시17. 정사^{精舍}에 매화가 피기 시작함에,
 매화나무 주변을 거닐면서 시를 읊는데,
 마침 시 한 수를 요구하는 승려가 있어,
 창졸간에 한 수 지어서 증여하다
 (신사년^{辛巳年} : 1581년, 선조^{宣祖} 14, 서애^{西厓} 40세)

詩17. 精舍¹⁾梅花始開 方繞樹行吟²⁾ 適有求詩僧
 정사 매화시개 방요수행음 적유구시승
 造次³⁾寫贈 辛巳
 조차사증 신사

1) 정사(精舍) : 학문을 닦기 위해 마련한 집, 혹은 정신 수양을 하는 곳.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를 가리킴.

① 원지정사(遠志精舍) : 하회(河回) 원지정사(遠志精舍). 중요민속자료 85호.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精舍)는 서애(西厓)가 32세 때(선조 6, 1573년)에 부친 상을 당하여,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임.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임.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류씨의 동쪽마을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민속·유교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촌임. 조선 선조 6년(1573)에 지었다고 하며, 북촌(北村)의 북쪽에 강을 향해 정사(精舍)와 누정(樓亭)인 연좌루(燕坐樓)가 자리 잡고 있음. 누(樓)마루 사방에는 난간을 들렀으며 강가의 소나무 숲과 강 건너편 부용대(芙蓉臺), 옥연정사(玉淵精舍, 중요민속자료 제88호) 일대가 바라다 보임.

‘원지(遠志)’라는 말은 송(宋)나라의 유학자(儒學者) 유의경(劉義慶)이 찬(撰)한 『세설신어(世說新語)』 하(下), 제25 배조(排調)에 나오는 말로서,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원지(遠志) : 약초(藥草) 이름으로 애기풀의 뿌리)가 되고(處則爲遠志), 땅 위로 나오면 소초(小草) <약초 ‘원지’의 싹>가 된다(出則爲小草)”라고 한 대목에서 따온 것인데,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땅속에 있는 뿌리는 원지(遠志)라 하고, 땅위로 나온 싹은 소초(小草)라고 한다’는 뜻이나, 심층적인 뜻은 원지(遠志)를 ‘은거(隱居)’에 비유하고 소초(小草)는 때가 아님에도 출사(出仕) : 벼슬하여 관청에 출근함)해서 ‘평범해 짐에 비유함. 즉 ‘은거하면 뜻이 고원(高遠)하지만, 출사(出仕)하면, 보잘 것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2) 행음(行吟) : 거닐면서 읊조리다.

3) 조차(造次) : 창졸간. ① 조(造) : 창졸(倉猝), 돌연(突然). ② 차(次) : 간(間), 제(際).

細草⁴⁾初生洛水⁵⁾湄, 낙동강 물가에 새싹이 갓 돋아나니,
세 초 초 생 낙 수 미

梅花又發驛南枝。 역참驛站 남쪽 매화가지도
매 화 우 발 역 남 지
곧 꽃망을 터뜨리겠지.

斜陽獨抱巡簷興, 석양빛 안고 홀로 처마 밑 거닐며 흥겨운데,
사 양 독 포 순 첩 흥

偶寫山僧軸⁶⁾裏詩。 우연히 승려가 펼친 두루마리에
우 사 산 승 축 리 시
시 한 수 써 줬네.

4) 세초(細草) : 소초(小草), 풀잎의 새싹.

5) 낙수(洛水) : 낙동강.

6) 축(軸) : 두루마리. 가로로 길게 이어 돌돌 둥글게 만 종이. 편지나 그 밖의 글을 쓸 때 씀.

시18. 대사간大司諫으로 소환되어 (상경하는 길에)
문경聞慶에서 묵으면서
(임오년壬午年 : 1582년, 선조宣祖 15, 서애西厓 41세)



詩18. 以大司諫¹⁾被召 宿聞慶 壬午
이 대 사 간 피 소 숙 문 경 임 오

山館²⁾停驂³⁾慰客愁, 산중 역관驛館에 말 세워놓고
나그네 시름 달래고자,
華軒⁴⁾隨意暫淹留⁵⁾。 마루 난간에 기대어
마음 가는 대로 잠시 지체했네.
連天紫氣⁶⁾孤峯夕, 자줏빛 서기瑞氣 하늘에 달고
외딴 산정山頂에 날 저무는데,

- 1) 대사간(大司諫) : 조선시대에 제정한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충간(忠諫)하는 일을 맡아 보는 한편, 다른 사람의 언론을 왕에게 상주(上奏)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대사간은 정3품으로 1인을 두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 보았음.
- 2) 산관(山館) : 산중에 위치한 역관(驛館)으로, 객사(客舍) 혹은 객관(客館)이라고도 함.
- 3) 참(驂) : ① 말. 혹은 말을 달린다. ② 마차. 고대의 마차는 네 필의 말이 끄는데 바깥쪽 좌우의 말은 참(驂) 또는 비(駢)라 하고, 안쪽 두 필의 말을 복(服)이라고 함.
- 4) 화현(華軒) : ① 부귀한 사람들이 타는 화려하게 꾸민 수레를 가리킴. ② 장식에 문양을 새겨 넣은 곡난(曲欄), 전(轉)하여 '화려한 전당(殿堂)'을 가리키거나, 혹은 역관(驛館)의 난간을 가리킴.
- 5) 염류(淹留) : ① 체류하다, 머물다. ② 지체하다.
- 6) 자기(紫氣) : 자주 빛의 서기(瑞氣).

背日丹霞⁷⁾萬樹秋。
배 일 단 하 만 수 추

석양을 등진 저녁놀이
온갖 수목이 가을이로세.

千里恩除⁸⁾慙諫議,
천 리 은 제 참 간 의

천리 먼 데서 벼슬 내려주시며
충간^{忠諫}하라시니 부끄럽네,

百年心計⁹⁾只歸休¹⁰⁾。
백 년 심 계 지 귀 휴

백년 소망이 그저 퇴직하고
쉬는 것인데.

清流到處纓堪濯,
청 류 도 처 영 감 탁

맑은 물 도처에 흘러서
갓끈을 씻기에 족하거늘,

嶺路¹¹⁾艱危更轉頭¹²⁾。
영 로 간 위 경 전 두

조령^{鳥嶺}길이 험난하나
다시 생각을 바꿔야지.

7) 단하(丹霞) : 붉게 물든 저녁 놀.

8) 은제(恩除) : 조정에서 관직을 제수(除授)하다. 제(除)는 ‘벼슬 주다. 임관하다’의 뜻.

9) 심계(心計) : 소망, 심산(心算).

10) 귀휴(歸休) : ① 관직에서 물러나 퇴직하다. ②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하다. ③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다.

11) 영로(嶺路) : 경북 문경시(聞慶市) 상초리(上草里)에 위치한 소백산맥(小白山脈)의 조령(鳥嶺 : 새재) 고갯길을 가리킴. ‘새재’는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槐山郡) 사이에 있는 해발 1,017m의 고갯길임.

옛날 영남에서 서울로 가려면 문경에서 주흘산(主屹山)을 넘는 것이 보통이었음. 신라시대에는 주흘산의 갈래인 대축산(黛蜀山)을 넘어 계림령(鷄林嶺)으로 다녔고, 조선 초기부터는 조령(鳥嶺)이 개척되었음.

임진왜란의 빼이픈 경험이 이곳에 중국의 산해관(山海關)과 같은 방위시설을 축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1594년(선조 27)에 당시 영의정이던 서애 류성룡의 주도하에 실측(實測)되어 문경관문(聞慶關門)의 건설이 착공되었음.

12) 전두(轉頭) : ① 생각을 바꾸다. ② 고개를 돌리다.

시19. 경운루慶雲樓에서 이효칙李孝則의 시에 차운次韻하다



詩19. 慶雲樓¹⁾ 次李孝則²⁾ 韻
경운루 차이효칙운

眼中人事自紛紛³⁾, 마음 속 인간사도 절로 뒤숭숭해지거늘,
안중인사자분분

身外浮名⁴⁾更似雲。 몸 밖 허황된 명성 더욱 뜬 구름 같다네.
신외부명경사운

來坐竹軒新霽⁵⁾後, 막 비 갠 후 죽헌竹軒에 와서 앉아있으니,
래좌죽헌신제후

石溪終日洗心聞。 계곡에서 온종일 마음 씻어주는
석계종일세심문
물소리 들리네.

-
- 1) 경운루(慶雲樓) : 지금의 문경 제1관문인 주흘관(主屹關) 부근에 위치했던 객관(客官) 등 남부에 자리하고 있었던 누각. 현존하지 않음.
 - 2) 이효칙(李孝則 : 1476-1544) : 이효칙은 본관이 고성(固城)이고, 초명(初名)은 측(側), 자는 희인(希仁), 호는 쌍탄(雙灘). 전의감봉사(典醫監奉事)를 역임함. 시문(詩文)에 뛰어나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함.
 - 3) 안중인사자분분(眼中人事自紛紛 : 마음 속 인간사도 절로 뒤숭숭해지거늘) :
 - ① 안중(眼中) : 마음 속.
 - ② 인사(人事) : 인간사.
 - ③ 분분(紛紛) :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다.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다. ☆어지럽다. ☆(소문,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분분하다.
 - 4) 부명(浮名) :
 - ① 허황된 명성. ②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명성.
 - 5) 신제(新霽) : 막 비가 개다. 제(霽)는 비나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갠 것을 뜻함.



시20. 명나라 부사¹ 副使 왕경민² 王敬民의 시에
차운³ 次韻 하여

詩20. 次副¹天使¹ 王敬民² 韻
차 부 천 사 왕 경 민 운

勝日³ 湖邊⁴ 畫樓, 풍광 좋은 시절에 호숫가 높직이
승 일 호 변 장 화 루 그림 같은 누각 지었더니,

-
- 1) 부천사(副天使) : 당시 명(明)나라에서 조선에 파견되어 온 ‘부사(副使)’를 가리킴. ‘천(天)’자는 존칭어로서 예전에 제후국에서 천자(天子)의 사자(使者)를 부를 때 ‘사(使)’자 앞에 ‘천(天)’자를 붙여 천사(天使)라고 하였음. 여기서의 ‘천(天)’자는 군왕(君王)을 칭하는 것임. ‘천자(天子)’라는 말에서 보듯이, 옛날 중국의 제왕(帝王)들은 자기들의 군권(君權)은 백성들로부터가 아니라 신(神),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여겨 ‘천자(天子 :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라고 불렀던 것임. 천자(天子)의 군대를 ‘천병(天兵)’이라 부른 것도 같은 논리에 근거함.
- 2) 왕경민(王敬民) : 이력 미상(未詳).
- 3) 승일(勝日) :
 ① 친우(親友)가 서로 모이는 날이나, 풍광(風光)이 아름다운 시절을 가리킴. 이때의 ‘승(勝)’자는 사물이 우월하거나 아름다움을 형용한 말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② 고대 오행가(五行家)들이 금(金), 목(木), 토(土), 수(水), 화(火)의 오행(五行)이 상극(相剋 :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함)하는 날을 ‘승일(勝日)’이라고 하였음. 즉 목극토(木剋土 : 나무는 흙을 이긴다, 곧 나무와 흙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토극수(土剋水 : 흙은 물을 이긴다, 곧 흙과 물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수극화(水剋火 : 물은 불을 이긴다, 곧 물과 불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화극금(火剋金 : 불은 쇠를 이긴다, 곧 불과 쇠는 어울리지 못한다)의 5일을 승일(勝日)이라고 하였음. 이때의 승(勝)자는 ‘이기다’의 뜻임.
- 4) 창(敞) :
 ① 높직이 솟은 땅에 평대(平臺)를 건축하여, 멀리 조망하는데 사용함.
 ② 계단 모양의 높은 지대에 건물을 세우다.

玉人來作鏡中遊。
옥인래작경중유

옥 같은 벗들이 와서 거울 같은
호수에서 뱃놀이 했네.

新晴嵐翠⁵⁾看還淡,
신청람취간환담

막 개인 하늘 비취색 이내 보기에
아직 엷은데,

向晚烟波⁶⁾望更悠。
향만연파망경유

해질녘 안개서린 물결은 바라볼수록
더욱 아득하네.

穹壤⁷⁾百年成邂逅⁸⁾,
궁양백년성해후

세상에서 근 백년 만에 우연히
또 만났으니,

仙舟一夕⁹⁾共淹留¹⁰⁾。
선주일석공엄류

신선이 탐직한 배 타고
하루 저녁 함께 머물렀네.

驛亭遠別渾無賴¹¹⁾,
역정원별혼무뢰

역참驛站 정자에서 헤어지려니
영 마음이 편찮아,

-
- 5) 남취(嵐翠) : 푸르스름한 남기(嵐氣). 비취색의 산무(山霧). 남(嵐)은 ‘남기(嵐氣)’ 또는 ‘이내’라고 한다. 저녁나절에 멀리 보이는 산 같은데 떠오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을 말함.
 - 6) 연파(烟波) : 안개 같은 것이 끼어 부영게 보이는 물결. 땅거미가 연기처럼 퍼지는 것을 형용함.
 - 7) 궁양(穹壤) : 하늘과 땅. 천지(天地). (궁<穹>은 하늘, 양<壤>은 땅의 뜻임). 본 시에서는 ‘세상’, ‘우주’, ‘세계’의 뜻으로 쓰였음.
 - 8) 해후(邂逅) :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에 우연히 다시 만나다.
 - 9) 일석(一夕) : 일야(一夜), 하룻밤.
 - 10) 엄류(淹留) : 체류하다, 지체하다, 머무르다.
 - 11) 역정원별혼무뢰(驛亭遠別渾無賴) : 역참 정자에서 헤어지려니 영 마음이 편찮아) :
 - ① 역정(驛亭) : 역마(驛馬)를 바꾸어 타던 곳에 건축한 정자. 즉, 역참(驛站)에서 건축하여 제공한 여행객들의 휴식처. 역전(驛傳) : 정부공문 전달용의 교통기구로서 역마를 바꿔 타거나 공문을 전하여 부치던 곳에 있는 정자(亭子)라 하여, 역정(驛亭)이라 하였음.
 - ② 혼(渾) : 모두, 전부.
 - ③ 무뢰(無賴) : ☆괴로움이나 근심이 있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믿을 수 없음. ☆어찌할 수 없음. ☆무뢰한. ☆제간이 없다. ☆쓸모없다. ☆정서적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 빈민함. ☆일이 많아서(쓸데없는 일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함.

空對清篇刮病眸¹²⁾。
공 대 청 편 괄 병 모

공연히 태연한 시구詩句로 화답하며
충혈된 눈 비비네.

12) 공대청편괄병모(空對清篇刮病眸 : 공연히 한가한 시구로 화답하며 충혈된 눈 비비네) :

① 대(對) : 대구(對句)를 짓다. 응답하다.

② 청편(淸篇) : 태연한(느긋한, 한가로운) 마음 또는 그러한 태도로 짓는 시 문장. 청(淸)은 ‘태평스럽다’, ‘한가하다’의 뜻임. 편(篇)은 편사(篇辭 : 문장)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시구(詩句)를 가리킴.

③ 괄병모(刮病眸) : 충혈된 눈을 비비다, 괄(刮)은 ‘눈을 비비다’, 병모(病眸)는 ‘충혈된 눈’임.

시21. 오중주^{吳仲周} 시 두 수에 차운^{次韻}하여
답으로 부치다

詩21. 次韻寄答吳仲周¹⁾ 二首
차운기담오중주 이수



其一
기 일

[1]

迹滯偏荒只自憐,
적 체 편 황 지 자 려

변방에서 살다보니 스스로 슬픔에
젖을 따름이니,

區區²⁾惟守井中天³⁾.
구 구 유 수 경 중 천

이 몸은 우물 안에서 하늘 보듯
좁은 천문에만 머물렀소.

三年燕市⁴⁾逢知己⁵⁾,
삼 년 연 시 봉 지 기

삼년 전 연경에서 지기^{知己}를 만났을 때,

- 1) 오중주(吳仲周) : 〈시 11〉의 주석 2)를 참조 바람.
- 2) 구구(區區) : 작다(小). 적다(少)의 원뜻에서 미소(微小)함을 형용함. 전(轉)하여, 자칭(自稱)의 겸사(謙詞)로 쓰임. 이를테면, 저 자신, 이 사람, 소인.
- 3) 정중천(井中天) : 정중관천(井中觀天)의 약칭. 좌정관천(坐井觀天)과도 같은 말임. 즉,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음을 이르는 말임. 또한 '정저와(井底蛙)나 감정저와(坎井之蛙)'와도 같은 말임. 즉, 우물 안 개구리라는 뜻으로, 견문이 좁고 세상 형편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그리고 '이안(籬鷄)'과도 비슷한 말임. 즉 '울타리 사이로만 드나드는 세가락메추라기'라는 뜻으로 식견이 좁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함.
- 4) 연시(燕市) : 연경(燕京), 즉 지금의 북경시(北京市)임.
- 5) 지기(知己) : 자기의 진심과 정서를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 피차 정의(情誼)가 깊고 상호 대우를 잘 해주는 사람.

百代新安理絕絃。⁶⁾
백 대 신 안 리 절 현

백대百代에 다시없을 신안인新安人은
절세絶世의 현악絃樂 탄주하였다.

橋樹⁷⁾綠時人不見,
교 수 녹 시 인 불 견

교목喬木이 푸를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海雲開處⁸⁾月孤懸⁹⁾。
해 운 개 처 월 고 현

해운海雲이 걸힐 즈음엔
달이 외롭게 떠 있네.

聞君又向江南¹⁰⁾去,
문 군 우 향 강 남 기

그대가 다시 강남江南으로 간다는
소식 들으니,

此後相思益杳然¹¹⁾。
차 후 상 사 익 묘 연

이후로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겠구려.

其二
가 이

[2]

迢遞燕山隔海東¹²⁾,
초 체 연 산 격 해 동

연산燕山산맥이 아득하게
해동국海東國을 가로 막아,

6) 백대신안리절현(百代新安理絕絃) : 백대에 다시없을 신안인(新安人)은 절세(絶世)의 현악 탄주하였소 :

① 신안(新安) : 명(明)의 관료 오중주(吳仲周)의 고향인 하남성(河南省) 신안현(新安縣)을 가리킴.

② 이절현(理絕絃) : 뛰어난 현악(絃樂)을 탄주(彈奏)함 : ☆리(理) : 탄주(彈奏)하다. ☆절현(絶絃) : 뛰어난 현악.

7) 교수(橋樹) : 교목(喬木), 즉 큰키나무. 줄기가 굵으며 높이가 8m를 넘는 나무로, 수간(樹幹)과 가지의 구별이 뚜렷한 소나무 같은 것임. 교(橋)는 교(喬)와 통하며, 고(高)의 뜻임.

8) 처(處) : 때, 즈음.

9) 고현(孤懸) : 기떨 곳이 없음.

10) 강남(江南) : 장강(長江) 이남 지역. 전(轉)하여, '남쪽의 먼 곳'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의미상 본 시에서는 오중주의 고향인 하남성 신안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하(渭河)의 남쪽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임.

11) 묘연(杳然) : 깊고 먼 모양.

12) 초체연산격해동(迢遞燕山隔海東) : 아득하게 멀리 연산산맥이 해동국(海東國)을 가로 막아 :

① 초체(迢遞) : 초체(迢遞)라고도 쓰고, 초체(迢遞)라고도 씀 : ☆요원한 모양. ☆연면부절

天涯回首馬牛風¹³⁾
천 에 회 수 마 우 풍

먼 하늘 끝에서 회고(回顧)하니
'풍마우(風馬牛)'격이라 소용이 없구려.

清標照眼猶相憶¹⁴⁾
청 표 조 안 유 상 억

고매한 풍채 눈에 부셔
아직도 생각남은,

馨德¹⁵⁾薰心¹⁶⁾自易通。
형 덕 훈 심 자 이 통

미덕에 끌려 쉽사리 마음이 통해서였소.

(連綿不絕)한 모양.

② 연산(燕山) : 천진시(天津市) 계현(薊縣) 동남쪽에서부터 연면(延綿)하여 동쪽으로 해
변에까지 곧 바로 이어지는 연산산맥(燕山山脈)을 가리킴. 본 시에서는 바로 이 뜻으로
썼음. 송(宋)나라 선화사년(宣和四年 : 1122년)에 연경(燕京)을 연산부(燕山府)로 바꾸
었음. 그 후로 연산은 연경(燕京), 즉 지금의 북경시(北京市)를 가리킴.

③ 해동(海東) : ‘한국’의 별칭(別稱). ‘발해(渤海)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

13) 천애회수마우풍(天涯回首馬牛風) : 먼 하늘 끝에서 회고(回顧)하니 ‘풍마우(風馬牛)’격
이라 소용이 없구려) :

① 천애(天涯) : 천변(天邊), 곧 ‘하늘의 끝’. ‘하늘의 가장자리, 전(轉)하여, ‘지극히 먼 곳’
을 가리킴.

② 회수(回首) : 뒤돌아보다. 회고(回顧)하다.

③ 마우풍(馬牛風) : 풍마우(風馬牛) 또는 풍마우불상급(風馬牛不相及)과 같은 말로서 두
가지 뜻이 있음 :

☆발정(發情)한 소나 말이 서로 유혹해도 서로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짝을
찾아 가다가 길을 잃어 도달 할 수 없다는 뜻에서, ‘거리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비유하거나, 혹은 ‘전혀 관계없다, 조금도 상관없다’는 것을 비유하기도 함.

『좌전(左傳)·회공 4년(僖公四年)』조에 보면 : (제(齊)나라가 초(楚)나라를 침공하자
초나라 군주가 제나라 군주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북방에 살고(君處北海), 나는 남방
에 살고 있어(寡人處南海), 말과 소의 암수 컷들이 서로 유혹하여 짝짓기할 일도 없거늘
(唯是風馬牛不相及也) …”이라고 하였는데, 당나라 학자 공영달(574-648)이 동한(東
漢) 학자 복건(服虔)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孔穎達疏引服虔曰), “암수 컷들이 서
로 유혹하는 것을 ‘풍(風)’이라고 한다(牝牡相誘謂之風). … ‘풍마우(風馬牛)’라고 하는
이 말(此言風馬牛)은 말이나 소가 발정(發情)하여, 서로 찾아 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길을 잃은 것을 말하는데(謂馬牛風逸), (이렇게 먼 거리에서) 암수가 서로
유혹하는 것은(牝牡相誘), 말세(末世)에서나 일어남직한 회소한 일이다(蓋是末界之微
事). 이런 일은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言此事不相及)이니, 고로, 이 말
을 가지고 ‘서로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에 비유하였다(故以取喻不相干也)”고 하였음.

14) 청표조안유상억(淸標照眼猶相憶) : 고매한 풍채 눈에 부셔 아직도 생각남은) :

① 청표(淸標) : 풍채가 청초하고 고상하다.

② 조안(照眼) : 눈에 부시다.

③ 상억(相憶) :忆념(憶念).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함. 그리워하다. 상사(相思).

15) 형덕(馨德) : 미덕(美德). 형(馨)은 아름답다. 향기롭다. 전(轉)하여, 광범하게 세상에 전해
진 덕행과 명성.

千里音書經歲至，
천 리 음 서 경 세 지

천리 밖의 서신이라 일 년은 걸려야
도달하니,

百年談笑幾時同。
백 년 담 소 기 시 동

백년담소 언제 함께 나눌 수 있으리오.

惟將¹⁷⁾江渭¹⁸⁾無窮戀，
유 장 강 위 무 궁 연

하지만 위수渭水에라도 끝없는 그리움
띄워 보내고,

付與¹⁹⁾秋空北去鴻²⁰⁾。
부 여 추 공 북 기 홍

가을하늘 북상北上하는 기러기 편에
소식 전하리다.

16) 훈심(薰心) : ① 심안(心眼)이 미혹되다. ② 마음에 감동을 받다.

17) 유장(惟將) : 그러나(하지만) 부치다.

☆유(惟)는 접속사로서 ‘그러나(하지만)’의 뜻임.

☆장(將)은 ‘발송하다, 전달하다’의 뜻임.

18) 강위(江渭) : 위강(渭江). 즉, 위하(渭河) 혹은 위수(渭水)를 가리킴. 강(江)은 일반적인 하천의 의미임. 위하(渭河)는 감숙성(甘肅省)에서 발원하여 섬서성(陝西省)의 경수(涇水)와 합류한 다음 남부지역, 곧 하남성 서북에 위치한 신안현(新安縣 : 서애의 명(明)나라 벗 오중주(吳仲周)가 있는 곳)을 통과함. 일반적으로 북방에서는 하류(河流)를 대체로 하(河)로 표기하고, 남방에서는 ‘강(江)’으로 표기함. 여기서의 ‘강’은 남방의 장강, 즉 양자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임.

19) 부여(付與) : 인편에 부탁해서 보내다(부치다).

20) 홍(鴻) : 기러기. 서신(書信). 『한서(漢書)·소무전(蘇武傳)』에 소무(蘇武)가 흉노 땅에 억류되어 있을 때, 비단에 쓴 편지를 기러기발에 묶어 무제(武帝)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고사에 의거하여 기러기를 ‘신사(信使 : 심부름꾼·사절(使節))’ 혹은 ‘서신(書信)’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음.

시22. 계미년(癸未年 : 1583년, 선조宣祖 16, 서애西厓, 42세)
가을, 정사精舍에서 우연히 읊다



詩22. 癸未秋 精舍偶吟
계 미 추 정 사 우 음

吾心了了¹⁾猶能記, 내 마음은 분명하여 기록까지
 오 심 료 료 유 능 기 할 듯하나,

 世事茫茫²⁾不可求。 세상사는 번잡하여 직답直答을
 세 사 망 망 불 가 구 구할 수 없네.

 欲採江離³⁾遺⁴⁾遠客, 궁궁이江離 따서 먼 곳의 손님에게
 욱 채 강 이 유 원 객 보내고 싶은데,

 滿天風雨倚⁵⁾西樓⁶⁾。 하늘가득 비바람이 몰아쳐
 만 천 풍 우 의 서 루 서쪽 누각에 기대셨네.

- 1) 료(了了) : 명백하다. 분명하다.
- 2) 망망(茫茫) : 번잡하고 모호하다.
- 3) 강리(江離) : '강리(江離)'로도 쓰며, 또 다른 이름으로 '미무(靡蕪)'라고도 함. 향초의 명칭으로, '궁궁이의 짝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임. 궁궁이는 '궁궁(芎藭)'으로도 쓰고, '천궁(川芎)'으로도 쓰며, '천궁(川芎)'으로도 씀. 궁궁이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고 뿌리는 약재로 씀. 식용으로 쓸 때는 '천궁채(川芎菜)'를 만들. 이 조리법은 궁궁이의 짝을 따서 살짝 데친 뒤에 소금과 기름에 무친 것임. 굴원(屈原)의 <이스(離騷)>에 보면, 강리(江離)는 향초(香草)로서, 이것을 몸에 입고 패(佩)를 만들어서 차는 것을 군자(君子)가 아름다운 덕을 닦는 데에 비유하고 있음.
- 4) 유(遺) : 선물하다, 증정하다.
- 5) 의(倚) : ① 서다, 서 있다. ② 기대다.

6) 서루(西樓) :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쪽 누각, 즉 ‘연좌루(燕坐樓)’를 가리킴. 〈시 17〉의 주석 1)도 참조 바람.

① 연좌루(燕坐樓) : 중요한 민속자료 85호로서,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임. 원지정사(遠志精舍)와 한 담 안에 지어졌는데,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서애가 32세 7월(선조 6,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잠시 조정에서 물러나 있을 때 (32-34세),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건물들임(35세 1월에 완성됨). 하회마을 북촌의 화천(花川)과 부용대(芙蓉臺)를 감상할 수 있도록 북쪽을 향하여 정사(精舍), 즉 원지정사(遠志精舍)와 누정(樓亭)이 자리 잡고 있음.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쪽에 누정(樓亭)인 연좌루(燕坐樓)가 자리하고 있는데, 누각에 오르면 강가의 소나무 숲과 건너편 부용대(芙蓉臺)의 옥연정사(玉淵精舍)가 한 눈에 들어옴. 곡선이 제비를 닮았다하여 연좌루라고 함. 앞의 〈시 26〉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시23. 회재晦齋의 고택故宅을 바라보며

(갑신년甲申年 : 1584년, 선조宣祖 17, 서애西厓 43세)

詩23. 望晦齋¹⁾ 舊居²⁾ 甲申

망 회 재 구 거 갑 신
선 생 이 제 백 운 향



先生已在白雲鄉³⁾, 선생께서 이미 신선이 사는 세상에 계시니,
선 생 이 제 백 운 향

1) 회재(晦齋) : 이언적(李彦迪)의 호.

① 이언적(李彦迪 : 1491-1553) :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字)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자계옹(紫溪翁). 초기 본명은 적(迪)이었으나 중종(中宗)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였음.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음. 이조정랑(吏曹正郎), 밀양(密陽) 부사(副使)를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음. 이때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자옥산(紫玉山)에 들어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음. 김안로 일당이 몰락한 뒤 이조, 예조, 형조 판서를 거쳐 1545년 좌찬성(左贊成)이 되었음. 1547년 윤원형(尹元衡)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강계(江界)로 유배되었고 그 곳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63세로 타계했음. 선조 때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1610년(광해군 2)에 옥산서원(玉山書院)에 배향되었음.

그는 조선 중기의 가장 유명한 성리학자의 한 사람이다. 27세 때 당시 영남지방의 선배 학자인 손숙돈(孫叔暉)과 조한보(曹漢輔) 사이에 토론되었던 성리학의 기본 쟁점인 무극대극논쟁(無極太極論爭)에 뛰어들어 주희(朱熹)의 주리론적(主理論的) 견해에서 손숙돈과 조한보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여 학문적 견해를 밝혔음. 이언적은 이 논쟁에서 이기론(理氣論)의 주리론적(主理論的) 견해로서 이선기후설(理先氣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이우위설(理優位說)은 이황(李滉)에게로 계승되는 영남학파의 성리설의 선구가 되었음. 이황은 그를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동방사현(東方四賢)으로 추모하였음. 저서에 『구인록(求仁錄)』,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봉선잡의(奉先雜儀)』 등이 있음.

2) 구거(舊居) : 구택(舊宅). 고거(故居). 전에 살던 집. 여러 대를 이어서 살아온 집. 옛 사람이 살던 집, 옛집.

3) 백운향(白雲鄉) : 선향(仙鄉), 선계(仙界), 선경(仙境).

『장자(莊子)·외편(外篇)·천지편(天地篇)』에, 제요(帝堯)가 화산(華山)의 풍경을 즐기면

故里⁴⁾惟餘草樹荒。
고 리 유 여 초 수 황

고택故宅에는 오직 초목만 남아
황량하구려.

歎息斯文興⁵⁾喪處，
탄 식 사 문 흥 상 처

이 시詩로 장례를 모셨던 곳에서
탄식하노니,

只今天意久茫茫。
지 금 천 의 구 망 망

지금은 하늘의 뜻마저 오래 되어
아득하구려.

서 화산의 봉인(封人)을 만나 나눈 대화중에서 봉인이 말하기를, “...백운을 타고(乘彼白雲), 상제가 계신 곳에 갑니다(至于帝鄉)”라고 한 대목이 나옴. 이 글에 근거하여 후세 사람들이 ‘백운향(白雲鄉)’을 ‘선향(仙鄉)’으로 간주하였음.

4)故里(故里) : 고향. 고향집. 본 시에서는 고택(故宅 : 전에 살던 집)의 뜻으로 쓰였음.

5)흥(興) : 행하다, 행하여지다.

시24. 도산陶山

詩24. 陶山¹⁾ 도산



忽忽²⁾流年瀉³⁾, 홀 홀 유 년 사 흘연히 흘러가는 세월이 너무 빨라서,
 悠悠舊迹虛。 유 유 구 적 허 아득히 선현先賢의 옛 자취도 사라졌네.
 人文⁴⁾今寂寞, 인 문 금 적 막 인문人文의 교화가 요즈음 와서 잠잠해졌으니,
 天意竟何如。 천 의 경 하 여 하늘의 뜻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落日江波動, 낙 일 강 파 동 저무는 해는 강 물결에 일렁이고,

1) 도산(陶山) : 본 시에서의 '도산(陶山)'이란 지명은 지금의 경북 안동시(安東市) 도산면(陶山面) 토계동(土溪洞)에 위치한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을 향사(享祀)한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가리킴.

2) 홀홀(忽忽) : ① 급속한 모양, 급속히, 흘연히. ② 쏜살같이, 살같이.

3) 유년사(流年瀉) : ① 유년(流年) : 흐르는 세월. ② 사(瀉) : 매우 빠르게 흐른다.

4) 인문(人文) :

① 인물과 문물을 아우르는 말. 인륜(人倫)의 질서, 인류의 문화.

② 시·서·예·악(詩書禮樂)으로 교화하는 것을 칭함.

『역경(易經)·비괘(黃卦)』에, “천문을 관찰하여 시대의 변화를 알고(觀乎天文以察時變),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의 교화를 이루는 것이다(觀乎人文以化成天下)”라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 : 574-648)의 소(疏)에, “성인이 인문을 관찰한다고 말하는 것은(言聖人觀察人文), 곧 시·서·예·악을 말하는 것이다(則詩書禮樂之謂). 마땅히 이러한 교육을 학습하여 천하를 교화시킨다(當法此教而化成天下也)”고 하였음.

荒原古木疎。 황야에는 고목이 성깃성깃 서 있네.
황 원 고 목 소

悲涼千古恨⁵⁾, 천고의 정한情恨이 슬프고도 처량하여,
비 량 천 고 한

俛仰祗成歔⁶⁾。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흐느낄 따름일세.
면 앙 지 성 허

5) 천고한(千古恨) : 천재한(千載恨)과 같음. 천년한(千年恨)이라고도 함. 영원히 한스러운 일 (정경)을 이룸.

6) 면앙지성허(俛仰祗成歔) :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흐느낄 따름일세) :

① 면앙(俛仰) : ‘부앙(俯仰 :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우러러 보다)’으로도 읽음. ‘부(俛)’는 ‘부(俯)’와 통합. 이는 짧은 시간을 형용하는 말임.

② 지(祗) : 마침. 다만. ‘지(祗)’와 동자(同字).

③ 허(歔) : 흐느끼다. 훌쩍 훌쩍 울다.

시25. 고옥 古屋(을유년 乙酉年 : 1585년, 선조 宣祖 18, 서애 西厓 44세)

詩25. 古屋 乙酉
고 옥 을 유



古屋秋來草滿庭，
고 옥 추 레 초 만 정

고옥고옥에 가을 오니
뜰 안에 잡초 가득하고,

夕陽高樹一蟬鳴。
석 양 고 수 일 선 명

석양에 들든 고목高木에
매미 한 마리 울어대네.

悲涼二十年前事¹⁾，
비 량 이 십 년 전 사

이십년 전의 일로 비통하고 처량하여,

1) 비량이십년전사(悲涼二十年前事 : 20년 전의 일로 비통하고 처량하여) : 본 시를 쓴 시기가 서애 44세(을유년 : 1585년, 선조 18) 때이니, 20년 전이면 서애가 24세(을축년 : 1565년, 명종 20) 되던 해이다. 서애가 비통한 회상을 하며 본 시에서 읊은 “20년전사(二十年前事)”란, 서애가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간 바로 그 해에 성균관에서 발생한 일을 가리킨다. 바로 그 해에 문정왕후(文定王后 : 중종의 왕비)의 불심(佛心)을 빌어, 보우(普愚)가 무려 1개월 남짓 무차회(無遮會 : 불교에서 행하는 법회. 성범(聖凡) · 도속(道俗) · 귀천(貴賤) · 상하(上下)의 구별 없이 일체 평등으로 재시(財施)와 법시(法施)를 행함)를 열었는데, 왕후는 이 법회가 끝난 후, 오래지 않아 죽게 되자, 사람들마다 “보우가 여러 날 재(齋)를 올리길 요구한 때문에 왕후가 병들었다” 하여, 분개했다. 이때에 성균관 생도들도 여러 번 상소하여 보우를 죽이자고 하였는데, 상소문이 서애(西厓)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 상소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생도들은 학관을 비우고 떠나기로 하면서, “감히 학관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당적아세(黨賊阿世 : 세상에 아첨하는 도적무리)하는 놈으로 지목한다”고 하여, 집단행동을 할 때, 서애(西厓)는 “우리가 임금에게 간하다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는데,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굳이 ‘당적아세(黨賊阿世)’라고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여, 반대함으로써 생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나, 끝내 굽히지 않고, 이를 “점신오명(玷身汚名 : 몸과 명예를 더럽힘)”으로 바꾸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서애는 아마도 본 시에서 당시의 일을 상기하면서 비통한 기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欲說心懷²⁾淚自橫³⁾。 속마음을 말하려니 눈물이 절로
욕 설 심 회 무 자 횡 앞을 가리네.

-
- 2) 심회(心懷) : ① 마음속의 회포, ② 가슴속의 생각이나 느낌.
3) 횡(橫) : ① 충만하다. ② 덮어 가리다.

시26. 이른 봄, 원지정사^{遠志精舍}에서
강변 모래사장으로 걸어 나왔다가
우연히 시적 영감을 얻어서

詩26. 早春 自遠志精舍¹⁾ 步出江沙 偶得
조 춘 자 원 지 정 사 보 출 강 사 우 득



人生好醜²⁾何曾³⁾定, 인생의 좋고 나쁨이 언제 정해졌던가?
인 생 호 추 하 증 정

世上榮枯⁴⁾不足言⁵⁾. 세상의 흥망성쇠도 언급할 바가 못 되네.
세 상 영 고 부 족 언

雨後一聲山鳥喚, 비 갠 뒤 제일성으로 산새들이 지저귀니,
우 후 일 성 산 조 환

梅花初動水南村。 강변 남촌에는 매화가
매 화 초 동 수 남 촌 첫 꽃망을 터뜨리겠네.

-
- 1) 원지정사(遠志精舍) : 〈시 17〉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2) 호추(好醜) : ① 호괴(好壞) : 좋은 것과 나쁜 것). ② 호불호(好不好) : 좋음과 좋지 않음).
③ 미추(美醜) : 아름다움과 추함).
 - 3) 하증(何曾) : ‘하상(何嘗)’과 같은 말임. 즉, 언제 ~한 적이 있었느냐?
 - 4) 영고(榮枯) : 영고성쇠(榮枯盛衰). 인생이나 사물의 번성함과 쇠락함이 서로 바뀔을 이룸.
 - 5) 부족언(不足言) : 부족도(不足道)와 같은 말임. 즉, 말할 가치가 없다. 말할만하지 않다.



시27. 서당書堂 터를 선정하고 나서 승려와
복사나무 일만 그루를 심기로 하다

詩27. 卜得¹⁾書堂 與僧約將栽桃萬株²⁾
복득 서당 여승약장재도만주

急峽³⁾迴江擁⁴⁾數村, 가파른 협곡 감도는 강물이
급협 회강옹수촌 여러 촌락 에워싸며 흐르고,

白雲靑壁近南軒。 흰 구름 푸른 절벽은 남쪽 처마에 붙어 있네.
백운청벽근남현

他年⁵⁾會種桃千樹, 훗날 복사나무 일천 그루 심자고 하는데,
타년회종도천수

流出紅霞滿洞門⁶⁾。 붉게 물든 저녁노을 동구 밖에 펼쳐지네.
유출홍하만동문

- 1) 복득(卜得) : 선택해서 취득하다. 여기서 '복(卜)'은 선택하다는 뜻임.
- 2) 시제(詩題)에는 복사나무 “만주(萬株)”가 제시되어 있는데, 시의 내용에서는 “천수(千樹)”로 표현되어 있음. ‘천(千)’이나 ‘만(萬)’은 여기에서는 모두 정확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수로서 ‘매우 많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임.
- 3) 급협(急峽) : 급류의 협곡.
- 4) 옹(擁) : 에워싸다.
- 5) 타년(他年) : 장래, 훗날.
- 6) 유출홍하만동문(流出紅霞滿洞門) : 붉게 물든 저녁노을 동구 밖에 펼쳐지네.) :
 - ① 유출(流出) : 허공에 떠 있다는 의미임.
☆유(流) : ‘허부(虛浮 : 허공에 떠 있음)’의 뜻임.
☆출(出) : 출현(出現)의 뜻임.
 - ② 홍하(紅霞) : 붉게 물든 저녁 놀.
 - ③ 동문(洞門) : ☆동구 밖. ☆동굴의 입구.



시28. 명술년(丙戌年 : 1586년, 선조宣祖 19, 서애西厓 45세)
 봄에 문경聞慶에서 묵으면서, 현감
 허행원許行遠과 밤에 담화를 나누었다.
 이튿날 행원은 옥산玉山 계곡 근처까지
 따라 나와 전송해 주었다. 율시律詩 한
 수로써 작별을 고한다(때는 예조판서를
 사직하고 귀향 중이었음)

詩28. 丙戌春 宿聞慶¹⁾ 與縣監許行遠²⁾ 夜話 明日
 명술춘 숙문경 여현감허행원야화 명일
 行遠追送於玉山溪邊 以一律敘別³⁾ 時以禮曹判書,
 행원추송어옥산계변 이일률서별 시이예조판서
 辭職還鄉
 사직환향

解綬歸來鬢欲華⁴⁾, 사직하고 돌아오니 살쩍마저
 해수귀래빈목화 희어지려 하는데,

- 1) 문경(聞慶) : 경상북도 북서부에 위치한 문경시(聞慶市)를 말함.
- 2) 현감 허행원(縣監 許行遠) :
 - ① 현감 : 조선시대 최하위 지방행정 구역 단위였던 현(縣)에 관련된 종6품의 지방관. 고려 시대 감무(監務)의 후신으로 1413년(태종 13년)에 군현제(郡縣制) 개편에 따라 설치됨. 전국적으로 140명이 파견됨. 임기 제한이 1800일이며 절제도위(節制都尉)의 군직(軍職)을 겸임함.
 - ② 허행원(許行遠) : 자세한 이력 미상(未詳).
- 3) 일률서별(一律敘別) : 한 수의 율시(律詩)로 작별을 고함.
- 4) 해수귀래빈목화(解綬歸來鬢欲華 : 사직하고 돌아오니 살쩍마저 희어지려하는데) :
 - ① 해수(解綬) : 해인수(解印綬)의 약어(略語)로서, '인수(印綬)를 풀다'는 뜻인데, '관직을'

孤雲⁵⁾入望⁶⁾意如何。
고운 입망의여하

조각구름 눈에 띄니 내 맘이 어떨겠나?

天涯一夜故人⁷⁾在,
천애일야고인재

아득히 먼 곳이나 밤새껏 옛 벗이
옆에 있고,

客路⁸⁾三春⁹⁾芳草多。
객로삼춘방초다

만춘晚春의 여로旅路에는
방초도 무성하네그려.

微雨¹⁰⁾淡烟高下樹,
미우담연고하수

크고 작은 수목에 가람비 내리고
열은 안개 끼더니,

사직(辭職)함'을 이룸. 인수(印綬)의 '인(印)'은 관인(官印)이고, '수(綬)'는 그 관인의 고리에 매어서 허리에 꿰치는 약 30cm 길이의 끈임. 인수(印綬)는 벼슬아치로 임명되어 임금으로부터 받는 표장(標章)으로서, 천자(天子)이하 여러 관리의 관직이나 작위를 표시하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문화의 하나임. 어느 관직에 취임하면, 그 관인과 끈이 주어 지는데,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印綬)를 허리에 찬다'는 말은 '임관(任官)한다'는 뜻이고, '인수(印綬)를 풀다'는 말은 퇴관(退官), 사직(辭職), 면관(免冠)을 의미하였음. 관인이 관직과 작위의 고하에 따라 그 형태와 재질 등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끈에도 특히 그 색깔에 있어 엄격한 구별이 있었음.

중국에서 인수(印綬)의 출현은 전국시대(戰國時代 : B.C. 475-B.C. 221년)이며, 제도가 갖추어지기는 진(秦), 한(漢)시대임. 그 후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 420-588년) 이후는 관인의 제도가 바뀌에 따라 관인을 허리에 차기 위함이 아니라 허리에 매다는 장식용 매듭 끈이 되었음.

- ② 빈(鬢) : 살쩍(귀밑털).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
- ③ 화(華) : 머리가 희끗하다. 화(華)의 원자(原字)는 화(花)이며, 화(花)는 '화문(花紋)의 도안(圖案)'으로서 '색깔이 혼잡해 있다'는 뜻이 있음. 이런 뜻으로서의 화(花)자와 함께 형성된 단어 가운데 '화백(花白)'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흑백색이 혼잡 되어 있다'는 뜻임. '화(華)에 '두발화백(頭髮花白)'이란 뜻이 있으니, 곧 '머리가 희끗희끗하다'는 뜻임.
- 5) 고운(孤雲) : ① 외따로 떠 있는 구름 조각. 즉 조각구름. ② 빈한(貧寒)하거나 객지에 머무는 사람, 또는 은자(隱者)에 비유하여 쓰는 말.
- 6) 입망(入望) : 시야(視野)에 들어오다. 눈에 띈다.
- 7) 고인(故人) : ① 옛 친구, 오랜 벗. ② 고인(古人), 사자(死者). ③ 제자에 대한 하급관리의 자칭(自稱). ④ 전처(前妻), 전남편, 옛 애인 등을 가리킴.
- 8) 객로(客路) : ① 타향의 길. ② 여정(旅程). 여로(旅路).
- 9) 삼춘(三春) : ① 봄철의 3개월. 음력 정월을 맹춘(孟春)이라고 하고, 2월을 중춘(仲春)이라 하며, 3월을 계춘(季春)이라 함. ② 봄철의 세 번째 달을 가리키며 모춘(暮春), 또는 만춘(晩春)이라고도 함. '늦은 봄'의 뜻임. ③ 세철의 봄, 즉 3년을 가리킴.
- 10) 미우(微雨) : 이슬비. 가람비.

落花啼鳥兩三家。
낙 화 제 조 양 삼 가

두 세집 울안에는 꽃이 지고
새가 지저귀네.

憑¹¹⁾君莫問行藏¹²⁾事,
빙 군 막 문 행 장 사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내 속사정은
묻지 마시게나,

且¹³⁾對青山一浩歌¹⁴⁾。
차 대 청 산 일 호 가

잠시 청산 향해 큰 소리로
노래 한 곡 부를 테니.

11) 빙(憑) : 부탁하다. 청구(請求)하다.

12) 행장(行藏) : ① 행적, 내력, 속사정. ② 일거일동(一舉一動) 혹은 출처를 가리킴.

13) 차(且) : 부사로서, ① 마야흐로 ~하리하다. ② 잠시.

14) 호가(浩歌) :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다. 고성방가(高聲放歌)하다.



시29. 인동현(仁同縣)에 계시는 어머님께
문안드리고 남계정사에서 『주역(周易)』을
강설(講說)하려고 먼저 정사(精舍)의
학생들에게 시 한 수를 지어 부치다

詩29. 省覲¹⁾ 仁同²⁾ 將讀易³⁾ 于南溪精舍⁴⁾ 先寄精舍諸生

성 근 인 동 장 독 역 우 남 계 정 사 선 기 정 사 제 생

- 1) 성근(省覲) : 부모나 기타 존장(尊長)에게 문안하다(찾아뵙다).
- 2) 인동(仁同) : 인동현(仁同縣) : 조선시대의 인동현(仁同縣)을 말함. 이는 지금의 경북 구미 시 인동동(仁同洞)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지명임.
- 3) 역(易) : 『주역(周易)』 : 고대 중국의 철학서로 육경(六經)의 하나임. 만상(萬象)을 음양(陰陽) 이원(二元)으로써 설명하여 그 으뜸을 태극(太極)이라 하였고, 거기서 64괘(卦)를 만들었는데, 이에 맞추어 철학·윤리·정치상의 해석을 덧붙였음. 『역(易)』이라고도 하고, 『역경(易經)』이라고도 함.
- 4) 남계정사(南溪精舍) : 서에연보(西涯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精舍) : 학문 연구와 정신 수양을 하던 곳으로, 곧 서당임)는 서애의 부친 관찰공(觀察公 : 입암(立巖) 류중영(柳仲暉))이 재실(齋室)을 지으려다 짓지 못하고 있다가 1581년(병술년, 선조 14, 서애 45세) 3월에 비로소 완성하였음.

서당의 위치는 경북 군위읍 대북2리(서원리라고도 함)에 있는 산기슭(술타)에 있음. 서애도 영의정 재직시에 여러 번 이곳에 와서 성묘도 하고 강학(講學)도 하였음.

당(堂)은 상로당(霜露堂), 재(齋)는 영모재(永慕齋)라 하여 재실로 삼고 동쪽에는 완심재(玩心齋), 연어헌(鰲魚軒)을 만들어 학생들을 거처하게 하고, 북쪽에는 삼정재(三靜齋)를 만들어 도사(道士)를 데려다가 거처케 하였음. 상로당 앞에는 애련당(愛蓮堂), 양어지(養魚池)가 있으며, 서쪽 산기슭 아래에는 바위 초은대(招隱臺)가 있고, 동쪽 산기슭에는 바위 영귀대(詠歸臺)가 있음. 그 아래로 탄서천(歎逝川)과 의공계(倚筇溪)라 불리는 두 줄기의 냇물이 흐르는데, 이 두 줄기의 냇물을 합쳐 남계(南溪)라 하는 까닭에 남계정사(南溪精舍)라고 명명하였다고 함.

서애 사후에 1621년 후진들이 이 서당을 중수(重修)하여, 서애의 위패를 모시고 서원(書院)으로 승격시켰음. 그러나 훗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서당으로 격하되었음. 그 후 6·25때 소실되었으나 후손들이 복원하였음.

현재 남계정사는 외삼문(外三門)과 중정당(中正堂)인 존성당(尊性堂), 내삼문(內三門)과 원사(院祠)인 경덕사(景德祠)가 있어서 밖에서 보면 높은 기와집 네 채가 한 줄로 서 있는 형국임. 중정당 양쪽 방에는 수약재(守約齋)와 지지재(知止齋)라는 편액이 달려 있음. 원생들의 기숙사로 쓰이던 동서재(東西齋)는 소실(消失)되었음.

相思咫尺更關情⁵⁾, 지척에서 사모하면 가슴에 더 사무치고,
상사지척경관정

春草池塘夢裏生⁶⁾. 봄풀은 연못가에서 꿈을 꾸며 자란다네.
춘초지당몽리생

丹壁數重烟漠漠⁷⁾, 붉은 절벽 겹겹이 안개가 자욱하고,
단벽수중연막막

碧桃千樹雨冥冥⁸⁾. 벽도나무 천 그루 비 내리자 어둑하네.
벽도천수우명명

眞功到老都無着⁹⁾, 확실했던 공적도 늙어보니 효과 없고,
진공도로도무착

5) 상사지척경관정(相思咫尺更關情) : 지척에서 사모하면 가슴에 더 사무치고 :

① 상사(相思) : 서로 사모하다. 피차 서로 그리워하다(피차가 서로 좋아하면서도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일어난 그리움을 가리킴)

② 지척(咫尺) : 지(咫)는 여덟 치, 척(尺)은 한 자, 전(轉)하여, 가까운 거리, 협소함, 짧음, 근소(僅少)함의 뜻.

③ 관정(關情) : ☆마음에 끌려서 심경(감정)에 영향을 미치다. ☆감정을 덮어 숨기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중시하다.

6) 춘초지당몽리생(春草池塘夢裏生) : 봄풀은 연못가에서 꿈을 꾸며 자란다네) : 봄날의 풀잎은 연못 밖에서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리라는 꿈속에서 살면서 서리가 내리는 가을이 곧 닥칠 것이라는 진리를 생각하지 못한다. 이 시귀는 춘초(春草)를 학생에게 비유하여 배울 시기가 많지 않으니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열심히 배워야 함을 일깨우는 경구(警句)이다. 이 시귀의 취지와 유사한 시가 송(宋)나라 유학자, 주희(朱熹 : 1130-1200년)의 저서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권학문(勸學文)』에 보인다 :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少年易老學難成),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一寸光陰不可輕). 연못가의 봄풀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未覺池塘春草蒙), 섬돌 앞의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階前梧葉已秋聲)”.

7) 단벽수중연막막(丹壁數重烟漠漠) : 붉은 절벽 겹겹이 안개가 자욱하고 :

① 단벽(丹碧) : 붉은 암석으로 형성된 절벽.

② 연(烟) : ‘연(煙 : 연기)’과 동자(同字). 전(轉)하여 ‘먼지, 구름, 안개 등이 자욱히 끼어 오르는 기운’을 이룸.

③ 막막(漠漠) : ☆흩어져 퍼지는 모양. ☆퍼늘어 놓은 모양. ☆이주 넓어 끝없는 모양. ☆소리 없는 모양. ☆어두운 모양.

8) 벽도천수우명명(碧桃千樹雨冥冥) : 벽도나무 천 그루 비 내리자 어둑하네) :

① 벽도(碧桃) : 복숭아 나무의 일종. 천엽(千葉 : 겹꽃잎)의 희고 아름다운 꽃이 피며, 열매는 매우 작고 먹지는 못함. 관상용으로 심음. 벽도나무라고 함.

② 명명(冥冥) : 드러나지 않고 은미(隱微)한 모양 ; 어두운 모양.

9) 착(着) : 서애주석(西厓注釋)에, “착(着)자를 ‘역(力)’자로도 쓸 수 있다(着一作力)”고 하였음.

浮世¹⁰⁾多憂漫自縈。
부 세 다 우 만 자 영

인생사 우환 많아 제멋대로 뒤틀리네.

靜閉洞門¹¹⁾揮¹²⁾俗客,
정 폐 동 문 휘 속 객

동구洞口 문 고요히 닫고
세상사람 멀리하며,

焚香細讀洗心經¹³⁾。
분 향 세 독 세 심 경

향 피워놓고 『주역周易』을 정독하게나.

10) 부세(浮世) : ① 인간. ② 인간 세상. ③ 덧없는 세상.

11) 동문(洞門) : ① 동네어귀의 문. ② 산골의 대문. 동(洞)은 ‘깊은 산골짜기’의 뜻임.

12) 휘(揮) : (손을 휘둘러) 쫓아 버리다. 본 시에서는 ‘멀리하다’는 의미로 쓰였음.

13) 『세심경(洗心經)』 :

① 『역경(易經)』의 대칭(代稱). 『역경(易經)·계사전(繫辭傳) 상(上)·제11장』에 “성인(聖人)이 이 괘(卦)와 효(爻)의 내용을 가지고, 마음의 욕심을 씻어내고 … (聖人以此洗心…)”라는 대목이 있는 까닭에 붙여진 책명(冊名)임.

② 마음을 닦는 모든 유학경전(儒學經典).

시30. 정사(精舍)에서 만년(晩年)의 흥취

詩30. 精舍¹⁾晩興¹⁾ 정사 만흥



晝闢²⁾看山戶³⁾, 낮에는 지게문 열어놓고 산을 바라보고,
주벽 간산호

晨開⁴⁾讀易窓⁵⁾. 새벽에는 창을 열어놓고 『주역(周易)』을 읽었네.
신개 독역창

- 1) 정사(精舍) : ① 학문을 닦기 위하여 마련한 집. ② 정신수양을 하는 곳. ③ 서당. 본 시에 서는 ‘옥연정사(玉淵精舍)’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시 107>의 주석 2)를 참조 바람.
- 2) 주벽(晝闢) : 새벽녘. ‘벽(闢)’이 ‘열리다’는 뜻이므로, 주벽(晝闢)은 곧 낮이 열리는 시점, 곧 어둠과 밝음의 분기점이 되는 시각이므로 ‘날이 썰 무렵’, ‘먼동이 틀 무렵’이 되는 새벽 녘이 되는 것이다.
주벽(晝闢) : ① 주(晝) : 낮, 정오, 대낮. ② 벽(闢) : 열다.
- 3) 주벽간산호(晝闢看山戶) : 낮에는 지게문 열어놓고 산을 바라보고와 신개독역창(晨開讀易窓 : 새벽에는 창을 열어놓고 주역을 읽었네) :
① 이 두 구는 대우구로 되어 있어서, 어법적 구성이 일치하고 있음. 이를테면, 제1구의 “주벽간산호(晝闢看山戶)”와 제2구의 “신개독역창(晨開讀易窓)”은 표면적으로는 모두 상반구(上半句)의 두 자는 시간사와 술어로 짝을 지었고, 하반구(下半句) 석 자는 얼핏 보면, 술어와 목적어로 짝이 지어진 듯 보이나, 이를 다시 어법구성면에서 보면 작가의 장심(匠心)이 발견된다. 즉, 이들 두 구의 끝 자인 “호(戶)”와 “창(窓)”은 모두 사실은 상반구의 두 번째 자인 “벽(闢)”과 “개(開)”의 목적어로, 압운(押韻)의 효과적인 장치를 위해 하반구의 끝으로 갈라놓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작가는 본 시를 상평성(上平聲)의 ‘강(江)부(部)에 속하는 시운(詩韻)인 ‘창(窓)’을 제4구의 운자(韻字)인 ‘강(江)’과 압운(押韻)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구문(構文)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 ② 호(戶) : 외쪽문을 칭하는 것으로, 또한 방을 들고나는 문을 칭하기도 함. 여기서는 방안을 출입하는 ‘외쪽으로 된 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임.
- 4) 신개(晨開) : ① 신(晨) : 새벽. ② 개(開) : 열다.
- 5) 창(窓) : 방안의 통풍을 위해서 뚫은 장치이므로, 이는 보통 벽면의 위쪽에 위치하는 작은 문을 가리킴. 개독역창(開讀易窓) : 창문을 열고 『주역(周易)』을 읽다. 이의 정식구문은

塵氛⁶⁾近消散, 희뿌옇던 안개가 거의 사라지더니,
진분 근 소 산

芳草滿春江。 방초가 봄날 강변에 지천으로 드러나네.
방 초 만 춘 강

‘개창독역(開窓讀易)’이나, 압운(押韻)의 배치를 위해, ‘개독역창(開讀易窓)’으로 쓴 것으로 보임.

6) 진분(塵氛) : ① 먼지 또는 연기와 안개 같은 것을 가리킴. ② 세속적 기분이나 그러한 모양.



시31. 밤에 노랫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 와서
우연히 고체시古體詩 한 수를 지었기에,
날이 밝으면 학문을 닦는 제생諸生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詩31. 夜聞歌聲 渡江而來 偶作古詩¹⁾ 明日
야 문 가 성 도 강 이 래 우 작 고 시 명 일
寄讀書諸君子²⁾
기 독 서 제 군 자

江上³⁾一室⁴⁾靜且深, 강변에 집 한 채 고요하고 그윽한데,
강 상 일 실 정 차 심

楓林石壁白雲端。 단풍나무 우거진 석벽石壁에
풍 립 석 벽 백 운 단
흰 구름자락 걸쳤네.

清宵⁵⁾不寐者誰子⁶⁾, 청정한 이 밤에 잠 안 자는 사람
청 소 불 매 자 수 자
누구 이길래,

1) 고시(古詩) : 고체시(古體詩). 한시(漢詩)의 시체(詩體)의 하나로, 이는 평측(平仄)·자수(字數)·압운(押韻) 및 구(句)의 장단(長短)에 구애되지 않고, 작가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음.
2) 독서제군자(讀書諸君子) : 독서를 통해, 덕과 학식을 갖춘 지식인들을 말함.
3) 강상(江上) : ① 강가, 강변. ② 강물의 수면. ③ 상(上) :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강이나 하천의 주변을 표시하기도 하고, 물체의 표면을 나타내기도 함.
4) 일실(一室) : 집 한 채. 실(室)은 ‘가옥 혹은 주택’의 뜻임.
5) 청소(淸宵) : 청정(淸靜)한 밤.
6) 수자(誰子) : 하인(何人). 누구, 어떤 사람.

興發高聲歌考槃⁷⁾
흥 발 고 성 가 고 반

흥에 저워 고성高聲으로 질그릇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는가.

一曲水生波,
일 곡 수 생 파

첫 번째 곡은 ‘강물에 파도 일다’요,

二曲風色⁸⁾寒。
이 곡 풍 색 한

두 번째 곡은 ‘날씨가 추워지다’였네.

三曲月當⁹⁾軒,
삼 곡 월 당 현

세 번째 곡은 ‘달이 추녀 쪽을 향하다’요,

四曲夜向闌¹⁰⁾。
사 곡 야 향 난

네 번째 곡은 ‘날이 새다’였네.

今人安¹¹⁾見古人。
금 인 안 견 고 인

지금 사람이 어찌 옛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情歌罷,
정 가 파

정겨운 노랫소리 그쳐버리자,

無言坐長歎。
무 언 좌 장 탄

말없이 앉아서 긴 한숨 내쉬었네.

7) 고반(考槃) : ‘고(考)’는 두드리다. ‘반(盤)’은 기물(器物) 명칭으로 고대에는 이를 질주를 맞추는 기물로 써서 노래를 불렀음. 이를테면, ‘여기서 ‘반(盤)’이란, 흙으로 구워 만든 분(盆)이나 부(缶)의 질그릇 류(類)로서, 고대인들은 이를 타악기로 하여 노래를 부를 때 절주의 악구(樂具)로 삼았음.

8) 풍색(風色) : ① 날씨, 천기(天氣). ② 경치. ③ 안색(顔色 : 색깔).

9) 당(當) : ~을 향하다.

10) 향난(向闌) : 끝나가다.

11) 안(安) : 반문(反問)을 나타내는 의문부사로 동사 앞에 쓰여, ‘어떻게(어찌) ~하겠는가’의 뜻으로 쓰임.

시32. 유월 초아흐렛날, 북쪽 강가에서 배를
타고 놀던 중에 뇌우雷雨를 만나다

詩32. 六月九日北潭¹⁾舟中遇雷雨
유 월 구 일 북 담 주 중 우 뇌 우



天昏雲黑雷闐闐²⁾, 날 저물자 검은 구름 몰려오고
천 혼 운 흑 뇌 천 천 우렛소리 요란하더니,

石壁雨點如撒菽。 석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석 벽 우 점 여 살 속 콩 뿌리듯 하네.

孤舟疾棹過江來, 외로이 뜬 배 서둘러 노 저어
고 주 질 도 과 강 래 강 건너는데,

咫尺沿洄³⁾波浪惡⁴⁾。 지척에서 강물이 선회하며
지 척 연 회 파 랑 악 물결이 세차지네.

- 1) 북담(北潭) : 풍산류씨(豊山柳氏)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 북쪽에 위치한 강 건너편의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바로 이곳에서 수심이 깊어지면서 소(沼)를 형성하여, 이전에는 이를 ‘북담(北潭)’ 혹은 ‘옥연소(玉淵沼)’라 칭했다고 함.
- 2) 천천(闐闐) : ① 우렛소리. ② 뇌우(雷雨)가 성(盛)하게 일어나는 모양.
- 3) 연회(沿洄) : ‘연(沿)’은 물 따라 내려가다. 수류(水流)를 쫓아 내려가다. ‘회(洄)’는 거슬러 올라가다. 여기서는 역류하여 돌아 흐르는 물길로 물결이 선회하여 흐름을 말함.
- 4) 악(惡) : 사납고 거센 물길을 가리킴.

人生到處行路難，
인 생 도 처 행 로 난

인생이란 도처에서 가는 길이 험난하니,

不必瞿塘與巫峽⁵⁾。
불 필 구 당 여 무 협

구당협瞿塘峽과 무협巫峽만이
꼭 그런 것은 아니로세.

5) 불필구당여무협(不必瞿塘與巫峽 : 구당협과 무협만이 꼭 그런 것은 아니로세) :

- ① 불필(不必) : 반드시(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즉 ‘미필(未必)’과 같은 뜻으로 쓰였음.
- ② 구당(瞿塘) : 구당협(瞿塘峽). 구당협(瞿唐峽)으로도 씀. 중국 장강(長江 : 양자강〈揚子江〉)에 있는 삼협(三峽)중의 으뜸. 기협(夔峽)이라고도 함. 서쪽은 사천성(四川省) 봉절현(奉節縣) 백제성(白帝城)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무산(巫山)의 대계(大溪)까지 협곡이 이어졌음. 강의 양쪽 강변이 모두 가파른 절벽으로 산세(山勢)가 아주 험준하며, 강물의 흐름이 급류여서, ‘서촉(西蜀)의 관문’이라고 불려짐.
- ③ 무협(巫峽) : 장강(長江) 삼협(三峽)의 하나. 삼협이란, 사천(四川)과 호북(湖北)의 양성(兩省)의 경내(境內)에 있는 양자강 상류의 구당협(瞿塘峽)과 무협(巫峽), 그리고 서릉협(徐陵峽) 등 세 협곡을 합친 명칭임. 무협은 대협(大峽)이라고도 함. 서쪽으로는 사천성(四川省), 무산현(巫山縣) 대계(大溪)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호북성(湖北省) 과동현(巴東縣) 관도구(官渡口)까지 이어진 협곡으로, 무산(巫山)으로 인해 얻어진 명칭임. 양쪽 강변이 모두 가파른 절벽이며 강물의 흐름이 매우 급박한 급류여서 배를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함.

시33. 연좌루¹⁾燕坐樓에서 가을날의 적막하고
 처량한 생각을 읊은 시 세 수

詩33. 燕坐樓¹⁾ 秋思 三首
 연 좌 루 추 사 삼 수



其一
 기 일

[1]

天闊歸雲²⁾盡,
 천 활 귀 운 건

하늘은 광활하여 흘러가던 구름도 사라지고,

林昏病³⁾鶴愁。
 림 혼 병 학 수

숲속에 황혼 들자 지친 학은 근심에 잠기네.

秋風吹洛水⁴⁾,
 추 풍 취 낙 수

가을바람 낙동강으로 선선하게 불어오니,

孤客倚⁵⁾江樓。
 고 객 의 강 루

외로운 나그네 강변 누각에 기대서네.

1) 연좌루(燕坐樓) : 하회마을 북촌의 화천(花川)과 부용대(芙蓉臺)를 감상할 수 있도록 북쪽을 향하여 정사(精舍), 즉 원지정사(遠志精舍)와 누정(樓亭)이 자리 잡고 있음.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쪽에 누정(樓亭)인 연좌루(燕坐樓)가 자리하고 있는데, 누각에 오르면 강가의 소나무 숲과 건너편 부용대(芙蓉臺)의 옥연정사(玉淵精舍)가 한 눈에 들어옴. 곡선이 제비를 닮았다하여 연좌루라고 함. <시 22>의 주석 6)을 참조 바람.

2) 귀운(歸雲) : ‘행운(行雲)’과 같은 말. 즉, ‘흘러가는 구름’의 뜻.

3) 병(病) : 피곤하다. 지치다. 기진맥진하다.

4) 낙수(洛水) : 낙동강(洛東江).

5) 의(倚) : 기대다.

其二
기 이

[2]

伊人⁶⁾久⁷⁾不來, 그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 인 구 불 래

山景欲沈夕⁸⁾。 산의 풍경만 석양 속에 잠기려하네.
산 경 욕 침 석

風雨捲⁹⁾汀蘭¹⁰⁾, 비바람이 물가 난초 휩쓸고 지나간 뒤,
풍 우 권 정 난

烟波¹¹⁾生晚碧¹²⁾。 강물 위의 연무烟霧 검푸르게 짙어지네.
연 파 생 만 벽

6) 이인(伊人) : 그 사람, 그녀.

① 서애주석(西厓注釋) : 서애는 “이인(伊人)”의 ‘이(伊)’ 자(字)에 대하여, 주석을 달기를 :
“이(伊)를 또한 ‘부(夫)’로도 쓸 수 있다(伊一作夫)”고 하였음. ‘이(伊)’를 ‘부(夫)’로 대치
시킬 경우, ‘부인(夫人)’이 됨.

② 부인(夫人) :

☆남의 아내를 높혀 이르는 말.

☆고대 중국에서 천자의 비(妃) 또는 제후의 아내를 이르던 말.

☆예전에 사대부 집안의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이르던 말.

☆중인(衆人)과 같은 말로 ‘사람들’이란 뜻.

7) 구(久) : 기다리다.

8) 침석(沈夕) : 저녁 빛에 잠기다.

9) 권(捲) : 휩쓸다.

10) 정난(汀蘭) : 물가에 돌아난 난초. 정(汀)은 물가의 평지.

11) 연파(烟波) : ‘연파(煙波)’로도 쓰며, 연무(煙霧)가 아득한 수면(水面)을 가리킴.

12) 만벽(晚碧) : ‘만취(晚翠)’와 같음. 일몰시의 검푸른 경색(景色).

其三
기 삼

[3]

千古義文¹³⁾學,
천 고 의 문 학

태고적 성왕聖王 복희씨伏羲氏와
주문왕周文王을 탐구하고 나니,

三年燕坐¹⁴⁾心。
삼 년 연 좌 심

한 삼년동안 좌선坐禪 한 심정이로세.

意中蒼壁立,
의 중 창 벽 립

마음속에 푸른 암벽이 우뚝 솟아 오르길래,

吟外暮江深¹⁵⁾。
음 외 모 강 심

그 모습 읊는데 저무는 강변에
어둠이 짙어가네.

13) 희문(義文) : 중국고대 전설상의 황제인 복희(伏羲)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병칭(並稱). 표면적으로는 복희씨(伏羲氏)와 주문왕(周文王)을 뜻하나, 이면적(裏面的)으로는 복희씨가 팔괘(八卦)를 그리고 주문왕이 괘사(卦辭)를 썼다는 『주역(周易)』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① 복희(伏羲) :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하나. 성은 풍(風)씨이고, 진(陳)에 도읍하여 150년 재위하였으며, 몸은 뱀과 같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를 하고 일월(日月)과 같은 성덕(聖德)을 베풀었다 하여, 대호(大昊 : 높고 큰 하늘과 같다는 뜻)라고도 함. 다만 문헌상의 기록에는 『역경(易經)·계사전(繫辭傳)』에서 희씨가 팔괘(八卦)를 만 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어렵(漁獵)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랜 것임. 복희(伏羲)로도 쓰고 포희(俾犧)로도 씀.

② 문왕(文王) : 중국 고대 주왕조(周王朝)의 기초를 닦은 명군(名君). 무왕(武王)의 아버지로서 이름은 창(昌). 기원전 12세기경에 활동한 사람으로 은(殷)나라 말기에 태공망(太公望 : 속칭 강태공(姜太公)) 등, 어진 선비들을 모아 국정을 바로 잡고 용적(戎狄)을 토벌하여 아들 무왕(武王)이 주(周)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 주었음. 후세에 유가(儒家)로부터 이상적인 성천자(聖天子)로서 숭앙을 받았는데, 문·무왕(文武王)의 성덕(聖德)을 기리는 다수의 시(詩)가 『시경(詩經)』에 수록되어 있음.

14) 연좌(燕坐) : ① 좌선(坐禪)을 가리킴. ② 안좌(安坐 : 안은(安穩)하게 앉음)하다. ③ 한가하게 앉아 있다.

15) 심(深) : 색이 짙어지다.



시34. 백담¹栢潭 구봉령²具鳳齡의 별세를 애도하다

詩34. 輓¹具栢潭² 鳳齡³
만 구 백 담 봉령

浮世紛紛謾³自疑,
부 세 분 분 만 자 의

덧없는 세상 하도 어지러워 함부로
 자신마저 불신하는데,

公心終始任安危。
공 심 종 시 일 안 위

공공의 마음은 시종 국가의 안위를
 생각했소.

忠如清獻⁴當朝⁵日,
중 여 청 현 당 조 일

충정은 청헌공⁴清獻公이 조정에
 있을 때와 같았고,

-
- 1) 만(輓) : ① 사람의 죽음을 애도(哀悼)하다. ② 수레를 끌다, 견인(牽引)하다. ③ (사람을 앞에서 끌다) 추천하다. ④ 친거하다.
 - 2) 구백담(具栢潭) : 구봉령(具鳳齡) : 1526-1586)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능성(綾城), 이름은 봉령(鳳齡), 자(字)는 경서(景瑞), 호는 백담(栢潭 : 백담(柏潭)으로도 씀). 어려서 부모 여의고 외종조 권팽로(權彭老)에게 『소학(小學)』을 배워, 문리(文理)를 깨우침. 1545년 이황(李滉)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함. 1546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60년 별시문과에 올라로 급제한 후,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이르고, 1564년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하여 호조좌랑, 병조좌랑을 거쳐 직제학(直提學)에 올랐으며, 1577년 대사간(大司諫)에 오르고 이듬해 형조참의를 지냈음.
 한때 암행어사로 충청도에 나가 민심을 수습했고, 봉당정치에 중립을 지키려고 애썼음. 만년에 정사(精舍)를 세워 후학을 양성했으며, 용산서원(龍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음.
 저서에 『백담문집(栢潭文集)』이 있다.
 - 3) 만(謾) : 만(漫)과 통함. 즉, 여기서는 부사로 쓰이며, ‘함부로’의 의미로 봐야할 것임.
 - 4) 청헌(淸獻) : 자(字) 또는 호(號)이겠으나, 누구인지는 미상.
 - 5) 당조(當朝) : 예전에, 조정이나 왕조를 이르던 말 ; 이 시대, 이 세상.

勇似錢樞⁶⁾乞退時。
용 사 권 추 길 퇴 시

용기는 전추錢樞가 퇴직 청할 때와
흡사했소.

三畝⁷⁾有桑餘舊業⁸⁾,
삼 묘 유 상 여 구 업

밭 세 묘三畝에 뽕나무 심어
선친의 가업보다 여유 있으니,

百年傳緒⁹⁾望諸兒。
백 년 전 서 망 제 아

백년 후 유업遺業의 전수는
자제들에게 바라시구려.

從今忍過¹⁰⁾西門路,
종 금 인 과 서 문 로

이젠 만사에 미련 버리시고
극락정도의 문을 건너가시니,

衰草寒烟不盡悲。
쇠 초 한 연 부 진 비

시든 풀 차가운 안개 속에서
비통함 다할 길이 없구려.

6) 전추(錢樞) : 인명(人名). 이력 미상.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군옥소기(群玉所記)』에, “유항재(有恒齋)니 ‘풍이유음(風雅遺音)’이니, ‘자시일왕법(自是一王法)’이니, ‘격천리공명월(隔千里共明月)’이니 하는 등의 글자를 새긴 것이 모두 여덟아홉 개인데, 자체(字體)가 모두 가늘고 형태가 길쭉하여 마치 전 추밀(錢樞密)이 조정에서 간쟁하면서 홀로 서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기록이 있음.

7) 묘(畝) : 지적(地積) 단위. 1묘(畝) : ‘무(畝)’로도 읽음)는 한 단(段)의 10/1, 곧 3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고 환산함.

8) 구업(舊業) : ① 선조의 사업. ② 원래 있던 가업(家業). ③ 이전의 재산.

9) 서(緒) : ① 서업(緒業) ; 선인(先人)이 다 이루지 못한 공훈과 업적, 즉 유업(遺業). ② 사업.

10) 인과(忍過) : ‘인(忍)’은 미련을 두지 않고 건너가다.



시35. 입궐하라는 명을 받고 용추^{龍湫}폭포에
이르러 홀연히 두견새 소리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

(정해년^{丁亥年} : 1587년, 선조^{宣祖} 20, 서애^{西厓} 46세)

詩35. 承召¹⁾到龍湫²⁾ 忽聞杜鵑聲有感 丁亥³⁾
승 소 도 용 추 홀 문 두 견 성 유 감 경 배

芳草生幽澗, 방초는 깊은 골짜기 개울가에 돋아나고,
방 초 생 유 간

春風動客衣。 춘풍에 나그네 옷자락이 펄럭이네.
춘 풍 동 객 의

如何林外鳥, 어찌하여 수림 밖 두견새는,
여 하 름 외 조

勸我不如³⁾歸。 나에게 돌아가라 재촉하는고?
권 아 불 여 귀

- 1) 승소(承召) : 임금이 부르는 명령을 받듦. ‘승(承)’은 순종(順從), 봉승(奉承), 접수(接受)의 뜻임.
- 2) 용추(龍湫) : 위에서 폭포수가 떨어지고 아래에 심담(深潭)이 있는 것을 용추(龍湫)라고 이름 하며, 흔히들 이에 폭포라는 두 글자를 연계하여 ‘용추폭포’라고 명칭함. 본 시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용추폭포인지 자세히 알 수 없음. 일반적으로 앞에 지명을 붙인 용추폭포가 적지 않음.
- 3) 불여(不如) : ~만 못하다. ~하는 편이 낫다.

시36. 옥연서당玉淵書堂에서 재미삼아 짓다

詩36. 玉淵書堂¹⁾ 戲題²⁾
 옥연서당 희제



東洛³⁾身千里⁴⁾, 낙동강 천리 지역 친히 관리해왔지만,
 동락 신천리

南柯夢一場⁵⁾。 (그것은) 한바탕의 남가일몽南柯一夢이었네.
 남가몽일장

- 1) 옥연서당(玉淵書堂) : 옥연정사(玉淵精舍)를 가리킴. 경북 안동시 광덕동(廣德洞)에 위치한 부용대(芙蓉臺) 오른쪽(하회동(河回洞))에서 부용대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임)에 있는 정사(精舍)이다.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차자(次子), 문충공(文忠公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후진양성과 함께 『징비록(懲毖錄)』 등 많은 역사적 저술을 한 곳임.
- 2) 희제(戲題) : ① 회학적(戲學的)으로 붙인 제목. ② 장난삼아 붙인 제목. ③ 익살스러운 제목.
- 3) 동락(東洛) : 낙동강(洛東江)을 지칭. 낙동(洛東)을 ‘동락(東洛)’으로 도치시킨 이유는 본시를 측기식(仄起式) 평성운(平聲韻)으로 작시(作詩)하기 위함으로 보임. 고로 작가는 제1구의 두 번째 자를 측성자(仄聲字) ‘낙(洛)’으로 시작하여, 제2구의 두 번째 자인 평성자(平聲字) ‘가(柯)’와 평측(平仄)을 대립시켜 평측률(平仄律) 중의 하나인 반법(反法)의 규칙에 부합되게 하고 있음.
- 4) 신천리(身千里) : 낙동강 천리 지역을 친히 담당(擔當)하다.
 - ① 신(身) : ☆친히 담당하다, 겪다, 체험하다. ☆1인칭 대명사로 ‘아(我)’에 상당하는 뜻으로 쓰임.
 - ② 천리(千里) : 이정(里程 : 거리)이 요원하게 멀거나 면적이 광활함을 가리킴.
- 5) 남가일몽장(南柯夢一場) : 한바탕의 남가일몽이었네) : 이는 ‘남가일몽(南柯一夢)’을 칭하는 것으로, 꿈과 같이 헛된 한 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임.
 남가몽(南柯夢)이란, 말은 중국 당대(唐代)의 작가 이공좌(李公佐)가 쓴 전기소설(傳奇小說)인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에서 유래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순우분(淳于棼)이 술에 취하여 왜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선잠이 들었는데, 그때 괴안국(槐安國)의 사신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를 따라 왜나무 구멍 속으로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곳의 공주와 결혼하고 남가군(南柯郡)의 태수가 되어 20년 동안 호강을 누리다가 공주가 죽자 귀향해서 깨어보니, 그 곳은 원래의 자기 집이었다고 한다. 마당으로 내려가 왜나무를 베어 조사해보

酒醒風度竹, 술 깨자 바람 한 줄기 대숲을 스쳐가고,
주 성 풍 도 죽

人散月窺堂。 사람들 떠난 뒤 달이 살포시 마루를 엿보네.
인 산 월 규 당

險路行難盡, 한평생 험난한 길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고,
험 로 행 난 진

生涯⁶⁾老益涼。 인생살이 늙을수록 더욱 처량해지네.
생 에 노 익 량

荷衣⁷⁾看欲敝⁸⁾, 은자隱者의 옷 보지만 해도 드러내고 싶은데,
하 의 간 욕 창

誰復問金章⁹⁾。 누가 다시 고관의 관복에 대해 묻는고?
수 부 문 금 장

니 꿈속에서의 나라와 똑같은 개미의 나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꿈과 현실의 세계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혼돈 속에서 진행되는 인간의 운명의 허무함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이 작품을 희곡화한 것이 명(明)나라의 탕현조(湯顯祖)의 작품인 『남가기(南柯記)』이다.

- 6) 생애(生涯) : ① 일생(살아있는 한 평생의 기간). ② 생활. ③ 전(轉)하여, 직업이라는 말로도 씀. ④ 생명. ⑤ 인생. ⑥ 재산. ⑦ 생기(生機), 활기. ⑧ 전(轉)하여 직업이라는 말로도 씀.
- 7) 하의(荷衣) : ① 전설상에서 사용했다던 하엽(荷葉 : 연잎)으로 만든 의상(衣裳). ② 옛날 중국에서 진사(進士)에 합격된 후 입던 녹색의 중국식 두루마기를 가리킴. ③ 하엽(荷葉)으로 만든 옷으로, 은사(隱士)의 옷을 가리킴.
- 8) 창(敝) : ① 노출되다. ② 드러나다. ③ 열다, ④ 지대가 높고 관관하여 앞이 탁 트여 있음.
- 9) 금장(金章) : 고대 고급관원의 관복(官服).

시37. 장난삼아 선어시禪語詩를 지어 승려 홍정弘靖에게 주다

詩37. 戲作禪語¹⁾ 贈僧弘靖²⁾
희 작 선 어 증 승 홍 정



不³⁾思善惡³⁾時,
불 사 선 악 시

(좌선坐禪 하면서) 선악의 분별마저
생각 않고 명상할 때가,

- 1) 선어(禪語) : 선문(禪門)의 독특한 말. 선(禪)은 한 마디로 '정신통일'임. 즉 '마음을 집중시켜 산란하지 않도록 하여 지혜를 배어들게 하는 이치에 맞는 수행법'임.
선(禪) 수행의 기본은 좌선(坐禪)과 선문답(禪問答)임. 좌선은 일체에 무애자재(無碍自在)하는 것임. 즉 밖으로 망념(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 불성(佛性)을 깨달아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는 것을 '선(禪)'이라 함. 선문답(禪問答)은 선수행의 문제인 공안(公案 : 조사(祖師)의 어구(語句)나 문답을 가리킴)의 참구(參究 : 참선하여 문제를 구명함)를 통한 선문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 조사(祖師)들과 대화를 전개하는 것임. 좌선은 신체적으로 수행의 형태이고 선문답은 언어를 통한 구체적인 실천의 형태임.
선(禪)의 수행 방법에는 간화선(看話禪)과 조사선(祖師禪)이 있음. 간화선은 하나의 공안(公案)을 표적으로 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면 또 다른 공안을 가지고 공부하여 마침내 대오(大悟)에 이른다고 하는 선풍(禪風)이고, 조사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는 것임. 즉 언어와 문자에 의하지 않고 직접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깨우치게 하는 선풍(禪風)임. 총괄하면, 선수행을 원만하게 달성해서 자각을 통한 체험을 자기화시키고 불성(佛性)을 깨닫도록 보조하는 언어를 선어(禪語)라고 함.
- 2) 홍정(弘靖) : 조선 중기의 승려. 임진왜란 당시 승군(僧軍)을 일으켰음. 상세한 이력은 미상.
- 3) 불사선악(不³⁾思善惡³⁾) : (좌선(坐禪)의 상태에서는) 선과 악의 분별마저 숙고(熟考)하지 않고 명상에 잠긴다.
 - ① 불사(不³⁾思) : 이는 '불사량(不思量 : 사고<思考>하지 않다, 깊이 생각하지 않다)'의 뜻임. 『정법안장(正法眼藏)·좌선의(坐禪儀)』에 이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 "선(善)도 깊이 사고(思考)하지 말라(善也不思量)"이라는 구절임. '불사량(不思量)'은 본래 소생된 그대로의 생리적인 의식현상을 말함.
 - ② 선악(善惡) : 이는 '분별의 정신활동'이지만, 그것도 좌선(坐禪)안에서는 본래의 '불사량

乃⁴⁾汝眞面目⁵⁾。 바로 그대의 진면목眞面目이로세.
 誰將快金剛⁶⁾， 누가 장차 금강저金剛杵를 예리하게 갈아서,
 斷盡萬藤葛⁷⁾。 일만 가지 갈등의 고리를 다 끊어버릴 것인가?
 雲來千峯黑， 구름이 몰려오면 일천 산봉우리 검어지고,
 雲去一天碧。 구름이 사라지면 온 하늘이 푸르러진다네.
 莫覓雲歸處， 구름이 흘러간 곳을 찾지 말게나,
 雲歸本無迹。 구름이 흘러간 곳은 본래 지취가 없는 것이니.

(不思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임. 선(善)이라고 좋아하고 악(惡)이라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임. 밤과 낮을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하듯이, 선을 보면 ‘선(善)이구나’, 악을 보면 ‘악(惡)이구나’ 정도로 인식하되, 선과 악을 분별하여 마음의 작용을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함. 마음을 한결같이 해서 명상하는 선사(禪思)와 마음을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선심(禪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임. ‘마음이 곧 부처’라는데, 평상심(平常心)을 잃고 그 어떤 형태라도 편견이나 집착을 가지면 번뇌와 망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이르는 것임.

- 4) 내(乃) : 동사로서 ‘~이다, 바로 ~이다’의 뜻임.
- 5) 진면목(眞面目) : 사전적 의미는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 대로의 상태’이나, 본 시에서는 ‘일체의 경계나 주위의 분위기에 매몰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린 범부심(凡夫心 : 중생심(衆生心))이 아니라, 일체의 번뇌와 망념이 없는 근원적인 마음과 분별, 차별심의 미혹이 없는 본래심(本來心)인 불성(佛性)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음.
- 6) 금강(金剛) : 금강저(金剛杵)의 준말. 원래의 뜻은 금석 중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금강(金剛)’이란 말은 ‘금강저(金剛杵)’의 준말임.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쓰던 무기의 일종으로 번개를 본 따 만든 것이라 하는데,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고뇌와 미혹을 깨부수는 보살심(菩薩心)의 상징으로 사용함. 즉, 불교계에서는 금강저(金剛杵)를 번뇌를 자르고 악마를 굴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법구(法具)로 쓰고 있음.
- 7) 등갈(藤葛) : 표면적 의미는 ‘등나무와 칩’이나, 본 시에서의 내면적 의미는 ‘갈등(葛藤)’을 의미함. 즉 등나무와 칩이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함.

시38. 옥연서당玉淵書堂에서 퇴계 선생退溪先生의
시에 차운次韻하여 벽에 쓰다

詩38. 玉淵書堂 次退溪先生¹⁾韻 書壁上
옥연서당 차 퇴계 선생 운 서벽상



微風度庭樹，
미풍도정수

미풍이 불어 정원수를 스쳐가더니,

晚涼生虛堂。
만량생허당

저녁 무렵 서늘한 기운 텅 빈 서당에 감도네.

- 1) 퇴계 선생(退溪先生 : 이황〈李滉 : 1501-1570〉) : 조선 중기의 대학자. 본관은 진성(鎭城)이씨(眞城李氏),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이름은 황(滉), 시호는 문순(文純). 경북 예안(禮安)에서 출생하여, 1534년 문과에 급제. 박사(博士) 호조좌랑(戶曹佐郎)을 거쳐,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이 되었음. 을사사화(乙巳士禍) 후에 사직 당했다가 1556년 부제학(副提學), 예조판서(禮曹判書), 1568년 우찬성(右贊成)을 거쳐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지내고, 이듬해 고향에 은퇴, 학문과 교육에 진심했음.
- 그의 학문은 이언적(李彦迪)의 주리설(主理說)을 계승, 주자(朱子)의 주장을 따라 우주의 현상을 이(理), 기(氣) 이원(二元)으로써, 설명하였음. 이(理)와 기(氣)는 서로 다르면서도 동시에 상호의존관계에 있어서, 이(理)는 기(氣)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로서, 이(理)의 법칙을 따라 구상화(具象化)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였음.
- 그는 또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즉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이(理)에 따르는 것은 사단(四端)이며,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기(氣)를 타는(승(乘)) 것은 칠정(七情)이라고 주장하였음.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하여, 기대승(奇大升 : 1527-1572)과 다년간 논쟁을 하였음. 어쨌든 이황(李滉)은 인간의 존재와 본질도 행동적인 면에서 본다는 것으로, 이념적인 면에서 추구하면, 인간의 순수이성(純粹理性)은 절대선(絕對善)이며, 여기에 따른 것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음. 그의 문하생인 류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정구(鄭逵) 등에 계승되어 영남학파를 이룩하였음.
- 저서에 『퇴계전서(退溪全書)』, 작품에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글씨에 『퇴계필적(退溪筆迹)』이 있음.

幽居²⁾無一事, 외진 곳에 사는지라 별난 일이 없던 터라,
 유 거 무 일 사
 愛此白日光。 이 밝은 햇빛을 좋아하게 되었다네.
 애 차 백 일 광
 晤言³⁾誰見賞⁴⁾, 마주 보고 얘기 나누고 싶지만
 오 언 수 견 상 누가 날 알아주리,
 所懷⁵⁾天一方。 사모하는 사람은 하늘 저쪽 끝에 있는 것을!
 소 회 천 일 방
 平生有壯圖, 일평생 웅대한 뜻을 품고 있었건만,
 평 생 유 장 도
 歲晚心獨傷。 나이가 많아지니 마음이 유독 아파오네.
 세 만 심 독 상
 芝蘭坐蕪沒⁶⁾, 영지靈芝와 난초는 점차 잡초에 가려지고,
 지 난 좌 무 몰
 天地多風霜⁷⁾. 천지에는 바람 세고 서리도 많이 내리네.
 천 지 다 풍 상

-
- 2) 유거(幽居) : 외지고 한적한 거처.
 3) 오언(晤言) : 오어(晤語). 마주 대하고 이야기 하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하다. ‘오(晤)’는 대면하다. 만나다. 회견(會見)하다는 뜻임.
 4) 견상(見賞) : ① 어떤 사람의 재능. 혹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알아 귀히 여기다. ② 아끼다. ③ 높이 평가하다. ④ 귀히 여김을 받다, 높은 평가를 받다.
 5) 소회(所懷) : 사모하는 사람.
 6) 지난좌무몰(芝蘭坐蕪沒) : 영지와 난초 마침내 잡초에 가려지고 :
 ① 지난(芝蘭) : 영지(靈芝)와 난초(蘭草)로서, 상서(祥瑞)로운 식물임. 본 시에서는 현인(賢人)에 비유되고 있음.
 ② 좌(坐) : ☆거의. 대개. ☆점점, 점차로.
 ③ 무몰(蕪沒) : 황초(荒草) 사이에 덮혀 가려짐을 뜻하는 것임. 이는 곧 현인이 악인 속에 묻힘을 비유한 것임.
 7) 천지다풍상(天地多風霜) : 천지에는 바람 세고 서리도 많이 내리네) :
 ① 천지(天地) : 세상.
 ② 풍상(風霜) : 바람과 서리로서, 이는 고난이나 고초에 비유되고 있음.

悠哉復悠哉⁸⁾, 이 생각 저 생각 거듭거듭 하다가,
유 재 부 유 재

兩鬢⁹⁾空蒼蒼¹⁰⁾。 살짝만 부질없이 희끗희끗 해지네.
양 빈 공 창 창

-
- 8) 유재(悠哉) : 사념(思念)이 심장(深長)한 모양을 형용한 말임.
9) 양빈(兩鬢) : 양쪽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
10) 창창(蒼蒼) : ① 회백색(灰白色), ② 노쇠한 모양.



시39. 감실(龕室)을 시제(詩題)로 쓰다

詩39. 題書龕¹⁾ 제서(題書) 감(龕)

一間藏得萬家書, 감실(龕室) 한 칸에 일만가(萬家) 서책
일 간 장 득 만 가 서 소장해 놓고,

盡日明窓俗慮疎²⁾. 종일 밝은 창 아래서 속된 생각 멀리하네.
진 일 명 창 속 려 소

生世自知無補益³⁾,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함
생 세 자 지 무 보 익 스스로 알기에,

晩年甘作蠹書魚⁴⁾. 만년에는 기꺼이 책벌레나 되려하네.
만 년 감 작 두 서 어

1) 제서감(題書龕 : 감실(龕室)을 시제(詩題)로 쓰다) :

- ① 제서(題書) : ☆제자(題字). ☆서적의 머리나 족자, 비석 따위에 쓴 글자. ☆사람의 눈에 잘 띄는데 글씨를 쓰거나 쓴 글자.
- ② 감(龕) :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상이나 신주를 안치하는 감실(龕室)이 아니라, 서애가 서책을 보기 위해 마련한 규모가 작은 집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소(疎) : ① 철퇴(撤退)시키다(하다). 물리치다. ② 경시(輕視)하다.

3) 생세자지무보익(生世自知無補益 :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함 스스로 알기에) :

- ① 생세(生世) : 세상에 살다.
- ② 자지(自知) : 스스로 알다.
- ③ 무보익(無補益) :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다.

4) 두서어(蠹書魚) : 원래의 뜻은 ‘책을 좀먹는 좀벌레’라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지나치게 책을 읽거나, 공부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책벌레’라는 뜻에 비유하여 썼음.

시40. 인동현仁同縣 서헌西軒의 열 가지 절경絶景

詩40. 仁同西軒十絶¹⁾
 인 동 서 헌 십 절



西軒
 서 헌

서헌西軒

小院凉如水,
 소원양여수

자그마한 정원이 물같이 서늘한데,

青山繞似屏。
 청산요사병

청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네.

閒宵獨悵悵²⁾,
 한소독초창

한적한 이 밤 홀로 서글퍼하는데,

1) 인동서헌십절(仁同西軒十絶) : 인동현(仁同縣) 서헌(西軒)의 열 가지 절경(絶景) :

- ① 인동(仁同) : 인동현(仁同縣). 행정구역 명칭. 본래 신라의 사동화현(斯同火縣)인데, 후에 수동현(壽同縣)이 되었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인동현(仁同縣)이라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경산부(京山府〈성주 : 星州〉)와 약목현(若木縣)에 예측되었다가 조선시대 중기인 1604년(선조37)에 인동부(仁同府)로 승격되었다. 지금의 경북 구미시(龜尾市) 인동동(仁同洞)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임.
 - ② 서헌(西軒) : 조선시대 지방관아(地方官衙) 내에 위치한 지방관의 생활처소인 내아(內衙)를 서헌(西軒)이라고 하였음. 보통 서쪽에 위치함.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의하면, 서헌의 북측에 누각이 세 칸 있었고 누각 아래로 네모진 연못이 있었으며, 물을 끌어들어 졸졸 물소리가 났다고 함. 누각 난간에 기대어서 보면 서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금오산(金烏山)이 멀리서 보인다고 하였음. 동헌(東軒)은 지방관아(地方官衙)의 정무(政務)가 행해지던 중심건물로서, 관찰사나 수령들의 정청(政廳)이며, 일반 행정업무와 재판 등이 행해지던 곳임.
 - ③ 십절(十絶) : 열 가지 절경(絶景 : 절묘한 경치).
- 2) 초창(悵悵) : ① 실망하다. 실의에 차다. ② 슬퍼하다. 서글퍼하다.

秋月滿虛櫺³⁾
추 월 만 허 영

가을 달빛이 공허한 격자창에 가득하네.

金烏山⁴⁾
금 오 산

금오산金烏山

高峯出雲際,
고 봉 출 운 제

높은 산봉우리 구름 위로 솟아있고,

桂樹秋深碧。
계 수 추 심 벽

계수나무는 가을인데도 푸어나 푸르네.

下有高人居,
하 유 고 인 거

산 아래 비범한 사람 거주해서인가,

清風吹不歇。
청 풍 취 불 열

맑은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네.

洛東江⁵⁾
낙 동 강

낙동강洛東江

清洛⁶⁾深千丈⁷⁾,
청 낙 심 천 장

물 맑은 낙동강 깊이가 일천 장丈인데,

魚龍出復沒。
어 룡 출 부 물

어룡魚龍이 물 위로 나타났다 사라지네.

龜圖⁸⁾不可見,
귀 도 불 가 견

등에 그림 짙어진 신기한 거북이는
볼 수 없는데,

-
- 3) 령(櫺) : ‘령(櫺)’자와 동자(同字). 격자창(문살을 바둑판처럼 가로·세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짠 문).
 - 4) 금오산(金烏山) : 경북 구미시(龜尾市) 및 금릉군(金陵郡) 남면(南面), 칠곡군(漆谷郡) 북삼면(北三面)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976m.
 - 5) 낙동강(洛東江) : 강원도 태백시(太白市) 함백산(咸白山 : 1,573m)에서 발원하여, 경북의 안동, 함창(咸昌), 상주(尙州), 대구(大邱) 지역과 경남의 삼랑진(三浪津), 김해(金海)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저지대를 통과하여 남해로 흘러들. 이처럼 영남지방의 전역을 그 유역권으로 하고 있어 압록강(鴨綠江) 다음으로 긴 한국 제2의 강으로, 전장(全長) 525.15km, 유역면적 2만 3,860km²임.
 - 6) 청낙(淸洛) : 맑은 낙동강. 여기서 ‘낙(洛)’은 낙동강을 가리킴.
 - 7) 장(丈) : 길이의 단위로서, 1장(丈)은 10척(尺)의 길이를 말함.

江昏風雨夕⁹⁾
강 혼 풍 우 석

강엔 날 저물고 밤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네.

天生城¹⁰⁾
천 생 성

천생산성天生山城

世道¹¹⁾日云下¹²⁾, 세상 사는 방식이 날로 야박해진다더니,
세 도 일 운 하

8) 귀도(龜圖) :

① 즉 낙서(洛書). 이는 『위군(緯綽)·용어하도(龍魚河圖)』에 나오는 말로서, “요임금이 어느 날, 군신 및 현자와 더불어 취규(翠媯)의 강변에 이르렀을 때(堯時與君臣賢者到翠媯之川), 큰 거북이가 등에 그림을 지고 나와서 요에게 던졌다(大龜負圖來投堯). 요는 신하에게 이를 베끼도록 명하고 나서 <임금의 어진 정치가> 하늘에 감응되어 나타나 는 길한 조짐이라고 말하였다(堯勅臣下寫取告瑞應). 다 베끼고 나니 거북은 다시 물속 으로 돌아갔다(寫畢龜還水中)”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귀도(龜圖)’란 말을 ‘제왕의 어진 정치가 하늘을 감응시켰다’는 의미로 ‘제왕을 칭송하는 말’로 여겼다.

‘낙서(洛書)’는 유가(儒家)의 전설로서,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낙수(洛水) 강에서 나온 신비스러운 거북이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마흔 다섯 개의 그림으로 된 9개의 무늬임. 팔괘(八卦 : 중국상고시대 복희씨(伏羲氏)가 지었다는 여덟 가지의 괘)와 홍범구주(洪範九疇 : 『서경(書經)·홍범(洪範)』에 기록되어 있는 우(禹)가 정한 정치도덕의 9가지 원칙)가 여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한다.

② 점복서(占卜書)에 그려진 명귀(名龜)의 그림 : 『사기(史記)·귀책열전(龜策列傳)』에, “능히 명귀(名龜)를 얻은 사람은(能得名龜者), 재물이 그에게 모여들어(財物歸之), 그 집은 크게 부유하게 되어서 천만 냥을 모을 수 있다(家必大富至千萬). 첫째를 북두귀(北斗龜)라 하고(一曰‘北斗龜’), 둘째를 남진귀(南辰龜)라 하며(二曰‘南辰龜’), ……; 여덟째를 옥귀(玉龜)라 하는데(八曰‘玉龜’), 이것이 모두 여덟 종류의 명귀(名龜)이다(凡八名龜). 이 여덟 종류의 명귀 그림에는 각각 거북의 배 밑에 문자가 적혀있고(龜圖各有文在腹下), 그 문자 부분에 적혀있는 설명이(文云云者), 그 명귀의 이름에 해당하는 다(此某之龜也)”고 하였다.

9) 석(夕) : 밤(夜).

10) 천생성(天生城) : 천생산성(天生山城).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에 위치하며 지정면적은 61,874㎡임. 이 산성은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신라의 서북 경계지역에 쌓은 산성(山城)임. 하지만,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폐허로 변해갔음. 훗날 임진왜란 때 류성룡(柳成龍)에 의해 천생산성(天生山城)의 수축이 논의된 후, 1596년 4월에 이원익(李元翼)이 당시의 현감 이보(李輔)에게 명하여 개축(改築)케 하였음.

1601년과 1604년에도 관찰사 이시발(李時發)과 찰리사(察里使) 곽재우(郭再祐)에 의해 산성이 다시 수축되었음. 이 산성은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으로 이루어졌는데, 내성은 군사사와 군마(軍馬) 등 전투를 위한 각종 장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외성은 훈련장 및 군사용보조시설의 역할을 하였음.

11) 세도(世道) : 인간세상의 도로. 전(轉)하여, ①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 ②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 ③ 어지럽고 변화무쌍한 사회상태. ④ 세간(世間), 사회. ⑤ 사회 도덕적 풍조

干戈¹³更相賊¹⁴。 전란으로 더더욱 서로를 해치는구나.
간 과 갱 상 적

天亦無奈何， 하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나,
천 역 무 내 하

留此待¹⁵暴客。 이곳에 머물며 폭도들을 막아야겠네.
유 차 대 폭 객

冶隱墓¹⁶
야 은 묘

야은묘冶隱墓

路傍一抔土¹⁷， 길옆에 위치한 한 기ฐ의 이 무덤은,
로 방 일 배 토

云是注書原¹⁸。 주서注書 야은冶隱의 묘라고 하네.
운 시 주 서 원

등을 가리킴.

12) 운하(云下) : 추락한다고 말하다.

① 운(云) : 말하다.

② 하(下) : 추락하다. 경시하다.

13) 간과(干戈) : 방패와 창이란 뜻으로, 전(轉)하여, 병기(兵器)의 통칭. 또한 전쟁, 병사, 무력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임.

14) 상적(相賊) : 서로 해치다. 서로 살육하다.

15) 대(待) : 막아내다, 방비하다. 방어하다.

16) 야은묘(冶隱墓)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길재(吉再)의 묘(墓)는 인동부(仁同府)의 서쪽 14리 오태산(吳泰山)에 있다고 하였다.

① 야은(冶隱) : 길재(吉再 : 1353-1419). 야은(冶隱)은 길재(吉再)의 호이며, 고려말 조선초의 성리학자임.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 시호(諡號)는 충절(忠節)임.

1383년 사마감시(司馬監試)에 합격하고 1386년 문과(文科)에 합격하였음. 1388년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며, 1400년 이방원(李芳遠)에 의해 태상박사(太常博士)가 되었으나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하여, 거절하고 귀향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음.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의 삼은(三隱)으로 꼽힘. 금산(錦山)의 성곡서원(星谷書院)에 배향(配享)되었고, 저서에 『야은집(冶隱集)』이 있음.

17) 부토(抔土) : 한 줌의 흙. 전하여, ‘무덤, 능(陵)’을 가리킴.

18) 주서원(注書原 : 주서의 무덤) : 야은(冶隱)은 창왕(昌王)때 문화주서(文化注書 : 문관직의 정7품 벼슬)가 되었으나, 고려가 쇠망할 기운을 보이자,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음. 여기서 ‘원(原)’은 ‘능(陵)’의 유의자(類義字)로, 능침 혹은 무덤을 가리킴.

誰知封植者¹⁹⁾
수 지 봉 식 자

누가 알겠는가 묘소를 돌보는 자를,

不是子與孫。
불 시 자 여 손

(아마도 야은冶隱의) 자손이 아니겠는가!

蓮堂²⁰⁾
연 당

연 당蓮堂

處汚能全潔,
취 오 능 전 결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고결함 보전하고,

逢秋更顏色²¹⁾。
봉 추 경 안 색

가을이 되자 그 자색姿色이 더욱 곱구나.

歲晚無人采,
세 만 무 인 채

한 해가 저물도록 캐가는 이 없으니,

芳馨²²⁾祗²³⁾自悅。
방 향 지 자 열

향기 풍기며 다만 스스로 기뻐하네.

竹塢²⁴⁾
죽 오

죽 오竹塢

高或出雲霄²⁵⁾，
고 혹 출 운 소

높이 자란 것은 간혹 구름 위로 치솟았고,

短者猶出屋。
단 자 유 출 옥

짧은 것도 지붕 밖으로 드러날 듯하네.

19) 봉식자(封植者) : 묘소를 돌보는 자) : 여기서 ‘봉식(封植)’은 ‘봉식(封殖)’으로도 씀. ‘봉분(封墳)’에 가토(加土) : 흙으로 쌓은 무덤에 손질하기 위하여 흙을 더 덮거나 없어 줌)하고, 주변에 식목(植木)하여 장식함’이란 뜻임.

20) 연당(蓮堂) : 연(蓮)이 성장하는 연못 주변에 위치한 누정(樓亭).

21) 안색(顏色) : ① 자색(姿色). 아름다운 용모. ② 색채. ③ 안색, 얼굴색, 표정.

22) 방향(芳馨) : 향기롭다.

23) 지(祗) : 다만, 마침내. 지(祗)와 동자(同字)임.

24) 죽오(竹塢) : 대나무가 무성한 촌락.

25) 운소(雲霄) : ① 하늘 가. 고공(高空). ② 고위(高位)에 비유되기도 함.

生成雖不齊, 나서 자라는 것이 비록 고르지는 않지만,
생 성 수 불 제

箇箇²⁶⁾有堅節²⁷⁾。 날날의 줄기마다 견고한 마디 있네.
개 개 유 견 절

懷歸²⁸⁾
회 귀

회귀懷歸

小築²⁹⁾臨江曲³⁰⁾, 아담한 집을 강굽이 강변에 지어놓고,
소 축 름 강 곡

圖書藏滿壁。 도서圖書를 벽 가득히 소장하고 있다네.
도 서 장 만 벽

何時一葉舟³¹⁾, 언제라야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하 시 일 엽 주

穩泛西潭³²⁾月。 달이 잠긴 서쪽 물가에 조용히 띄워보리.
은 범 서 심 월

自歎
자 탄

자탄自歎

吾衰那³³⁾忍說, 내가 노쇠했다고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리,
오 쇠 나 인 설

26) 개개(箇箇) : 날날, 각각.

27) 견절(堅節) : ① 견고한 마디. ② 확고한 충절.

28) 회귀(懷歸) : 사귀고리(思歸故里), 즉 '고향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의 뜻임.

29) 소축(小築) : 아담한 건축물.

30) 강곡(江曲) : 강굽이. 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

31) 일엽주(一葉舟) : 일엽편주(一葉片舟). 한 척의 조그마한 배.

32) 심(潭) : ① 물가(강, 못, 바다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② 담(潭) : 못(연못, 지당 <池塘>과 같이 늪보다는 작지만 넓고 오목하게 패인 땅에 물이 고여 있는 곳). ③ 소(沼 : 늪)

33) 나(那) : 본 시에서는 동사 앞에서 의문부사로 쓰여, 과장의 어기를 나타냄. 즉, '어찌, 어째서, 어떻게'의 뜻임.

不復夢周公³⁴⁾。 다시는 주공周公의 꿈을 꾸지 못 할 텐데.
불 부 몽 주 공

經濟³⁵⁾平生志, 세상 다스려 백성 구제함이 평생 뜻이기에,
경 제 평 생 지

羈危³⁶⁾半道³⁷⁾中。 반평생을 험난한 곳에서 떠돌았네.
기 위 반 도 중

悼夭³⁸⁾ 요절을 애도하며
도 요

去者已冥冥³⁹⁾, 죽은 사람은 이미 저승에 가고 없는데,
거 차 이 명 명

存者長惻惻⁴⁰⁾。 산 사람은 두고두고 비통해 하네.
존 차 장 측 측

34) 주공(周公) : 희단(姬旦 : ?-?) : 중국 고대의 정치가. 서주(西周)의 왕족임. 즉, 주문왕(周文王)의 아들이며, 무왕(武王)의 동생임. 무왕을 보좌하여 상(商 : 은(殷))나라를 정벌하여 주왕(紂王)을 멸망시킴. 무왕이 죽자 그의 아들 성왕(成王)이 나이가 어려서 주공이 섭정(攝政)을 함. 당시 은족(殷族)의 대표자 무경(武庚 : 주왕(紂王)의 아들)과 녹부(祿夫), 그리고 주공의 동생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 등이 동이(東夷)와 결탁하여 일으킨 반란을 평정함.

성왕(成王)이 성장하자 왕권을 성왕에게 환원함. 주공은 은족(殷族)을 회유하기 위하여 대봉건제(大封建制)를 실시하여 주왕실의 수비를 공고히 함. 한편 예악(禮樂)과 법도를 제정하여 주왕실 특유의 문물(文物)과 제도를 창시하였음. 그는 중국 고대의 정치, 사상, 문화 등 다방면의 위대한 공로자로서 후대 유학자들에게 성인(聖人)으로 존중되고 있음. 저서에 『주례(周禮)』가 있음.

35) 경제(經濟) :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다’는 뜻임.

36) 기위(羈危) : 위태로운 곳에서 떠돌다.

37) 반도(半道) : 중도(中途). 반로(半路). 일이 진행 중 임을 비유하는 말로 씀.

38) 도요(悼夭) : 요절(夭折)한 것을 애도함. 서에는 1585년(선조 18, 乙酉, 44세) 4월에 아들 위(樞)를 잃었음.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때 서애는 상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하였음.

39) 명명(冥冥) : ① 저승, ② 사망을 가리킴. ③ 혼암(昏暗)한 모양 ④ 어두운 밤. ⑤ 고원(高遠)한 모양. ⑥ 유심(幽深)한 모양. ⑦ 침묵하며 말하지 않는 모양. ⑧ 전심전력으로 몰두하는 모양. ⑨ 암중(暗中)에. ⑩ (희망이) 막연하다, 막막하다. ⑪ (안개, 비 등이) 자욱한 모양. ⑫ (사리에 어두워) 명정한 모양.

40) 측측(惻惻) : 비통함, 처량함. (희망이) 막연하다, 막막하다.

冥冥與惻惻，
명 명 여 측 측

막막함과 사무치는 비통함이,

日日無終極。
일 일 무 종 극

날마다 그 끝이 없구나.

시41. 정경임鄭景任의 두 수 시에 차운次韻하여 답장으로 부치다

詩41. 次韻寄答鄭景任¹⁾ 二首
차운기담정경임 이수



其一
기 일

[1]

二妙²⁾參尋³⁾憶去年, 두 젊은이 찾아온 게
이묘 참尋 억기년 작년으로 기억되니,

1) 정경임(鄭景任) :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학자. 자는 경임(景任), 이름은 경세(經世), 호(號)는 우복(愚伏), 일묵(一默) 외 여러 개. 본관은 진주(晉州). 상주(尙州) 출신으로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임. 1582년 진사를 거쳐 1586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한 뒤 봉교(奉敎)를 거쳐 1589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워 1598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부제학에 발탁되고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이르렀음. 성리학(性理學)에 밝았고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 이황(李滉)의 학설에 반대, 이이(李瑋)에 동조하였으며, 예론(禮論)에 밝아서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예학파(禮學派)로 불렸음. 시문과 서예에도 뛰어났음.

상주(尙州)의 도남서원(道南書院)과 대구(大邱)의 연경서원(研經書院) 등에 제향되었음. 저서에 『우복집(愚伏集)』과 『주문작해(朱文酌解)』 등이 있음.

2) 이묘(二妙) : 두 젊은이.

① 서애주석(西厓註釋) : “당시 이숙평(李叔平)도 함께 방문한 까닭에 ‘이묘(二妙)’로 칭한다(時李叔平同訪故云二妙)”.

☆이숙평(李叔平) : 이준(李埈 : 1560-1635) : 이숙평(李叔平)의 나이는 정경임과는 3년 차이이고, 이들 두 사람은 또한 서애(1542-1607)와는 20년 안팎으로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서애와는 연령차이가 나는 까닭에 젊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들의 사상이나 행위를 존중하는 의미를 내포시켜, ‘이묘(二妙)’라고 칭한 것으로 보임.

이숙평(李叔平)은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이며, 자(字)는 숙평(叔平), 이름은 준(埈), 호

中間消息久茫然⁴⁾。
중 간 소 식 구 망 연

그간 소식 격조隔阻해서
오랫동안 망연茫然했네.

已知隔歲相思苦，
이 지 격 세 상 사 고

해 바뀌도록 만나지 못해
그리움이 고통인 걸 이미 아나니,

更約清秋⁵⁾一會緣。
갱 약 청 추 일 회 연

팔월에는 꼭 한 번 만나기로 하세나.

青竹白雲容我拙，
청 죽 백 운 용 아 졸

푸른 대나무와 흰 구름도
내 옹졸함을 용인하고,

長書逸翰⁶⁾荷⁷⁾君憐。
장 서 일 한 하 군 려

긴 글의 뛰어난 편지로 군君的 사랑도
받았다네.

風塵自昔迷人甚，
풍 진 자 석 미 인 심

풍진세상風塵世上은 예부터 사람을
몹시 흥미케 하나니,

急處須撐⁸⁾上水船⁹⁾。
급 처 수 탕 상 수 선

다급할 땐 배를 역류라도 시켜
반드시 노를 젓게나.

는 창석(蒼石)이며,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임. 그는 1591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정경세(鄭經世)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항전했으나 패하였음. 1604년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정묘호란(丁卯胡亂)때에 다시 의병을 모집하여, 수십만 섬의 군량미를 모아 국가재정에 일조하였음.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음.

경북 상주(尙州)에 위치한 옥성서원(玉城書院)에 배향되고, 저서에 『창석문집(蒼石文集)』이 있음.

3) 참심(參尋) : 탐방(探訪)하다. 심방(尋訪)하다. 찾아뵙다.

4) 망연(茫然) : ① 기대에 어그러져 맥이 풀린 모양. ② 실의에 빠져 정신이 멍한 모양.

5) 청추(淸秋) : 음력 8월의 별칭.

6) 장서일한(長書逸翰) : 장문의 뛰어난 편지.

7) 하(荷) : 원래 뜻은 ‘남이 베푼 은덕(恩德)을 입다’이나, 본 시에서는 ‘받다’의 의미로 봐야할 것임.

8) 탕(撐) : 배를 젓다.

9) 상수선(上水船) : ① 역류(逆流)하여 상류 쪽으로 가는 배. ② 역류하여 배를 몰다.

其二
기 이

[2]

失學居然¹⁰四十年, 배움의 길을 잃은 지도 어느덧 사십년,
실 학 거 연 사 십 년

每憑¹¹中夜¹²獨悽然。 매번 한밤중이면 나 혼자 슬퍼한다네.
매 빙 중 야 독 처 연

迷塗晚退非眞勇, 길 잘못 들고도 늦게 물러남은
미 도 만 퇴 비 진 용
참된 용기 아니고,

閱世¹³歸來少好緣¹⁴。 세상사 다 겪고 돌아와도
열 세 귀 래 소 호 연
좋은 기연機緣 잃은 것일세.

摘葉尋枝¹⁵終自誤, 잎 따려고 가지 찾음은
적 엽尋 지 종 자 오
결국 자신의 과오인데,

搏沙¹⁶障海¹⁷更誰憐。 모래 뭉쳐 바다 막으려 한다면
단 사 장 해 경 수 연
더구나 누가 귀애하리!

10) 거연(居然) : ① 심심하고 무묘한 상태. ②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 ③ 동요되지 않거나 꼼짝하지 않는 모양. ④ 뜻밖예, 의외로. ⑤ 거연(倨然)의 의미로 오만한 모양 등의 의미가 있음. 여기서는 ‘뜻밖예’의 의미로 보아,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어느덧, 벌써’라는 뜻으로 번역하였음.

11) 빙(憑) : 전치사로써, ~에 의거하다, 근거하다, 의존하다.

12) 중야(中夜) : 반야(半夜), 한밤중.

13) 열세(閱世) : 시세(時世)를 경력(經歷)함. 당시 세상을 경험하다.

14) 소호연(少好緣) : 좋은 기연(機緣 : 기회와 인연)을 잃어버리다.

① 소(少) : ☆잃어버리다. ☆경시하다, 무시하다.

② 호연(好緣) : ☆좋은 기회와 인연. ☆좋은 시기(時機).

15) 적엽심지(摘葉尋枝) : 심지적엽(尋枝摘葉)이라고도 함. 직역하면, ‘잎 따려고 가지를 찾다’는 뜻이나, 비유하여, ‘사소한 일에 얽매이다(집중, 전념하다)’는 것을 가리킴.

16) 단사(搏沙) : ① 모래를 뭉치다, 모아도 쉽게 흩어짐을 비유한 말. ② 백성을 단결시키려는 것을 비유한 말.

17) 장해(障海) : 바다로 유입되는 물을 막다.

丁寧¹⁸⁾一語君應記,
정녕 일어군응기

재삼 당부하니 그대는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게나,

萬事如今下瀨¹⁹⁾船。
만사여금하뢰선

만사가 지금은 급류 속에 배 탄 격이니
하선下船해야 함을.

18) 정녕(丁寧) : ① 재삼 부탁하다, 신신당부하다. ② 추측컨대 틀림없이.
19) 리(瀨) : ① 급류, ② 여울물.

시42. 가을 밤 빗속에서 느끼다

詩42. 秋夜 雨中有感
추 야 우 중 유 감



忽忽¹⁾空驚序²⁾,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소리 울려와서,
홀 홀 공 경 서

寥寥³⁾獨掩門。 적막하지만 문만 꼭 닫았네.
요 요 독 엄 문

壁燈⁴⁾愁裏小, 벽에 걸린 등불도 수심愁心 속에 작아지는데,
벽 등 수 리 소

山雨夜深聞。 밤이 깊어지자 산중에는 빗소리가 들리네.
산 우 야 심 문

憶舊還多慨, 옛일 회상하니 여전히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억 구 환 다 개

安心未可論。 아직도 마음 놓고 거론할 수 없다네.
안 심 미 가 론

何方脫塵累⁵⁾, 무슨 수로 저속한 세상사 벗어나나,
하 방 탈 진 루

1) 홀홀(忽忽) : 갑자기, 홀연히.

2) 경서(驚序) : 놀라운 서곡(序曲), 본 시에서는 천둥소리를 칭함.

3) 요요(寥寥) : ① 고요하고 쓸쓸하다. ② 매우 적고 드물다. ③ 적막한 모양, 공허한 모양.

4) 벽등(壁燈) : 벽걸이 등잔불, 또는 벽에 홈을 파고 넣어 놓은 등불.

5) 진루(塵累) : 세상살이에 얽매인 너저분한 일.

振袂出⁶⁾乾坤⁷⁾。 소매 특특 털고 탈속脫俗의 방책方策
진 배 출 진 곤
내놔야할텐데.

6) 출(出) : ① 초과(超過)하다. ② 초월하다.

7) 건곤(乾坤) : ① 천하, 강산, 국가. ② 천지, 일월. ③ 음양, 남녀, 부부. ④ 제(帝), 후(后).
⑤ 잔피, 술책, 계책. 방책. ⑥ 『역경(易經)』의 건괘(乾卦)와 곤괘(坤卦). ⑦ 건방(乾方 : 서
북방)과 곤방(坤方 : 서남방).

시43. 강가에서 손님을 전송하며

詩43. 江上送客
강 상 송 객



沙邊楊柳繫行舟，
사 변 양 류 계 행 주

모래강변 버드나무에
(손님) 떠날 배 묶어 놔는데,

日暮烟波¹⁾漲綠洲²⁾。
일 모 연 파 장 녹 주

해 저물자 연무 낀 물결
녹주綠洲까지 넘실거리네.

無限客愁消不得，
무 한 객 수 소 부 득

손님의 끝없는 시름 풀어낼 길 없어서,

更攜尊酒上高樓。
경 휴 준 주 상 고 루

다시 술두루미 바꿔들고
누각에 올라가네.

1) 연파(烟波) : ‘연파(煙波)’로도 씀. 연무(煙霧)가 짙게 낀 수면(水面).
2) 녹주(綠洲) : 갈대 및 기타 푸성귀가 무성하게 자란 모래언덕.



시 44. 세상사²⁾를 느끼다

詩 44. 感事¹⁾ 감 사

攝亂如乘海²⁾, 난국을 타개²⁾하기란 바다에서
섭 난 여 승 해
조각배 타는 것 같아서,

存要³⁾未定家⁴⁾. 요직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안정시키지 못했네.
존 요 미 정 가

中宵⁵⁾無一氣⁶⁾, 한밤중 하늘에서는 바람 한 점 없어도,
중 소 무 일 기

1) 감사(感事) : ① 일로 인한 감흥. ② 외부 사물의 감동(접촉, 충격)을 받다.

2) 섭난여승해(攝亂如乘海) : 난국 타개(打開)하기란 바다에서 조각배 타는 것 같아서) :

① 섭난(攝亂) : 난국을 타개하다. 혹은 난국을 다스리다.

☆섭(攝) : 타개하다.

☆서애주석(西厓注釋) : “이따금 참동계(參同契)를 읽다보면, ‘섭(攝)’을 또한 ‘섭(躡)’으로도 쓴다(時讀參同契攝作躡)”라는 주석을 달고 있음. 여기서 ‘섭(躡)’은 밟다, 억누르다. 고로, ‘섭난(躡亂)’이라고 하면, ‘난국을 저지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임. 역시 어느 쪽으로 쓰던, 의미상에 차이는 없음.

『참동계(周易參同契)』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후한(後漢)시대의 진인(眞人)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것으로 『주역(周易)』의 도(道)와 도가(道家)에서 쓰는 연단(煉丹)의 법과 노자(老子)의 대도(大道)를 하나의 철리(哲理)로 귀결시킨 도가경전이 있음. 다른 하나는 당(唐)나라 선승(禪僧) 석두희천(石頭希遷)이 쓴 선시(禪詩)로 엮은 책이 있음. 자세한 것은 <시 119>의 주석 1)의 『참동계(參同契)』 조항을 참조 바람.

☆난(亂) : 동란, 불안정.

② 여승해(如乘海) : ‘바다에 조각배를 타는 것 같다’는 뜻으로, 대단히 험난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

3) 요(要) : 요직(要職).

4) 가(家) : 가정, 조정(朝廷), 국가.

平地有千斜⁷⁾。 평지에는 천 갈래 골짜기가 생긴다네.
평 지 유 천 사

乍玩雲間月， 언뜻언뜻 구름 사이로 달이 지나가는데，
사 완 운 간 월

深窺鏡裏花⁸⁾。 자세히 살펴보니 거울 속의 꽃이었네.
심 규 경 리 화

丹丘⁹⁾寄消息， 신선세계 단구(丹丘)에 서신이나 보내야지，
단 구 기 소 식

不復怨年華¹⁰⁾。 다시는 늙어감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불 부 원 년 화

5) 중소(中宵) : 중야(中夜), 반야(半夜), 한밤중.
6) 일기(一氣) : 공기를 가리킴.
7) 사(斜) : 골짜기.
8) 경리화(鏡裏花) : 이는 ‘거울 속의 꽃’으로, 시에서 생동감이 넘쳐 포착할 수 없는 의경(意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
9) 단구(丹丘) : ‘단구(丹邱)’로도 씀. 밤도 낮과 같이 밝다는 전설상의 신선(神仙)이 산다는 곳. 단구(丹丘)는 신선이 사는 곳, 혹은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관함.
10) 연화(年華) : ① 연세(年歲), 나이. ② 세월. ③ 춘광(春光 : 봄 풍경). ④ 성년(成年).



시 45. 보허대 步虛臺

詩 45. 步虛臺¹⁾ 보허대

環佩冷然下太清²⁾, 패옥소리 땡그랑 땡그랑 매우 청아하더니,
환 패 냉 연 하 태 청

天風吹斷步虛聲³⁾. 바람 몇자 (어디서) 도사의 독경讀經 소리
천 풍 취 단 보 허 성 들리네.

-
- 1) 보허대(步虛臺) : 경북 안동시 하회동(河回洞) 맞은편에 위치한 부용대(芙蓉臺 : 행정구역으로 안동시 광덕동〈廣德洞〉에 속함) 중의 일부 절벽의 명칭임. 이는 부용대의 오른쪽(부용대를 화회동 쪽에서 서서, 정면으로 봤을 때입)에 있는 옥연정사(玉淵精舍)의 왼쪽(정사를 정면에서 봤을 때입)에 위치하며, 바로 옆에 능허대(凌虛臺)가 있음. 이 두 절벽의 명칭은 서애(西厓)가 직접 명명(命名)하였다고 함.
- 2) 환패냉연하태청(環佩冷然下太清 : 패옥소리 땡그랑 땡그랑 매우 청아하더니) :
- ① 환패(環佩) : 환패(環珮)로도 쓰며, 이는 ‘패옥(佩玉 : 옥을 허리에 찌)’의 뜻임. 예전에 남자들이 조복(朝服)과 제복의 좌우에 늘어 치는 옥을 말함. 흰 옥을 이어서 무릎 밑까지 내려가도록 하였음. 고대에는 남자들의 패옥(佩玉)을 말했으나, 후세에 와서는 여자들이 차던 옥장식을 가리킴. 옥의 뜻을 차용(借用)하여, ‘미녀(美女)’를 가리키기도 함.
- ② 냉연(冷然) :
 ☆소리가 맑고 가락이 높은 것을 형용한 말임.
 ☆상쾌하고 시원함을 형용한 말.
 ☆한랭(寒冷)함을 형용하기도 함.
 ☆초탈(超脫), 냉담한 표정을 형용한 말.
 ☆경쾌하고 미묘하다.
- ③ 하(下) : ‘발(發) 또는 출(出)’의 뜻으로,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소리를) 내다’는 뜻으로 쓰였음.
- 3) 보허성(步虛聲) : ① 도사의 독경예찬(讀經禮贊). ② 보허사(步虛詞 : 『악부(樂府)·잡곡가(雜曲歌)』). ③ 사패(詞牌 : 사조(詞調 : 가사의 곡조)의 명칭. 즉, 〈서강월(西江月)〉을 말함). ④ 도가(道家)의 전설 중에 신선이 허공에 높이 솟아올라 걷는 것을 칭함. ⑤ 도사

衷情⁴⁾不恨無人會, 찾아오는 사람 없어도 내심으로
중정 불한 무인 회 원망 앓는데,

秋月澄江夜夜明。 가을 달이 맑은 강물 비취 밤마다 흰하네.
추 월 정 강 야 야 명

(道士)를 보허인(步虛人), 또는 보허자(步虛子)라 하고, 도사가 경을 읽는 소리는 보허성이
라고 함.

- 4) 충정(衷情) : ①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 즉 충심(衷心), 내심, 심중(心中)의 뜻.
② 내부적 상황.



시 46. 원지정 遠志亭

詩 46. 遠志亭¹⁾
원지정

門掩蒼苔²⁾竹映³⁾堂, 대문은 푸른 이끼로 덮였고
문 앞 창 태 죽 영 당
대나무는 마루를 가렸는데,

栗花香動⁴⁾午風⁵⁾涼. 밤꽃 향기 풍기고 남풍이 서늘하네.
율 화 향 동 오 풍 량

人間至樂⁶⁾無他事, 인간의 지극한 즐거움은
인 간 지 락 무 타 사
다른 것이 아니라,

靜坐看書一味長⁷⁾. 정좌靜坐하여 독서하는 그 맛이
정 좌 간 서 일 미 장
으뜸이로세.

-
- 1) 원지정(遠志亭) :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정자란 뜻으로, 원지정사와 동일한 건물임. <시 26>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2) 창태(蒼苔) : 푸른 이끼.
 - 3) 영(映) : 덮다, 가리다.
 - 4) 동(動) : 진동(振動)하다. 여기서는 밤꽃향기의 짙은 냄새가 분분한 것을 묘사한 표현임.
 - 5) 오풍(午風) : 남풍. 마파람(麻風 : 벧사람들의 은어로, 남풍을 이르는 말).
 - 6) 지락(至樂) : 최고의 즐거움, 지극한 즐거움.
 - 7) 일미장(一味長) :
 - ① 일미(一味)는 부사로 쓰였으며, 그 뜻은 ‘그저, 덮어놓고, 오로지’ 등의 의미이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조건을 불고(不顧)하고, 맹목적으로 라는 뜻을 지님.
 - ② 장(長) : 최고, 혹은 으뜸이라는 의미임.

시47. 인동현^{仁同縣} 관사^{官舍}에서 시를 읊어
성우^{聖遇} 여대로^{呂大老}에게 보내다

詩47. 仁同縣齋¹⁾ 吟贈呂聖遇²⁾ 大老
인 동 현 재 음 증 여 성 우 대 로



官齋³⁾ 獨坐了殘更⁴⁾, 관사^{官舍}에서 오경^{五更}까지
관 재 독 좌 료 잔 경 홀로 앉아 있는데,

鈴閣⁵⁾ 無聲月滿庭。 집무실은 고요하고 달빛만
영 각 무 성 월 만 정 뜰에 가득하네.

- 1) 인동현재(仁同縣齋) : 인동현의 관사(官舍). 인동현은 당시 행정구역으로 관청명칭이며, 지금의 경북 구미시(龜尾市) 인동동(仁同洞)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지역임. 자세한 것은 <시 40>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2) 여성우(呂聖遇 : 여대로<呂大老 : 1552-1619>)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의병장. 본관은 성주(星州), 이름은 대로(大老), 자는 위수(渭叟), 성우(聖遇), 호는 감호(鑑湖), 조식(曹植)의 문인임.
158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성균관 박사가 됨. 임진왜란 때 권응성(權應星)과 함께 금산(錦山)에서 의병을 일으켜 권응성을 가장(假將)으로 삼고 의병장 김면(金沔)과 협력하여 지례(知禮), 금산(錦山)의 적을 거창(居昌) 부근에서 격파하여 공을 세웠음. 병조좌랑, 대구관관, 합천군수 등을 지냄. 이조참의에 추증되고 경양사(鏡陽祠)에 봉양됨. 문집 3권 2책이 전함.
- 3) 관재(官齋) : 관사(官舍), 관청의 숙소.
- 4) 잔경(殘更) : 옛날에 일몰부터 일출까지 하루밤을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부르는 시간의 이름을 ‘경(更)’이라 하였음. 밤 7시부터 시작하여 두 시간씩을 한 단위로 묶어서 각각 초경(初更), 이경(二更), … 오경(五更)으로 하였는데, 오경(五更 : 새벽 3-5시 사이)을 잔경(殘更)이라 하였음. 이 잔경(殘更)은 ‘심경(深更)’이라고도 함.
- 5) 영각(鈴閣) : ‘영합(鈴閣)’이라고도 함. 옛날 중국에서는 한림원(翰林院) 및 장수(將帥) 혹은 주(州), 군(郡)의 장관이 사무를 보던 곳을 영각(鈴閣)이라고 하였음. 곧 오늘날의 ‘지방

靜地每憐神獨警⁶⁾,
정 지 매 연 신 독 경

청정(淸靜) 속에서 늘 정신 수양에
집착해서인지,

衰年不禁病相嬰⁷⁾。
쇠 년 불 금 병 상 영

노년에 병마(病魔)의 엄습은
막을 수 없었네.

人心巧曆⁸⁾紛難數,
인 심 교 역 분 난 수

인심이란 역산(曆算)에 밝은 자도
분쟁을 예측하기 어렵나니,

世事虛舟⁹⁾觸輒平¹⁰⁾。
세 사 허 주 촉 첩 평

세상사 빈 배처럼 마음 비워내면
충돌해도 곧 편해지거늘.

學道終身憂尙在,
학 도 종 신 우 상 재

평생을 도 닦아도 근심이
아직 남았으니,

繁華¹¹⁾奚啻¹²⁾一毫輕。
번 화 헤 시 일 호 경

부귀영화가 어찌 한 가닥 터럭 정도의
가벼움에 그치겠는가!

관청장의 집무실'인 셈임.

- 6) 신독경(神獨警) : 정신적으로 특별히 경각(警覺)하다. 곧 경각심을 가리킨다. 경각(警覺)은 불교용어로서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자각하는 것'임.
- 7) 영(嬰) : ① 접촉하다(닿다). ② 걸려들다(걸리다).
- 8) 교력(巧曆) : 이는 역법계산에 정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역법(曆法)은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주기적 운행을 기준으로 하여, 세시(歲時) : 한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를 정하는 법임.
- 9) 허주(虛舟) : ① 빈 배라는 뜻이나, '잡념이나 망상이 없는 마음'에 비유되기도 함. ② '인생사가 번덕스러워 정처 없이 유랑함'에 비유되기도 함.
- 10) 촉첩평(觸輒平) : 촉(觸)은 '부딪치다. 충돌하다', 첩(輒)은 '즉시, 곧'의 의미임.
- 11) 번화(繁華) : 부귀영화를 가리킴.
- 12) 헤시(奚啻) : 헤시(奚翅)로도 씀. 뜻은 '어찌 ~에 그치겠는가' 이다. 헤(奚)는 하(何)와 같으며, '왜, 어찌, 무슨'의 뜻이다. 시(啻)는 단(但) 또는 지(止)와 같으며, '단지 ~이다. ~에 그치다' 라는 뜻임.

시48. 남계정사南溪精舍에서 밤에 좌정坐定하여

詩48. 南溪精舍¹⁾ 夜坐
남 계 정 사 야 좌



澗水²⁾冷冷³⁾繞竹流, 싸늘한 시냇물이 대숲을 감돌아 흐르고,
간 수 냉 령 요 죽 류

洞門⁴⁾深鎖白雲秋。 산골 집 대문 잠겼는데
동 문 심 쇠 백 운 추 백운白雲은 가을을 알리네.

虛堂獨坐齋心⁵⁾夜, 텅 빈 서당에 홀로 앉아
허 당 독 좌 재 심 야 마음 가다듬는 이 밤,

風度高松月滿樓。 바람은 큰 소나무 스쳐가고
풍 도 고 송 월 만 누 달빛은 누각에 가득하네.

-
- 1) 남계정사(南溪精舍) : 〈시 29〉의 주석 4)를 참조 바람.
 - 2) 간수(澗水) : 산골짜기의 냇물, 시내.
 - 3) 냉랭(冷冷) : 싸늘하게 찬 모양, 형용사의 중첩으로 강조의 뜻이 있음.
 - 4) 동문(洞門) : 산골짜기의 대문. 동(洞)은 ‘깊은 산골짜기’의 뜻임.
 - 5) 재심(齋心) : 잡념을 제거하고 마음을 단정하게 진정시키다.



시 49. 우연히 읊다

詩 49. 偶詠 우연

玄天¹⁾墮寒露, 하늘에서 찬 이슬이 내리는가 했더니,
현 천 타 한 로

滴在青荷葉。 물방울이 푸른 연잎에 맺혀 있네.
적 재 청 하 엽

水性本無定, 물의 성질은 본래 정해진 모양이 없어,
수 성 본 무 정

荷枝喜²⁾傾側。 연잎 즐기 따라 쉽사리 기울어 구르네.
하 지 희 경 측

團明³⁾雖可愛, 동글동글하고 투명하여 어여쁘지만,
단 명 수 가 애

散漫還易失。 흩어지면 또한 사라지기도 쉽다네.
산 만 환 이 실

-
- 1) 현천(玄天) : ① 일반적으로 '하늘'을 가리킴. ② 구천(九天) 중의 하나로 '북방의 하늘'을 가리킴.
 - 2) 희(喜) : 용이(容易)하게, 쉽사리.
 - 3) 단명(團明) : 동글고 투명함. '단(團)'은 '원(圓)'의 의미로, 동글다는 뜻임.

從君坐三夜⁴⁾, 그대 따라서 삼경三更까지 좌정했으니,
從 君 坐 三 夜
종 군 좌 삼 야

請問安心法。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좀 물어보리다.
請 問 安 心 法
청 문 안 심 법

4) 삼야(三夜) : 삼경반야(三更半夜 : 밤 12시 정각)의 뜻이나, 일반적으로 ‘야심(夜深)한 시각을 가리킴.

① 삼경(三更) :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부분. 곧 밤 열한시에서 새벽 한시 사이를 말함. 자세한 것은 〈시 47〉의 주석 4)를 참조 바람.

② 반야(半夜) : ‘한밤중’의 뜻으로, 정각 삼경(三更)이며, 밤 열두시 정각을 뜻함.



시50. 내한(內翰) 정경임(鄭景任)에게 부치다

詩50. 寄鄭內翰景任¹⁾ 기정내한경임

解道²⁾ 吾心是宇宙, 도를 깨우치면, 내 마음이 바로
해도 오심시우주 우주라고 하지만,

何人能了³⁾ 去來今⁴⁾。 누가 능히 과거·현재·미래를
하인능료거래금 깨달을 수 있으리!

雲歸碧落⁵⁾ 都無着⁶⁾, 구름은 창공을 흘러가며
운귀벽낙도무착 전혀 얽매이지 않고,

水到滄溟⁷⁾ 儘⁸⁾ 自深。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
수도창명진자심 늘 스스로 깊어진다네.

1) 정경임(鄭景任) :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시 41>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내한(內翰) : 조선시대 한림(翰林)의 다른 이름. 한림은 예문관(藝文館)의 정8품 벼슬인 대교(待敎)와 정9품 벼슬인 검열(檢閱)을 지칭하는 말.

2) 해도(解道) : 도를 깨우치다. 여기서 해(解)는 '깨닫다, 이해하다, 파악하다'의 의미임.

3) 능료(能了) : 능히 깨달을 수 있다. 여기서 '료(了)'는 '오(悟)'의 가차자(假借字)로 '깨닫다, 깨우쳐 주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거래금(去來今) : 불교용어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킴.

5) 벽락(碧落) : 하늘.

6) 도무착(都無着) : 전혀 귀착점이 없다.

7) 창명(滄溟) : 창해(滄海), 즉 대해(大海), 큰 바다라는 뜻임.

8) 진(儘) : 되도록, 최대한. 늘, 항상.

風月欲迷周老室⁹⁾,
풍 월 욕 미 주 로 실

청풍명월은 주렴계周濂溪의 집에만
맴돌려 하고,

峩洋重入伯牙琴¹⁰⁾.
아 양 중 입 백 아 금

‘아양峩洋’ 곡조는 백아伯牙가 타는
거문고에서만 매우 잘 어울린다네.

9) 주노실(周老室) : 송대 철학자인 주돈이(周敦頤)를 칭하는 것임. 그의 자는 무숙(茂叔). 시호는 원공(元公). 주렴계(周濂溪)라고도 함. 중국의 사상 가운데 거의 1000년 동안 국가의 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이학(理學)의 토대를 그가 마련하여, 신도가(新道家)를 기초로 하는 유교를 다시 체계화했음.

그는 도가(道家)사상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유교이론을 창시하였음. 즉, 우주의 근원인 태극(太極 : 무극(無極))으로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도해(圖解)하여, <태극도(太極圖)>를 그리고 ‘태극→음양(陰陽)의 이기(二氣)→오행(五行 :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오원소(五元素)→남녀→만물’의 순서로 세계가 구성되었다고 논하고, 인간만이 가장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정(中正)과 인의(仁義)의 도를 지키고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 성인(聖人)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우주생성의 원리와 인간의 도덕원리는 본래 하나라는 이론을 제시하였음.

저서에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가 있으며, 수필 <애련설(愛蓮說)>에는 그의 고아한 인품이 잘 표현되어 있음. 남송의 주자(朱子)는 염계(濂溪)가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형제를 가르쳤기 때문에 도학(道學 : 송대의 신유교(新儒教)의 개조(開祖)라고 칭하였음.

황정건(黃庭堅)은 『예장집(豫章集)·염계시서(濂溪詩序)』에서, 주돈이(周敦頤)의 인품을 평하여 말하기를 : “용릉(春陵)의 주무숙(周茂叔)은(春陵周茂叔), 사람됨이 매우 고결하고(人品甚高), 가슴속이 맑고 깨끗하기가(胸懷灑落), 눈비 갠 뒤의 맑은 바람이나 맑은 달과 같다네(如光風霽月)”라고 하였음.

10) 아양중입백아금(峩洋重入伯牙琴 : ‘아양(峩洋)’ 곡조는 백아(伯牙)가 타는 거문고에서만 매우 잘 어울린다네) :

① 아양(峩洋) : 옛날에 백아(伯牙)가 탔다고 하는 거문고 악곡(樂曲)임. 『열자(列子)·탕문(湯問)』에, “백아(伯牙)는 금(琴)을 잘 탔고, 종자기(鍾子期)는 소리를 잘 들었다. 백아가 금을 타면서 뜻이 높은 산에 있으면 종자가 말하기를 ‘홀륭하도다, 험준하기가 높은 태산과 같구나(峩峩兮若泰山)’라고 하였다. 그 뒤에 종자가 죽자 백아는 다시는 금을 타지 않았다”고 하였다.

② 중입(重入) : 아주 잘 부합(符合)되다. 꼭 들어맞다.
☆중(重) : 부사로써,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며, ‘극(極) 또는 심(甚)’의 의미로서, ‘매우, 아주, 극히’ 등의 뜻임.
☆입(入) : 부합(符合)하다.

③ 백아(伯牙) : 춘추시대 거문고 명인(名人)으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거문고 뜯는 법을 지명한 거문고 스승인 성련(成連)에게 3년 동안 배웠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후에 그는 스승 성련(成連)을 따라, 동해 봉래산(東海 蓬萊山)에 따라 갔는데, 그 곳에서 바다의 파도소리와 숲속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 마침내 거문고를 끌어당겨서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이때부터 그의 거문고 뜯는 솜씨가 크게 약진(躍進)하여, 결국 전하의 거문고 명인(名人)이 되었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거문고 곡조 <수선조(水仙操)>, <고산유수(高山流水)>는 그의 작품이라고 함.

知君久抱男兒志,
지 군 구 포 남 아 지

군주가 남아의 뜻 품은 지
오래인줄 알고 있나니,

切莫¹¹⁾尋常枉¹²⁾寸陰。
절 막 심 상 왕 촌 음

결코 평소에 촌음寸陰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말게나!

11) 절막(切莫) : 결코 ~하지 말라.

12) 왕(枉) : 헛되이 하다.

시51. 한거(閑居) 중에 감회가 생겨, 청성산(靑城山)에
은거하는 교분이 두터운 벗인 장증(章仲)
권호문(權好文)에게 써서 드리다

詩51. 齋居¹⁾有懷 錄呈²⁾靑城道契³⁾權章仲⁴⁾好文^{호문}
새기 유 회 녹 정 청 성 도 계 권 장 중 호 문



- 1) 재거(齋居) : ① 한거(閑居)하다. ② 옛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부정(不淨)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별거하는 것을 말함. ③ 서재(書齋).
- 2) 녹정(錄呈) : 기록하여 드림. 정(呈)은 ‘올리다, 드리다, 봉정하다’는 뜻임.
- 3) 청성도계(靑城道契) : 청성산(靑城山)에 은거하는 지교(至交 : 깊고 두터운 교분이나 교의 <交誼>)를 나누는 사이로 의기가 투합하는 절친한 벗이라는 뜻임.
 - ① 청성(靑城) : 청성산(靑城山)을 칭함. 이 산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에 소재함. 이 산 기슭에는 무민재(無閔齋)가 있음. 조선 중기 문인인 권호문(權好文)은 연이어 부모를 여의자 여기서 3년씩 여막(廬幕)을 지키며, 관계진출을 단념하고, 은거하였음. 선조 41년(1608년)에 권호문이 살던 청성산 기슭에 서원을 지어 청성서원(靑城書院)이라 칭하였으며, 이 서원은 그를 배향한 서원으로,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33호로 지정되었음.
 - ② 도계(道契) : ‘교분이 두터운 함께 수도하는 지교(至交), 또는 피차 사상이 일치하여 의기투합하는 절친한 벗’의 뜻임.
- 4) 권장중(權章仲) : 권호문(權好文 : 1532-1587). 조선 중기의 문인,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이름은 호문(好文),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 1549년 부친을 여의고, 1561년 30세에 진사에 합격했으나 1564년 모친상을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아래 무민재(無閔齋)를 짓고, 그 곳에 은거하였음.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이며 류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들로부터 학행(學行)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말년에는 덕망이 높아 찾아오는 문인이 많았음. 집경전 참봉(集慶殿 參奉), 내시교관(內侍敎官) 등에 재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56세로 일생을 마감하였음. 안동(安東) 송암서원(松巖書院 : 청성서원(靑城書院))에 제향 되었음. 이황(李滉)은 그를 기운이 맑고 깨끗한 산림(山林)의 풍격(瀟灑山林之風)이 있다 하였고, 벗 류성룡(柳成龍)도 그를 강호지사(江湖之士)라 하였음. 시가에도 한국문학사에 중요한 작품을 남겼는데, 작품으로는 경기체가를 본뜬 『독락팔곡(獨樂八曲)』,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등이 있고, 저서로는 『송암집(松巖集)』이 있음.

細雨⁵⁾孤村⁶⁾暮, 가랑비 내리는 외딴 촌락에 날 저물자,
 세 우 고 촌 모
 寒江落木⁷⁾秋。 싸늘한 강변은 낙엽 지는 가을이구료.
 한 강 낙 목 추
 壁重嵐⁸⁾翠積, 바위절벽 첩첩이 푸른 이내 자욱한데,
 벽 중 란 취 적
 天遠鴈聲流。 하늘 멀리서 기러기 소리 들려오는구료.
 천 원 안 성 류
 學道無全力, 도학道學을 배웠어도 전력全力을 다하지 못해,
 학 도 무 전 력
 臨歧⁹⁾有晚愁。 갈림길에 서서 뒤늦은 수심에 잠겼소.
 림 기 유 만 수
 都將¹⁰⁾經濟業, 도성都城에서 경세제민經世濟民업무 수행하다가,
 도 장 경 세 업
 歸臥¹¹⁾水雲隈¹²⁾。 사직하여 물 좋고 구름 고운 고향에
 귀 와 수 운 추
 은거하고 있소.

-
- 5) 세우(細雨) : 가랑비, 이슬비.
 6) 고촌(孤村) : 외따로 떨어진 촌락.
 7) 낙목(落木) : 낙엽.
 8) 남(嵐) : 남기(嵐氣). 저녁나절에 멀리 보이는 산 같은데 떠오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이내’라고도 함.
 9) 임기(臨歧) : ① 임기(臨歧)로도 씀. ② ‘기로(岐路 : 갈림길)에 선 것’을 말함. ③ 송별지사(送別之辭)로도 씀.
 10) 도장(都將) : 도성(都城)에서 봉행하다. ① 도(都) : 도성(都城). ② 장(將) : 봉행하다, 시행하다.
 11) 귀와(歸臥) : 사관환향(辭官還鄉) : 사직(辭職)하고 귀향(歸)함을 이룸. 와(臥)는 ‘은거(隱居)’를 가리킴.
 12) 추(隈) : 취(聚)와 통하며, 촌락(村落)의 뜻.

시52. 남계정사南溪精舍의 12절경絶景

詩52. 南溪精舍¹⁾ 十二絶²⁾
 남계정사 십이절



精舍³⁾
정사

정사精舍

濯纓⁴⁾南溪水⁵⁾,
탁영 남계수

남계南溪의 시냇물에 갓끈을 씻고 나서,

結宇⁶⁾南溪曲⁷⁾.
결우 남계곡

남계가 흐르는 외진 곳에 집을 지었네.

有懷南溪翁,
유 회 남계옹

남계의 늙은이에게 품은 생각 있나니,

- 1) 남계정사(南溪精舍) : 〈시 29〉의 주석 4)를 참조 바람.
- 2) 십이절(十二絶) : 12곳의 절묘한 경치를 가리킴.
- 3) 정사(精舍) : 여기서는 남계정사(南溪精舍)를 가리킴.
- 4) 탁영(濯纓) : 직역하면, ‘갓끈을 씻다’는 뜻이나, ‘세속(世俗)을 초탈하여 지조와 품행이 고결함에 비유하는 말’로서 잘 인용됨. 이 말은 본래 『맹자(孟子)·이루편(離婁篇) 상(上)』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滄浪之水清兮),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고(可以濯我纓)…”라고 한 문장에서 따온 말인데, 후세 사람들이 이곳에 언급된 “탁영(濯纓)”이란 말을 ‘초탈세속(超脫世俗)하고, 조수고결(操守高潔)함에 비유’하였다.
- 5) 남계수(南溪水) : 남계정사의 산기슭 아래 흐르는 냇물임. 남계정사의 동쪽 바위인 영귀대(咏歸臺) 아래쪽을 흐르는 큰 냇물을 탄서천(歎逝川)이라 하고, 연어헌(鳶魚軒) 동쪽의 작은 냇물을 의공계(倚筇溪)라 하는데, 이 두 줄기의 냇물을 합쳐서 남계(南溪)라고 함.
- 6) 결우(結宇) : 집을 짓다. 결(結)은 ‘건조(建造)하다, 건축하다’는 뜻임.
- 7) 남계곡(南溪曲) : 남계(南溪)가 흐르는 향리(鄉里). 곡(曲)은 ‘편벽(偏僻) : 외진 곳, 향리(鄉里)’의 뜻임.

襟期⁸⁾ 澗⁹⁾如玉。
금기 형 여 옥

지향하는 바 옥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네.

霜露堂¹⁰⁾
상로당

상로당 霜露堂

露濡¹¹⁾ 春草榮,
로유 춘초영

이슬이 젖어들어 봄풀 싱그럽더니,

霜寒¹²⁾ 秋葉落。
상한 추엽낙

상강 霜降 추위에 가을의 나뭇잎이 떨어지네.

哀哀¹³⁾ 一片心,
애애 일편심

슬프고 애통하구나 한 조각 이 마음,

與歲無終極。
여세 무종극

세월과 더불어 끊임없이 지속되네.

永慕齋¹⁴⁾
영모재

영모재 永慕齋

三復¹⁵⁾ 蓼莪篇¹⁶⁾,
삼부 료아편

『시경詩經요아편蓼莪篇』을 아무리 반복해 읽은들,

8) 금기(襟期) : ① 슬픔(襟懷) : 흥금, 생각, 회포. 마음속에 생각함. ② 지향(志向)함. ③ 심기(心期) : 마음속의 기대.

9) 형(澗) : 멀다. 깊다.

10) 상로당(霜露堂) : 남계정사 본체의 명칭. 당(堂)은 ‘터를 높이 돋우어 지은 남향으로 향한 본체의 뜻임.

11) 노유(露濡) : 이슬에 젖다.

12) 상한(霜寒) : 상강(霜降)의 추위를 가리킴. 상강이란, 24절기의 열여덟 번째 절기로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음력 9월, 양력 10월 23, 24일 경이 됨. 태양의 황경이 210도 되는 때임. 이 시기는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리(霜)가 내리기(降) 시작한다 하여 상강(霜降)이라 함.

13) 애애(哀哀) : ① 슬픔(상심함)이 끊이지 않는 모양. ②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속을 썩임.

14) 영모재(永慕齋) : 남계정사의 재실(齋室).

15) 삼부(三復) : 반복해서 독송(讀誦)함을 이룸. 삼(三)은 전(轉)하여, ‘재삼(再三), 여러 번, 거듭’의 뜻임.

16) 요아편(蓼莪篇) : 이는 『시경(詩經)·소아(小雅)·곡풍지집(谷風之什)』 중의 편명(篇名)임. 이 시는 자녀가 양친(兩親)의 부양(扶養)에 대한 은덕을 추모하는 심정을 읊은 것임. 후

孤懷竟¹⁷⁾誰識。
고 회 경 수 식

부모 여윈 자식 마음 누가 다 알리오.

永夜窓前樹，
영 야 창 전 수

긴긴 밤 창문 앞에 서 있는 저 나무에,

悽風¹⁸⁾吹不息。
치 풍 취 불 식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구나.

鳶魚軒¹⁹⁾
연 어 현

연어현 鳶魚軒

川泳知魚樂，
천 영 지 어 락

냇가에서 헤엄쳐 봐야 물고기의 낙을 알고,

雲飛見鳥情。
운 비 견 조 정

구름 사이 날아 봐야 새의 뜻 아는 걸세.

坐來²⁰⁾成一笑，
좌 래 성 일 소

앉아서 잠시 미소 짓는 사이에,

山翠入南楹²¹⁾。
산 취 입 남 영

푸른 산색山色이

(정사精舍) 남쪽 기둥 쪽에서 찾아드네.

세에는 『시경(詩經)』의 이 시구 내용으로 인해서 “요아(蓼莪)”를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사용하였음.

17) 경(竟) : 구석구석, 전부, 다.

18) 처풍(悽風) : ① 처량한 바람. ② 차가운 바람. 처(悽)는 ‘처량하다, 한랭(寒冷)하다’의 뜻임.

19) 연어현(鳶魚軒) : 남계정사의 동쪽에 지어진 학생들의 기숙사.

20) 좌래(坐來) : 뜻은 ‘앉아서’임. 여기서의 ‘래(來)’는 시가(詩歌)에 의미 없이 첨가되어 어조(語調)를 고르게 하는 조사(助詞)로 쓰였음.

그 예로 당말·오대(唐末五代) 초기에 전촉(前蜀)의 사인(詞人)이자 고관인 위장(韋莊 836-910)이 지은 시 <관군과병은 계속된 것으로 들었지만 개선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다(聞官軍繼至未睹凱旋)>에서 “표요(嫋姚) 장군은 어떤 날 겹겹의 포위망을 뚫었던가?(嫋姚何日破重圍), 가을 풀은 무성하고 전투마는 살찼는데(秋草深來戰馬肥)”라고 읊었는데, 이때의 ‘래(來)’와 같은 예이다.

(표요(嫋姚)는 한(漢)나라 장수 광거병(霍去病 : B.C. 140-B.C. 117년)이 표요교위(嫋姚校尉)를 역임했기에 그를 지칭하는 말임)

21) 남영(南楹) : 남쪽 기둥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연어현(鳶魚軒)의 남쪽 기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짐.

玩心齋²²⁾
완 심 재

완심재 玩心齋

着意²³⁾還成癖²⁴⁾，
착 의 환 성 벽

유념해도 여전히 나쁜 버릇 생겨서,

忘懷更入禪²⁵⁾。
망 회 경 입 선

모든 생각 잊고 다시
선정禪定에 들어가네.

中虛²⁶⁾含萬化²⁷⁾，
중 허 함 만 화

마음을 비우고 만물의 화육化育수용해야,

直²⁸⁾是上通天。
직 시 상 통 천

그야말로 완전히 위로 하늘과 상통하리.

三靜齋²⁹⁾守僧所居³⁰⁾
삼 정 재 수 승 소 거

삼정재 三靜齋(삼정재를 지키는
선승禪僧이 머무는 곳임)

小靜³¹⁾一百日，
소 정 일 백 일

단기短期의 정신집중은 일백일을 해야 하고

22) 완심재(玩心齋) : 남계정사의 동쪽에 지어진 학생들의 기숙사.

23) 착의(着意) : ‘착의(著意)’로도 씀. ① 유념(留意)하다. ② 정성을 들이다. ③ 신경 쓰다. ④ 주의하다.

24) 벽(癖) : ① 나쁜 버릇. ② 좋지 않는 기호.

25) 입선(入禪) : 선정(禪定) : 산스크리트어로는 dhyāna : 차분한 마음으로 명상(冥想)하는 것)에 들다.

26) 중허(中虛) : ① 마음을 비우다(‘허심(虛心)’으로도 씀). ② 속이 텅 비다.

27) 만화(萬化) : ① 온갖 변화(각종 변화). ② 만물의 화육(化育). ③ 대자연(大自然).

28) 직(直) : ① 그야말로, 완전히. ② 명백히. ③ 줄곧. ④ 다만, ~에 불과하다.

29) 삼정재(三靜齋) : 남계정사 북쪽에 지어진 재사(齋舍)로서, 승려가 거주하는 방의 이름임.

30) 수승소거(守僧所居) : 삼정재를 지키는 선승(禪僧)이 머무는 곳임. 본 시 ‘삼정(三靜)’은 도교(道教)의 정신수양술이기 때문에, 도사(道士)라고 칭해야 하나, 본 시에서 ‘승(僧)’이라고 칭하고 있음은 당시 조선에서는 유교이념을 국책으로 하고 있어, 도교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도교와 불교는 사람의 심성중시 경향과 맞물려, 정신수양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림(士林)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임. 서예시(西厓詩)에서 도교와 불교 및 유교사상의 혼재가 나타남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될 것임. 그리하여, 본 시에서는 이를 광의(廣義)의 의미로 ‘선승(禪僧)’이라고 번역하였음.

31) 소정(小靜) : 단기(短期)의 정신집중. 정(靜)은 ‘정신집중’의 뜻이며, 도가(道家)의 수양지술

中靜³²⁾二百日。
중정 이백일

중기^{中期}의 정신집중은 이백일을
해야 하고.

大靜³³⁾三百日,
대정 삼백일

장기^{長期}의 정신집중은 삼백일을
해야 하니,

虛室³⁴⁾夜生白³⁵⁾。
허실 야생백

마음을 비우면 밤에도
빛이 자생^{自生}한다네.

養魚池³⁶⁾
양어지

양어지^{養魚池}

老相心多累³⁷⁾,
노상심다루

늙은 재상^{宰相} 마음에 얽매인 게
많아선지,

琴生³⁸⁾術已僻³⁹⁾。
금생 술이僻

금생^{琴生}의 처세술 이미 생소하게
여겨지네.

(修養之術)의 일종임. 중국 송(宋)나라 장군방(張君房)이 편찬한 도교 연구사인 『운금칠첩(雲笈七籤)』 권99에 “도를 닦는 도사는(修鍊之士), 반드시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나니(當須入靜), … 장기(長期)의 정신집중은 3백일이요(大靜三百日), 중기(中期)의 정신집중은 2백일이요(中靜二百日), 단기(短期)의 정신집중은 1백일을 해야 한다(小靜一百日)”고 하였다.

32) 중정(中靜) : 중기(中期)의 정신집중.

33) 대정(大靜) : 장기(長期)의 정신집중.

34) 허실(虛室) : ① 심경(心境)에 비유하여 ‘마음을 비우다’는 뜻으로 씀. ② 공실(空室 : 빈 방). 허실생백(虛室生白), 즉 사람이 마음을 맑게 비워서 탐욕 같은 잡념을 없애면, 도심(道心 : 도 닦는 마음)이 자생(自生)한다는 것을 이룸.

35) 생백(生白) : 생출광명(生出光明), 즉, 광명의 빛이 절로 생겨남.

36) 양어지(養魚池) : 남계정사의 학생숙사인 연어현(鳶魚軒) 밖에 있던 연못.

37) 누(累) : 우환, 걱정거리.

38) 금생(琴生) : 조선 중기 선조 24년(1591)에 최현(崔暉, 1563-1640)이 지은 몽유록 계통의 한문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임. 이는 금생이 꿈에 영남 금오산(金烏山)을 중심으로 한 충신과 의사를 만난 일을 서술하여, 영남사립학과의 전통을 옹호하고 있음. 이야기 속에서, 영남의 선산 근방에 이르자, 거기서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길재(吉在), 김종직(金宗直), 정봉(鄭鵬), 박영(朴英) 등 네 선생을 만나게 된다. 이어서 정몽주(鄭夢周)를 만나고 김주(金澍), 하위지(河緯地), 이맹전(李孟專), 김숙자(金叔滋) 등의 네 장로와 박운(朴雲), 김취성(金就

閒來⁴⁰⁾獨繞池,
한 래 독 요 지

평소에 홀로 연못 주변 돌면서,

默念伊川⁴¹⁾說。
묵 념 이 천 설

이천伊川の 학설로 묵상默想에 잠긴다네.

愛蓮堂⁴²⁾
애 련 당

애련당愛蓮堂

此物非塵俗⁴³⁾,
차 물 비 진 속

이 연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기에,

成) 등의 두 처사(處士)를 만난다. 작자는 이 인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들이 실천한 유교적 덕행의 우열에 따라 앉는 순서와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준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유가적 이상과 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해 보이고 있음.

39) 벽(僻) : 생소하다, 괴팍하다.

40) 한래(閒來) : 평소, 평상시에.

41) 이천(伊川) : 송(宋)나라 이학자(理學者)인 정이(程頤 : 1033-1107)의 별호(別號). 그의 자(字)는 정숙(正叔), 시호(諡號)는 정공(正公), 그의 집이 하남성(河南省) 송현(嵩縣) 동북부 파루산(肥廬山) 아래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천(伊川)이 흘렀던 까닭에, 세칭(世稱) 이천선생(伊川先生)이라 불렀음.

그는 형인 정호(程顥 : 1032-1085 : 호는 명도<明道>)와 함께 주돈이(周敦頤)에게 사사(師事)하였으며, 형과 더불어 이정자(二程子)라 불렸으며, 정주학(程朱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음.

학자로서의 그는 『역경(易經)』에 대한 연구가 깊었고,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철학을 수립하여 큰 업적을 남겼음. 그의 학설은 궁리학(窮理學)을 위주로 하였는바, 사물의 하나 하나의 도리를 밝히고, 여기에 일관 하는 천리(天理)를 밝히는 것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강조하였음.

그는 장기간 낙양(洛陽)에 거주하며, 강학(講學)을 하였기로 그의 학문을 낙학(洛學)으로 부르기도 함. 그의 철학은 주자(朱子 : 주희<朱熹 : 1130-1200)에게 계승되어,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에 잘 나타나 있음.

저서에 『역전(易傳)』 4권이 있으며, 그의 학설은 서필달(徐必達)의 『이정전서(二程全書)』에 수록되어 있음.

정주(程朱)의 성리학 체계를 집대성하여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사칠론(四七論)을 주장한 조선의 이황(李滉 : 1501-1570)의 학설과 그에게 사사(師事)한 류성룡의 학설을 종합해 볼 때, 본 시에서의 “이천설(伊川說)”은 ‘정이(程頤)의 학설’로 봄이 타당함.

42) 애련당(愛蓮堂) : 남계정사 서쪽의 재사(齋舍)인 상로당(霜露堂) 앞에 있던 정자.

43) 진속(塵俗) : ① 범속하다. ② 세속(世俗), 일상적인 예법이나 습관 등을 칭함. ③ 진세(塵世), 인간과 같은 말.

濂溪⁴⁴⁾寄遠情⁴⁵⁾。
염계 기원정

염계 濂溪 선생은 깊고 두터운 정的情誼를
기탁했네.

靜聽秋宵雨，
정청추소우

가을날 밤비 내리는 소리 고요히 듣는데,

蕭蕭⁴⁶⁾打葉聲。
소소타엽성

후드득 후드득 연잎 두드리는 소리 나네.

招隱臺⁴⁷⁾
초은대

초은대 招隱臺

延佇⁴⁸⁾白雲表，
연추백운표

한참 서서 흰 구름 저편을 바라보다가,

悵望⁴⁹⁾同心客。
창망동심객

실의에 젖어 마음 같이 할 사람
기다리네.

44) 염계(濂溪) : 중국 호남성(湖南省) 도현(道縣)에 있는 시냇물 명칭인데, 송(宋)의 유학자인 주돈이(周敦頤 : 1017-1073)가 대대로 이 냇가에서 살았음. 주돈이는 만년(晩年)에 강서성(江西省) 북부에 위치한 여산(廬山)의 연화봉(蓮花峰) 아래로 이주(移住)하였는데, 그 연화봉 앞에도 한줄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주돈이는 시냇물의 명칭을 옛날에 살던 곳의 냇물 ‘염계(濂溪)’라는 이름을 따서 그대로 부르는 동시에, 이 냇물명칭을 자신의 호(號)로 삼았기에, 그를 세칭(世稱) 염계선생(濂溪先生)이라 불렀음. 그의 자(字)는 무숙(茂叔)임. 주돈이(周敦頤) 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50> 주석 9)의 ‘주노실(周老室)’ 조항을 참조 바람.

45) 원정(遠情) : 심오한 감정, 심후(深厚)한 정(情誼). 원(遠)은 심원(深遠), 원대(遠大), 심후(深厚), 다(多)의 뜻을 지님. 본 시구에서는 주렴계(周濂溪)가 연꽃을 사랑하여 이를 군자(君子)에 비유하여 쓴 <애련설(愛蓮說)>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으로 보임.

46) 소소(蕭蕭) : ① 의성어로서, 여기에서는 비 내리는 소리 (후드득 후드득, 사름사름, 보슬보슬, 추적추적...)를 형용한 말에 해당함. ② 이밖에도, 말울음소리 (히힃)·바람 부는 소리 (飒飒, 썩썩, 쌩쌩)·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소리 (우수수)·물 흐르는 소리 (졸졸, 팔팔...)·악기소리 (딩더쿵, 둥둥둥, 뽕리리...) 등이 있음.

47) 초은대(招隱臺) : 남계정사의 서쪽 산기슭 아래에 있는 바위.

48) 연저(延佇) : ‘연저(延佇)’라고도 씀. ① 구립(久立 : 오랫동안 서 있음), 구류(久留 : 오랫동안 머무름). ② 인경기립(引頸企立 : 목을 길게 빼고 발돋움 한 채 서서 바라봄). ③ 간절히 바람을 형용한 말. ④ 배회관망(徘徊觀望)하다, 유예부결(猶豫不決 : 망설이며 결정을 짓지 못함)하다. ⑤ 귀은(歸隱 :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다). ⑥ 정류(停留)하다, 두류(逗留)하다. ⑦ 연기하다, 늦추다, 지연하다.

49) 창망(悵惘) : ① 실망하거나 낙담하여 멍하니 조망(眺望 : 멀리 바라봄)하다. ② 슬퍼서 멍하니 멀리 바라보면서 기대(희망)하다.

歲晚⁵⁰⁾歸不歸⁵¹⁾,
세 만 귀 불 귀

노년이 되었으니 은거隱居를 할까 말까?

山空桂花落。
산 공 계 화 락

산은 텅 비었는데 계수나무 꽃잎만
떨어지네.

詠歸臺⁵²⁾
영 귀 대

영귀대詠歸臺

邂逅⁵³⁾成佳趣,
해 후 성 가 취

기분 좋게도 멋있는 정취 자아낼 수
있음은,

光風⁵⁴⁾滿川谷。
광 풍 만 천 곡

화창한 봄바람이 냇물에도 계곡에도
가득찬 때문일세.

古人難復見,
고 인 난 부 견

옛 사람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千年意可識。
천 년 의 가 식

천 년의 그 정취는 가히 알만하네.

歎逝川⁵⁵⁾
탄 서 천

탄서천歎逝川

袞袞⁵⁶⁾來無盡,
곤 곤 래 무 진

활활 흘러드는 물줄기는 끊어진 적이 없고,

50) 세만(歲晚) : ① 사람의 만년(晩年)에 비유되는 말. ② 연말(年末).

51) 귀불귀(歸不歸) : 술어부분의 긍정식과 부정식을 병렬하여 의문문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정반의문문(正反疑問文)이라 함.

52) 영귀대(詠歸臺) : 남계정사의 동쪽 산기슭 아래에 있는 바위.

53) 해후(邂逅) : ‘해구(邂逅)’, ‘해구(邂逅)’로도 씀. ① 우연히 서로 만나다. ② 우연히, 요행히. ③ 의외로, 만일. ④ 창졸지간에, 돌연히. ⑤ 기뻐하는(즐거워하는 모양).

54) 광풍(光風) : ① 맑게 갠 날씨에 부는 바람 ② 봄날에 따스롭게 부는 바람

55) 탄서천(歎逝川) : 남계정사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영귀대(詠歸臺) 바위 아래쪽에 흐르는 냇물.

56) 곤곤(袞袞) : ① 큰물이 세차게 (활활) 흐르는 모양. ② 선회하여 소용돌이치는 모양, 빙빙 돌며 용솨음치는 모양, 소용돌이치며 펄펄(부글부글) 끓는 모양. ③ 끊임없이 말하는 모양.

悠悠⁵⁷⁾去不休。
유 유 기 불 휴

긴긴 세월은 흘러가며 멈추지
않는다네.

元來只如此，
원 래 지 여 차

원래부터 오로지 이와 같을 따름이니，

上下⁵⁸⁾與同流。
상 하 여 동 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흘러간다네.

倚筇溪⁵⁹⁾
의 공 계

의공계倚筇溪

澄影⁶⁰⁾涵秋碧⁶¹⁾，
정 영 함 추 벽

맑은 시냇물이 푸른 가을 하늘을
담았다가도，

飛空⁶²⁾作寒雨。
비 공 작 한 우

허공에서 날아드네
차가운 빗방울이 되어.

尋源人不到，
심 원 인 부 도

그 근원을 찾자 해도 사람들은
이르지 못하나，

④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은 모양. ⑤ 번잡하고 많은 모양. ⑥ 권세가 대단하다, 많다.
⑦ 먼지나 안개가 성(盛)하여 떠오르는 모양. ⑧ 용이 파리를 튼 모양.

57) 유유(悠悠) : ①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모양을 형용한 말임. ② 근심하는 모양. ③ 장구(長久)한 모양, 구원(久遠)한 모양. ④ 끝없이 요원한 모양. ⑤ 펄럭이는(나풀거리는, 흔들거리)는 모양. ⑥ 떠다니는(흘러가는) 모양. ⑦ 까무잡잡한(거무스레한) 모양. ⑧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한가한 모양). ⑨ 목소리나 숨결이 완만세장(緩慢細長)한 것을 형용한 말.

58) 상하(上下) : ① 고금(古今). ② 예전과 지금을 아우르는 말을 이르는 것과 같은 말임.

59) 의공계(倚筇溪) : 남계정사의 연어헌(鰲魚軒) 동쪽 산기슭 아래 흐르는 작은 시냇물.

60) 정영(澄影) : ① 맑은 시냇물. ‘영(影)’은 명사 뒤에 붙어서 ‘흐릿한 형상’을 나타냄. 예를 들면, 홍영(鴻影)은 ‘기러기가 멀리 날아서 흐릿한 모양’을 이르는 것이고, 범영(帆影)은 ‘돛단배가 멀리 가서 흐릿하게 보이는 형상’을 이르는 것임. ② 맑은 물에 비친 형상.

61) 추벽(秋碧) : 가을철의 맑고 푸른 창공.

62) 비공(飛空) : 공중에서 날아들다. 이는 의공계의 냇물이 흘러가면서 부딪치는 물방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형상을 묘사한 것으로 보임.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물방울이 차가운 날씨로 인해, 마치 ‘한우(寒雨)’가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임.

烟霞鎖⁶³⁾ 今古。
연 하 쇠 금 고

안개와 노을은 고금(금)을 이어왔네.

63) 쇠(鎖) : ① 붙들어 매다. ② 결합시키다.

시53. 무제 無題 두 수

詩53. 無題 二首
무제 이 수



其一
기 일

[1]

吾心有似¹⁾路邊泉, 내 마음은 길옆의 샘물과 흡사해서,
오 심 유 사 로 변 천

澌者²⁾無多飲者連。 샘을 쳐내는 이 별로 없는데
설 자 무 다 음 자 연
마실 사람 줄을 잇네.

盡日風埃幾涵濁, 온종일 먼지바람 분다한들
진 일 풍 에 기 혼 탁
그 얼마나 혼탁해지겠소?

夜深星月獨回旋³⁾。 밤에 별 빛나고 달뜨면
야 심 정 월 독 회 선
저 홀로 정화淨化되는 것을.

-
- 1) 유사(有似) : 닮다, 유사(類似)하다. 비슷하다.
 - 2) 설자(澌者) : 물공을 뚫는 사람, 샘을 쳐내는 사람. 여기서 ‘설(澌)’은 물뭍을 쳐내서 물길이 뚫리게 하여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3) 회선(回旋) : 반환(返回), 즉 되돌아가다의 뜻임. 본 시에서는 ‘혼탁했던 샘물이 정화(淨化)되는 것’을 가리킴.

其二
기 이

[2]

三年去室⁴⁾作行商, 삼 년 동안 집을 떠나 행상을 하다가,
삼 년 거 실 작 행 상

散盡千金道路傍。 천금을 길바닥에서 다 탕진해 버렸네.
산 진 천 금 도 로 방

歲晚歸來無一物, 만년이 되어 돌아가려니 무일푼이라,
세 만 귀 래 무 일 물

不如終日臥茅堂⁵⁾。 종일토록 초가에서 누워있는 것만
불 여 종 일 와 모 당 본래 못했다네.

4) 거실(去室) : 집을 떠나다. 거(去)는 ‘떠나다’의 뜻임.

5) 모당(茅堂) : 초가집. 모당(茅堂)은 ‘모당(茆堂)’이라고도 씀. 이때, 묘(茆)는 ‘모(茅)’와 통하는 글자이며, 모옥(茅屋)과 같은 뜻임. 여기서 당(堂)은 ‘집’이란 뜻임.

시54. 다시 매호(梅湖)를 들렀다가
권경안(權景安)에게 써서 부치다

詩54. 再過梅湖¹⁾ 錄寄權景安²⁾
세과매호 녹기권경안



夙昔³⁾淹⁴⁾吾駕, 지난밤에 내가 좀 오래 수레를 몰았기에,
속석업오가
情朋邂逅⁵⁾餘. 정다운 벗과 해후邂逅할 여유가 생겼다네.
정봉해후여
亭臺⁶⁾憐竹樹, 정자 주변 대숲을 어여삐 여겨서,
정대연죽수
日月間音書⁷⁾. 생활 속에 틈을 내어 소식을 보내네.
일월간음서

- 1) 매호(梅湖) : 여기서 매호(梅湖)는 매호리(梅湖里)를 칭하는 것으로 보임. 매호리(梅湖里)는 낙동강 서안에 있는 경상북도 상주군 사벌면 매호마을을 칭하는 것으로, 이 마을은 조선 인조 때 조우인(曹友仁)이 마을에 들어가 임호정(臨湖亭)과 어풍대(御風臺)를 짓고 거기서 바라보는 산천의 아름다움을 그의 〈매호별곡(梅湖別曲)〉 속에 표현하였던 곳임. 아마도 서애가 본 시에서 시제(詩題) 속에 언급하고 있는 매호(梅湖)는 바로 이곳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함.
- 2) 권경안(權景安) : 미상.
- 3) 속석(夙昔) : ① 전야(前夜). ② 일반적으로 옛날이나 지난 날, 이전을 칭하기도 함. ③ 조석(朝夕).
- 4)淹(淹) : ‘장시간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를 띠.
- 5) 해후(邂逅) : ① 우연히 만나다. ② 우연히, 요행히. ③ 의외로, 만일에. ④ 창졸간에, 돌연히. ⑤ 해설하다.
- 6) 정대(亭臺) : ‘정대누각(亭臺樓閣)’의 약어(略語)로서, 일반적으로 원림(園林)이나 정원에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건축해놓은 건물을 칭함. 곧 정자나 누각 같은 것을 말함.

簿領⁸⁾神方⁹⁾倦,
부령 신방 권

관청장부 기록은 신기한 약방문을
쓰는 것 같아 고달프지만,

經過興未疎。
경과 흥미 소

세월이 흘러가도 흥취는 줄어들지 않는다네.

懸知¹⁰⁾建業水¹¹⁾,
현지 건업수

건업建業의 물맛은 멀리서도 알 수 있으니,

絶勝¹²⁾武昌魚¹³⁾。
절승 무창어

무창武昌의 물고기 맛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7) 일월간음서(日月間音書) : 생활 속에 틈을 내어 소식을 보내네) :

① 일월(日月) : 여기서는 세월을 뜻함. 이외에도, 생활 또는 생계(生計)를 청하거나, 해와 달 · 날마다, 달마다 · 시절 · 시대 · 제후(諸侯) · 황제(皇帝)와 황후(皇后) 등을 뜻함.

② 간(間) : 간간히, 잠시, 틈을 타서.

③ 음서(音書) : 서신, 소식, 기별.

8) 부령(簿領) : 관부기사(官府記事)의 부책(簿冊) : 장부)이나, 매일 기입하는 기록 문서를 이름.

9) 신방(神方) : ① 신기한 신선도사의 제간(술법). ② 신기한 효험이 있는 약방문(藥方文).

10) 현지(懸知) : 멀리 떨어져서도 알다. 현(懸)은 ‘멀리서, 멀리 떨어져서’의 의미임.

11) 건업수(建業水) : 중국의 삼국시대 오(吳)나라 마지막 군주인 손호(孫皓 : 242-284)가 건업(建業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에서 무창(武昌 :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무한시(武漢市)의 일부)으로 천도(遷都)하려 하자, 당시의 승상 육개(陸凱 : 198-269)가 항간(巷間)에 떠돌던 동요를 인용하여 불가함을 간(諫)하였는데, 그 동요는 “차라리 건업의 물을 마시지(寧飲建業水), 무창의 물고기는 먹지 않을래요(不食武昌魚) ; 차라리 건업으로 돌아가 죽고 말지(寧還建業死), 무창에 머무르면서 살지 않을래요(不止武昌屠)”라고 하는 것이었다.

위 내용은 『삼국지(三國志)·오지(吳志)·육개전(陸凱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무창어(武昌魚)”는 무창(武昌) 부근에서 생산되는 방어(魴魚)를 칭한다. 육개(陸凱)가 인용한 위 동요는 ‘천도불가(遷都不可)’를 갈망하는 당시 오(吳)나라의 민심을 표현한 것임.

즉, 손호(孫皓)가 무창(武昌)으로 도읍을 옮긴 뒤, 양주(揚州 : 도읍지 건업(建業))을 중심으로 한 12개 군(郡) 땅 백성들은 역류하여 생활용품을 공급해야 했으므로 이를 고통스러워했다. 게다가 무창(武昌)은 땅도 척박하고 험지라서 백성을 안정시킬 만한 곳이 못 되었다. 배를 정박시키면 격류에 침몰되고 구름지에 거주하면 산세가 험준하여 위험했다. 당시 오(吳)나라 백성들이 ‘차라리 건업(建業)에서 맹물을 마시다 죽지, 무창(武昌)에서 물고기 먹고 잘 살기는 싫다’고 하면서, 민심이 요동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서애(西厓)가 ‘건업수(建業水)가 무창어(武昌魚)보다 낫다’는 이 고사를 인용한 것은 ‘관료의 신분인 자신이 맹물만 마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백성을 고달프게 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임.

12) 절승(絶勝) : ~보다 훨씬 낫다(초과하다), 멀리 앞서다, 대단히 뛰어나다, 가장 좋다.

13) 무창어(武昌魚) : 본 시 주석 11)의 ‘건업수(建業水)’ 조항을 참조 바람.

시55. 원지정사¹⁾ 遠志精舍 정원의 화초를 쓰다

詩55. 遠志精舍¹⁾ 記花
원 지 정 사 기 화



淵明²⁾有三逕³⁾, 도연명 집 마당에는 세 갈래 길이 있어,
연 명 유 삼 경

猶自⁴⁾詫⁵⁾於文。 오히려 시문詩文보다 자신을 더 잘 알렸네.
유 자 타 어 문

況我諸般卉, 하물며 나에게도 여러 화초들이 있나니,
황 아 제 반 화

- 1) 원지정사(遠志精舍) : 〈시 26〉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2) 연명(淵明) : 도연명(陶淵明 : 365-427) : 중국 동진(東晉)의 시인. 이름은 잠(潛), 호는 오류선생(五柳先生), 연명(淵明)은 자(字)임. 405년에 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이 되었으나, 80여 일 만에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남기고,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였음. 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당(唐)나라 이후 육조(六朝) 최고의 시인이라 불림. 〈도화원기(桃花源記)〉를 비롯해 많은 작품이 있음.
- 3) 삼경(三逕) : ‘삼경(三徑)’이라고도 씀.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뜰 안의 세 갈래 작은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三徑就荒)”이라는 구절이 있음. 진(晉)나라의 은사(隱士) 조기(趙岐 : 108-201)의 저서 『삼보결록(三輔決錄)·도명편(逃名篇)』에 보면, “서한(西漢)의 은사(隱士) 장후(蔣詡)가 귀향하여 은거했는데, 가시덤불이 대문을 막을 정도였다. 집안 마당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데 ‘세 갈래의 오솔길, 즉, 삼경(三徑 : 송경(松徑), 죽경(竹徑), 국경(菊徑))이 있었으나, 혼자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했다. 유일한 친구인 직업이 수레수리업을 하는 은사(隱士) 구중(求仲)과 양중(羊仲) 두 사람이 오면 그들을 따라 나가서 놀았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글에 나오는 “삼경(三徑)”이란 말을 가지고, ‘귀은자(歸隱者 : 귀향하여 은거하는 자)의 가원(家園)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음.
- 4) 유자(猶自) : 오히려.
- 5) 타(詫) : ① 고지(告知)하다, 알리다. ② 과시하다, 자랑(자만)하다. ③ 기만하다, 속이다. ④ 놀라다, 의아해 하다.

同時滿一園。
동 시 만 일 원

일시에 정원 안에 만발하였음에라.

簷前雙玉立，
첨 전 쌍 옥 립

처마 앞에 한 쌍의 옥 같은 미석美石이
서 있고,

牆下四桃昏⁶⁾。
장 하 사 도 혼

담장 아래는 복사나무 네 그루가 우거졌네.

西畦⁷⁾種枸杞，
서 휴 종 구 기

서쪽 밭두렁에는 구기자를 심었고,

北庭移梨根。
북 정 이 리 근

북쪽 정원에는 배나무 묘목 옮겨 왔네.

山茶⁸⁾與海棠，
산 차 여 해 당

동백나무와 해당화는,

并芳若弟昆⁹⁾。
병 방 약 제 곤

형제마냥 어울려 향기를 풍기네.

芍藥短叢條¹⁰⁾，
작 약 단 총 조

작약은 나지막하게 무더기로 어우러져,

比附¹¹⁾爲兒孫。
비 부 위 아 손

아들과 손자에 견줄만하네.

薔薇正¹²⁾顏色，
장 미 정 안 색

장미는 이제 한창 색깔이 곱고,

黃花耀籬藩¹³⁾。
황 화 요 리 반

황색극화도 울타리 아래서 빛을 발하네.

6) 혼(昏) : 광선이 부족하여 어둑어둑한 모양. 여기서는 복숭아나무가 우거져서 검푸른 색을 띤 모양을 형용한 것으로 보임.

7) 휴(畦) : 밭두둑.

8) 산차(山茶) : 동백나무. 중국 사람들은 이를 내동화(耐冬花)라고도 하고, 만타라수(曼陀羅樹)라고도 한다.

9) 제곤(弟昆) : ‘제곤(弟昆)’이라고도 씀. 형제라는 뜻으로, 곤(昆)은 형(兄)의 뜻임.

10) 단총조(短叢條) : 무더기로 더부룩하게 난 키 작은 여러 해 살이 풀을 이룸.

11) 비부(比附) : ‘역지로 비교하다’는 뜻으로, 견강부회(牽強附會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 유리하게 함)와 같은 말이다.

12) 정(正) : 부사로서 (시간, 위치, 체적, 수량, 정도 등이) 꼭 알맞다. 딱 좋다.

格¹⁴栝¹⁵不事文¹⁵ , 가지 긴 산뽕나무는 ‘미美’를
 격 자 불 사 문 추구하고진 않지만,
 實多令人吞。 열매가 많아 사람들에게 먹도록 해주네.
 실 다 령 인 탄
 葵¹⁶誠最可愛, 해바라기는 진실로 가장 사랑스럽나니,
 규 성 최 가 애
 白日¹⁷傾天門¹⁸。 대낮이면 천궁天宮의 문을 향해
 백 일 경 천 문 고개 숙이기 때문일세.
 更有蒼髯公¹⁹, 또한 푸른 수염의 소나무공公도 있으니,
 갱 유 창 염 공
 直氣何軒軒²⁰。 그 곧은 기상이 얼마나 출중한지!
 직 기 하 현 현
 根藏萬丈²¹勢, 뿌리에는 만장萬丈의 기세를 간직한 채,
 근 창 만 장 세
 意欲撐乾坤²²。 의지로는 천지를 지탱하고자 하네.
 의 욱 땡 건 곤
 主人信²³貧窶²⁴, 주인은 진실로 집안형편 어려운 걸 알기에,
 주 인 신 빈 구

-
- 13) 황화요리번(黃花耀籬藩) : 황국도 울타리 아래서 빛을 발하였네) :
 ① 황화(黃花) : 황색국화.
 ② 요(耀) : 요(耀) : 빛나다. 뽐내다, 자랑(과시)하다. ③ 이번(籬藩) : 울타리.
 14) 격자(格栝) : 가지가 긴 산뽕나무. 격(格)은 ‘긴 가지’의 뜻임.
 15) 불사문(不事文) : 화려함(아름다움)에 힘쓰지 않다. 곧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킴. 문(文)은 ‘미(美)’의 뜻임.
 16) 규(葵) : 해바라기, 향일화(向日花).
 17) 백일(白日) : 여기서는 백주 대낮으로 쓰였음. 이외에도 ① 태양, 양광(陽光). ② 시간, 광음(光陰). ③ 인간세상(즉 인세(人世)) 등의 의미가 있음.
 18) 천문(天門) : 여기서는 천궁(天宮)의 문, 즉 황궁(皇宮)의 문을 대유(代喻)하고 있음. 이외에도 천기(天機)의 문, 즉 심(心)을 가리키는 뜻이 있음.
 19) 창염공(蒼髯公) : ‘창염수(蒼髯叟)’라고도 함. 소나무의 이명(異名)임.
 20) 현현(軒軒) : 출중한 모양, 춤추는 모양, 득의(得意)한 모양.
 21) 만장(萬丈) : 매우 길거나 매우 높거나 매우 깊은 것을 형용한 말.
 22) 건곤(乾坤) : ① 하늘과 땅. ② 우주. ③ 음양.

三旬²⁵⁾或九殮²⁶⁾。 한 달에 간혹 저녁밥으로
삼순_{삼순}혹구순_{혹구순} 아홉 끼도 먹는다네.

閉門日相對， 대문 닫아놓고 날마다 상대하는 것은,
폐문일상대

羅列陳楹軒²⁷⁾。 늘어서 있는 기둥과 난간뿐일세.
나열진영현

生涯²⁸⁾亦繁華， 한평생 화려한 번영도 누리봤지만,
생애역번화

富貴如浮雲。 부귀란 뜬 구름과 같은 것을!

23) 신(信) : 알다.

24) 빈구(貧囊) : 빈곤. 구(囊)는 ‘가난하다’는 뜻임.

25) 삼순(三旬) : ① 상순(上旬), 중순(中旬), 하순(下旬)을 통틀어 이르는 말. 30일. ② 서른 살. 순(旬)은 ‘10일 또는 10년’을 뜻함.

26) 구순(九殮) : ‘구순(九殮)’으로도 씀. ‘아홉 끼의 저녁밥을 먹다’는 뜻임. ‘순(殮)’은 저녁 밥, 밥을 짓다, 말다(밥을 물이나 국물 같은데 넣어 푼)는 뜻임. 여기서는 저녁밥의 명사형 의미 보다는 ‘밥을 먹다’는 동사형으로 쓰였음.

27) 영현(楹軒) : 기둥과 난간.

28) 생애(生涯) :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

시56. 벗의 초당草堂을 시제詩題로 하다

詩56. 題¹⁾友人草堂
제 우 인 초 당



梅花落盡柳初黃, 매화꽃 다 지자 버들잎 노랗게 물드는데,
메 화 낙 진 류 초 황

草屋蕭然²⁾枕³⁾小塘。 초가집은 쓸쓸하게 작은 연못 곁에
초 옥 소 연 침 소 당 붙어 있네.

山鳥不驚春晝永, 봄날 해 길어져도 산새가 놀라지 않듯이,
산 조 불 경 춘 주 영

百年高臥道心長⁴⁾。 한 백년 은거隱居하며 도심道心이나
백 년 고 와 도 심 장 길러볼까.

-
- 1) 제(題) : 제시(題詩)하다, 즉 제목을 붙여 시를 짓거나, 또는 그 시를 말함.
 2) 소연(蕭然) : ① 텅 비어 있다(텅 비워 두다). ② 적막하다, 조용하다. ③ 쓸쓸하다. ④ 소란스럽다.
 3) 침(枕) : ① 가까이에 근접하다. ② 눕다, 잠자다. ③ 베개.
 4) 백년고와도심장(百年高臥道心長 : 한 백년 은거하며 도심이나 길러볼까) :
 ① 백년(百年) : 한 평생, 오랜 세월, 백년.
 ② 고와(高臥) :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것을 가리킴. ☆세속의 누(累)를 벗어나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삶. ☆한가롭게(편안하게) 누움.
 ③ 도심(道心) : ☆유학자들이 인성(人性)과 천리(天理)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理)와 기(氣)의 개념을 구사하는 성리학(性理學)의 경지를 얻기 위하여 깊은 사색과 수양에 힘쓰는 마음. ☆객관적 사물의 최고 기본이 되는 정신. 불교어로서, 보리심(菩提心), 즉 오도지심(悟道之心)을 말함. ☆선도(善道)와 정도(正道)를 닦으려는 마음.



시57. 김미백 金美伯 군과 김회중 金晦仲 군, 그리고
권손행 權巽行 군 등이 찾아 왔길래,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읊어 써 주다

詩57. 金美伯¹⁾晦仲²⁾及權生巽行³⁾來訪 偶吟書贈
김미백 회중 금권생손행 래방 우음서증

二妙⁴⁾勤⁵⁾相訪, 두 청년은 자주 방문했었는데,
이묘근상방

權君又並驂⁶⁾. (이번엔) 권군 또한 나란히 말을 타고 왔네.
권군우병참

有心那免⁷⁾累, 마음에 두고 있는데 어찌 수고를 피하고자,
유심나면루

- 1) 김미백(金美伯) : 이력 미상.
- 2) 회중(晦仲) : 김회중(金晦仲). 성(姓)을 안 쓴 것은 앞 사람의 성과 같기에 생략한 것으로 보임. 이력 미상.
- 3) 권생손행(權生巽行) : 권손행(權巽行) 군(君)으로 봐야 할 것임. 여기서 ‘생(生)’은 성(姓)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여서, ‘젊은 사람’의 뜻을 의미하는 접미사임.
권손행(權巽行) : 그는 감사(監司)를 지낸 부친 권하(權廈)와 모친 문화 유씨(文化柳氏) 사이에 삼남매 중 장자(長子)로 태어났음. 그의 선친 묘비문(墓碑文)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음사(蔭仕 : 부모의 은덕으로 한 벼슬)로 충의위(忠義衛 : 조선시대 5위〈五衛〉 중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한 군대)가 되었고, 서에 선생 문하에서 수업하였다고 함. 그의 선친 묘는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원당(元堂) 마을 뒤편에 있음.
- 4) 이묘(二妙) : 두 청년. 두 젊은이. 묘(妙)는 ‘연소(年少 : 나이가 젊다)’의 뜻임.
- 5) 근(勤) : ① 자주, 빈번하게. ② 수고스럽게. ③ 정성스럽게. ④ 친절하게.
- 6) 참(驂) : 일반적으로 말이나, 마차를 가리킴. 고대의 마차는 세 필 또는 네 필의 말이 끄는데, 바깥쪽 좌우의 말을 참(驂)이라고 함. 동사로 쓰일 경우, ‘말이나 수레를’ 타다라고 함.
- 7) 나면(那免) : 어찌 면하겠는가! 여기서 ‘나(那)’는 ‘나(哪)’와 동자(同字)로 봐야할 것임.

無物⁸⁾不容探⁹⁾。 방문을 허용치 않을 사람 있겠는가!
무 물 불 용 탐

風月吟邊闊， 풍월風月을 읊으면 주변경계 광활해져,
풍 월 음 변 환

黃虞¹⁰⁾靜裏參¹¹⁾。 황제黃帝와 우순虞舜도 고요 속에
황 우 정 리 참
참배할 수 있네.

後生眞可畏， 후학들은 진실로 경외敬畏할 만하나,
후 생 진 가 의

吾老只增慙。 나 이 늙은 몸은 부끄러움만 쌓여가네.
오 노 지 증 참

8) 물(物) : 사람, 못사람.

9) 탐(探) : 방문하다.

10) 황우(黃虞) : 황제(黃帝)와 우순(虞舜)의 합칭(合稱).

① 황제(黃帝) : 중원(中原) 각 부족의 공동 조상이라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황제. 소전(少典)의 아들로서 성은 공손씨(公孫氏)이며, 현원(軒轅)의 언덕에 살았기에 현원씨(軒轅氏)라고 불림. 또 희수(姬水) 강변에 살기도 했던 까닭에 성을 희(姬)씨로 바꾸었고, 나라가 유웅(有熊)에 있었기에 유웅씨(有熊氏)로도 불림. 그는 또한 토덕(土德)으로 왕이 되었으며, 토색(土色)은 황색이기에 황제(黃帝)라고도 부름.

② 우순(虞舜) : 고대 중국의 오제(五帝)중의 하나임. 즉 순(舜)임금으로, 성은 요(姚)씨이며, 이름은 중화(重華), 그의 선조의 나라가 우(虞)에 있었기에 우순(虞舜)이라고 부름. 고대 전설상의 성군(聖君)으로 불림.

11) 참(參) : 알현하다. 찾아뵙다.



시58. 승려 축^軸에게 시 두 수를 써 주다

詩58. 書僧軸¹⁾ 二首
서 승 축 이 수

其一
기 일

[1]

昭昭²⁾靈覺³⁾又昏昏⁴⁾, 또렷이 영적靈的 자각했다가도
소소 영 각 우 혼 혼 다시 침침해지지만,

萬法⁵⁾從來只一門⁶⁾。 만법萬法의 현상은 여태껏
만 법 종 래 지 일 문 하나의 근원일세.

-
- 1) 승축(僧軸) : 승려 축(軸). 이력 미상.
 - 2) 소소(昭昭) : ① 사리가 맑고 또렷하다. ② 밝다. ③ 명백하다. ④ 현저(顯著)하다.
 - 3) 영각(靈覺) : ① 영적자각(靈的自覺). ②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이해하는 지능. ③ 현명하
여(혹은 신이나 영혼이) 사물변화에 대하여 자각함을 이룸.
 - 4) 혼혼(昏昏) : ① 어두운 모양 (침침하여 가물가물하다) ② 도리에 어둡고 마음이 흐린 모양
(애매모호하다, 어리벉벉하다, 흐리멍덩하다) ③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희미한 모양(얼떨떨하
다, 의식이 가물가물하다).
 - 5) 만법(萬法) : ① 불교용어로서, 일체(모든) 사물을 가리킴. 법(法)은 범어(梵語) 'dharma
(달마)'의 의역(意譯)으로서, 사물이나 그 현상을 가리킴. ② 이성(理性)이나 불법(佛法) 등
을 가리키기도 함.
 - 6) 일문(一門) : ① 하나의 근원(유래, 기원). ② 한 가지의 비결(방법, 실마리, 요령). ③ 하나의
문호(門戶). ④ 한 가족, 한 집. ⑤ 한 종류, 한 파벌. ⑥ 한 가지의 풍격(風格 : 특징, 품격).

欲向東山⁷⁾求妙訣,
욕 향 동 산 구 묘 결

동산東山의 은사隱士 사안謝安에게
비결 구하고 싶은데,

幾重歸路翳秋雲⁸⁾。
기 중 귀 로 예 추 운

귀로歸路가 겹겹이 흰 구름에
가려져 있네.

其二
기 이

[2]

吾心正似解維舟⁹⁾,
오 심 정 사 해 유 주

내 맘은 묶어뒀던 배를 풀어놓은 듯해서,

7) 동산(東山) :

① 『진서(晉書)·사안전(謝安傳)』의 기록에 의하면, 사안(謝安 : 320-385)은 나이 아주 젊어서 관직을 사직하고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 은거했는데, 누차에 걸친 조정의 관직 복귀 요청을 받고 동산(東山)에서 다시 나와, 관직이 사도(司徒) 등 요직에 등용되어 동진(東晉)의 중신(重臣)이 되었다.

임안(臨安)과 금릉(金陵)에도 동산(東山)이 있는데, 이 역시 사안(謝安)의 휴양지였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동산(東山)’을 기준으로 삼아 두 가지 뜻으로 동산(東山)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첫째, 은거(隱居)나 휴양지라는 의미로 쓴다. ☆둘째, 사안(謝安)이란 성명 대신에 사안(謝安)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하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란 의미로도 씀.

② 『시경(詩經)·빈풍(邠風)·동산(東山)』에 “내가 동산에 가서 전투하면서(我徂東山),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네(惓惓不歸)”라고 한 구절이 나오는데, 주희(朱熹)가 이 시에 주(註)를 달아 말하기를, “동산(東山)은 정복(征服)하러 간 땅이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글로 인해서, ‘동산(東山)’을 ‘원정(遠征)하거나 원행(遠行)하는 지역’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③ 일반적으로는 ‘동쪽에 있는 산’을 가리킴.

④ 『맹자(孟子)·진심장(盡心章) 상(上)』에, “공자께서 노(魯)나라 동산(東山)에 올라가서서 노나라를 작게 여기셨다(孔子登東山而小魯)”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동한(東漢)의 학자, 조기(趙岐) : 약 108-201)가 주(注)를 달기를, “동산(東山)이란 것은 아마도 노나라 성(城)의 동쪽에 있는 높은 산일 것이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말로 인해서 ‘동산(東山)’을 가지고 ‘노지(魯地 : 노나라의 땅)’를 대신 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였음.

8) 기중귀로예추운(幾重歸路翳秋雲 : 귀로가 겹겹이 흰 구름에 가려져 있네) :

① 기중(幾重) : ☆겹겹이. ☆몇 겹으로.

② 예(翳) : 덮어 가리다, 가로 막다, 배척하다, 흐리다.

③ 추운(秋雲) : 흰 구름. 고대의 오색(五色 : 청·황·적·백·흑)과 오행(五行 : 금·목·수·화·토)을 가지고 사시(四時 : 춘·하·추·동)를 배열하면, 추(秋)는 금(金)에 해당되고, 그 색은 백색(白色)이고로, 추(秋)는 백색(白色)이다.

9) 유주(維舟) : ① 배를 말뚝에 묶어 정박하다. ② 고대에 제후가 타던 배(고대 제후는 배 네 척을 횡대로 연결시키고 묶어서 요동치는 것을 방지한 다음 승선했던 까닭에 일컬어진 명

萬頃滄波¹⁰自在¹¹游。
만 경 창 파 자 재 유

만경창파萬頃滄波를
자유롭게 떠다닌다네.

一笑¹²江頭分手¹³處，
일 소 강 두 분 수 처

만면에 미소 머금고 강변에서 이별할 때,

碧天無際片雲浮。
벽 천 무 제 편 운 부

가없이 넓은 푸른 하늘엔
조각구름 떠가네.

칭). 유(維)는 '묶다'는 뜻임.

10) 만경창파(萬頃滄波) : 한 없이 넓은 푸른 물결.

① 만경(萬頃)은 원래 면적 단위로서, 100만 묘(畝)임. (100묘<畝>가 1경<頃>이니까). 또한 만경(萬頃)을 '면적이 광활함을 형용하는 말'로 상용(常用)함.

② 창파(滄波)는 벽파(碧波)라고도 하며, '푸른 물결'의 뜻임.

11) 자재(自在) : ① 편안하고 한가롭다. ② 자유. ③ 자연히, 저절로. ④ 불교에서 마음에 번뇌와 속박을 벗어나 장애가 없이 통달하는 것을 자재(自在)라고 함. 또한 불(佛), 보살에 갖추어진 힘을 말하기도 함.

12) 일소(一笑) : 만면에 미소를 머금다. 여기서 '일(-)'은 온통, 한 번, 시종(始終), 언제나, 함께 등의 의미임.

13) 분수처(分手處) : 이별할 즈음. 이별할 때.

① 분수(分手) : ☆이별하다. ☆각자(제각기), 따로따로. ☆분담하여.

② 처(處) : 동사 뒤에서, '~할 때' 혹은 '시(時)'와 같은 뜻으로 쓰였음.

시59. 봄날에 집이 생각나서

詩59. 春日思家

춘 일 사 가



楚雲秦樹¹⁾兩依依²⁾, 초楚나라 구름과 진秦나라 수목마냥
 遙遠 떨어져 양쪽이 서로 그리워하다가,
 夢裏還家覺後非。 꿈에서는 귀가했는데 깨어보면 아니로세.
 夢 리 환 가 각 후 비
 湖水春來深幾尺, 호수의 물 봄이 오자 몇 자 더 깊어지더니,
 湖 수 춘 래 심 기 척
 棠花³⁾飄盡白鷗飛。 산앵두꽃은 다 지고 갈매기가 날아오르네.
 棠 화 표 진 백 구 비

-
- 1) 초운진수(楚雲秦樹) : 진수초운(秦樹楚雲)이라고도 함. '초나라의 영공(領空)과 진나라의 수목(樹木)'이란 뜻으로,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형용한 말임.
 - 2) 양의의(兩依依) : 양쪽이 서로 그리워하다.
 - ① 양(兩) : 쌍방을 가리키는 것임.
 - ② 의의(依依) : ☆'의의불사(依依不捨)'와 같은 뜻으로, 연연(戀戀)해 하여 차마 떨어지기 어려워하는 모양을 형용하는 말임. ☆사모하는 모양. ☆무성한 모양, 확실하지 아니한 모양 등을 뜻함.
 - 3) 당화(棠花) : '당(棠)'은 세 종류가 있다. ① 산앵두나무 꽃. 철쭉과의 낙엽활엽 관목으로 높이는 1m 정도에 4-5월에 연붉은 색 또는 흰색의 꽃이 핀다. '당채(棠棣)'라고도 하며,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② 해당화(海棠花).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높이는 1-1.5m이며, 5-8월에 붉은 자주색 꽃이 가지 끝에 핀다. ③ 팔배나무. 장미과의 낙엽 활엽교목으로 높이는 1m 정도이며, 4-5월에 흰 꽃이 핀다. 본 시의 주제 '춘일사가(春日思家)'와 당화(棠花)의 개화시기를 고려해 볼 때, 당화(棠花)를 '산앵두나무 꽃'으로 봄이 타당함.



시60. 산승^{山僧}에게 주다

詩60. 贈僧 중 승

此身猶復¹⁾寄²⁾淵水³⁾, 이 몸이 심연^{深淵} 살얼음판에
차 신 유 복 기 연 빙
머물다 온 듯하지만,

萬事元來⁴⁾不足憑⁵⁾。 만사가 본래 의존할만한 게 아니라네.
만 사 원 래 부 족 빙

病裏安心惟習靜⁶⁾, 병중에도 안심법^{安心法}으로
병 리 안 심 유 습 정
오직 마음 맑게 했으니,

1) 유복(猶復) : 돌아온 듯하다.

① 유(猶) : ~와 같다.

② 복(復) : 돌아오(가)다. 회복하다.

2) 기(寄) : ① 얹혀살다, 타향에 머무르다. ② 맡겨두다. ③ 위탁하다, 의뢰하다.

3) 연빙(淵氷) : ‘깊은 못과 얇은 얼음장’이란 뜻의 이 말은 『시경(詩經)·소아(小雅)·소민(小旻)』에, “두려워서 조심하며 살아가기를(戰戰兢兢), 깊은 못에 임하듯 하며(如臨深淵), 얇은 얼음판을 밟고 가듯 해야 하네(如履薄氷)”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글에 나오는 ‘연빙(淵氷)’이란 말을 ‘위험한 일 또는 그러한 지경’이란 말에 비유하였음.

4) 원래(元來) : ① 원래, 본디. ② 원래 알지 못한 정황을 발견했을 때, 표현하는 말임. 즉 알고 보니 ~하다.

5) 부족빙(不足憑) : 기대기에 부족하다. 빙(憑)은 (몸을 ~에) 기대다, ~에 의존하다.

6) 습정(習靜) : 습정수추(習靜守拙)에서 온 말. 습정(習靜)은 ‘마음을 항상 맑게 가지는 것’이고, 수추(守拙)은 ‘세상과 영합하기 위해 교묘하게 속임수 쓰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것’임.

試將⁷⁾禪定⁸⁾較山僧。
시 장 선 정 교 산 승

잠시 선정禪定에 들어
산승山僧과 견주어 볼까하네.

7) 시장(試將) : 잠시 곧 ~하려고 한다.

① 시(試) : ☆잠시. ☆시험 삼아.

② 장(將) : 곧 ~하려고 한다.

8) 선정(禪定) : 산스크리트어(sanskrit語 : 고대인도의 표준문장어)로 ‘디아나(dhyāna)’이며, 차분한 마음으로 명상하는 것. 정신을 집중하는 수련이란 뜻임. 육바라밀(六波羅密), 즉 대승불교에 있어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인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 중의 다섯 번째임.



시61. 연좌루^{燕坐樓}에서 쓰다

詩61. 題¹⁾燕坐樓¹⁾
제 연 좌 루

心源蕩蕩²⁾如翻海,
심 원 탕 탕 여 번 해

마음의 근원은 광대하여
 파도 거센 바다 같고,

鬢髮蒼蒼³⁾似亂絲。
빈 발 창 창 사 난 사

머리털은 희끗희끗 헝클어진
 실타래 같구나.

滿壁圓書⁴⁾慵不理⁵⁾,
만 벽 원 서 용 불 리

벽 가득 쌓아둔 책 게을러서
 상대 앉았더니,

- 1) 연좌루(燕坐樓) : 건물의 곡선이 제비를 닮았다 하여 ‘연좌루’라고 하며, 이 연좌루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쪽 누각으로 중요민속자료 85호임. 서애가 고향에 내려오면 고요히 머물면서 학문과 국정(國政)을 사색했던 특별한 곳이다. 소개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豐川面) 하회리(河回里)임. 자세한 것은 <시 26>의 주석1)과 <시 33>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2) 탕탕(蕩蕩) : ① 광대(廣大)한 모양, 박대(博大)한 모양. ② 도량(度量 : 마음, 포부)이 관대한 모양. ③ 수세(水勢)가 대단한 모양. ④ 필력이(바람에 나무끼는) 모양. ⑤ 예측된 것이 없는 모양. ⑥ 소유한 것이 없는 모양, 밝고 말쑥한 모양.
- 3) 빈발창창(鬢髮蒼蒼 : 머리털은 희끗희끗) :
 ① 빈발(鬢髮) : ‘살쩍과 머리털’이나, 여기서는 ‘두발(頭髮)’로 해석하였음.
 ② 창창(蒼蒼) : ☆머리 색깔을 형용하는 말로 희끗희끗하다. ☆심청색(深青色). ☆‘하늘’을 가리키거나, 무성하다, 많다. ☆아득하여 끝이 없다. ☆노쇠한 모양, 어둑어둑한 모양 등의 뜻이 있음.
- 4) 원서(圓書) : 많은 책, 쌓아둔 책. 원(圓)은 ‘풍만하다’는 뜻임.
- 5) 불리(不理) : ① 상대하지 않다, 무시하다, 돌보지 않다. ②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다.

百年辜負好襟期⁶⁾。 드높던 그 의기意氣를 일평생 저버렸네.
백 년 고 부 호 금 기

6) 백년고부호금기(百年辜負好襟期 : 드높던 그 의기를 일평생 저버렸네) :

- ① 백년(百年) : ☆일생, 종신(終身). ☆인명(人命)이 백세(百歲)됨을 가리킴. ☆죽음의 완곡한 표현.
- ② 고부(辜負) : (호의, 은혜, 기대 등을) 저버리다, 배반하다.
- ③ 금기(襟期) : 포부. 의기(意氣). 기대.



시62. 『퇴도선생문집 退陶先生文集』에 이백 李白의
〈자극궁 紫極宮〉 시를 차운 次韻한 것이
있어, 삼가 그 시의 운자 韻字에 맞추어
회포를 기탁하였는데, 이날 밤 꿈에 선생을
뵈다

詩62. 退陶先生集¹⁾中 有次李白²⁾紫極宮詩 謹步韻³⁾寄懷
퇴도선생집 중 유차이백 자극궁 시 근보운 기회

1) 퇴도선생집(退陶先生集) : 퇴도(退陶)는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 이황(李滉 : 1501-1570)의 호. 그의 호는 이 밖에도 퇴계(退溪), 도수(陶叟)가 있음. 『퇴도선생집(退陶先生集)』은 『퇴계집(退溪集)』이라고도 하며,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을 말함. 자세한 것은 <시 38>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2) 이백(李白: 701-762) : 그의 호적지는 당(唐)나라 롱서군(隴西郡) 성기현(成紀縣), 즉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천수현(天水縣)이나, 출생지는 그의 선조가 수(隋) 말엽에 서역(西域)을 떠돌아 다녔던 까닭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의 쇄엽성(碎葉省), 즉 지금의 중앙아시아 바이칼호(Baikal湖) 서쪽임.

후에, 지금의 사천성(四川省)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산둥(山東)으로 이사를 하였기에, 그를 산둥인(山東人)으로도 칭함.

그의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임. 시성(詩聖)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고의 시인이며 시선(詩仙)이라 불림.

그는 맹호연(孟浩然), 원단군(元丹邱), 두보(杜甫), 고적(高適) 등 많은 시인과 교류하면서 각 지역을 유력(遊歷)했음.

43세 즈음에 현종(玄宗)의 부름으로 장안(長安)에 들어가 한림공봉(翰林供奉)이 되었던 1-2년이 관직생활의 전부였음. 그러나 결국 현종의 총신 고역사(高力士)의 미움을 받아 궁에서 쫓겨났음.

그 뒤 각 지역을 유력하다가 안록산(安祿山)의 난 때 촉(蜀) 땅으로 피난한 현종의 아들, 영왕(永王) 인(璘)의 막료가 되었으나, 역시 현종의 아들인 형(亨: 훗날의 숙종(肅宗))에게 패하여 유배가게 됨. 곽자의(郭子儀)의 도움으로 사면(赦免)되었으나, 이미 그의 나이 59세였음. 노쇠한 탓에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회원현(懷遠縣)에 사는 친척, 이양빙(李陽冰)에게 의탁생활을 하던 중 병사했음.

이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일관했음. 청소년 시절에는 독서와 검술에 정진하고 유협(游俠)들과 어울리기도 하였고, 민산(岷山)에서 선술(仙術)을 닦기도 하였음. 그의 방랑은 정신적 자유를 찾는 꿈의 비상(飛翔)이었음. 그에게도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인생의 우수(憂愁)와 적막에 대한 절실한 관조(觀照)가 있었으나 관심을 가지는 방식과 관조(觀照)의 양태가 두보와는 크게 달랐음.

두보가 언제나 인간중심의 고뇌를 시의 제재(題材)로 했다면, 이백은 오히려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자유를 구가(謳歌)하였음. 인생의 고통과 비수(悲愁)까지도 혼돈화하여 그 곳으로부터 비상하려 하였음. 술은 그가 그렇게 비상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그의 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협기(俠氣)와 신선(神仙)과 술이었음.

두보가 오언율시에 뛰어났다면, 이백은 악부와 절언절구를 장기로 함. 현존하는 최고(最古)

是夜夢見先生
시 야 몽 견 선 생

山雨夜中來，
산 우 야 중 래

산속에 내리는 비 한밤중에도 내려서,

鳴我南窓竹。
명 아 남 창 죽

내 귓전에 부슬거리고 남창밖 대숲에도
부슬거리네.

憂端⁴⁾齊華嵩⁵⁾，
우 단 제 화 송

근심이 화산華山과 송산嵩山만큼 쌓였는데,

誰道⁶⁾不盈掬⁷⁾。
수 도 불 영 국

누가 말했던가 한 줌에도 안 찬다고!

世人愛紛華，
세 인 에 분 화

세인世人은 분잡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나,

의 그의 시문집은 송대에 편찬된 것이며, 약 1,100여 편의 작품이 전해짐. 청대의 학자 왕기(王琦)가 편찬한 『이태백시집주(李太白詩集注)』가 있음.

- 3) 보운(步韻) : 차운(次韻)이라고도 함.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지음. 또는 그런 식으로 운(韻)을 맞추는 방법. 당대(唐代)에 백거이(白居易)와 원진(元稹) 사이에 서로 운(韻)을 맞추어 시를 지은 것에서 시작하였는데, 송대(宋代)에 와서 이 방법이 크게 유행하였음.
- 4) 우단(憂端) : ① 수서(愁緒 : 근심스런 정서), ② 걱정, 근심스런 마음, ③ 애수에 잠긴 마음.
- 5) 화송(華嵩) : 화송(華嵩)으로도 씀. 화산(華山)과 송산(嵩山)의 병칭으로 산이 높고 큰 모양을 비유하는데 상용(常用)함.
- 6) 도(道) : 말하다.
- 7) 영국(盈掬) : ‘영국(盈掬)’으로도 씀. 두 손으로 움켜쥐다(양 손으로 싸잡다).

吾心愛幽獨⁸⁾
오 심 에 유 독

내 마음은 한적하게 홀로 지내는 것
좋아하네.

風波一失脚,
풍 파 일 실 각

세찬 바람 거센 물결에 발 한번 헛디쳐서,

弱纜無歸宿⁹⁾
약 략 무 귀 숙

약한 닻줄에 돌아갈 수도 없게 됐네.

往者亦如此,
왕 자 역 여 차

지난 일들도 이와 같았으니,

來者不可卜¹⁰⁾
래 자 불 가 복

다가올 일은 예측할 수 없다네.

天地無窮際,
천 지 무 궁 제

천지는 끝없이 드넓지만 한데,

陰陽¹¹⁾有往復
음 양 유 왕 복

음양의 두 기운은 끊임없이 왕복한다네.

大運¹²⁾去不息,
대 운 거 불 식

천체의 운행은 쉬지 않고 가지만 하는데,

8) 유독(幽獨) : 한적하게 홀로 지내는 것.

9) 귀숙(歸宿) : ① 돌아가다. ② 돌아가 자다, 숙사로 돌아가다. ③ 귀착(歸着)하다.

10) 복(卜) : 예언하다, 추측하여 단정 짓다.

11) 음양(陰陽) :

(1) 우주만물에 물질과 인간을 관통하는 서로 반대되는 대립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칭함.

① 천지에 만물을 생성, 변화시키는 두 가지 기운, 곧 이기(二氣)를 가리킴. ② 천지(天地).

③ 주야(晝夜). ④ 한서(寒暑). ⑤ 춘하(春夏 : 양(陽)에 속함)와 추동(秋冬). ⑥

천둥, 번개(陽)에 속함)와 우설(雨雪). ⑦ 군신(君臣). ⑧ 부부(夫婦). ⑨ 남녀(男

女). ⑩ 율리(律呂 : 고대 음악이나 음성의 가락을 육률(六律)과 육呂(六呂)로 나누었

는데, 양성(陽聲)에 속하는 6가지 소리를 ‘육률(六律)’이라 하였고, 음성(陰聲)에 속

하는 6가지 소리를 ‘육呂(六呂)’라고 하였음. ⑪ 기우(奇偶) : 기수(奇數)와 우수(偶

數). 즉 기수(奇偶)는 ‘홀수’란 뜻으로 양(陽)에 해당하며, 우수(偶數)는 ‘짝수’로서 음

(陰)에 해당함. ⑫ 동정(動靜). ⑬ 개합(開合 : 열고 닫음. 개(開)가 양(陽)에 속함).

⑭ 이승과 저승. ⑮ 생사(生死).

(2) 고대 일월(日月)과 관계되는 천체운행 규률에 관한 학문.

(3) 점복(占卜), 관상(觀相), 택지(擇地) 등의 풍수설(風水說).

(4) 남녀의 교합(交合).

(5) 산구릉의 북면(北面)과 남면(南面).

12) 대운(大運) : ① 천체의 운행. ② 아주 좋은 운수 ; 하늘과 땅 사이에 저절로 오고 가는 길

世事多翻覆¹³⁾。 세상사는 이리저리 뒤집힘이 많구나.
세 사 다 번 복

一枕邯鄲夢¹⁴⁾， 잠깐 누워 한단몽邯鄲夢의 꿈을 꾸었는데，
일 침 한 단 몽

黃梁熟未熟。 메조 밥은 다 익었는지 아직 덜 익었는지.
황 량 숙 미 숙

홍화복의 운수. ③ 천명(天命 : 하늘의 뜻). ④ 시운(時運), 큰 왕운(旺運).

13) 번복(翻覆) : ① 번복하다(이리저리 뒤집히다). ② 반복하다.

14) 일침(一枕) : ‘일와(一臥 : 잠깐 눕다)’와 같다. 누우면 반드시 베개를 베는 까닭에 일컫는 말.

15) 한단몽(邯鄲夢) : 당(唐)나라의 사관(史官)이자 전기작가(傳奇作家)인 심기제(沈既濟 : 750?-800?)가 쓴 『침중기(枕中記)』에 보이는 내용이다. 이에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서기 731년에, ‘노생(盧生)이 한단(邯鄲 : 전국시대(戰國時代) 조(趙)나라의 수도였던 곳.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임)의 한 여인숙에서 우연히 도사(道士) 여옹(呂翁)을 만났는데, 그가 빌려준 자기(瓷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노생은 수십 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꿈속에서 깨어보니, 자신이 자리에 누울 때 여인숙 주인이 짓기 시작하던 메조 밥이 아직 다 익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 꿈을 “한단몽(邯鄲夢)”이라고 하며, 이를 ‘허황된 일’이나 ‘꿈처럼 덧없는 부귀공명’ 또는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에 비유하였음.

이 ‘한단몽(邯鄲夢)’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로, 황량미몽(黃梁美夢), 일침황량(一枕黃梁), 한단지침(邯鄲之枕), 노생지몽(盧生之夢) 등이 있음.



시63. 달밤에 서당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

詩63. 月夜書堂有感
월 야 서 당 유 감

靜臥書齋夢不成¹⁾,
정 와 서 재 몽 불 성

서재에 고요히 누웠으나
잠 이룰 수 없어,

起憑江檻²⁾夜三更³⁾。
기 병 강 함 야 삼 경

야삼경夜三更에 일어나
강변 쪽 난간에 기대보네.

都無地界⁴⁾游氛⁵⁾動,
도 무 지 계 유 분 동

시야視野가 온통 흐릿하게
운무雲霧가 흐르는데,

只有天心⁶⁾霽月⁷⁾明。
지 유 천 심 제 월 명

단지 하늘 가운데만 비 갠 뒤의 명월이
선명하네.

-
- 1) 몽불성(夢不成) : 꿈을 꿀 수 없다는 뜻으로, ‘잠들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 ‘불성(不成)’은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임.
 - 2) 강함(江檻) : 강변 쪽의 난간.
 - 3) 야삼경(夜三更) :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셋째의 경(更)으로, 자정(子正) 전후, 곧 밤 11시 ~1시까지를 가리킴. 자세한 것은 <시 47> 주석 4)의 ‘잔경(殘更)’ 조항을 참조 바람.
 - 4) 지계(地界) : ① 영토나 전지(田地) 또는 가옥이나 도로 및 산천의 경계선. ② 사물이 밝게 보여 분명하게 보이는 사물간의 경계선을 가리킴.
 - 5) 유분(游氛) : ① 흘러가는 운무(雲霧). ② 감도는 운무(雲霧).
 - 6) 천심(天心) : ① 하늘의 중앙부분. ② ‘천의(天意 : 하늘의 뜻)’와 같음. ③ 군주의 의향(생각). ④ 본성, 본심.
 - 7) 제월(霽月) : ① 비가 갠 하늘의 맑은 달. ② 풍하게 멎힌 데가 없는 산뜻한 심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梧葉耿多涼露濕,
오엽경다양노습

오동잎 반짝반짝 찬 이슬에 젖어있고,

石池⁸⁾寒咽⁹⁾細泉鳴。
석지한열세천명

석지石池는 처량하게 졸금졸금
옹달샘 샘물은 졸졸.

何方¹⁰⁾了得¹¹⁾平生事,
하방료득평생사

무슨 수로 평생사平生事를 훤히
깨닫겠나,

還愧中宵¹²⁾一氣清¹³⁾。
환괴중소일기청

한밤중 일거에 정신 맑아질 때는
아직도 부끄러운 것을!

-
- 8) 석지(石池) : ① 물을 담아 연꽃 따위를 심는 함지모양의 돌 그릇. ② 소택(沼澤)에서 우뚝한 물그릇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돌로 된 물 통로.
 - 9) 한열(寒咽) : 처량하게 졸금졸금 흘러넘치다.
 - ① 한(寒) : ‘소리의 쓸쓸한 음색’을 표현한 것임.
 - ② 열(咽) : 소리가 막히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대체로 비통한 것을 표현하는 데 많이 쓰임. 여기서는 석지(石池)에 고인 물이 석지 가장자리로 흘러 넘쳐서 떨어지는 형상을 표현한 것임.
 - 10) 방(方) : ① 방법. ② 도리(道理).
 - 11) 요득(了得) : ① 환히 깨닫다, 분명히 이해하다. ② 뛰어나다, 굉장하다. ③ 처리하다, 취급하다. ④ 완성하다.
 - 12) 환괴중소(還愧中宵) : 아직도 한밤중이면 부끄럽다. 여기서 중소(中宵)는 ‘한밤중, 야반(夜半), 중야(中夜)’를 뜻함.
 - 13) 일기청(一氣清) : 일거에 정신이 맑아진다.
 - ① 일기(一氣) : 일거에. 단숨에. 거침없이.
 - ② 청(淸) : 정신이 맑아진다.



시64. 먼 곳의 사람을 그리워하며

詩64. 遠思¹⁾
원 사

我所思兮²⁾在何許³⁾,
아 소 사 혜 재 하 허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어느 곳에 있고?

山高水長兮天一方。
산 고 수 장 혜 천 일 방

산 높고 강물 길게 흐르는
하늘 한 쪽 끝일세.

宿昔⁴⁾相逢兮嬉而笑,
숙 석 상 봉 혜 회 이 소

언제나 서로 만나면 즐거워하며
웃었는데,

忽焉⁵⁾生離兮參與商⁶⁾.
홀 언 생 리 혜 삼 여 상

홀연 생이별 후 삼성參星과 상성商星마냥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됐네.

- 1) 원사(遠思) : 본 시는 초사체(楚詞體)의 시 형식으로, 남녀관계의 상련(相戀)을 빌어, 군신(君臣) 혹은 현자(賢者)와의 만남을 갈구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2) 혜(兮) : 중국 고대 시·사·부(詩辭賦) 중에 쓰이던, 조사(助詞)로서, 주로 시구(詩句)의 가운데나 혹은 끝에 쓰여 어기(語氣)를 부드럽게 하는 의미 없는 어조사임.
- 3) 하허(何許) : ① 어느 때. ② 어느 곳. ③ 왜 이렇게. ④ 어떻게, 왜, 어째서.
- 4) 숙석(宿昔) : ① 종전(從前), 지난 날(왕일(往日)). ② 늘, 언제나, 줄곧, 오랜 시간이 경과하다. ③ ‘노년(老年)’과 같음. ④ 저녁. ⑤ ‘조석(朝夕)’과 같은 말로서, 단시간 이내를 비유한 것임.
- 5) 홀연(忽焉) : ① 홀연(忽然)히. ②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모양.
- 6) 삼여상(參與商) : 삼성(參星)과 상성(商星)의 두 별을 칭하는 것으로, 전자는 서쪽에 있고, 후자는 동쪽에 있어서, 전자의 별이 뜨면, 후자의 별이 지는 까닭에 영원히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별들임.
① 삼성(參星) :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스물한 번째 별자리의 별로서, 오리온자리에

欲往從之兮不可得,
욕 왕 종 지 혜 불 가 득

뒤따라 쫓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니,

登山無車兮涉水無航。
등 산 무 거 혜 섭 수 무 항

산을 오를 수레 없고
물을 건널 배도 없네.

嗚呼⁷⁾奈何⁸⁾兮北風涼,
명 호 내 하 혜 북 풍 량

아아! 어찌할거나 북풍이 차가운데,

懷椒握蘭⁹⁾兮徒自芳。
회 초 악 난 혜 도 자 방

가슴에 산초 품고 손에 난초 드니
부질없이 향기만 풍기네.

있으며, 중앙에 나란히 있는 세 개의 큰 별을 ‘삼형제 별’이라 함.

② 상성(商星) : 이십팔수(二十八宿) 중의 다섯 번째 별자리(즉 진갈자리)로서, 심수(心宿) 또는 대진(大辰) 혹은 대화(大火)라고도 함. 삼성(參星)은 서쪽에 있고 상성(商星)은 동쪽에 있어서, 이 두 별이 뜨고 지는 시각이 서로 상반되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친구끼리 서신이나 내왕이 두절되어 서로 만날 수 없음을 비유할 때 씀.

7) 오호(嗚呼) : 아아!(슬플 때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8) 내하(奈何) : 어찌 ~할 수 있겠는가(주로 반문(反問)으로 사용되며, 여하(如何)와 뜻이 유사함).

9) 회초악난혜도자방(懷椒握蘭兮徒自芳) : 가슴에 산초 품고 손에 난초 드니 부질없이 향기만 풍기네) : 임이 너무 멀리 있어 다만 산초(椒)는 가슴에 품고 난초(蘭)는 손에 들고 있자니, 부질없이 향기만 진동하여, 가슴만 절여온다는 것을 환기시켜, 시제(詩題)인 [원사(遠思)]를 상기(想起)하게 하고 있음.

① 초(椒) : 이는 그루마더 열매가 많이 열리고 씨앗이 많고 향기가 진동하며, 쉽게 번식함으로 고인(古人)들은 이로써 자손만당(子孫滿堂)을 비유하였음. 이를 실내의 벽에 칠하여, 온기와 향기를 취하였으며, 이로써 다자(多子)를 기원하는 습속이 있었다고 함. 한대(漢代)에는 황후(皇后)의 궁전을 “초방(椒房)”이라고 칭하였고, 항상 향초(香椒)의 열매로써 실내를 장식하였다고도 함.

② 난(蘭) : 요초(瑤草)임. 『좌전(左傳)』 선공 3년에 기재를 보면(『左傳』宣公三年) : 정문공에게는 연고(燕姑)라고 하는 천첩이 있었는데(鄭文公有賤妾曰燕姑), (어느 날 밤에 그녀는) 천사(天使)가 자기에게 난초를 주는 꿈을 꾸었다. 천사는 꿈에서 말하기를(夢天使與己蘭, 曰) : 나는 백숙(伯儵)이라고 하는데, 바로 너의 조상이다(余爲伯儵, 余而祖也). 이것(난초)으로써 너의 보배로 삼거라(以是爲而子). 난초에게는 나라 안에서 제일가는 향기가 있으니(以蘭有國香), 네가 (이를) 몸에 지니게 되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人服媚之如是). 꿈을 꾸고 난 뒤에, 문공을 만났는데(既而文公見之), (문공은 그의 천첩인) 연고(燕姑)에게 그 난초를 주고 그것을 몸에 장식하도록 했다(與之蘭而御之). “사람들은 그녀를 아름답다고 탄복했다(人服媚之)”라고 기록되어 있음.



시65. 청풍현¹ 淸風縣의 한벽루² 寒碧樓에 묵으면서

(서문을 병기함)

詩65. 宿淸風寒碧樓¹ 并序

壬辰, 余扈駕² 義州, 七月, 遼東副總兵祖承訓³ 率五千兵來援.
임진 여호가 의주 칠월 요동부총병조승훈 솔오천병래원

余先出安州調兵食, 承訓進攻平壤, 不利而還, 余因留安州, 十二月,
여선출안주조병식 승훈진공평양 불리이환 여인유안주 십이월

始受體察使⁴ 之命.
시수체찰사 지명

明年正月八日, 天兵⁵ 收復平壤, 余又先出黃海、京畿等地,
명년정월팔일 천병 수복평양 여우선출황해 경기등지

催運糧餉, 既而⁶ 天將李提督如松⁷ 合三營⁸ 兵進駐坡州.
최운량량 기이 천장이제독 여송 합삼영 병진주파주

- 1) 청풍한벽루(淸風寒碧樓) : 충청북도 제천시(提川市) 남쪽에 위치한 청풍면(淸風面) : 1660년 부(府)로 승격하기 전까지는 현(縣)이었음 읍리(邑里)에 소재하는 누각. 누(樓)는 석축토단(石築土壇)의 덩빙 주초(柱礎) : 둥글넓적한 자연석을 다듬지 아니하고 놓은 주춧돌) 위에 엔타시스(entasis)수법을 쓴 증하주(曾下柱) : 증하주(層下柱)를 세우고 마루를 설치하였음. 누각에는 송우암(宋尤庵), 부사(府使) 박필문(朴弼文),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등의 <청풍한벽루(淸風寒碧樓)>라고 새긴 액자(額子)가 있음. 보물 582 호임.
- 2) 호가(扈駕) : 군주가 탄 수레를 호종(扈從)함. ‘호(扈)’는 ‘군주의 뒤를 따르다’는 뜻임.
- 3) 조승훈(祖承訓) : 명(明)나라 신종(神宗) 때의 장군. 요동(遼東) 지방에서 전공(戰功)을 많이 세우고 요동 부총병(副總兵)으로 있다가, 임진왜란 때에 조선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발대로 5천 명을 거느리고 좌참장 곽몽징(郭夢徵), 우참장 대조변(戴朝弁), 유격 사유(史儒) 등과 더불어 조선에 들어왔음. 이때 왜적은 평양 남쪽 중화현(中和縣)에 성을 쌓기 위하여 많은 병력을 그곳에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남진시켜 평양에 이르러 비바람이 심한 밤을 틈타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전세(戰勢)가 역전하여 악전고투하다가 기습을 받아 대조변과 사유는 전사하고 승훈은 병력을 거두어 퇴각하였음.
- 4) 체찰사(體察使) : 조선시대 군직(軍職)의 하나. 국가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총찰(總察)하는 임무를 지녔는데, 재상이 겸임하는 것이 상례였음.
- 5) 천병(天兵) : ‘천자(天子)가 통솔하거나 파견하는 군대’라는 뜻에서, 중국의 봉건왕조시대의 군대를 이룸.
- 6) 기이(既而) : 시간부사(時間副詞)로서, ‘오래되지 않아, 머지않아, 곧’의 의미를 지님.
- 7) 이제독 여송(李提督如松) :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쓰는 것이 옛적의 주례(周禮)에 근거한 의례 양식임.
 - ① 제독(提督) : 관명(官名). 명(明)나라 때에 설치되었으며, 무관(武官)임. 초기에는 내신(內臣) : 궁정(宮廷)의 측근신하로서 황제신변의 호위관인, 환관, 태감(太監) 등을 가리킴)이나 문신(文臣)으로 그 직무를 맡겼고, 그 직위는 총병(總兵, 摠兵)의 상관이며, ‘감찰(監察)’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先鋒遇賊于碧蹄⁹⁾南, 爲賊所敗。三營悉退屯開城府, 又自開城退平壤。
신 불 무 직 우 벽 제 남 위 적 소 패 삼 영 실 퇴 둔 개 성 부 우 자 개 성 퇴 평 량

余獨與天將查總兵大受¹⁰⁾毋遊擊, 承宣¹¹⁾等, 留臨津北岸者凡數月。
여 독 여 천 장 사 총 병 대 수 무 유 격 승 선 등 유 름 진 북 안 자 범 수 월

영락년간(永樂年間 : 1403-1424)에는, 황제 신변 호위와 수도경비 업무를 맡은 삼대영(三大營)의 병력에 모두 내신(內臣)으로 제독을 임명하였음.

정덕년간(正德年間 : 1506-1521)에는 황제가 ‘제독(提督)’을 자칭(自稱)하였음. 중엽 이후에는 순무사(巡撫使 : 지방에 파견하여 민정과 군정을 순시하던 대신)가 다수 제독의 직함을 지녔고, 간혹 총병(總兵)도 제독의 직함을 지닌 자가 있었음.

만력년간(萬曆年間 : 1573-1620)에는 ‘제독(提督)’이란, 전임직을 설치했지만, 상설(常設)하지는 않았음.

- ② 이여송(李如松 : ?-1598) : 명(明)나라 무장(武將). 자는 자무(子茂), 호는 양성(仰城). 요동(遼東) 철령위(鐵嶺衛) 출신. 1592년 영하진(寧夏鎮 :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고원현(固原縣))에서 몽고족(Mongol族)의 한 갈래인 타타르 족(Tatar 族 : 달단(韃靼)으로 음역함)의 후예인 발배(唭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제독으로서 이를 평정하였음. 같은 해,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2차 원군으로 4만(四萬)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 1593년 1월 평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의 일본군을 격파하여 전세(戰勢)를 역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에 위치한 벽제관(碧蹄館) 싸움에서 고마야카와 다카카게(소조천룡경<小早川隆景>)에 패한 후로는 평양성을 거점으로 화의교섭(和議交涉)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 해 말에 철군하였음. 1597년 요동총병관(遼東總兵官)이 되었으나, 이듬해 토번(土蕃)의 침범을 받아 반격 중에 전사하였음.
- 8) 삼영(三營) : 조선시대의 훈련도감(訓練都監) : 조선시대 5군영의 하나. 수도(首都)를 수비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군사훈련을 시키던 곳)·금위영(禁衛營 : 조선시대 5군영(오군영<五軍營> 중의 하나로, 서울 호위의 임무를 맡았음)·어영청(御營廳 :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군영(軍營))의 총칭. 일명 삼군문(三軍門)이라고도 함.
- 9) 벽제(碧蹄) :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벽제면(碧蹄面)에 소재한 옛적 역관(驛館)인 벽제관(碧蹄館)을 가리킴.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일본군과 명군(明軍)이 격전을 벌여 명나라군이 패했음.
- 10) 사총병 대수(查總兵大受) : 총병(總兵) 사대수(查大受).
 - ① 총병(總兵) : 명(明)나라 무관(武官). 품계(品階)도 없고 정원(定員)도 없음. 총병(總兵)이 관할하는 지역을 진(鎭)이라고 하여, 총진(總鎭)이라고도 하며, 국가를 대신하여 군대를 출정(出征)시킬 때, 별정직으로 총병관(總兵官)과 부총병관(副總兵官)을 설치하여 군무(軍務)를 총괄도록 했음. 초기에는 대체로 공(公), 후(侯), 백(伯) 등 작위를 가진 도독(都督)으로 총병(總兵)에 충당했던 고로 각자의 품계를 유지했으나, 나중에는 총병관(總兵官)을 어느 한 지역의 군사 요충지에 파견하여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다가 점차 이 무관(武官)을 상주(常駐)시켜 변방 또는 내륙 요충지의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했음. 총병관(總兵官)의 약칭이 총병(總兵)임. 총병의 상관(上官)으로 제독(提督), 제조(提調), 순시(巡視) 등이 있으나 이 직급의 명칭은 사안(事案)에 따라 다름.
 - ② 사대수(查大受) : 명(明)나라 요동변(遼東邊) 철령위(鐵嶺衛), 지금의 요령성(遼寧省) 철령현(鐵嶺縣)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명군(明軍)의 부총병(副總兵)으로 조선을 구원하러 들어와 평양에서 전공(戰功)을 세운 다음, 경기도 고양군(高陽郡)의 벽제관(碧蹄館) 전투에서 패했으나, 총병(總兵)이 되어, 경상도 울산(蔚山) 등 지역에서 왜적과 싸워 공을 세웠음.

四月，賊投書乞和，李提督自平壤復至開城府，日遣辯士沈惟敬¹²⁾等

誘賊出城，二十日，賊始離漢城南歸。是日，余隨天兵入京城，

力勸李提督追賊，不從。

二十三日，余病臥。至六月中始起時賊屯據海邊，不肯渡海，

聞將復犯晉州。余力疾南下，至星州安彥驛，聞晉州已陷，是夕，

余宿高靈縣，賊已入草溪¹³⁾，去高靈三十里。余將收召¹⁴⁾將士，

欲保右道¹⁵⁾一半，而劉摠兵¹⁶⁾吳遊擊惟忠¹⁷⁾皆率兵來會陝川。

11) 승선(承宣) : 조선시대 왕명(王命)의 출납을 맡아보던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의 이칭(異稱).

12) 심유경(沈惟敬 : ?-1600) : 임진왜란 때, 명(明)나라에서 파견한 사신(使臣).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가흥현(嘉興縣) 출신. 명나라 선봉장 조승훈(祖承訓)이 원군(援軍)을 이끌고 조선에 올 때,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임명되어 함께 왔음.

1592년(선조 25) 심유경(沈惟敬)은 사용재(謝用粹)와 서일관(徐一貫) 등을 대동하고 왜군과 같이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토미(〈풍신수길 : 豊臣秀吉〉)의 본영에 들어가 강화(講和)를 논의했음. 2, 3년간 사신이 왕래하며 교섭했으나 화의(和議)는 결렬되었음. 이때, 도요토미는 명(明)에 대하여 7개 조항, 즉: 첫째, 명(明)의 황녀(皇女)로 일본의 후비(後妃)를 삼을 것. 둘째, 감합인(勘合印 : 무역증인〈貿易證印〉)을 복구할 것. 셋째, 조선8도(八道) 중 4도를 할양할 것. 넷째, 조선왕자 및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을 것 등을 내걸었음.

심유경은 이 요구가 본국인 명(明)나라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거짓으로 본국에 보고하여 도요토미를 왕에 책봉(冊封)하고 조공(朝貢)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봉공안(封貢案)을 내세워 명나라의 허가를 얻었음.

이러하여 명나라는 1596년(선조 29), 이종성(李宗城), 양방형(楊方亨)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화의를 성립시키고자 하였음. 심유경은 부산에서 이종성을 위협하고 스스로 부사(副使)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화의(和議)는 결렬되었음. 명나라에서 보낸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에 봉한다는 책서(冊書)와 금인(金印)을 받아든 도요토미는 크게 노하여, 명(明)의 제의를 거절하고 사신을 돌려보낸 후, 조선에 대한 재침략을 준비하였음.

심유경은 귀국하여 거짓으로 화의 성립을 아뢰고 도요토미가 수봉(受封)을 인정하였다고 조정을 기만하였음. 이렇게 하여, 1597년(선조 30) 일본이 조선을 재침략(이것이 이른바 정유재란〈丁酉再亂〉)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외교적 사기극이 탄로 났음. 심유경은 당시 명나라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재직 중이던 석성(石星)의 도움으로 화를 면하고 다시 조선에 들어와 화의를 교섭했으나 실패하였음. 이에 심유경은 일본에 항복할 목적으로 경상도 의령(宜寧)까지 갔으나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음.

13) 초계(草溪) : 지금의 경상남도 북서부에 위치한 함천군(陝川郡)에 있는 지명.

14) 수소(收召) : 소집하다, 모집하다.

15) 우도(右道) : 조선시대의 행정구획으로 각도를 둘로 나누었을 때, 그 한 쪽을 이르던 말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하고, 경기도의 북쪽, 충청, 전라, 경상, 황해도의 서쪽을 우도(右道)라 하고 그 반대쪽을 좌도(左道)라고 하였음.

16) 유총병정(劉摠兵縱) : 총병(摠兵 : 즉 총병(總兵)) 유정(劉縱).

余亦隨至陝川，數日，召赴¹⁸⁾行在，道安東，省大夫人¹⁹⁾，
 躑竹嶺至原州新林院。又有旨²⁰⁾姑留本道²¹⁾，約束²²⁾諸將，
 遂自新林還抵清風。
 登寒碧樓，感事²³⁾興懷²⁴⁾，情見于辭²⁵⁾，時車駕駐海州。

- ① 유정(劉縉 : ?-1619) :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온 명나라 장수. 명나라 강서(江西) 남창(南昌) 출신. 자는 자신(子紳), 호는 성오(省吾). 임진왜란(1592년) 때, 왜군이 서울 등 지역을 함락하고 기세가 등등하였으나, 이듬해(1593년)에 명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평양, 개성 등 지역을 수복하고 바야흐로 서울을 수복하려고 할 때 명나라에 다시 원병 증원을 청하매 당시 사천부총병(四川副總兵)이던 유정(劉縉)은 5천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입국하였음. 그러나 그 해, 경기도 고양군(高陽郡)의 벽제관(碧蹄館) 싸움에서 명나라 군대가 대패하자, 이듬해(1594년) 철병하고 말았음.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전라도 남원(南原)에서 큰 타격을 입은 조선은 부득이 또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여 이듬해(1598년) 유정(劉縉)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입국, 운봉현(雲峰縣 : 지금의 전북 남원군 운봉면〈雲峰面〉) 등 지역에서 왜군과 싸우고, 예교성(曳橋城 : 지금의 전남 순천시〈順천시〉) 동남부에 위치한 지명)에서 패하여 부유현(富有縣 : 지금의 전남 승주군〈昇州郡〉에 위치했던 지명)으로 퇴진,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강화(講和)하고자 했으나, 난리가 일단락 지어지고, 왜군이 몰려감에 유정(劉縉)도 철수하여 명나라로 귀국하였음. 1618년(광해군 10) 명나라 요동(遼東)에서 누르하치(Nurhachi : 노아함적〈奴兒哈赤 : 1559-1626〉)의 후금군(後金軍 : 후일의 청〈淸〉나라 군대)을 칠 때 좌도독(左都督)으로 참전, 이듬해 조선과의 연합군이 부차현(富車縣 : 지금의 요령성〈遼寧省〉 무순현〈撫順縣〉)의 노성(老城) 60리 지점에서 패할 때 전사하였다.
- 17) 오유격유충(吳遊擊惟忠) : 유격대장 오유충(吳惟忠).
- ① 오유충(吳惟忠) :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병으로 온 명나라의 장군. 당시 그는 부총병(副總兵)으로서 제독 이여송을 따라 참전하였음. 이듬 해 휴전이 되자 경상도 산산(善山)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도 충주(忠州)에서 싸웠음.
- 18) 소부(召赴) : ‘부소(赴召)’로도 씀. 조정(朝廷)의 소환(또는 징집, 관직수여)에 응하다.
- 19) 대부인(太夫人) : 남의 모친에 대한 존칭이나, 여기서는 서예(西厓) 류성룡(柳成龍)의 자당(慈堂) 안동 김씨를 가리킴.
- 20) 지(旨) : 성지(聖旨). 임금의 뜻.
- 21) 본도(本道) : 원래 근무하던 도(道)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충청도’를 가리킴. 1593년(선조 26) 3월에, 서예(西厓) 류성룡(柳成龍)은 충청, 전라, 경상 3도 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로 임명되어 있어, 근무지가 이 3개도(三個道)였기 때문에 이르는 말임.
- 22) 약속(約束) : ① 단속하다. ② 속박하다. ③ 법령(法令).
- 23) 감사(感事) : ① 어떤 일로 인해 감흥(感興)을 받다. ② 외계사물의 감동을 받다.
- 24) 흥회(興懷) : 감동하다, 감명하다.
- 25) 정견우사(情見于辭) : 정견호사(情見乎辭) 또는 정견호사(情見乎詞)라고도 씀. 감정(실상, 진심)을 언사(言辭)로 드러내다(표현하다)는 뜻임.

임진년(壬辰年 : 1592년, 선조 25, 서애 51세)에 나는 몽진(蒙塵 : 임금의 피란함)하는 어가(御駕)를 모시고 의주(義州 : 평안북도 서북단)에 갔는데, 그 해 7월에 요동부총병(遼東副總兵 조승훈(祖承訓)이 병사 5천 명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왔다. 나는 한 발 앞서 안주(安州 : 평안남도 서북단)로 가서 병력과 군량미를 조달하였는데, 조승훈이 평양(平壤)으로 진격하였으나, 전세(戰勢)가 불리하여 퇴각하였다. 나도 이로 인하여 안주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12월이 되어서 곧 체찰사(體察使)의 명을 받았다.

이듬해(1593년) 1월 8일 명나라 군대가 평양을 수복(收復)하였기에, 나는 또 한 발 앞서 황해도와 경기도 등 지역으로 나가서 군량미 운반을 독촉했는데,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명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조선의 삼영(三營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병력과 연합하여 파주(坡州 :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함)로 진격하였다. 이 원군(援軍)의 선봉부대가 벽제관(碧蹄館 : 경기도 고양군) 남쪽에서 왜적과 만나 격전을 벌였으나 패했다. 그리하여 조선의 삼영병(三營兵)은 모두 개성부(開城府)로 퇴각하여 방위하다가 다시 개성에서 평양으로 후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내 독단으로 명나라 총병(總兵 사대수(查大受)와 함께 (왜적과) 유격전(遊擊戰)을 전개할 수 없어서, 승선(承宣 : 왕명출납을 맡아보던 정3품 벼슬)을 비롯한 여러 관원들과 함께 임진강(臨津江) 북안(北岸)에 주둔(駐屯)한 기간이 무릇 수개월이나 되었다.

4월에 왜적이 강화(講和)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와서, 이여송(李如松) 제독은 평양에서 다시 개성부(開城府)로 오고, 일본도 번사(辯士)를 파견해 오자, 명나라의 장수 심유경(沈惟敬) 등은 왜적을 권유(勸誘)하려고 성 밖으로 나간 지 20일 만에, 마침내 왜적이 한성(漢城 : 한양(漢陽))을 떠나 남쪽으로 돌아갔다. 이 날 나는 명나라 군대를 따라 경성(京城)에 들어와 이여송(李如松) 제독에게 왜적을 추격할 것을 힘써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

23일, 나는 병이 나서 6월 중순까지 앓아누웠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왜적은 남쪽의 해변에 주둔하면서, 바다를 건너 회군(回軍)하려 들지 않고 진주(晉州 : 경상남도 남서부)를 다시 침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다급하게 남하하여 성주(星州 : 경상북도 남서부)의 안언역(安彦驛)에 도달하였으나, 진주(晉州)가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저녁 나는 고령현(高靈縣 : 경상북도 남서부)에서 숙박하였는데, (이때) 왜적은 이미 초계현(草溪縣 : 경상남도 합천(陝川))에 침입하여 고령현(高靈縣) 30리 밖까지 진군해왔다. 나는 곧 장병을 모집하여 우도(右道) 절반을 보전하려 하자, (명나라 장수인) 총병(總兵 유정(劉綎)과 유격대장(遊擊大將 오유충(吳惟忠) 등 모두가 병사들을 인솔하고 합천현(陝川縣)에 집결하였다. 나 역시 그들을 따라 합천현에 도달했는데, 며칠 안 되어서 조정의 소환령(召還令)에 응하여,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궁을 떠나 멀리 나들이 할 때

임시로 머물던 곳)로 가는 길에 안동(安東 : 경상북도 북부)에 들러 대부인(大夫人 : 서애 류성룡이 자당(慈堂)인 안동 김(金)씨를 칭한 것임)을 찾아뵙고 문안을 드린 다음, 죽령(竹嶺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있는 고개, 높이 689m)을 넘어 원주(原州 : 강원도 남서부)의 신림원(新林院)에 도달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분부가 내리기를, '아직 본도(本道 : 원래 근무하던 도<道>란 뜻으로, 여기서는 '충청도'를 가리킴)에 머물러 제장(諸將)들을 단속하라'는 성지(聖旨)를 받들어서, 마침내 신림원(新林院)에서 청풍현(淸風縣)으로 돌아왔다.

한벽루(寒碧樓)에 올라 업무로 인하여 느낀 바가 있어 정감(情感)을 언사(言辭)로 표현하였는데 이때, 어가(御駕)는 해주(海州 : 황해도 남서부)에 머물고 계셨다.

落月微微²⁶⁾下遠村, 지는 달 아스라이 먼 마을로 내려가고,
 낙 월 미 미 하 원 촌

寒鴉²⁷⁾飛盡秋江碧。 까마귀 날아간 뒤 가을 강만 푸르네.
 한 아 비 진 추 강 벽

樓中宿客不成眠, 누각에 묵는 나그네 잠 설치고 있는데,
 누 중 숙 객 불 성 면

一夜霜風聞落木。 밤새껏 찬바람에 낙엽 소리만 들리네.
 일 야 상 풍 문 낙 목

二年飄泊干戈際²⁸⁾, 두 해째 떠돌면서 전란을 겪는 동안,
 이 년 표 박 간 과 제

26) 미미(微微) : ① 몽몽(蒙蒙). ② 어슴프레하다. 어둑어둑하다. ③ 미천하다. ④ 보잘 것 없이 아주 미약한 모양. ⑤ 단아하고 심원하다. ⑥ 그윽하고 고요한 모양. ⑦ 작은 모양.
 27) 한아(寒鴉) : ① 까마귀의 총칭. ② 겨울철의 까마귀. ③ 굵주린 까마귀. ④ 추위에 시달리는 까마귀.

萬計悠悠²⁹⁾頭雪白。
만 계 유 유 두 설 백

온갖 계책 짜내느라 백발이 다 되었네.

衰³⁰⁾淚無端數行下，
쇠 루 무 단 수 향 하

늙은이 눈물 무단히 몇 줄기 흘러내려,

起向危欄³¹⁾瞻北極。
기 향 위 난 침 북 극

일어나서 난간에 나가 북극성 바라보네.

28) 이년표박간과제(二年飄泊干戈際 : 두 해째 떠돌면서 전란을 겪는 동안) :

① 표박(漂泊) :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② 간과(干戈) : ☆방패와 창. 전(轉)하여 전쟁에 쓰는 병장기(兵仗器)의 총칭. ☆전쟁.

③ 제(際) : ☆때, 무렵, 시기. ☆ ~사이, 상호간. ☆가, 끝.

29) 유유(悠悠) : ① 끝이 없는 모양. ② 한이 없이 크고 먼 모양. ③ 때가 오랜 모양. ④ 흘러가는 모양. ⑤ 근심하는 모양. ⑥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 ⑦ 많은 모양.

30) 쇠(衰) : 노쇠한 얼굴.

31) 위난(危欄) : 높은 난간.

시66. 재미삼아 벽에 써 보다

(갑오년 甲午年 : 1594년, 선조 宣祖 27, 서애 西厓 53세)

詩66. 戲題¹⁾壁上 甲午 희 제 벽 상 갑 오



謂我無世念²⁾, 나더러 속된 생각이 없다고들 하는데,
위 아 무 세 념

何苦遑遑³⁾朝復夕。 왜 아침저녁으로 허둥지둥 걱정하나?
하 고 황 황 조 부 석

謂我有世念, 나더러 속된 생각이 있다고들 하지만,
위 아 유 세 념

十日揜關⁴⁾甘衰疾⁵⁾。 열흘간 문 닫아 걸고 기꺼이
십 일 엄 관 감 쇠 질
수행修行 할 수도 있다네.

-
- 1) 희제(戲題) : ① 시사(詩詞)를 희학적(戲學的)으로 쓰다. ② 장난삼아(농삼아) 쓰다. ③ 익살스럽게 쓰다.
 - 2) 세념(世念) : 속념(俗念), 곧 진세지념(塵世之念)과 같은 말로서, 세상살이에 관한 생각임.
 - 3) 황황(遑遑) : ① 마음이 몹시 급하게 허둥지둥하는 모양. ②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게 급하다. ③ 질겁하고 총망스러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모양.
 - 4) 엄관(揜關) : 대문을 닫아걸다.
① 엄(揜) : 빗장을 지르다.
② 관(關) : 닫다.
 - 5) 쇠질(衰疾) : '쇠병(衰病)'과 같은 말로서, 쇠약해져 질병에 걸리다는 의미이나, 본 시에서는 육체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서, '유학자로서 수양부족에 대한 자각과 성찰(省察)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음.

有念無念君莫問，
유념 무념 군막문

속된 생각이야 있건 없건
그대는 묻지 말고,

看我頭邊⁶⁾生白髮。
간아 두변 생백발

내 머리에 늘어난 백발이나 보시게.

6) 두변(頭邊) : ① 머리 근처. ② 꼭대기 부분. ③ (어떤 절후, 계절의) 즈음(무렵)이나 (어떤 물체에) 근접한 가장자리를 이룸.

시67.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눈을 만나서
 읊은 시 두 수

詩67. 南漢山城¹⁾ 遇雪 二首²⁾
 남한산성 우설 이수



其一
 기 일

[1]

東郊匹馬³⁾ 曉光微⁴⁾, 필마로 동쪽 교외 나설 때는
 동 교 필 마 효 광 미 먼동이 어렴풋이 났는데,

暮入南城雪滿衣。 해질 무렵 남한산성 들어서니
 모 입 남 성 설 만 의 옷이 온통 눈투성이였네.

- 1) 남한산성(南漢山城) :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에 있는 산성. 1595년(선조 28)에 축조, 병자호란(丙子胡亂 : 1636년<인조 14>) :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 때, 왕이 피난했었지만, 결국 45일 만에 굴욕의 항복을 한 옛 전쟁터. 이곳은 또한 백제의 왕도(王都)였음. 그래서 백제 시대의 토기(土器)와 와편(瓦片) 등이 발견됨. 성벽의 주위가 약 8km이며, 현존하는 성벽은 광해군(光海君) 때, 시작하여 1626년(인조 4) 사이에 여러 차례 중수축(重修築)된 것임. 사적 57호.
- 2) 본 시는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거하면, 서애가 54세 되던 해(1595년, 선조 28), 11월, 남한산성을 순시할 당시에 작시(作詩)된 것으로 보임.
- 3) 필마(匹馬) : 한 필의 말. 주로 ‘필마(匹馬)’의 형태로 써서, ‘테리고 가는 사람 없이 혼자 말을 타고 가다’는 뜻을 나타냄.
- 4) 효광미(曉光微) : 먼동이 어렴풋이 트다.
 - ① 효광(曉光) : 새벽녘의 희뿌연 햇빛. 서광(曙光).
 - ② 미(微) : ☆밝지 않다, 어둡다. ☆어렴풋하다.

匡世⁵⁾未應⁶⁾無寸策, 세상 바로 잡는데 촌책寸策도 없어
 광 세 미 응 무 촌 책
 아직 대응 못하니,

獨⁷⁾憐心與事相違. 세상사 뜻 같지 않음이 애석할 뿐이로세.
 독 련 심 여 사 상 위

其二
 카 이

[2]

溫王城堞在山阿⁸⁾, 온조왕溫祚王 때 도성都城 성가퀴
 온 왕 성 첩 제 산 아
 산기슭에 남아 있어,

故國繁華欲問何. 고래 국가 번영이 어땠느냐고 묻고 싶네.
 고 국 번 화 욕 문 하

-
- 5) 광세(匡世) : 세상 상황(형편)을 바로 잡다.
 6) 미응(未應) : ① ~이 아니다. 적당한 시기 혹은 형편이 아니다. ② 아직 ~않다, 일찍이 ~않다. ③ ~할 필요 없다. ④ 응당 ~않다.
 7) 독(獨) : 단지, 다만.
 8) 온왕성첩재산아(溫王城堞在山阿 : 온조왕 때 도성(都城) 성가퀴 산기슭에 남아 있어) :
 ① 온왕(溫王) : 온조왕(溫祚王)을 지칭. 온조왕은 백제(百濟)의 시조로서, 재위기간이 B.C. 18-A.D. 28년.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 : 동명왕(東明王) 즉,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졸본(卒本)의 왕녀(王女)인 소서노(召西奴)임.
 북부여에서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진처 소생인 유리(琉璃)가 졸본부여(卒本扶餘 : 고구려)로 와서 고구려의 태자가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온조는 동복형(同腹兄)인 비류(沸流)와 남하하여, 도움을 정하는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자,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 인천<仁川>)로 가고, 온조는 위례성(慰禮城 :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 부근이라는 설과 충남 천안시 북면 일대라는 설이 있음)에 도움을 정했음.
 온조는 이때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고, 십신(十臣)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류가 죽은 후, 그의 백성들이 위례성에 모여들자, 국호를 백제(百濟)로 고치고,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고 함.
 왕 8년에는 말갈(靺鞨 : 만주족의 선조도 한반도 북부에 거주했음)의 내침을 당했고, 왕 14년(B.C. 5년)에는 남한산(南漢山)에 천도(遷都)하였음. 왕 24년(A.D. 9)에는 마한(馬韓 :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에 존속했던 부족국가)을 병합했고, 왕 28년(A.D. 10)에 아들 다루(多婁)를 태자로 책봉했다고 함. 백제가 국가의 체계를 갖춘 것은 340년대에 등장한 제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때 부터임.
 ② 성첩(城堞) : 성가퀴. 즉,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을 이룸. 여기에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였음.
 ③ 산아(山阿) : 산의 우묵하게 들어간 곳. 아(阿)는 언덕(구릉), 기슭의 뜻.

拖玉腰金⁹⁾趨走¹⁰⁾地, 옷깃 아래로 옥패 늘이고
 타 옥 요 금 추 주 지
 허리에 요금腰金을 착용한 귀인貴人들이
 분주히 오가던 이곳,

冷煙疎雨野人家。 차가운 안개 속에 성긴 빗방울 떨어지는
 냉 연 소 우 야 인 가
 야인촌野人村이 되었구나.

9) 타옥요금(拖玉腰金) : 옷깃 아래로 옥패 늘어뜨리고 금장식한 허리띠를 착용하다.

① 타옥(拖玉) : 의관에 장식용으로 달아서 옷깃 아래로 늘어뜨린 옥패(玉佩).

② 요금(腰金) : 고대 조관(朝官)들이 조복(朝服)에 착용한 금장식한 허리띠의 일종으로, 품계에 따라 장식품의 재질이 다름. 후세에 와서는 그 장식품으로 지위의 고하를 드러내었음. 고대 중국의 경우, 그 장식품으로 금(金), 금인(金印), 금어부(金魚符), 금어대(金魚袋) 등이 있었음.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종2품(從二品) 이하는 착용할 수 없었음.

10) 추주(趨走) : 종종 걸음으로 빨리 달림.



시68. 파사성 娑娑城에서 승병장 僧兵將 의엄 義嚴
장로 長老에게 써서 주다
(을미년 乙未年 : 1595년, 선조 宣祖 28, 서애 西厓 54세)

詩68. 娑娑城¹⁾ 書贈義嚴²⁾ 長老³⁾ 乙未⁴⁾
파 사 성 서 증 의 엄 장 로 을 미

娑娑古城, 在驪州下⁴⁾江邊. 壬辰之亂, 賊分兵, 一路自竹山龍仁,
파 사 고 성 재 여 주 하 강 변 임 진 지 난 적 분 병 일 노 자 죽 산 용 인

出於漢水之南, 一路從忠州渡驪江, 出京城之東.
출 어 한 수 지 남 일 노 충 주 도 여 강 출 경 성 지 동

時京畿防禦使⁵⁾ 邊應星⁶⁾, 請修娑娑, 以固都城上流.
시 경 기 방 어 사 변 응 성 청 수 파 사 이 고 도 성 상 류

- 1) 파사성(娑娑城) : 사적 제251호.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아산에 있는 석성(石城). 현 재 남아 있는 석성의 높이는 5~6m, 길이 약 1,800m이다. 82년(신라 파사왕(破娑王 : 80-112))에 모(某) 여장군(女將軍)이 축성하였다는 설도 있고, 삼국 통일시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의 대 접전지이며 최후의 싸움터였던 매초성(買肖城)이라는 설도 있는데, 1592년(선조 25)에 승장(僧將) 의엄(義嚴)이 둘레 1,100보(步)의 고성(古城)을 수축(修築)했다는 기록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보임. 또한 성내 북쪽에 폭 3m의 암벽에 여장군의 초상이라는 것이 조각되어 있고, 그 아래 6.6m 정도의 암석을 뚫어서 샘으로 사용하던 곳이 오늘날에도 약수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암벽에 새겨진 여인이 샘을 팠다는 전설도 있음.
- 2) 의엄(義嚴) : 조선 중기의 승려로 승병장임. 속명(俗名)은 관수언(郭秀彦), 의엄(義嚴)은 그의 법호(法號)임. 휴정(休靜 : 1520-1604) 곧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제자임.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휴정(休靜)이 팔도(八道)의 승려들에게 의병승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자, 황해도에서 5백 명의 승병을 모집하여 왜적과 싸웠음. 이러한 공로로 조정에서 직품(職品)을 제수(除授)하고자 했으나, 이를 사양하고 선종판사(禪宗判事 : 선종의 일을 총판(摠判)하는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했음.
- 3) 장로(長老) : 덕행이 높은 연장(年長)의 비구(比丘 : 계율을 지키는 남자 승려)에 대한 통칭. 선종(禪宗)에서는 주지승을 장로라 하고, 율종(律宗)에서는 한 종파의 주관을 장로라고 함.
- 4) 하(下) : 일반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르는 전 지역을 칭하거나 또는 상유(上游)에서 하유(下游)에 이르는 전 지역을 말함.
- 5) 방어사(防禦使) : 조선시대의 지방 외관직(外官職). 각 도에 배속되어 요충지를 방어하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2품의 벼슬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다음의 직위임.
- 6) 변응성(邊應星) : 조선 중기의 무신(武臣). 본관은 원주(原州)임. 1579년(선조 12) 무과에 급제했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주부사(慶州府使)에 임명되었음. 그러나 일본군이 먼저 경주를 점령하여 부임하지 못하고, 이듬해 류성룡(柳成龍)의 천거로 경기방어사(京畿防禦使)가 되었음. 이천부사(利川府使)가 되어서는 여주목사(驪州牧使) 원호(元豪)와 협력하여 남한강에서 민첩한 기안, 기습작전을 전개하여 적을 무찔렀음. 이것이 이른바 ‘마탄(馬灘) 전투’임. 1594년 경기도 광주(廣州), 이천(利川), 양주(楊州) 등 지역의 산간에 출몰하는 토적(土賊)을 토벌하였으며, 한강 상류 용진(龍津)에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목책(木柵)을 구축해서 병졸을 훈련하였음.

余主其議，患役鉅勞民，令黃海道僧軍總攝⁷⁾義嚴收遊僧⁸⁾築之。

數年而城成，樓櫓⁹⁾及軍器¹⁰⁾皆備，儼然成一關防¹¹⁾矣。

余往見之喜其有成，作詩與之。

파사고성 婆娑古城(경기도 남부)은 여주현 驪州縣의 하단으로 강변 쪽에 인접해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 1592년, 선조 25)때 왜적이 군사를 나누어서, 한 쪽 길로는 죽산현 竹山縣(경기도 북부)과 용인현 龍仁縣(경기도 남부)에서 한강 남쪽으로 들어오고, 또 한 쪽 길은 충주 忠州(충북 북부)에서 여강 驪江(남한강의 지류)을 건너 경성 京城의 동쪽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경기방어사 京畿防禦使 변응성 邊應星이 파사성 婆娑城을 수리하여 도성 都城의 상류 上流를 견고히 수비하자고 요청해 왔다.

내가 그 의론을 주장하였으나 공사규모가 커서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을 우려하여, 황해도 승병장 僧兵將인 의엄 義嚴에게 명하여, 행각승 行脚僧(각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소집하여 그 성을 축조하도록 하였다.

몇 년이 지나서 성 城의 축조가 완성되고, 망루 樓櫓와 병장기 등도 모두 완비됨으로써, 뚜렷하게 하나의 요새가 완성되었다. 나는 그 곳을 직접 가서 보고 성 城의 축조 성공이 기뻐서, 이 시를 지어 승병장에게 주었다.

1596년 이몽학(李夢鶴)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용진과 여주, 파사성(婆娑城)을 수비하였음. 광해군 때 훈련대장과 판윤(判尹 :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의 으뜸벼슬)까지 승진하였음. 1612년(광해군 4) 박응서(朴應犀)의 옥사에 연루되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 병조관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諡號)는 양혜(襄惠)임.

7) 총섭(總攝) : 전체를 다스리거나 그런 사람. 총책을 진사람.
8) 유승(遊僧) : 행각(行脚) : 여러 곳으로 떠돌아다님)하는 중.
9) 누노(樓櫓) : 성의 망루(望樓).
10) 군기(軍器) : 병장기(兵仗器).
11) 관방(關防) : ‘관(關)’이라고도 하며, 국경이나 요해처에 군대가 주둔하며 수비하는 관문(요새).

婆娑城上草芊芊¹²⁾, 파사성^{婆娑城} 위로는 잡초가 무성하고,
파 사 성 상 초 쥘 쥘

婆娑城下水縈廻¹³⁾。 파사성 아래로는 강물이 구비 도네.
파 사 성 하 수 영 회

春風日日¹⁴⁾吹不斷, 봄바람이 날마다 끊임없이 불어대니,
춘 풍 일 일 쉼 불 단

落紅無數飛城隈¹⁵⁾。 지는 꽃잎 무수히 성벽 모퉁이로
낙 홍 무 수 비 성 의 날아가네.

道人神眼¹⁶⁾覩天奧¹⁷⁾, 도인^{道人}의 신안^{神眼}으로
도 인 신 안 처 천 오 천기^{天機}를 살피고 나서,

一夜昆明生劫灰¹⁸⁾。 “하룻밤 새 곤명지^{昆明池}에
일 야 곤 명 생 겁 회 겁회^{劫灰}가 발생한다” 했다네.

12) 천천(芊芊) : 풀이 우거진 모양.

13) 영회(縈廻) : 둘러싸다. 꾸불꾸불하다. 본 시에서는 ‘물이 감돌아 흐르는 모양’을 가리킴.

14) 일일(日日) : 명사의 중첩으로 ‘날마다’의 뜻임. ‘인(人)’, ‘가(家)’, ‘월(月)’, ‘연년(年年)’ 등의 명사는 중첩 후에 주어나 부사어로 쓰이며, 중첩된 후 해석은 ‘~마다’라는 뜻을 갖는다. 예를 들면, 人人(사람마다), 家家(집집마다), 月月(달마다), 年年(해마다) 등과 같다.

15) 성외(城隈) : ① 구석(꾸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모퉁이 안쪽. ② 물(또는 산)의 굽어들어 간 곳. ③ 후미진 곳.

16) 신안(神眼) :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일체를 감응(感應)하는 것을 이룸. 곧 심안(心眼).

17) 천오(天奧) : 천기(天機 : 하늘의 기밀, 또는 조화(造化)의 신비). 오(奧)는 내(內), 즉 오내(奧內 : 실내의 은밀한 곳)의 뜻이며, ‘기밀(機密)’을 가리킴.

18) 일야곤명생겁회(一夜昆明生劫灰 : “하룻밤 새 곤명지(昆明池)에 겁회(劫灰)가 발생한다” 했다네) :

① 서애주석(西厓注釋) : 서애는 “긴급하게 땅을 파서 옛 우물터를 찾아내었다(嚴掘地得古井)”라고 하였음. 여기서 ‘엄(嚴)은 긴급하다, 혹은 다급하다는 뜻으로 보았음. 이는 다름 아닌 곤명지(昆明池)에 얽힌 역사적 고사(故事)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해야, 서애주석의 진의(眞意)를 알 수 있음.

② 곤명겁회(昆明劫灰) :

☆곤명겁회의 의미 : 이는 바로 ‘곤명지(昆明池) 바닥에서 파낸, 겁회(劫火 : 불교용어로써, 세계 종말시기의 큰 불)로 인해서 타고 남은 재’라는 뜻임. 이 말을 후세 사람들은 ‘전란(戰亂)’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음. 여기서 ‘곤명(昆明)’이란, 서한(西漢)의 도성(都城) 교외에 건설한 호수 ‘곤명지(昆明池 : 곤명국의 호수라는 뜻)’를 가리킴.

金剛¹⁹⁾百萬奉指揮,
금 강 백 만 봉 지 휘

금강역사金剛力士 백만 명이
지휘를 받는데,

尺劍長嘯²⁰⁾臨江臺²¹⁾。
척 검 장 소 임 강 대

강변 누대樓臺에서 장검 차고
목청 돋워 길게 외쳐보네.

☆관련고사 1

한무제(漢武帝 : 서한 제6대 황제(B.C. 156-B.C. 87. 이름은 유철(劉徹))시대에 한(漢)나라가 적절한 유배지를 물색하였는데, 그 곳은 바로 한나라의 서남부의 소수민족 국가인 곤명국(昆明國) 곤명현(昆明縣) 일대를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곤명국이 그 길을 폐쇄하고 비켜주지 않아서, 한나라가 곤명국을 정벌하려고 했지만, ‘진지(滇池 : 지금의 운남성(雲南省) 곤명현과 곤양현(昆陽縣)에 걸쳐 있음)라는 사방 3백리나 되는 거대한 호수가 곤명국을 둘러싸고 있어서,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다. 생각 끝에, 한무제는 곤명국의 호수와 유사하게 모방하여 장안성(長安城) 서남 교외에 주변이 40리나 되는 호수를 건설한 다음, 이곳에서 군사들로 하여금 수전훈련(水戰訓練)을 하도록 해서, 곤명국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곤명지(昆明池) 건설은 이렇게 하여 완성되었는데, 송(宋)나라 이후에 이 호수는 매워졌음.

☆관련고사 2

남조(南朝)의 양(梁)나라 승려 혜교(慧皎 : 497-554)의 저서인 『고승전(高僧傳)·역경(譯經) 상(上)·축법란(竺法蘭)』에서, “옛날에 한무제(漢武帝)가 곤명지(昆明池)의 바닥을 파내다가 흑토(黑土 : 검은 재)를 입수했는데, 무제가 그것이 무엇이나고 동방삭(東方朔)에게 묻자, 모른다고 하면서 서역(西域) 오랑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 뒤에 법란(法蘭)이 오자, 뜻사람들이 그를 따라 가서 ‘호수 바닥의 그 검은 흙이 무엇이나?’고 묻자 법란이 말하길, ‘세계 종말 시기에 모든 부락이 타고 남은 잿더미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보임.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집회(劫灰)’라는 이 말을 ‘전란(戰亂)’이나 ‘큰 불이 난 뒤의 잔적(殘迹)’의 뜻으로 사용하였음.

위의 자료를 통해, 서예주석(西厓注釋)의 진의(眞意)를 보면, 이 역시 한무제가 곤명국(昆明國)과의 일전(一戰)을 위해, 곤명지(昆明池)를 건설했듯이, 서예 역시도 “간금하게 땅을 파서 고정(古井)을 찾아내었다”는 주석(注釋)을 달아서, 왜국과의 일전(一戰)을 준비 중에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음.

- 19) 금강(金剛) : 불교용어로서, 금강역사(金剛力士)의 준말. 즉 금강저(金剛杵)를 가진 역사(力士). 금강저(金剛杵)는 금석(金石) 중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금강(金剛 : 다이아몬드)으로 만들어진 고대 인도 무기의 일종임. 원래 번개를 본 따 만든 것이라고 함. 불교에서는 상징적으로 사용하며 견고한 모든 것을 부순다는 의미에서 미혹(迷惑)을 깨부수는 무기를 의미함. 또한 보리심(菩提心 :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상징하는 금속성의 법구(法具)이기도 함.
- 20) 장소(長嘯) : ① 입을 오므려서 목청을 돋우어 길고도 높은 음의 소리를 내다. 옛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함. ② 큰 소리로 외치다. ③ 종(鐘)의 별칭. ④ 시가(詩歌) 따위를 길게 읊조림.
- 21) 임강대(臨江臺) : 파사성(婆娑城) 부근에 있었던 누대 이름으로 보임.



시 69. 휴가를 얻어 대부인(大夫人: 모친)을 뵈려고
남쪽으로 귀향하는 도중, 파사성(婆娑城)에
숙박하면서

詩 69. 乞暇省親南歸 宿婆娑城¹⁾
걸 가 성 친 남 귀 숙 파 사 성

東行一百里, 동쪽으로 백리를 와서,
동행 일백리
夜宿婆娑城。 밤이 되어 파사성(婆娑城)에서 묵었네.
야숙파사성
孤城枕²⁾水隈³⁾, 외딴 성채는 물굽이 진 곳에 인접해 있고,
고성침수외
霜落秋天清。 찬 서리 내리더니 가을 하늘 청명하네.
상락추천청
更殘戍角⁴⁾動, 밤 시각 다해가니 주둔군 호각소리 들리는데,
경잔수각동
月暗⁵⁾寒潮⁶⁾生。 달도 저버리고 한파(寒波)만 밀려오네.
월암한조생

- 1) 파사성(婆娑城) : <시 68>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본 시는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54세에 작시(作詩)한 것으로 보임.
- 2) 침(枕) : 임하다. 근접하다.
- 3) 외(隈) : 물가(산)의 굽어들어 간 곳.
- 4) 수각(戍角) : 변방 주둔군의 호각소리.
- 5) 월암(月暗) : '월흑(月黑)'이라고도 하며, 달빛 없이 캄캄한 밤(음력 월말(月末)과 월초(月初)의 달빛이 없는 밤을 이룸).

病客⁷⁾有遠思, 지쳐 병든 나그네 먼 곳에 그리운 님 있어,
병 객 유 원 사

輾轉⁸⁾夢不成⁹⁾.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뤄 하네.
전 전 몽 불 성

所思非我力, 그림다는 것은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소 사 비 아 력

悠悠¹⁰⁾空復情。 아득히 멀리서도 괜히 자꾸 정이 가는
유 유 공 부 정
것일세.

乾坤¹¹⁾浩無際, 천지가 넓고 넓어 그 끝이 없다 해도,
건 곤 호 무 계

明發還孤征¹²⁾. 날 밝으면 다시 홀로 먼 길을 떠나려네.
명 발 환 고 정

6) 한조(寒潮) : ① 한파(寒波). ② 한류(寒流).

7) 병객(病客) : 피병(疲病 : 피로하여 앓음)에 걸린 객지에 머무는 나그네.

8) 전전(輾轉) : ① 이리 저리 뒤척이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② 이리 저리 옮겨 다니다 (굴러가다).

9) 몽불성(夢不成) : 꿈을 꿀 수 없다는 뜻으로, '잠들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킴. <시 63>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10) 유유(悠悠) : 아득히 먼 모양.

11) 건곤(乾坤) : 천지(天地).

12) 고정(孤征) : 단신(單身)으로 원행(遠行)하다.



시70. 앞의 시운(詩韻)에 차운한 시를
파사성(婆娑城) 성주(城主)에게 주다

詩70. 次前韻¹⁾ 贈婆娑主²⁾
차 전 운 증 파 사 주

孤城峩嶢³⁾出雲表⁴⁾, 외딴 성 우뚝하게 구름 위로 솟았는데,
고 성 초 요 출 운 표

大江遠抱千峯⁵⁾廻。 큰 강은 멀찍이서 수많은 산기슭을
대 강 원 포 천 봉 회 감도네.

江空雲盡暮天碧, 강변엔 인적 없고 구름 걸혀
강 공 운 진 모 천 벽 저물녘 하늘 푸른데,

丹楓葉落秋江隈。 단풍잎이 가을 강 강굽이에 떨어지네.
단 풍 엽 낙 추 강 외

此地當年⁶⁾幾戰爭, 여기서 당년에 몇 차례
차 지 당 년 기 전 쟁 격전을 치렀지만,

- 1) 차전운(次前韻) : ‘앞의 시의 운자(韻字)를 써서 시를 짓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시 68>인 <파사성에서 승병장 의엄 장로에게 써서 주다(婆娑城書贈義嚴長老)>의 시운(詩韻)을 써서 시를 지은 것을 가리킨다.
- 2) 파사주(婆娑主) : 파사성(婆娑城) 성주(城主).
- 3) 초요(峩嶢) : 산이 높은 모양.
- 4) 운표(雲表) : 구름 위, 구름 밖.
- 5) 봉(峰) : ① 산봉우리, 산꼭대기. ② 산을 세는 양사로 쓰임.
- 6) 당년(當年) : ① 그 해, 그 당시, 그 때. ② 한창나이, 황금기.

只今凡楚⁷⁾俱塵灰⁸⁾。 지금 모든 고통은 흙먼지가 되었네.
지 금 범 초 구 진 회

惟當與君作⁹⁾重九¹⁰⁾， 오직 그대와 함께 오늘을
유 당 여 군 작 중 구
중구重九로 간주하고,

一醉黃花¹¹⁾江上臺¹²⁾。 강변 누대에서 국화주로
일 취 황 화 강 상 대
한 번 취해보세.

7) 초(楚) : 고통(스럽다).

8) 진회(塵灰) : ① 진토(塵土). ② 진세(塵世)

9) 당~작(當~作) : ~로 간주하다.

10) 중구(重九) : 세시(歲時) : 한 해의 절기나 달) 명절의 하나로, 중양(重陽)이라고도 하며, 음력 9월 9일을 말함.

11) 황화(黃花) : ‘황화(黃花)’로도 쓰며, ‘국화(菊花)’를 가리키는데, 본 시에서는 황화주(黃花酒), 즉 ‘국화주(菊花酒)’를 가리킴.

12) 강상대(江上臺) : 강변 누대. 여기서 상(上)은 명사 뒤에 써서 강이나 하천의 기슭을 나타내고, 대(臺)는 누대를 가리킴.



시71. 광주(廣州 : 경기도 동남부)로 가는 도중에
느낌이 있어

詩71. 廣州途中有感¹⁾

時²⁾南歸省親, 至驪州被召, 還爲平安咸鏡道體察使³⁾, 將西下。
시 남귀성친, 지여주피소, 환위평안함경도체찰사, 장서하

때는 대부인(모친)께 문안드리고자 남쪽으로 귀향하는 도중에, 여주(驪州 : 경기도 동남부)에 이르러 (전하殿下의) 소환령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가서 평안·함경도 체찰사體察使에 임명되어 서쪽으로 가는 도중이었음.

世亂行藏⁴⁾不自由, 난세亂世의 행동거지 자유롭지 못하니,
세 난 행 장 부 자 유

南州行色⁵⁾又西州。 남부고을 행색 그대로
남 주 행 색 우 서 주
서부고을 가고 있네.

- 1) 본 시는 시제(詩題) 아래 적은 서예의 소서小序와 연보(年譜)에 의거하면, 54세 10월(임진왜란 기간 중)에 작시(作詩)된 것으로 보임.
- 2) 시(時) : 이때.
- 3) 체찰사(體察使) : 고려 말기와 조선시대에 전쟁이 났을 때, 군사관계의 임무를 맡고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 관직. 의정(議政)이 파견되면 체찰사(體察使) 또는 도순찰사(都巡察使)라 하고, 1품 이하 관리가 파견되면 순찰사(巡察使)라 하며, 3품의 관리가 파견되면 순리사(巡理使)라고 함.
- 4) 행장(行藏) : ① 벼슬자리에 나가거나 물러나 집에 있음. 또는 행동거지, 품행, 행적(行迹). ② 세상에 나가서 도를 행함과 은거함.
- 5) 행색(行色) : ① 길을 나서기 위해 차리고 나선 모양. ② 길으로 드러난 차림이나 태도.

雲山極目⁶⁾空垂淚,
운 산 극 목 공 수 루

구름과 산만 눈에 보여
괜스레 눈물이 흘러,

關海連天⁷⁾獨倚樓。
관 해 연 천 독 의 루

바다와 하늘 맞닿은 곳 향해
홀로 망루에 기대섰네.

道薄未能輕險易⁸⁾,
도 박 미 능 경 험 이

세상도리 야박해져 치란治亂을
쉽게 할 순 없지만,

身忙安得⁹⁾辦浮休¹⁰⁾。
신 망 안 득 판 부 휴

내 바쁘다고 어찌 ‘생소는 물에 뜬 것
같고, 사死는 휴식 취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처리하겠는가.

平生一丈¹¹⁾擘峒劔¹²⁾,
평 생 일 장 공 동 검

평생 쓰던 한 자루의 공동검擘峒劔을
뽑아드니,

-
- 6) 극목(極目) : ① 시야(視野)에 가득히 펼쳐진 것. ② 시력이 미치는 한 멀리 바라봄.
 - 7) 관~련~(關~連~) : 이 구조는 ‘술어+목적어’의 구조로, 모두 목적어와 연계(聯系)되다는 뜻으로, 본 시에서는 ‘맞닿다, 잇닿다’는 의미임.
 - 8) 험이(險易) : ① 치란(治亂) : 혼란에 빠진 세상을 다스림. ② 안정과 동란. ③ 길흉(吉凶). ④ 험준함과 평탄함.
 - 9) 안득(安得) : 어찌(어떻게) ~일 수 있겠는가?
 - 10) 판부휴(辦浮休) : ‘삶은 물에 뜬 것 같고, 죽음은 휴식 취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처리하다.
 - ① 판(辦) : ☆역량을 모종의 일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다. ☆ ~을 행하다. ☆창설하다, 경영하다, 관리하다. ☆~을 이룩하다, 성취하다.
 - ② 부휴(浮休) :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에 무심하며, 생사가 일관(一貫)되어 있다 : 『장자(莊子)·각의(刻意)』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其生若浮), 죽음은 휴식을 취하는 것쯤으로 여기며(其死若休)”라는 구절이 나온다. 당(唐)나라 도사(道士) 성현영(成玄英)은 이 글에 소(疏)를 달기를, “무릇 성인(聖人)은 동정(動靜) :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에 무심하며, 생사가 일관(一貫)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삶을 물에 잠가놔도 잠시 후면 떠오르고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 ‘죽음은 몸이 피로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쯤으로 여기며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그래서 “부휴(浮休)”라는 말을 ‘인생이 짧거나, 세정(世情)이 무상(無常)한 것’이란 뜻으로 사용하였음.
 - 11) 장(丈) : ① 명사로 쓰일 경우, ‘장(丈)’의 본의(本意)는 고대에는 순위 남자에 대한 존칭임. ② 동사로 쓰일 경우, 장(丈)은 ‘부축하다, 기대다’라는 의미이나, 훗날 이를 지팡이 장(杖)

半夜寒光射斗牛。
반야한광사두우

한밤중 차가운 달빛 아래

(검광劍光이) 북두성과 천우성을 비추네.

의 의미로도 전용(轉用)하였음. ③ 양사(量詞)로 쓰일 경우, 길이의 단위가 됨. 즉 1丈은 10尺으로, 3,3m의 길이를 나타냄. 여기서는 ‘장(丈)’을 하나의 양사(量詞)로 보았음.

12) 공동검(崆峒劍) : 공동산(崆峒山)에서 나온 신검(神劍).

① 공동(空同) : 공동(空峒)으로도 씀.

☆산 이름으로서, 선산(仙山 : 신선이 사는 산)을 가리킴.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평량시(平涼市) 서부에 위치하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황제(黃帝)가 광성자(廣成子 : 전설상의 상고시대 인물)를 찾아가서 도(道)를 물었다고 한 곳임. 『장자(莊子)·재유(在宥)』에, “황제(黃帝)가 천자에 등극하여(黃帝立爲天子), 19년이 되었고(十九年), 정령(政令)이 천하에 통행되었다(令行天下). 그는 광성자(廣成子)가 공동산(空同山)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聞廣成子在於空同之上). 그래서 찾아가 그를 만났다(故往見之)”라는 고사(故事)가 나오는데, 후세 사람들은 신선인 광성자(廣成子)가 살았다는 이 공동산(崆峒山)을 ‘선산(仙山)’의 뜻으로 사용하였음.

② 검(劍) : 공동산(崆峒山), 즉 선산(仙山)에서 나온 검. 근대에 오면, 도가적(道家的) 전설을 지닌 이 산을 중심으로 공동파(崆峒派)가 생겼으며, 이 문파(門派)에서 사용하는 검(劍)이 명검(名劍)으로 회자되고 있음. 그 종류를 보면 : 복마검(伏魔劍), 소양검(少陽劍), 삼절검(三絶劍), 천운검(穿雲劍), 절정검(絶情劍), 통천검(通天劍), 현천검(玄天劍)… 등 다수가 있음.



시72. 파사성 婆娑城에서 좌랑 佐郎 정경임 鄭景任에게
이 시를 부쳤는데, 이때는 경임 景任이
방수순심어사 防守巡審御使로 남하할 즈음이었다
(병신년 丙申年 : 1596년, 선조 宣祖 29년, 서애 西厓 55세)

詩72. 婆娑城¹⁾ 寄鄭佐郎景任²⁾ 時景任以防守巡審御使³⁾
파 사 성 기 정 좌 랑 경 임 시 경 임 이 방 수 순 심 어 사
南下 丙申
남 하 병 신

婆娑城下路⁴⁾, 파사성 婆娑城에서 하행 下行하는 길은,
파 사 성 하 로
立馬⁵⁾ 意如何. 역마 驛馬를 지원받는 게 어떠한가?
입 마 의 여 하

- 1) 파사성(婆娑城) : 〈시 68〉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2) 정좌랑경임(鄭佐郎景任) : 좌랑(佐郎) 정경임(鄭景任).
 - ① 좌랑(佐郎) :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예속되어 있는 정5품(正五品) 벼슬을 칭함.
 - ② 정경임(鄭景任 : 1563-1633) : 조선 중기의 문신, 이름은 경세(經世), 자는 경임(景任), 류성룡(柳成龍)의 문인(門人). 자세한 내용은 〈시 41〉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3) 방수순심어사(防守巡審御使) : 전란 후에 지방 방어 상황을 순시하고, 지역적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한 임시직 벼슬아치.
- 4) 성하로(城下路) : 파사성의 하행 길. 여기서 성(城)은 ‘파사성(婆娑城)’을 칭하는 것임. 하로(下路)는 정경임(鄭景任)이 남부로 내려가는 길이므로, 서애는 이를 ‘하로(下路)’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 5) 입마(立馬) : 각 역(驛)에서 역마(驛馬)를 길러 공용(公用)에 바치던 일. 역에서는 매일같이 역마를 징발해서 공급해야 했는데, 대개 그 고을의 목장(牧場)에서 공급받았으나, 부족할 때에는 사복시(司僕寺)의 말이나 쇄마(刷馬) 및 민간의 험마(峽馬)를 대용하기도 하였음. 역리(驛吏)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호(鄉豪)와 정병(正兵)에게 강제로 일정 기간 동안 책임 지우기도 하였음.

春草爲誰綠, 봄풀은 누구를 위해서 푸르는가,
 春 草 爲 誰 綠
 춘 초 위 수 록

江流空自波。 강물은 흐르면서 괜히 절로 물결치네.
 江 流 空 自 波
 강 류 공 자 파

宇宙全才少, 이 세상엔 완벽한 재능 드물고,
 宇 宙 全 才 少
 우 주 전 재 소

山河遺恨⁶⁾多。 산하山河엔 생전의 못 다한 염원이 많다네.
 山 河 遺 恨 多
 산 하 유 한 다

平生忠孝願, 평생 충효를 다하고자 했는데,
 平 生 忠 孝 願
 평 생 충 효 원

末路⁷⁾恐蹉跎⁸⁾。 만년에 뜻대로 아니 될까 두렵다네.
 末 路 恐 蹉 跎
 말 로 공 차 타

6) 유한(遺恨) : ① 실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긴 한. ② 섭섭히 생각함. ③ 유감으로 생각함.
 7) 말로(末路) : ① 노년, 만년(晩年). ② 끝장, 결말. ③ 겸사(謙詞)로서, 말석(末席), 하위(下位) 등의 뜻을 나타냄. ④ 궁지. 실의(失意)로 의욕을 잃거나 전도(前途)가 없을 때의 마지막 무렵의 모습. ⑤ 노정(路程)의 마지막.
 8) 차타(蹉跎) : ① 실족(失足). ② 실시(失時). ③ 쇠퇴(衰退). ④ 실의(失意) : 뜻대로 되지 않다,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⑤ 차이가 나다(일치하지 않다). ⑥ 저지하다, 방해(억제)하다.



시73. 여주驪州로 가는 도중에, 다시 앞 시의
운자韻字에 화운和韻하여 경임景任에게
보여주다

詩73. 驪州途中 再和¹⁾前韻 示景任²⁾
여 주 도 중 재 화 전 운 시 경 임

倦客³⁾愁長路⁴⁾, 고달픈 나그네 먼 길이 걱정되지만,
권 객 수 장 로

其如老病何⁵⁾. 그것이 어찌 노병老病 때문이리오.
기 여 노 병 하

慙將⁶⁾開府節⁷⁾, 고관高官의 신표信標 지닌 게 부끄러워,
참 장 개 부 절

重泝⁸⁾大江波。 다시 큰 강 물살 거슬러 올라가보네.
중 소 대 강 파

- 1) 화(和) : 화운(和韻)을 말하는 것임. 이는 타인의 시작(詩作)의 원운(原韻)에 의거하여 시를 짓는 것을 칭하는 것임.
- 2) 경임(景任) : 경임(景任)은 바로 앞의 <시 72>의 시제(詩題)에 나온 정좌랑(鄭佐郎) 경임(景任)을 가리킴. 고로 본 인물에 대한 소개는 <시 41>의 주석 1)과 <시 72>의 주석 2)를 참조 바람.
- 3) 권객(倦客) : 고달픈 나그네.
- 4) 장로(長路) : 원로(遠路).
- 5) 여하(如~何) : 여하(如何)를 분리시켜 놓은 것으로, ‘어찌 ~(때문)이라 하겠는가?’의 뜻임.
- 6) 참장(慙將) : 지닌 게 부끄럽다. 여기서 참(慙)은 부끄럽다. 장(將)은 들다, 가지다, 잡다.
- 7) 개부절(開府節) : 고관(高官)의 신표(信標). 개부(開府)는 예전에 ‘고관(高官)’을 가리키는 말이며, 절(節)은 부절(符節), 즉 신표(信標)의 뜻임.
- 8) 소(泝) : 거슬러 올라가다.

山日古城黑, 서산에 해 지자 옛 성城에 어둠이 깃드는데,
산 일 고 성 흑

野雲芳草多⁹⁾, 들판에는 구름 끼고 방초가 질푸르네.
야 운 방 초 다

悲歌一回首¹⁰⁾, 슬픈 노래 부르며 잠시 회상回想到
비 가 일 회 수, 잠기는 것은,

不是爲蹉跎¹¹⁾, 실의失意에 젖어서가 아닐세.
불 시 위 차 타

9) 다(多) : ‘많다’에서 ‘질푸르다’로 의역하였음.

10) 회수(回首) : 회상(回想)하다.

11) 위차타(爲蹉跎) : 실의에 젓다. 여기서 ‘위(爲)’는 동사인 ‘차타(蹉跎 : 실의하다)’ 앞에 쓰여서 수동(受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

시74. 금탄¹金灘으로 가는 도중에 경임²景任에게 지어 주다

詩74. 金灘¹路中 贈景任²
금 탄 로 중 증 경 임



十年湖海³强棲遲⁴, 십 년 세월 부득이 강호江湖에서 지체했지만,
십 년 호 해 강 서 지

1) 금탄(金灘) : 본 시에서는 ‘탄금대(彈琴臺)’ 일대의 군사요충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서애(西厓) 시에서 보이는 충주의 ‘금탄(金灘)’은 세 가지 뜻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첫째, 강명(江名)으로 남한강을 가리킨다. 이에 대한 근거로 충주목 지도(忠州牧地圖)에 의하면, 서측은 달천(達川)이고, 동측은 동달천(東達川)으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갈래의 물줄기가 탄금대(彈琴臺) 합수머리에서 만나 남한강의 옛 지명인 금탄(金灘) 또는 금천(金遷)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금탄’은 남한강(南漢江)과 달천(達川)이 합류한 강으로 보임. 둘째, 탄금대(彈琴臺) 일대의 군사요충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 시제(詩題)에서는 이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셋째, <서애연보(西厓年譜)>의 무술년(戊戌年 : 1598년, 서애 57세) 11월의 내용 중, “30일에 충주의 금탄에서 유숙하였다(辛亥宿忠州金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금탄’은 탄금대 일대의 나룻터 부근에 위치한 객관(客館)이 있는 향명(鄉名)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도 생각됨.

① 남한강(南漢江) : 충주에는 오대산(五臺山)에서 발원하여 충주시의 북부시계(北部市界)를 관통하여, 여주, 양평을 거쳐 흐르는 한강의 본류임.

② 달천(達川) : 속리산(俗離山)을 분수령으로 남에서 북류하는 남한강의 지류(支流)임.

③ 탄금대(彈琴臺) : 충북 충주시(忠州市) 칠금동(漆金洞) 대문산(大門山)에 있는 전적지(戰跡地)이며 명승지임. 남한강과 달천(達川)의 합류점 가까이에 있는 하석애(河蝕崖) 구릉으로, 신라 진흥왕 때 가야금의 명인 우륵(于勒 : ?-?)이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야금을 탄주했다고 하여 탄금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함.

임진왜란 때, 신립(申碩 : 1546-1592)이 왜군을 맞아 이곳에서 전사한 곳이기도 함.

2) 경임(景任) : 정경임(鄭景任) :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문인(門人). 자세한 것은 <시 41>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3) 호해(湖海) : 호수와 바다. 전(轉)하여, ‘사방 각지, 세간(世間 : 이 세상, 인간세상), 강호(江湖 : 세상, 속세)’의 뜻으로 많이 쓰임.

素志⁵⁾還慙墨子絲⁶⁾。
소 지 환 찬 묵 자 사

평소 의지는 아직도 묵자사(墨子絲)를
부끄러워한다네.

躍馬論兵新事業⁷⁾，
약 마 논 병 신 사 업

종군(從軍)하며 병법 논하는
새 업무 시작했으니,

滄波白鳥舊心⁸⁾期。
창 파 백 조 구 심 기

푸른 물결위의 백조에게
옛 정을 기대하네.

金灘水⁹⁾闊村烟細，
금 탄 수 활 촌 연 세

금탄수(金灘水) 강 폭 넓어 마을 연기
가늘고,

-
- 4) 서지(棲遲) : 서지(栖遲)로도 씀. ① 버슬하지 않고 놓고 지냄, 은퇴하여 쉬. ② 체류하다.
③ 유랑(방황)하며 실의(失意)에 빠지다.
- 5) 소지(素志) : 평소의 뜻 ; 평소의 염원(희망).
- 6) 묵자사(墨子絲) : 『묵자(墨子)·소염편(所染篇)』에서 비유적인 설명을 하며 예를 든 염색사(染色絲)를 가리킴. 『묵자(墨子)·소염편(所染篇)』에, ‘염색사(染色師)가 염색하는 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염료(染料 : 물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염색이 된다’는 사실을 본 묵자(墨子 : B.C. 475-221 B.C.)는 이 진리를 확대시켜, 나라도 사람도 사귀는 사람의 영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을 하면서 염색, 즉 사람의 사귄(곧 나라를 다스림)에 신중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은 예를 들어 논리를 전개하였음.
서애(西厓)는 바로 위에서 언급된 “묵자사(墨子絲)”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염색할 실을 파란 염료를 써서 염색하면 파란 실이 되고, 노란 염료를 써서 염색하면 노랗게 염색이 되는 그런 실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이것은 곧 자신의 주관이나 옳고 그른 기준도 없이 타인 또는 외부 환경에 따라 이리 저리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는 것임. 왜란으로 인해 다년간 사방각지를 돌아다니며 고생과 위험이 적잖았지만, 서애 자신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뚜렷한 주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7) 약마논병신사업(躍馬論兵新事業) : 종군(從軍)하며 병법 논하는 새 업무 시작했으니) :
① 약마(躍馬) : ☆말에게 채찍질하며 달리다. ☆부귀공명을 얻는 것을 가리킴(과거응시(科擧應試)를 가리킴). 전(轉)하여, 종군(從軍)하는 것을 가리킴. ☆총횡무진하며 군림하다(세도를 부리다, 자칭 영웅이 되다).
② 신사업(新事業) : 새 업무를 시작하다.
- 8) 구심(舊心) : 옛정, 구정(舊情).
- 9) 금탄수(金灘水) : 충주 관내의 남한강과 달천(達川)이 합류한 탄금대 일대의 남한강을 가리킴.

月嶽山¹⁰⁾高棧道¹¹⁾危。 월악산¹⁰⁾月嶽山은 높아서
 월 악 산 고 잔 도 위 잔도¹¹⁾棧道가 위태롭네.

此去風塵¹²⁾如¹³⁾可靖, 이번에 가는 전란지역
 차 거 풍 진 여 가 정 안정시킬 수 있다면,

始知人世有男兒。 비로소 알게야
 시 지 인 세 유 남 아 이 세상에 대장부 있다는 것을.

10) 월악산(月嶽山) : 월악산(月岳山)이라고도 씀. 충북 제천시(提川市) 한수면(寒水面)과 덕산면(德山面) 경계에 위치한 높이 1,093m의 산.

11) 잔도(棧道) : 산골짜기에 높이 건너질러 놓은 다리(선반처럼 달아서 낸다).

12) 풍진(風塵) : ① 진세(塵世), 속계(俗界), 곧 이 세상. 티끌이 있는 세상으로 '전란'에 비유됨. ② 세속적인 일. ③ 바람에 일어나는 흙먼지. ④ 여행에 지쳐 피곤함을 이룸. ⑤ 관계(官界), 정계(政界)(주로 이 두 종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허위, 사기, 아첨, 알력 등의 특정을 강조하는 말로 씀). ⑥ 고풍청진(高風淸塵)의 약어로 쓰여, '성품이 공정하고 고상함'에 비유함. ⑦ 유언비어(流言蜚語).

13) 여(如) : 접속사, '만약 ~한다면'.



시75. 갈대숲이 우거진 잔교棧橋를 지나는
도중에 이숙평李叔平에게 지어주다

詩75. 蘆棧途中 贈李叔平¹⁾
노 잔 도 중 증 이 숙 평

吾衰已作白頭翁,
오 쇠 이 작 백 두 용

내가 노쇠하여 어느덧
백발 늙은이 되고 보니,

半世²⁾行藏³⁾一笑中。
반 세 행 장 일 소 중

반평생 벼슬살이 한바탕 웃음거리였네.

識路⁴⁾敢期齊相馬⁵⁾,
식 로 감 기 제 상 마

길 잘 알아야 기일 내에 댈 수 있어
일제히 전마戰馬 점검하는데,

-
- 1) 이숙평(李叔平) : 이준(李俊) : 1560-1635)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흥양(興陽), 이름은 준(俊), 자는 숙평(叔平), 이숙재(李叔載) : 이진(李堧)의 동생임. <시 81>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류성룡(柳成龍)의 문인(門人)임. <시 41>의 주석 2)의 ①을 참조 바람.
- 2) 반세(半世) : 반평생.
- 3) 행장(行藏) : ① 벼슬자리에 나가거나 물러나 집에 있음. ② 행동거지, 품행, 행적(行迹). ③ 세상에 나가서 도(道)를 행함과 은거함.
- 4) 식로(識路) : 갈 길을 익숙하게 알다. 경험이 풍부해야 선도(先導)할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임. ‘식도(識途)’와 유사한 말임. 『한비자(韓非子)·설림(說林) 상(上)』에서 언급한 “길을 잘 아는 노련한 말이라야 앞에서 잘 달린다(識途老馬)”는 뜻에서, 어떤 일에 숙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비유한 말도 이와 비슷한 말임.
- 5) 제상마(齊相馬) : 일제히 말을 점검하다.
- ① 제(齊) : 일제히, 모두.
- ② 상마(相馬) : 말의 우열을 관찰함을 이룸.

扶顛還愧漢家龍⁶⁾ 위기국면에 상호협조라지만 한족漢族의
 부전 환괴 한가용 준마 앞에 새삼 부끄러웠네.

年華⁷⁾冉冉⁸⁾何曾住, 세월이 흘러가며 언제 멈춘 적 있었던가?
 년화 염염 하중주

物狀紛紛⁹⁾未易窮. 만물상황 번잡해도 쉬이 궁해진적 없었네.
 물상분분 미이궁

昨夜郵亭¹⁰⁾看尺劍, 어젯밤 역사驛舍에서 일척 검劍 살피는데,
 작야우정 간척검

忽驚牛斗射長虹¹¹⁾. 홀연히 견우성과 북두성이 무지개를 비췄네.
 홀경우두사장홍

- 6) 부전환괴한가용(扶顛還愧漢家龍) : 위기국면에 상호협조라지만 한족(漢族)의 준마 앞에 새삼 부끄러웠네) :
- ① 부전(扶顛) : 부지위국(扶持危局), 즉 위태로운 국면(局面)을 맞아 서로 돕다. 또는 어려운 국면에도 잘 버티어 나가다 라는 뜻임. ‘부전(扶顛)’이란 말의 출전은 『논어(論語)·계씨편(季氏篇)』에, “공자가 말하기를(孔子曰), 위태로운 데도 붙잡아 주지 못하며(危而不持), 넘어지는 데도 부축해 주지 못한다면(顛而不扶)”이라고 한데서 유래되었음.
- ② 한가(漢家) : ☆한족(漢族).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명(明)나라 군사를 가리킴. ☆한실(漢室 : 한나라 제실(帝室)). ☆한조(漢朝 : 한나라 왕조).
- ③ 용(龍) : 빠르게 잘 달리는 키가 큰 말, 즉 준마(駿馬)를 가리킴. 『의례(儀禮)·근례편(覲禮篇)』에, “친자가 용(龍 : 즉 말)을 타면(天子乘龍), 큰 패기(旆旗)를 쫓아 장식해야 한다(載大旆)”고 하였다. 동한(東漢)의 정현(鄭玄 : 127-200)이 윗글에 주(注)를 달아 말하길, “말의 키가 8척 이상이어야 용이라 한다(馬八尺以上爲龍)”고 하였다. 패기(旆旗)는 깃대가 높고 기폭(旗幅)의 끝이 제비 꼬지처럼 된 잡색(雜色)의 깃발임.
- 7) 연화(年華) : ① 세월. ② 연세(年歲). ③ 춘광(春光 : 봄의 풍경, 경치). ④ 곡물이 다 여물었거나 연중 작품의 수확상황을 가리킴.
- 8) 염염(冉冉) : ① 점차 전진 발전하는 모양(세월이 점차 흘러가는 것을 형용한 말 ; 사물이 점차 변화해가는 것을 형용한 말). ② (나뭇가지나 머리카락이) 유약하여 드리워지지 아니하는 모양. ③ 분명하지 아니한 모양, 흐릿한 모양. ④ (병, 감정 등에)엷매인 모양. ⑤ 총망(惛忙)한 모양, 분주한 모양. ⑥ 섬광(閃光)이 번뜩이는 모양.
- 9) 물상분분(物狀紛紛) : 만물상황이 번잡하다.
 ① 물상(物狀) : 여기서 물(物)은 ‘사회 혹은 외계환경’을 가리키고, 상(狀)은 ‘상태 혹은 형편’을 뜻함.
 ② 분분(紛紛) : ☆매우 많은 모양. ☆어지러운 모양. ☆바빠서 두서없는 모양이나 번망(繁忙 : 번거롭고 바쁨)한 모양.
- 10) 우정(郵亭) : 역마울의 객사(客舍). 역관(驛館).
- 11) 홀경우두사장홍(忽驚牛斗射長虹) : 홀연히 견우성과 북두성이 무지개를 비췄네) : 여기서 ‘무지개’는 검광(劍光)을 비유한 말임.
 ① 홀경(忽驚) : 홀연히, 갑자기.
 ② 우두(牛斗) : 28수(二十八宿) 중의 견우성(牽牛星)과 북두성(北斗星).
 ③ 장홍(長虹) : 무지개.



시76. 정경임 鄭景任에게 부치다

詩76. 寄鄭景任¹⁾
기 호 영 혐
의 정 경 임

鄭君憐我老兼癡,
정 군 연 아 노 겸 치

정군은 나를 어여삐 여기게나
늙고 어리석지만,

嗜好寧嫌²⁾與俗違。
기 호 영 혐 여 속 위

기호가 의외로 고약해서
세속과 어긋나도 말일세.

道契³⁾屢聽山水引⁴⁾,
도 계 누 청 산 수 인

의기투합하여 누차 산수곡조山水曲調를
들었었고,

情深多寄短長詩⁵⁾.
정 심 다 기 단 장 시

정취 깊어지면 장단시長短詩에
그 얼마나 기탁했던가.

-
- 1) 정경임(鄭景任) :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문인(門人). 자세한 것은 <시 41>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2) 영혐(寧嫌) : 뜻밖에도 고약하다.
① 영(寧) : ☆부사로 쓰면, 마침내, 의외로(竟). ☆바로, 곧(乃). ☆설마(~하겠는가?) ; 어찌(~이겠는가?). ☆접속사로 쓰면, ☆차라리(~하는 것이 낫다). ☆오히려(~할지언정).
 - ② 혐(嫌) : 매스껍게 하다, 금기하다, 불만스럽다, 고약하다.
 - 3) 도계(道契) : ① 피차 사생(死生)이 일치하고 의기투합하는 것을 이룸. ② 불(佛)과 도(道)에 연분이 있음을 이룸.
 - 4) 산수인(山水引) : 산수곡(山水曲), 즉 산수(山水)를 읊은 시의 곡조. 인(引)은 ‘곡(曲)’의 뜻임.
 - 5) 단장시(短長詩) : ① 짧은 시, 혹은 긴 시. ② 하나의 시편 안에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이 섞여있는 시.

清水貯月壺含彩,
청 빙 저 월 호 함 채

얼음에 달 담기면 호병壺瓶이
채색을 머금은 듯 했고,

古鏡懸秋玉斂輝⁶⁾.
고 경 현 추 옥 렴 휘

옛 동경銅鏡에 흰 달이 걸리면
옥에 윤기가 도는 듯 했지.

歲晚⁷⁾漸生浮海計⁸⁾,
세 만 점 생 부 해 계

노년이 되니 바다에 뗏목 띄울 생각
점차 드나니,

可能從我共幽期⁹⁾.
가 능 종 아 공 유 기

가능하면 나를 따라
은거隱居를 기약하세.

6) 고경현추옥렴휘(古鏡懸秋玉斂輝) : 옛 동경(銅鏡)에 흰 달이 걸리면 옥(玉)에 윤기가 도는 듯 했지 :

① 고경(古鏡) : 옛적에 제작된 동경(銅鏡).

② 현추(懸秋) : ‘달을 걸어놓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동경(銅鏡)에 달이 비치는 것을 표현한 말임. 특히, 추(秋)의 의미는 오색(五色 : 청색·황색·적색·백색·흑색)과 오행(五行 : 금(金)·수(水)·목(木)·화(火)·토(土))을 사계절과 배합하여, 가을을 금(金)에 안배하고, 그 색깔은 하얀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달을 대칭(代稱)한 것임.

7) 세만(歲晚) : ① 세말(歲末), 세모(歲暮)의 뜻으로, 연말(年末). ② 사람의 만년(晩年)에 비유하는 말로 쓰임.

8) 부해계(浮海計) : 바다에 뗏목 띄울 생각을 하다. 『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에, “도(道)가 행해지지 않는구나(道不行), 뗏목을 타고(乘桴), 바다를 항해하려 한다(浮于海)”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공자가 만년의 느낌을 이야기한 것으로, 쇠퇴한 문화를 진흥시키고자 열국(列國)을 주유(周遊)했으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자, 공자는 이와 같이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임.

9) 유기(幽期) : ① 은거하는 기약. ② 은밀하거나 그윽한 약속. ③ 남녀 간의 밀회를 가리킴.



시77. 안동安東(경북 북부)에서 경성京城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재촉 받고,
단양丹陽(충북 북부)에 도착해서 비에 막혀,
하루를 지체하면서

詩77. 自安東承催召還京 到丹陽阻雨 留一日
자 안 동 승 최 소 환 경 도 단 양 조 우 유 일 일

丹陽空館雨紛紛¹⁾,
단 양 공 관 우 분 분

단양丹陽의 텅 빈 공관公館에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데,

倦客停驂²⁾獨³⁾揜門。
권 객 정 찰 독 업 문

지친 나그네 말을 세워놓고
어찌 문을 닫겠는가?

古木深⁴⁾藤迷翠壁,
고 목 심 등 미 취 벽

고목에 얽힌 등나무와 푸른 담쟁이
벽에 심취되어 있는데,

-
- 1) 분분(紛紛) : ① (많은 사람이나 물건 또는 비 같은 것이) 잇달아, 연이어, 설 사이 없이, 계속하여. ② 어수선하게 많다, 분분하다. ③ 어지러운 모양 ; 바빠서 두서없는 모양(영망이다).
- 2) 찰(驂) : ① 한 수레에 맨 세필의 말. 전(轉)하여 '마(馬)'라고도 함. ② 고대의 마차는 네 필의 말이 끄는 데, 바깥쪽 좌우의 말은 찰(驂), 또는 비(駢)라 하고, 안쪽의 두 말은 복(服)이라 하였음.
- 3) 독(獨) : 의문부사로 쓰여, 어찌(어떻게) ~한 일이 있겠는가? 설마 ~는 아니겠지.
- 4) 심(深) : 무성하다.

落花啼鳥又黃昏。
낙 화 제 조 우 황 혼

꽃잎 지고 새 지저귀더니
황혼도 깃드네.

十年往迹隨流水，
십 년 왕 적 수 유 수

십년 전에 가봤던 물길을 따라 걸으며，

千里歸心⁵⁾寄斷雲⁶⁾。
천 리 귀 심 기 단 운

천리 먼 곳의 고향 생각
조각구름에 부쳐보네.

淨掃風塵⁷⁾無一策，
정 소 풍 진 무 일 책

전란戰亂 말끔히 쓸어낼
대책 하나 없으니，

不知何計報明恩⁸⁾。
부 지 하 계 보 명 은

무슨 계책으로 성은聖恩에 보답해야
할 지 모르겠네.

-
- 5) 귀심(歸心) : ① 귀가(歸家)하고 싶은 생각. ② 성심(誠心)을 다해 귀순하다. ③ 안심하다.
④ 귀순하고 싶은 생각.
6) 단운(斷雲) : 편운(片雲), 조각구름.
7) 풍진(風塵) : 여기서는 '전란(戰亂)'을 가리킴.
8) 명은(明恩) : 현명한 군주의 은혜를 가리킴.



시78. 단양(丹陽) 협곡에서 비를 만나서

詩78. 丹陽峽中 遇雨

단 양 협 중 우 우

一夜寒溪漲綠波，
일야한계장녹파

하룻밤새 싸늘한 계곡에
푸른 물결 넘실대고,

峽雲飛雨濕征簑¹⁾。
협운비우습정사

협곡의 구름이 비 되어 날리니
나그네 도롱이가 축축해지네.

思親戀闕²⁾愁如海，
사친연궐수여해

아버이 그립고 궁궐 못 잊어
수심(愁心)이 바다 같은데,

撫事³⁾驚心鬢欲華⁴⁾。
무사경심빈욕화

지나간 일 회상하니 두려워서
살쩍이 다 희어지려 하네.

1) 정사(征簑) : 출정인(出征人)의 도롱이(簑).

① 정(征) : 곧 정인(征人)을 가리킴. 이는 ‘출정(出征)하는 군사(軍士), 혹은 먼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함.

② 사(簑) : ‘사(蓑)’의 속자(俗字)로서, 도롱이를 가리킴. 이는 짚 따위를 엮어 허리와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으로, 예전에는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을 너털너털하게 만들.

2) 연궐(戀闕) : ‘궁궐을 그리워하다’는 뜻인데, 예전에 ‘군왕(君王)을 사모하는 것’을 비유하여 쓰는 말임.

3) 무사(撫事) : ① 일(사건)이 발생하다. ② 지나간 일, 즉 왕사(往事)를 추억하다, 시사(時事)를 마음에 새기다. ③ (속임수를 써서) 귀순시키다.

4) 빈욕화(鬢欲華) : 살쩍이 희어지려하다.

① 빈(鬢) : 살쩍(귀밑머리) :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

已把⁵⁾功名輸汗馬⁶⁾,
이 파 공 명 수 한 마

이미功名^{功名} 떨쳤으나
전공^{戰功} 세우는 데 실패하여,

惟將⁷⁾客淚濺江花。
유 장 객 루 천 강 화

단지 나그네 눈물
강변에 꽃잎 지듯 흘러네.

當年枉起⁸⁾東山老⁹⁾,
당 년 왕 기 동 산 노

그 해 헛되이 출동했던
동산^{東山}의 늙은 출정인^{出征人},

爲問¹⁰⁾蒼生奈爾何¹¹⁾。
위 문 창 생 내 이 하

백성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대들을 어찌하나'일세.

② 화(華) :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지다. 화(華)는 화(花 : 머리가 희끗희끗하다)의 본자(本字)이다.

5) 파(把) :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잡다'는 뜻이며, 전(轉)하여, '세우다, 누리다, 떨치다'는 것을 가리킴.

6) 수한마(輸汗馬) : 전공(戰功)을 세우는데 실패하다.

① 수(輸) : 실패하다. (싸워서) 지다.

② 한마(汗馬) : 한마지로(汗馬之勞)의 약어로서 '정전(征戰)의 노고'를 가리키며, '전공(戰功)'을 가리키기도 함.

7) 장(將) : 개사(介詞 : 전치사)로 쓰여, ' ~을, ~를'의 뜻을 나타냄.

8) 왕기(枉起) : 헛되이 출동하다.

9) 동산로(東山老) : 동산(東山)의 늙은 정인(征人). 종군(從軍)하여 원정(遠征)한 사람을 가리킴. '동산(東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시 58>의 주석 7)을 참조 바람.

10) 위문(爲問) : 바로 묻다. 여기서 위(爲)는 부사로 쓰여, '장차, 곧, 바로'와 같은 뜻으로 쓰였음.

11) 내하(奈何) : ① 어찌함의 뜻을 나타냄. 이의 목적어로는 대개 인칭 대명사가 오며, 주로 부정문에 쓰인다. ② 인칭 대명사일 경우, 내(奈)와 하(何) 사이에 읊.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주로 반문(反問)으로 사용함. 여하(如何)와 뜻이 유사함.



시79. 서극부徐克夫가 춘천부사春川府使로
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詩79. 送徐克夫¹⁾ 出宰²⁾春川
송 서 극 부 출 재 춘 천

相攜莫惜到更殘³⁾,
상 유 막 석 도 갱 잔

손 맞잡고 애석해 말자하니
되레 더 가슴 아파,

共此臨分⁴⁾一夜權。
공 차 임 분 일 야 환

같이 이렇게 이별 앞두고
하룻밤 우의 다졌네.

末路⁵⁾漸看知己少,
말 로 점 간 지 기 소

인생 말년이 되니 지기知己 줄어들는 게
점차 눈에 띄고,

- 1) 서극부(徐克夫) : 서인원(徐仁元 : 1544-1604) : 극부(克夫)는 서인원(徐仁元)의 자인. 호(號)는 명암(鳴巖). 본관은 이천(利川). 관직은 강원도 관찰사. 자세한 것은 <시 12>의 주석 2)를 참조 바람.
- 2) 출재(出宰) : 경관(京官), 즉 도성(都城)에서 근무하던 관리가 지방의 현관(縣官)으로 취임하는 것.
- 3) 도갱잔(到更殘) : 오히려 더욱 가슴 아프다.
 - ① 도(到) : 도(倒)와 통하며, ‘도리어, 오히려’의 뜻임.
 - ② 잔(殘) :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 4) 공차임분(共此臨分) : 함께 이처럼 이별을 앞두고.
 - ① 공(共) : 함께.
 - ② 차(此) : 이처럼, 이렇게, 이와 같이.
 - ③ 임분(臨分) : 이별에 임하다. 막 헤어지려고 하다.
- 5) 말로(末路) : 만년(晩年), 노년의 뜻. 자세한 것은 <시 72>의 주석 7)을 참조 바람.

衰年偏覺⁶⁾別懷難⁷⁾。
쇠년 편각 별회난

노쇠해지니 석별의 정회情懷가
유달리 전디기 어렵네.

山中桂樹⁸⁾秋應⁹⁾碧，
산중계수추응벽

산 속 계수나무는 가을인데도
모두 푸르고,

洛北¹⁰⁾烟波月自寒。
낙북연파월자한

낙동강 상류에 안개 피니
달빛도 절로 차가워지네.

名節更期風雨夕¹¹⁾，
명절경기풍우석

명칭 정해진 절후節侯가 뒤바뀌어
비바람 몰아치는 저녁이면，

獨憐冰玉¹²⁾照心肝¹³⁾。
독연빙옥조심간

유독 귀애한다네 빙옥氷玉 같은 달이
내 마음 비추던 것을.

-
- 6) 편각(偏覺) : 소원해진 느낌. 편(偏)은 ‘소원하다’는 뜻임.
 - 7) 회난(懷難) : 앞으로의 일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비관(悲觀)’에 해당하는 말임.
 - 8) 계수(桂樹) : 계수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이므로 가을에는 낙엽이 진다.
 - 9) 응(應) : 명사로 쓰여, ‘일체, 전부’를 나타냄.
 - 10) 낙북(洛北) : ‘낙동강 상류’란 뜻으로, 강원도를 가리킴.
 - 11) 명절경기풍우석(名節更期風雨夕) : 명칭 정해진 절후가 뒤바뀌어 비바람 몰아치는 저녁이면 :
 - ① 명절(名節) : 명칭이 정해진 절후(節侯), 곧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를 이르는 것으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 하지, 소서, 대서 …, 입추, 처서, …, 입동, 소설, … 소한, 대한’임.
 - ② 명절경기(名節更期) : 명칭이 정해진 절기(節氣)의 기간이 뒤바뀐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입춘(立春)시기나 추분(秋分)시기에 소서(小暑)를 전후해서 엄습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를 이른 것임.
 - ③ 서애주석(西厓注釋) : 서애는 여기에 남헌시(南軒詩)를 예로 들어서 본 시구의 주석을 대신하고 있음 ; “일평생 비바람 몰아치는 저녁이면(平生風雨夕), 매년 정해진 절후 명칭 부르기가 난감했던 생각나네(每念名節難)”라는 것임.
 - 12) 빙옥(氷玉) : ‘얼음과 옥’이 원래의 뜻인데, 전(轉)하여,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나, ‘순결한 사람’ 또는 ‘청정(淸淨)한 사물’에 비유하는 말로 상용(常用)함. 본 시에서는 달을 비유한 말로 쓰였음.
 - 13) 심간(心肝) : ① 심장과 간. ② 생각(심정, 감정)을 가리킴. ③ 진지한 정 의(情意)에 비유됨.
 - ④ 양심, 정의감. ⑤ 가장 친절하고 애지중지하다, 진심으로 사랑하다.



시80. 가을밤에 기러기 소리 듣고 고향이 그리워서

詩80. 秋夜聞鴈 思鄉
추 야 문 안 사 향

三年病臥洛城¹⁾中, 삼년을 한양에서 와병臥病 중에
삼 년 병 와 낙 성 중 있다 보니,

又見南山樹葉紅。 남산에 붉게 물든 나뭇잎
우 견 남 산 수 엽 홍 또 보게 되었네.

半夜鄉心歸鴈²⁾識, 한밤중 고향 생각
반 야 향 심 귀 안 식 돌아가는 저 기러기는 알겠지,

一聲和雨³⁾過江東。 기러기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일 성 화 우 과 강 동 강동江東을 지나가네.

1) 낙성(洛城) : 원래는 중국의 낙양성(洛陽城)을 말함. 이곳은 중국 역대에 여러 왕조의 도읍을 정했고, 그 후에 후한(後漢), 서진(西晉), 후위(後魏), 수(隋), 오대(五代) 때의 후당(後唐) 등도 이곳을 수도로 정했음.

본 시에서 쓴 '낙성(洛城)'은 이 '수도(首都)'라는 뜻을 차용하여 '한성(漢城)'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음.

2) 귀안(歸鴈) : '귀홍(歸鴻)'이라고도 함. 시문(詩文)에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의탁하는 것'에 많이 이용하는 말임. '보급자리 또는 북쪽으로 돌아가는 기러기'라는 뜻임.

3) 화우(和雨) : 가랑비.

시81. 이숙재 李叔載가 남쪽으로 귀향하는 것을
전송하면서(숙재 叔載의 이름은 전 塹인데, 상소를 올려
친정 親征을 요청하였으나, 비답 批答이 내려오지 않자 귀향하였음)

詩81. 送李叔載¹⁾南歸 叔載名塹, 上疏請親征, 不報而歸
송 이 숙 재 남 귀 숙 재 명 전 상 소 청 친 정 불 보 이 귀



洛水²⁾寒雲起, 낙동강에 차가운 구름 일더니만,
낙 수 한 운 기

商山³⁾暮雪飛。 상산 商山에 날 저물자 눈발이 날리네.
상 산 모 설 비

人生有此日, 인생에는 이런 날이 있게 마련이니,
인 생 유 차 일

世事足⁴⁾危機。 세상사 世上事란 위기를 중시해야 한다네.
세 사 족 위 기

1) 이숙재(李叔載) : 이진(李塹 : 1558-1648). 숙재(叔載)는 이진(李塹)의 자임, 호는 월간(月澗), 본관은 흥양(興陽). 조선 중기의 학자. 동생 준(掄)과 함께 류성룡(柳成龍)이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 수학하였으며 이때부터 퇴도(退陶)의 학설을 배우고 주자서(朱子書)를 전심(專心)으로 공부하였음.

1603년 사마시에 합격, 학행(學行)으로 추천되어 세마(洗馬), 독우(督郵)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 인조반정 후에 기용되어 지례(知禮 : 지금의 경북 김천시 지례면) 현감에 임명되었으나 후에 사임하고 고향에 들어가 유유자적했다. 이숙평(李叔平 : 이준(李掄))의 형임. <시 75>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2) 낙수(洛水) : 낙동강.
3) 상산(商山) : 지금의 경북 상주시(尙州市)의 옛 이름.
4) 족(足) : 중시(重視)하다.

壯志今餘幾, 응지雄志가 지금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장 지 금 여 기

知音⁵⁾古亦稀. 이전에도 날 알아주는 이는 드물었다네.
지 음 고 역 희

相看萬里外, 서로가 만 리 밖 먼 곳을 바라보다가,
상 간 만 리 외

回首⁶⁾各霑衣. 고개 돌려 각자가 옷깃을 적시네.
회 수 각 젖 의

5) 지음(知音) : 음률에 통달하다 ;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에 기재된 우화(寓話) 중의 하나에 의하면, ‘백야(伯牙)는 거문고를 잘 뜯었고, 종자기(鍾子期)는 그 음을 잘 들었다’고 하였다. 백야가 뜯는 거문고 음의 뜻이 고산(高山)에 있으면, 종자기는 “드높고 웅장함이어! 태산과 같구나(峩峩兮若泰山)”라고 말하고, 거문고의 음의 의도가 유수(流水)에 있으면, “드넓고 망망함이어! 장강(長江)과 황하(黃河) 같구나(洋洋兮若江河)”라고 말하였다. 백야가 거문고 소리에 기탁한 것을 종자기는 틀림없이 알았던 것이다. 후세에 위 내용에서 나오는 ‘지음(知音 : 음률을 알다)’을 가지고 ‘지기(知己) 또는 동지(同志)’에 비유하였음. 이는 작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킴.

남조시대(南朝時代) 양(梁)나라 유협(劉勰)의 저서 『문심조룡(文心雕龍)·지음편(知音篇)』에, “음악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워(音實難知),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사실 어렵다(知實難逢). 그런 음악에 대한 진정한 이해력을 갖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逢其知音),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다(千載其一乎)”라고 하였음.

6) 회수(回首) : ① 고개(머리)를 돌리다. ② 귀순하다. ③ 회상(回想)하다. ④ 사망을 일컫는 말.

시82. 안산安山(경기도 서남부) 가는 도중에 느낌이
있어서(정유년丁酉年 : 1597년, 선조宣祖 30, 서애西厓 56세,
체찰사體察使로써 경기도로 순시를 나가던 중이었음)

詩82. 安山途中有感 丁酉, 以體察使, 出巡京畿道¹⁾
안 산 도 중 유 감 정 유 이 체 찰 사 출 순 경 기 도



報國心猶在, 나라에 대한 충성이야 마음으론 여전한데,
보 국 심 유 재

匡時²⁾力不謀³⁾。 시국時局 안정에 역량이
광 시 력 불 모 계획을 따라주질 못하네.

一年南又北, 일 년 내내 남과 북을 오가느라,
일 년 남 우 북

萬事病⁴⁾兼憂。 만사가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기만 하였네.
만 사 병 겸 우

芳草長河岸, 방초芳草는 강기슭에 무성하게 자라고,
방 초 장 하 안

斜陽古驛樓⁵⁾。 석양은 낡은 역참驛站의 다락집을 비추네.
사 양 고 역 루

- 1) 체찰사(體察使) : 〈시 71〉의 주석 3)을 참조 바람.
- 2) 광시(匡時) : 시대를 바로 잡다, 시국(時局)을 안정시키다.
- 3) 불모(不謀) : 서로 부합되지 않다. 즉, 역량이 계획을 따라갈 수 없다.
- 4) 병(病) : 간난곤고(艱難困苦), 즉 지극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 5) 역루(驛樓) : 역참(驛站)의 다층(多層) 건물.

悲風起天末, 스산한 바람 하늘가에서 불어오는데,
비 풍 기 천 말

立馬⁶⁾故⁷⁾遲留⁸⁾。 역마驛馬를 지원받으려 한참동안 지체했네.
입 마 고 지 류

6) 입마(立馬) : 각 역(驛)에서 역마(驛馬)를 길러 공용(公用)에 바치던 일. <시 72>의 주석 5)를 참조 바람.

7) 고(故) : 오랫동안, 한참동안.

8) 지류(遲留) : ① 체류하다, 머물다. ② 멈추다.



시83. 명나라 장수를 수행(隨行)하여 남하하다가
이천(利川, 경기도 동남부)을 경유하면서,馬上에서
얼핏 떠오르는 시상(詩想)을 읊어서
정협(鄭協) 종사관(從事官)에게 보여주다

詩83. 隨天將¹⁾南下路經利川馬上偶吟²⁾示鄭從事和伯協³⁾
수 천 장 남 하 로 경 이 천 마 상 우 음 시 정 종 사 화 백 협

黯黯⁴⁾山雲起, 어슴푸레 날 저무는데 산 위로 구름이 일고,
암 암 산 운 기

- 1) 천장(天將) : 명나라 대장(大將)을 가리키는 호칭. 중국은 역대로 ‘대장(大將)의 미칭(美稱)’으로 ‘천장(天將)’이라 불렀으나, 당시 조선에서는 ‘천자(天子)의 장수’라는 뜻에서 ‘명나라 장수에 대한 존칭’으로 대장을 ‘천장(天將)’이라 불렀음. <시 20>의 주석 1) ‘부천사(副天使)’ 조항을 참조 바람.
- 2) 우음(偶吟) : 유념(留念)하지 않고, 얼핏 떠오르는 생각, 즉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시상(詩想)을 시가(詩歌)로 읊음. 옛날의 시사(詩詞) 제목에서 많이 쓰였음. ‘음작(吟作)’이라고도 함.
- 3) 정종사화백협(鄭從事和伯協) : 정(鄭)은 성씨이고 종사(從事)는 직함이며, 화백(和伯)은 자이고, 협(協)은 이름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자를 쓰며, 이름을 나중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임.
 - ① 정협(鄭協) : 1561-1611) : 조선 중기의 문신임. 1585년(선조 18)에 진사시(進士試)에 장원, 1588년 식년문과(武年文科)에 급제하였음. 정여립(鄭汝立) 사건에 연루됐다고 귀양 가서 사망했던 부친이 신원(伸寃)된 후 관운(官運)이 순조로웠다. 1605년 동지부사로 명나라에 갔다 온 후,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이조판서를 역임했음. 문장에 능하여 실록(實錄)을 중간(重刊)할 때, 편수관으로 참여했음.
 - ② 종사(從事) : 종사관(從事官)을 칭하는 것으로 이는 조선시대의 관직으로, 각 군영(軍營), 포도청(捕盜廳)에 소속된 종6품의 벼슬임.
- 4) 암암(黯黯) : ① 어두워지다. ② 거무스레해지다. ③ 숨기고(숨어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다. ④ 풀이 죽어(기가 꺾여) 낙담하는 모양.

茫茫⁵⁾海日斜。 아득히 먼 바다 끝에 해가 기울네.
 茫茫 해 일 사
 此時愁遠役⁶⁾， 이 시각 전란지역 병사들이 걱정되나니,
 차 시 수 원 역
 何處卽爲家。 어느 곳을 당장 집으로 삼고 있을까?
 하 처 즉 위 가
 天地風霜苦， 온 천지가 풍상風霜에 시달리고 있으니,
 천 지 풍 상 고
 干戈⁷⁾歲月多⁸⁾。 전쟁하는 세월이 너무나도 길구나.
 간 과 세 월 다
 憑高⁹⁾一長嘯¹⁰⁾， 높은 곳에 올라가 목청 돋워 길게 한 번
 빙 고 일 장 소
 외쳐보리,
 世事問如何。 묻노니 세상사를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세 사 문 여 하

5) 망망(茫茫) : 넓고 넓어 아득한 모양.

6) 원역(遠役) : 먼 곳(변방, 전란지대, 분쟁지역)에 나가서 병역(또는 부역)에 복무하는 것, 또는 그렇게 국경을 지키거나 전투하는 병사. ‘역(役)’은 ‘병역에 복무하거나 복무하는 병사’의 뜻도 있고, 전역(戰役 : 전쟁)이란 뜻도 있음.

7) 간과(干戈) : ① 방패와 창. 이들 무기는 고대에 상용하던 무기였으므로 ‘간과(干戈)’를 무기의 통칭으로 쓰기도 함. ② 전쟁을 가리킴. ③ 병사, 무력을 가리킴. ④ 고대의 무무(武舞)를 가리킴.

8) 다(多) : 지나치게 길다.

9) 빙고(憑高) : 높은 곳에 올라가다.

10) 장소(長嘯) : 〈시 68〉 주석 20)을 참조 바람.

시84. 운암(雲巖) 골짜기 바위에 시詩를 쓰다

(서문을 병기함)

詩84. 題雲巖石¹⁾上并序

丹陽長林驛²⁾南距六七里, 沿溪而入, 地名雲巖, 景致勝絕³⁾.

有曹伸⁴⁾者卜居⁵⁾, 作小亭, 名曰水雲.

亂後棄而不守, 余以虎皮一張購得之, 顧繫官⁶⁾于朝, 未能賦歸⁷⁾,

徒夢想神遊耳.

戊戌二月, 自南中⁸⁾還, 路出其下, 因得一遊, 書五言律于溪石上,

以志⁹⁾余懷, 同遊者尹從事敬立¹⁰⁾云.



- 1) 운암(雲巖)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서 남쪽으로 6~7리 지점에 위치한 강변 지역.
- 2) 장림역(長林驛)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단양동 10리 지점)에 위치했던 옛 역.
- 3) 승절(勝絶) : 씩 뛰어나다, 절묘하다.
- 4) 조신(曹伸) : 미상.
- 5) 복거(卜居) : ① 거주지를 (점쳐서) 택하다. ② 도읍지를 (점쳐서) 택정(擇定)하다.
- 6) 계관(繫官) : 조정의 관리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 계(繫)는 ‘매달다, 귀속되다, 관계있다’는 뜻임.
- 7) 부귀(賦歸) : 『논어(論語)·공야편(公冶篇)』에, “공자가 진나라에 있으면서(子在陳),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야겠구나(日歸與歸與)”라고 하였다.
그래서 후세인들은 ‘귀향을 읊음(賦歸)’을 ‘사직(辭職)하고 향리로 돌아가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음.
- 8) 남중(南中) : 즉 남도(南道). 원래는 경기도 이남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으나, 여기서의 남도(南道)는 충청도 이남에 위치한 경상도를 칭함.
- 9) 지(志) : ①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다. ② 지(誌). 즉 기록하다.
- 10) 윤종사경립(尹從事敬立) : 윤(尹)은 성씨이고, 종사(從事)는 직함이며, 경립(敬立)은 이름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이나 자(字)를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임.
① 윤경립(尹敬立 : 1561-1611)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존중(存中), 호는 우천(牛川). 1585년(선조 18)에 진사,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로 왕명을 받아 연강방수(沿江防守)의 임무를 맡았고, 다시 관량어사(管糧御史), 독운어사(督運御史)의 소임을 맡아 군량공급에 공을 세우고, 왕의 상을 받았다. 1598년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양호찰리사(兩湖察理使)가 되어 군량, 마초를 공급하고 뒤이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후에 병조참의(兵曹參議)도 지냈으며,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명관(名官)으로 알려졌다.
② 종사(從事) : 종사관(從事官)을 칭하는 것으로 이는 조선시대의 관직으로, 각 군영(軍營), 포도청(捕盜廳)에 소속된 중6품의 벼슬임.

단양丹陽(충북 북부) 장림역長林驛에서 남쪽으로 6~7리 떨어진 곳에서, 시냇물을 따라 들어가면, 이곳 지명이 운암雲巖인데, 경치가 아주 좋다. 조신曹伸이란 사람이 이곳을 주거지로 택하여 조그마한 정자亭자를 하나 지어놓고, 수운정水雲亭이라 불렀다.

전란戰亂이 발발한 후에 그는 (이곳을) 버려두고 돌보지 않았는데, 내가 호피虎皮 한 장을 주고 이 정자를 사들였으나, 조정의 관리 명부에 등록된 관리들을 다 살펴봐도 아직은 사직辭職하고 귀향할 수 있는 관리가 없었으니, 오직 꿈속에서 훈령이나 여기 와서 놀 따름이었다.

무술년戊戌年(1598년 : 선조 31, 서애 57세) 2월, 남도南道¹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러, 유람하다가 운암雲巖의 계곡 바위에, 오언율시五言律詩 한 수를 쓸 기회가 생겼기에, 내가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동반 유람자 윤경립尹敬立 증사관從事官을 마음에 새기면서 읊었다.

曹氏曾遊地, 조씨曹氏가 일찍이 거닐었던 이곳을,
조 씨 증 유 지

吾廬¹²⁾ 偶卜隣¹³⁾。 내 오두막으로 우연히 선택하게 되었네.
오 러 우 북 린

谷深時見鹿, 계곡이 깊어 때때로 노루가 보이고,
곡 심 시 견 룡

村遠不逢人。 마을과는 거리 멀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네.
촌 원 불 봉 인

11) 남도(南道) : 즉 남중(南中). 위의 주석 8)을 참조 바람.

12) 러(廬) : 오두막집.

13) 복린(卜隣) : 선택린거(選擇隣居), 즉 ‘이웃으로 선택하다’는 뜻임. 『좌전(左傳)·소공 3년(昭公三年)』에 ‘복린(卜隣)’이란, 이 말이 나오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 말을 ‘타인에게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는 뜻으로도 사용하였음.

山水還成癖, 산수山水를 아직도 좋아하는 버릇이 있어,
산 수 환 성 벽

烟霞¹⁴⁾欲養眞¹⁵⁾。 연하烟霞 속에서 수양하며
연 하 욕 양 진 본성을 보존하려네.

干戈¹⁶⁾滿南國, 격전激戰이 남부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간 과 만 남 국

何處避風塵¹⁷⁾。 어느 곳인들 전란戰亂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 처 피 풍 진

14) 연하(烟霞) : 연하(煙霞)로도 씀. ① 홍진속세(紅塵俗世 : 번잡한 인간세상)를 가리킴.
 ② 산수(山水), 산림(山林)을 가리킴. ③ 연무(煙霧)와 노을.
 15) 양진(養眞) : ① 수양하여 본성을 보전하다. ② 천진한 마음을 기르다.
 16) 간과(干戈) : <시 83>의 주석 7)을 참조 바람.
 17) 풍진(風塵) : <시 74>의 주석 11)을 참조 바람.



시85. 김홍미 金弘微 참의 參議 에게 써서 주다

詩85. 贈 金參議 昌遠 弘微¹⁾
증 김 참 의 창 원 홍 미

颯颯²⁾ 風凋葉, 쇠쇠 바람 불자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삼 삼 풍 조 엽

微微³⁾ 月隱河⁴⁾. 흐릿하게 달이 은하수에 잠겨버리네.
미 미 월 은 하

人生白髮易, 사람의 한평생 백발 되기 참 쉽고,
인 생 백 발 역

1) 김참의 창원 홍미(金參議昌遠弘微) : 김(金)씨는 성씨이고, 참의(參議)는 직함이며, 창원(昌遠)은 자이고, 홍미(弘微)는 이름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그 다음에 자(字)를 쓰며, 이름을 나중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임.

① 김홍미(金弘微 : 1557-1604)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상주(尙州), 호는 성극당(省克堂). 조식(曹植)과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임. 김홍미는 또한 서에 자신의 질서(姪壻), 즉 백씨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의 만사위임.

1585년(선조 18) 문과에 급제하며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에 관련되어 한 때, 파직되었다가 교리 등을 거쳐 사간(司諫), 사성(司成) 등을 역임하였음. 1597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있을 때, 이순신(李舜臣)을 탄핵하여 파면케 하고, 원균(元均)을 통제사로 삼게 하는데 가담하였음. 1598년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1605년 강릉부사(江陵府使)때 병고로 면직되었음.

② 참의(參議) :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소속되었던 정3품 벼슬로, 정원은 각 1명임.

2) 샅샅(颯颯) : ① 의성어로서,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소리. 쇠쇠. ② 의성어로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 짹짹. ③ 노쇠한 모양. ④ 매우 빠른 모양.

3) 미미(微微) : ① 보잘 것 없이 아주 미약한(작은) 모양. ② 그윽하고 고요한 (단아하고 심원한) 모양. ③ 보슬비(가랑비) 등이 부슬부슬 내리는 모양.

4) 하(河) : 천하(天河), 은하(銀河), 은하수.

秋夕黑雲多。 추석에 먹구름 끼는 날도 흔하다네.
추 석 흑 운 다

作宦寧辭罵⁵⁾ 관리가 돼서 어찌 질책에 한을 품는가?
작 환 영 사 매

懷家⁶⁾更怨賒⁷⁾ 가족을 생각해서 더더욱 원망은 삭여야지.
회 가 경 원 사

餘年⁸⁾幸無事 남은 인생 무사하기만 바라면서,
여 년 행 무 사

歸去老山阿⁹⁾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나.
귀 거 노 산 아

5) 작환영사매(作宦寧辭罵 : 관리가 돼서 어찌 질책에 한을 품는가) :

① 환(宦) : 관리, 벼슬아치.

② 영(寧) : 어찌 ~하겠는가(이겠는가).

③ 사(辭) : ☆원한을 품다. ☆한스러워하다. ☆책망하다, 비난하다, 탓하다.

6) 가(家) : 가족, 가정, 집.

7) 사(賒) : ① 거리를 멀리하다(거리가 멀다). ② 느슨하게 하다(느슨하다). ③ 소멸하다.

8) 여년(餘年) : 앞으로 남은 인생.

9) 노산아(老山阿) : 깊은 산의 기슭.

① 노산(老山) : 심산(深山)의 뜻임.

② 아(阿) : 큰 구릉, 언덕, 산기슭.



시86. 희지希之 김대현金大賢 선친의 시집에 써주다

詩86. 書金希之大賢¹⁾先人詩卷

서 김희지대현선인시권
 戊戌九月, 余以事得諱, 待命於東郊²⁾. 金直長希之訪於寂寥中,
무술구월 여이사득견 대명어동교 김직장희지방어적묘중

1) 김희지 대현(金希之大賢) : 김(金)은 성씨이고, 희지(希之)는 자이며, 대현(大賢)은 이름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를 쓰고 나서, 이름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임.

① 김대현(金大賢 : 1553-1602) : 조선 선조 때의 학자,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희지(希之), 호는 유연당(悠然堂), 경상도 영주(榮州 : 경북 북부) 출신.

1582년(선조 15)에 진사가 됨. 임진왜란 때 고향에서 향병(鄉兵)을 모아 안집사(按集使) 김복(金功) 휘하에 들어가서 민심 수습에 공헌하고 난 후에 기민(饑民)구제에 전력을 기울였음. 1595년에는 이덕형(李德馨)과 김복(金功)의 추천으로 성현도찰방(省峴道察訪)에 임명되고, 이어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예빈사주부(禮賓寺主簿) 등을 거쳐 1601년 산음현감(山陰縣監)으로 재임하던 중 병사(病死)했음. 지방관으로 있을 때, 문묘를 중수하고, 기민을 구제하였으며, 향촌교육에 힘을 기울였음.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경북 영주의 구호서원(鵠湖書院)에 위패가 봉안되었음. 시문집으로 『유연당선생문집(悠然堂先生文集)』이 있음.

2) 대명어동교(待命於東郊 : 동교(東郊)에서 어명을 대기하고 있었다) : 어명을 대기한 사유는 업무상의 견책을 받아서인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는 서애연보(西涯年譜)에 의거하면, 1598년, 선조 31, 서애 57세에 발생한 사건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명(明)나라 총독군문(總督軍門) 형개(邢玠)의 참모관인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 사건 때문임.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명(明)나라 경리(經理) 양호(楊鏞)가 울산성(蔚山城)에서의 왜군 가등청정(加藤清正)과의 일전(一戰)에 패배한 사실을 두고, 정부가 이를 양호(楊鏞)와 합작하여 속이고 은폐했을 뿐 아니라, 왜인들과도 통모(通謀)했다는 식으로, 명(明) 황제에게 무주(誣奏)한 것을 말함. 선조가 이로 인해 정사(政事)를 중단하고 동궁에게 결계를 위임하자, 이에 서애는 2품 이상의 관리를 인솔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복합(伏閣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적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이 대궐문(大闕門)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엎드려 청하던 일)하던 중, 형군문(邢軍門)의 차인(差人)이 대궐에 와서, 과도관(料道官 : 명나라 각부의 실무를 맡은 기관) 4, 5명을 보내어 군량미 조달을 요청하였는데, 선조가 역시 이를 비답(批答) 하지 않자, 이조판서 홍진(洪進)이 서애에게 관안(官案)을 갖고 와서 차출하여 보낼 사람을 묻자, 급한 김에, 전한(典翰) 김신국(金薰國), 집의(執義) 황정철(黃廷詰), 병조정랑(兵曹正郎) 윤홍(尹弘), 지평(持平) 이이첨(李爾瞻) 등 4인을 낙점하고 서류를 갖춰 아뢰었다. 이때, 이이첨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불복하여, '왜 서애 자신이 가는 것은 자청하지 않는가'를 탄핵하여, 윤홍(尹弘)의 호응을 이끌어내자, 서애는 이로 인해 탄핵을 받게 되었음.

둘째는 진주사(陳奏使 : 조선시대에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에 주청(奏請)할 일이 있을 때 보내던 사절임.)로 차임(差任)된 것을 두고, 다시 여론이 들끓게 된 사건임.

서애는 이때, 위의 첫 번째 일로 탄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선조로부터 주청사(奏請使)로 하명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사(政事)를 행할 수 없음을 들어 사직상소를 수차례 올렸으나, 윤택 받지 못함에, 본 시의 서문과 원시(原詩)에서 밝힌 것처럼 꺾 밖 '동교(東郊)'에

因攜示其先人詩卷。余乙酉所題，亦在其中，存亡忽忽俯仰之頃³⁾，
인휴 시기 선인 시권 여을유소제 역제기중 존망홀홀부앙지찰
 已十四年矣。撫玩⁴⁾感泣。暇日，重次其韻⁵⁾，書諸後面而歸之。
이십사년의 무완 감읍 가일 중차기운 서제후면이귀지

무술년 戊戌年(1598년, 선조 31, 서애 57세) 9월, 나는 업무로 인해 견책 讒
 誣을 받아, 동교東郊에서 어명 御命을 대기하고 있었다. 마침 내가 적
 막할 때, 김대현(희지) 직장 直長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선친
 先親의 시집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다. 내가 을유년 乙酉年(1585년 선조
 18, 서애 44세, 아들 위(禕) 출)에 지어주었던 시도 그 안에 있었다. 생사
 生死의 순간이 홀연히 일순간인 듯, 어느덧 14년이나 되었던 것이
 다. 시집을 어루만지니 감격하여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한가한 시기
 라서 다시 그 시에 차운 次韻하여, 그것을 시집 후면 後面에 써 주고
 그를 돌려보냈다.

白首羈危⁶⁾道路間, 백발 되어 험지 險地로 떠나고자
백수기위 도로간
 노상에 서고 보니,

서 사직상소에 대한 윤허를 대기하고 있었던 것임.

10월 2일에 올린 차자(筵子)에도 보면, “지금 신으로 말하자면, 전번에는 사행(使行)을 피
 하여, 불충한 죄가 있고, 나중에는 사사로이 편당을 길러 권세를 탐하였으니, 영해(嶺海)의
 밖이 곧 신이 죽을 곳입니다”, 또 10월 3일에 올린 차자(筵子)에는, “신은 교외에 물러가
 앞드려서 석고대죄(席藁大罪)하오니, 영해(嶺海)로 귀양 가는 일만 있고, 다시 도성 안에
 들어갈 의리가 없습니다. 여론을 잘 굵어 살피 빨리 신의 직책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록이 보임.

- 3) 부양지경(俯仰之頃) : 허리를 구부렸다가 펴는 순간이란 뜻에서, ‘시간이 아주 짧음’을 비유한 말.
- 4) 무완(撫玩) : (애석하게 여기며) 어루만지다.
- 5) 차운(次韻) :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함. 보운(步韻)이라고도 함.
- 6) 기위(羈危) : ① 험난한 곳을 떠돌아다니다. ② 나그네.

此生長恨⁷⁾未歸山⁸⁾。
차 생 장 한 미 귀 산

이 생애 최고 여한餘恨은
진작 은거하지 못한 것일세.

人情紙薄眞難保，
인 정 지 박 진 난 보

인정人情이 초지草紙같이 얇아
참 보전키 어려운데，

世故絲棼不暫閒⁹⁾。
세 고 사 분 부 잠 한

대를 이은 교분交分은 난리 중에도
단절되지 않네.

念舊¹⁰⁾幾多¹¹⁾心感慨，
념 구 기 다 심 감 개

옛 친구를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에
감개무량한지，

7) 장한(長恨) : 마음속 깊이 사무쳐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원한. 천추(千秋)의 여한(餘恨).

8) 귀산(歸山) : ① 은퇴하다. ② 사망을 이르는 말.

9) 인정지박진난보(人情紙薄眞難保 : 인정이 초지(草紙)같이 얇아 참 보전키 어려운데, 세고사분부잠한(世故絲棼不暫閒 : 대를 이은 교분은 난리 중에도 단절되지 않네) :

① 서애주석(西厓注釋) : 서애는 이 시구와 관련하여, 이도은(李陶隱)의 시구(詩)인 “종잇장처럼 세상인정이 알팍한데(紙樣人情薄), 난리 중에도 대를 이은 교분 신선하네(絲棼世故新)”라고 읊은 주석을 달고 있음.

② 이도은(李陶隱) : 이승인(李崇仁 : 1349년 고려 충성왕 1-1392년 이태조 1)의 호. 고려 말의 학자,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 자는 자안(子安). 저서로 『도은시집(陶隱詩集)』 5권이 있음(일부는 유실됨).

③ 세고(世故) : ☆세상의 사정(事情). ☆세사변고(世事變故), 변란. ☆세속인정. ☆세교(世交 : 고교<故交>), 즉 윗대부터 혹은 여러 대에 걸쳐 상호 교제 왕래가 있는 교분을 가리킴. ☆생계(生計).

④ 사분(絲棼) : 『좌전(左傳)·은공 4년춘(隱公四年春)』 조항에, “신<臣>은 덕으로 백성을 양순하게 해야 한다고 들었지(臣聞以德和民), <군대의 힘에 의거하여> 전란을 통해서 <백성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不聞以亂). 전쟁을 통해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以亂), 마치 엉킨 실을 잘 풀다는 것이 오히려 그걸 더 엉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猶治絲而棼之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현대 중국 언어학자 양백준(楊伯峻)이 이 글에 주(註)를 달아 말하기를, “분(棼)자의 음은 분(汾)과 같고, ‘분란(紛亂)’의 뜻이다”고 하였음. 그 후로 ‘사분(絲棼)’을 ‘분란이 일어 문란(紊亂)함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하였음.

⑤ 부잠한(不暫閒) : 잠시도 단절되지 않네. ‘한(閒)’은 ‘지식(止息 : 진행하던 일이 잠시 멈춤)’의 뜻임.

10) 념구(念舊) : ① 옛정을 잊지 않다. ② 옛 친구를 생각하다.

11) 기다(幾多) : ① 감탄문에 쓰여, 얼마나 ~인가. 어쩌면 그토록 ~할까. ② 의문대사로 쓰여, ‘얼마, 몇’의 뜻을 나타냄.

看題空有淚潺湲¹²⁾。
간 제 공 유 루 찬 원

시제詩題를 보자 괜히 눈물이
흘러내리네.

西風落木東郊外，
서 풍 낙 목 동 교 외

하늬바람에 낙엽 진 동쪽 교외에서,

一度¹³⁾思君一愴顏。
일 도 사 군 일 창 안

한 차례 주군主君이 그리워질 때마다
안색이 비통해지네.

-
- 12) 잔원(潺湲) : ①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양. ② 냇물이 줄줄 흐르는 모양, 또는 그 소리.
13) 일도(一度) : ① 1차(一次). ② ~한 적이 한 번 있었다. ③ 일차도과(一次渡過 : 한 번 건너갔다). 이때의 도(度)는 도(渡 : 건너다)의 뜻임. ④ 일(日), 월(月), 성신(星辰)이 운행되는 거리를 계량(計量)하는 하나의 단위. ⑤ 온도, 각도, 경위도(經緯度) 등의 한 단위.



시 87. 무술년 戊戌年(1598년, 선조 31년, 서애 57세) 겨울에
관직에서 파직되어 전원으로 돌아가는데,
도미협 渡迷峽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서울 부근 산을 바라보며, 네 번 절을
올린 후에 떠났다. 대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한양의 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詩 87. 戊戌冬 罷官歸田¹⁾ 到渡迷峽 下馬望京山
무술동 파관귀전 도도미협 하마망경산
四拜而行²⁾ 蓋過此則不復見京山故也
사배이행 개과차척불부견경산고야

- 1) 파관귀전(罷官歸田) : 관직에서 파직되어 귀향하다) :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거하면, 서애는 무술년(戊戌年 : 1598년, 선조 31년, 서애 57세) 11월에 사직상소를 올리자, 휴가를 얻어, 11월 5일 부포(釜浦)로 이사했다. 이미 서애는 10월 6일에 진주사(陳奏使)의 업무가 체면(遞免) : 직위가 교체되면서 그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아니하게 되는 일)되면서, 7일에 전농리(典農里)로 이사했고, 9일에는 영의정(領議政)의 직(職)이 체면(遞免) 되면서, 22일에는 다시 왕십리로 이사하였음. 그러나 서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거듭 사직상소를 올려 마침내, 19일에는 완전히 파직되었음. 그리하여, 20일에 남쪽으로 귀향길을 재촉했다. 서애는 이로 인해, 정계(政界)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된다. <시 86>의 서문(序文)과 주석 2)를 참조 바람.
- 2) 도도미협(到渡迷峽) : 도미협에 이르러), …… 사배이행(四拜而行) : 네 번 절을 올린 후에 출발하였다) :
 - ① 도미협(渡迷峽) : 이는 지금의 하남시의 검단산과 남양주시의 예봉산 줄기가 만나 좁은 협곡을 이룬 곳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도미(渡迷)·두미(斗尾)·두미(斗迷)라 하였음.
 - ②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거하면, 바로 10월 22일 기계에, “용진(龍津)을 건너 양근(陽根) 대단(大灘)에 유숙했는데, 이날 행차가 도미천(渡迷遷)에 이르렀을 때, 서애는 삼각산을 바라보고 말에서 내려 네 번 절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임.

田園歸路三千里, 전원田園으로 돌아가는 길은 삼천리지만,
전 원 귀 로 삼 천 리

帷幄³⁾深恩四十年。 궁중 휘장揮帳 아래서
유 악 심 은 사 십 년 대은大恩을 입은 건 사십년일세.

立馬渡迷⁴⁾回首望⁵⁾, 도미협渡迷峽에서 말 세워놓고
입 마 도 미 회 수 망 고개 돌려 바라보니,

終南山⁶⁾色故依然⁷⁾。 종남산終南山 산색山色은 여전히
종 남 산 색 고 의 연 이전과 다름없네.

3) 유악(帷幄) : ① 제왕(帝王)을 가리킴.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는 반드시 유악(帷幄 : 휘장)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컬어진 말. ② 실내에 걸린 장막(帳幕) 또는 유만(帷幔 : 휘장).
③ 천자(天子)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나 장수(將帥)가 작전계획을 세우는 막부(幕府), 군장(軍帳 : 대장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곳).

4) 도미(渡迷) : 도미협(渡迷峽)을 칭함.

5) 망(望) : 바라다. 기대하다.

6) 종남산(終南山) : 남산(南山)의 옛 이름.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 사이에 위치함.

7) 고의연(故依然 : 여전히 평소와 다름 없다) : ① 고(故) : 여전히. ② 의연(依然) : 전과 다름없다.



시88. 단양행 丹陽行

詩88. 丹陽行¹⁾ 단양행

路出丹陽, 時兵火²⁾之後, 村落空虛, 尋人居, 跋涉³⁾山谷,

로출 단양 시병화 이후 촌락공허 심인거 발섭 산곡

夜深乃至極危險。戲作⁴⁾丹陽行, 以記一時之事。

야심내지극위험 희작 단양행 이기일시지사

단양(丹陽(충북 북부))으로 길을 떠나는데, 때는 전란을 치른 뒤라서, 촌락이 텅텅 비어 있어, 인가(人家)를 찾아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가다가, 밤이 깊어졌고 심지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심심풀이로 '단양행(丹陽行)'을 지어서 당시의 일을 기록해 본다.

丹陽之山高復高,
단양지산고부고

단양(丹陽)의 산세는 높고도 높아서,

1) 단양행(丹陽行) : <단양행>의 '행(行)'은 악부시(樂府詩) 편명(篇名)의 하나로 봐야 할 것임.

① 단양(丹陽) : 지금의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읍명(邑名).

② 행(行) : 이는 악부(樂府)의 편명(篇名)의 하나임. '악부(樂府)'란, 말은 한무제(漢武帝)가 설치한 음악관서의 명칭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초에는 이 악부에서 각 지방의 민가를 채집하였고, 또한 작곡도 하여 조정의 행사 때 노래로 부르게 하였다. 이때 불러진 노래의 곡조는 알 길이 없으나, 가사(歌辭)가 전해지면서 악부라는 관서명칭이 시체(詩體)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음. 그리하여 후인들은 이를 악부시(樂府詩)라고 칭함. 악부시의 내용은, 주로 인생의 애환과 풍속 등을 사실에 의거하여 읊었음. 악부시는 5언, 혹은 7언 및 기타 잡언(雜言)으로 이루어진 장단구(長短句)의 형식이나, 한대(漢代) 후기로 오면, 5언구 중심으로 형식화 되는 경향을 보였음.

이 악부시에는 편명(篇名)이 적지 않음. 이를테면, 위의 '행(行)' 외에도, 가(歌)·요(謠)·음(吟)·곡(曲)····, 등이 있음. 주로 서사적(敘事的)인 장편의 시로 가창(歌唱)이 되는 것은 '가(歌)'라 하고, 건다가 달리듯이 생기면서도 막히지 않는 노래는 '행(行)'이라고 하며, 또한 가(歌)와 행(行)을 합친 것은 '가행(歌行)'이라고 함. 그리고 고저장단을 따라 미세한 마음의 정을 노래한 것은 '곡(曲)'이라 하고, 아! 하고 탄식하고 슬픔과 격정으로 깊이 생각하여 얻힌 것을 노래하는 것은 '음(吟)'이라 한다. 또 악기의 반주 없이 노래만 하는 민가(民歌) 등은 도가(徒歌)로서, 이를 보통 '요(謠)'라고 함.

2) 병화(兵火) : ① 전쟁, 전란을 가리킴. ② 전쟁으로 인해 조성된 재화(災火).

3) 발섭(跋涉) : 등산섭수(登山涉水), 즉 산 오르고 물 건넌다는 뜻으로, '여행(旅程)'이 매우 고생스러움'을 가리킴.

4) 희작(戲作) : 글 따위를 실없이 생각나는 대로 장난삼아 지음, 또는 그 글.

石峯攬天⁵⁾如列戟。
석 봉 란 천 여 열 극

석산石山의 봉우리가 하늘을 찢러
줄지어 세워놓은 창끝 같네.

一線棧道⁶⁾縈巖巒⁷⁾，
일 선 잔 도 영 암 만

한 가닥 잔도棧道가
힘준한 산등성이에 얽혀서，

十步九折迷南北。
십 보 구 절 미 남 북

열에 아홉 걸음은 고부랑길로
남북이 헛갈리네.

巨壑訖然⁸⁾深不測，
거 학 하 연 심 불 측

큰 골짜기 깊어서 바닥을
헤아릴 수 없고，

陰崖⁹⁾慘慘¹⁰⁾楓林黑。
음 애 참 참 풍 림 흑

그늘진 벼랑 침침하여 단풍 숲마저
거뭇거뭇하네.

上坂巉巖¹¹⁾下坂絕，
상 판 참 암 하 판 절

산비탈 위쪽은 가파른 암벽
아래쪽은 절벽인데，

層氷¹²⁾到處滑鎔鑱¹³⁾。
층 빙 도 처 활 용 략

도처에 층진 빙판길 반질반질
녹아내린 납 모양일세.

-
- 5) 참천(攬天) : 하늘을 찢르다.
 - 6) 잔도(棧道) : 산골짜기에 높이 건너질러 놓은 다리(선반처럼 달아서 뱀).
 - 7) 영암만(縈巖巒) : 힘준한 산등성이를 에워싸다.
 - ① 영(縈) : 열기설기 얽히다, 휘감다, 둘러싸다, 얽매이다, 꾸불꾸불 구부러지다.
 - ② 암만(巖巒) : 높고 험준한 산들이 축 잇대어 있는 모양. 높고 험준한 산등성이. ‘만(巒)’은 산등성이, 작고 뾰족한 산, 둥글고 낮은 산 등의 뜻이 있음.
 - 8) 하연(訖然) : 산골짜기가 평활한 모양. 하(訖)는 ‘값다’는 뜻임.
 - 9) 음애(陰崖) : 햇볕이 들지 않는 낭떠러지.
 - 10) 참참(慘慘) : ① 참(慘)은 참(黦)과 통하여, 혼암(昏暗)한 모양을 가리키며, 검푸른 암청색을 나타낸다. ② 근심하고 슬퍼하는 모양. ③ 처참한 모양.
 - 11) 상판참암(上坂巉巖) : 위쪽 산비탈은 가파른 암벽.
 - ① 상판(上坂) : 위쪽 산비탈.
 - ② 참암(巉巖) : 가파르게 깎아지른 듯한 암벽, 참(巉)은 ‘가파르다’는 뜻임.
 - 12) 층빙(層氷) : 후빙(厚氷) : 두터운 얼음과 같음.
 - 13) 용랍(鎔鑱) : 녹아내리는 납. 납을 녹이다. 용(鎔)은 녹다, 용해되다.

人言此是鬼門關¹⁴， 사람들이 이곳을 귀문관鬼門關이라 하여，
 人言此是鬼門關，
 行人未上心先慄。 길손은 오르기도 전에 마음 먼저 떠드네.
 行人未上心先慄。
 我今流離¹⁵經此中， 내가 지금 유랑流浪하는 신세로
 我今流離經此中， 이곳을 지나가기에，
 我今流離經此中，
 百口¹⁶相隨飢凍迫。 식솔들은 따라오며 허기와 추위에
 百口相隨飢凍迫。 직면했네.
 百口相隨飢凍迫。
 疲牛瘦馬鞭不動， 지친 소 야윈 말은 채찍질에도
 疲牛瘦馬鞭不動， 끄떡 않는데，
 疲牛瘦馬鞭不動，
 日暮饜風吹虐雪¹⁷。 날 저물자 거센 눈바람
 日暮饜風吹虐雪。 사납게 몰아치네.
 日暮饜風吹虐雪。
 狐狸往往嗥¹⁸我後， 여우와 살쥬이 이따금
 狐狸往往嗥我後， 등 뒤에서 울어대고，
 狐狸往往嗥我後，
 猛獸咆哮¹⁹當我前。 맹수는 포효하며 내 앞을 막아서네.
 猛獸咆哮當我前。
 猛獸咆哮當我前。
 雙然²⁰神動不可留， 두려워 정신이 아찔해서 지체할 수 없는데，
 雙然神動不可留，
 雙然神動不可留，

14) 귀문관(鬼門關) : 도깨비가 드나든다는 관문. 관문의 명칭으로, 이는 음계(陰界)와 양계(陽界)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길목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위험하여 두려워할만 한 것에 비유함.
 15) 유리(流離) : ① (흉년이나 전란으로 인해) 유랑(流浪)하다. ② 광채가 있는 모양. ③ (흠뻑 젖어) 똑똑 떨어지다. ④ 회전하는 모양. ⑤ (말, 문장 등이) 유창하여 문학적 재능이 있다. ⑥ 그물 같은 것으로 짐승이나 조류 같은 것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킴.
 16) 백구(百口) : ① 전 가족, 근친 일족. ② 백명(百名). ③ 말끝마다.
 17) 동풍학설(饜風虐雪) : 몹시 사납게 몰아치는 풍설(風雪). 도(饜)는 주로 '탐내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맹렬(猛烈)함'을 비유한 말로 쓰인 것임.
 18) 호(嗥) : 으르렁거리다, 부르짖다.
 19) 포휴(咆哮) : 포효(咆哮)하다, 울부짖다, 으르렁거리다.
 20) 쌍연(雙然) : 깜짝 놀라는 모양, 놀라서 두려워하는 모양.

百里行盡無人煙²¹⁾。
백 리 행 진 무 인 연

백리를 다 가도 연기 나는
인가人家 없네.

僮僕²²⁾號呼²³⁾兒女泣,
동 복 호 호 아 녀 울

시동侍童들은 비명 지르고
아이들은 울어대니,

丈夫到此難爲顏²⁴⁾。
장 부 도 차 난 위 안

대장부도 이쯤 되자
체면 세우기 어렵네.

平生學道未得力²⁵⁾,
평 생 학 도 미 득 력

평생 도道를 학습해도
아직 효과 없으니,

外物²⁶⁾寧作秋毫²⁷⁾看。
외 물 영 작 추 호 간

몸 밖 사물事物을 어찌 가볍게
여기겠나!

臨風²⁸⁾快歌丹陽行,
임 풍 쾌 가 단 양 행

바람 안고 가며 빠른 박자로
'단양행丹陽行'을 지어 읊나니,

自古人間行路難。
자 고 인 간 행 로 난

예로부터 인간의 행로는
고난의 길이로세.

21) 인연(人煙) : 인가(人家)에서 불을 때어 나는 연기라는 뜻으로, 사람이 사는 기척, 또는 인가를 이르는 말.

22) 동복(僮僕) : 잔심부름하는 아이종, 시동(侍童). 하인의 총칭.

23) 호호(呼號) : 비명(悲鳴)을 지르다, 울부짖다.

24) 난위안(難爲顏) : 체면 세우기 어렵다.

① 난위(難爲) : ☆난처하게 하다. ☆~하기 어렵다. ☆함부로 하다, 모욕하다, 손상하다. ☆신세를 지다, 은혜를 입다.

25) 득력(得力) : 효과가 있다, 도움을 받다, 힘을 입다.

26) 외물(外物) : ① 신외지물(身外之物), 즉 '몸 밖의 사물'이란 뜻으로, 주로 '이익(利欲)과功名(功名) 같은 것'을 가리킴. ② 철학용어로서, 마음에 접촉되는 객관적 세계의 모든 대상.

27) 추호(秋毫) : ① 추호(秋豪)라고도 씀. 조수(鳥獸)가 겨울을 대비한 털갈이를 하여, 새이 돋어난 보드라운 털을 말하는데, '미세(微細)한 것'에 비유하는 말로 씀. ② 붓을 가리킴.

28) 임풍(臨風) : 바람을 맞받다, 바람을 안다, 바람을 맞다.



시89. 도심산재道心山齋에서 밤에 누워서
빛소리 듣다

詩89. 道心山齋¹⁾ 夜臥聞雨
도심산재 야와문우

松風山雨兩無情,
송풍산우양무정

슬바람이든 산비든 모두
무정하다 여겼더니,

併作山齋一夜清。
병작산재일야청

산속에 서재書齋를 짓고 나서 하룻밤 새
그 생각 말끔히 지웠네.

更與幽人²⁾醒俗慮³⁾,
갱여유인성속려

게다가 은사隱士와 교우交友하며
속념을 깨우치고 나서,

悄然⁴⁾欹枕到天明。
초연의침도천명

동틀 녘까지 고요히 베개 베고
뜬 눈으로 날 새웠네.

1) 도심산재(道心山齋) : 도심리(道心里)에 지었던 임시 거처지의 서재명칭임. ‘도심리’는 지금의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소재한 옛 마을 이름임.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서애가 선조 31년(1598년 : 57세) 11월에 파직되어 귀향하던 중에, 12월에 도심촌(道心村 : <道心里>)에 가서 피난중인 어머니 대부인을 찾아뵈었다. 다음 해, 2월(58세)이 되어서야 하회로 돌아왔고, 4월에는 대부인도 도심촌에서 돌아왔다. <시91>의 주석1)의 ②‘도심리(道心里)’ 조항을 참조 바람.

2) 갱여유인(更與幽人) : 게다가 은사와 교우하며.

① 갱여(更與) : 게다가 교우(交友)하다. ☆갱(更) : 게다가, 더욱. ☆여(與) : 서로 친밀하게 내왕하다. 지기(知己)를 결성하다. 교우(交友)하다.

② 유인(幽人) : 유인지인(幽人之人). 은사(隱士), 유사(幽士).

3) 속려(俗慮) : 속정(俗情). 명예와 이익을 바라는 세속적인 생각.

4) 초연(悄然) : ① 고요하다, 조용하다(또는 그 모양). ② 근심스럽다(또는 그 모양).

시90. 솔잎을 복용하고 나서 재미삼아 써 보다

詩90. 服松葉 戲題¹⁾
 복 송엽 희제



世事紛紛²⁾夢一場, 세상사 어지러워 한바탕 꿈을 꾸는 듯,
 세사분분 몽일장

生涯³⁾隨處⁴⁾似僧涼。 인생살이가 도처에서 증처럼 쓸쓸하네.
 생애수처사승량

今年學得餐松法, 올해 들어 솔잎 먹는 법 배워 익히느라,
 금년학득찬송법

不管⁵⁾湖田⁶⁾半已荒。 옥담沃畝 관리 았았더니
 불관호전반이황
 절반은 이미 흉작일세.

-
- 1) 희제(戲題) : 글 따위를 실없이 생각나는 대로 장난삼아 지음, 또는 그 글.
 - 2) 분분(紛紛) : 어수선하다. <시 77>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3) 생애(生涯) : ① 생명. ② 인생. ③ 생활. 자세한 것은 <시 36> 주석 6)을 참조 바람.
 - 4) 수처(隨處) : 도처에, 어디서나.
 - 5) 불관(不管) : ① 연사(連詞 : 접속사)로 쓰여, ‘~에 관계없이, ~을 막론하고’의 뜻. ② 동사로 쓰여, ‘관계(간섭, 상관)하지 않다’의 뜻.
 - 6) 호전(湖田) : 기름진 전지(田地). 저수지 가에 있어 관개(灌漑)가 편리한 논밭. 옥담(沃畝), 미전(美田)과 비슷한 말임.



시91. 도심리道心里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민가民家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시상詩想을 적다

(기해년己亥年 : 1599년, 선조宣祖 32, 서애西厓 58세)

詩91. 寓居道心里¹⁾ 民家偶題²⁾ 己亥³⁾
우 거 도 심 리 민 가 우 제 기 해

我來道心里, 내가 도심리道心里에 오고 나서,
아 래 도 심 리

愛此道心名。 이 ‘도심道心’이란 지명을 사랑하게 되었네.
애 차 도 심 명

1) 우거도심리(寓居道心里) : 도심리(道心里)에 임시로 살다 :

① 우거(寓居) : ☆타향에 임시로 살. ☆남의 집에 부처 살.

② 도심리(道心里) : 본 고장은 태백산(太白山)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즉, 지금의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소재한 옛 동네임.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서애가 선조 31년(1598년 : 57세) 11월에 파직되어 귀향하던 중에, 12월에 도심촌(道心村 : <道心里>)에 가서 피난중인 어머니 대부인을 찾아뵈었다. 다음해, 2월 (58세)이 되어서야 하회로 돌아왔고, 4월에는 대부인도 도심촌에서 돌아왔다.

2) 우제(偶題) : 우음(偶吟)과 같음. 얼핏 떠오르는 생각(즉,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시상(詩想))을 씀.

3) 기해(己亥) : 작시(作詩) 연대가 기해년(己亥年 : 서애 58세)으로 되어 있는데, 연보(年譜)에 의거하면, 서애가 대부인(大夫人)께 문안차 도심촌(道心村)에 들른 것은 무술년(戊戌年 : 서애 57세) 12월임. 기해년(己亥年) 2월 16일에 금계(金溪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능골)에 가서 선친(先親) 산소에 성묘하고 하회로 돌아왔음. 따라서 본 시의 작시(作詩) 시기는 기해년(1599년) 정월에서 2월 중순 사이로 추정됨.

臨溪弄⁴⁾泉水, 시냇가 우물에서 샘물을 길렀는데,
입 계 농 천 수

心與水較清。 마음과 물을 놓고 맑기를 비교했네.
심 여 수 교 청

溪深可垂釣, 시냇물은 깊어서 낚시를 할 만 하고,
계 심 가 수 조

谷邃⁵⁾宜躬耕⁶⁾。 골짜기 유심幽深하여 밭 갈기도 적합하네.
곡 수 의躬 경

三復⁷⁾欽明訓⁸⁾, 반복해서 ‘흠명훈欽明訓’을 독송讀誦해 보지만,
삼 부 흠 명 훈

誰知⁹⁾千載情¹⁰⁾。 어찌 천 년의 뜻을 알리오?
수 지 천 재 정

-
- 4) 농(弄) : 본 시에서는 ‘샘물을 길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 ‘농(弄)’이란 동사는 여러 동사의 뜻을 대표하여 쓴다. 주(倣) : 작(作)과 같으며, 하다, 만들다 는 뜻임, 관(辦 : 처리하다) 등의 뜻으로,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의 동작을 대신한다. 농반(弄飯 : 밥을 하다), 농수단(弄手段 : 수단을 부리다), 농불호(弄不好 : 잘 하지 못하다) 등이 그 예이다. 그 밖에도 희롱하다, 장난하다 등의 뜻이 있음.
 - 5) 곡수(谷邃) : 산곡(山谷)이 유심(幽深)하다.
 - 6) 궁경(躬耕) : ① 궁(躬)은 궁(躬)의 본자(本字)로서,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함. ② 전지(田地)를 경작함. ③ 임금의 친경전(親耕田)에 나가 몸소 경작하는 의식을 치러 백성들에게 권농(勸農)함.
 - 7) 삼부(三復) : 반복해서 독송(讀誦)함을 이룸.
 - 8) 흠명훈(欽明訓) : 삼가고 엄숙하며 사려 깊은 훈계 : 여기서 흠명(欽明)은 ‘삼가고 엄숙하며 사려 깊다’는 뜻이다. 『서경(書經)·요전(堯典)』에, “요임금은 정사(政事)를 처리함에 근신(謹慎)하였고, 사리(事理)에 통달했으며, 문채(文采 : 문학적 재능)가 뛰어났으며, 사려가 깊었으며, 그 의태(儀態)가 온화하고 너그러웠다(欽明文思安安)”고 한 구절이 나온다. 당(唐)나라 학자 육덕명(陸德明 : 약 550-630)이 동한(東漢)의 학자 마융(馬融 : 79-166)의 글을 인용하여, 이 글을 해석하기를, “위의(威儀)를 갖춘 것을 ‘흠(欽)’이라 하고, 그 치덕(治德)이 사방을 비추는 것을 ‘명(明)’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후세 사람들은 이 “흠명(欽明)”이란 말을 ‘군주에 대한 숭사(頌詞)’로 썼다. 본 시의 ‘흠명훈(欽明訓)’도 군주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읊은 시사(詩詞)임.
 - 9) 수지(誰知) : 어찌 천 년 전에 밝힌 뜻을 알겠는가?
 ① 수(誰) : ☆의문대사 : 누구, 누군가, 어떤 사람. 사람마다. ☆부사 : 설마, 어찌.
 - 10) 천재정(千載情) : 천년정(千年情)과 같은 말로서, ‘영원한 정취, 영원한 심경(心境)’을 뜻함.



시92. 재차 승려 학기學己 시집에 차운次韻하다

(서문을 병기함)

詩92. 重次學己上人¹⁾詩卷韻 并序

戊子秋, 余在河上²⁾, 學己來訪。適精舍³⁾菊花盛開。余贈詩曰 :

“叢菊⁴⁾亦可憐, 風霜方未央⁵⁾。離披⁶⁾空山下, 爛熳⁷⁾誰爲芳?

幽人⁸⁾來日暮, 三歎獨彷徨⁹⁾。有¹⁰⁾僧同住錫¹¹⁾, 知我遠懷長¹²⁾。”

其後丙申, 余隨天將¹³⁾南征, 暫過河上, 學己又來, 持詩卷求和¹⁴⁾,

1) 학기상인(學己上人) : 학기스님.

① 학기(學己) : 이력 미상인 모(某) 스님의 범명(法名).

② 상인(上人) : ☆중의 존칭. ☆지덕(知德)이 뛰어난 중, 성인(聖人). ☆법안(法眼) 다음 가는 승려의 지위. 조정에서 승려에게 하사되는 높은 지위 중의 하나로 ‘법인(法印)’이 있고, 그 법인(法印) 아래 ‘법안(法眼)’이 있으며, 법안(法眼)에 이어지는 승위(僧位)가 ‘상인(上人)’임.

2) 하상(河上) : 하회(河回) 마을. ‘물돌이동’이라고도 했으며, 다른 말로는 곡강(曲江)·하상(河上)·강촌(江村)·하외(河隈) 등으로 불리어졌음.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河回里)의 옛 마을 이름.

3) 정사(精舍) : 정사(精舍)의 뜻은 〈시 52〉의 주석 3)을 참조 바람. 여기서는 옥연정사(玉淵精舍)를 칭함.

4) 총국(叢菊) : 떨기를 이룬 무성한 국화.

5) 미央(未央) : 아직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다. 아직 끝나지 않다.

6) 이피(離披) : 이피(離披)로도 씀. ① 분산되는 모습. ② 성(盛)한 모습, 많은 모습. ③ 어지러이 떨어지는 모습. ④ 쇠잔(衰殘)한 모습. ⑤ 복잡하게 뒤섞여 혼란스런 모습. ⑥ 흔들거리는 모습.

7) 난만(爛熳) : 난만(爛漫)으로도 쓰고, 난만(爛縵)으로도 씀. ① 초목이 무성한 모습, 물건이 층만하여 넘치는 모양. ② 매우 난잡하게 어지러운 모습. ③ 광채가 사방으로 발산하는 모습. ④ 흩어져 사라지는 모양. ⑤ 뛰어난 (훌륭한) 모습. ⑥ 꽃이 만발한 모양. ⑦ 방랑(放浪)하다. ⑧ 만연(蔓延)하다.

8) 유인(幽人) : 은자(隱者).

9) 방황(彷徨) : ① 배회하다. ② 방황하다.

10) 유(有) : 동사, 명사, 형용사 앞에 ‘유(有)’자를 쓴 접두사에 상당하는 자로서, 뜻이 없음.

11) 주석(住錫) : ① 승려 또는 도사가 모(某) 지역에 거류(居留)함을 이룸. ② ‘석(錫)’은 석杖(錫杖) : 승려 또는 도사가 짚는 지팡이)의 뜻임.

12) 원회장(遠懷長) : ① 원회(遠懷) : 오랫동안 품은 생각, 원대한 포부. ② 장(長) : 정도를 표시하는 말로서 쓰였으며, ‘크다, 많다’는 뜻임.

13) 천장(天將) : ‘명(明)나라 장수’를 이르는 존칭. 천자(天子)의 장수란 뜻에서 붙여진 칭호.

14) 화(和) : 화운(和韻)을 가리킴. 차운(次韻)이라고도 하고, 보운(步韻)이라고도 함.

余步其韻¹⁵贈之云：“維舟山上樹，構屋水中央。世道¹⁶方榛塞¹⁷，

芝蘭¹⁸詎自芳！九年重到此，中夜起彷徨。風塵¹⁹何日息？

關海²⁰意空長。”

今適三年，而余以罪被逐，來寓²¹山中，學己自東庵²²日來見余。

間中出詩卷示之，余不覺歎息，因有羨於空門²³，復用其韻，

作長短句²⁴書其後。

무자년(戊子年, 1588년. 선조宣祖 21, 서애西厓 47세) 가을, 내가 하회河回에 있을 때, 학기學거가 찾아왔다. 때마침 정사(玉淵精舍)에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시를 지어주면서 소리 내어 읊기를 :

- 15) 보운(步韻) : 차운(次韻)이라고도 함. <시 62>의 주석 3)을 참조 바람.
- 16) 세도(世道) : ① 인간 세상의 도로.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사회형태를 가리킴. ② 세간(世間), 사회. ③ 사회도덕 풍조.
- 17) 진색(榛塞) : 잡목의 덩굴에 가로 막히다. 두절(杜絕)되다.
① 진(榛) : ☆개암나무. ☆덤불. ☆잡목의 숲.
② 색(塞) : ☆막히다(막다).
- 18) 지란(芝蘭) : 영지(靈芝)와 난초(蘭草). 모두가 향초(香草)이다 ; 우수한 자제(子弟)에 비유함.
- 19) 풍진(風塵) : 여기서는 전란(戰亂)을 가리킴. 자세한 것은 <시 74>의 주석 11)을 참조 바람.
- 20) 관해(關海) : ‘관(關)’은 ‘닫다’는 뜻으로, 왜구에 의해 바다길이 막힌 것을 표현한 것임.
- 21) 우(寓) : 기거(寄居)하다.
- 22) 동암(東庵) : 선림(禪林)의 동당(東堂)을 말함.
① 동당(東堂) : 선원(禪院)에서 선대(先代)의 주지(住持)가 있는 방. 전(轉)하여 주지로 온 거처서 그 절에 머물고 있는 노승(老僧)을 말함.
② 서당(西堂) : 선종사원(禪宗寺院) : 선종의 도를 닦는 절)이 아닌 다른 사원의 전주지(前主持)가 그대로 절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서당(西堂)이라고 함. 서당(西堂)은 원래 최고의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였음. 현재는 그 절의 주지가 아닌 운수(雲水 : 거처를 정하지 않고 스승을 찾아 수행(修行)하는 승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장로(長老)의 승리를 말함.
- 23) 공문(空門) :
① 불문(佛門)을 이름. 불교의 총칭. 불교는 주로 ‘공(空)의 도리’를 열반(涅槃)의 문이라 하기 때문임. ‘공(空)’은 모든 사물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고 자성(自性 : 고유한 성질, 즉 그 자체의 정해진 본질이 없음을 이르는 말임. ‘열반’은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함.
②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기 위한 공상(空相 : 공(空)의 특질. 실체가 없다는 특성의 법문(法門)을 말함. 즉 만물은 공(空)이라고 깨닫는 법문.
- 24) 장단구(長短句) : 장구(長句)와 단구(短句)가 섞여 있는 시가(詩歌).

떨기로 무성한 국화 역시 사랑할 만하네,
 찬비람과 서릿발에도 아직 지지 않았으니.
 인적 없는 산림 근처에 활짝 피었는데,
 누굴 위해 만발해서 향기 풍기는 것인고?
 은자隱者가 해질 무렵 찾아 와서는,
 찬탄을 거듭하며 홀로 배회徘徊하네.
 승려와 함께 머물다보니,
 내가 원대한 포부 지닌 게 오래된 걸 알아주네.

그 후 병신년(丙申年 : 1596년, 선조宣祖 29, 서애西厓 55세)에, 내가 명명
 나라 장수를 따라 남정南征할 때, 잠시 하회河回에 들렀는데, 학
 기學₂가 또 시집詩集을 들고 찾아와서 화운和韻을 요구하여, 나
 는 그 시집에 수록된 시운詩韻에 차운次韻해서 주었다 :

산기슭 나무에 나뭇배를 묶고 보니,
 강물 가운데 집을 한 채 지은 격이네.
 세상으로 통하는 길이 지금 사방으로 막혔는데,
 영지靈芝와 난초는 어찌하여 저 홀로 향기로운가!
 9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와서인지,
 한밤중에 일어나 이리저리 배회해보네.
 전란戰亂은 언제라야 그칠 것인고?
 바다가 막히고 보니 생각만 공연히 깊어지네.

지금까지 꼬박 3년째(역자주 : 서애 60세) 내가 죄를 짓고 축출되어, 이
 산중山中에서 기거寄居하는데도, 학기學₂는 동쪽암자東庵에서 날마다
 나를 보러 왔다. 한가한 틈에 시집詩集을 한권 내 놓고 보여주었는
 데, 나도 모르게 감탄하여, 불문佛門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솟아나기에, 다시 그 운자韻字를 사용하여, 장단구長短句를 지어 그
 시집 후면에 썼다.

東臺高不極，
동 대 고 불 극

동쪽 누대樓臺가 그다지 높지 않으나,

乃在天中央。
내 재 천 중 앙

그래도 하늘 가운데로 솟아 있네.

臺邊桂花落秋風，
대 변 계 화 낙 추 풍

누대 주변 계수나무 꽃이
가을 바람에 지는데,

歲晚²⁵⁾澗谷多幽芳。
세 만 간 곡 다 유 방

철 늦은 계곡 물가엔
고극한 꽃이 많구나.

時有羽衣²⁶⁾人，
시 유 우 의 인

때마침 도사道士가 나타나서,

驂鸞駕鶴²⁷⁾來彷徨²⁸⁾。
참 란 가 학 래 방 황

좌우로 난새鸞鳥 보호 받으며
선학仙鶴 타고 배회하네.

我欲尋師往問道，
아 욱 심 사 왕 문 도

내가 스승을 찾아가서
도도를 묻고자 하나,

悵悵²⁹⁾雲深石路長。
초 창 운 심 석 로 장

실망스럽게도
“구름 짙고 돌밭길이 멀다”하네.

25) 세만(歲晚) : ① 철 늦은 ② 세말(歲末). 세밑.

26) 우의(羽衣) : ① 도사(道士)의 대칭. ② 새털로 짠 의복(유연하고 경쾌한 옷을 가리킴).

27) 참란가학(驂鸞駕鶴) : 참란어학(驂鸞馭鶴)이라고도 함. 이는 도사가 선학(仙鶴)을 타고, 양쪽으로 ‘난(鸞)새’의 호위를 받으면서 행차하는 것을 표현한 것임. 난(鸞)은 난봉(鸞鳳), 즉 봉황(鳳凰)의 일종으로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상상의 새이며, 학(鶴) 역시 선학(仙鶴)으로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상상의 새이다. 여기서의 ‘참(驂)’, ‘가(駕)’ 그리고 ‘어(馭)’는 난새와 선학의 동사로 쓰여 ‘몰다’는 뜻임.

28) 방황(彷徨) : 배회하다.

29) 초창(悵悵) : 추창(惆悵)과 같은 말임. 실망하다, 실의에 차다, 낙담하다는 뜻임.



시93. 왕도王導를 읊다

詩93. 詠王導¹⁾

東晉²⁾元臣, 余必以王茂弘爲首。獨其殺周伯仁³⁾一事,
동진 원신 여 필 이 왕 무 홍 위 주 독 기 살 주 백 인 일 사

- 1) 왕도(王導 : 276-339) : 동진(東晉)의 낭야국(琅邪國) 임기현(臨沂縣) 북부 출신이다. 자는 무홍(茂弘), 북방의 명문귀족. 동각제주(東閣祭酒)에 봉해짐. 사마에(司馬睿 : 동진(東晉) 원제(元帝))가 낭야왕(琅邪王)이었을 때, 안동사마(安東司馬)로 전근하면서 군사기밀 업무에 참여하였음. 그는 사마예로 하여금 건강(建康 : 지금의 남경시(南京市))으로 근거지를 옮기도록 권유하였으며, 낙양(洛陽)이 함락되자 남북의 사족(士族)을 연합하여 사마예를 옹위하였고, 사마예는 진(晉)을 중건(重建)하고 칭제(稱帝)하였음. 국가 재건에 공훈이 가장 컸던 왕도(王導)는 승상이 되었으며, 원제(元帝 : 사마예)는 그를 존중하여, “중부(仲父)”라고 불렀음. 그 뒤에 종형(從兄) 왕돈(王敦 : 266-324)이 병권을 장악하고 양자강 상류에 주둔하는 것을 비롯해 왕씨의 친족 다수가 요직을 장악했음. 그래서 세칭(世稱) “왕씨(王氏)와 사마씨(司馬氏)가 천하를 공유(共有)하고 있다(王與馬共天下)”라는 말이 유행했음. 종형(從兄) 왕돈(王敦)이 모반(謀反)을 일으켰으나, 왕도는 함세하지 않았으며 명제(明帝)가 즉위하자 유조(遺詔)를 받들어 보정(輔政)하였다. 그 후 사도(司徒)가 되었다가 시흥군공(始興郡公)에 봉해졌음. 성제(成帝)가 즉위하자 유량(庾亮)과 함께 유주(幼主)를 공동보좌 하였음. 성제(成帝) 함화이년(咸和二年 : 327년) 소준(蘇峻 : ?-328)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동진(東晉) 정부군이 연전연패하자 왕도(王導)는 입궁하여 황제를 모셨음. 무력으로 병권을 장악한 소준(蘇峻)이지만, 평소 왕도(王導)를 존경했던 터라, 위해(危害)를 가하진 않았음. 후일 소준(蘇峻)의 난이 평정되고 나서 왕도(王導)는 다시 승상이 되었다. 시호(諡號)는 문헌(文獻)임.
- 2) 동진(東晉) : 서진(西晉)의 사마염(司馬炎)은 조조(曹操)의 아들 조비(曹丕)가 세운 위(魏) 나라를 265년에 멸한 다음, 낙양(洛陽)에 도읍을 정하고 진(晉)나라를 세웠으나, 왕조 후반기에 이르러 팔왕(八王)의 난으로 국정이 매우 혼란에 빠졌을 때, 북방의 호족(胡族)이 침입하여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난 316년에 멸망하였다. 그 후 사마(司馬)씨의 일족 중에 사마예(司馬睿 : 동진(東晉)의 원제(元帝))가 양자강(揚子江) 이남을 영토로 하여 건업(建業 : 지금의 남경시(南京市))을 국도(國都)로 진(晉)나라 왕조를 재건하였으니, 이를 동진(東晉)이라 한다. (낙양(洛陽)은 건업(建業)의 서쪽에 위치한다하여 낙양을 수도로 정한 진(晉)을 서진(西晉)이라 하고, 건업(建業)이 낙양(洛陽)의 동쪽에 위치한다 하여 건업을 수도로 정한 진(晉)을 동진(東晉)이라 함). 동진(東晉)은 419년 공제(共帝) 때에 가신(家臣)이자 군벌(軍閥)인 유유(劉裕 : 남조(南朝)의 송(宋) 무제(武帝))에게 나라를 빼앗겨 멸망하였음.
- 3) 주백인(周伯仁) : 주의(周顛) : 269-322) : 동진(東晉) 여남군(汝南郡) 안성현(安成縣), 즉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식현(息縣) 사람. 자는 백인(伯仁), 이름은 의(顛). 젊어서부터 풍류와 재기(才氣)로 명성이 높았다. 약관(弱冠)에 세습작위가 무성후(武成侯), 비서랑(秘書郎)에 봉해졌음. 원제(元帝)가 태자소부(太子少傅 : 태자의 사부)로 봉했으나 주실(酒失)로 인하여 복아(僕射 : 하급무관)로 강등됨.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어, 당시 사람들이 그를 술에

分假手⁴⁾報怨, 用心一差⁵⁾, 而不覺其流入於小人. 雖有他美, 不足贖也. 近世有王陽明⁶⁾記夢詩, 其詞托郭景純⁷⁾語, 以導爲奸臣,

취해 3일 동안 깨어나지 않는 복야(僕射)라는 뜻에서 ‘삼일복야(三日僕射)’라고 불렀음. 왕돈(王敦)이 모반을 일으키자, 그는 성지(聖旨)를 받들어 왕돈에게 가서 대의(大義)를 들어 꾸짖었다. 당시 원제(元帝)는 제왕(諸王)과 함께 왕씨 일족을 모조리 죽이려 하였으나, 주백인(周伯仁)은 왕돈(王敦)의 종제(從弟)인 왕도(王導)는 충성을 다했다고 극력 간(諫)해서 마침내 왕도(王導)는 구제되었다. 왕돈이 건강(建康 : 지금의 남경시<南京市>)을 함락한 후에 병권을 장악하고 나서 주백인(周伯仁)은 피살되었으나, 왕도는 그 사태를 저지하지 않았다. 훗날 주백인이 자기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왕도는 “울면서 말하기를(泣曰), 내가 비록 백인(伯仁)을 죽이지는 않았으나(吾雖不殺伯仁), 백인(伯仁)은 나로 인해 죽었구나(伯仁由我而死)”라고 하였다. 시호(諡號)는 왕강(曰康).

4) 가수(假手) : ① 타인의 손을 빌려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남을 이용하여 사람을 헤치다). ② 타인에게 대필을 청하는 것.

5) 용심일차(用心一差) : 속셈이 한 번 어그러짐.

6) 왕양명(王陽明) : 왕수인(王守仁 : 1472-1528) : 명(明)나라 중기의 유학자. 이름은 수인(守仁), 자는 백안(伯安), 호는 양명(陽明), 시호(諡號)는 문성(文成). 절강성(浙江省) 여요현(餘姚縣)에서 태어났으나 관직에 나간 부친을 따라 북경(北京)에서 자랐고 28세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35세에 병부주사(兵部主事)로 있을 때, 환관 유근(劉瑾)의 노여움을 사서 귀주성(貴州省) 용장현(龍場縣)의 역승(驛丞)으로 좌천된 것이 학문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원래가 병약한 몸으로 기후불순한 타지에서 고통스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밤 석관(石棺) 속에서 깨워진 것이 ‘심즉리(心卽理)’, ‘지행합일(知行合一)’, ‘만물일체(萬物一體)’였다. 그는 주로 강서(江西), 안휘(安徽), 절강(浙江) 등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난세 중에도 강학(講學)을 멈추지 않았으며, 49세 때 처음으로 ‘치양지(致良知 :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천적인 판단력이나 논리적인 감수성 등을 실현하는 일)’의 설을 제창하고 강학에 전념하여 명성이 높았다. 왕심재(王心齋), 전서산(錢緒山) 등 많은 문인들이 따랐고 『양명문록(陽明文錄)』의 간행을 보게 되었으며 양명서원(陽明書院)이 건립되었음.

양명학(陽明學)의 진수로 평가되는 사구결(四句訣)을 보면 :

“마음의 본체는 선과 악이 없는 것이지만(無善無惡心之體), 선과 악이 나타나는 것은 의지의 작용 때문이다(有善有惡意之動). 그러므로 이미 나타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이는 것이 양지(良知)이며(知善知惡是良知),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 마음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격물(格物 :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바로 잡음)이다(爲善去惡是格物)”라는 것이다.

저서에, 제자들과 토론을 모은 『전습록(傳習錄)』 3권이 있으며, 시문(詩文), 주소(奏疏 : 상주문<上奏文>), 연보 등을 더한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集)』 38권이 문인(門人) 전서산(錢緒山)에 의해 편집되었음.

7) 곽경순(郭景純) : 곽박(郭璞 : 276-324) : 동진(東晉) 하동군(河東郡) 문희현(聞喜縣),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신강현(新絳縣) 서남부 출신임. 자는 경순(景純), 이름은 박(璞)이다. 박학다식하였으며, 고문자학(古文字學)에 조예가 깊었고, 천문(天文), 역산(曆算 : 연월일을 이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산술<算術>, 복서<卜筮 : 점술>)에 정통했으며, 시부(詩賦)에도 능했음.

서진(西晉) 말엽에 장강(長江)을 건너가 선성태수(宣城太守) 은우(殷祐)의 참군(參軍 : 지방관청의 군사 막료)이 되었으며, 왕도(王導)가 그를 높이 평가하여 존중했음. 진·원제(晉

使九原可作⁸⁾，茂弘亦必爲法受惡而不得辭矣。導尙如此，况非導

者乎！余因推其意而賦⁹⁾之云：

동진(東晉 : 371-420년) 제일의 신하로 나는 반드시 왕무홍(王茂弘 : 왕도 <王導>의 자<字>)을 첫머리에 둔다. 단지 그가 주백인(周伯仁 : 주의 <周顛 : 269-322>의 자<字>)을 죽였다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타인의 손을 빌려 자신의 원한을 갚은 것이 되나, 이는 속셈이 한 번 어그러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인小人으로 전락되었을 따름이다. 비록 그가 훌륭했다 할지라도 속죄하기에는 부족하다.

근세에 왕양명(王陽明 : 왕수인 <王守仁 : 1472-1528년>의 호)의 기몽시記夢詩가 있는데, 그 시문 중의 사어詞語에서, 곽경순(郭景純 : 곽박 <郭璞 : 276-324년>의 자<字>)의 말에 기탁하여 왕도王導를 간신으로 간주하여, 이미

元帝)가 저작좌랑(著作佐郎)으로 봉하자, 왕은(王隱)과 함께 『진서(晉書)』를 찬술하고 상서랑(尙書郎)이 되었음.

그 뒤에 왕돈(王敦)의 기실참군(記室參軍 : 각종 문서정리와 상주문에 관한 업무관장)이 되었음. 어느 날 점을 쳤는데, ‘왕돈(王敦)이 모반할 것이라는 아주 불길한 점괘가 나와서, 왕돈을 저지하라고 원제(元帝)에게 간(諫)하였다가 왕돈에게 피살되었으나, 훗날, 홍농태수(弘農太守)에 추증(追贈)되었음.

주석서(註釋書)로, 『이아(爾雅 : B.C. 2세기경에 주공(周公)이 편집하였다고 전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된 자서<字書>)』, 『방언(方言 : 한 대<漢代>에 양웅(揚雄)이 각 지방의 방언을 수록한 책)』, 『산해경(山海經 : 작가·연대 미상의 중국 고대의 지리책)』, 『목천자전(穆天子傳 :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된 역사소설)』 등의 서적에 주(注)를 달아 후세에 전함. 편집본으로 『곽홍농집(郭弘農集)』이 있음.

- 8) 구원가작(九原可作) : ‘이미 죽은 사람이 재생활 수 있다면’이라는 뜻임. 여기서 말하는 ‘구원(九原)’이란 말은 춘추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경대부(卿大夫)의 묘지이다. 『국어(國語)·진어(晉語)·8편(八篇)』에, “조문자가 숙향과 함께(趙文子與叔向), 구원(九原)에서 유람하면서 말하기를(遊於九原曰), 죽은 사람이 만약 재생활 수 있다면(死者若可作也),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 같은가?(吾誰與歸)”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 글에서 근거하여 후세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재생활하는 것을 상상하는 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구원가작(九原可作)’이란 어휘가 생겼다. 위 인용문 중에 조문자(趙文子)와 숙향(叔向)에 대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

- ① 조문자(趙文子) : 조무(趙武). 즉, 조맹(趙孟 : ?-B.C. 541) : 문자(文子)는 조무(趙武)의 자. 춘추시대 진(晉)나라 대부(大夫). 진(晉)나라 경공(景公)시대에 대부(大夫)도 안매(屠岸賈) 일족이 조씨를 멸족시켰다. 조문자(趙文子)의 어머니 장희(莊姬)는 경공(景公)의 누이동생이었으며, 조문자는 장희(莊姬)의 유복자(遺腹子)였기에 생존할 수 있었다. 진·평공(晉平公) 10년에 국정(國政)을 장악하였음.

- ② 숙향(叔向) : 양설향(羊舌肸) : 성씨는 양설(羊舌), 이름은 향(向), 자는 숙향(叔向), 일명 숙향(叔向)이라고도 함. 박학다식하며 능변가(能辯家)였음. 진평공(晉平公) 때, 태부(太傅)를 역임했고, 초(楚)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초나라의 고의적인 모욕을 능하게 막았으며, 제(齊)나라에 가서는 예치(禮治)가 무너졌음을 질타하였음.

- 9) 부(賦) : 시를 짓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면, 왕무홍(王茂弘) 또한 반드시 법에 의해서 악과(惡果)를 받도록 해도, 그는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도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왕도의 경우가 아닌 다른 사람들임에랴! 나는 그들(왕양명과 광경순)의 뜻을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는 까닭에 이를 시로써 지어 읊어본다.

茂弘¹⁰⁾外寬和, 무홍(茂弘)은 외관(外觀)이 너그럽고 온화하나,
무 홍 외 관 화
 內深而次骨¹¹⁾。 내심에는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있었네.
내 심 이 차 골
 嬉嬉¹²⁾太多可, 즐겁게 허허대며 너무나도 좋아 되나,
희 희 태 다 가
 笑裏藏劒鏑¹³⁾。 웃음 속에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네.
소 리 장 검 악
 伯仁¹⁴⁾奇節士¹⁵⁾, 백인(伯仁)은 지조가 굳은 비범한 인물로,
백 인 기 절 사

10) 무홍(茂弘) : 무홍(茂弘)은 왕도(王導)의 자(字)임. 본 시 주석 1)의 ‘왕도(王導)’ 조항을 참조 바람.

11) 차골(次骨) :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다.

12) 희희(嬉嬉) : 화목하고 즐거운 모양.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모양.

13) 검악(劒鏑) : 칼날. 검(劒)은 검(劍)과 동자(同字)이며, 악(鏑)은 칼날임.

14) 백인(伯仁) : 주의(周顛)의 자(字). 주백인(周伯仁)은 본 시 주석 3)의 ‘주백인(周伯仁)’ 조항을 참조 바람.

15) 기절사(奇節士) : 지조가 굳은 사람.

① 기(奇) : 비범하다.

② 절사(節士) : ☆지조가 굳은 사람. ☆절개를 지키는 사람.

任眞¹⁶自坦率¹⁷。 본성대로 행동해도 여전히
 너그럽고 대범하였네.

新亭¹⁸一相遇， 신정新亭에서 서로 만나자마자，
 新 亭 일 상 우

推心¹⁹擬膠漆²⁰。 진심으로 교우하여 아교로 붙인 듯
 推 心 의 교 칠 옷칠을 한 듯이 친밀해졌네.

戮力²¹艱難際， 어려웠던 시기에 서로가 협력하며，
 戮 力 간 난 계

期待實不薄。 실로 서로에게 아박하지 않기를 기대했다네。
 기 대 실 부 박

巨猾²²起同宗²³， 아주 간교한 무리는 한 뿌리에서 나오나니，
 거 활 기 동 종

芟夷²⁴將逮及²⁵。 제거하려면 곧 바로 추포追捕해야 하네。
 삼 이 장 채 급

16) 임진(任眞) : 본성(자연 혹은 천연, 정직)에 맡기다.
 ① 임(任) : ☆맡기다. ☆내버려 두다.
 ② 진(眞) : 본성(本性), 본원(本源). 자연, 천연.

17) 자탄술(自坦率) : 여전히 너그럽고 대범하다.
 ① 자(自) : 여전히.
 ② 탄술(坦率) : (성품이) 너그럽고 대범하다.

18) 신정(新亭) : 정자이름. 종래의 소재지는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강녕현(江寧縣) 남부였음. 삼국시대 오(吳)나라가 건축하고, '임창관(臨滄觀)'으로 명명(命名)하였음. 진(晉)나라 안제(安帝) 융안년간(隆安年間 : 397-401)에 단양현(丹陽縣)의 태수 사마회(司馬恢)가 중수(重修)하고 신정(新亭)이라고 개명(改名)하였음.
 동진(東晉)시대에 경사(京師) : 경도(京都) : 수도의 명사(名士) 주의(周顛), 왕도(王導)와 같은 인사들이 유람하고 연회를 베풀던 장소가 된 후에 이 정자의 이름이 크게 알려졌음.

19) 추심(推心) : 진심으로 사람을 대우하다.

20) 의교칠(擬膠漆) : 아교와 옷칠을 한 듯이 관계가 친밀하여 멀어질 수 없다.
 ① 의(擬) : 유사(類似)하다.
 ② 교칠(膠漆) : 아교와 옷칠. 이 두 가지는 모두 물건을 붙이는 것이므로, 전(轉)하여, '교체가 매우 친밀하여 멀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룸.

21) 육력(戮力) : 육(戮)은 유(勦) : 협력하다)와 통함. 협력하다, 단결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22) 거활(巨猾) : 아주 간교하다, 또는 그런 사람. 여기서는 왕도(王導)와 사촌 왕돈(王敦)의 무리를 이룸. 본 시의 주석 1) '왕도(王導)' 조항을 참조 바람.

23) 동종(同宗) : 동족(同族), 같은 종파(宗派).

白衣²⁶⁾詣霜臺²⁷⁾,
백 의 에 상 대

처벌 받는 백의白衣의 관료는
어사대御史臺에 끌려가면,

舉族²⁸⁾甘鼎鑊²⁹⁾。
거 족 감 정 화

일족一族이 혹형酷刑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네.

涼炎³⁰⁾見³¹⁾翻覆³¹⁾,
양 염 견 번 복

귀천貴賤이 뒤바뀌게 되고,

況乃³²⁾死生迫。
황 내 사 생 박

게다가 생사존망이 압박해졌음에라!

平生握手親,
평 생 악 수 친

평생을 손잡고 친밀하게 지냈어도,

望望³³⁾如不識。
망 망 여 불 식

덤덤히 바라보며 안면顔面이 없는 것처럼
해야 하네.

24) 삼이(芟夷) : 삼(芟)은 (잡초를)베다는 뜻인데, 전(轉)하여, 제거하다는 의미로 쓰임. 살육(殺戮)하다, 소멸하다, 평정하다, 제거하다.

25) 체급(逮及) : 추포(追捕)하다. 쫓아가 잡다.

26) 백의(白衣) : ① 처벌을 받은 관원의 신분. ② 고대의 평민복, 그 옷을 입은 사람. 곧 평민을 가리키고, 공명(功名)을 못 세운 자를 가리키기도 하며, 관직이 없는 선비를 가리키기도 함. ③ 관아(官衙)의 사환(使喚). ④ 평복을 입은 군사를 가리킴. ⑤ 흰 옷.

27) 상대(霜臺) : 어사대(御史臺)의 별칭. 어사(御史)의 직무가 탄핵(彈劾)이라서 추상(秋霜)같은 언행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붙여진 명칭.

28) 거족(舉族) : 일족(一族), 전족(全族), 온혈족, 전민족.

29) 정화(鼎鑊) : 정(鼎)은 발이 셋, 귀가 둘 달린 큰 솥이고, 화(鑊)은 발이 없는 큰 가마솥이다. 『주례(周禮)·천관(天官)·팽인(烹人) : 취사(炊事)담당의 관리』을 주해(注解)한 후한(後漢) 학자 정현(鄭玄 : 127-200)의 주(注)를 보면, ‘화(鑊)에 어육(魚肉)을 넣고 삶아서 다 익으면 각 정(鼎)에 고르게 나누어 담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정(鼎)보다는 화(鑊)의 용량이 훨씬 더 큰 것임을 알 수 있음. 이 두 가지 큰 솥은 모두 죄인을 삶아 죽이는데 쓰는 형구(刑具)로도 이용되었음. 전(轉)하여, 혹형(酷刑)이나 극형(極刑)을 뜻하기도 함.’

30) 양염(涼炎) : 즉 양서(涼暑). 서늘함과 더위, 전(轉)하여, 귀천(貴賤)을 가리킴.

31) 견(見) : ~하게 되다. 괴동을 나타냄.

32) 황내(況乃) : 황내(況乃)로도 쓰고, 황내(況迺)로도 씀. ① 하물며, 게다가, 더구나. ② 마치 ~와 같다. ③ 비슷하다.

33) 망망(望望) : ① (특별한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예사롭게) 바라보다. ② 멀리(혹은 장래를) 바라보다. ③ 연연(戀戀)해 하는 모습. ④ 실의(失意)한 모양(명하니 바라봄).

交情獨此人, 교제하는 감정이 유별난 이런 사람은,
교 정 독 차 인

斷斷³⁴⁾如金石。 마음결이 확고하여 금석金石과 같다네.
단 단 여 금 석

慇懃³⁵⁾百千言, 백 마디 천 마디 말로서 간절하게,
은 근 백 천 언

籲天³⁶⁾極辨釋³⁷⁾。 하늘에 호소하며 무죄를 해명한다네.
유 천 극 변 석

有恩不市人³⁸⁾, 성은聖恩을 입었으면
유 은 불 시 인 시정잡배市井雜輩가 아니니,

公義益精白³⁹⁾。 공적인 도의는 더욱 청렴결백해야 하네.
공 의 익 정 백

寧同賤丈夫⁴⁰⁾, 어찌 비루하고 탐욕스런 사내처럼,
형 동 천 장 부

一飯便⁴¹⁾生色。 밥 한 그릇에 곧바로 생색을 내겠는가!
일 반 변 생 색

幽明⁴²⁾負⁴³⁾良友, 선악과 현우賢愚에 따라 좋은 벗은
유 명 부 양 우 사귀기도 하지만,

34) 단단(斷斷) : ① 마음결(마음 바탕)이 확고하다. ② 정성들여 한 가지 일에 전념하다. ③ 부사로 쓰여, ‘절대로 (부정문에 쓰임)’의 뜻.

35) 은근(慇懃) : 정의(情意)가 간절하다. 은근(殷勤) 혹은 은근(愍勤)으로도 씀.

36) 유천(籲天) : 하늘에 무죄를 호소하다. 유(籲)는 신을 불러 기원하거나 호소하다는 뜻이며, 전(轉)하여, ‘구(求)하다’는 뜻.

37) 변석(辨釋) : ① 해명하다, 변명하다. ② 사리를 분명하게 해석하다. 변(辨)은 변(辯)과 통함.

38) 시인(市人) : ① 시정잡배(市井雜輩)를 가리킴. ② 평민, 길거리나 성안의 사람들을 가리킴. ③ 상인(商人).

39) 정백(精白) : 청렴결백하다.

40) 천장부(賤丈夫) : 탐욕스럽고 비열한 남자.

41) 변(便) : 부사로 쓰여, ‘곧, 즉시, 바로’의 뜻.

42) 유명(幽明) : ① 선악과 현우(賢愚)를 가리킴. ②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의 사물을 가리킴. ③ 주야(晝夜), 음양(陰陽)을 가리킴. ④ 생(生)과 사(死)를 가리킴. ⑤ 인간과 귀신을 가리킴.

43) 부(負) : 붙들다, 잡다, 소유하다. 전(轉)하여, ‘사귀다’는 뜻임.

以怨還報德。
이 원 환 보 덕

원한으로써 은덕에 되갚기도 한다네.

假手⁴⁴⁾快私憤,
가 수 쾌 사 분

남의 손을 빌려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자는,

奸計鬼與蠱⁴⁵⁾。
간 계 귀 여 역

간계奸計로 사람 해치는
귀역鬼蠱 같은 요괴로세.

如何百代論⁴⁶⁾，
어 하 백 대 론

어찌서 백대百代를 두고 탄핵하는가,

尙在名賢列。
상 재 명 현 열

아직도 (그는) 명현名賢의 반열에 있는데.

陽明幸闡幽⁴⁷⁾，
양 명 행 천 유

양명陽明은 숨겨진 사실 드러내길 바랐지만,

一歌同鉄鉞⁴⁸⁾。
일 가 동 부 월

시가詩歌로 읊자 부월鉄鉞 같은
형구刑具 되었다네.

44) 가수(假手) : 타인의 손을 빌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함. 타인에게 대필(代筆)을 요청하는 것을 가리킴.

45) 귀여역(鬼與蠱) : 귀신과 물어우. 귀(鬼)는 귀신. 역(蠱)은 물어우라고 하는 전설상의 동물로서, 물속에 살며 주둥이에 한 개의 긴 뿔이 앞으로 뻗었는데, 모래를 머금고 있다가 사람의 그림자를 쏘아서 병에 걸리게 한다고 함. 귀나 역은 모두 암암리에 사람을 해치는 요괴이므로, '귀역'을 '심보가 험악함'에 비유하거나, '암암리에 사람을 해치는 소인배'에 비유함.

46) 논(論) : 탄핵하다. 논고(論告)하다.

47) 양명행천유(陽明幸闡幽) : 양명은 숨겨진 사실 드러내길 바랐지만) :

① 양명(陽明) : 왕양명(王陽明). 본 시의 주석 6)을 참조 바람.

② 행(幸) : 부사로 쓰면 '원래, 본래'의 뜻이고, 동사로는 희망하다. 기대하다는 뜻임.

③ 천유(闡幽) : ☆깊숙하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알려지지 않은 이치를 밝히다. 이는 '천명(闡明)'과는 상반되는 뜻임.

48) 부월(鉄鉞) : ① 작두와 큰 도끼. 이 두 가지 농기구는 죄인의 허리를 자르거나 목을 내려찍는 형구(刑具)로도 썼음. 부(鉄)가 부(斧)로도 통하지만, 여기서는 작두의 뜻으로 쓰였음.

② 제왕이 장수에게 부여한 전장(戰場)에서의 전권과 생살여탈(生殺與奪)의 권한을 가리킴.

③ 이 뜻을 차용하여 장군의 막부(幕府)를 가리킴.



시94. 승려 태운太雲에게 써 주다

詩94. 書贈僧太雲¹⁾ 서 증 승 태 운

正月二十六日, 夜大雪。山中人迹斷絕, 獨書齋守僧太雲者,
정월이십육일 야대설 산중인적단절 독서재수승태운자,
自河上來伴余。一點殘燈²⁾明滅³⁾, 嗒然⁴⁾雙影相對而已。
자하상래반여 일점잔등명멸 탐연쌍영상대이이

1월 26일, 밤에 큰 눈이 내렸다. 산중에 인적이 끊어졌는데, 독서재獨書齋의 수승守僧 태운太雲이란 사람이 하회河回에서 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었다. 한 점의 희미한 등잔불이 명멸明滅하는데, 멍하니 한 쌍의 그림자만이 마주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前有太白⁵⁾後文殊⁶⁾,
전유태백 후문수

앞에는 태백산太白山이요
뒤쪽에는 문수산文殊山이라,

山深雪塞⁷⁾無人迹。
산심설색 무인적

산은 깊고 눈에 막혀
인적人迹이 끊어졌네.

- 1) 태운(太雲) : 모(某) 승려의 법명(法名). 이력은 미상.
- 2) 잔등(殘燈) : ① 꺼지려고 하는 등. ② 깊은 밤 꺼질락 말락 하는 희미한 등불.
- 3) 명멸(明滅) : ① (등불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함. ② 먼 곳에 있는 것이 보였다 안보였다 함. ③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 4) 탐연(嗒然) : (실의에 빠져, 풀이 죽어, 낙담하여, 상심하여) 멍한 모양.
- 5) 태백(太白) : 태백산(太白山)을 가리킴. 경북 봉화군 소천면과 강원도 태백시 사이에 산. 태백산맥의 주봉(主峰)임. 높이는 1,567m임.
- 6) 문수(文殊) : 문수산(文殊山)을 가리킴.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 위치하며 소백산맥에 딸린 산. 높이 1,206m.
- 7) 설색(雪塞) : ① 눈이 쌓이다. ② 눈이 쌓여서 앞길을(이) 가로 막다(막히다).

孤燈⁸⁾一夜耿⁹⁾不眠,
고 등 일 야 경 불 먼

밤새껏 외로운 등불 켜 놓고
상심傷心에 잠 못 이루며,

對影相看¹⁰⁾惟白足¹¹⁾。
대 영 상 간 유 백 족

그림자 마주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백족고승白足高僧 뿐일세.

-
- 8) 고등(孤燈) : 외로운 등불(하나만 켜진 등불)
9) 경(耿) : ① 불안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모양. ② 삼심하다, 몹시 슬퍼하다.
10) 상간(相看) : ① 마주 보다. ② 서로 돌봐주다. ③ 선을 보다.
11) 백족(白足) : 백족화상(白足和尚). ‘담시(曇始)의 별호(別號)’.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고승(高僧)’이란 뜻으로 쓰였음. 후진(後秦)시대 구자국(龜茲國) 출신의 승려 구마라습(鳩摩羅什 : Kumārajīva)의 제자 담시(曇始)는 얼굴보다 발이 더 희었는데, 맨발로 진창을 걸어 건너도 발에 진흙이 묻지 않았다고 함. 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백족화상(白足和尚)’이라고 불렀다고 함. 후에 이 말은 ‘고승(高僧)’을 가리키는데 쓰기도 하였음. 담시(曇始)는 관중(關中 : 섬서성(陝西省)의 옛 이름) 출신으로 고구려 광개토대왕 5년(396년)에 진(晉) 나라에서 경(經)·률(律) 등 수십 부를 가지고 요동(遼東)에 와서 교화(教化)했는데, 이것이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불법(佛法)을 들은 것이라고 함.



시95. 승려 경천¹⁾擎天에게 써서 주다

詩95. 贈僧擎天¹⁾ 증승경천

覺華寺²⁾東十餘里最高絕處, 有樓雲菴。僧擎天居之, 參禪³⁾絕粒⁴⁾,
각화사 동십여리최고절처 유서운암 승경천거지 참선 절립
 足不出山外⁵⁾已久, 時來訪余。愛其有道韻⁶⁾無俗氣,
족불출산외 미구 시래방여 애기유도운 무속기
 作古風⁷⁾一篇贈之。
작고풍 일편증지

각화사^{覺華寺} 동쪽으로 10여리쯤 경치가 가장 뛰어난 곳에, 서운암^{樓雲菴}이 있다. 승려 경천^{擎天}은 그 곳에 거주하는데, 참선을 하는 중이라 오곡의 섭취를 배제하고, 산 밖으로 출타하지 않은 지도 이미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나를 방문하였다. (나는) 그의 승가류^{僧家流}의 의지가 확고하고 속기^{俗氣}가 없는 것을 좋아하여, 고품시체^{古風詩體} 한 수를 지어 그에게 주었다.

- 1) 경천(擎天) : 경북 봉화군(奉化郡) 춘양면(春陽面) 석현리(石峴里)에 소재(所在)한 각화사(覺華寺) 서운암(樓雲菴)에서 수행(修行)한 승려의 법명(法名). 기타 이력은 미상.
- 2) 각화사(覺華寺) : 경북 봉화군 석현리 왕두산(王頭山) 서남쪽 기슭에 있는 절. 각화산(覺華山)에서 보면 남쪽에 위치함. 각화산은 춘양면과 소천면(小川面)의 경계에 위치하며, 이 산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갈라지는 기부(基部)를 구성함. 이 절은 686년(신라 신문왕 6)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하였으나, 불에 타버린 것을 고려 예종(睿宗)때 계응(戒應)이 중건(重建)하였고, 다시 1926년에 달현(達玄)이 이를 중수(重修)하였음. 옛 각화사 절터에 남아있는 3층 석탑과 마멸과 파손이 심한 귀부(龜趺 :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가 전함. 이 절은 고운사(孤雲寺)의 말사(末寺)임.
- 3) 참선(參禪) : 선사(禪師)에게 나아가 좌선(坐禪)을 수행하여 선도(禪道)를 배워 닦거나, 스스로 선(禪)에 열중하여 선법(禪法)을 닦아 구함.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좌선을 수행하는 것.
- 4) 절립(絕粒) : 피곡(辟穀 : 곡물을 먹지 않음)과 같은 말임. 도가(道家)나 승가(僧家)가 화식(火食)을 배제하고, 수명연장을 위한 오곡(五穀)의 섭취를 피하는 수양술(修養術)임.
- 5) 족불출산외(足不出山外) : 산을 벗어나 출타(出他)하지 않다. 산 밖으로 외출하지 않다. 족(足)은 원래 '발'이란 뜻이나, 각(脚 : 다리 : 하지<下肢>), 퇴(腿 : 넓적다리와 정강이의 총칭)의 뜻으로도 씀. 전(轉)하여, '전신(全身)'이란 뜻으로도 쓴다. 그 예로, "족불출호(足不出戶)"나 "족불출문(足不出門)"은 모두 '문 밖을 벗어나지 않고 은거하면서 지조를 견지하다'는 뜻임.
- 6) 도운(道韻) : ① 도가류(道家流) 또는 승가류(僧家流)의 의지(즉 지향(志向)). ② 글씨, 그림, 글 등의 기품, 기질.
- 7) 고풍(古風) : ① 시체(詩體)의 일종. 즉 고체시(古體詩)를 말함. 평측(平仄)이나 자수(字數)에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한시(漢詩)로서, 근체시(近體詩)와 상대되며 사언(四言), 오언(五言), 칠언(七言), 잡언(雜言) 따위가 있음. ② 옛 사람의 풍도(風度). 즉, 예스럽고 소박한 풍습, 기풍, 문풍(文風)을 말함.

上山月皎皎⁸⁾, 산에 올라가면 달빛이 교교한데,
 상 산 월 교 교

下山雲漠漠⁹⁾, 산을 내려오면 구름이 아득하게 펼쳐지네.
 하 산 운 막 막

穿雲不辭遠, 먼 거리 마다않고 구름 뚫고 올라가면,
 천 운 불 사 원

弄此峯頭月。 이 산정山頂의 달을 잡을 수 있으련만.
 농 차 봉 두 월

君居在上方¹⁰⁾, 그대는 널찍한 암자庵子에서 거처하나,
 군 거 재 상 방

茅齋¹¹⁾僅容膝¹²⁾。 이 초가 서재書齋는 겨우 무릎 들어놓을
 모 재 근 용 슬 정도일세.

桂影來婆娑¹³⁾, 계수나무 그림자 흔들흔들 일렁이고,
 계 영 래 파 사

松風自蕭瑟¹⁴⁾。 솔바람은 여전히 쇠쇠 불어대네.
 송 풍 자 소 슬

-
- 8) 교교(皎皎) : ① 달빛이 썩 맑고 밝은 모양. ② 희고 깨끗한 모양. ③ 매우 조용한 모양.
- 9) 막막(漠漠) : ① 아주 넓거나 멀어 끝이 없는 모양. ② 아득하고 막연한 모양. ③ 퍼서 늘어놓은 모양. ④ 소리 없는 모양. ⑤ 어두운 (밝지 않는) 모양.
- 10) 상방(上方) : ① 주지승(住持僧)이 거주하는 내실(內室). 이 뜻을 차용(借用)하여 ‘불사(佛寺 : 절)’의 뜻으로도 씀. ② 전면(前面). ③ 천상(天上 : 하늘). ④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들이 동방(東方)과 북방(北方)을 가리켜 상방(上方)이라고 함. ⑤ 대국(大國 : 즉 상방〈上方〉). ⑥ 상급자, 상급기관.
- 11) 모재(茅齋) : 모사(茅舍) 또는 모옥(茅屋)이라고도 씀. ① ‘모(茅)’는 떠나 이영 따위로 지붕을 인 초라한 집, ‘재(齋)’는 주로 서당이나 학사(學舍)를 가리킴. ②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12) 용슬(容膝) : 장소가 좁아 겨우 무릎이나 움적일 수 있는 방. 운신(運身)하기에 협소한 장소를 가리키기도 함.
- 13) 파사(婆娑) : ① 흔들흔들 수목(壽木)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모습. ② 덩실덩실(너울너울) 춤추는 모양. ③ 밧잎 같은 것에 바람이 부딪치는 소리. ④ 술에 취하여 비틀비틀 하는 모양. ⑤ 폼지락거리는 모양. ⑥ 체류하다. ⑦ 소요(逍遙)하다, 배회(徘徊)하다. ⑧ 동분서주하다(고생하다). ⑨ 어지럽게 퍼진 모양. ⑩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것을 형용하는 것으로(소리, 음성이)은은하다. (바람이)산들거리다. ⑪ 노쇠한 모양. ⑫ 불교어로 사바(婆娑 : 석가가 교화하는 속세의 인간세계). ⑬ 편안히 앉은 모양.
- 14) 자소슬(自蕭瑟) : 예나 다름없이 (솔바람이) 쇠쇠 불다.

永夜無所爲¹⁵⁾, 진진 밤 속된 상념想念 말끔히 벗어나서,
영야 무소위

團團¹⁶⁾抱虛白¹⁷⁾。 온통 무욕無慾의 도심道心만을 품고 있네.
단단 포허백

世無寒山子¹⁸⁾, 이 세상에 시승詩僧 한산자寒山子가 없으니,
세무한산자

① 자(自) : 변함없이, 여전히.

② 소슬(蕭瑟) : ☆썩썩, 휘휘(가을바람이 초목을 스쳐가는 소리). ☆적막하고 처량함.

15) 무소위(無所爲) : 여기서 '무소위(無所爲)'라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작위(作爲)하는 바가 없다'는 뜻으로, 시(詩) 속의 화자(話者)가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무작위無作爲'에 두는 것으로 보임. 이 '무소위(無所爲)'는 본시 노자사상(老子思想)에서 치신치국(治身治國)의 최대관건을 자연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인위적인 작위를 하지 않는 '무위(無爲)'에 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개인은 진인(真人)이 될 수 있고, 국가는 이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상임. 신유학(新儒學)에서도 '무위(無爲)'를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고차적인 자연행위로 보고,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찾는 방편의 하나로 생각하여, 유학자들도 '무위(無爲)'에 이르기 위한 수련을 하였음. 그러므로 신유학(新儒學)을 하는 도학자들은 이러한 무위(無爲)의 방법을 통해, '이해득실 같은 속된 상념에 해당하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바탕으로 하는 청정 무구한 본연지성(本然之性)의 상태에 이르러 무욕(無欲)의 도심(道心)에서 노닐고자 함'이 그들의 이상 경계였음.

16) 단단(團團) : ① 전뿔, 온통, 도처에. ② 빙빙 둘러싼 모양. ③ 무리를 지어 (무더기로) 모인 모양. ④ 원(圓)모양, 구형(球形)의 사물. ⑤ 둥근 달을 가리킴. ⑥ 근심하여 야윈 모양, 고통스러워 불안한 모양. ⑦ 겹겹이.

17) 허백(虛白) : 허실생백(虛室生白). 이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무욕(無欲)하면, 도심(道心)이 자생(自生)함을 이룸. 여기서 말하는 도심(道心)의 경계관, 역시 유불도의 구별이 크게 없는 것으로 인간의 본원, 곧 생명의 근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정신수양의 경계로 보아야 할 것임.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 : “만물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는 자가(瞻彼闕者), 마음을 비우고 무욕(無欲)하면, 도심(道心)이 절로 생겨서(虛室生白), 상서(祥瑞)로움이 집에 와서 머문다(吉祥止止)”고 하였음.

또한 동한(東漢)의 고유(高誘)가 주석(注釋)한 《淮南자주(淮南子注)》에 의하면, 고유(高誘)의 주석(注釋) “허(虛)는 심(心) : 마음이고, 실(室)은 신(身) : 몸이다. 백(白)은 도(道)이다. 몸에서 마음을 비워, 도에서 살릴 수 있다면, 도성(道性)은 무욕(無欲)인고로, 길상(吉祥)이 집에 와서 머문다”고 하였음.

18) 한산자(寒山子) : 당대(唐代)의 저명한 시승(詩僧). 그는 절강성(浙江省) 천태현(天台縣) 서남 70리 지점에 위치한 한암(寒巖 : 암석산의 이름)에 거주했던 까닭에 그를 한산자(寒山子) 또는 한산(寒山)이라고 불렀음. 국청사(國淸寺)의 승려 습득(拾得 : 국청사(國淸寺)의 승려 풍간(豐干)이 천태산 남쪽 기슭인 적성산(赤城山) 길거리에서 주워 왔다하여 지어진 이름)과 절친했으며, 시를 읊고 불경의 노래가사를 부르기를 좋아했음. 시 3백 여수(首)가 전하여 후세 사람들이 『한산자시집(寒山子詩集)』 3권을 편집하였음.

誰從證心法¹⁹⁾。
수 종 증 심 법

누가 좃아가서 심법心法으로
득도得道했음을 증명하리오.

19) 심법(心法) : ① 불교어(佛敎語). 경전(經典) 이외의 방법으로 불법(佛法)을 전수(傳受) 받는 것을 가리킴. 심상(心相 : 마음 본래의 모습)으로 인증(印證 : 깨달음을 얻은 것을 증명함)하는 까닭에 붙여진 이름임. ② 주고받는 중요한 소감(체득, 느낌)과 방법을 가리킴.



시96. 강변에 비가 내리더니

詩96. 江雨
강 우

江水微生¹⁾欲浸莎²⁾,
강 수 미 생 욕 침 사

강물이 조금 불어나자
사초莎草가 잠기려 하는데,

晚來雲黑雨還多。
만 래 운 흑 우 환 다

날 저물자 구름 검어지고
빗줄기 더욱 세차지네.

西臺³⁾一夜春風急,
서 대 일 야 춘 풍 급

서대西臺에 밤새도록 춘풍이 거세더니,

落盡臺邊萬樹花。
낙 진 대 변 만 수 화

서대 주변 온갖 나무 꽃잎이
다 켜버렸네.

-
- 1) 미생(微生) : 조금 불어나다. 생(生)은 창(漲 : 물이 불어나다)의 뜻임.
 - 2) 사(莎) : 사초(莎草) : 다년생 초본식물(草本植物)로서 우리나라에 140여 종이 자라고 있음. 습지나 하천변의 모래사장에서 많이 자람. 줄기는 곧고 세모서리지고 속이 찻으며 잎은 가늘고 길며 주로 뿌리에서 자라는데, 질은 녹색으로 세모서리가 지며 윤기가 난다. 여름철에 두 가닥 이상의 이삭이 나와 조그마한 꽃을 피우며 적갈색이다. 뿌리는 향부자(香附子)라 하여 약용으로 쓴다.
 - 3) 서대(西臺) : ① 부용대(芙蓉臺)의 서쪽을 가리킴. ② 서쪽 누대.

시97. 한가하게 독거獨居 중에 느낀 감회

詩97. 閒居感懷
한 거 감 회



老病習閒懶¹⁾, 늘 병증에도 습관적으로 한가함이 싫어서,
노 병 습 한 라
默坐窮朝昏²⁾。 묵좌黙坐하고 조석朝夕으로
묵 좌 궁 조 혼 이치를 궁구窮究하네.
當其³⁾靜觀⁴⁾時, 이처럼 사물을 심안心眼으로 정관靜觀할 때,
당 기 정 관 시
一念⁵⁾猶覺煩。 한 순간에 번뇌를 깨닫는 것 같았네.
일 념 유 각 번
昭昭⁶⁾燭鬼窟, 환하게 도깨비 굴을 촛불로 밝히고,
소 소 촉 귀 굴

-
- 1) 퇴(懶) : ① 퇴(懶) : 싫어하다. 혐오하다, 흥미 없다. ② 라(懶) : 게으르다, 나른하다, 늙다.
 - 2) 궁조혼(窮朝昏) : 아침·저녁으로 궁구(窮究)하다.
① 궁(窮) : 궁구(窮究) :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다.
② 조혼(朝昏) : 아침과 저녁.
 - 3) 기(其) : 이렇게, 이와 같이.
 - 4) 정관(靜觀) : ① 무상한 현상계 속에 있는 불변의 본체적·이념적인 것을 심안(心眼)에 비추어 바라보는 것. ② 실천적 관어의 입장을 떠나 현실적 관심을 버리고 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 5) 일념(一念) : 불교어로서 '지극히 짧은 시간'을 뜻함. 60찰나(刹那) 또는 90찰나를 '일념(一念)'이라고 함. 1찰나(一刹那)는 1탄지시(一彈指時 : 손가락 한 번 튀기는 사이)의 10분의 1로 계산한다고 함. 1순(一瞬 : 일회의 눈 깜박거림)도 유사한 말임.
 - 6) 소소(昭昭) : ① 밝은 모양, 빛나는 모양. ② 명백하다, 현저하다. ③ (성격이) 명랑하고 쾌

披霧迎朝暉⁷⁾
피 무 영 조 훈

안개를 헤치고 나가 아침 해를
맞이한 듯하네.

羣魔忽紛起,
군 마 홀 분 기

마귀들이 홀연히 어지러이 일어나서,

變作⁸⁾風塵渾。
변 작 풍 진 혼

바람에 날리는 혼탁한 티끌로 돌변해버리네.

周王⁹⁾棄明堂¹⁰⁾,
주 왕 기 명 당

주목왕周穆王은 조회朝會반던
정전正殿을 외면하고,

八駿遊西藩¹¹⁾。
팔 준 유 서 번

여덟 필 준마駿馬 타고 서역西域으로
순행巡行했다네.

활하다. ④ 불안한 모양.

7) 조훈(朝暉) : 아침 해, 먼동이 틀 때의 햇빛.

8) 변작(變作) : ① 돌변하다, 변란이 발생하다. ② 변동(變動)하다. ③ 고쳐서 만들다.

9) 주왕(周王) : 아랫 구절에서 ‘팔준(八駿 : 여덟 필의 준마)’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주목왕(周穆王)’을 가리킴.

10) 명당(明堂) : ① 임금이 조회(朝會)를 받던 정전(正殿). ②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뒷자리나 절터. ③ 어떤 일에 썩 좋은 자리. 무덤의 바로 앞에 있는 평지. ④ 관상에서 사람이 이마를 이르는 말. ⑤ 수단, 수완.

11) 팔준유서번(八駿遊西藩) : 여덟 필 준마 타고 서역(西域)으로 순행(巡行)했다네) :

① 팔준(八駿) : 팔준(八駿) : 주목왕(周穆王)의 여덟 필의 명마(名馬).

주목왕(周穆王 : ?-?) : 주(周)나라의 제5대 왕. B.C. 10세기경의 사람. 성은 희(姬), 이름은 만(滿), 소왕(昭王)의 아들. 『사기(史記)』에 의하면, 50세에 즉위하여 55년간 재위하였다고 함.

그는 견융(犬戎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에 거주했던 민족)을 정벌하고 그들의 다섯 부족 왕을 포로로 잡아 태원(太原 :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주원현(周原縣) 북부)으로 이주시켰음. 또한 초(楚)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서융(徐戎 : 동이족(東夷族)의 하나)을 정벌케 한 다음, 제후들과 도산(塗山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회원현(懷遠縣) 동남8리)에서 회맹(會盟)하였음. 또한 월(越)나라를 정벌하여 영토가 구강(九江 : 동정호(洞庭湖)의 옛 이름)에 이르렀음. 주목왕은 이 과정에서 제후들의 이반(離反)을 초래하였으므로 형벌을 정하였고, 이때부터 주나라의 덕이 쇠퇴하였다고 함.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목왕(穆王)은 여덟 필의 준마(駿馬)를 취득하여 천하를 순행(巡行)하였다 함. 후세 사람이 쓴 위서(僞書), 『목천자전(穆天子傳)』에는 목왕의 서유(西遊)에 관한 기사와 서왕모(西王母 : 신화에 나오는 신녀(神女)의 이름)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음.

② 유(遊) : 고대 제왕의 봄철 순행(巡行).

③ 서번(西藩) : 서번(西藩)으로도 쓰고 서번(西番)으로도 씀. ☆고대 중국 서역 일대 및 서부 변방의 총칭. ☆토번(吐蕃)을 가리킴.

坐令徐方¹²⁾豪, 서융徐戎의 호족豪族들을 앉아서 호령했으니,
좌 명 서 방 호

自擬天王尊。 천자天子의 그 존엄을 절로 헤아리겠네.
자 의 천 왕 존

臥榻¹³⁾已非有¹⁴⁾, 와병臥病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와榻 기 비 유

禮樂誰復論。 예禮와 악樂은 누가 다시 논할꼬!
예 악 수 부 논

我昧古人心, 내가 옛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함은,
아 매 고 인 심

只讀古人言¹⁵⁾。 옛 사람의 기록만 읽었던 탓이리라.
지 독 고 인 언

所以方寸地¹⁶⁾, 그래서 사방 한 치도 안 되는 마음이,
소 이 방 촌 지

翻覆如風幡¹⁷⁾。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번 복 여 풍 번
 이리저리 뒤집혔네.

中夜獨自警, 밤중에 홀로 자신을 경계하기를,
중 야 독 자 경

慎無滑¹⁸⁾而魂¹⁹⁾。 삼가 네 정신을 혼란 속에 빠뜨리지 말라.
신 무 글 이 혼

12) 서방(徐方) : 고대 서국(徐國), 즉 서융(徐戎), 고대부족 명칭. 동이(東夷)의 한 갈래. 하(夏)나라에서 주(周)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회하(淮河) 중하류에 분포했다. 주나라 초엽에 서국(徐國)을 건립했고, 동이족(東夷族) 중에서 가장 강대했으며, 수차에 걸쳐 회이(淮夷)와 연합하여 주(周)나라에 대항했다. 춘추시대에는 초(楚)나라에 패한 적이 있으며 주경왕(周敬王) 8년(B.C. 512년)에 오(吳)나라에 병합되었음.

13) 와榻(臥榻) : 침대. 전(轉)하여, ‘와병(臥病)’을 가리킴. 와상(臥床)이라고도 씀.

14) 비유(非有) : 무(無 : 없다, 없어지다)의 뜻임.

15) 언(言) : ① 기재(記載). ② 학설(學說), 주장(主張).

16) 방촌지(方寸地) : ① 사방 일촌(一寸)의 땅, 극히 협소한 면적에 비유함. ② 심(心 : 마음)을 가리킴.

17) 풍번(風幡) : 바람에 나부끼는 표지(標識)가 있는 깃발.

18) 무글(無滑) :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① 무(無) : 금지형. ~하지 말라. ② 글(滑) : 혼란스럽다.

19) 이혼(而魂) : 너의 정신. ‘이(而)’는 대명사로서, ‘너’, ‘너의’의 뜻임.

衰遲²⁰⁾已白髮, 연로^{老年}하여 몸은 이미 백발이 성성하고,
쇠 지 기 백 발

精力無多存。 심신^{心身}의 활력도 얼마 남지 않았네.
정 력 무 다 존

歲月復幾何, 세월이 다시 얼마나 더 남았을꼬?
세 월 부 기 하

身世²¹⁾又蹇屯²²⁾。 이 몸의 형편 또한 순조롭지 못한 것을.
신 세 우 건 둔

幸及未死前, 행운이 따라선지 아직 죽기 전에,
행 급 미 사 전

歸田²³⁾亦君恩。 전원^{田園}으로 돌아옴은 역시
귀 전 역 군 은
주군^{主君}의 은덕일세.

迷復雖已晚, 미혹^{迷惑}을 만회하기엔 이미 늦었을지라도,
미 복 수 이 만

泝流可窮源²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발원지를
소 류 가 궁 원
찾을 수 있으리.

時憂已非任, 시국^{時局}이 걱정되나 이미 내 소임^{所任}이
시 우 이 비 임
아니고,

家事付兒孫。 가정사는 자손에게 당부하여 두었네.
가 사 부 아 손

寸陰²⁵⁾眞可惜, 촌음^{寸陰}도 진실로 아껴야 하느니,
촌 음 진 가 석

20) 쇠지(衰遲) : 쇠년지모(衰年遲暮), 즉 노년(老年)을 이룸.

21) 신세(身世) : ①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을 가리킴. ②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치는 일.

22) 건둔(蹇屯) : 순조롭지 못하다, 곤궁하다, 고난스럽다.

23) 귀전(歸田) :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감.

24) 소류궁원(泝流窮源) : 소류궁원(溯流窮源)으로도 쓰고, 소류추원(泝流追源)으로도 씀. ① 물의 근원의 발원지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감. ② (사건의) 근원(본말〈本末〉)을 구명(究明)함, 사건의 자초지종을 규명(糾明)함.

一往如飛奔。
일 왕 어 비 분

(시간의) 한결같은 흐름은 마치
질주하듯 하니 말일세.

清江繞茅舍，
청 강 요 모 사

맑은 강물 초가집을 감돌아 흐르고,

花竹盈春園。
화 죽 영 춘 원

화초와 대나무는 봄 정원에 우거졌네.

圖書靜四壁，
도 서 정 사 벽

도서圖書는 사면 벽에 조용히 꽂아둔 채,

虛室絕塵喧²⁶⁾。
허 실 절 진 환

텅 빈 방 안에서 속세 번민 끊어가네.

刊落²⁷⁾枝與葉，
간 락 지 여 업

가지와 잎사귀를 정지整枝하여 쳐내고,

栽培惟本根²⁸⁾。
재 배 유 본 근

희망하는 근간根幹만을 재배해야지.

從此尙²⁹⁾努力，
종 차 상 노 력

이제부터 오로지 노력해야 하리니,

斯言期不諛。
사 언 기 불 환

이 말이 빈말 되지 않기를 바란다네.

25) 촌음(寸陰) : 아주 짧은 시간.

26) 진환(塵喧) : 진세(塵世)의 번뇌(번민). 진세(塵世)를 가리키기도 함.

27) 간락(刊落) : (오자(誤字) 또는 틀린 부분을) 삭제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불필요한 지엽(枝葉)을 정리한다’는 뜻으로 쓰였음.

28) 유본근(惟本根) : 희망하는 근간(根幹). ① 유(惟) : 원하다. 희망하다. ② 본근(本根) : 근간(根幹).

29) 상(尙) : ① 숭상하다, 중시하다. ② 원하다, 지향(志向)하다, 받들다. ③ 오로지.



시98. 의고시 擬古詩 열 수

詩98. 擬古¹⁾ 十首 의 고 십 수

其一
기 일

[1]

洞庭²⁾木葉下,
동 정 목 엽 하

동정호洞庭湖에 나뭇잎이 지는데,

蒼梧³⁾雲氣⁴⁾黑。
창 오 운 기 흑

창오산蒼梧山 위로는 구름자락 검어지네.

哀哀二妃淚⁵⁾,
애 애 이 비 루

애통하게 통곡하던 두 왕비의 눈물이,

- 1) 의고(擬古) : 의고시(擬古詩). 옛날 시문(詩文)의 체(體)를 본 뜬 시.
- 2) 동정(洞庭) : 동정호(洞庭湖). 중국 호남성(湖南省) 북부 장강(長江) 남안(南岸)에 있음. 면적은 2,820km로 중국 제2의 담수호(淡水湖)이며, 평소 '8백리 동정(洞庭)'이란 칭호가 있음. 상(湘), 자(資), 원(沅), 례(澧) 등 4대 강의 물이 이곳에 모이며, 악양현(岳陽縣) 성릉기(城陵磯)에서 장강(長江)으로 흘러든다. 호수 가운데 작은 산이 아주 많으며, 그 중에 서도 군산(君山)이 가장 지명함. 호숫가에 악양루(岳陽樓) 등 명승고적이 많음.
- 3) 창오(蒼梧) : 창오산(蒼梧山). 구의산(九疑山)이라고도 함. 호남성(湖南省) 남부 영원현(寧遠縣) 남부에 위치함. 『산해경(山海經)·해내경(海內經)』에, “남방에 창오(蒼梧)라고 불리는 구멍이 있고, 호수도 있는데, 그 중에 구의산이 있고, 그 곳에 순(舜)임금을 매장(埋葬)했으며, 장사현(長沙縣)과 영릉현(零陵縣)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음. 동진(東晉)의 학자 곽박(郭璞 : 276-324)이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그 산에는 아홉 곳의 계곡이 있는데, 그 형상이 한결같이 유사한 까닭에, ‘구의(九疑)’라고 부른다”고 하였음. 사마천(司馬遷 : B.C. 145?-B.C. 86?)의 『사기(史記)·오제본기(五帝本紀)』에, “순(舜)임금을 강남(江南) 구의산(九疑山)에 장례 지냈는데, 이것이 ‘영릉(零陵)’이다”고 하였음.
- 4) 운기(雲氣) : 기상에 따라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
- 5) 이비루(二妃淚) : 이비(二妃)는 요(堯)임금의 두 딸을 왕비로 삼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灑染⁶⁾湘江竹⁷⁾.
쇄 염 상 강 죽

상강湘江 주변 대나무에 뿌려져
얼룩얼룩 물들었다네.

淚痕有時盡,
누 혼 유 시 진

눈물의 흔적은 지워질 때가 있지만,

哀怨無時歇。
애 원 무 시 헐

애통한 원망은 멈춰질 때가 없다네.

鳳駕⁸⁾去不回,
봉 가 가 불 회

(두 왕비가 탄) 봉가鳳駕가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듯이,

人間自今昔。
인 간 자 금 석

인간세상은 현재에도 과거에도
본래 그러하다네.

其二
기 이

[2]

魯城⁹⁾卑且小,
노 성 비 차 소

노魯나라 도성都城은 지세地勢 낮고 협소하여,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말하며, 이비루(二妃淚)는 '순임금이 죽자 두 왕비가 애통해 하며 흘린 눈물'이란 뜻임.

- 6) 쇄염(灑染) : 염료(染料)를 뿌리다. 염료가 되어 뿌려지다. 쇄(灑)는 '뿌리다'는 뜻임.
- 7) 상강죽(湘江竹) : 이는 상강(湘江) 주변의 대나무로. 곧 상비죽(湘妃竹)을 칭하는 것임. 8세기 초 당(唐)나라의 학자이자 관료인 서견(徐堅 : 659-729) 등이 합편(合編)한 『초학기(初學記)』 제28권에서는 진(晉)나라 학자 장화(張華 : 232-300) 저서 『박물지(博物志)』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순임금이 죽자, 두 왕비가 눈물을 흘려 대나무에 얼룩점이 생겼는데, 이것이 반죽(斑竹)이다. 두 왕비는 죽어서 상강(湘江)의 신이 되었으므로 상강(湘江)강변의 대나무를 ‘상비죽(湘妃竹)’이라고 한다”고 하였음. 상강(湘江)은 광서성(廣西省)에서 발원하여 호남성으로 유입되며, 호남성의 하류(河流)임.
- 8) 봉가(鳳駕) : ① 신선이 타는 수레. ② 천자(天子)나 후비(后妃)가 타는 수레. 봉황모양의 장식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탄 수레를 가리킴.
- 9) 노성(魯城) : 곡부(曲阜)의 별칭. 곡부(曲阜)가 노(魯)나라 도성(都城)이었기에 일컬어진 명칭.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서부 사수(泗水) 남쪽 기슭에 위치함.

龜蒙¹⁰殘日愁¹¹。 귀산龜山과 몽산蒙山에 석양이 깃들면
구 몽 잔 일 수 수심에 잠기네.

歡娛詎幾何¹²，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환 오 거 기 하

遺恨流千秋。 이루지 못한 회한悔恨은 천 년을 두고
유 한 유 천 추 전해지네.

婦言走¹³聖轍¹⁴， 비빈妃嬪의 언사言辭에
부 언 주 성 철 성궤聖軌를 상실하더니,

至治¹⁵無東周¹⁶。 이상적 치세治世가 동주東周에는 없었네.
지 치 무 동 주

愚哉季桓子¹⁷， 어리석구나, 노대부魯大夫 계환자季桓子여!
우 재 계 환 자

10) 귀몽(龜蒙): 귀산(龜山)과 몽산(蒙山)의 병칭. 두 산 모두 산둥성(山東省) 경내(境內)에 위치함. 두 산은 한 줄기의 산맥으로 이어져 있는데, 길이가 대략 80여리이며, 서북의 일 단(一段)을 귀산(龜山)이라고 하고, 동남부 일단을 몽산(蒙山)이라고 함.

11) 잔일수(殘日愁): 석양이 되면 시름겨워하다.

① 잔일(殘日): ☆석양, 낙조(落照). ☆남은 생애.

② 수(愁): ☆근심(하다), 시름(겪다), 시름겨워하다. ☆원망하다. ☆슬퍼하다.

12) 거기하(詎幾何): 얼마 되지 않다.

① 거(詎): 부정(否定)을 표시하는 부사로 무(無), 비(非), 불(不)과 비슷함.

② 기하(幾何): 약간, 다소.

13) 주(走): 상실(喪失)하다.

14) 성궤(聖軌): 성궤(聖軌), 즉 성인(聖人)의 규범.

15) 지치(至治):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정치. 안정적으로 창성하고 교화를 크게 행하는 정치국면이나 시세(時世).

16) 동주(東周): 왕조 년대의 명칭. B.C. 770년 주(周)나라 평왕(平王)이 국도(國都)를 호경(鎬京)에서 낙읍(洛邑)으로 옮기고부터 B.C. 256년 진(秦)나라에 멸망하기 까지를 말함. 그 당시는 전국시대(戰國時代)라서, 중앙정권으로 간주되는 동주왕조(東周王朝)는 이미 유명무실했음.

17) 계환자(季桓子): 계손사(季孫斯: ?-B.C. 492).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 사람. 계손여의(季孫意)의 아들. 성씨는 복성(複姓)인 계손(季孫), 이름은 사(斯)임. 노(魯)나라 정공(定公) 5년(B.C. 505년)에 아버지의 작위를 이어 받아, 대부(大夫)가 되었으나, 그 해에 가신(家臣) 양호(陽虎)가 정변(政變)을 일으켰음. 계손 사, 즉 계환자(季桓子)는 양호에게 사로 잡혀 구금된 후, 양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음.

정공 8년(B.C. 502년)에 양호(陽虎)는 삼환(三桓: 삼환자(三桓子))을 제거하려고 정공

將死始慙羞。 죽을 때가 되어서야 부끄러워하겠는가!
장 사 시 괘 수

楚山¹⁸⁾高鬱鬱¹⁹⁾， 초산楚山은 높으면서 수목이 울창하고,
조 산 고 울 울

湘水²⁰⁾清悠悠。 상수湘水는 맑디맑게 유유히 흘러가네.
상 수 청 유 유

獨醒亦知苦， 혼자만의 깨우침은
독 성 역 지 고 또한 괴롭다는 걸 알기에,

吾心難自由。 내 마음이 자유롭기가 난감하다네.
오 심 난 자 유

其三
기 삼

[3]

歲暮薜蘿衣²¹⁾， 세미에 은자隱者의 옷 벽라의薜蘿衣를
세 모 벽 라 의 걸쳤는데,

(定公)을 겁박하며 맹손씨(孟孫氏)와 계손씨(季孫氏)를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국외로 도주 하였음. 여기서 말하는 삼환(三桓)은 ‘세 사람의 노나라 환공(桓公)의 후예’란 뜻에서 ‘삼 환(三桓)’이라 불렀으며, 당시 노나라 정권 실세로서 전횡이 극심했던 맹손씨·숙손씨·계 손씨를 말함.

그 후 계환자(季桓子)는 다시 정권을 잡았으며, 정공 12년(B.C. 498년)에는 제(齊)나라 가무(歌舞)를 들어와서 정공과 함께 관람하면서 조례(朝禮)마저 폐했음.

공자(孔子)가 당시에 대사구(大司寇 : 섭정(攝政)을 하면서 소송사건과 형벌을 담당함)로 임명된 까닭에, 계환자는 노나라를 떠나 위(衛)나라로 갔음. 그의 시호(諡號)는 ‘환(桓)’임.

18) 초산(楚山) : 일반적으로 초나라 산을 칭함. 즉 형산(荊山). 호북성(湖北省) 서부, 무당산(武當山) 동남, 한강(漢江)의 서안(西岸)에 위치함. 이 산에 옥암(玉岩)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 변화(卞和)가 이곳에서 박옥(璞玉)을 취득하였다고 함.

19) 울울(鬱鬱) : ① 수목이 울창한 모양. ② 기(氣)가 성(盛)한 모양. ③ 우울한 모양. ④ 기분이 언짢은 모양.

20) 상수(湘水) : 상강(湘江)을 말함. 광서(廣西) 지방에서 발원하여 호남성(湖南省)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21) 벽라의(薜蘿衣) : 은자(隱者)의 의복을 칭함. 벽라(薜蘿)는 벽려(薜荔 : 줄사철 나무. 노박 덩굴과에 속하는 상록만목(常綠蔓木))와 여라(女蘿 : 선대식물에 속함. 이끼의 한 가지로, 송라(松蘿))임. 이 두 종류는 모두 야생 식물로서, 산야(山野)의 수목이나 담장에

涼風吹正²²⁾急。
양 풍 취 정 급

찬바람이 마침 세차게도 불어오네.

懷沙²³⁾意未已,
회 사 의 미 이

모래자루 품고 강물에 투신할 생각
그치지 않나니,

乘雲叩閭闔²⁴⁾。
승 운 고 창 합

구름 타고 올라가서 천문^{天門}을
두드려야겠네.

淵明²⁵⁾有遠懷,
연 명 유 원 회

도연명^{陶淵明}은 원대한 포부를 품었기에,

기어오름.

『초사(楚辭)·구가(九歌)·산귀(山鬼)]에 “산언덕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若有人兮山之阿), 벽려를 걸치고 여라를 둘렀도다(被薜荔兮帶女蘿)”고 한 구절이 있다.

동한(東漢)의 학자 왕일(王逸)이 『초사장구(楚辭長句)]에서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여라(女蘿)는 토사(菟絲) : 새삼이다. 산귀(山鬼 : 정령(精靈))는 사람과 흡사하며, 산모퉁이에서 보이는데, 벽려를 옷으로 입고 토사를 혁대삼아 두른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말을 차용하여 ‘은자(隱者)’나 ‘품행이 고상한 선비의 옷’을 가리키는 말로 썼음.

22) 정(正) : 부사로 쓰였음. 마침 ~하다.

23) 회사(懷沙) : 『초사(楚辭)·구장(九章)] 중의 편명임. 『사기(史記)·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에서 이르기를, 이 편(篇)은 굴원(屈原)이 멩라강(溆羅江)에 투신하기 전에 절필(絶筆)하고 ‘모래와 자갈자루를 가슴에 품고(회사(懷沙), 즉 회사력(懷沙礫)) 스스로 강물 속에 가라앉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고 하였음. (일설에 의하면, 회사(懷沙)를 장사 땅을 그리워하다(懷念長沙)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 곳에 가서 죽고 싶다는 말로 풀이하기도 함). 후에, 사람들은 ‘회사(懷沙)’란 말을 ‘충절(忠節)로 인하여 일어나는 격분 때문에 강물에 투신하여 죽는 전형(典型)’의 뜻으로 사용하였음.

24) 창합(闔闔) : 천상(天上)의 문. 전(轉)하여, 대궐문, 궁문(宮門).

25) 연명(淵明) :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 365-427. 강서성(江西省) 구강현(九江縣) 심양(潯陽) 사람임. 성씨는 도(陶), 이름은 잠(潛), 호는 오류선생(五柳先生), 연명(淵明)은 그의 자(字)임. 일설에는 이름이 연명(淵明), 자는 원량(元亮)이라고도 함.

명장 도간(陶侃)의 증손으로 출신이 주(州)의 제주(祭酒) : 제사를 주관하는 관리)였으나, 관리직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사직하고 귀향하였음. 그 뒤 군벌항쟁의 세화에 밀리면서 생활을 위해 진군참군(鎭軍參軍), 건위참군(建衛參軍) 팽택현(彭澤縣)의 현령 등의 벼슬을 하였으나, 사직하고 은거하였음. 퇴관성명(退官聲明)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통해 명백히 밝혔다.

현령 재직시에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통지가 오자, ‘오두미(五斗米)를 위해 향리의 소인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직하고 은거한 이후 복직하지 않았음.

그는 전원(田園)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했고 술을 좋아했으며, 시문(詩文)을 잘 지었음. 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당(唐)나라 이후 육조(六朝) : 후한(後漢)이 멸망한 뒤 수(隋)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양자강 남쪽에 있었던 여섯 왕조) 최고의 시인이라 불렀음.

不是嗜酒人。 음주만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네.
불 시 기 주 인

沈冥²⁶⁾麴蘖²⁷⁾中, 술맛에 매혹되어 거니하게 취하여,
침 명 곡 열 중

世道²⁸⁾堪悲辛。 세상살이에서 겪은 비분과 고통 견뎌냈다네.
세 도 감 비 신

其四
기 사

[4]

道韻²⁹⁾拔塵俗, 도가류道家類의 풍도로 속기俗氣를 뽑아내니,
도 운 발 진 속

清風灑蘭雪。 청풍淸風은 난초 잎에 내린 눈을 털어주네.
청 풍 쇄 란 설

知心一張琴, 마음 알아주는 것은 하나의 거문고뿐,
지 심 일 장 금

無絃意已足。 현絃이 없어도 의중意中을 이미 흠족케 하네.
무 현 의 이 족

渴不飲盜泉³⁰⁾, 목이 말라도 도천수盜泉水는 마시지 않고,
갈 불 음 도 천

시 외에도 산문 작품에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 도화원기(桃花源記) 등이 있음.

26) 침명(沈冥) : ① 깊이 미혹되고 미련을 갖다. ② 전심전력으로 몰두하다. ③ 조용히 은거하여 종적을 감추다. ④ 그윽하고 고요하다. ⑤ 매몰되다. ⑥ 깊숙하고 어두침침하다. ⑦ 불교어로서 무명(無明)을 비유하여 말하기도 함.

27) 곡열(麴蘖) : 누룩, 술.

28) 세도(世道) : 세상살이, 세상형편.

29) 도운(道韻) : ① (그림이나 글씨 또는 글, 혹은 사람의) 기품, 풍도(風度), 정취, 경지. ② 도가류(道家流)의 감정과 흥취 및 지향(志向)하는 것.

30) 도천(盜泉) : 고대 중국에 있었던 샘 이름. 위치는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사수현(泗水縣) 동북에 있었다. 구시대 중국에서는 이 ‘도천(盜泉)’이란 말을 ‘의롭지 못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음.

전국시대(戰國時代) 진(晉)나라, 일설에는 노(魯)나라 학자, 시교(尸佼 : 시자(尸子)라고도 함)의 저서, 『시자(尸子)』 하권에, “공자가, 도천을 지나다가 목이 말랐으나(過於盜泉渴矣), 그 샘물을 마시지 않았으니(而不飲), 그 샘의 이름을 싫어했기 때문이다(惡其名也)”라고 하였음.

勞不息惡木³¹⁾。 지쳐도 악목惡木의 그늘에선 쉬지 않는다네.
노 불 식 악 목

古人多苦心, 옛 사람은 (이런 일로) 고심苦心 많이 했지만,
고 인 다 고 심

今人笑其拙。 지금 사람은 그 고지식함 비웃는다네.
금 인 소 기 졸

春申³²⁾方貴幸, 춘신군春申君이 고관高官되어
춘 신 방 귀 행 한창 임금총애 받을 때,

珠履³³⁾三千客。 구슬 장식한 신발 신은 식객食客이
주 리 삼 천 객 삼천이었다네.

孟嘗³⁴⁾擅齊權, 맹상군孟嘗君이 제齊나라 권세잡고
맹 상 천 제 권 전횡專橫할 때,

31) 악목(惡木) : 천열(賤劣)한 나무. 『문선(文選)·육기(陸機)〈맹호행(猛虎行)〉』에, “목이 말라도 도천수는 마시지 아니하고(渴不飲盜泉水), 더위도 천열(賤劣)한 나무 그늘에선 쉬지 않는다네(熱不息惡木陰)”라고 하였음.

32) 춘신(春申) : 춘신군(春申君) : 황혈(黃歇 : ?-B.C. 238).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정치가. 초나라의 양왕(襄王)에게 발탁되어 관계(官界)로 진출했음. 진(秦)의 소양왕(昭襄王)을 설득하여 진(秦)의 공격을 막았음. 그 후 초의 태자 완(完)과 함께 불모가 되어 진(秦)에 체류하던 중에 묘계를 내어 탈출에 성공했음.

완(完 : 효열왕(孝烈王))이 즉위하자 황혈(黃歇)은 재상에 올라, 춘신군에 봉해졌으며, 그 후 20여 년간 권세가 막강했음. 그 동안 그는 조(趙)를 도와 진(秦)을 퇴각시키고, 노(魯)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적도 있음. 회북(淮北)땅 12개 현(縣)을 봉지(封地)로 하사 받았으며, 후에 봉지(封地)는 강동(江東)으로 옮겨졌음.

그는 제(齊)의 맹상군(孟嘗君 : 전문(田文 : ?-B.C. 278))과 조(趙)의 평원군(平原君 : 조승(趙勝 : ?-B.C. 251)) 그리고 위(魏)의 신릉군(信陵君 : 무기(無忌 : ?-B.C. 244))과 함께 명성이 높았으며, 사칭(史稱), ‘전국사공자(戰國四公子)’라고 함. 문하(門下)에 식객(食客) 3천여 명이 운집했으며, 순자(荀子)도 생존 시에 갔었다고 함.

효열왕이 죽고 나서 권신(權臣) 이원(李園)에 의해 그 일족과 함께 살해되었음.

33) 주리(珠履) : ① 구슬로 장식한 고급신발. ② 모략(謀略)이 있는 문객(門客).

34) 맹상(孟嘗) : 맹상군(孟嘗君) : 전문(田文 : ?-B.C. 279?). 전국시대 제(齊)나라 공족(公族), 전영(田嬰)의 아들. 봉지(封地)가 설(薛 :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등현(滕縣)남부) 땅이기에 부친의 봉작(封爵)을 이어받아 설공(薛公)이라 칭함.

‘전국시대(戰國時代) 사공자(四公子)’ 중의 한 사람. 설(薛) 땅에 있을 때, 천하의 선비들을 초치하여 식객이 항상 수천이었으며, 그 명성이 천하 제후들에게 자자하였음. 그는 위로는 군주에게 오로지 충성하고, 아래로는 전권(全權)을 장악하였음. 그의 명성을 듣고 진

鷄鳴³⁵⁾皆鼎食³⁶⁾
계 명 계 정 식

닭 울음 흉내쟁이와도 밥솥을 짝 배열해
놓은 곳에서 함께 식사했다네.

誰知原憲貧³⁷⁾
수 지 원 헌 빈

누가 알겠는가! 원헌原憲은 비록 가난하지만,

(秦)나라 소양왕(昭襄王)이 그를 초청하여 재상에 임명하였으나, 소양왕이 그를 의심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음. 그 사실을 간파한 그는 본국으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좁도둑 질과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의 도움으로 진(秦)나라 국경 관문인 함곡관(函谷關)을 빠져나와 위(魏)를 모면하였다. 이것이 바로 ‘계명구도(鷄鳴狗盜)’의 고사(故事)임. 후일 제(齊)나라와 위(魏) 나라의 재상을 역임했으며 독립하여 제후가 되었음. 설(薛) 땅에서 맹상군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권력다툼을 했으며, 제(齊), 위(魏)가 동맹하여 설(薛)을 멸하였음.

- 35) 계명(鷄鳴) : 계명구도(鷄鳴狗盜). 전국시대(戰國時代) 맹상군은 왕족으로서 재상을 지낸 정곽군(靖郭君 : 전영(田嬰))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자질이 뛰어나 후계자가 되었음. 설(薛) 땅의 영주가 된 그는 선정을 베풀어 수많은 인재가 그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계명(鷄鳴 :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도 있었고, ‘구도(狗盜 : 밤에 개가죽을 둘러쓰고 인가에 숨어들어 도둑질하는 좁도둑)’도 있었음.

그 무렵(B.C. 298), 맹상군은 진(秦)나라 소양왕(昭襄王)으로부터 재상취임 요청을 받았다. 그는 제(齊)나라를 위해서 수락했다. 맹상군이 진(秦)나라에 도착하자, 소양왕은 중신(重臣)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그렇다고 그냥 귀국시킬 수도 없어서, 소양왕은 은밀히 맹상군을 죽여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 사실을 눈치 채 맹상군은 소양왕의 총희(寵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그녀는 호백구(狐白裘 : 즉 호구(狐裘)로, 이는 여우 거드랑이의 흰 털가죽으로 만든 귀족의 상징물인 최고급 옷)를 상납할 것을 요구했다. 단 한 벌 예물로 갖고 왔던 그 옷은 이미 소양왕에게 바친 뒤였다. 그 때, ‘구도(狗盜)’가 궁중에 잠입해서 전 날 진상한 호백구를 훔쳐 소양왕의 총희에게 바치고, 극비리에 귀국을 주선 받았다.

맹상군은 일행과 함께 국경 관문인 함곡관(函谷關)에 당도했다. 그러나 첫닭이 울기 전엔 관문을 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다급한 상황에서 ‘계명(鷄鳴)’이 인가로 내려가서 닭 울음소리를 유도해서 온 동네 닭이 울었고, 관문은 열렸다. 추격병이 당도한 것은 이들 맹상군 일행이 함곡관을 벗어난 직후였다.

- 36) 정식(鼎食) : ‘식사할 때 많은 밥솥을 짝 배열해놓고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세가대족(世家大族)의 호사생활을 가리킴. 유사한 말로 ‘정식명종(鼎食鳴鐘)’이란 말이 있는데, ‘밥솥을 짝 늘어놓고 종을 울린 다음 식사하다’라는 뜻임. 이 역시 부귀한 사람들의 생활이 사치스럽다는 것을 형용하는 말로 쓰임.

본 시에서의 ‘계명개정식(鷄鳴皆鼎食)’의 뜻은 ‘닭 울음소리 흉내를 잘 내는 식객과도 모두가 밥솥을 짝 늘어놓은 한 자리에서 신분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식사하다’는 것이다. 『사기(史記)·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에, “... 그(맹상군)는 귀천의 구분 없이 한결같이 자신과 동등하게 (식객)을 대우하였다. ... 맹상군이 일찍이 식객을 대접하여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불빛을 가렸다. 식객은 밥이 같지 않다고 노하여 밥을 먹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맹상군이 일어나 스스로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그 식객의 밥과 비교해 보니 그 식객은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찌르고 죽었다”고 한 예에서 알 수 있음.

- 37) 원헌빈(原憲貧) : 이는 ‘원헌(原憲 : B.C. 515-?)이 청빈하다’는 뜻임. 이 사람은 춘추시

終身守蓬蒿³⁸⁾
종 신 수 봉 필

평생 쭉대지붕에 나뭇가지 문짝 단 집을
지켰음을!

蓬蒿亦何戀,
봉 필 역 하 연

쭉대지붕에 나뭇가지 문짝 단 집에
또 무슨 미련 있었겠나만,

所貴明心跡³⁹⁾
소 귀 명 심 적

귀하게 여긴 것은 언행言行을
청명하게 함이었네.

其五
기 오

[5]

鷓鴣⁴⁰⁾巢蓬蒿⁴¹⁾, 굴뚝새는 쭉으로 둥지를 틀어놓지만,
조 료 소 봉 호

대(春秋時代) 노(魯)나라 사람이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송(宋)나라 사람이라고도 함. 원헌의 자(字)는 자사(子思). 원사(原思)라고도 하고, 중헌(仲憲)이라고도 함. 그는 공자(孔子)의 제자로, 청렴결백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즐겼다. 공자가 노나라 사구(司寇)로 재직 시에 가읍(家邑)의 재(宰)가 되었음. 후에 위(衛)나라 초원에서 은거하였음. 『장자(莊子)·양왕편(讓王篇)』에 그에 대한 이력이 나오는데, 자공(子貢)이 그를 방문하여 너무나도 곤궁하게 사는 그를 보고, “자공이 문가를(子貢曰), 아!(쯧), 그대는 어찌다가 이토록 실패했나? (先生何病<병 : 실패의 의미>) 원헌이 대답하기를(原憲應之曰), 제가 듣기에(憲聞之), 재산이 없는 것은 가난하다고 하고(無財謂之貧), 도를 배우고도 행하지 못한 자를 두고 실패했다고 합니다(學而不能行謂之病). 지금 저는 가난한 것이지(吾憲貧也),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非病也)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자공은 뒷걸음치면서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었다(子貢逡巡而有愧色)”라는 대목이 있음. 후에 사람들은 이 ‘원헌(原憲)은 가난하다(貧)’는 뜻의 ‘원헌빈(原憲貧)’이라는 말을 문사청빈(文士淸貧)의 전고(典故)로 삼았음.

- 38) 봉필(蓬蒿) : 봉호필문(蓬戶華門)의 약칭. 쭉대 같은 풀로 지붕을 잇고, 가시나무를 비롯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만든 집. 몹시 곤궁한 사람이 사는 초라한 가옥을 형용한 말로서, 은인(隱人)의 집에 비유하기도 함.
- 39) 명심적(明心跡) : 사상과 행위를 분명하게 드러내다. ① 명(明) : 천명(闡明)하다. ② 심적(心跡) : 사상과 행위.
- 40) 조료(鷓鴣) : 굴뚝새.
- 41) 소봉호(巢蓬蒿) : 굴뚝새는 침엽수림대의 바위틈 또는 농가의 헛간 등에 이끼와 가느다란 풀뿌리로 비교적 큰 둥지를 만든다.
① 소(巢) : 둥지를 만든다.
② 봉호(蓬蒿) : 쭉, 쭉대(쭉의 줄기).

鴻鵠⁴²⁾ 摩天飛。
홍곡 마천비

큰 기러기와 백조는 하늘 높이 난다네.

大小各有適，
대소각유적

대소사小事에는 제각기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있다지만,

誰知是與非。
수지시여비

누가 아는가? 그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옳고 그름을!

瓌奇⁴³⁾ 衆所艷，
괴기 중소염

아름답고 진기하면 못사람이 탐내지만,

禍患還相隨。
화환환상수

재앙 역시 (이로 인해) 서로 따라 다닌다네.

逍遙雲海路，
소요운해로

구름 낀 해변로를 거닐려고 한다면,

慎莫要身肥。
신막요신비

삼가 몸을 비대하게 하지마시라.

一夕落罟網⁴⁴⁾，
일석낙고망

어느 날 저녁 그물에 걸리게 된다면,

反爲鷓鴣譏。
반위조료기

도리어 굴뚝새의 조롱을 받을 걸세.

不似朝陽鳳⁴⁵⁾，
불사조양봉

동산東山 양지의 봉황새 같지는 못하다 해도,

42) 홍곡(鴻鵠) : 큰 기러기와 백조(고니)를 이르는 말로 포부가 원대하고 큰 인물을 이르는 말.

43) 괴기(瓌奇) : 괴기(瓌奇)로도 씀. 아름답고 진기하다. 괴(瓌)는 괴(瑰)와 동자(同字)임.

44) 고망(罟網) : 그물.

45) 조양봉(朝陽鳳) : 조양명봉(朝陽鳴鳳)이라고도 함. 품덕(品德)이 출중하고 정직해서 감히 직간(直諫)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이 말은 『시경(詩經)·대아(大雅)·권아(卷阿)』에, “봉황새가 우네(鳳凰鳴矣), 저기 저 건너 언덕 위에서(于彼高岡). 오동나무가 자라네(梧桐生矣), 저기 저 동산 양지에서(于彼朝陽)”라고 하는 구절이 나옴.

여기서 ‘봉황’은 ‘군자(君子 : 주왕(周王)을 칭함)’를 비유한 말이고, ‘오동(梧桐)’은 양목(良木)으로서 ‘현사(賢士)’ 즉 ‘중신(衆臣)’을 칭한 것임.

千年覽⁴⁶⁾德輝⁴⁷⁾。 천년토록 어진 품덕의 광채는
 천 년 람 덕 휘
 끌어안고 싶네.

其六
 기 육

[6]

松栢有正性, 소나무와 잣나무는 순정純正한 품성을 지녀서,
 송 백 유 정 성

受命⁴⁸⁾而不遷⁴⁹⁾。 대지로부터 받은 생명의 본성 변하지 않네.
 수 명 이 불 천

根盤巖石底, 뿌리는 암석 밑에서 얽히고설켰으며,
 근 반 암 석 저

幹聳⁵⁰⁾青冥天⁵¹⁾。 줄기는 푸른 하늘로 높이 치솟았네.
 간 용 청 명 천

風霜豈不苦, 바람과 서리가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만,
 풍 상 기 불 고

物性良自然⁵²⁾。 물성物性이 뛰어나서 어디에도
 물 성 양 자 연
 구속 받지 않는다네.

46) 람(覽) : 람(攬)과 통하여, ‘끌어안다, 취하다(채택하다)’는 뜻임.

47) 덕휘(德輝) : 덕휘(德輝)로도 씀. ‘인덕(仁德)의 광휘(光輝), 혹은 어진 품덕(品德)의 홀융함’의 뜻임.

48) 수명(受命) : 대지(大地)로부터 생명이 부여되다. 『장자(莊子)·덕충부(德充符)』에, “대지(大地)로부터 생명이 부여된 것 중에서(受命於地),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길이 그 생명을 보전하고 있나니(唯松柏獨也在), 여름이건 겨울이건 언제나 변함없이 푸르고 무성하다(冬夏青青)”라고 하였음.

49) 불천(不遷) : 바꾸지 않다. 천(遷) : ① 옮기다, 옮겨가다. ② 바꾸다, 변경하다. ③ 달라지다.

50) 간용(幹聳) : 줄기가 우뚝 솟다.

51) 청명천(青冥天) : 청천(青天)의 하늘.

① 청명(青冥) : 청천(青天). 여기서 ‘청천(青天)’은 하늘의 색깔을 형용하는 관형어로 봐야할 것임.

② 천(天) : 하늘.

52) 양자연(良自然) : (물성(物性)이) 뛰어나서 어디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

① 양(良) : ☆어질다. ☆홀륭하다. ☆뛰어나다. ☆잠깐. ☆진실로.

② 자연(自然) : ☆무리가 없다. ☆구속받지 않다. ☆용통성이 없지 않다. ☆저절로. ☆당연

蒼然不可犯,
창 연 불 가 범

푸르른 위용威容은 범접할 수 없지만,

羞作⁵³⁾桃李顏。
수 작 도 리 안

도리화桃李花의 색채 지니는 것은
두려워한다네.

時來作明堂,
시 래 작 명 당

때로는 좋은 빛자리 만들기 위해서,

不辭斧斤尋。
불 사 부 근 심

도끼 들고 벌목伐木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네.

苦心半已朽,
고 심 반 이 후

애써 다듬은 명당明堂 절반은
이미 무뎠 되어서,

螻蟻⁵⁴⁾還相侵。
누 의 환 상 침

땅강아지와 개미마저도 서로 파고드네.

風聲十里遠,
풍 성 십 리 원

바람소리 십리 밖 멀리서 들려 오길래,

時⁵⁵⁾作老龍吟⁵⁶⁾。
시 작 노 용 음

때맞추어 늙은이 목청 높여
시를 읊조려 보네.

히. ☆천연적인 것.

53) 수작(羞作) : ① 부끄러워하다. ② 두려워하다.

54) 누의(螻蟻) : 땅강아지와 개미.

55) 시(時) : ① 당시, 이때, 그때. ② 때를 맞추다.

56) 노용음(老龍吟) : 늙은이가 활기찬 용음(龍音)으로 시를 읊조리다.

① 노(老) : 늙은이.

② 용음(龍吟) : ☆용(龍)의 울음소리로 시를 읊다. 전(轉)하여, 소리를 높혀 시를 읊거나 시세(時勢)를 개탄하여 내는 소리. ☆소적류(簫笛類)의 관악기 음향을 형용함. ☆낮고 둔탁하거나 미세한 소리를 형용함. ☆목소리가 크고 낭랑함을 형용함. ☆군주의 호령에 비유하는 말.

其七
기 칠

[7]

燕石⁵⁷⁾亂荊玉⁵⁸⁾, 옥과 유사한 연석燕石을 보옥인
연 석 난 형 옥
형옥荊玉과 혼동시키니,

舉世⁵⁹⁾不識眞。 온 세상이 진품을 식별하지 못하네.
거 세 불 식 진

周道⁶⁰⁾鞠茂草⁶¹⁾, 길바닥엔 무성한 잡초로 우거지고,
주 도 국 무 초

57) 연석(燕石) : ‘연민(燕珉)으로, 연산(燕山)에서 나는 옥 비슷한 아름다운 돌’이라고도 함. 『태평어람(太平御覽) : 송(宋)나라 이방(李昉) 등이 편집한 백과사전』 제51권에서, 동한(東漢)의 반고(班固)가 저술한 『한서(漢書) · 예문지(藝文志) · 종횡가(縱橫家) · 궐자편(闕子篇)』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송(宋)나라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오대(梧臺 : 지금의 산둥성 임치현(臨淄縣) 서북에 위치한 땅) 동쪽 지방에서 연석(燕石)을 습득(拾得) 하였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서쪽으로 돌아가서 깊이 간수하여 두고 대단한 보물로 여겼다. 주(周)나라 어떤 객(過客)이 그 소식을 듣고 지나가다가 그 보물을 좀 보자고 하자, 주인은 귀족이 입는 예복을 입고 나와서 보물을 보여주는데, 화려한 껍질 안에 껍질을 넣는 식으로 십중(十重)으로 보관하고, 그 안에 명주 보자기를 열겹이나 감싸 놓았다. 객이 그것을 보고나서 껍질 옷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연석(燕石)으로, 기와 조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고 하였다. 주인은 대노(大怒)하며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연석(燕石)’을 ‘진귀하기에는 부족한 물건’에 비유하였음.

58) 형옥(荊玉) : 형산(荊山) :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남장현(南漳縣) 서부에 위치한 산)에서 생산된 옥. 즉 화씨벽(和氏璧). 『한비자(韓非子) · 화씨편(和氏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사(故事)가 보인다. 춘추시대 초(楚)나라 사람 변화(卞和)는 형산(荊山)에서 박옥(璞玉) : 가공하지 않은 옥 덩어리)을 습득하였다. 그는 그 옥 덩어리를 선후에 걸쳐 초려왕(楚厲王)과 초무왕(楚武王)에게 갖다 바쳤으나, 옥이 아닌 돌덩어리를 헌납하여 사기를 친다고 오해를 받아 두 발을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

변화(卞和)는 너무 억울해서 그 박옥(璞玉)을 가슴에 안고 형산(荊山) 아래 가서 통곡하였다. 문왕(文王)이 즉위하여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 박옥을 연마한 결과 그것은 과연 훌륭한 보옥이었다. 그래서 왕은 그 옥을 이름 하여 ‘화씨벽(和氏璧)’이라 명명(命名)하였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연석(燕石)이나 형옥(荊玉), 또는 민(珉)과 옥(玉)을 가지고, ‘호악(好惡), 귀천(貴賤), 진가(眞假)’를 비유하는 말로 쓰기도 했음.

59) 거세(舉世) : 온 세상.

60) 주도(周道) : ① 길바닥에 운동. ② 도로 가득. ③ 대로(大路). ④ 보통의 도리(道理). ⑤ 주(周)나라 시대의 치국지도(治國之道).

61) 국무초(鞠茂草) : 무성한 잡초가 가득하다.

① 국(鞠) : ☆많다, 충분하다. 가득하다. ☆기르다(양육하다). ☆굽하다. ☆공(구(球)). ☆국문하다(국(鞠)과 동자(同字)임). ☆국화(국(菊)과 동자임).

四海⁶²多荊榛⁶³。 천하엔 가시나무와 개암나무가 허다하네.
사 해 다 형 진

顧瞻⁶⁴陳楚⁶⁵間, 늘어선 가시나무 숲을 둘러보는데,
고 찰 진 초 간

日暮風捲塵。 날이 저물면서 바람이 흙먼지 말아 올리네.
일 모 풍 권 진

翩翩⁶⁶孤鳳皇, 휘얼 휘얼 날아가는 외로운 봉황새를,
편 편 고 봉 황

噦噦⁶⁷來何從。 째랑째랑 방울 단 말 타고 어이 쫓아가라!
쇄쇄 래 하 중

空將⁶⁸五色羽⁶⁹, 공연히 오색작오색雀을 따라 다니다가는,
공 장 오 색 우

② 무초(茂草) : 무성한 잡초.

62) 사해(四海) : 천하.

63) 형진(荊榛) : ① 형진(荊蒺)으로도 씀. 가시나무와 개암나무. 일반적으로 군생(群生)하는 관목(灌木)을 가리키며, 황무(荒蕪)한 정경(情景)을 형용하는 데 많이 씀. ② 위험과 곤란함을 비유함. ③ 악인(惡人)을 비유함. ④ 불만, 응어리진 마음(땃힌 마음)을 비유함.

64) 고찰(顧瞻) : ① 둘러보다, 보다. ② 침전고후(瞻前顧後) : 이리저리 살피다. 앞뒤를 살피다. ③ 돌보다, 보살피다.

65) 진초(陳楚) : 늘어선 가시나무. 진(陳)은 배열하다는 뜻이고, 초(楚)는 가시나무, 가시가 있는 잡목을 말함. 형초(荊楚)라고도 하고 모형(牡荊)이라고도 함. 마편초과(馬鞭草科)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잎은 이뇨(利尿)의 약재로 쓰임.

66) 편편(翩翩) : ① 훨훨 빨리 날아가는 모양, 훌쩍 날아가는 모양. ② 오락가락 왕래하는 모양. ③ 재치가 있는 모양, 행동이 경쾌한 모양. ④ 궁전이 크고 으리으리한 모양. ⑤ 즐거워하여 득의(得意)한 모양. ⑥ 풍도(風度)나 문체가 우아한 모양. 연면(連綿)하여 끊어지지 않는 모양. ⑦ 높고 아득한 모양. ⑧ 감언이설(甘言利說).

67) 화화(噦噦) : ① 말에 단 방울소리, 율동적인 리드미컬한 방울소리. ② 날이 환해지는 모양.

68) 공장(空將) : 공연히 따라다니다.

① 공(空) : 부사로 쓰여, 공연히.

② 장(將) : ☆ ~에 뒤따르다. ☆ ~을 보내다. ☆휴대하다. ☆이끌다, 인도하다. ☆순종하다, 수종(隨從)하다.

69) 오색우(五色羽) : 오색작(五色雀)의 대칭(代稱).

당(唐)나라 정웅(鄭熊)의 『번우잡편(番遇雜篇)』에, “오색작(五色雀)은 일명 음성조(音聲鳥)라고도 하는데, 이 새는 매번 음악 소리를 낸다. 북소리도 내고 피리 소리도 내며 판자 치는 소리도 내는 등, 온 산에서 소란스레 지저귀다가 조용해진다”고 하였다.

송(宋)나라 소식(蘇軾)의 <오색작(五色雀)> 서(序)에, “해남(海南)에 오색작(五色雀)이 있는데, 늘 한 쌍의 진홍색 새가 우두머리여서, 오고 가는데 반드시 따라 다니며, 속칭 봉황(鳳凰)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不遇朝陽⁷⁰⁾桐。
불 우 조 양 동

동산東山의 오동나무에서
(봉황새를) 만나지 못하겠네.

雙鳥避網羅，
쌍 조 피 망 라

한 쌍의 새가 그물을 피해서，

婆娑⁷¹⁾雲水林。
파 사 운 수 림

구름 낀 물가 숲에서 훨훨 춤추고 있겠네.

相逢歎德衰，
상 봉 탄 덕 쇠

상봉하면 덕성德性이 쇠퇴했다 탄식하리니，

果哉⁷²⁾非吾心。
과 재 비 오 심

정말이지 그건 내 뜻이 아니로세.

其八
기 팔

[8]

周綱⁷³⁾日陵遲⁷⁴⁾，
주 강 일 능 지

주대周代의 법기法紀가 나날이 쇠퇴하더니，

四海亂紛紛⁷⁵⁾。
사 해 난 분 분

천하가 휘날리는 눈발처럼 어지러워졌다네.

明堂⁷⁶⁾已蕪穢，
명 당 이 무 예

정전政殿에는 이미 잡초가 무성하고，

繻葛⁷⁷⁾風塵昏。
수 갈 풍 진 혼

수갈繻葛 전쟁이후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네.

70) 조양(朝陽) : ① 산의 동쪽, 동산(東山). ② 떠오르는 태양, 아침 해.

71) 파사(婆娑) : ① 누울누울 춤추는 모양. ② 휘이휘이 나는 모양.

72) 과재(果哉) : 과연, 정말.

73) 주강(周綱) : 주대(周代)의 법기(法紀 : 법도와 기율). 강(綱)은 법기(法紀)에 비유됨.

74) 능지(陵遲) : 산언덕이 완만해지고 평평해지는 모양. 전(轉)하여, 사물이 차차 쇠퇴해짐을 이룸.

75) 난분분(亂紛紛) :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리어 어지러움.

76) 명당(明堂) : 고대 제왕의 정교(政教)를 선명(宣明)하고 대전(大典)을 거행하던 정전(政殿)을 가리킴.

77) 수갈(繻葛) : 수갈지전(繻葛之戰)을 칭함. 이 전쟁은 주환왕(周桓王) 13년(B.C. 707년) 가을에, 주(周)나라와 정(鄭)나라가 수갈(繻葛 : 지금의 하남성 갈현 이북)에서 일으킨 전

幡幡⁷⁸⁾柱下史⁷⁹⁾, 귀밑머리 허영게 센 주하사柱下史 노자老子
파 파 주 하 사
마저,

獨駕青牛車⁸⁰⁾。 홀로 청우거靑牛車를 타고
독 가 청 우 거
(주周나라를) 떠났다네.

쟁인. 이 전쟁은 춘추(春秋) 초기에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국력이 날로 흥성해지는 것을 바탕으로 중원을 제패(制覇)하기 위해, 종주국(宗主國)이지만 국력이 날로 쇠약해져 천하공주(天下共主)란 허명(虛名)만 지닌 채 중등 제후국의 처지가 된 주(周)나라에 반기를 들고 도전하여 주나라를 대패시킨 전쟁임.

정나라의 거듭된 발호(跋扈)행위에 주나라가 강압으로 맞서자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결국 주정교질(周鄭交質 : 주나라와 정나라 사이에 상호인질 교환)의 협약을 깨고 주 왕실에 서는 정장공(鄭莊公)의 제후직을 뺏아 곡공(虢公)에게 넘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영도의 일부도 빼앗아 오면서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 교전이 시작되자, 정나라는 주나라 연합군의 전차병(戰車兵)과 보병사이에 유기적 협동을 원활하게 했던 ‘어려진(魚麗陣)’을 펼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퇴패해가는 주나라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천자(天子)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정치적 명분의 주도권까지 얻었다.

이 전쟁 이후로 제후국들은 천자(天子)의 명을 듣지 않았으며, 제후국끼리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동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음. 그리하여, 전통사상인 예악과 징벌 통치도 이 전쟁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되었음.

78) 파파(幡幡) : 연로(年老)하여 귀밑머리가 허영게 센 모양.

79) 주하사(柱下史) : 노자(老子)를 칭함.

① 주하사(柱下史)란, 주(周)나라와 진(秦)나라 시대의 관명(官名). 즉 한(漢) 이후의 어사(御史). 당시 어사는 항상 정전(正殿)의 가둥 아래서 시립(侍立)했기에 붙여진 이름.

② 주하사(柱下史)는 노자(老子 : ?-?, 춘추시대의 사상가)를 가리킴. 노자(老子)는 성씨는 이(李),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 백양(伯陽)이라고도 함. 전하는 바에 의하면, 노자가 주나라의 주하사(柱下史)였다고 하여, 노자의 대칭(代稱)으로 씀. 또한 후세 사람들은 ‘주하(柱下)’를 노자(老子) 혹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의 대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음.

80) 청우거(靑牛車) : 노자가 푸른빛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함곡관(函谷關)을 지나 서역(西域)으로 들어갔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사기(史記)·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 노자는 주나라가 쇠미해지자 그 곳을 떠났는데, 국경 관문인 함곡관에 이르자, “관령(關令 : 관문 수비의 책임자) 윤희(尹喜 : 주나라 대부(大夫)로서 도학파의 한 사람)가 ‘선생께서 앞으로 은거하려 하니, 수고스럽지만 저를 위해 저서를 남겨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노자는 상하편의 저서를 지어 도덕(道德 : 도가학파의 술어(術語)). 도(道)는 천지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이 변화하는 규율이고, 덕(德)은 도(道)에 의거해서 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의 의미를 5천 여자를 서술하고, 떠나 버리니, 그 후로는 아무도 그의 최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당(唐)나라의 사마정(司馬貞)이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한(漢)나라 유향(劉向)의 『열선전(列仙傳)』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노자가 서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함곡관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함곡관의 주변에 자기(紫氣)가 서리기에 바라보고 있자니, 그것은 노자가 청우(靑牛)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 후에 사람들은 ‘청우(靑牛)’를 신

遙遙出西關⁸¹⁾
요 요 출 서 관

아득히 함곡관^{函谷關} 부근에
(노자가) 출현하자,

紫氣先凌虛⁸²⁾
자 기 선 등 허

상서러운 자색^{紫色} 기운이 먼저
하늘에 서렸다네.

其九
기 구

[9]

至人⁸³⁾任顯晦⁸⁴⁾
지 인 임 현 회

수양^{修養}이 지고^{至高}한 사람은
벼슬과 은거를 임의대로 하니,

起滅⁸⁵⁾秋空雲。
기 멸 추 공 운

나타나고 사라짐이 가을 하늘 구름 같다네.

身名⁸⁶⁾兩俱隱,
신 명 양 구 은

육신과 명예 둘 다 드러내지 않음은,

大道⁸⁷⁾不容言。
대 도 불 용 언

상리^{常理}에 용인되지 않는 말일세.

선도사가 타는 짐승으로 간주하였음.

- 81) 서관(西關) : 서쪽 관문. 함곡관을 가리킴. 옛 함곡관은 전국시대 진(秦)나라가 설치했으며, 그 위치는 지금의 하남성 영보현(靈寶縣) 남쪽 5km 지점임. 그 곳으로 가는 길이 계곡 안에 있는 까닭에, 절벽으로 둘러싸인 골짜기가 깊고 험준하기가 흡사 함(函)과 같이 생긴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함. 한(漢)나라 원정 3년(元鼎三年 : B.C. 113년)에 함곡관을 지금의 하남성 신안현(新安縣) 경계지역으로 옮겼으니, 옛관(關)과는 거리가 3백리나 떨어진 곳이 됨.
- 82) 능허(凌虛) : (어떤 기운이) 하늘에 서리다. (어떤 기운이) 어리어 나타나다. 뻗쳐오르다.
- 83) 지인(至人) : ① 사상과 도덕이 최고 경지에 이르도록 수양한 사람. ② 도가(道家)에서 초범탈속(超凡脫俗)하여 무아(無我)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가리킴.
- 84) 현회(顯晦) : ① 벼슬살이와 은거에 비유하는 말. ② 세상에 알려짐(나타남)과 알려지지 아니함을 비유하는 말. ③ 명(明)과 암(暗).
- 85) 기멸(起滅) : ① 나타남과 사라짐. ② 흥기(興起)함과 쇠퇴함.
- 86) 신명(身名) : 육신과 명예.
- 87) 대도(大道) : ① 정도(正道). 상리(常理). 윤리강령을 비롯한 최고의 치세(治世)원칙. ② 큰 길. (정상적인 전과경로를 가리키기도 함). ③ 자연법칙. ④ 성선지도(成仙之道).

悔⁸⁸⁾逢關令語,
회 봉관령어

관령關令을 만나 요청받은 말에 전력을 다해,

煩作五千文⁸⁹⁾。
번작오천문

수고롭게도 5천여 자의 저술을 하였다네.

黃鐘混瓦缶⁹⁰⁾ ,
황종혼와부

황종黃鐘같이 격조 있는 저술著述을
와부瓦缶같은 거친 언설言說이 흐리게 하자,

擾擾⁹¹⁾空多論。
요요공다론

공연히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시끌벅적 하다네.

88) 회(悔) : ① 회(悔)는 회(晦)의 가차자(假借字)로, ‘무기(無幾 : 얼마 되지 않아. 머지않아. 곧)’의 뜻임. 이 뜻으로, 해석할 경우, ‘회봉관령어(悔逢關令語)’의 뜻은 ‘관령을 만나 대화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뜻이 된다. ② 회(悔)는 회(晦)와 통하며, ‘진(盡 : 다하다. 전력을 다해 완성하다)’의 뜻이 있다. 이 뜻으로 해석할 경우, ‘회봉관령어(悔逢關令語)’의 뜻은 ‘관령(關令)을 만나 부탁 받은 말을 전력을 다해 완성하다’는 뜻이 된다.

89) 오천문(五千文) :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을 가리킴. 실제로는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도가(道家)의 언설(言說)을 모아 한(漢)나라 초기에 편찬한 것으로 추측함. 『도덕경(道德經)』의 내용은 <시 98>의 [8]에서 주석 80) ‘청우거(靑牛車)’ 조항을 참조 바람.

90) 황종혼와부(黃鐘混瓦缶) : 황종(黃鐘)같이 격조 있는 저술(著述)을 와부(瓦缶) 같은 거친 언설(言說)이 흐리게 하자) : 일반적으로 황종와부(黃鐘瓦缶)란, 예술성이 높은 문예작품과 예술성이 낮은 문예작품을 비유하는데 쓰임.

① 황종(黃鐘) : 황종(黃鐘)이라고도 씀.

☆타인의 시문(詩文)에 대한 경칭(敬稱).

☆예술성이 높은 문예작품을 비유한 말.

☆고대의 타악기(打樂器). 주로 사찰이나 종묘와 사당 등에서 사용하였음.

☆악률(樂律 : 음을 음률의 높낮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정돈한 체계) 12률(律) 중의 제일률(第一律)로서, 양률(陽律)에 속하며, 서양음의 C음에 가까움.

☆황종조(黃鐘調)를 기음(基音)으로 한 악곡임.

☆고대에 절기(節氣)를 예측하기 위해서 위막(葦膜 : 갈대껍질)을 태운 재를 율관(律管)안에 넣어 두는데, 모(某) 절기가 되면 율관 안의 재가 상응하여, 절로 날아가게 된다. 황종률(黃鐘律)과 동지(冬至)가 상응하는데, 이때가 음력 11월이다. 그래서 황종(黃鐘)을 ‘음력 11월의 별칭’으로도 씀.

② 와부(瓦缶) :

☆주둥이가 좁고 배가 불룩한 토제(土製) 오지장군(술이나 물 따위를 담음).

☆고대 토제(土製) 타악기.

☆예술성이 낮은 문예작품에 비유함.

91) 요요(擾擾) : ① 분란(紛亂) :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움)스러운 모양. ② 번란(煩亂) : 마음의 산란함)스러운 모양.

其十
기 십

[10]

矯矯⁹²⁾龍門子⁹³⁾, 위세 당당하고 명망名望 높은 고관대 자제가,
교 교 용 문 자

彈琴大河陰⁹⁴⁾。 큰 강의 남녘에서 거문고를 타고 있네.
탄 금 대 하 음

琴聲清且長⁹⁵⁾, 거문고 소리 청아清雅하고 울림이 높는데,
금 성 청 차 장

河水濁而深。 강물은 혼탁하고 수심마저 깊다네.
하 수 탁 이 심

希音⁹⁶⁾世所棄, 음악성 결여된 음률은
희 음 세 소 기 세인世人에게 버림받고,

古調⁹⁷⁾不諧今。 고대 악조樂調는 현세대와
고 조 불 해 금 어울리지 않는다네.

鼓罷⁹⁸⁾三歎息⁹⁹⁾, 연주가 끝나자 연이어 찬탄하며,
고 파 삼 탄 식

-
- 92) 교교(矯矯) : ① 용무(勇武)한 모양, 즉 용맹스럽고 위세가 있는 모양. ② 굳센 모양, 강직한 모양. ③ 탁월한 모양. ④ 높이 치솟은 모양(남보다 뛰어난을 비유한 말). ⑤ 비동(飛動)하는 모양. (뛰어나게 생동적이거나 높아서 펼쳐지는 모양, 분발하는 모양). ⑥ 특히하여 사기가 높아진 모양.
- 93) 용문자(龍門子) : 명망이 있는 대의 자제. 용문(龍門)이란, 명성과 인망(人望)이 높은 사람을 비유하거나, 혹은 입신출세의 관문 혹은 등용문을 일컬음.
- 94) 대하음(大河陰) : 황하(黃河)의 남쪽.
 ① 대하(大河) : 큰 강. 황하(黃河)를 달리 이르는 말.
 ② 음(陰) : ☆강하(江河)의 남쪽이나 산의 북쪽. ☆음지. ☆혼암(昏暗). ☆그늘.
- 95) 장(長) : 대(大). 크다(정도를 표시함).
- 96) 희음(希音) : ①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은 자연 상태의 순수한 음률, 즉, 음악성이 결여된 음률. ② 기묘한 소리(음악).
- 97) 고조(古調) : 고대의 악조(樂調).
- 98) 고파(鼓罷) : 연주를 끝낸다. ① 고(鼓) : 악기를 타다, 연주하다. ② 파(罷) : 마치고, 그만 두다.
- 99) 삼탄식(三歎息) : 연이어(여러 번) 찬탄하다(노래하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세 사람이 연이어 찬탄하는 소리를 내어 호응함을 이룸).

觀者¹⁰⁰⁾爲沾襟。
관 자 위 칠 금

감상한 사람들은 옷깃을 적시었네.

空懷太平策¹⁰¹⁾，
공 회 태 평 책

부질없이 태평책太平策 가슴에 품었다가,

零落¹⁰²⁾在丘林¹⁰³⁾。
영 락 재 구 립

산림 속으로 쓸쓸하게 시들어 떨어졌네.

100) 관자(觀者) : 감상하는 사람. 관(觀)은 '감상하다'.

101) 태평책(太平策) : 나라를 평화롭게 안정시키는 책략.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책략.

102) 영락(零落) : ① 세력이나 살림이 줄어들어 보잘 것 없이 됨. 몰락하다, 쇠퇴하다. ② 초목의 잎이 말라 떨어지다. '죽음'에 비유하는 말. ③ 눈, 비 따위가 오다. ④ 쓸쓸해지다. ⑤ 가난하게 되다.

103) 구림(丘林) : 산림(山林).



시99. 조천행 朝天行

詩99. 朝天行¹⁾ 조 천 행

朝天行, 思吳君仲周²⁾也。己巳, 余奉使北京, 遇仲周於班行³⁾中,
조 천 행 사 오 군 중 주 아 기사 여 불 사 북 경 우 중 주 어 반 행 중
 論學有契⁴⁾。仲周, 新安人, 名京, 尊朱子⁵⁾, 能言近世學術之非,
논 학 유 계 중 주 신 안 인 명 경 존 주 자 등 언 근 세 학 술 지 비
 作序詩送余。其後連寄書相問, 今二十餘年, 不復聞音信⁶⁾。
작 서 시 송 여 기 후 연 기 서 상 문 금 이 십 여 년 불 부 문 음 신

명나라 천자를 알현했던 사행(使行: 사신의 행차)길은 오중주(吳仲周)를 생각나게 한다. 기사년(己巳年: 1569년, 선조(宣祖) 2, 서해(西厓) 28세)에, 내가 성절(聖節) 일행에서 서장관(書狀官)의 임무를 받들어 북경에 갔을 때, 군신(群臣)들의 조반(朝班) 행렬 가운데서 중주(仲周)를 만났는데, 그와 학문을 논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했다.

중주(仲周)는 신안현(新安縣: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경내(境內)에 위치함) 사람으로, 이름은 경(京)이다. 주자(朱子)를 존경했으며, 능히 근세(近世) 학술의 오류를 지적해내는 인물로, 서문을 붙인 시를 지어 내게 보냈다. 그

- 1) 조천행(朝天行): ‘명(明)나라 사신행차(使臣行次)에 다녀온 이후 이를 읊은 노래’라는 뜻으로, 이때 ‘행(行)’은 악부시(樂府詩) 편명(篇名)의 하나로 봐야할 것임. 조선 후기에 와서 즉 청(淸)나라 시대에 조선의 사신(使臣)이 지금의 북경인 연경(燕京)을 다녀온다 하여 연경행(燕京行: 사신행차가 연경에 가는 일) 또는 줄여서 연행(燕行)이라고도 하였으나, 이때의 행(行)은 ‘행차, 행위’의 뜻임.
 - ①朝天(朝天): 명(明)나라 황궁에 입궐하여 천자를 배알한다는 뜻임.
 - ②행(行): 악부시의 편명의 하나임. 이는 ‘갑다가 달리듯이 성기면서도 막히지 않는 노래’를 ‘행(行)’이라고 함. 자세한 것은 <시 88>의 주석 1)의 ②, ‘행(行)’의 조항을 참조 바람.
- 2) 오중주(吳君仲周): 오중주(吳仲周). 성씨는 오(吳), 이름은 경(京), 자는 중주(仲周).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신안현(新安縣) 사람. 명(明)나라 관료. 상세한 이력 미상.
- 3) 반행(班行): ① 조반(朝班)의 행렬. 조회 때에 조정 관료의 자리순서. 고대 군신(群臣)들이 제왕을 알현(謁見)할 때, 관직의 품계에 따라 배열하는 자리 순서임. 시봉관(侍奉官)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품계가 높을수록 제왕과의 거리가 근접함. ② 조관(朝官: 즉 조신(朝臣)). 조정에서 벼슬살이 하는 신하)을 가리킴. ③ 조정(朝廷)을 가리킴. ④ 동렬(同列), 병렬(並列).
- 4) 계(契): 마음이 서로 통하다. 뜻이 서로 통하다.
- 5) 주자(朱子: 1130-1200): 송나라 유학자. 성씨는 주(朱), 이름은 희(熹), 자는 원晦(元晦), 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 회옹(晦翁), 운곡산인(雲谷山人), 둔옹(澗翁) 등임. 도학(道學)과 이학(理學)을 결합하여, 송학(宋學)을 집대성하였음. 주자(朱子)라고 높혀 칭하며, 그의 학문을 주자학(朱子學)이라고 함. 자세한 것은 <시 7> 주석 2)의 ‘회암(晦庵) 조항을 참조 바람.
- 6) 음신(音信): 편지, 소식, 기별.

후 계속하여 서신을 띄어 안부를 물었는데, 지금껏 20여 년이 되도록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嗟余質愚學迷方⁷⁾,
차 여 질 우 학 미 방

내 자질 우둔하여 학문의 길
잃은 걸 한탄하나니,

晚生遐裔同蜉蝣⁸⁾。
만 생 하 예 동 부 유

원방遠邦의 후학은
하루살이나 마찬가지로.

平生徒⁹⁾讀古人書,
평 생 도 독 고 인 서

평생을 오직 옛 사람 서적 읽으면서,

尙友千載¹⁰⁾思前修¹¹⁾。
상 우 천 재 사 전 수

천 년 전 현인賢人을 벗으로 삼고
전대前代의 명인名人을 사모했소.

-
- 7) 미방(迷方) : ① 방향을 잃다. ② 길을 잃다. ③ 불교어로서, 사람을 미혹에 이르게 하는 경계(境界).
- 8) 만생하예동부유(晚生遐裔同蜉蝣) : 원방(遠邦)의 후학은 하루살이나 마찬가지로 :
① 만생(晩生) : 선배에 대한 자기의 겸칭. 후학(後學 : 학문에서의 후배)을 가리킴.
② 하예(遐裔) : 아주 먼 외딴 지방. 이때의 ‘예(裔)’는 ‘후손 예가 아니고, ‘가장자리’를 뜻하는 ‘예(裔)자(字)임.
③ 부유(蜉蝣) : 부유(蜉蝣)라고도 씀. 하루살이(하루살이과에 속하는 잠자리 비슷한 곤충. 여름과 가을에 물가에서 떼지어 사는데, 산란 후, 수 시간 만에 죽음). 인생의 덧없음에 비유하여, ‘짧은 인생’이란 뜻으로 씀.
- 9) 도(徒) : 다만 ~뿐, 오직 ~뿐.
- 10) 상우천재(尙友千載) : 천 년 전 현인을 벗 삼다.
① 상우(尙友) :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옛날의 어진 사람을 벗으로 삼음.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교유(交遊)함.
② 천재(千載) : 천 년. 세월이 장구(長久)한 것을 형용한 말.
- 11) 전수(前修) : 전수(前脩)로도 씀. 여기서 ‘수(脩)’는 ‘수(修)’와 통용함. 전현(前賢 : 전대<前代>의 현인이나 명인<名人>)과 같은 말.

觀周幸醕遠遊志¹²⁾,
관주행수원유지

주변 경관景觀 보며 시문詩文 주고
받던 걸 멀리서 그리워하며,

歲暮悲歌燕市秋¹³⁾.
세모비가연시추

세월에 연경燕京에서 머물던 때를
비가悲歌로 읊네.

聲名文物¹⁴⁾二百年¹⁵⁾,
성명문물이백년

성위聲威와 전장제도典章制度로
교화시킨 이백년,

12) 관주행수원유지(觀周幸醕遠遊志 : 주변 경관〈景觀〉 보며 시문〈詩文〉 주고받던 걸 멀리서 그리워하며) :

- ① 관주(觀周) : 주변을 감상(참관·유람·견학)하다.
- ② 행수(幸醕) : 즐겁게 (다정하게) 시문(詩文)을 주고 받다.
☆행(幸) : 다정하다, 즐겁다.
☆수(醕) : 시문증답(詩文贈答)하다. 수(酬)는 수(酬)와 같은 자임.
- ③ 유지(遊志) : 치상(馳想) 또는 하상(遐想)과 같은 말의 뜻임.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그리워하다.
☆현실을 초월하여 고원(高遠)한 상상(想象)을 하다.

13) 세모비가연시추(歲暮悲歌燕市秋 : 세월에 연경〈燕京〉에서 머물던 때를 비가〈悲歌〉로 읊네.)

- ① 비가(悲歌) : ☆슬픈 심정으로 엮은 서정시가의 한 갈래.
☆슬프고 애잔한 노래.
- ② 연시(燕市) : ☆연경(燕京). 명(明)나라 수도인 지금의 북경(北京)을 가리킴.
☆전국시대(戰國時代) 연(燕) 나라의 수도.
- ③ 추(秋) : ☆한 계절 (3개월의 기간)을 가리킴.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시각.
☆가을철.

14) 성명문물(聲名文物) : 성명문물(聲明文物)이라고도 함.

『좌전(左傳)·환공이년(桓公二年)』에, … “의복의 무늬나 오색으로 그린 여러 가지 모양에 의하여 심덕(心德)을 갖춰야 함을 마음에 아로 새기고(文物以紀之), 방울소리와 밝은 모양으로는 심덕을 발양시켜서(聲名以發之), … ”라고 한 대목이 나오는데, 후세에, ‘성명문물(聲名文物)’이란 말을 ‘성교문명(聲教文明 : 성위〈聲威〉 : 위력과 기세)과 전장제도(典章制度)’를 이르는 말로 사용하였음.

15) 이백년(二百年) : 여기서 ‘이백년’이라는 셈은 바로 서애가 성절사(聖節使)로 연경(燕京)에 갔을 당시에 명(明)나라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임.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서애가 명나라에 갔던 해인 1569년(28세)을 상한년도로 산출을 하면, 바로 201년이 되는데, 서애는 이를 정수(整數)로 써서 ‘200년’이라고 표현한 것임. 그러나 위의 시를 쓴 시기는 당시 성절사(聖節使)를 다녀온 이후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본 시의 작시(作詩) 년대는 1589년으로, 서애의 나이 48세가 됨.

所見雖多非所求。
소견수다비소구

본 것은 많았지만 취할만한 것은
아니었네.

王正念八是聖節¹⁶⁾，
왕정념팔시성절

정월 스무 여드렛날은 황제의 생신일，

濫上勻天朝玉旒¹⁷⁾。
남상균천조옥류

넘치는 인파가 하늘만큼 모여
황제를 배알코자 했네.

鷄人¹⁸⁾唱曉彤庭¹⁹⁾關，
계인창효동정벽

계인鷄인이 날 밝았음을 알리자
궁문宮門이 열리니，

衣冠濟濟²⁰⁾鳴琅球²¹⁾。
의관제제명랑구

엄숙하게 의관정제衣冠整齊한 관료들
패옥소리도 낭랑했네.

16) 왕정념팔시성절(王正念八是聖節 : 정월 스무 여드렛날은 황제의 생신일) :

- ① 왕정(王正) : 왕조(王朝)에서 흥정(欽定 : 황제의 명으로 만듦)한 역법(曆法)의 정월(正月).
- ② 염팔(念八) : 28일. 염(念)은 ‘이십(二十)’의 속칭.
- ③ 성절(聖節) : ☆천추절(千秋節)이라고도 함. 옛날 중국황제의 생신일(生辰日). 당(唐) 현종(玄宗)의 생일인 개원(開元) 17년(729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었음. ☆황후, 귀비, 혹은 태자의 생일.

17) 남상균천조옥류(濫上勻天朝玉旒 : 넘치는 인파 하늘만큼 모여 황제를 배알코자 했네) :

- ① 남상(濫上) : (몰이)범람하다, 상(上)은 동사 뒤에 방향보어로 쓰여 높은 곳으로 혹은 앞 쪽으로 향함을 나타냄. 여기서의 남상(濫上)은 전(轉)하여, (인파가) 넘쳐나다.
- ② 균천(勻天) : 균천(鈞天). ‘균(勻)’자는 ‘균(鈞)’과 동자(同字)로 여기서는 존경의 뜻으로 쓰인 접두사로 봐야 할 것임. 균천은 하늘의 중앙부로, 곧 천자가 계시는 궁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③ 조옥류(朝玉旒) : 천자를 배알하다.

☆조(朝) : 임금을 뵈알하다.
☆옥류(玉旒) : 고대 제왕의 면류관(冕旒冠) 위의 사각 관 전후로 늘어뜨린 오채(五彩)의 구슬줄미. 전(轉)하여, ‘천자(天子)의 대칭(代稱)’으로 쓰였음.

18) 계인(鷄人) : 계인(雞人)으로도 씀.

- ① 『주례(周禮)·춘관(春官)·계인(雞人)』에 보면, 주(周)의 관명(官名)임. 대제(大祭)를 지낼 때, 닭을 잡아서 제앙을 물리치기 위해 희생의 피를 그릇에 받아 사방(四方)의 신에게 제사 지내며, 공물(供物)로 바치던 일을 관장하였음.
- ② 국빈(國賓)의 방문 시, 또는 국내 정치적 회동(會同)이 있을 시기, 군여(軍旅)에서나 국상(國喪)이 났을 때, 큰 의전행사를 거행하면, 날이 밝았다는 시각을 큰 소리로 외쳐 잠을 깨우는 일을 맡았음.

19) 동정(彤庭) : 궁전 섬돌위의 붉게 칠한 뜰. 전(轉)하여, 궁전이란 뜻으로 쓰임.

鵷翔鷺集²²⁾分左右,
원 상 노 집 분 좌 우

원추새와 백로白鷺의 의용儀容 갖추
백관百官들이 좌우로 나뉘서고,

亦有三千縫掖²³⁾流。
역 유 삼 천 봉 액 류

도포차림 유학자들
삼천 명도 운집했네.

新安高士婉清揚²⁴⁾,
신 안 고 사 완 청 양

신안新安출신 고매한 선비
미목眉目이 수려했는데,

姓名吳京字仲周。
성 명 오 경 자 중 주

성명은 오경吳京이요
자수는 증주仲周라네.

顧余一笑何繾綣²⁵⁾,
고 여 일 소 하 권 권

나를 돌아보며 짓는 미소
얼마나 정겹던지,

問答未久心相投。
문 답 미 구 심 상 투

서로 문답問答한 지 얼마 안 돼
마음이 통했네.

20) 의관제(衣冠濟濟) : 관리들의 위의(威儀) : 엄숙한 차림새 : 위엄 있는 태도나 용모가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움.

① 의관(衣冠) : ☆옷과 갓. 정장의 비유. ☆벼슬아치와 사대부의 총칭.

② 제제(濟濟) : ☆장엄하고 정중하거나 위의(威儀)가 많은 모양. ☆옷차림이 깔끔하고 훌륭함 ; 아름다움.

21) 명랑구(鳴琅球) : 낭랑하게 패옥이 부딪치는 소리를 내다.

① 명(鳴) : ☆(새가) 울다. ☆울리다. ☆(소리를) 내다.

② 랑구(琅球) : ☆공처럼 둥근 옥돌. ☆옥이 부딪치는 소리.

22) 원상로집(鵷翔鷺集) : 조경관료들의 질서정연한 행렬을 원추(鵷) 새와 백로(白鷺)의 한아(閑雅)한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임.

① 원(鵷) : 원추(鵷) 새. 이 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는다는 봉황과 같은 새임.

② 로(鷺) : 백로과에 딸린 새. 바닷가·논·강 따위 습지(濕地)에 5-6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밤에는 숲 혹은 대밭에 숨어서 잠을 잠.

23) 봉액(縫掖) : 봉액(縫掖)으로도 씀. 이는 곧 봉액지의(縫掖之衣)로, 예전에 선비가 입던 큰 소매에 앞이 넓게 터진 도포. 권(轉)하여, 유학자 또는 선비를 가리키기도 함.

24) 청양(淸揚) : 미목(眉目)이 수려(秀麗)함.

25) 권권(繾綣) : ① 간곡하게 정성을 다 들이는 모양, 매우 정성스럽다. ② 정이 깊이 들어 헤어지기 힘들어 하다. 헤어지기 아쉬워 연연하다. ③ 얽매이다. 사로잡히다. ④ 특별한 남녀연정(戀情). ⑤ 부부관계를 가리킴.

道術²⁶⁾眞僞辨毫釐²⁷⁾,
도술 진 위 변 호 리

이학설理學說의 진위眞僞를
 미세한 것까지 따졌으나,

濂洛餘波宗薛侯²⁸⁾.
염락 여 파 종 설 후

주자朱子와 정자程子の 여파餘波로서
 설후薛侯가 으뜸일세.

- 26) 도술(道術) : ① 학술, 학설(學說)을 가리킴. (본 시에서의 도술은 도학(道學), 즉 송대의 철학사상인 이학(理學)을 뜻함). ② 치국지술(治國之術). ③ 도교(道敎)의 법술(法術) 혹은 방술(方術) : 신선 도사의 술법, 제간이나 점성술, 의술, 연단술 등). ④ 유가(儒家)의 도덕학문. ⑤ 도로(道路).
- 27) 호리(毫釐) : 극히 미세한 것을 비유한 말. 호(毫)나 리(釐)는 모두 측정단위로 길이의 단위나 중량의 단위에 쓰임.
- 28) 염락여파종설후(濂洛餘波宗薛侯) : 주자(朱子)와 정자(程子)의 여파(餘波)로서 설후(薛侯)가 으뜸일세) :
- ① 염락(濂洛) : 북송 시대 성리학(性理學)의 두 학파. ‘림(濂)’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를 칭하고, ‘낙(洛)’은 낙양(洛陽)으로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를 칭함. 당시 사람들은 이들의 출신지명을 따서 이와 같이 불렀음.
 - ☆림(濂) : 주돈이(周敦頤 : 1017-1073)를 가리킴. 그의 자는 무숙(茂叔), 호는 염계(濂溪). 당대(唐代)의 경전(經典) 주석에서 벗어나 불교와 도교의 이치를 응용한 유교철학을 창시하였음. 저서에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 등이 있음. 자세한 것은 <시 50> 주석 9)의 ‘주노실(周老室)’ 조항을 참조 바람.
 - ☆낙(洛) :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를 가리킴. 형인 정호(程顥 : 1032-1085)의 자는 백순(伯淳), 호는 명도(明道). 아우인 정이(程頤)와 함께 두 형제를 높여, ‘정자(程子)’ 혹은 ‘이정자(二程子)’라고 칭하였음. 도덕설을 주장하여 우주의 본성과 사람의 성(性)이 원래 동일하다고 보았음. 저서에 『정성서(定性書)』와 『식인편(識仁篇)』 등이 있음.
 - 아우인 정이(程頤 : 1033-1107)의 자는 정숙(正叔), 호는 이천(伊川). 최초로 이기(理氣)의 철학을 내세우고 유교도덕에 철학적 기초를 부여하여, 형인 정호(程顥)와 함께 두 사람을 존칭하여, 정자(程子) 또는 이정자(二程子)라고 불렀음. 저서에 『이천선생문집(伊川先生文集)』과 공저(共著)인 『이정전서(二程全書)』가 있음. 자세한 것은 <시 52> 주석 41)의 ‘이천(伊川)’ 조항을 참조 바람.
 - ② 여파(餘波) : 큰 물결이 지나간 뒤에 남는 잔물결. 전(轉)하여, 주자(朱子)와 이정자(二程子)를 종파(宗派)로 간주하고, 설후(薛侯)를 유파(流派)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쓰였음.
 - ③ 설후(薛侯) : 설선(薛瑄 : 1389 혹은 1392-1464) : ‘후(侯)’자는 사대부에 대한 존칭임. 그는 명(明)나라 중엽의 철학자이며, 산서성(山西省) 하진현(河津縣) 출신임. 자는 덕온(德溫), 호는 경헌(敬軒), 시호(諡號)는 문청(文淸)임. 소년시절에는 시부(詩賦)를 공부했으나, 후에 고밀(高密) 위희문(魏希文)과 해녕(海寧) 범여주(范汝舟)를 추종하면서 이학(理學)을 연구한 뒤에 자신이 지은 시부(詩賦)를 모조리 불태웠음. 삼양(三楊) : 양사기(楊士奇), 양영(楊榮), 양부(楊溥) 등 3인의 어진 재상을 이르는 말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를 만나 보고자 했으나, 사양하고 가지 않았음. 정통년간(正統年間 : 1436-1449)에 산동제학첨사(山東提學僉事) : 산동지방의 학교 및

砢言²⁹間出俗耳駭,
평 언 간 출 속 이 해

고성高聲의 호령 간혹 터져 나와
군중의 귀 얼얼한데,

滿庭³⁰閉口還包羞³¹。
만 정 폐 구 환 포 수

온 조정이 입을 봉한 채
수치 또한 참고 있네.

寧知異地風馬牛³²,
형 지 이 지 풍 마 우

타국이랴 ‘풍마우風馬牛’격이니
어찌 알겠는가만,

一言契合³³無薰猶³⁴。
일 언 계 합 무 훈 유

한마디 말까지 일치한다면
미추美醜의 구별이 따로 없겠지.

교유행정 담당관으로 안찰사사(按察使司) 소속의 정5품 벼슬)로 재직 시에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규(學規)로 학생들에게 강의하였음. 이 학규(學規)는 주희(朱熹)가 강서성(江西省) 남강군(南康軍)의 지사(知事)로 있을 때, 백록동 서원에서 강의할 당시에 정한 규칙으로 유교적인 사회질서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을 설명한 것임. 이 내용은 곧 수신(修身), 처사(處事), 접물(接物)의 세 방면에 걸쳐 『논어(論語)』식의 표어로 되어있는 규약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설부자(薛夫子)’라고 칭했음.

관직이 예부우시랑(禮部右寺郎) 겸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가 되었으며, 입각예기무(入閣預機務 : 재상의 권한을 가진 벼슬이름)를 역임했음.

그의 학문은 전반적으로 주자(朱子)와 이정자(二程子)의 학설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자칭 주희(朱熹) 학설의 계승자로 여겼으며, 저작에 힘쓰기 보다는 몸소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자신이 수양하고 타인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선(善)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저서에 『독서록(讀書錄)』과 『설문정집(薛文清集)』 등이 있음.

④ 서애주석(西厓注釋) : 근세 도학(道學), 즉 성리학(性理學)의 명현(名賢)을 언급하면서(論近世道學名賢), 내가 실선(薛瑄)이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했더니(余以薛文清爲首), 오중주(吳仲周)도 그렇다고 동의하였다(仲周以爲然).

29) 평언(砢言) : 고성(高聲)의 호령. 언(言)은 호령(號令)의 뜻임.

30) 정(庭) : 조정(朝廷). 정(庭)은 정(廷)과 통합.

31) 포수(包羞) : 수치와 오욕을 참다, 혹은 싸안다(기량(氣量)이 큰 것을 나타냄).

32) 풍마우(風馬牛) : 이는 풍마우불상급(風馬牛不相及)의 줄임 말임.

① 발정한 소나 말이 서로 유희해도 서로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짝을 찾아 가다가 길을 잃으니 소용없다는 뜻에서, ‘전혀 관계없다, 조금도 상관없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른 말. 자세한 것은 (시 21) 주석 13)의 ③ ‘마우풍(馬牛風)’ 조항을 참조 바람.

② 발정한 말과 소의 암수는 서로 짝을 구하지만, 종류가 다르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

③ 풍(風) : ‘암수가 서로 피다’는 동사임.

33) 계합(契合) : 부합(符合)하다, 꼭 들어맞다.

34) 훈유(薰猶) : 향기를 풍기는 풀과 악취가 나는 풀. 전(轉)하여, 호불호(好不好), 미(美)와 추(醜), 성현(聖賢)과 소인(小人) 등의 비유로 쓰이는 말.

居然許我七十子³⁵⁾,
거연허아칠십자

뜻밖에도 나를 공자의 칠십 제자처럼
칭찬하며,

作詩送我情悠悠。
작시송아정유유

시를 지어 내게 주니
그 정이 끝이 없었네.

關山別意³⁶⁾入畫圖³⁷⁾,
관산별의입화도

‘관산별의關山別意’ 녀자를
기입한 이별도離別圖에는,

春草萋萋玉河洲³⁸⁾.
춘초지지옥하주

옥빛 푸른 강가에 봄풀이 무성하네.

東還蹤跡³⁹⁾隔雲泥⁴⁰⁾,
동환종적격운니

동쪽으로 귀국한 후 왕래가
구름과 진흙거리만큼 멀어졌으나,

-
- 35) 거연허아칠십자(居然許我七十子) : 뜻밖에도 나를 공자의 칠십 제자처럼 칭찬하며 :
 ① 거연(居然) : ☆뜻밖에도, 의외로, 상상외로. ☆거만한 모양. ☆편안한 모양. ☆흡사 ~와 같다. ☆현저한(명백한) 모양.
 ② 허(許) : 칭찬하다.
 ③ 칠십자(七十子) : 칠십이자(七十二子)와 같음. 공자의 문하(門下)에 재덕(才德)이 출중한 72명의 학생을 가리킴. ‘70(칠십(七十))’이란 숫자는 성수(成數) : 50, 200, 3000 따위와 같이 우수리가 없는 정수를 제시한 것임.
- 36) 관산별의(關山別意) : 관문(關門), 즉 국경의 성문(城門)이 있는 산에서 석별의 정을 표함.
- 37) 관산별의입화도(關山別意入畫圖 : ‘관산별의<關山別意>’ 녀자를 기입한 이별도<離別圖>에는) :
 ① 서애주석(西厓注釋) : 오중주(吳仲周)는 부채의 표면에 두 사람이 석별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吳於扇面畫兩人相別之狀), 분제(分題)하여 ‘관산별의<關山別意>’라는 네 글자를 기입하였다(以入分題作關山別意四字).
 ☆서애연보(西厓年譜)에도 ‘팔분서체(八分書體)’로 ‘관산별의(關山別意)’ 녀자를 썼다는 기록이 보임. ‘팔분서체’는 예서(隸書)와 진자(篆字)를 절충하여 만들어진 서체(書體)의 하나임.
- 38) 옥하주(玉河洲) : ① 옥빛으로 푸른 강가. ② 강 중간에 있는 옥처럼 푸른 아름다운 섬.
- 39) 종적(蹤跡) : ① 왕래. ② 발자취. ③ 추적함, 미행함. ④ 행방. ⑤ 선인(先人)의 유적(遺迹) (학술, 서화<書畫>, 조행<操行> 등). ⑥ 행위. ⑦ 출신.
- 40) 운니(雲泥) : ① 구름과 진흙. 구름은 하늘에 있고 진흙은 땅에 있으므로, 전(轉)하여, 두 사물의 공간거리의 현격함을 나타낸 말임. ② ‘운(雲)’은 ‘타인에 대한 존칭’으로 쓰고, ‘니(泥)’는 ‘자기에 대한 겸칭’으로 쓰기도 함. ③ 고저(高低)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지위(地位)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비유하는 말.

屢憑雙鯉⁴¹⁾ 伸綢繆⁴²⁾。
루 빙 쌍 리 신 주 무

누차 어형목판魚形木板에
간직한 서신으로 정의情意 전했다네.

邇來⁴³⁾ 消息久緜邈⁴⁴⁾，
이 래 소 식 구 변 막

근래 와서 전한 소식
(이미) 한참 되어 아득해졌고,

萬事摧頹⁴⁵⁾ 成白頭⁴⁶⁾。
만 사 쇠 퇴 성 백 두

만사가 힘이 들고 지치니
백발마저 성성해지네.

相思賴有吳洲⁴⁷⁾ 月，
상 사 의 유 오 주 월

그리움을 대륙에 뜬 달에게나
의지하는데，

神交⁴⁸⁾ 萬里君知不。
신 교 만 리 군 지 불

만 리 밖에서 그리워하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아시는가.

41) 쌍리(雙鯉) : ① 한 장의 바닥과 한 장의 덮개로 된 어형(魚形)의 목판(木板)인데, 그 사이에 서신을 넣어 원행(遠行)을 해도 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 것임. 전(轉)하여, '서신(書信)'의 뜻으로 씀. ② 두 마리의 잉어.

42) 신주무(伸綢繆) : 간절한 정의(情意)를 알리다.

① 신(伸) : ☆펴다, 펼치다. ☆해명하다, 설명하다. ☆사되다, 아되다.

② 주무(綢繆) : ☆단단히(견고하게) 동아매다. ☆서로 얽히다. ☆끊임없이, 부단히. ☆(애정, 심정, 참된 의도가) 간절하다, 끈끈하다. ☆사전 준비를 하다. ☆깊고 뾰뾰한 모양. ☆심오(深奧)함, 심원(深遠)함.

43) 이래(邇來) : 근래, 요즈음.

44) 면막(緜邈) : 요원(遙遠)하다, 아득하게 멀다.

45) 쇠퇴(摧頹) : ① 피곤하고 지치다. ② 곤궁하다, 실의(失意)하다. ③ 훼손(毀廢)하다, 폐기하다, 비난하여 물리치다. ④ 쇠미(衰微)해지다, 쇠패(衰敗)하다, 쇠퇴하다.

46) 성백두(成白頭) : 흰머리로 변하다.

① 성(成) : ☆이루다. ☆이루어지다. ☆ ~으로 변하다.

② 백두(白頭) : ☆허얇게 센머리. ☆탕건(宕巾)을 쓰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지체는 높으나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

47) 오주(吳洲) : 거대한 대륙. 오(吳)는 크다는 뜻이고, 주(洲)는 대륙의 뜻임.

48) 신교(神交) : ① 마음이 맞아 허물없이 교제하는 사귀. ② 꿈속에서 만나다는 뜻에서, 전(轉)하여, 사모함이 간절함을 형용함. ③ 정신적인 교제.

시100. 황하곡 黃河曲

詩100. 黃河曲¹⁾ 황 하 곡



黃河從西來,
황 하 종 서 래

황하黃河의 강줄기는 서쪽에서 흘러오는데,

千里乃一曲²⁾.
천 리 내 일 곡

천리 길을 한결같이 굽이치며 흐르네.

崑崙³⁾纒濶⁴⁾,
곤 른 계 남 상

곤륜산맥崑崙山脈을 휘어 돌 때는

겨우 술잔 띄울 정도인데,

- 1) 황하곡(黃河曲) : 여기서 <황하곡>의 ‘곡(曲)’은 악부시의 편명(篇名)의 하나로 봐야할 것임.
 ① 황하(黃河) : 중국 제2의 대하(大河). 길이 5,464km, 유역면적 75만 2,443km. 서쪽인 청해성(青海省) 바옌카라 산맥(巴顏喀拉山脈)의 아허라다저 산(雅合拉達澤山 ; 5,442m) 기슭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사천(四川), 감숙(甘肅), 영하(寧夏), 내몽고(內蒙古), 섬서(陝西), 산서(山西), 하남(河南) 등의 성(省)을 거쳐 산둥성(山東省) 북부 발해(渤海)로 흘러든다. 황하강은 강 유역의 지질관계상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유수(流水)에 포함된 진흙의 양이 ‘물 한 말에 진흙 여섯 되’라고 할 정도로 막대하여 항상 진흙탕 물이 흐른다. 또한 강 유역은 반건조지역에 속하여 가끔씩 내리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도 막심함.
 ② 곡(曲) : 악부시의 편명의 하나임. 이때의 ‘곡(曲)’이라는 의미는 고정장단을 따라 미세한 마음의 정을 노래한 것임. 자세한 것은 <시 88>의 주석 1)의 ② ‘행(行)’의 조항을 참조 바람.
- 2) 일곡(一曲) : ① 한결같이 굽이치다. ② 한 굽이. ③ 음악(音樂)이나 무용(舞蹈)의 한 단락.
 ④ 음악(音樂)의 한 곡조(曲調).
- 3) 곤륜(崑崙) : ‘崑崙’으로도 씀. 고대에는 ‘昆侖’으로도 썼음. 본 시에서는 ‘곤륜산맥(崑崙山脈)’의 뜻으로 쓰였음. 티베트고원(Tibet高原)과 타림분지(Tarim盆地) 사이를 동서로 뻗은 산맥임. 최고봉은 무즈타그 산(Muztagh 山)으로 해발 7723m이며, 전장(全長) 2500km임.
- 4) 남상(濶觴) : ① 강의 발원지는 수량이 적어 겨우 술잔을 띄울 정도로 얇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 ② 사물의 기원이나 발단에 비유한 말. ③ 파급(波及), 영향. ④ 범람(氾濫), 과

龍門⁵⁾壯噴薄⁶⁾。
용 문 장 분 박

용문협곡龍門峽谷에 이르면
장엄하게 물결이 용솟음치네.

亦知發源微，
역 지 발 원 미

이 또한 발원지에서선 미약한 물줄기지만,

末流勢橫突⁷⁾。
말 류 세 횡 돌

하류下流에선 수세水勢가
세차다는 걸 알겠네.

當年遇神禹⁸⁾，
당 년 우 신 우

당년에 신령 같은 우禹임금 만나면서,

壅處多斧鑿⁹⁾。
옹 처 다 부 착

(물결) 막힌 곳엔 갖가지 공구工具로
뚫고 파내었다네.

河伯¹⁰⁾不敢驕，
하 백 불 감 교

수신水神 하백河伯이 감히 교만하게
글지 못하자,

분(過分)과 같은 뜻으로 쓰임.

- 5) 용문(龍門) : 즉, 우문구(禹門口). 산서성(山西省) 하진현(河津縣) 서북과 섬서성(陝西省) 한성시(漢城市) 동북에 위치한 지명임. 황하(黃河)가 이곳에 흐르는데 양안(兩岸)의 절벽이 대치한 형상이 대궐의 문과 같은 형상을 이룬 까닭에 일컬어진 명칭임.
- 6) 분박(噴薄) : ① 강렬하게 분출하다. ② 진통하다, 뒤흔들다. ③ 눈비가 분비(紛飛 : 어지러이 흩날림)하는 모양. ④ 물이 세차게 솟구치다. ⑤ 사물의 출현시에 기세가 장성(壯盛)함을 형용한 말.
- 7) 횡돌(橫突) : 가로로 돌기(突起) 또는 융기(隆起)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전(轉)하여, 수량(水量)이 불어나고 수세(水勢)가 세찬 것을 형용하였음.
- 8) 신우(神禹) : 하우(夏禹)의 존칭. 고대 부락연맹의 영수(領袖). 성씨는 사(姒), 이름은 문명(文命), 전욱(顓頊)의 손자이며, 곤(鯀)의 아들. 대우(大禹)라고도 하고, 하우(夏禹) 또는 용우(戎禹)라고도 함.
원래 하후씨(夏后氏) 부락의 영수였는데, 순(舜) 임금의 명을 받들어 홍수를 다스리고, 백성을 영도(領導)하여 강하(江河)를 소통시키고, 수로(水路)를 수리하여 농업을 발전시켰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치수(治水) 13년 동안 자기 집 앞을 세 번이나 지나갔는데도 한 번도 본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함. 후에 순(舜)에게 선발되어 계승자가 되었으며, 순(舜) 사후에 즉위하여 하(夏)나라를 건립하였음. 후세에 성왕(聖王)으로 간주되었음. 그에 대한 사적은 『서경(書經)』의 <순전(舜典)>, <대우모(大禹謨)>, <고요모(皋陶謨)>, <익직(益稷)>, <우공(禹貢)> 등 편(篇)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 9) 부착(斧鑿) : ① 도끼와 끌. 일반적으로 공구(工具)나 형구(刑具)를 가리킴. ② ‘도끼와 끌로 가공(加工)하다’는 뜻에서, ‘시문(詩文)에 오류나 부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을 아름답게 다듬다’는 의미로 비유하는데도 쓰임.
- 10) 하백(河伯) : 전설상의 하류(河流)를 관장하는 수신(水神).

百神受約束¹¹⁾。
백 신 수 약 속

백신百神이 모두 제약制約을 받았다네.

邇來三千八百年，
이 래 삼 천 팔 백 년

은래까지 삼천 팔백년 세월동안,

億萬生靈¹²⁾免魚鱉¹³⁾。
억 만 생 령 면 어 별

억만 백성들 물고기 밥 되는 걸
면하게 하였네.

誰將寸膠再見清¹⁴⁾，
수 장 촌 교 재 견 청

누가 한 치의 작은 아교阿膠로 황하를
다시 맑아지게 할 수 있으리,

日暮悲風吹礪石¹⁵⁾。
일 모 비 풍 취 갈 석

날 저물자 서늘픈 바람이
갈석산礪石山으로 불어오네.

11) 약속(約束) : 제약(制約)하다. 단속하다(되다).

12) 생령(生靈) : ① 백성. ② 인류. ③ 생명(살아있는 녀이라는 뜻에서 이르는 말임).

13) 어별(魚鱉) : ① 물고기와 자라. ② 수산생물. 여기서는 전(轉)하여,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가리킴.

14) 수장촌교재견청(誰將寸膠再見清) : 누가 한 치의 작은 아교(阿膠)로 황하를 다시 맑아지게 할 수 있으리) :

① 촌교(寸膠) : 1촌(寸)의 아교. 아교는 탁한 물을 맑게 하는 성분을 지니고 있으나, 한 치의 작은 아교를 가지고는 많은 물을 맑게 할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음.

② 견청(見清) : 맑아지게 하다, 맑아지다. 여기서 견(見)은 ‘본다’는 타동사가 아니라, 피동어를 나타냄.

15) 갈석(礪石) : 갈석산(礪石山)을 칭함. 이 산은 북경(北京) 근처의 하북성(河北省) 창려현(昌黎縣), 난허(灤河) 하류 동부 유역에 위치한 산임. 갈석산이 고조선과 관련하여 중요시 되는 것은 이 지역이 고조선 영토의 경계지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이를 오늘날 북경 근처 갈석산 지역으로 본다면 이 위치는 산해관(山海關)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옛부터 중국인들이 타민족과의 경계로 인식해왔던 지역임. 하지만 산해관이 만리장성(萬里長城)의 시작점으로 개척된 것은 명대(明代)로 그 이전까지 진대(秦代)나 한대(漢代)의 만리장성의 시작점으로 언급되는 갈석산의 위치는 오늘날의 갈석산과 다르다는 견해가 있음. 오늘날의 요동(遼東)이나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에서 보자면 갈석산의 위치는 또 달라짐.



시 101. 한강음 漢江吟

詩 101. 漢江吟¹⁾
한 강 음

遙遙²⁾漢江水, 아득하게 흘러가는 한강漢江의 물줄기는,
요 요 한 강 수

出自五臺山³⁾. 오대산五臺山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네.
출 자 오 대 산

西流一千里, 서쪽으로 흘러 흘러 일천리,
서 류 일 천 리

渺渺⁴⁾生層瀾. 한없이 넓은 수면水面 겹겹이 물결 이네.
묘 묘 생 층 난

- 1) 한강음(漢江吟) : 여기서 <한강음>의 ‘음(吟)’은 악부시의 편명(篇名)으로 봐야할 것임.
- ① 한강(漢江) : 한국의 중부, 강원, 충북, 경기, 서울을 거쳐 서해로 유입되는 강. 간선(幹線) 유로(流路) 연장(延長) 514km, 범정 하천 연장 405.5km, 유역면적 2만 6,018km(북한 지역을 포함하면 3만 4,473km). 상류부는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뉘지고, 남양주시(南楊州市)에서 합류하며, 남한강을 본류로 함. 남한강은 강원도 삼척군의 대덕산(大德山 : 1,307m)에서 발원하며, 북한강은 태백산맥 중에 금강산(金剛山 : 1,638m) 부근에서 발원함. 한강 유역은 삼국시대부터 중요시되어 왔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을 이루어 왔음.
- ② 음(吟) : 악부시의 편명의 하나임. 이때 ‘음(吟)’은 아! 하고 탄식하고 슬픔과 걱정으로 깊이 생각하여 얽힌 것을 노래하는 것을 뜻함. 자세한 것은 <시 88>의 주석 1)의 ② ‘행(行)’의 조항을 참조 바람.
- 2) 요요(遙遙) : ① 거리가 먼 모양, 아득한 모양, 멀리 가는 모양. ② 시간이 긴 것을 형용한 말. ③ 흔들거리는 것을 형용한 말. ④ (감정이) 동요(動搖)하여 안정되지 않는 것을 형용한 말.
- 3) 오대산(五臺山) : 강원도(江原道) 평창군(平昌郡), 홍천군(洪川郡), 강릉시(江陵市)에 걸쳐있는 산. 태백산맥(太白山脈)에 있는 높은 봉우리 가운데 하나로, 설악산(雪嶽山)과 함께 정치로 유명함. 월정사(月精寺)가 있으며 국립공원의 하나임. 높이는 1,563m.

白雲城關⁵⁾高, 흰 구름은 도성都城 망루 위에 높이 떠있고,
백운성곶 고

滄海浩漫漫⁶⁾. 푸른 바다 해맑게 끝없이 펼쳐졌네.
창해결만만

自有朝宗意⁷⁾, 입궐하여 전하 배알할 뜻 절로 생기나니,
자유조종의

寧辭萬折難⁸⁾. 어찌 만 가지 환난퇴치를 마다하겠는가!
영사만절난

牛渚釀神怪⁹⁾, 우저기牛渚磯 나루터에서 괴담이 조성된 것은,
우저양신괴

舟楫¹⁰⁾多險艱. (장강長江을 오가는) 뱃길에 험난함이
우楫 다험간 많았기 때문일세.

- 4) 묘묘(渺渺) : 수면이 한없이 넓은 모양.
 5) 성곶(城關) : ① 도성(都城), 경성(京城). ② 성문(城門)의 양측에 건축한 망루(望樓). ③ 궁궐.
 6) 만만(漫漫) : (시간, 벌판, 바다 등이) 가없다. 끝없다.
 7) 자유조종의(自有朝宗意) : 입궐하여 전하 배알할 뜻 절로 생기니) :
 ① 자유(自有) :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발생하다.
 ② 조종의(朝宗意) :
 ☆조종(朝宗) : 고대에 제후(諸侯)가 봄에 천자를 배알(拜謁)하는 것은 ‘조(朝)’라 하고, 여름에 천자를 배알하는 것은 ‘종(宗)’이라 하여, 춘하(春夏) 두 계절에 입궐하여 천자(天子)를 배알(拜謁)하던 것을 ‘조종(朝宗)’이라 했는데, 후에 신하가 제왕을 배알하는 것을 ‘조종(朝宗)’이라 하였음.
 ☆의(意) : 마음, 뜻.
 8) 절난(折難) : ① 환난(詭難)하다, 논쟁하다. ② 환란(患亂)을 퇴치하다(해소하다).
 9) 우저양신괴(牛渚釀神怪) : 우저기(牛渚磯) 나루터에서 괴담이 조성된 것은) :
 ① 우저(牛渚) : 우저기(牛渚磯). 지역명칭이자 나루터 명칭임.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마안산시(馬鞍山市) 양자강(장강<長江>) 강변에 위치하며, 우저산(牛渚山) 북부가 양자강 한가운데에 돌출한 부분으로, 채석산(采石山)이라고도 함. 양자강의 남북을 소통하는 중요 나루터임. 진(晉)나라 온교(溫嶠; 288-329)가 무소뿔을 태워서 괴물을 비취보았다는 고사(故事)가 전해지는 곳임. 아래의 주석 11) ‘연서(燃犀)’의 조항을 참조 바람.
 ② 양(釀) : ☆원래 ‘술을 빚다’는 뜻에서, 후에는 발효작용을 이용해서 양조(釀造)하는 식초, 된장, 밀주(蜜酒) 등을 가리키기도 함. ☆술. ☆혼합하다. ☆조성(造成)하다 (본 시에서 쓰는 이 뜻으로 쓰였음).
 ③ 신괴(神怪) : 신묘하고 기괴하다. 신선과 요괴(도깨비).
 10) 주楫(舟楫) : 주楫(舟楫)이라고도 씀. ‘배와 노’의 뜻임. 『시경(詩經)·위풍(衛風)·죽간(竹竿)』에, “편백(扁柏)나무 노에 소나무 배도 옛날 그대로 변함없네(檜楫松舟)”라는 구절이 있는데,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에서, “노는 배를 짓는 까닭에(楫所以櫂舟), 배와 노가

會회有유燃연犀서客객¹¹⁾

앞으로도 무소뿔에 불을 붙여
물속 괴물 비취불 사람 출현할 터이나,

蛟교螭리¹²⁾詎거作작奸간

교룡蛟龍이 어찌 간사한 짓 할 수 있으리오.

상호보완하여(舟楫相配), 물을 만나면 갈 수 있다(得水而行)"고 하였음.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주楫(舟楫)'을 합쳐 일반적으로 '선박'을 가리키기도 함. 본 시에서는 의미상 전(轉)하여, 뱃길이라고 번역함. ② 선부(船夫 : 뱃사공, 선원)를 가리킴. ③ 비유하여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라는 뜻으로 씀.

11) 연서(燃犀) :

① 남조(南朝) 송(宋)의 유경숙(劉敬叔)의 저서 『이원(異苑) : 신선과 괴이한 일을 기록한 설화집』 권7에, "진(晉)나라 사람 온교(溫嶠 ; 288-329)가 장강(長江) 강변의 나루터인 우저기(牛渚磯)에 이르렀을 때, 물속에서 음악소리가 들렸으나, 수심(水深)이 깊어 알 수 없었다. 소문에 물속에는 괴물이 산다고 했다. 그래서 온교는 무소뿔에 불을 붙여 물속을 비취보았다. 얼마 후, 수족(水族)이 다 타 죽었는데, 그 형상이 매우 기괴했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연서(燃犀)'라는 말을 '수중 어패류의 기이함을 비취본 전거(典據)가 되는 고사(故事)'로 삼았다.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다'는 뜻으로도 씀.

② 이 고사(故事)에서 생긴 말이 '서조우저(犀照牛渚)'란 말인데, '사물의 유미(幽微)함을 통찰하다'라는 뜻으로 비유하여 쓰기도 함. 『진서(晉書)·온교전(溫嶠傳)』에 "온교가 장강(長江) 강변의 나루터인 우저기(牛渚磯)에 당도해보니, 수심(水深)이 깊어 예측할 수 없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곳 물속에는 괴물이 산다고 하자, 온교는 곧 무소뿔에 불을 붙여 물속을 비취 보았다. 잠시 후에 보니, 수족(水族)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모습이 괴이하였으며, 어떤 짓은 마차를 타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그날 밤 잠결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그대와는 유명(幽明)을 달리하여, 작별했는데, 무슨 뜻으로 얼굴을 비취봤는고?'라고 하며 몹시 노여워했다. 그런 뒤, 온교는 먼저 치아(齒牙)에 질환이 일더니 결국 뺨게 되고, 이어서 중풍(中風)을 맞고 나서 진영(鎭營)에 돌아온 뒤 열흘이 안 되어 결국 죽었다"고 하였다.

이 고사에서 생긴 '서조우저(犀照牛渚)'란 말을 후에 사람들은 '사물의 유미(幽微)함을 통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음.

12) 교리(蛟螭) :

① 고대 전설상에 두 종류의 상상의 동물로서, '교(蛟)'는 용(龍)의 일종으로 항상 심연(深淵)에 살고, 홍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리(螭)'는 역시 용의 일종으로 뿔이 없고 운우(雲雨)를 일으킨다고 함. 따라서 교리(蛟螭)는 교룡(蛟龍)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전(轉)하여, 때를 못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호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썼음.

② 기물(器物) 표면에 조각하거나 그린 이형도안(畸形圖案)을 가리킴.

③ 교룡(蛟龍) 형상의 지팡이를 가리킴.

④ 교룡(蛟龍)은 상상 속의 동물로서 모양은 뱀과 같고, 몸의 길이가 한 길이 넘으며, 넓적한 네 발이 있고, 가슴은 붉고 등에는 푸른 무늬가 있으며, 옆구리와 배에는 비단처럼 부드럽고 눈썹으로 교미하여 알을 낳는다고 한다.

시102. 하회河回 마을에 찾아온 벗이 있어,
여러 해 동안 만나보지 못한 사이,
온통 백발이 성성해졌기에

詩102. 河上¹⁾有友人來訪 不見數年 鬚髮盡白
하 상 유 우 인 래 방 불 견 수 년 수 발 진 백



寒鴉²⁾西日³⁾自飛還, 겨울 까마귀 해 저물자
한 아 서 일 자 비 환 스스로 등지로 날아들고,

木落江清野菊斑⁴⁾。 낙엽 지고 강물 푸른데
목 락 강 청 야 국 반 들국화는 알록달록하네.

舊友相逢多⁵⁾白首, 옛 친구 만나보니 거의가
구 우 상 봉 다 백 수 백발이 다 됐는데,

新居晚卜⁶⁾對青山。 늘그막에 새로 정한 거처 청산을 마주하네.
신 거 만 복 대 청 산

-
- 1) 하상(河上) : ‘하회(河回마을)’의 옛 이름임. 상세한 것은 <시92>의 주석 2) ‘하상(河上)’ 조항을 참조 바람.
 - 2) 한아(寒鴉) : ① 겨울철의 까마귀. ② 추위에 떨며 굶주린 까마귀.
 - 3) 서일(西日) : 석양(夕陽)과 같은 뜻임.
 - 4) 반(斑) : ① 색채가 찬란한 모양. ② 화문(花紋)이나, 얼룩얼룩한 잡색의 반점(斑點). ③ 두 발(頭髮)이 희어지다. ④ ‘반(班)’과 통하며, ‘행렬(行列)’의 뜻으로 쓰임.
 - 5) 다(多) : 거의.
 - 6) 만복(晚卜) : ① ‘복만(卜晚)’과 같음. 거처(居處)를 정하다, 거주지를 짐을 쳐서 정하다. ② 짐을 쳐서 도읍지를 정하다.

百年事業衰遲甚⁷⁾,
백년사업쇠지심

한평생 정치업무로 심하게 늙었으나,

半世⁸⁾風塵⁹⁾進退難.
반세풍진진퇴난

반평생 전란 겪다보니
진퇴양난進退兩難일세.

自是江湖憂尙在¹⁰⁾,
자시강호우상재

자연에 묻혀 사는 게 옳다고
여기면서도 근심이 아직 남아있어,

時從日下望長安¹¹⁾.
시종일하망장안

언제나 해질 무렵이면 도성都城 쪽을
바라본다네.

7) 백년사업쇠지심(百年事業衰遲甚 : 한평생 정치업무로 심하게 늙었으나) :

① 백년(百年) : ☆일생, 종신(終身), 한평생. ☆사람의 수명의 백세, 또는 백세 되는 사람을 가리킴. ☆시간이 장구(長久)함을 가리킴. ☆죽음의 완곡한 말.

② 사업(事業) : ☆일의 성취란 뜻에서 공훈과 업적을 가리킴. ☆정사(政事 : 정치), 사무(事務). ☆직업. ☆가업(家業). ☆고대 특유의 노역(勞役), 농사 등의 일을 가리킴. ☆'재능'과 같은 뜻으로 쓰임. ☆현대에 와서 많이 쓰이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이란 뜻임.

③ 쇠지(衰遲) : 쇠년지모(衰年遲暮)의 뜻으로, '노년(老年)'을 이르는 말임.

8) 반세(半世) : 한 세상의 절반, 반평생.

9) 풍진(風塵) : ① 바람에 날리는 티끌. ② 전란(戰亂), 용사(戎事 : 군사에 관한 일)에 비유되는 말. ③ 속세(俗世), 사람이 사는 이 세상. ④ 벼슬길, 지방관(京官)의 대(對). ⑤ 세속지사(世俗之事). ⑥ 나그네의 고생스러움을 이르는 말. ⑦ 고풍청진(高風淸塵)의 약어로서, 품격이 청정(淸正)하고 숭고(崇高)함을 비유한 말. ⑧ 유언비어(流言蜚語). ⑨ 기녀(妓女)를 가리킴. ⑩ 기생집.

10) 자시강호우상재(自是江湖憂尙在 : 자연에 묻혀 사는 게 옳다고 여기면서도 근심이 아직 남아있어) :

① 자시(自是) : ☆스스로 옳다고 여기다. ☆이때(이곳)부터. 이로부터. ☆원래. 당연히. 자연히.

② 강호(江湖) : ☆강과 호수. ☆사방각지(四方各地)를 가리킴. ☆관직을 떠나 은거해 있는 시골이나 자연. 또는 시인묵객(詩人墨客)이 파묻혀 있는 시골. ☆사방을 유랑(流浪)하는 것을 가리킴.

③ 재(在) : ☆존재하다. ☆~에 거처하다. ☆~에 달려있다. ☆남아 있다.

11) 장안(長安) : ① 당(唐) 이후의 시문(詩文) 중에서 '도성(都城)'의 통칭(通稱 : 일반적 명칭)으로 자주 사용함. 본 시에서는 한양도성(漢陽都城)의 대칭(代稱)으로 쓰였음. ② 중국의 옛 도성(都城) 이름. 한고조(漢高祖) 7년(B.C. 200년)에 이곳을 도읍으로 정했음. 이후, 동한(東漢) 헌제(獻帝) 초엽, 서진(西晉) 민제(愍帝) 시대, 전조(前趙), 전진(前秦), 후진(後秦), 서위(西魏), 북주(北周), 수(隋), 당(唐)도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했음. 당(唐) 말엽에 구성(舊城)의 북부에 신성(新城)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서안성(西安城)임.

시103. 시골에서 어느 가을날
감상에 젖어 들어

詩103. 村居 秋日有感
촌 거 추 일 유 감



久矣구 의 오 쇠 심 吾衰甚, 오래 됐어, 내가 너무 쇠약해진지가,
窮村¹⁾궁 촌 와 병 여 臥病餘。 벽촌에서 병치레한 여파일 것이야.
閉門²⁾폐 문 산 업 하 山葉下, 문 닫아걸고 사는데 산에는 낙엽 지고,
聞雨夜堂虛。 빗소리 들리니 야밤의 대청 쓸렁하네.
白髮백 발 지 수 석 知誰惜, 백발을 애석해할 줄 누가 알았으리!
丹心단 심 지 자 여 只自如³⁾。 단심丹心은 오로지 예전과 다름없는 것을.

-
- 1) 궁촌(窮村) : 가난한 촌락. 벽촌. 외딴 촌락.
2) 폐문(閉門) : 문을 닫아 걸다는 뜻에서, ‘빈객(賓客)과의 왕래가 두절된 집’을 이르는 말.
3) 단심지자여(丹心只自如 : 단심은 오로지 예전과 다름없는 것을) :
① 단심(丹心) :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② 지(只) : 부사로 쓰였으며, 오직 ~하다.
③ 자여(自如) : ☆의연어고(依然如故), 즉 ‘여전히 예전과 같음’을 이르는 말. ☆자약(自若)과 같음, 즉 기색(氣色)이 태연한 모양(표정과 태도가 안정되어 자연스러운 모양). ☆비슷하다는 것을 가리킴. ☆자유. ☆활동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음.

浮雲終日在, 뜬 구름 온종일 흘러가고 있는데,
부운종일재

遊子⁴⁾淚沾裾。 나그네는 눈물로 옷자락을 적시네.
유자루젼거

4) 유자(遊子) : 나그네.

시104. 초아흐렛날 높은 곳에 올라서

詩104. 九日登高
구 일 등 고



山下秋烟¹⁾冷, 산 아래는 가을 연무烟霧로 차갑더니,
산 하 추 연 냉

山頭秋日薄。 산 위에도 가을별이 엷구나.
산 두 추 일 박

離披²⁾山中菊, 산 중에 국화꽃이 활짝 피어,
리 피 산 중 국

滿意生秋色³⁾。 가을 풍광風光 살아나니 마음에 흡족하네.
만 의 생 추 색

衆芳⁴⁾已蕪穢⁵⁾, 온갖 꽃이 이미 다 시들고 난 뒤인데,
중 방 이 무 예

殘香誰復惜。 남아 있는 꽃향기 누가 다시 귀히 여길꼬?
잔 향 수 부 석

歲月坐晡晚⁶⁾, 시각이 때마침 해 저물 무렵인데,
세 월 좌 원 만

-
- 1) 추연(秋烟) : 가을철의 운무(雲霧).
 - 2) 이피(離披) : 꽃이 활짝 폼.
 - 3) 추색(秋色) : 가을의 경치.
 - 4) 중방(衆芳) : ① 백화(百花 : 온갖 꽃, 다수의 꽃). ② 초목의 향기. ③ 각 방면의 재덕을 겸비한 (현명하고 능숙한) 사람에게 비유한 말. ④ 일반인에 비유한 말.
 - 5) 무예(蕪穢) : 무예(蕪蒺) 또는 무예(無濼)로도 씀. ① 황폐함, 황무지. ② 불결하다. ③ 더럽히다(모욕당함). ④ 난잡하다.

霜風吹白髮。 싸늘한 바람이 백발을 날리네.
상 풍 취 백 발

一樽且取醉⁷⁾ 술 한 사발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일 준 차 취 취

長歌⁸⁾空激烈。 큰 소리로 부른 노래 공연히 격렬했네.
장 가 공 격 열

6) 세월좌원만(歲月坐晩晩) : 시각이 때마침 해 저물 무렵인데) :

① 세월(歲月) : ☆연월, 일반적으로 '시간'을 가리킴. ☆짧은 시간을 가리킴(시각<時刻>).

② 좌(坐) : 부사로서, ☆때마침(한창), 비야흐로. ☆비로소. ☆헛되이, 공연히. ☆매우, 몹시. ☆잠시 조금.

③ 원만(晩晩) : ☆해가 곧 지다(날이 곧 저물다), 해가 서산에 기울다, 또는 그러한 모양. ☆노년기. ☆절기(節氣 : 계절, 철)의 말기(末期).

7) 차취취(且取醉) : 바로 취기가 들다. ① 차(且) : 잠시, 곧. ② 취취(取醉) : 술을 마시고 취하다.

8) 장가(長歌) : ① 장편으로 된 노래, 또는 곡조가 긴 노래. ②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 긴 형식의 시가문학(詩歌文學).

③ 고성방가(高聲放歌) :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

시105. 재사齋寺의 벽에 써 붙였던 구제시舊題詩의 운자韻字에 차운次韻하다(서문을 병기함)



詩105. 次齋寺¹⁾壁間舊題韻 并序

秋夕, 拜掃²⁾先塋³⁾, 見齋寺壁間, 有⁴⁾余昔年所題詩,
伯氏⁴⁾及亡友趙宗道⁵⁾伯由皆次其韻, 烟煤⁶⁾滿壁,
주석 배소 선릉 견재사벽간 유여석년소재시 백씨 급망우조종도 백유개차기운 연모만벽

1) 재사(齋寺) : 능침(陵寢)을 수호하기위한 곳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능(陵) 주변에 세운 원당(願堂) :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던 법당)을 재사(齋寺)라고 함. 조선 후기에 오면서 재사(齋寺)가 재사(齋舍) : 서재로도 쓰이고 학사<學舍>나 향교의 기숙사로도 쓰이던 곳)로 바뀌면서 재사(齋寺)는 능 주변에서 탈피하여 원지(遠地 : 전국의 명산대찰<名山大刹>)에까지 이르렀음. 본 시에서는 ‘금계재사(金溪齋舍)’를 가리킴.

① 금계재사(金溪齋舍) : 본 명칭은 이전까지는 ‘숭실재(崇室齋)’라고 칭했으나, 경상북도 문화재과에서 2011년 11월16일자로 다시 ‘안동풍산류씨(安東豊山柳氏) 금계재사(金溪齋舍)’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곳은 풍산부원군(豊山府院君) 류중영(柳仲郢) : 1515-1573) 선생의 묘제(墓祭)를 위한 재사(齋舍)로서 몸체인 숭실재(崇室齋), 영모루(永慕樓)와 부속사가 연이어져 장방형의 ‘ㄷ’자형 집을 이루고 있다. 몸체는 1987년 보수 때 발견된 영조(英祖) 12년 (1736)의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본래 능효사(陵孝寺)의 한 전각(殿閣)이었는데, 풍산(豊山) 류씨(柳氏)의 재사(齋舍)로 인수하여 명종(明宗) 13년 (1558)에 중수(重修)하고, 광해군(光海君) 14년(1622)에 보수(補修)하였다고 함. 몸체의 건축양식은 전면에서는 내외일출목(內外一出目)의 앙설(仰舌)로 된 이익공식(二翼工式)이고 후면에서는 초익공식(初翼工式)인데, 그 양식이 고격(古格)을 지키고 있어 주목됨. 1994년과 1995년에 보수했음.

이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소유자는 풍산류씨문중(豊山柳氏門中)이고, 소재지는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86입(이상은 안동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고 인터넷상의 ‘서후면 문화재 소개’ 코너에서 참조하였음).

- 2) 배소(拜掃) : ① 소분(掃墳), ② 배묘(拜墓), ③ 성묘(省墓).
- 3) 선릉(先塋) : 선영(先塋). 조상의 무덤. 룡(壘)은 ‘무덤’이란 뜻임.
- 4) 백씨(伯氏) : 형을 높여 이르는 말로서, 서애(西厓)의 형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 1539-1601)을 가리킴. <시 7>의 주석 1)의 ①‘류운룡(柳雲龍)’ 조항을 참조 바람.
- 5) 조종도(趙宗道) : 1537-1597)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백유(伯由), 호는 대소현(大笑軒), 은근자(隱君子) 정두(鄭斗)의 문하에서 수학(修學)하고, 다시 남명(南冥) 조식(曹植)에게서 배워 읽은 서적이 광범하였고, 특히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기개가 높고 해학을 즐겼다고 함.

22세에 생원에 합격, 양지(陽智) 현감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나, 후에 정여립(鄭汝立)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혐의를 받고 구금되었으나 석방되었음.

정유재란(丁酉再亂) : 1597년)시에 안음(安陰) 현감 곽준(郭駿)과 더불어 황석산성(黃石山城)에서 왜장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인솔한 적과 분전 끝에 순국(殉國)하였음. 진주(晉州)의 하항(河沆), 고흥(高靈)의 김면(金沔), 안동의 류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성주(星州)의 김시습(金時習) 등 거유(巨儒)들과 교류하였음.

不可辨字畫。山中又有余所種松木，已干雲矣。爲之愴然傷懷，
 불 가 련 자 화 산 중 우 유 여 소 종 송 목 이 간 운 의 위 지 창 엄 상 회,
 再次前韻。
 재 자 전 운

추석에 선영先塋에 성묘省墓하러 갔다가, 재사齋寺의 벽에 내가 왕년에 써서 붙였던 시를 보고, 형님을 비롯하여 작고作故한 벗 백유伯由 조종도趙宗道와 함께 모두 그 시의 운에 차운次韻하여 시를 지었는데, 벽에는 온통 그을음이 검게 꺼서 글자인지 그림인지 자획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산에는 또한 내가 심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미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랐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처량하게 느껴져서, 다시 한 번 이전의 그 운자韻字에 차운次韻한다.

默默看題只自愁，
 묵 묵 간 제 지 자 수

묵묵히 제시題詩¹²⁾ 할 시상詩想을
 숙고하다가 돌연 수심에 잠겨,

壁間相對淚先流。
 벽 간 상대 누 선 유

벽을 마주하고 서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

이조관서에 추증되고 덕암서원(德巖書院)과 황암서원(黃巖書院)에 제향 되었으며, 저서에 『대소헌집(大笑軒集)』이 있음. 시호는 충의(忠毅)인.

- 6) 연매(烟煤) : ① 연매(煙煤)로도 씀. 먼지와 그을음. ② 재, 잿더미를 가리킴. ③ 진회색의 물감. ④ 매연(煤煙).
- 7) 간운(干雲) : 구름(하늘)을 찌를 듯이 수목이 높이 자라 무성한 것을 형용한 말.
- 8) 위지(爲之) : 접속사로 쓰여,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위하여’ 등의 뜻을 나타냄.
- 9) 창연(愴然) : 슬퍼하다, 처량하다.
- 10) 상회(傷懷) : 상심(傷心).
- 11) 지자(只自) : 갑자기, 돌연.
- 12) 제시(題詩) : 그림, 기물, 벽 따위에 시를 쓰는 것을 말함.

孤松¹³聳壑¹⁴思初種, 골짜기에 우뚝 자란 외솔
고 송 용 학 사 초 종
처음 심던 때 생각나고,

微月¹⁵生簷憶舊遊¹⁶。 초승달 처마 끝에 뜨자
미 월 생 첨憶 옛 구 유
옛 친구가 그립네.

風樹有聲寒夜永, 나무에 바람소리 나고
풍 수 유 성 한 야 영
추운 밤 길기만 한데,

乾坤¹⁷無際此身浮¹⁸。 천지는 끝이 없고 이 몸의 인생
건 곤 무 계 차 신 부
짧기만 하네.

少年孤露¹⁹今衰病²⁰, 젊어서 아버지 여의고
소 년 고 로 금 쇠 병
지금은 노쇠한 탓에 병들어,

望斷²¹秋天獨倚樓²²。 가을하늘 아득히 바라보며
망 단 추 천 독 의 루
홀로 누각樓閣 난간에 기대네.

13) 고송(孤松) : 외솔(의마로 자란 소나무).

14) 용학(聳壑) : 계곡에 우뚝 솟다(돌출하다, 자라다).

15) 미월(微月) : 미월(眉月)과 같은 말로서, 신월(新月), 즉 초승달.

16) 구유(舊遊) : 구유(舊游)로도 씀. ① 옛적에 교류하던 벗. ② 옛적에 유람하던 곳, 또 그 당시의 유람.

17) 건곤(乾坤) : ① 천지(天地)를 이르는 말. ② 일월(日月)을 이르는 말. ③ 국가, 강산, 천하.
④ 제(帝 : 임금)와 후(后 : 황후)를 가리킴. ⑤ 『역경(易經)』의 건괘(乾卦)와 곤괘(坤卦).
⑥ 속임수, 술책, 허황(교활)하다.

18) 부(浮) : ‘잠시의’, ‘잠시간(暫時間 : 짧은 시간동안)’의 뜻으로, 인생의 짧음을 가리킴.

19) 고로(孤露) : ① 한 방울의 이슬처럼 외롭게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부(父)나 모(母), 혹은 양친(兩親) 모두를 잃는 것을 가리킴. ② 고립된 처지에서 폭로하다.

20) 쇠병(衰病) : 늙고 쇠약하여 생긴 병.

21) 망단(望斷) : ①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다(이때의 ‘단(斷)’은 ‘한(限 : 한도, 한계)’의 뜻으로, ‘먼 곳을 향해 시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킴. ②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감(이때의 단(斷)은 ‘절단’의 뜻임).

22) 의루(依樓) : 누각(樓閣)의 창문 혹은 난간에 기대다.



시106. 가을 어느 날, 감회感懷를 써서
생질甥姪 이찬李燦에게 보여 주다

詩106. 秋日書懷 示李甥燦¹⁾
추 일 서 회 시 이 생 찬

窮村²⁾猶³⁾臥病, 궁벽한 촌락에서 여전히 병으로
궁 촌 유 와 병 누워있다 보니,

寂寞揜柴關⁴⁾. 적막하게 사립문 닫아놓고 지냈네.
적 막 엄 시 관

1) 이생찬(李甥燦) : 이(李)는 성씨, 생(甥)은 생질(甥姪), 찬(燦)은 이름임.

① 이찬(李燦 : 1575-1654) : 조선 인조 때의 의학자. 자는 중명(仲明), 호는 국창(菊窓), 또 하나의 호는 매원(梅園)임. 본관은 여주(驪州), 이윤수(李潤壽)의 아들이고, 서애(西厓)의 생질(甥姪)이며, 이돈(李焮)의 동생임.

젊어서 자주 병을 앓았던 관계로 독학으로 의술을 배워 치료에 능숙해지고, 원근에 사는 사람들의 중병과 고집을 잘 고쳐 명의(名醫)로 이름을 떨쳤음. 1632년(인조 10년) 인조가 병들어, 어의(御醫)의 치료에도 효험이 없어 찬(燦)을 불렀다. 찬은 왕의 특명으로 익위사어(翊衛司禦), 종부주부(宗簿主簿), 공조좌랑(工曹佐郎)으로 등용되고, 이어서 군위(軍威)현감으로 내려갔다가 병으로 사임하였음. 그 뒤 다시 왕의 특명으로 내의원(內醫院)에 나가 어약(御藥)을 바치다가 공조정랑을 거쳐 금산현감으로 있다가 병으로 사망하였음.

2) 궁촌(窮村) : ① 궁벽한(가난한) 촌락. ② 벽지의 촌락, 벽촌(僻村).

3) 유(猶) : 여전히.

4) 엄시관(揜柴關) : 사립문을 닫다 :

① 엄(揜) : ☆(문을) 닫다. ☆가리다(덮다). ☆엄습하다. ☆(문틈이나 상자 뚜껑의 틈에 물건이) 끼이다.

② 시관(柴關) : ☆사립문. ☆한사(寒舍 : 자기 집의 곁정. 가난한 집)와 같음.

木落秋聲遠, 나뭇잎 떨어지니 가을 소리 깊어지고,
목 락 추 성 원

天高鴈影⁵⁾寒⁶⁾. 하늘 높아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 처량하네.
천 고 안 영 한

論交⁷⁾多白眼⁸⁾, 벗과의 사귄은 백안시白眼視 당함이 많으나,
논 교 다 백 안

耐久只青山。 오직 청산靑山 만은 오래오래 변함없네.
내 구 지 청 산

未了平生業, 아직도 평생 공업功業 마무리 못했는데,
미 료 평 생 업

還愁歲已闌⁹⁾. 세월이 이미 끝나가니 또한 걱정일세.
환 수 세 이 난

-
- 5) 안영(鴈影) : 기러기. 영(影)은 명사(名詞) 뒤에 붙어서 ‘모호(模糊)한 형상’을 나타냄. 예를 들면, ‘홍영(鴻影 : 멀리 날아가는 기러기)’, ‘범영(帆影 : 멀리 보이는 돛을 단 배)’ 등이 있음.
- 6) 한(寒) : ① 소리가 처량하다. ② 형편이 비참하다, 보잘 것 없다. ③ 몹시 슬퍼하다. ④ 쓸쓸하다, 외롭다.
- 7) 논교(論交) : ① 논쟁과 교담(交談 : 잡담). ② 결교(結交), 즉 벗을 사귀다.
- 8) 백안(白眼) : ① 흘겨보는 눈, 백안시(白眼視), 즉 흘겨 보다. ② 눈알의 흰자위.
- 9) 세이난(歲已闌) : 작가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표현한 말임.
 ① 세(歲) : 연령.
 ② 이(已) : 이미, 벌써.
 ③ 난(闌) : 끝나가다.



시107. 국화를 읊다(서문을 병기함)

詩107. 詠菊 并序

九月晦¹⁾, 至玉淵²⁾, 見凌波臺³⁾, 菊花冒霜猶在, 撫玩感歎,

口占⁴⁾短篇⁵⁾, 令衫⁵⁾書之壁上. 後有觀者, 尙知余此日之意否乎?

9월 그믐날, 옥연정사玉淵精舍에 갔다가 능파대凌波臺의 야생국화가

- 1) 회(晦) : ① 그믐날. ② 어둡다, 얼마 안 되다. ③ (초목이) 시들다.
- 2) 옥연(玉淵) : 옥연정사(玉淵精舍)를 가리킴. 경북 안동시 광덕동(廣德洞) 남단(南端), 즉 하회리(河回里)의 강 건너편 부용대(芙蓉臺) 우측에 위치한 정사(精舍)로서, 서애(西厓)가 많은 역사적 저술을 하며 학문을 연구하던 곳임. <시 36> 주석 1)의 '옥연서당(玉淵書堂)' 조항을 참조 바람.
- 3) 능파대(凌波臺) : '강물이 물결쳐도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옥연정사(玉淵精舍) 우측의 절벽 명칭.
- 4) 구점(口占) : 읊다, 읊조리다.
- 5) 진(衫) : 류진(柳衫 : 1582-1635).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계화(季華), 호는 수암(修巖), 서애의 막내아들.

서애는 아들 넷을 두었으나, 앞의 둘은 선생을 앞서서 세상을 떠났고, 막내 아들 진(衫)과 셋째 아들 단(端)이 서애를 지켰음.

막내 아들 진(衫)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뒤 부친으로부터 글을 배우고, 1610년(광해군 2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으나, 1612년 해서지방(海西地方 : 황해도)에서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이 일어났을 때 무고(誣告)를 당하여 5개월간 옥고(獄苦)를 치렀음.

1616년 유일(遺逸) : 전대(前代) 고관의 후예)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 : 왕세자 호위 업무를 맡아보던 서반(西班 : 무관(武官)반열의 관칭)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음.

1623년(인조 1년) 인조반정(仁祖反正) 뒤 다시 학행(學行 : 학문과 덕행)으로 천거되어 봉화현감(奉化縣監)이 되었음. 이듬해 형조정랑(刑曹正郎 : 형조의 정5품 관직으로 중견 실무 책임자)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원옥(冤獄)을 해결하여 판서 이서(李曙)의 경탄을 샀음.

1627년에 청도군수(淸道郡守 : 청도군의 장관으로 동반(東班 : 문관반열)의 종4품직)가 되었다가, 이듬해 수포장인(收布匠人 : 조선시대 양인(良人)으로부터 군역(軍役)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징수하던 무명, 즉 '보포(保布)'나 '신포(身布 : 부역 대신에 징수하던 무명이나 배를 만들던 사람)에 대한 보고'에 허위가 있다고 하여 파직 당했음.

1634년 지평(持平 : 사헌부(司憲府)의 정5품 관직)으로 있을 때, 장령(掌令 : 사헌부의 정4품 관직) 강학년(姜鶴年)이 당시 서인정권(西人政權)의 정책을 크게 비판하여 심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를 두둔하여 대간(臺諫 : 대관(臺官)과 간관(諫官))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음.

고관대작을 역임하지는 않았지만 세신(世臣)의 후예답게 깨끗하고 성실하게 생애를 보냈음.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제향 되었음. 저서로 『수암집(修巖集)』이 있음.

서리를 맞고도 아직 생생한 것을 보고, 어루만지면서 감탄하다가
단편의 시 한 수를 읊은 다음, 아들 진찬에게 이를 벽에 써 붙이
도록 했다. 훗날, 이 시를 보는 자가 있다면, 나의 오늘의 시심詩
心을 알지 않겠는가?

巖下數叢菊, 암벽아래 몇 떨기 국화꽃,
업 하 수 총 국

殘英⁶⁾ 遡⁷⁾ 寒旭。 아직 지지 않은 꽃송이 한기寒氣에 맞서
잔 영 소 한 옥 생생하네.

嚴霜⁸⁾ 日已深⁹⁾, 된서리가 나날이 아주 엄중해지는데,
엄 상 일 이 심

苦意¹⁰⁾ 誰能識。 애태우는 마음 누가 알 수 있으리?
고 의 수 능 식

還當搖落¹¹⁾ 時, 게다가 흔들거리다 낙화할 때에도,
환 당 요 락 시

獨自正¹²⁾ 顏色。 홀로 제 모습 단정히 하고 있네.
독 자 정 안 색

-
- 6) 잔영(殘英) : 아직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꽃송이. 또는 낙화(落花).
7) 소(遡) : ① 대면(對面)하다, 향하다. ②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③ 거스르다. ④ 근원을 찾
다, 추적하다. ⑤ ‘소(溯)’와 통하여, ‘하소연하다’는 뜻으로도 쓰임.
8) 엄상(嚴霜) : ① 된서리. ② ‘준엄하다, 매섭다’라는 말에 비유하여 쓰는 말.
9) 이심(已深) : 아주 심해지다. ① 이(已) : 너무, 대단히, 몹시. ② 심(深) : 심하다, 엄중하다.
10) 고의(苦意) : 고심(苦心)하다,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다.
11) 요락(搖落) : 흔들리다가 떨어지다.
12) 정(正) : ① 단정(端正)하다. ② 바르게 하다. ③ 바로 잡다.

不恨年華¹³⁾晚, 좋은 시절 저물었다 한탄하는 게 아니라,
불 한 연 화 만

只恐芳菲¹⁴⁾歇。 꽃향기 사라지는 걸 두려워할 따름일세.
지 공 방 비 헐

采采¹⁵⁾無人贈, (몇 송이) 따보고도 싶었지만 전해줄 사람 없어,
채 채 무 인 증

徘徊三歎息。 이리저리 배회하며 탄식만 거듭하네.
배 회 삼 탄 식

13) 연화(年華) : ① 좋은 시절, 봄 풍경, 봄별을 이룸. ② 나이, 연세. ③ 세월. ④ 수확, 작황(作況).

14) 방비(芳菲) : ① 꽃향기. ② 향기 나는 꽃.

15) 채채(采采) :

① 채(采) : ☆꺾다, 채취하다, 따다, 훑다. ☆채(采)는 속자(俗字)로 ‘채(採)’로도 씀.

② 채채(采采) : 곧 채채(採採)의 뜻으로, 여기서는 이 국화송이 저 국화송이를 좀 따보고자 하는 동작을 표현한 것임.

시108. 백씨伯氏의 시운詩韻에 차운次韻하다

詩108. 次伯氏韻
차 백 씨 운



了了¹⁾鄉廬²⁾長在眼, 또렷이 떠오르는 시골집
요 요 향 려 장 재 안
늘 눈에 아른거리고,

春江水碧映柴門。 봄날 강물이 푸르면 사립문을 비쳤었지.
춘 강 수 벽 영 시 문

畏人默坐成癡鈍³⁾, 사람 두려워 묵좌默坐하니
의 인 묵 좌 성 치 둔
멍청이가 되어서,

雲滿孤村正斷魂⁴⁾. 구름 덮인 외딴 촌에서
운 만 고 촌 정 단 혼
언제나 닳이 나가 있다네.

1) 요요(了了) : ① 분명하다, 요연(了然)한 모양. ② 총명하다, 지혜롭다, 사리(事理)에 통달하다. ③ ‘가(枷 ; 도리깨)’의 뜻으로 ‘요요(了了)’란 멍청을 쓰기도 함.

2) 향려(鄉廬) : ① 고향(시골) 오두막집, 농막. ② 주막.

3) 치둔(癡鈍) : 어리석고 둔함.

4) 정단혼(正斷魂) : 언제나 늘 닳이 나가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임.

① 정(正) : 부사로 쓰여서, ‘언제나, 항상’의 뜻임.

② 단혼(斷魂) : ☆정(情)이 매우 깊어지거나(마음이 끌리거나) 비통해지는 것을 형용한 말. ☆육신을 떠난 영혼.



시109. 농 삼아 지은 시

詩109. 戲書 희서

交情雲雨¹⁾與時移²⁾,
교 정 운 우 여 시 이

정의情誼도 비나 구름처럼
시류時流따라 변덕스럽고,

按劍還從³⁾白首知。
안 검 환 종 백 수 지

검을 잡고도 물러서서 진정하는 걸
늦어서야 알게 됐네.

窮鬼⁴⁾於吾眞耐久,
궁 귀 어 오 진 내 구

궁귀窮鬼가 내게 정말 오랫동안
달라붙어,

-
- 1) 운우(雲雨) : ① 인정(人情)과 세태(世態)가 변덕스럽기 짝이 없음을 비유한 말. ② 구름과 비. ③ 고공(高空), 천계(天界). ④ 남녀의 교정(交情). ⑤ 은택(恩澤)에 비유한 말. ⑥ 입신 출세할 기회를 비유한 말.
 - 2) 시이(時移) : 시이세역(時移世易), 즉 시대가 변천하고 세상사도 한결같지 않다는 뜻임.
 - 3) 안검환종(按劍還從) : 검을 잡고도 물러나서 한숨을 돌리며 진정해야 한다는 뜻임.
① 안검(按劍) : 검(劍)을 잡다, 검을 잡고 뽑아 칠 자세를 취하다.
② 환종(還從) : 물러나서 진정하다. 환(還)은 '물러나다'의 뜻이고, 종(從)은 '종용(從容)하다'의 뜻임.
 - 4) 궁귀(窮鬼) : ① 사람을 곤궁하게 하는 귀신. 중국 육조(六朝 : 후한(後漢) 멸망 이후 수(隋) 통일 이전까지 지금의 남경(南京)에 도읍을 정하고 양자강(揚子江) 이남에 수립되었던 여섯 왕조, 즉, 오·동진·송·제·양·진(吳東晉宋齊梁陳))이래의 풍속으로, 민간에서 음력 정월에 시문(詩文)을 짓거나 제(祭)를 지내서 이들 궁귀(窮鬼)를 쫓아내던 것을 이룸. 이러한 의식(儀式)을 '송궁(送宮 : 궁귀를 보내다)'이라고 칭함. ② 이사(詈詞 : 꾸짖는 말)로서, 가난하다고 사람을 낮잡아 꾸짖는 말임. '가난뱅이'란 뜻임.

雀羅門⁵⁾巷動相隨。
작 라 문 항 동 상 수

실세(失勢)한 집 앞 골목인데도
움직였다하면 따라 붙네.

5) 작라문(雀羅門) : 문전작라(門前雀羅 : 문 앞에 설치해 놓은 새그물)와 같은 말로써, 몰락한 집안이나 실세(失勢)한 집을 형용하는 말임.

『사기(史記)·급정열전(汲鄭列傳)』에 보면 : “태사공이 말하기를…(太史公曰…) 처음에 책공(翟公 : 성은 책(翟), 공(公)은 존칭. 한무제(漢武帝) 때의 사람이 정위(廷尉 : 구경(九卿) 중의 하나로, 형벌과 감옥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관)가 되었을 때에는(始翟公爲廷尉), 문앞에 빈객들이 득실거렸으나(賓客闐門), 그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자(及廢), 대문 밖에 새잡는 그물을 쳐도 될 정도였다(門外可設雀羅)”라고 한 구절이 있음.



시110. 기해년(己亥年 : 1599년, 선조宣祖 32, 서애西厓 58세)
 설달 그믐날 밤에 감회가 있어
 우연히 쓰다¹⁾

詩110. 己亥除夜²⁾有感偶書³⁾
 기 해 제 야 유 감 우 서

其一
 기 일

[1]

去年除夜在何處,
 거 년 제 야 재 하 처

지난 해 설달 그믐날 밤엔
 어디에 있었던고?

萬疊山中一小刹。
 만 첩 산 중 일 소 찰

칩첩산중 조그마한 사찰에 머물렀었네.

1) 본 시는 1시제(詩題) 2수(首)인데, 원시제(原詩題)에 시수(詩數)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역자(譯者)가 이를 바로 잡아, 원시제(原詩題)를 2수(二首)로 구분하고, 이에 준하여 번역 시문도 [1], [2]로 표기함.

2) 제야(除夜) :

① ‘제석(除夕)’으로도 씀. 설달 그믐날 밤. 묵은해가 이날 저녁이면 지나가고 다음 날이면 새해가 시작되므로 이르는 말. ‘제(除)’는 ‘거(去 : 지나가다)’의 뜻임.

② 동지(冬至)의 전날 밤. 동지에는 음기(陰氣)가 극성한 가운데(일 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임), 양기(陽氣)가 생겨나는 때이므로(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임), 일 년의 시작으로 간주했음. 그래서 동지를 ‘다음 해가 시작되는 날, 즉 ‘아세(亞歲 : 작은 설)’라 해서 크게 축하하였음. 궁중에서는 원단(元旦설)과 동지(冬至)를 가장 으뜸 되는 축일(祝日)로 생각하고 회례연(會禮宴)이 베풀어졌으며, 해마다 중국에 동지사(冬至使)를 파견하기도 했음.

3) 우서(偶書) : 우연히 얼핏 떠오르는 시상(詩想)을 읊다.

古寺無人雪滿庭，
고사 무인 설만정

고찰古刹엔 인적 없고
백설만 뜰에 가득 덮였는데,

佛燈青燐半明滅⁴⁾。
불등 청형 반명멸

불등佛燈의 푸른 불빛이 법당 가운데서
명멸明滅했네.

東臺⁵⁾老僧來伴宿⁶⁾，
동대 노승 래반숙

동쪽 승방僧房 노승이 와서
날 동반해 묵었는데,

永夜蒲團⁷⁾共愁絕⁸⁾。
영야 포단 공수절

긴긴 밤 등근 부들방석에서 둘이 함께
(국난國難으로 인하여) 몹시도 근심했네⁹⁾.

4) 불등청형반명멸(佛燈 靑燐半明滅) : 불등의 푸른 불빛이 법당 가운데서 명멸했네) : 제야(除夜)의 법당(法堂)입에도 불구하고, 스님도 신도(信徒)도 보이지 않는 적막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음.

① 불등(佛燈) : 부처 앞에 올리는 등불.

② 청형(靑燐) : ☆등불의 푸른빛이 반짝이는 모양. ☆빛이 현란하게 밝음. ☆독의 광택이 푸르게 빛남. ☆물방울에 비유하는 말.

③ 반(半) : ☆중앙, 가운데. ☆부분적인 것, 불완전 한 것.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함.

④ 명멸(明滅) : ☆등불이 깜빡 깜빡(켜졌다 꺼졌다)함. ☆먼 곳에 있는 것이 보였다 안보였다 함. ☆전방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5) 동대(東臺) : 사원(寺院)의 본당(本堂) 동쪽에 위치한 승방(僧房)을 가리킴.

6) 반숙(伴宿) :

① 손님이 불편한 점이 발생하거나 적적할까 하여 수행하며 동숙(同宿)하는 것.

② 출상(出喪)하기 전날 밤 친족이 밤을 새워가며 고인(故人)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반숙(伴宿)이라 함.

7) 포단(蒲團) : ① 부들방석(주로 승려가 좌선(坐禪)하거나 예불(禮佛)을 드릴 때 사용함).

② 요, 이불.

8) 수절(愁絶) : 대단히 근심함. 극단적으로 우려함.

9) 위의 시의 서문에 의거하면, 본 시는 서애가 58세 되던 설날 그믐날 밤에 쓴 것이나, 여기 해당시구는 바로 1년 전인, 57세, 겨울(설날 그믐날 밤)을 회고하는 내용임. 서애는 바로 이때에 명(明)나라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誦奏)와 이로 인한 북인(北人)들의 크고 작은 탄핵으로 삭탈관직을 당하고 하회로 귀향 중에 있었던 시기임. 이때의 고뇌를 이듬해인 기해년(1599년)에 지난 해(1598년)를 회상하면서 본 시를 읊은 것임.

其二
기 이

[2]

今年除夜河回村¹⁰⁾,
금 년 제 야 하 회 촌

올 설달 그믐날 밤은
하회河回에서 지냈는데,

臥聽西林風折木。
와 청 서 름 풍 절 목

누워서 들었다네 서쪽 숲에 바람 불어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를.

悲歡得喪¹¹⁾一夢間,
비 환 득 상 일 몽 간

애환도 득실도 한바탕 꿈처럼 지나가고,

白髮垂肩轉¹²⁾衰疾。
백 발 수 견 전 쇠 질

백발이 어깨에 늘어지니
노병老病치레를 더 하게 되네.

明年此夕又何處,
명 년 차 석 우 하 처

내년의 오늘 저녁은
또 어느 곳에서 머물는지,

世事如雲不可測。
세 사 여 운 불 가 측

세상사 뜬 구름 같아
예측할 수 없네그려.

10) 하회촌(河回村) : 경북(慶北) 안동시(安東市) 풍천면(豊川面) 하회리(河回里),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고향.

11) 득상(得喪) : 득실(得失)과 같은 말로서, 명리(名利)의 얻음과 잃음을 가리킴.

12) 전(轉) : 부사로 쓰여, '점점, 게다가, 더욱더'의 뜻.

시111. 닭이 첫 회째 해 울음을 우네

詩111. 鷄一呼¹⁾
계 일 호



鷄一呼，
계 일 호

닭이 첫 회째 해 울음을 울었으니，

夜如何！
야 여 하

(이때의) 밤은 어떠한고!

天星未稀河漢²⁾橫。
천 성 미 희 하 한 횡

하늘엔 아직 별이 드물지 않고
은하수가 비껴 흐르네.

鷄二呼，
계 이 호

닭이 두 회째 해 울음을 울자，

微風動北林，
미 풍 동 북 립

북쪽 숲에서 미풍이 일어나고，

幽人³⁾睡覺⁴⁾獨臥聽。
유 인 수 각 독 와 청

은사隱士도 잠에서 깨어나
홀로 누워서 듣고 있네.

-
- 1) 계일호(鷄一呼) : 닭이 첫 회째 해 울음을 운다.
 - 2) 하한(河漢) : 은하수, 은하(銀河). 고하(高河), 성한(星漢), 우한(牛漢), 운한(雲漢), 은한(銀漢), 천하(天河), 천한(天漢)이라고도 함.
 - 3) 유인(幽人) : 은사(隱士).
 - 4) 수각(睡覺) : 잠자다. 또는 잠에서 깨어나다. '각(覺)'은 '깨닫다'는 뜻으로는 '각(覺)'으로 발음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선각(先覺)'이 있다. 또한 '잠자다'는 뜻으로는 '교'로 읽어서 '수교(睡覺)'로 읽어야 하나, 습관상 '수각(睡覺)'으로도 발음함.

鷄三呼村犬吠,
계 삼 호 촌 견 폐

닭이 세 회째 뽀 울음 울자
마을의 개도 짖고,

亦有長天⁵⁾歸鴈鳴。
역 유 장 천 귀 안 명

광활한 하늘에는 돌아가는 기러기
울음소리도 들리네.

鷄四呼,
계 사 호

닭이 네 회째 뽀 울음 울었을 때는,

茅簷猶黑色,
모 첨 유 흑 색

초가집 처마 아직 어둑어둑했으나,

五呼東方洞然⁶⁾生光明。
오 호 동 방 동 연 생 광 명

다섯 번째 뽀 울음 울었을 땀
동녘이 흰해지면서 밝아왔네.

四隣男女相呼起,
사 린 남 녀 상 호 기

사방 이웃 남녀가 서로 부르며
일어나서,

奔走喧喧⁷⁾各有營。
분 주 환 환 각 유 영

분주하게 왓자지겅 제각기
생업에 열중하네.

余念微物亦何知,
여 념 미 물 역 하 지

내 생각에 미물微物들이 또한
어찌 알겠는가!

天機⁸⁾自動而有聲。
천 기 자 동 이 유 성

하늘의 조화에 따라
절로 소리 낸 것이리라.

5) 장천(長天) : ① 광활한 하늘. ② 종일.

6) 동연(洞然) : ① (매우) 밝은 모양. ② 관통하는 모양. ③ 명확한 모양. ④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 ⑤ 마음씨가 솔직담백한 모양. ⑥ 공허한 모양. ⑦ 의성어로서 '풍당(물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 ⑧ 공경하는 모양.

7) 환환(喧喧) : ① 소란스럽고 분잡스러운 것을 형용한 말. 왓자지겅. ② 소리가 시끄러운 것을 형용한 말, 시끌시끌, 시끌벅적. ③ 혁혁하다, 현저하다.

8) 천기(天機) : ① 천지조화(天地造化)의 심오한 비밀. 천의(天意 : 하늘의 뜻)와 같음. ② 천부적(天賦的) 재치, 영감, 천부적 기지(機知). ③ 국가의 중대한 기밀. ④ 북두칠성의 별칭, 즉 두수(斗宿).

夜夜喚醒⁹⁾主人翁，
야야 환성 주인翁

밤마다 잠자는 주인장 불러서
깨워대니,

莫在睡鄉¹⁰⁾長沈冥¹¹⁾。
막제수향 장침명

꿈속에서도 장시간 깊이
잠들 수 없네.

牛耕馬乘亦其職，
우경마승역기직

소가 밭 갈고 말이 사람 태우는
것은 또한 그것들의 직분이듯,

人生有道難自輕¹²⁾。
인생유도난자경

인생에는 도리가 있으니
스스로 방만放漫하면 곤란하네.

眼前分明利善關，
안전분명리선관

눈앞에선 순리順利와 선행善行의
관건이 분명하여,

等是孳孳還異情¹³⁾。
등시자자환이정

똑같이 전념하다가도
다시 입장을 달리하네.

孟氏¹⁴⁾之言眞藥石¹⁵⁾，
맹씨지언진약석

맹자 말씀 진실로 약과 침인 것을,

9) 환성(喚醒) : ① 잠자는 사람을 깨움. ②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침.
 10) 수향(睡鄉) : ① 잠잘 때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란 뜻에서 ‘꿈나라’를 가리킴. ② 수면상태.
 11) 침명(沈冥) : ① 침명(沉冥)으로도 씀. 침묵하다, 그윽하고 고요함에 잠기다. ② 은거해서 지취를 감추다. ③ 깊숙하고 어둡다. ④ 매몰되다, 침몰하다, 영락(零落)하다. ⑤ 몰입하다. 불교어로서 유명(幽冥 : 무명(無明)에 비유하는 말로서, 생·로·병·사 등의 고(苦)를 초래하는 무명을 멸하지 못하는 모양).
 12) 경(輕) : ① 가볍다. ② 가벼이 하다. ③ 경솔하다, 경박하다. ④ 방만(放漫)하다.
 13) 등시자자환이정(等是孳孳還異情 : 똑같이 전념하다가도 다시 입장을 달리하네) :
 ① 등시(等是) : ☆같다, 마찬가지로. ☆모두 ~이다.
 ② 자자(孳孳) : ☆자자(孜孜). 자(孳)는 자(孜)와 통함.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일편단심으로, 일념(전심)으로.
 ③ 이정(異情) : ☆상황이 다르다(달라지다). ☆상이(相異)한 심정. ☆비정상적인 정감(情感).
 14) 맹씨(孟氏) : 맹자(孟子 : B.C. 372-B.C. 289) : 여기서 맹씨(孟氏)는 맹자(孟子)를 칭하는 것임.
 ① 맹자(孟子 : B.C. 372-B.C. 289) :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추(鄒)나라 출신의 사상가. 자(字)는 자여(子輿), 자거(子車) 또는 자거(子居). 공자(孔子)의 인(仁)의 사상을 발전시켜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으며, ‘인의(仁義)의 정치’를 권하였다. 유학의 정통

恨余半生耽浮名¹⁶⁾。
한 여 반 생 탐 부 명

내 반평생 헛된 명예 탐닉한 게
후회되네.

으로 숭앙되며, ‘아성(亞聖)’이라 불림. 사서(四書)의 하나인 『맹자(孟子)』는 맹자의 언
론(言論)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임.

- 15) 약석(藥石) : ① 훈계나 충고를 비유하는 말. ② 약제(藥劑)와 편석(砭石 : 병독을 뺄 때 쓰는 돌침). 일반적으로 약물(藥物)을 가리킴. ③ 불교에서 수행 중에 승려가 점심을 거르고 먹는 저녁 공양을 ‘약석(藥石)’이라고 함.
- 16) 부명(浮名) : 허명(虛名). 허황(虛荒)한 명성. 헛된 명예,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명예.

시112. 복숭아나무 베개에 대해 쓰다

(경자년 更子年 : 1600년, 선조 宣祖 33년, 서애 西厓 59세)

詩112. 書桃枕 庚子

서도침경자

醫書, 戊子日取桃枝作枕, 令耳目聰明。二月十九日, 乃戊子,

令奴過江取南山桃枝, 作小枕置弄丸齋¹⁾。

의서醫書에, ‘무자일 戊子日에 복숭아 나뭇가지로 목침 木枕을 만들어서 베면, 귀와 눈이 밝아진다’고 하였다. 2월 19일이 바로 무자일 戊子日이어서, 노복 奴僕을 시켜 강 건너 남산 南山에 가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작은 목침 木枕을 만들어 농환재 弄丸齋에 두도록 했다.



梅花欲白柳初黃,

매화욕백유초황

매화가 흰 꽃망을 맺으려 하자

버들가지도 노란 눈 내밀고,

簾額²⁾低垂日影長。

염액저수일영장

발을 내렸더니 해 그림자도 길구나.

1) 농환재(弄丸齋) : 서애(西厓)는 1605(선조 33년, 64세)년에, 둘째 아들 여(柳 : 사실상은 맏아들임. 첫아들은 서애가 44세 때에 잃었음)를 잃고, 또한 그해 하회에 큰물이 들어 병중의 몸이라, 조양(調養)하기에 불편하여, 학가산(鶴駕山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예천군 보문면 소재) 기슭, 즉 행정구역으로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소재하는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하였음. 그 이듬해인 1606년 3월에 이곳에 초당을 짓고 이름을 ‘농환재’라 명명(命名)하였다. 지금은 ‘농환재(弄丸齋)’란 현관만 남아있을 뿐이어서, 류씨(柳氏) 문중에서 서미동 입구에 ‘영의정 문충공 서애류선생 농환재유적비(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弄丸齋遺蹟碑)’를 대신 세워 놓았음.

2) 염액(簾額) : 발의 상단부이나, 여기서는 그냥 ‘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난함.

老境漸多閒意味,
노 경 점 다 한 의 미

노경老境에 점차 느는 것이라고는
한기함에 대한 정취라서,

一窓³⁾高枕夢羲皇⁴⁾。
일 창 고 침 몽 희 황

잠시 창가에서 베개 높이 베고
복희씨伏羲氏 꿈을 꿨네.

-
- 3) 일창(一窓) : 잠시 창가에서. 일(一)은 ‘어떤 동작의 한차례(1차)나 일순간(잠시)의 뜻’을 나타냄.
- 4) 희황(羲皇) : 복희씨(伏羲氏). 복희(伏羲) 또는 복희(伏羲)로도 씀. 성은 풍(風)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황제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우두머리이며, 팔괘(八卦)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복희(伏羲)’라는 이름은 『역경(易經)·계사전(繫辭傳)』에서 언급된 이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임.

시113. 사월 초이튼날 거센 바람이 불어서

詩113. 四月二日 大風¹⁾
 사 월 이 일 대 풍



終日顛風²⁾勢吐吞³⁾, 온종일 거센 바람 불다 멋다
 종 일 전 풍 세 토 탄 반복하는데,

小軒危坐⁴⁾到黃昏。 황혼녘까지 작은 서재書齋에
 소 현 위 좌 도 황 혼 정좌正坐하고 앉아 있네.

窮途⁵⁾更切君親戀, 곤궁해지자 군왕과 양친에 대한 그리움
 궁 도 갱 절 군 친 연 더 간절해짐은,

-
- 1) 대풍(大風) : ① 몹시 거세게 부는 바람. ② 서풍(西風). ③ 나병(癩病 : 문등병). ④ 대국적(大國的) 풍도(風度). ⑤ 전설상의 악조(惡鳥)를 이름.
 - 2) 전풍(顛風) : ① 폭풍, 광풍(狂風). ② 미친 병. ③ 행동거지가 격렬하고 불안한 모양, 광란하는 모양.
 - 3) 토탄(吐吞) : ① 내뱉고 삼키다. 전(轉)하여, (～이) 드나들다, 출입하다, 사라졌다 보였다, 모였다 흩어졌다. (바람이) 불다 잠잠해지다 등을 비유해서 형용하는 말로 씀. ② 속마음을 토로하다. ③ (말을) 주저주저하다. (애매모호하게) 우물쭈물하다.
 - 4) 소현위좌(小軒危坐) : 작은 서재에 정좌하고 있다.
 ① 소현(小軒) : ☆겨울에 외풍을 막기 위해 방안에 칸막이 문인 장지를 들어 조그맣게 막은 아랫방. ☆큰 방안에 따로 규모가 작게 만든 아랫방. ☆창문이 있는 복도 또는 작은 집(옛날에는 서재, 찻집, 음식집 등의 이름으로 많이 쓰였음).
 ② 위좌(危坐) : 고대에는 꿇어앉아서 상반신을 바르게 하는 것을 ‘위좌(危坐)’라 하여, ‘엄숙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나타냈으나, 후세에 와서는 정좌(正坐 ; 상반신을 바르게 하고 앉음)하는 것을 가리켜 ‘위좌(危坐)’라고 함.
 - 5) 궁도(窮途) : ① 곤궁하게 된 경우나 처지. 또는 곤경에 처한 사람. ② 가기 힘든 길, 먼 길.

苑草⁶⁾猶含雨露恩。
원 초 유 함 우 로 은

우거진 초목이 우로雨露의 은택
머금은 것과 같다네.

鄭五⁷⁾經綸⁸⁾眞自笑,
정 오 경 윤 진 자 소

정오鄭五의 경륜은 사실 절로
웃음 짓게 하나,

陳三⁹⁾孤介¹⁰⁾竟誰論。
진 삼 고 개 경 수 론

진삼陳三의 글은 지조는
도대체 누가 논평할꼬?

6) 원초(苑草) : 우거진 초목.

7) 정오(鄭五) : 정계(鄭檠: ?-899) : 당(唐)나라 소종(昭宗)때 사람으로 형제 서열이 다섯째 이기에 정오(鄭五)라고도 칭함. 그는 형양(滎陽) 사람이며, 자는 운무(蘊武). 감찰어사(監察御使)와 노주자사(盧州刺史)를 역임했으며,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의 직을 명받았음. 소종(昭宗)시에 예부시랑(禮部侍郎)과 동평장사(同平章事)에 임명되었음. 그는 동평장사(同平章事)의 임명 조서(詔書)가 내리자 “천하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가 짐무하게 되자, 종친들에게 “혈후정오(歇後鄭五)가 재상이 됐으니 시사(時事)를 알만하다”고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사직하고, 태자소보(太子少保)를 지내다가 또 사직하였음. 저서에 『개천전신기(開天傳信記)』가 있음.

그는 해학(諧謔)을 좋아하여 왕왕 시(詩)로 당시의 실정(失政)을 지적하거나 시사(時事)를 논함에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희롱하듯 풍자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당시 그 시체(詩體)를 ‘정오혈후체(鄭五歇後體 : 정혈후체(鄭歇後體))’라 칭하였음. ‘혈후(歇後)’란 말뜻은 ‘구말(句末)의 사(詞 : 단어)를 줄여서 은폐, 생략하고 그 뜻을 암시한다’는 것임.

이 혈후어(歇後語)에는 두 종류의 형식이 있다. 첫째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성어(成語)에 대해서, 뒷부분의 단어를 생략한 채, 앞부분의 단어로 생략된 뒷부분의 단어의 뜻을 나타내는 것임. 그 예로 진(晉)나라 도잠(陶潛)의 시 〈경자세 오월 종도환초 풍우구림(庚子歲五月從都還阻風于規林)〉이란 제목에서 읊은 “자애로운 모친 얼굴 밝게 되어 흐뭇한데(一欣待溫顏), 형제까지 상봉하게 되어 더욱 즐겁네(再喜見友于)”란 구절이 있는데, ‘우우(友于)’는 ‘우우형제(友于兄弟)’를 줄여 ‘형제’란 뜻을 나타낸 경우이다. 둘째는 하나의 뜻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임. 즉, 앞 구절에서는 비유어를 쓰고 뒷 구절에서는 해석어를 써서, 운용할 때 뒷 구절을 생략한 채 앞 구절로서 뒷 구절의 뜻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그 예로, “진흙으로 만든 보살이 강을 건너다(泥菩薩過江)”란 말로서 ‘제 자신도 보전하기 어렵다(自身難保)’란 뜻을 나타낸다. 또한 전후구절을 병렬하여 두 가지 뜻을 내포하는 방법으로는 “공자가 이사하면(孔夫子搬家), 오로지 책뿐이다(오로지 실패할 뿐이다)(淨是書(輸))”란 말의 경우이다. 여기서 이 말의 뒷 구절의 “오로지 책뿐이다(淨是書)”라는 말은 비유어로서의 표현이고, “오로지 실패할 따름이다(淨是輸)”라는 말은 해석어로서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서(書)’와 ‘수(輸)’는 중국 발음으로 모두 ‘shū’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8) 경륜(經綸) : ① 신타래에서 실마리를 정리하여 비벼 꼬아서 노끈을 만드는 것을 통칭하여 경륜이라고 함. 전(轉)하여, 국가대사를 기획하는 것을 가리킴. ② 국가를 다스리는 포부와 재능을 뜻함.

9) 진삼(陳三) : 진사도(陳師道 : 1053-1102) : 송(宋)나라 소문육군자(蘇門六君子)의 한 사람. 형제 서열이 셋째였기에 칭해진 이름임. 송나라 팽성(彭城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동

無端賈傅傷時淚¹¹⁾, 까닭 없이 죄인 된 가부賈傅는
 無 端 가 부 상 시 루
 시국時局을 슬퍼하며 울었으나,

산현(銅山縣) 사람. 자는 무기(無己), 이상(履常)으로도 씀. 호는 후산거사(後山居士). 그는 소문육군자(蘇門六君子)의 한 사람으로, 후에 증공(曾鞏)에게 산문을 배우고 황정건(黃庭堅)에게 시를 배워 결국 시로 이름을 날렸음. 그의 시는 오률(五律)에 뛰어났고, 필체가 가늘면서도 힘이 있었음. 그러나 그는 벼슬길에 나설 의지가 없었다. 그의 스승 증공이 사서편찬직(史書編纂職)에 추천하였으나 벼슬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아니하였음. 그 후 철종(哲宗) 원우년간(元祐年間 : 1086-1091) 초기에 소식(蘇軾) 등이 그의 문행(文行)이 탁월하다는 근거로 추천하여 서주교수(徐州教授)가 되었음. 그 후 남경(南京)에 가서 소식(蘇軾)을 만나 그의 추천으로 영주교수(潁州教授)가 됐으나, 소성년간(紹聖年間 : 1094-1097) 초기에 과거에 급제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원부 3년(元符三年 : 1100년)에 비서성정자(秘書省正字)로 임명되었음.

그는 가세(家勢)가 몹시 빈곤하였으나 사람됨이 지조(志操)가 굳어 부귀권세에 의탁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문(詩文)에 능하였으며 시론(詩論)에서 황정건(黃庭堅)의 시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피력하고, 그 시를 귀감으로 삼았음. 또한 그는 시작(詩作)에 극히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강서시파(江西詩派)의 대표적 시인이며, 『시경(詩經)』과 『예기(禮記)』에 통달하였음. 곤궁하게 지내면서도 부귀를 추구하지 않았던 그는 몹시 추운 겨울에 두꺼운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교사(郊祀)에 참석했다가 한질(寒疾)에 걸려 죽었다고 함.

저서에 『후산집(後山集)』, 『후산담총(後山談叢)』, 『후산시화(後山詩話)』 등이 있음.

10) 고개(孤介) : ① 성질이 곧아 남과 어울리지 않음. ② 성격이 강직하고 방정하여 세속(世俗)을 따르지 아니함.

11) 무단가부상시루(無端賈傅傷時淚) : 까닭 없이 죄인 된 가부(賈傅)는 시국(時局)을 슬퍼하며 울었으나 :

① 무단(無端) : ☆근거 없이 죄명을 날조하는 것을 가리킴. ☆단서가 없이, 까닭 없이 발생함을 이룸. ☆처음과 끝이 없음. ☆~할 마음이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사리에 어둡다. ☆함부로 잔학한 짓을 하다. ☆뜻밖에, 의외로.

② 가부(賈傅) : 가의(賈誼 : B.C. 200-B.C. 168) : 서한(西漢) 하남(河南), 즉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 동북 사람. 장사왕(長沙王) 태부(太傅)를 역임하였던 까닭에 칭해진 이름. 이외에도 세칭 가태부(賈太傅), 가장사(賈長沙), 가생(賈生) 등으로 불림. 그는 나이 18세에 이미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20여 세 때 문제(文帝)가 박사(博士)로 임명하였으며, 후에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전직(轉職)되었음. 그는 수차 상소를 올려 당시 시국의 폐단을 언급하였던 까닭에, 대신 주발(周勃)과 관영(灌嬰) 등의 비방을 받아, 장사왕(長沙王) 태부(太傅)로 좌천되었다가 양희왕(梁懷王) 태부(太傅)로 전직되었음. 그는 누차 상소를 올려 중농억상(重農抑商)을 주장하였으며, 제후왕(諸侯王)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것을 건의하였음. 그러나 그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해 번민하다가 사망하였음.

저서에 정론(政論)의 내용을 담은 <진정사소(陳政事疏)>, <과진론(過秦論)> 등은 서한(西漢)의 거작(巨作)이며, 그 외에도 『신서(新書)』·『가장사집(賈長沙集)』 등이 있음.

③ 상시(傷時) : 시세(時世) 혹은 시국(時局)이 뜻과 같지 않아 비통해 하다.

獨香靑霄灑暮雲¹²⁾。
독향청소쇄모운

황혼녘 구름 걸힌 푸른 하늘은
유난히 아름답네.

12) 독향청소쇄모운(獨香靑霄灑暮雲 : 황혼녘 구름 걸린 푸른 하늘은 유난히 아름답네) :

① 향(香) : 친밀하고 아름다움에 비유하는 말.

② 청소(靑霄) : 푸른 하늘.

③ 모운(暮雲) : 저물 무렵에 낀 구름.

시114. 한거_{閑居} 중에 우연히 삼가 퇴계 선생_{退溪先生}
시의 운자_{韻字}로써 화답_{和答}하여
지은 시를 정경임_{鄭景任}에게 부치다



詩114. 齋居¹⁾偶奉和²⁾退溪先生³⁾韻寄鄭景任⁴⁾
齋 거 우 봉 화 퇴 계 선 생 운 기 정 경 임

聖言千萬只明誠⁵⁾, 성인의 말씀 천만마디 오로지
성 언 천 만 지 명 성
'성誠'을 밝힌 것뿐인데,

- 1) 재거(齋居) : 한거(閑居)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 51>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2) 봉화(奉和) : 귀인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써서 답시(答詩)를 지음.
- 3) 퇴계 선생(退溪先生) : 이황(李滉 : 1501-1570) : 조선 중기의 대학자. 자는 경호(景浩), 서애(西厓)의 스승, 자세한 것은 <시 38>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4) 정경임(鄭景任) :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우복(愚伏), 서애(西厓)의 문인. 자세한 것은 <시 41>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5) 명성(明誠) : '성(誠)'을 밝히다.

① 성(誠) : 유교에서 말하는 덕(德)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서의 개념인. 이 '성(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은 『중용(中庸)』에서 비롯되었음.
『중용(中庸)』20장 17절에서 “성(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이며,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라고 하여, 성(誠)은 천도(天道)로서의 성(誠)과 인간의 기본적 덕목으로서의 성(誠)으로 구분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맹자(孟子)·진심(盡心) 상(上)』에서도 “성실이란 하늘의 도이고, 성실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지금히 성실하면 움직이지 않을 자 없고, 성실하지 않으면 능히 움직일 수 있는 자 없다”고 하여, '성(誠)'이란, 진실하여 속임이 없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순자(荀子)·불구(不苟)』편에서도 “성(誠)이란 군자가 지키는 것으로 정사(政事)의 근본이 된다”고 하여, 성(誠)으로써 덕행의 기초를 삼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덕목으로서의 성(誠)을 체계화한 사람으로는 이고(李翱)와 주돈이(周敦頤) 및 주희(朱熹) 등을 들 수 있음. 이고(李翱)는 그의 『복성서(復性書)』에서, 주돈이(周敦頤)는 『통서(通書)·성상(誠上)』과 <성하(誠下)>에서, 주희(朱熹)는 『주자어류(朱子語類)』와 『중용집주(中庸集註)』 등에서 관련이론이 보임.

黃卷⁶⁾尋來感我情。 서적에서 찾아내면 내 마음 감동되네.
황 권 십 래 감 아 정

靜處着功兼着眼⁷⁾, 고요한 곳에서 공력 기울여 집중하면,
정 처 착 공 겸 착 안

此間⁸⁾無臭又無聲⁹⁾。 여기에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네.
차 간 무 취 우 무 성

山林自昔離塵遠, 산림山林은 예로부터 속세에서
산 립 자 석 리 천 원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風月從今盡意¹⁰⁾清。 풍월風月은 지금부터 그 청명함을
풍 월 종 금 진 의 청 마음껏 즐기려네.

試向靈臺勤點化¹¹⁾, 마음을 닦아 부지런히
시 향 영 대 근 점 화 오도悟道를 계발해서,

이와 같이 ‘성(誠)’에 대한 역대의 개념에서 일관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성(誠)’이란, 인간의 도덕 수양공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바로 “천리의 본연(天理之本然也)”임을 알 수 있다.

- 6) 황권(黃卷) : ① 도서(道書)나 불경(佛經)을 가리킨. 불(佛), 도(道) 양가(兩家)의 책은 황지(黃紙)로 제작되었기에 이르는 말임. ② 서적(書籍). 옛날에 책이 좀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벽(黃蘗) 나무의 내피(內皮)로 염색한 황색 종이를 썼으므로 이르는 말. ③ 관리의 공과(功過)를 기록하여 직무수행의 능력을 심사하도록 작성된 문서. ④ 조칙(詔勅), 조서(詔書).
- 7) 착안(着眼) : ① 어떤 일을 주의하여 보다. ②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마리를 잡다. ③ 고찰하다, 관찰하다.
- 8) 차간(此間) : 이곳, 여기.
- 9) 무취우무성(無臭又無聲) : 냄새도 없고 또한 소리도 없다.
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 이는 곧 아무런 기미(氣味 : 냄새)도 없다는 뜻으로, 천도(天道)나, 신의(神意)가 심오함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임.
② 묵묵무문(默默無聞), 즉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는 뜻으로도 씀. 『시경(詩經)·대아(大雅)·문왕(文王)』에 “하늘의 일은(上天之載),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즉 아무런 냄새도 없다)(無聲無臭)”고 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재(載)’는 ‘사(事)’와 고음(古音)이 근사하여 통용됨.
- 10) 진의(盡意) : ① 뜻이나 정감을 충분히 전달하다. ② 흥을 다하다. 마음껏 즐기다.
- 11) 시험영대근점화(試向靈臺勤點化) : 마음을 닦아 부지런히 오도(悟道)를 계발해서) :
① 시험(試向) : (마음을) 쓰다. (마음을) 닦다.
☆시(試) : 훈련하다. 운용하다, 시험하다. 조사하다, 비교하다.
☆향(向) : 친밀하게 접근하다, 마주보다, 사랑하다, 편애하다.

莫教容易負生平¹²⁾
막 교 용 이 부 생 평

그대로 하여금 쉬이 평생사적平生事迹
저버리지 말도록 하계나.

② 영대(靈臺) :

-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뜻으로 마음을 이르는 말.
- ☆임금이 올라가서 지방을 돌아보던 대(臺).
- ☆예전에 천문기상을 관찰하던 대.

③ 점화(點化) :

- ☆도가(道家)에서 쓰는 용어로서, 종래의 사물을 고치어 새롭게 함을 이르는 말. 즉 점물성금(點物成金)의 뜻임.
- ☆전인(前人)의 시문(詩文)의 격식을 취하여 따로 더 새로운 방법을 끌어내거나 더 훌륭한 시문을 지음.
- ☆불교에서 공안(公案)이나 화두(話頭)처럼 말로서, 사람의 오도(悟道)를 계발(啓發)하여 범인(凡人)을 선인(仙人)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킴.

12) 부생평(負生平) : 일생동안 의지하다. 심성(心性)을 저버리다. 평생 동안 쌓아온 사적(事迹)을 저버리다.

① 부(負) : 배(背)와 통하며, ‘저버리다, 어기다’는 뜻임.

② 생평(生平) : ☆평소에. ☆일생. ☆심성(心性) ☆생전(生前). ☆평생사적(平生事迹). ☆평생 동안 쌓은 신임(信任).



시115. 이정^{而靜} 김윤안^{金允安}과 사열^{士悅}
 김태^{金兌}에게 시 네 수를 지어 부치다
 (서문을 병기함)

詩115. 寄金而靜允安¹⁾ 金士悅兌²⁾ 四首 并序
 김이정 김사열 이편차 퇴도선생 연보재록연서당
 사수병시

金而靜, 金士悅, 以編次³⁾ 退陶先生⁴⁾ 年譜在玉淵書堂⁵⁾.
 김이정 김사열 이편차 퇴도선생 연보재록연서당

余病未往會, 而連夜月色清甚, 吟⁶⁾ 寄四絕.
 여병미왕회 이연야월색청심 읊기사절

이정^{而靜} 김윤안^{金允安}과 사열^{士悅} 김태^{金兌}가 옥연서당^{玉淵書堂}에서 퇴도선생^{退陶先生} 연보^{年譜}를 편찬 중이었다. 나는 병중이라 아직 가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 밤을 계속하여 월색^{月色}이 너무 나도 청명하기에, 절구시^{絶句詩} 네 수를 지어 부친다.

1) 김이정(金而靜) 윤안(允安) : 김(金)은 성씨이고, 이정(而靜)은 자이며, 윤안(允安)은 이름임.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를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경칭(敬稱)의 한 예임.

① 김윤안(金允安 : 1562-1620)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이정(而靜), 이름은 윤안(允安), 호는 동리(東籬), 부친은 현감으로 이름은 박(博)이며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임.

1588년(선조 21)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임진왜란 때 김해(金澗 : 1534-1593, 조선 중기 문신, 상주목사(尙州牧使)) 휘하에서 형 윤명(允明)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612년 증광문과(增廣文科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던 임시과거제도)의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대구부사(大邱府使), 대사간(大司諫 : 사간원의 최고직. 임금에게 충간하는 일을 맡아봄)을 역임하였음.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의 학덕을 흠모하여 유림이 위패를 봉안한 화천서원(花川書院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소재)에 배향(配享)됨.

2) 김사열(金士悅) 태(兌) : 김(金)은 성씨이고, 사열(士悅)은 자이며, 태(兌)는 이름임.

① 김태(金兌 : 1561-1609) : 안동(安東) 사람. 자는 사열(士悅), 호는 구담(九潭), 이름은 태(兌). 고려시대 태사(太師)를 역임한 선평(宣平)의 후예로서 군수(郡守) 기보(箕報)의 아들. 류성룡(柳成龍)의 문인.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 학식이 높았으며 저술도 잘 하였고, 인품이 훌륭하다 하여 주변 사람들의 찬탄을 받았으나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방어하기도 하였다. 김윤안(金允安)과 더불어 옥연서당(玉淵書堂)에서 퇴계연보(退溪年譜)를 편찬하였음.

3) 편차(編次) : 순서에 따라 편찬함.

4) 퇴도선생(退陶先生) : 이황(李滉 : 1501-1570) : ‘퇴도(退陶)’는 이황(李滉)의 호. 이밖에도 퇴계(退溪), 도수(陶叟) 등이 있음. 상세한 이력은 <시 38>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5) 옥연서당(玉淵書堂) : <시 36>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6) 읊(吟) : 시를 짓다, 시를 읊다.

其一
기 일

[1]

萬象燈虛一氣清⁷⁾,
만상 등허 일기 청

만물의 등불이 하늘에 뜨자
일거에 천지가 환해지는데,

江風不動水雲輕⁸⁾.
강풍 부동수운 경

강바람은 잠잠하고 물안개가 얇으네.

多情此夜西臺⁹⁾月,
다정차야서대 월

다정도 하구나 이 밤 서대西臺에
떠오른 저 달이,

應爲遊人分外明¹⁰⁾.
응위유인분외명

아마도 나그네에게 유달리 밝을 게야.

其二
기 이

[2]

老病昏昏¹¹⁾臥一林¹²⁾,
노병 혼혼 와 일 름

노병에 정신마저 흐려
산촌에서 와병臥病 중인데,

-
- 7) 만상등허일기청(萬象燈虛一氣清 : 만물의 등불 하늘에 뜨자 일거에 천지가 환해지는데) :
- ① 만상(萬象) : 만물. 우주의 온갖 사물, 혹은 그 현상(광경, 풍경).
 - ② 등(燈) : 등(불). 여기서의 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임.
 - ③ 허(虛) : 창공, 하늘.
 - ④ 일기(一氣) : 단숨에, 일거에.
- 8) 경(輕) : 미약하다, 얇다.
- 9) 서대(西臺) : ① 부용대(芙蓉臺)의 서쪽을 가리킴. ② 서쪽 누대.
- 10) 응위유인분외명(應爲遊人分外明 : 아마도 나그네에게 유달리 밝을게야) :
- ① 응위(應爲) : 아마도 ~라(고) 여기러라(생각하러라). 응(應)은 ‘아마도, 대개’의 뜻이고, 위(爲)는 ‘~라고 생각하다’의 뜻임.
 - ② 유인(遊人) : 나그네, 유람객.
 - ③ 분외(分外) : ☆특별히, 유달리. ☆그 밖에, 달리. ☆본분 이외에. ☆과분하다(분수 외에).
- 11) 혼혼(昏昏) :
- ① 정신이 아득하여 흐린 모양.
 - ② 의식이 혼미(昏迷)해진 모양.
 - ③ 우매한 모양.
 - ④ 어두운 모양.

多慙諸友遠相尋。
다 참 제 우 원 상 심

여러 벗들 멀리서 찾아주니
참 면목 없네.

都無¹³⁾好事能留客,
도 무 호 사 능 유 객

벗들 머물게 할 좋은 일은
이미 없지만,

只有澄江¹⁴⁾可洗心。
지 유 정 강 가 세 심

오직 마음 씻어낼 맑은 강은 있다네.

其三
기 삼

[3]

微言久絕人¹⁵⁾何在,
미 언 구 절 인 하 재

뜻이 깊은 언사^{言辭} 단절된 지
오래인데 뛰어난 인물인들 어디 있으리!

末學¹⁶⁾分離事亦難。
말 학 분 리 사 역 난

후학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사정마저 어렵구나.

獨抱遺編¹⁷⁾興一喟,
독 포 유 편 흥 일 위

홀로 전인^{前人}의 서책 안고
즐근 한숨짓는데,

⑤ 시력이 침침한 모양.

12) 와일림(臥一林) : 어느 한 산촌에서 와병중이다.

① 일(一) :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사물(事物).

② 임(林) : ☆야외(野外) 혹은 은퇴(隱退)한 곳. ☆교외(郊外).

13) 도무(都無) : 이미 ~하지 않다.

14) 정강(澄江) : 물이 맑은 강.

15) 인(人) : ① 그 사람. ② 걸출한 인물. ③ 인재(人材).

16) 말학(末學) :

① 천박하고 근본이 없는 학문. 스스로 겸손할 때나 자칭할 때 겸사(謙詞)로 많이 씀.

② 천박한 학자를 가리킴.

③ 후학(後學)을 가리킴.

④ 비정통의 학문을 가리킴.

17) 유편(遺編) :

① 전인(前人)이 남긴 저작(著作)을 칭함.

② 산실(散失)된 전적(田籍)을 가리킴.

瑤琴¹⁸⁾絃斷不堪彈。
요금 현 단 불 감 탄

옥 장식 거문고는 현이 끊겨 탈 수 없네.

其四
기 사

[4]

西林回首意茫然¹⁹⁾，
서림 회수 의 망연

서쪽 숲 돌아보니 마음이 아득해져,

尙憶²⁰⁾臨溪講學²¹⁾年。
상억 임계 강학 년

냇가에서 학습하던 그 시절
한참동안 회상하네.

咫尺眞源²²⁾尋不到，
지척진원 심불도

지척咫尺에 진리가 있는데도
찾지 못하여,

一筇惆悵²³⁾暮雲邊²⁴⁾。
일궁추창 모운변

지팡이 짚고 시름겨워 하는데
저녁 구름 드리워지네.

③ 석권(釋卷 : 손에서 책을 내려놓다).

18) 요금(瑤琴) : 옥으로 장식한 거문고.

19) 망연(茫然) : 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다. ② 매우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20) 상억(尙憶) : 아직도 그렇다. 한참동안 회상하다.

① 상(尙) :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② 구(久) : 오랫동안.

③ 원(遠) : 시간이 오래되다.

21) 강학(講學) : 학습하다, 공부하다 ; 자기의 학술이론을 공개석에서 발표하다.

22) 진원(眞源) : 본원(本源), 본성(本性)을 이룸.

23) 추창(惆悵) : 실망하여 탄식함, 또는 그런 모양.

24) 변(邊) : ① 동사로서 ‘수(垂), 즉 ‘드리워지다’는 뜻임. ② 명사일 때는 무렵, 즈음, 때 등의 뜻으로 씀.



시116. 구름에게 묻다

詩116. 問雲
문운

爲¹⁾問孤雲²⁾向何處,
위 문 고운 향하 처

외따로 뜬 저 구름에게
어딜 가느냐 묻는다면,

天際茫茫³⁾千萬里。
천제 망망 천만 리

하늘 끝 아득히 천만리 밖이라 하리라.

長風⁴⁾一縷吹不斷,
장풍 일루 취불 단

멀리서 한 줄기 바람
끊임없이 불어오는데,

盡日⁵⁾相隨行復止。
진일 상수행부지

온종일 잇대어 불다 멎다 반복하네.

須臾⁶⁾白衣變蒼狗⁷⁾,
수유 백의 변창구

흰옷 같은 구름이 돌연
검푸른 개 모양으로 변하니,

-
- 1) 위(爲) : 접속사로 쓰여, '만약 ~한다면'의 뜻임.
 - 2) 고운(孤雲) : ① 외따로 떠 있는 구름. ② 세상과 인연을 끊은 은자(隱者)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빈한(貧寒)하거나 객지의 나그네를 비유하는 말로 씀.
 - 3) 망망(茫茫) : 넓고 멀어 아득한 모양.
 - 4) 장풍(長風) : ① 원풍(遠風). 먼 곳에서 불어오는 (맑고 깨끗한) 바람. ② 폭풍, 대풍(大風).
 - 5) 진일(盡日) : ① 종일(終日)과 같은 말. ② 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 날, 곧 '그믐날'을 가리킴.
 - 6) 수유(須臾) : ① 잠시, 잠깐, 단시간, 돌연. ② 유유자적하다. ③ 종용(從容 : 유연하다), 구연(苟延 :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다).
 - 7) 백의창구(白衣蒼狗) : 창구백의(蒼狗白衣)와 같은 말로서, '백의(白衣 : 흰옷) 같은 흰 구

若道⁸⁾無心還有心。
약도 무심 환유심

흡사 무심無心을 말하는 듯도 하고
유심有心을 말하는 듯도 하네.

誰能望汝⁹⁾作霖雨¹⁰⁾，
수능망여 작림우

누가 그대에게 단비 되라고
바랄 수 있겠는가?

幸¹¹⁾勿蔽日爲氛祲¹²⁾。
행 불폐일위분침

해를 가리는 먹구름이나 되지 말길
바란다네.

름이 돌연 검푸른 개 모양으로 변하다’는 뜻임. ‘세상사 변환무상(變幻無常)’함을 비유하는 말로 씀.

① 창구(蒼狗) : ‘털이 검푸른 빛의 개’라는 뜻으로, 고대 중국에서는 ‘상서롭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음. 이 말은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가탄(可嘆)〉에, “저 하늘에 뜬 구름 흰옷과 흡사하더니(天上浮雲似白衣), 돌연 검푸른 개 모양으로 변하였구나(斯須改幻爲蒼狗)”라고 읊은 구절에 보임. 이 시는 두보가 친구였던 왕계우(王季友)를 위해 쓴 시임.

왕계우는 성격이 곧고 지조가 굳어 세사(世事)와 타협하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그 결과 그의 가세(家勢)가 심히 곤궁하게 되자 그 환경을 견디다 못한 그의 부인이 이 혼하고 가출하였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왕씨를 비난하였다. 두보는 친구 왕계우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인생사 변화무쌍한 것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는 세태를 개탄하면서 두보(杜甫)는 이 시를 읊었음.

- 8) 약도(若道) : 흡사 ~라고 말하는 듯하다. ① 약(若) : 흡사 ~와 같다. ② 도(道) : 말하다.
- 9) 여(汝) : 너, 그대(동년배 또는 후배에 대한 호칭). 본 시에서는 의인법으로 쓰여, ‘구름’을 가리킴.
- 10) 임우(霖雨) : ① 감우(甘雨 : 단비), 시우(時雨 :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 전(轉)하여, 은택(恩澤)의 뜻으로도 씀. ② 장마, 또는 장마 비. ③ 제세택민(濟世澤民 :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함)에 비유하는 말로 씀.
- 11) 행(幸) : 바라다. 희망하다.
- 12) 분침(氛祲) : ① 짙은 안개나 구름을 가리킴. ② 고대의 미신에 길흉을 예시(豫示)하는 운기(雲氣)를 가리키는데, 주로 흉상지기(凶象之氣)를 가리킴. 곧 요사스럽고 간악한 기운을 뜻함. ③ 진속지기(塵俗之氣)를 가리킴.



시117. 옥연서당玉淵書堂에서 거닐다가 노두(老杜 :
두보杜甫)의 시詩 〈곡강배음曲江陪飲〉의
운자韻字에 차운次韻하여

詩117. 遊玉淵 次老杜¹⁾曲江陪飲²⁾韻
유 옥 연 차 노 두 곡 강 배 음 운

1) 노두(老杜) : 두보(杜甫 : 712-770)를 이룸. 중국 당(唐)나라 말기의 시인인 두목(杜牧 : 803-852)을 ‘소두(小杜)’라고 부르는데 상대하여, 두보(杜甫)를 이르는 말. 두보는 당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시인으로,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임. 세칭(世稱), 두보(杜甫)를 시성(詩聖), 이백(李白)을 시선(詩仙)이라 칭함.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도 일컫음. 여기서 ‘노두(老杜)’라고 칭한 것은 중국인이 한 글자로 된 성씨 앞에 ‘소(小)’자를 써서 애칭을 나타내고 ‘노(老)’자를 써서는 존칭을 나타내는 관습으로 인해 불려진 이름임.

그의 본적은 호북성(湖北省) 양양현(襄陽縣)이지만, 출생지는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의 소호족(小豪族) 출신임.

소년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였고, 각지를 방랑하다가 장안(長安)으로 왔으나, 여전히 불우하였음. 44세 때 안록산(安祿山)의 난으로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된 지 1년 만에 탈출하여 새로 즉위한 숙종(肅宗)의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갔으므로 그 공로로 좌승유(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음. 그 후로도 관운이 순탄지 못하였음. 48세 때 대거근을 만나 식량을 구하려고 감숙성(甘肅省)을 거쳐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 정착하게 됐음. 그는 이곳 교외에 완화초당(浣花草堂)을 세우고, 당시 이곳의 절도사(節度使)였던 엄무(嚴武)의 막료가 되어 공부원의랑(工部員外郎)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두공부(杜工部)’라고도 불렸음. 이후 귀향하려고 방랑을 계속하다가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에서 59세를 일기로 병사함.

그의 시는 인간에 대한 성실(誠實)을 핵심으로 하면서, 인간의 우수(憂愁)도 깊이 표현하여, 그의 시적 주제(題材)는 시종 인간의 사실, 인간의 심리, 자연의 사실을 떠나지 않았던 관계로 지금까지 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적경계를 열었음.

특히 장편의 고체시(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다룬 관계로 세상에서는 그의 시를 ‘시사(詩史)’라고 칭하기도 함. 또한 당대(唐代)에 와서 새롭게 시의 전형을 이룬 근체시(近體詩)는 두보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의 율시(律詩)는 규칙을 조금도 범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그의 시에는 사상과 내용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기교에서 오는 예술성도 탁월하여, 후학들에게는 그의 율체시(律體詩) 시가 교과서처럼 존중받고 있음.

이처럼 그의 시는 육조시(六朝詩)와 초당시(初唐詩)에서 크게 결핍되어 있던 시적 정신도 일으켜 세웠고, 고체시에서 간과했던 형식적 측면도 강화하여 그의 시는 고체시와 근체시 모두 시의 전형(典型)을 이루었음.

대표작으로는 〈북정(北征)〉 · 〈추흥(秋興)〉 · 〈삼리삼별(三更三別)〉 · 〈병거행(兵車行)〉 · 〈려인행(麗人行)〉 · 〈춘망(春望)〉 · 〈월야(月夜)〉 · 〈영회고적(詠懷古跡)〉 · 〈등악양루(登岳陽樓)〉 등이 있음.

2) 곡강배음(曲江陪飲) : 본 시에서 쓰인 ‘곡강배음’이란 시제(詩題)는 ‘곡강지(曲江池)에서 사관(史官) 정팔장(鄭八丈)을 동반하고 술을 마시다’는 뜻의 원래 시제(詩題), ‘〈곡강 배정 팔장남사음(曲江陪鄭八丈南史飲)〉’의 약칭으로 쓰인 것임.

頭如白雪眼迷花，
두 어 백 설 안 미 화

머리는 백설 같고
눈도 몹시 침침해서,

筭得難窮入海沙³⁾。
산 득 난 궁 입 해 사

해저海底에 들어가 모래알
셀 도리는 없겠네.

造物⁴⁾有心眞戲劇，
조 물 유 심 진 희 극

조물주에게 의도가 있다니
참으로 어이없지,

名途⁵⁾無實只紛華。
명 도 무 실 지 분 화

명예롭다는 벼슬 길 실체實體 없이
결만 화려한 것을.

이 시는 건원원년(乾元元年 : 758년) 봄에 지었는데, 당시 두보(杜甫)는 좌습유(左拾遺 : 문학성(門下省) 소속의 중8품 벼슬명칭)에 제직 중이었다. 곡강(曲江)은 곡강지(曲江池)로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동남 곡강향(曲江鄉)에 위치한 호수 명칭이고, ‘정팔장(鄭八丈)’은 인명(人名)임. ‘남사(南史)’는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 사관(史官) 명칭이었는데,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실에 의거하여 역사를 기록하였음. 여기에 그 관직 명칭을 쓴 것은 친구 정팔장(鄭八丈)에 대한 미칭(美稱)으로 쓰였음. 이 시에서 두보(杜甫)는 관리가 되어 자기의 뜻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사직(辭職)을 자청하고 귀향하려는 것으로 봐서 두보(杜甫)는 이 당시 바로 관직에서 배척당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3) 산득난궁입해사(筭得難窮入海沙 : 해저(海底)에 들어가 모래알 셀 도리는 없겠네) :
 - ① 서애주석(西厓註釋) : 위 시구에 대해서 서애는 “산득난궁입해사(筭得難窮入海沙)”에 주석을 달기를 “증도가(證道譚)에서, 해저(海底)에 들어가 모래알 세는 것은 공언히 자신을 병들게 할 뿐이다(入海筭沙徒自疾)”라고 하였음. 이 시구의 의미는 성어(成語) ‘입해산사(入海算沙)’와 같은 뜻임.
 - ② 입해산사(入海算沙) :
 - ☆위의 서애주석에서 언급한 『증도가(證道譚)』란, 당(唐)나라 승려 현각(玄覺 : 647-713)의 저서로, 이 책에서 “입해산사도자진(入海算沙徒自疾)”이라 읊은 데서 ‘입해산사(入海算沙)’라는 성어(成語)가 생겼다. 여기서 쓰인 성어의 의미는 ‘헛수고하다(白費功夫)’란 뜻으로 비유해서 쓰인 것임.
 - ☆‘입해산사(入海算沙)’라는 말을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하게 힘쓰다(用力精勤)’는 뜻으로도 씀. 그 예로, 명(明)나라 말기와 청(淸)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전겸익(錢謙益 : 1582-1664)이 쓴 『송문헌·호법록서(宋文憲法錄序)』에, “문헌공(文憲公)은 『대장경(大藏經)』을 세 번 읽었는데(文憲三閱『大藏』), 참으로 부지런하게 힘써서(入海算沙),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다(有如指掌)”라고 하였음.
- 4) 조물(造物) : 조물주(造物主).
- 5) 명도(名途) : 좋은 벼슬, 명예로운 벼슬길.

當年⁶⁾壯志論王伯⁷⁾,
당년 장지논왕백

한창때는 응지^{雄志} 품고
왕도^{王道}와 패도^{霸道} 논했는데,

此日兵塵⁸⁾未室家⁹⁾。
차일병진미실가

지금은 전란으로 가정조차도
못 돌보네.

欲辦¹⁰⁾餘生供食力¹¹⁾,
욕판여생공식력

남은 인생 힘을 다해
생계를 꾸리려면,

不妨¹²⁾歸種邵平瓜¹³⁾。
불방귀종소평과

과전^{瓜田}에 돌아가 농사짓는 것도
괜찮겠지.

-
- 6) 당년(當年) : ① 그때, 그 당시, 그 해. ② 한창 나이, 황금기.
7) 왕백(王伯) : ① 왕도(王道)와 패도(霸道). ② 대백(大伯 : 큰아버지, 아저씨).
8) 병진(兵塵) : 전란의 연진(烟塵 : 봉화 연기와 전쟁의 먼지). 전(轉)하여, 전쟁, 전란의 뜻으로도 씀.
9) 실가(室家) : ① 가정 또는 가족을 가리킴. ② 부부. ③ 처자(妻子). ④ 가가호호(家家戶戶). ⑤ 저택, 집, 가옥.
10) 판(辦) : ① 역량을 다 쏟다. ② 힘쓰다. ③ 처리하다. ④ 처벌하다. ⑤ 운영(경영)하다.
11) 식력(食力) : ① 자기 힘으로 생계를 세움. ② 백성의 조세(租稅)로 생활함. ③ 양식과 인력. ④ 뱃속에 음식물이 있어 기력이 남.
12) 불방(不妨) : ① ~라 해도 무방하다(~라 해도 괜찮다) ② 예상(상상)하지 못하다. 뜻밖이다. ③ 대단히, 매우.
13) 소평과(邵平瓜) : 즉 동릉과(東陵瓜). 소평(邵平)은 진(秦)나라의 동릉후(東陵侯)를 칭함. 그는 진(秦)나라가 망하자, 포의(布衣)를 입고, 장안성(長安城) 동쪽 청문(靑門) 밖으로 나가 밭을 갈고 참외를 심었다. 그런데 그 참외가 너무 달고 맛있어 당시 사람들이 그를 “동릉과(東陵瓜)”라 불렀다. 그 기록은 『삼보황도(三輔黃圖)』 권(卷)1에 있음. 후세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소평과(邵平瓜)”를 ‘퇴직한 관리들의 과전(瓜田)’에 대한 미칭(美稱)으로 썼음.

시118. 여름날 한거_{閑居} 중에 느낀 바를 쓰다

詩118. 夏日_{하 일} 閑居_{한 거} 書懷_{서 회}



首夏¹⁾日方永, 초여름 낮이 바야흐로 길어지더니,
 수 하 일 방 영
 端居²⁾水木清。 늘 거처하던 곳에 물과 나무가 산뜻해졌네.
 단 거 수 목 청
 悠悠³⁾世間事, 세상사에 유유자적하게 살다보니,
 유 유 세 간 사
 歷歷⁴⁾心中明⁵⁾。 마음속이 청명해져 날날이 또렷해지네.
 역 역 심 중 명
 浮念⁶⁾苦纏繞⁷⁾, 덧없는 상념에 몹시도 시달렸는데,
 부 념 고클 권 요

-
- 1) 수하(首夏) : 초여름. 맹하(孟夏), 초하(初夏).
 - 2) 단거(端居) : ① 일상(日常), 평소, 평상시. ② 생활형편, 거주지, 숙박소.
 - 3) 유유(悠悠) : ① 때가 오래된 모양. ② 거리가 아득한 모양 ③ 서두르지 않는 모양, 느긋한 모양. 여유가 있는 모양.
 - 4) 역력(歷歷) : ① 또렷한(분명한) 모양, 똑똑한 모양. ② 일일이(이것저것 자세히, 하나하나). ③ 사물이 질서 정연한 모양. ④ 영락(零落)한 모양. ⑤ 의성어.
 - 5) 명(明) : ① 밝다, 비추다, 환하다. ② 명료하다, 분명하다. ③ 공명(公明)하다, 공정(公正)하다. ④ 현명하다, 사리에 밝다. 슬기롭고 영명하다. 비범하고 총명하다. ⑤ 맑다. ⑥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다.
 - 6) 부념(浮念) : 덧없는 생각, 불안정한 생각.
 - 7) 고전요(苦纏繞) : 몹시 시달리다.
 ① 고(苦) : 여기서는 부사로 쓰이고 있음. ☆은 힘을 다하여. ☆대단히, 매우. ☆다행히도, 운 좋게도.

幽懷⁸⁾安⁹⁾得平。 내심에서 서서히 평정을 얻게 됐네.
유 회 안 득 평

吾聞古聖哲¹⁰⁾， 내가 듣기에 고대의 성철聖哲은,
오 문 고 성 철

體道¹¹⁾能遺形¹²⁾。 도道の 진상眞相 체득體得하여
체 도 능 유 형
능히 육신을 벗어났다네.

獨立¹³⁾宇宙¹⁴⁾間， 드넓은 천지에 초범탈속超凡脫俗하고 나니,
독 립 우 주 간

曠然¹⁵⁾無拘嬰¹⁶⁾。 도량이 넓어져서 얽매일게 없다네.
광 연 무 구 영

至樂¹⁷⁾在方寸¹⁸⁾， 지극한 즐거움도 마음 안에 있으며,
지 락 재 방 촨

② 전요(纏繞) : ☆휘감다, 감돌다(맴돌다), 전(轉)하여, ‘몸에 얽힌 누(累)’, 즉 ‘얽매이다. 속박당하다’는 뜻으로 쓰임. ☆분쟁을 일으키다.

8) 유회(幽懷) : ① 가슴 속 깊이 품은 생각. ② 남모르는 깊은 생각. ③ 내심(內心)에 간직한 정감(情感).

9) 안(安) : ① 서서히, 천천히, 더디게, 느리게. ② 마음이 내키지 않게.

10) 고성철(古聖哲) : 고대의 성철(聖哲)을 가리킴. ‘성철(聖喆)’로도 씀.

성철(聖哲) : ☆비범한 품덕(品德)이나 재지(才智)를 구비한 사람. ☆덕이 높고 총명한 사람. ☆성인(聖人)과 철인(哲人).

11) 체도(體道) : 도(道), 즉 만유(萬有)의 근원 혹은 이법(理法)의 진상(眞相)을 직접 체험하여 이를 통달함.

12) 유형(遺形) : ① 육신(肉身)을 초탈하여 정신이 망아(忘我)의 경지에 이름. 본 시에서는 정도(正道)의 실현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의지의 경지를 가리킴. ② 도교에서는 육신을 버리고 정신은 신선이 되어 하늘을 오르는 것을 가리킴. ③ 시체, 유해(遺骸), 유체(遺體). ④ 사후(死後)에 남은 형해(形骸), 즉 불사리. 형체, 형식.

13) 독립(獨立) : ①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됨. ② 초범탈속(超凡脫俗)하여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대중과 다름을 이룸. ③ 고립되어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이룸.

14) 우주(宇宙) : ① 천지(天地). ② 천하, 국가. ③ 시대. ④ 우주.

15) 광연(曠然) : ① 광활한 모양. ② 활달하고 도량이 큰 것을 형용하는 말. ③ 공허한 모양. ④ 무사한 모양.

16) 구영(拘嬰) : 거리끼고 얽매임.

17) 지락(至樂) : ①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② ‘지악(至樂)’으로 발음하여, ‘아주 훌륭한 음악’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씀.

18) 방촌(方寸) : ① 마음, 생각, 기억, 뇌리. ② 사방 한 치(극히 왜소한 것을 가리킴). ③ 소감, 기분.

千駟¹⁹⁾一毫輕。 사천 필의 말도 한 가닥 깃털같이 가볍다네.
 천 사 일 호 경

亦有學仙侶²⁰⁾， 불로장생不老長生 비법 배우려는
 역 유 학 선 러 도반道伴이 있다면,

飛步²¹⁾棲雲局²²⁾。 쟁걸음으로 선원禪院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비 보 서 운 경

丹田²³⁾養白鴉²⁴⁾， 단전丹田에 흰 까마귀 정기精氣를 모으고,
 단 전 양 백 아

宴坐²⁵⁾窮黃庭²⁶⁾。 입정入靜해서 『황정경黃庭經』을
 언 좌 궁 황 정 깊이 탐구하리라.

- 19) 천사(千駟) : ① 4천 필의 말. 말(馬)이 많음을 이룸. ② 천승(千乘)과 같음. 천승(千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 첫째, 병거(兵車 : 전쟁 때 쓰는 수레) 천량(千輛)의 뜻임. 고대에 병거(兵車) 한 량에 말 네 필을 묶어서 ‘일승(一乘)’으로 간주하였음. 일승(一乘)에는 갑사(甲士) 3인, 보병(步兵) 72인, 거사(車士) 25인이 딸림. 둘째, 전국시대(戰國時代) 제후국(諸侯國) 중에 소국(小國)을 천승(千乘)이라 하고, 대국(大國)을 만승(萬乘)이라 하였음.
- 20) 역유학선러(亦有學仙侶) : 불로장생(不老長生) 비법 배우려는 도반(道伴)이 있다면 : ① 역(亦) : 접속사로서, 가령(만일) ~한다면. ② 학선(學仙) : ‘학선(學僊)’으로도 씀. 도가(道家)의 이른바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비법을 배우다.
- 21) 비보(飛步) : 쟁걸음, 종종걸음, 쾌보(快步).
- 22) 운경(雲局) : ① 높은 산 위의 집의 출입문. 전(轉)하여, ‘높은 산 위의 집’을 가리킴. ② 은사(隱士)의 집 출입문, 혹은 사원(寺院)의 문. 전(轉)하여, 은자(隱者)의 집 혹은 사원(寺院)에 비유함. ③ 구름에 가려진 것을 이룸.
- 23) 단전(丹田) : 배꼽 아래로 한 치 다섯 푼 되는 곳. 아랫배에 해당(該當)하며 여기에 힘을 주면 건강(健康)과 용기(勇氣)를 얻는다고 함. 『동의보감(東醫寶鑑)』과 도가(道家)의 『선경(仙經)』에서는 단전의 공능(功能)을 밝히고 있음. 즉, 수해(髓海)라고 하는 뇌가 상단전(上丹田)이고, 강화(絳火)라고 하는 심장이 중단전(中丹田)이며, 배꼽아래 세 치 되는 지점이 하단전(下丹田)임. 하단전은 정(精)을 저장하는 곳이고, 중단전은 기(氣)를 저장하는 곳이며, 상단전은 신(神)을 저장하는 곳임. 옛 사람들은 정(精), 기(氣), 신(神)을 저장하는 곳으로 생명의 근본을 삼았음. 그래서 그들은 신(神)은 기(氣)에서 생기고, 기(氣)는 정(精)에서 생긴다고 보아, 항상 이를 수련 연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24) 양백아(養白鴉) : 흰 까마귀의 정기(精氣)를 양성한다는 의미임. 옛 사람들은 흰 까마귀를 길조(吉鳥)로 인식하여, 도가(道家)에서는 기공(氣功)을 연공(練功)하면서 길조(吉鳥)의 상징인 백아(白鴉)의 진기를 단전(丹田)에 모아 저장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과 정신 수양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임.

道成謝俗人, 득도得道하면 속인俗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도 성 사 속 인

跨鶴昇青冥²⁷⁾。 백학白鶴을 타고 천상天上으로 올라가리라.
과 학 승 청 명

二者兩無奈²⁸⁾,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이 자 양 무 내 어찌할 수 없는 것,

歲月空崢嶸²⁹⁾。 세월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마는구나.
세 월 공 쟁 영

委³⁰⁾身貧病中, 육신을 가난과 노병老病에 방치하니,
위 신 빈 병 중

25) 연좌(宴座) : ①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입정(入靜). ② 불교에서는 좌선(坐禪)을 가리킴.
③ 환좌(閑坐), 안좌(安坐). ④ 편안히 쉬고 앉아 있음.

26) 황정(黃庭) : ① 도교(道敎)의 경전인 『황정경(黃庭經)』을 가리킴. ② 중앙을 가리킴. 『황정내경경(黃庭內景經)』에서 전설상의 상고시대 인물 무성자(務成子)가 해제(解題)를 쓰기를, ‘황(黃)’이란, 것은 ‘사망의 중앙’이다. 밖으로는 천중(天中), 인중(人中), 지중(地中)을 가리키고, 안으로는 뇌중(腦中), 심중(心中), 비중(脾中)을 가리키는 까닭에 ‘황정(黃庭)’이라 한다고 하였음. ③ 위부인(魏夫人)이 전한 『황정경(黃庭經)』을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가 배껴 썼다는 서첩(書帖)을 가리킴.

27) 청명(靑冥) : ① 선경(仙境), 천상(天上 : 하늘). ② 청천(靑天)을 가리킴. ③ 푸르고 유원(幽遠)함을 형용한 말, 또는 그러한 곳을 이룸. ④ 산봉우리를 가리킴. ⑤ 바닷물을 가리킴. ⑥ 죽림(竹林)이 무성한 모양. ⑦ 직위가 높고 권세가 막강한 것을 비유한 말. ⑧ 궁정(宮廷) 또는 제왕에 비유한 말. ⑨ 고검명(古劍名).

28) 이자양무내(二者兩無奈 :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어찌할 수 없는 것) :
① 이자(二者) :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윗 구절에서 읊은 두 가지 내용, 즉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황정경(黃庭經)』을 탐구하는 것과 백학(白鶴)을 타고 천상(天上)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가리킴.
② 양무내(兩無奈) : 모두 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여기서 ‘양(兩)’은 ‘동시에 두 쪽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말’임.

29) 쟁영(崢嶸) : 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형용한 말. ② 높고 험준한 모양. 탁월한 것을 형용한 말. ③ 흥성하다. ④ 벼슬길에 뜻을 얻다(고위직에 오르다). ⑤ 높고 광활하다. ⑥ 심원(深遠)한 모양. ⑦ 어두침침하다. ⑧ 살을 에듯 춥다. ⑨ 말라빠지다, 앙상하다. ⑩ 성난 파도를 형용한 말. ⑪ 생김새가 흉악하다.

30) 위(委) : 방치하다.

白髮滿頭生。
백 발 만 두 생

백발만 온 머리에 성성하게 생겼네.

獨有北窓下，
독 유 북 창 하

홀로 북쪽 창 아래에 서 있으니,

清風非世情。
청 풍 비 세 정

맑은 바람은 세정世情 같지 않구나.



시119. 도서道書를 읽다

詩119. 讀道書

參同契¹⁾註, 有百刻²⁾之中, 切忌³⁾昏迷⁴⁾之語, 蓋一日百刻,
참동계 주 유백각 지중 절기 혼미 지어 개일일백각
 一月三千刻, 一年三萬六千刻。如使⁵⁾百刻中能不昏昏,
일월삼천각 일년삼만육천각 여사백각중등불혼혼
 則三萬六千刻不昏昏⁶⁾, 可冀也。所謂了得⁷⁾一萬事畢,
적삼만육천각불혼혼 가가아 소위요득 일만사필

- 1) <참동계(參同契)> : 참동계는 아래의 두 종류가 있다.
 - ① 『참동계』란, 동한(東漢)의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칭하는 것으로 이는 도가(道家)의 경전으로 칭해짐. 또한 참동계에서, ‘참(參)’은 참오(參伍)의 참으로서, 섞어 짜맞추다의 뜻이며, ‘동(同)’은 합동(合同)의 동과 같고, ‘계(契)’는 상계(相契)의 계와 통하는 것으로 곧 ‘주역’은 연단술(煉丹術)과 노자(老子)의 대도(大道)와 서로 섞이어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역』의 도(道)는 음(陰)과 양(陽)을 벗어나지 못하고 연단(煉丹)도 음과 양을 벗어나지 못하며, 노자의 대도(大道)라는 것은 음과 양이 합치(合致)한 가운데서 이룩되는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동계’는 『주역』의 도와 연단의 법과 노자의 대도가 하나로 귀결되는 철리(哲理)를 밝혀 놓은 단학(丹學)의 최고 경전(經典)으로 일컬어짐.
 - ② 당(唐)나라 선승(禪僧) 석두희천(石頭希遷 : ?-791년), 즉 무제대사(無際大師)의 저서. 오언(五言) 44구(句) 220자로 된 장편의 고시(古詩)임. 특히 선종(禪宗) 오가(五家)중의 하나인 조동종(曹洞宗)에서는 이것을 중히 여겨 아침마다 불전(佛殿)에서 독송하며 선종학문(禪宗學問)의 기초로 여겼음.
 그 줄거리는 ‘현상(現象)이 곧 실제(實在)’라는 이치를 기록한 것임. ‘참(參)’은 ‘만법(萬法) 차별의 현상’을 뜻하고, ‘동(同)’은 ‘만법 평등의 본체’를 뜻하며, ‘계(契)’는 차별이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차별인 묘용(妙用 : 신묘한 작용)을 뜻함. <시 44>의 주석 2)의 ‘서애주석’ 조항에서 ‘참동계를 참조 바람.
- 2) 백각(百刻) : 고대에는 물시계로 시간을 잴 때 하루를 백각(百刻)으로 나누었음. 시헌력(時憲曆)에서는 15분을 1각(刻)으로 하였고, 그 이전에는 14분 24초 동안을 1각으로 하였음. 시헌력은 태음력의 구법(舊法)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만든 역법으로, 명(明)나라 송정(崇禎 : 1628-1635년) 초기에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조 22년(1644)에 들어 왔음.
- 3) 절기(切忌) : ① 경계(警戒)하는 말로서, 금기(禁忌)하다, 제발 하지 말라. 반드시 피하다(망지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마음이 꺼림직한 것’을 가리킴. ② 심히 중요하다.
- 4) 혼미(昏迷) : 혼미하다, 의식불명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전(轉)하여, ‘글의 뜻이 모호함’을 가리킴.
- 5) 여사(如使) : ① 설사(設使). ② 만약(만일, 가령) ~이라 한다면.
- 6) 혼혼(昏昏) : ① 혼미(昏迷)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글 뜻이 난해하여 모호함’을 이른다. ② 우매(愚昧)하다. ③ 어두침침하다, 음침하다. ④ 시력이 나빠져 흐릿하게 보인다.
- 7) 요득(了得) : ① 깨닫다, 이해하다. ② 뛰어나다, 수완(능력)이 대단하다. ③ 잘 처리하다, 해내다. ④ 완성하다. ⑤ ~해서야 어찌 되겠나.(경야, 힐책, 책망 등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환(還)>과 같이 쓰여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표시함.)

與吾家⁸⁾三月不違仁之功，同一精切⁹⁾。特¹⁰⁾向往處異耳。嗚呼¹¹⁾!

豈易言哉，感而題二絕。

『참동계參同契』를 해석하다보면, 하루 밤낮 내내, 마음에 꺼림칙하거나 피하고 싶은 모호한 어휘가 있기 마련인데, 아마도 1일이면 24시간, 1개월이면 720시간, 1년이면 8,640시간이 되리라. 만약 하루 24시간 내내 능히 (글 뜻에) 멍청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곧 일년 8,640시간을 멍청해지지 않는 것이니,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른바, 한 가지를 잘 해결해내면, 만사를 성취할 수 있으니, 내가 3개월 동안 인선의 수양을 어기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함이 적절하리라. 단지 추구하는 점이 다를 따름이다. 아아! 어찌 ‘역서易書’ 만을 말하겠는가! 느낀 바 있어 여기에 절구絶句 두 수축을 써둔다.

其一
기 일

[1]

須¹²⁾愼昏迷百刻中，
수 신 혼 미 백 각 중

하루 낮밤 내내 반드시 멍해지는
정신 차리려고,

8) 오가(吾家) : ‘아(我)와 같으며, ‘나’ 또는 ‘나 같은 사람’의 뜻임. 이때의 ‘가(家)’는 명사 뒤에 써서 ‘그러한 종류에 속한 사람’의 뜻을 나타냄. 예를 들면, ‘노인가(老人家 : 어른. 어르신네)’, ‘여인가(女人家 : 여자, 여인)’ 등이 있음.
9) 정절(精切) : 적절(적합)하다.
10) 특(特) : 단지, 다만.
11) 오호(嗚呼) : 아아! (슬픔을 나타낼 때 내는 소리).
12) 수(須) : 부사(副詞)로 쓰였음. ① 모름지기. ② 틀림없이. ③ 결국. ④ 마침내. ⑤ 드디어. ⑥ 반드시. ⑦ 잠깐. ⑧ 본래. ⑨ 아아. ⑩ 대략.

此心提掇¹³⁾日生東。
차 심 제 철 일 생 동

마음을 다잡는데 동녘에 해가 뜨네.

直¹⁴⁾將宇宙¹⁵⁾爲田地,
직 장 우 주 위 전 지

실로 천지를 모두 전지(田地)로
여겨야 하나니,

魚躍鳶飛¹⁶⁾上下同。
어 약 연 비 상 하 동

물고기가 연못에서 놀거나 솔개가
하늘을 날거나 본성(本性)따라 사는
이치는 상·하가 동일하다네.

其二
기 이

[2]

天道¹⁷⁾無他只自然,
천 도 무 타 지 자 연

천도(天道)는 다름 아닌
자연일 따름이니,

13) 제철(提掇) : ① 진작(振作)하다, 분발하다, 진하여 마음을 다잡다. ② 제출(提出)하다, 제시하다. ③ 휴대하다. (은사(隱士)를) 초빙하다. ④ 정돈하다.

14) 직(直) : 물론, 참말로, 절대적으로.

15) 우주(宇宙) : ① 천지. ② 천하, 국가. ③ 시대. ④ 우주.

16) 어약연비(魚躍鳶飛) : 이는 물고기와 솔개가 본성 따라 즐겁게 활동하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이 말은 『시경(詩經)·대야(大雅)·한록(旱麓)』에, “솔개는 날아가고(鳶飛戾天), 물고기는 연못에서 놀고 있네(魚躍于淵)”라고 한 구절에서 시작됐음. 『모전(毛傳)』에서는 이 구절에 주(註)를 달아 말하길, “상(上)과 하(下)를 성찰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言上下察也)”고 하였음. 당(唐)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 : 574-648년)은 소(疏)를 달아 말하길, “모씨(毛氏 : 『시경(詩經)』을 전한 한(漢)나라 초기학자)는 ‘대왕(大王), 즉 주(周)나라 기초를 닦은 인물로 주문왕(周文王)의 조부인 고공단보(古公亶父)와 왕계(王季 : 고공단보의 유자(幼子))의 덕정(德政)을 명찰(明察)한 후, 그것을 ‘상(上), ‘하(下)’에 덧붙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테면, ‘상(上), 즉 위로는 솔개가 비상(飛翔)하고, ‘하(下), 즉 아래로는 물고기가 연못에서 즐겁게 헤엄치며 도약한 것을 표현하였다”고 하였음.

후세 사람들은 이 “어약연비(魚躍鳶飛)”란 말을 ‘세간(世間)의 생물은 본성(本性)에 따라 활동하면서 만족하여 즐기는 것을 이르는 것’이란 뜻으로 사용하였음.

17) 천도(天道) : ① 천리(天理), 천의(天意). ② 자연계 변화의 규율을 가리킴. ③ 징조를 나타내는 하늘의 현상을 가리킴. ④ 기후, 천기(天氣). ⑤ 시간, 세월. ⑥ 국세(局勢), 형세. ⑦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六道 : 중생이 업(業)에 의해 생사를 반복하는 여섯 가지의 세계) 중의 하나.

着來毫髮已非天。
착 레 호 발 이 비 천

터럭만큼 가공加工해도 이미
천연상태 아닐세.

光風¹⁸⁾霽月¹⁹⁾無邊地,
광 풍 제 월 무 변 지

비갠 뒤 맑은 바람 밝은 달빛은
변방邊方이 없나니,

只在昭昭²⁰⁾不在玄。
지 제 소 소 부 재 현

(천하가) 온통 빛나는 광명 아래
있을 뿐 어둠 속에 있지 않다네.

18) 광풍(光風) : 비갠 뒤의 맑게 부는 바람.

19) 제월(霽月) : ① 비 개인 날 밤의 밝은 달. ② 풍하게 멎힌 데가 없는 산뜻한 심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소소(昭昭) : 밝은 모양, 빛나는 모양.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에서

작시연도作詩年度가 명기明記된 작품은 병기併記함]

1542(중종中宗 37. 임인壬寅)년

10월 1일 경상도 의성현義城縣 사촌리沙村里 외가에서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류중영柳仲郢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1554(명종明宗 9. 갑인甲寅)년 13세

동학東學¹⁾에서 『중용中庸』·『대학大學』을 강독하다.

강관講官은 크게 칭찬하면서, “반드시 큰 학자가 될 것이다(必成大儒)”라고 하다.

1557(명종明宗 12. 정사丁巳)년 16세

향시鄉試에 합격하다.

1558(명종明宗 13. 무오戊午)년 17세

광평대군(廣平大君 : 세종대왕 아들) 5세손 이경李珣의 딸과 결혼하다.

1560(명종明宗 15. 경신庚申)년 19세

부친의 사택(舍宅)에서 부친 관찰공을 모시고 있다가 가을에 서울로 돌아오다. 여러 친우들과 남계南溪에 놀러 가서 수석水石을 둘러보고, 시를 읊고 탄식하기를, “내가 성인聖人の 문하門下에서 놀게 되었다면(使我得游聖門), 단목씨(段木氏 : 공자 제자인 자공子貢의 성씨)만큼은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端木氏之徒可學而至)”라고 하였다.

1) 사학(四學) 중의 하나임. 조선 중종 때 서울의 동서남북에 학교를 세워 사대부의 자제를 교육시키던 학교임.

10월 관악산에 들어가서 『맹자孟子』를 읽다.

1561(명종明宗 16. 신유辛酉)년 20세

고향에 돌아와서 『춘추春秋』를 읽다.

1562(명종明宗 17. 임술壬戌)년 21세

안동安東 도산陶山에서 퇴계退溪 선생으로부터 『근사록近思錄』을 배움. 퇴계는 “이 젊은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此人天所生也)”라고 하여 선생이 장차 대성할 인물임을 예언하다.

7월 기망(既望 : 음력 매달16일)에 부친 관찰공이 소동파蘇東坡의 적벽강赤壁江 놀이를 주제로 시를 짓게 하자 선생은 즉시 근체시近體詩로 “달 밝고 바람 맑은 창공은 옛날부터 있어왔건만(月白風清空萬古), 이름만 남겨 두고 사람이 떠나간 지 몇 천 년이나 되었는가?(名留人去幾千年)”라고 짓다.

9월 도산陶山에 가서 퇴계 선생을 뵙고, 수 개월을 머물면서 『근사록近思錄』 등을 수업하다. 이때부터 성리학性理學에 전념하며 실천적인 것을 강구하여 성현으로 지표를 삼아, 퇴계의 칭찬을 받다.

금계金溪에 있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찾아가다. 학봉은 선생에게, “우리 들은 퇴계 선생을 모신 지 오래되었으나, 한 말씀도 칭찬받은 일이 없었는데 공은 선생을 한 번 뵈었는데도 선생이 바로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으로, 훗날 반드시 큰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공은 어떻게 스승에게서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소?”라고 하다.

1563(명종明宗 18. 계해癸亥)년 22세

생원生員 진사進士 동당초시東堂初試에 합격하다.

1564(명종明宗 19. 갑자甲子)년 23세

생원生員 회시會試²⁾에 1등, 진사進士에 3등을 하다.

퇴계 선생이 남에게 준 편지에, “이현(而見 : 류성룡의 자<字>)은 빨리 달리는 수레로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나가는 듯하니(而見逸駕啓途), 그 사람 형제의

2) 초시에 급제한 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시험임.

지향志向하는 바가 매우 가상하다(其人兄弟趣向甚嘉)”라고 하다.

황해도에 있는 부친(관찰공)을 가서 뵈다.

1565(명종明宗 20. 을축乙丑)년 24세

대학太學에 들어가다. 문정왕후文定王后(중조中宗의 비妃)가 불심佛心이 깊어 보우普雨가 왕비를 위해 무차회無遮會³⁾를 한 달이 넘도록 열었는데, 왕후가 곤죽계 되자 세간에서는 보우가 무리하게 여러 날 재齋를 올리기를 요구한 것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분개함. 이때, 대학생들도 이에 공감하고 보우를 죽이지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선생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주소奏疏가 수용되지 않자, 그들은 “감히 학관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당적아세黨賊阿世⁴⁾하는 놈으로 지목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선생은 “우리가 임금에게 간하다가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물리서는 건데,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굳이 ‘당적아세’라고 하는가?”라고 하며 반대함. 선생은 대학생들의 반발에도 굽히지 않고, 이를 ‘점신오명玷身汚名⁵⁾’이란 낙 자로 바꾸었음.

1566년(명종明宗 21. 병인丙寅)년 25세

문과에 응시, 병과(丙科⁶⁾)에 합격.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로 임명되다. 봄에 정주定州 목사牧使로 부임하는 부친 관찰공觀察公을 모시고 갔다가 여름에 귀가함. 황강黃岡을 지나던 중, 그날 밤 꿈에 형님인 겸암공謙巖公이 병들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함. 이때 사실 겸암공이 병들어 고향에 머물러 있었음.

서에는 평소 관직에 뜻이 없었으나, 부친과 형님의 명으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하였음. 그러나 관직을 맡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고자 하였음. 퇴계 선생이

3) 무차대회(無遮大會)라고도 함. 이의 뜻은 성범(聖凡)·도속(道俗)·귀천·상하의 구별 없이 일체 평등으로 재시(財施)와 법시(法施)를 행하는 대법회를 말하는 것임.

4) 당적아세(黨賊阿世) : ‘적의 편이 되고 세대에 아부하다’는 뜻임.

5) 점신오명(玷身汚名) : ‘몸에 흠집을 내고 이름을 더럽히다’는 뜻임.

6) 병과(丙科) : 조선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 문과(文科)에서는 23명, 무과(武科)에서는 20명을 뽑아 정9품의 품계를 주었으며, 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임시직인 권지(權知)에 임명하였음.

고려 숙종 이후에 제조과(製造科)에 합격한 사람을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둘째. 모두 7명을 뽑았음.

그런 말을 듣고 겸암공에게 “그대의 아우는 처음으로 과거에 합격했건만(更憐賢季初攀桂), 얼마에게 될 세상일에서 벗어나려는 뜻이 더욱 가상하다네(萬事將纏欲脫纏)”라는 시를 보내음.

이 시기에 5언고시古詩와 7언절구絶句의 시詩가 보임.7)

1567년(명종明宗 22. 정묘丁卯 : 선조宣祖 즉위 해임)년 26세

봄에 정자正字로 승진되고,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에 가서 관찰공觀察公을 문안함.
4월,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겸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을 임명받고 조정에 돌아오다.

6월, 명종 서거.

8월, 고향에 가는 퇴계 선생 전승. 광진廣津까지 가서 송별시를 짓다. 자문점마참文點馬⁸⁾로 의주에 가던 중에 정주定州에 들러 관찰공을 문안하다.

10월, 조정에 돌아오다.

1568년(선조宣祖 1. 무진戊辰)년 27세

2월,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에 가서 부친 관찰공을 뵈다. 정관재靜觀齋에서 7언절구絶句의 설리시說理詩 한 수를 지음.9)

가을에 왕명을 받아 성주星州로 가서 포사(曝史 : 사책史冊을 벌에 쬐고 바람을 쏘이는 일)함. 이때, 성주로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 하외(河隈 : 지금의 명칭은 하회河回邑)에 있는 겸암공謙巖公을 찾아보다.

1569(선조宣祖 2. 기사己巳)년 28세

10월, 사헌부司憲府 감찰이 되어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 : 정사正使는 이 후백李後白)으로서 명나라 연경燕京에 가다. 이때에 명의 태학생 수 백 명이 왕양명王陽明과 진백사陳白沙의 학문을 주장한데 대하여, 선생은 설문청辭文淸이 정통유학의 종주宗主임을 주장하여 감탄과 존경을 받다. 또한 궁중서열에

7)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의 <시 1>과 <시 2>일. 이하에서는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의 표기는 생략하고, <시 1>과 <시 2>식으로 약기(略記)함.

8) 자문점마(咨文點馬) : 자문이 왕래할 때 사용하는 말(馬)을 점검하는 책임자임.

9) 설리시(說理詩)란, 사물의 규율이나 이치를 추구하거나 중시하여 읊은 시를 말하는 것임. <시 4>를 참조 바람.

서 유생儒生을 도사道士와 승도僧徒의 뒷줄에 세우는 잘못을 지적하여 즉석에서 시정正하게 함으로써, 명나라 조정을 놀라게 하다.

선생의 이러한 발언과 풍모에 감동한 신안新安 출신 관료, 오중주吳仲周가 옥하관玉河館으로 선생을 찾아와서 호의를 표하자, 선생은 퇴계 선생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보여 준다. 선생이 돌아올 때 오공똥공이 서序를 곁들인 송별시送別詩를 지어줌.¹⁰⁾

또한 부채에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팔분서체八分書體¹¹⁾로 ‘국경의 성문이 있는 산에서 석별의 정을 표한다’는 의미의 ‘관산별의關山別意’란 네 글자를 써서 주자, 선생은 그 운韻을 달아서 화답함.¹²⁾

1570(선조宣祖 3. 경오庚午)년 29세

3월, 연경燕京에서 돌아온 후 병조좌랑兵曹佐郎 겸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에 임명되다. 봉당의 징후를 아뢰던 전영의정前領議政 이준경李浚慶의 유차遺箚¹³⁾를 문제 삼아, 그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지는 공론이 크게 일었으나, 선생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이를 저지함.

1571(선조宣祖 4. 신미辛未)년 30세

3월, 예안禮安에 가서 퇴계 선생 장례식에 참석하다.

조정에 돌아와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임명됨.

가을에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뵈다.

낙동강洛東江 서쪽 언덕, 서애西厓에 서당을 지으려 하다가 터가 좁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로써 스스로 ‘서애西厓’로 호를 삼다.

가을, 5언고시古詩, 〈기몽記夢〉¹⁴⁾을 지음.

10) 〈시 11〉 뒤의 부록으로 첨부한 〈중주원운(仲周元韻)〉을 참조 바람.

11) 팔분서체(八分書體) : 예서(隸書)와 전자(篆字)를 절충하여 만들어진 서체(書體)의 하나.

12) 〈시 11〉의 2수와 〈시 99〉를 참조 바람.

13) 유차(遺箚) : 임종 직전 준경이 부르고 아들이 받아 적어, 선조에게 올린 네 가지 조목의 유차(遺箚)임.

14) 〈시 7〉을 참조 바람.

1573(선조宣祖 6. 계유축酉)년 32세

4월, 아들 위樞가 태어나다.

7월, 부친 류중영柳仲郢(황해도 관찰사)의 상을 당하다.

11월 천등산天燈山 금계金溪에 장사 지내고, 하외河隈¹⁵⁾로 와서 반곡返哭하다. 모두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따랐음. 겸암공과 번갈아 산소 옆을 지키고, 아침·저녁으로 성묘하였으며, 초하루·보름 때면 반드시 돌아와서 영좌靈座에 전奠을 올렸음.

1575(선조宣祖 8. 기해己亥)년 34세

상복을 벗다.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음.

겨울에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으나 또다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음.

1576(선조宣祖 9. 병자丙子)년 35세

1월,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소명召命을 받고 부임하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옴.

원지정사遠志精舍가 완성됨¹⁶⁾. 정사精舍는 마을 북쪽 강 언덕 위에 있으며 다섯 칸이며, 기문記文이 있음.

4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조정에 돌아오다.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에 전임되었고, 또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지만,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옮겨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찾아뵈다.

12월, 홍문관弘文館 부응교副應教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충청도와 경상도 중에 조그마한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 65세의 노모老母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하였으나, 윤택 받지 못함.

15) 하외(河隈) : 지금은 하회河回(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로 칭하고 있음.

16) 원지정사(遠志精舍) : 중요민속자료 85호. 이 정사(精舍)는 서애(西厓)가 32세 때(선조 6,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임.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임.

1577(선조宣祖 10. 정축丁丑)년 36세

1월,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에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뵙다.

2월, 군위軍威의 선산先山을 찾아가 성묘함.

여름에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상소上疏로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택 받지 못함.

여강서원廬江書院의 퇴계 선생 봉안문奉安文을 지음.

구도求道에 대한 향심向心을 표현한 시가 보임.¹⁷⁾

1578(선조宣祖 11. 무인戊寅)년 37세

봄에 휴가를 얻어 안동의 노모를 뵙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4월, 〈원지정사기遠志精舍記〉를 씀.

7월, 아들 여씨가 태어남.

8월,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뵙다. 또한 같은 달, 남행하는 길에 동호東湖에 위치한 몽퇴정夢臺亭에서 지인知人들과 하룻밤을 묵고 길을 나설 때 5언을시로, 유별시留別詩를 지어줌.¹⁸⁾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서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教에 임명되다.

선생이 옥당玉堂에 있을 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불러 하외河隈의 산수도를 그려 그것으로 어머니 생각과 고향 생각하는 뜻을 붙임.

1579(선조宣祖 12. 기묘己卯)년 38세

봄에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다.

4월,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에 임명되다. 과거에는 승정원에서 쓰는 종이가 넓고 두꺼워서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선생이 건의하여, 한 달분의 양을 규정하여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이의 품질을 두껍지도 넓지도 않게 하자, 백성들이 그것을 편하게 여김.

17) 〈시 14〉를 참조 바람.

18) 〈시 15〉를 참조 바람.

7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뵈다.

왕께서 본도本道에 음식물을 대접하라고 명함. 이번 길에 광중宏仲 이덕홍李德弘과 함께 배를 타고 〈논학유감論學有感〉이란 7언절구의 시 두 편을 지음.¹⁹⁾ 겨울에 다시 승지承旨에 임명되다. 상소하여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희 받지 못함.

1580(선조宣祖 13. 경진庚辰)년 39세

선생은 노모를 봉양하고자 해마다 관직을 사양하였으므로, 선조宣祖는 이때에 마침 상주목사尙州牧使가 결원缺員이 되자 이조吏曹에 물어 상주에서 안동까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임을 파악하고 선생을 상주목사尙州牧使로 특명하여, 노모를 모시도록 하다. 선조는 “그대에게 상주목사를 시킨 것은 이웃 고을 관리들이 본반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以爾爲尙牧欲使隣官取法耳)”라고 하다.

선생은 입지에서 마을마다 초학자初學者를 교육시키는 교관과 향약鄉約²⁰⁾을 실행하는 유사有司를 선출하여 글로써 깨우쳤는데 대략 오륜五倫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할 일로 삼다. 선생은 또한 몸소 향교의 명륜당에 나아가 그곳 서생書生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우복愚伏 정경임鄭景任을 위시한 여러 제자들에 의해 훗날 상주지역의 퇴계학맥과 서애학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이임離任할 때는 이 고을 사람이 비석을 세워서 선생의 공덕을 칭송하고 또한 생사당生祠堂을 세우려하자, 선생은 친한 이에게 글을 보내어 이를 저지시키다. 10월, 아들 단襦이 태어나다.

19) 논학유감(論學有感) :

- 제1수 : 수많은 성인(聖人)이 전한 심법(心法) 탐구할만한 도이건만(千聖傳心道可求), 십 년이나 벼슬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네(十年塵路未回頭).
늦가을 강 와 보고서야 한없이 감탄했나니(相逢絕歎秋江晚),
그대 따라 노를 저어 원류(源流) 찾아 가고 싶네(理棹從君欲泝流).
- 제2수 : 대도(大道)는 본디부터 두 갈래가 아니건만(大道由來不二門),
애답도다 후학(後學)들은 공론(空論)만 일삼네(堪憐末學逞空言).
참된 실체(實體)를 명백히 드러내야 할지니(居然漏泄眞消息),
물고기 물에 놓고 술개가 하늘 날음은 모두 하나의 이치란 걸!(魚躍鳶飛擲一源).

20) 〈시 16〉, 주석 2)의 ②번 ‘유규(遺規)’ 조항을 참조 바람.

1581(선조宣祖 14. 신사辛巳)년 40세

다시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오다. 상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휴를 받지 못함.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뵙고 가을에 조정으로 돌아오다.

고향에 있을 당시 마침 정사精舍에 매화가 피기 시작하여 그 주변을 거닐며 시를 읊는데 승려가 시 한 수를 요구함에 지어줌.²¹⁾

선생은 고향에 다닐 때마다 반드시 민폐를 널리 조사하여, 조정에 돌아오면 언제나 이를 보고함.

무빙차자無氷箭子 10조목을 올리다.

왕명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지어 올리다.

1582(선조宣祖 15. 임오壬午)년 41세

봄, 시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다. 이때 휴가를 얻어 고향에 있던 중에 소환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당시 대사간으로 소환되어 가는 길에 문경聞慶에 숙박하면서 7언율시 한 수를 지음.²²⁾

7월, 아들 진진이 태어나다.

겨울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에서 도승지都承旨로 특진되다. 명나라 사신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예외와 법도에 준하는 처사로, 선조와 명의 사신 양쪽에 모두 찬사를 받음. 사신이 떠난 후, 선생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승진되다.

왕명으로 『황화집皇華集』 서문을 지어 올림.

1583(선조宣祖 16. 계미癸未)년 42세

1월,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구경언의九經衍義』의 발문跋文을 지음.

5월, 당론黨論이 격화되어 귀향하다.

가을, 정사精舍에서 번잡한 세상사를 우려하며 7언절구 한 수를 짓다.²³⁾

21) <시 17>을 참조 바람.
22) <시 18>을 참조 바람.
23) <시 22>를 참조 바람.

10월,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다. 다시 상소로 사양했으나, 윤휴 받지 못함.

1584(선조宣祖 17. 갑신甲申)년 43세

8월, 왕명으로 『문산집文山集』²⁴⁾ 서문을 지어 올림. 승진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에조판서禮曹判書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임명되다. 각처에 향약鄉約²⁵⁾을 반포하여, 효제孝悌와 예양禮讓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본으로 삼다.

성리학性理學의 ‘이설理說’을 세워 퇴계 선생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고택故宅을 바라보면서 그를 애도하는 7언절구絶句를 지음.²⁶⁾

1585(선조宣祖 18. 을유乙酉)년 44세

3월, 왕명으로 『정충록精忠錄』 발문을 짓다.

4월, 맏아들 위禕가 죽다.

의주목사義州牧使 서익徐益이 “정여립鄭汝立²⁷⁾이 이이李珣에게 보낸 글에서 류성룡을 들어서 크게 간악한 자”²⁸⁾라는 지적을 하자, 선생은 스스로 자신을 탄핵하는 ‘물러나야할 5가지’ 이유를 써서 주청하였으나, 윤휴 받지 못함.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뵈다.

20년 전(서애 24세일 때), 선생이 태학생太學生이었을 당시에 보우普雨 승려가

24) 송(宋)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문집(文集).

25) <시 16>, 주석 2)의 ②번 ‘유규(遺規)’ 조항을 참조 바람.

26) <시 23>을 참조 바람.

27) 조선 중기의 역신(逆臣) 정여립(鄭汝立 : 1546-1589). 자는 인백(仁伯). 수찬(修撰)을 지냈음. 정권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고 도참설을 퍼뜨려 모반을 꾀하려다 탄로가 나자 도주하여 자살하였음.

28) 선생의 자기탄핵 상소에 의하면, 10년 전, 반란자 정여립이 자신의 견해(사마광(司馬光)의 사관(史觀)인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를 주자의 성리학보다 낫다고 하여 이를 좋게 보지 않았는데, 당시 그의 명망이 높아 모두들 그를 요직에 발탁하려 하였음. 오직 이경중(李敬中)만이 적극적으로 배척했음. 그러나 외부의 여론이 ‘이경중이 훌륭한 사람을 질투한다’고 떠들어 대어서 이경중을 이조에서 추방하였음. 그러나 선생은 전일의 견해로 정여립의 사람됨을 좋게 여기지 않았고, 선생의 동료들도 이경중의 말을 긍정하게 되자, 이에 정여립이 호남에 있을 때 서울 사람에게 보낸 글에서, 서애를 지적하여 ‘큰 간악[巨奸]’이라 함이, 서익(徐益)의 상소에서 거론되었음.

개최한 무차대회無遮大會가 문정왕후文定王后的 죽음을 초래했다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가 선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야기됐던 파문을 상기想起하며 7언절구를 지음.²⁹⁾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문집을 교정校正하고 그 발문跋文을 지음.

1586(선조宣祖 19. 병술丙戌)년 45세

봄에 예조관서를 사임하고 귀향 중 문경聞慶에서 숙박을 한 후, 현감 허행원許行遠의 전송을 받으면서 7언율시로 작별을 함.³⁰⁾

3월,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서 직명職名 취소를 주청奏請하다.

군위軍威의 선영 남쪽에 위치한 남계서당南溪書堂이 완성되다.³¹⁾

남계에서 인동현仁同縣으로 가서 노모를 뵈다. 이때 겸계공이 임지在地인 인동현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은 하회에서 인동까지는 거리가 조금 먼 관계로 이와 가까운 남계南溪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시종들을 시켜서 문안을 드리게 하고, 자신은 10일마다 한 차례씩 문안을 드렸음.

옥연서당玉淵書堂이 완성되다. 선생이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지은 뒤에 오히려 마을과 너무 가까운 것을 한탄하여 북담北潭에다 자그마한 집을 지어 거기에서 늙을 계획을 하다. 마침 탄홍聽弘이란 승려가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자청하여, 곡식과 비단帛을 투자함. 그런 뒤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는데, 이름은 ‘옥연玉淵’이라 하다. 정사잡영精舍雜詠과 기문記文이 있음.

야은治隱 길재吉再 선생 ‘지주중류비砥柱中流碑’의 음기陰記³²⁾를 지음.

구백담具栢潭의 부고를 받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7언율시律詩의 애도시哀悼詩가 있음.³³⁾ 제문과 만사挽詞도 있음.

1587(선조宣祖 20. 정해丁亥)년 46세

29) 〈시 25〉를 참조 바람.

30) 〈시 28〉을 참조 바람.

31) 남계의 12절경을 5언절구로 읊음. 이 시는 소서(小序)가 없어 작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본 시집에 관련시가 있음을 알림. 즉 〈시 52〉를 참조 바람. 또한 이해에 남계정사 학생들에게 시 한 수를 지어 부침. 〈시 29〉를 참조 바람.

32) 음기(陰記) : 비갈(碑碣)의 등 뒤에 새긴 글.

33) 〈시 34〉를 참조 바람.

3월, 입궐하라는 소환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오다. 또다시 수차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음. 이때 7언절구로 <제거독역齋居讀易>을 지음.³⁴⁾ 입궐하라는 명을 받고 용추龍湫폭포에 이르러 5언절구를 지음.³⁵⁾ 퇴계 선생의 문집을 편차編次하다.

1588(선조宣祖 21. 무자戊子)년 47세

동경연同經筵으로 부름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오다. 여러 번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음.

5언절구시 <연좌루 추사燕坐樓秋思>를 짓다.³⁶⁾

선생이 하회河回에 있을 때, 학기學己가 찾아옴. 때마침 정사(玉淵精舍)에 국화가 활짝 피어 있어, 국화시를 지어서 그에게 보임.³⁷⁾

10월, 형조판서刑曹判書 겸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겸하다. 선조를 인견하고 학문을 토론하는데, 선조가 왕양명王陽明의 ‘치양지致良知’와 ‘심즉리心卽理’의 학설을 질문하면서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같이 여김. 이에, 선생이 상세하게 설명하니, 선조는 “학문은 마땅히 정자程子나 주자朱子를 종사宗師로 삼아야지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함.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지경연知經筵 춘추관春秋館·성균관사成均館事를 겸하게 하여, 다시 사양의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589(선조宣祖 22. 기축己丑)년 48세

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병조판서兵曹判書 겸무의 임명을 받다.

6월, 왕명으로 『효경대의孝經大義』의 발문을 짓다.

34) <제거독역(齋居讀易)> :

초라한 서재에서 주역 읽다 우둔함을 자탄하며(窮簷讀易歎吾迷), 새벽같이 일어나 탐구하다보니 어느새 해가 지네(晨起研劘至日西). 복희와 문왕 소식이 멀리 있다 하지 마시게나(莫道義文消息遠), 창밖에서 봄철의 새들이 그 정황을 지저귀거늘(隔窓春鳥數*聲啼).

*수(數) : 底細(상세한 정황. 내막, 사정, 진상, 경위).

35) <시 35>를 참조 바람.

36) <시 33>을 참조 바람.

37) <시 92>의 소서(小序)에 보임.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뵙다.

7월, 부인 이씨가 세상을 떠다.

9월, 안동으로 가는 부인의 상여를 전송함. 이때 선생은 일본 사신使臣이 도성都城 아래에 와서 있었던 관계로, 통신사通信使를 물색하느라고 친선新川까지 상여만 전송하고 돌아옴.

또 예조판서에 임명되다.

10월, 정여립鄭汝立의 역모 옥사가 일어나다. 이로 인해, 여러 번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윤휴를 받지 못함.³⁸⁾

이때 위관委官이었던 정철鄭澈이 옥사를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하여 선비들이 많이 연루되었는데, 선생의 상소로 오히려, 이경중李敬申의 관작은 올려 주었고 무고를 당한 명사名士들은 차츰 풀려나게 되었음.

28세 때 성절사聖節使 일행에서 서장관書狀官의 임무를 띠고 북경에 갔을 때, 교우交友하게 된 신안현新安縣 출신 오중주吳仲周라는 관료를 지금껏 20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듣지 못하여, 당시의 추억을 떠올려 시를 지음.³⁹⁾

38) 1. 연루된 이유 : 선생이 고향에 있으면서 여러 번 선조(宣祖)의 부름을 받고도 부임하지 않자, 백유양(白惟讓)이 조정에 나오도록 권하라는 뜻으로, 정여립(鄭汝立)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침 이때, 정여립의 옥사가 일어나면서, 그 글이 조정에 입수되어 백유양의 진술에서 선생의 성명이 나옴. 이 때문에 선생은 체임(遞任)시켜 주기를 여러 번 청했으나 윤휴 받지 못함. 44세 연보를 참조 바람.

2. 선생이 스스로 죄인임을 탄핵한 상소 요점 :

첫째, 10년 전, 반란자 정여립(鄭汝立)이 자신의 견해(사마광(司馬光)의 사관(史觀)인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를 주자의 성리학보다 낫다고 하여 좋게 보지 않았음. 당시 그는 명망이 높아 모두들 그를 요직에 발탁하려 하였지만, 이경중(李敬申)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배척했음. 결과 이경중은 이조에서 추방되었고, 서에는 정여립으로부터 ‘큰 간악[巨奸]’으로 지적을 받아, 서익(徐益)의 상소에 거론됨.

둘째, 이를 계기로 서에는 농촌에 몰려나 있게 됨. 이제 보면 정여립의 간악한 죄상(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해서, 매달 사회(射會)를 열어 세력을 확장한 관계로, 1587년 <선조 20>년에, 왜선이 전라도 손죽도(損竹島)를 침범했을 때, 전주부윤 남언경(南彦經)의 요청으로 대동계를 동원해서 왜구를 격퇴하였음. 이후 대동계 조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신립(申唳)과 함께 병조판서 살해로 병권을 장악하기에 이르게 됨. 정철(鄭澈)을 위관(委官)으로 하여 이 사건을 조사처리하게 되자, 기축옥사(己丑獄死)로 이어졌음을 미리 안 사람은 이경중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선생은 그의 기미를 엿보면서도 간악한 진상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귀양 가게 되더라도 달게 받겠고, 만약 농촌으로 몰려나 앉아 죄과를 반성하게 해주면 다행으로 여기겠다는 것임.

39) <시 99>를 참조 바람.

1590(선조宣祖 23. 경인庚寅)년 49세

3월, 황윤길黃允吉, 김성일金誠一 등을 통신사通信使로 보내어 왜국倭國의 정세를 살펴오게 하다.

4월, 휴가를 얻어 노모를 가서 뵈다. 선조는 서애의 노모에게 내전(內殿 왕비)의 옷을 내리고, 또한 노모를 서울로 모셔와 봉양토록 하다.

5월,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고 이조판서를 겸하다. 명나라에 오기諛記된 조선 왕조 종계宗系를 바로 잡은 공로로 광국공신光國功臣,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으로 서훈敍勳되다.

1591(선조宣祖 24. 신묘辛卯)년 50세

2월, 좌의정佐議政에 오르고, 여전히 이조판서를 겸무하다. 선생은 조정의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왜국의 침공侵攻 조짐을 명나라에 통고하도록 하다.

7월, 왜란倭亂에 대비해서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천거하여 정읍현감井邑縣監 이순신李舜臣을 전라도 좌수사左水使로, 형조정랑刑曹正郎 권울權慄을 의주목사義州牧使로 임명토록 하다.

그 전부터 써오던 진관제鎭管制⁴⁰)를 다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대론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함.

1592(선조宣祖 25. 임진壬辰)년 51세

3월, 『중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이란 병서兵書를 저술하여 이순신에게 보내어, 실전實戰에 활용토록 하다.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좌의정佐議政으로서 특명으로 병조판서兵曹判書 겸 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광해군光海君을 왕세자로 책봉冊封하도록 계청啓請함. 『근왕애통교서勤王哀痛教書』를 널리 반포하고, 왕자들을 각도各道에 파견하여 근왕병勤王兵을 소집하도록 주청함. 경상慶尙 우병사右兵使 김성일金誠一을 사면할 것을 주장하여 윤희를 받다.

40) 진관제(鎭管制) : 자신의 지역은 자신이 책임지는 조선시대의 지방방위조직. 이전의 방위체제는 각 지역에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크고 작은 진을 설치해 지역단위로 방어하는 군사편성제도임.

5월, 왜병의 도성都城 침입이 임박하여, 왕을 모시고 개성開城에 이르자, 영의정領議政으로 임명되었으나, 일부의 모함으로 그날(5월 2일)로 파직되다.⁴¹⁾ 동과역東坡驛에서 “만약 조선 8도가 모두 함락되면 명나라에 가서 하소연해야 한다(若八路俱陷便可赴愬王朝)”는 공론에 “선생은 안 된다고 하면서(公曰不可)”, “어가가 만약 이 강산을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다면(大駕離東土一步地), 조선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朝鮮非我有也)”라고 극력 반대하여, 국내 향전 태세를 굳힘.

6월, 풍원 부원군豊原府院君으로 다시 서용敍用됨. 평양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윤희를 얻지 못함. 함경도로 거동하지는 공론公論을 극력 반대하여, 의주義州로 파천播遷토록 함. 평양까지 침공한 왜군의 전방前方을 막고 후방을 차단하여, 포위하는 유격진遊擊戰을 지령함.

9월, 군수물자의 보급과 명나라 장관將官들의 접대임무를 맡다. 건주위建州衛(청 태조 누루하치)가 구원병을 보내주겠다는 제의提議를 거절하도록 주청하다.

12월, 평안도平安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됨. 왜군의 간첩인 김순량金順良 등을 잡아 처단하여 근거누설을 예방하다. 명명의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안주安州에서 회견할 때, 선생은 소매에서 평양지도를 꺼내어 형세와 군사들의 진입로를 지시하자, 제독이 붉은 붓으로 표시하며, “적이 내 눈에 환하게 보인다(賊在目之中矣)”라고 말함에, 평양탈환을 협의함. 선생이 물러간 후 제독은 부채에다 7언을시를 써서 보내음.⁴²⁾

41) “신은 이산해(李山海)와 더불어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국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습니 다. 그런데 지금 이산해는 이미 파직되었는데 신만이 여찌 감히 스스로 무죄라고 해서 정승으로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대죄를 청함.

42) 이여송(李如松 : ?-1598년)의 시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압록강 건넌 것은(提兵星夜渡江干),
 조선이 불안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네(爲說三韓國未安).
 명철한 황제께서 날마다 승첩보 기다리시니(明主日懸旌節報),
 미천한 신하는 밤마다 즐기던 술도 끊어버렸네(微臣夜釋*酒杯歡).
 봄인데도 살기가 돌지만 마음은 되레 장쾌하니(春來殺氣心猶壯),
 이번 길에 요귀들 뺏속까지 서늘하게 해주리라(此去妖氛骨已寒).
 웃으며 장담하노니 감히 승산 없다 하겠는가(談笑敢言非勝算),
 꿈에서도 언제나 출정만을 생각하네(夢中常憶跨征鞍).

*석(釋) : 쾌기하다. 방치하다.

1593(선조宣祖 26. 계사癸巳)년 52세

1월, 명군明軍과 협력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다. 호남에서 운송되어 온 곡식으로 기민飢民을 구제해줄 것을 주청하여 시행토록 하다.

3월, 임진강臨津江에 칩으로 다리浮橋를 놓아 대군大軍을 건너게 하다. 충청·전라·경상 삼도三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4월, 선생은 이여송李如松의 대왜對倭 강화講和 교섭에 항의했으나 명군明軍이 일방적으로 정전停戰하여, 왜군이 철수하자 명군과 함께 서울을 수복하다.

선생은 이여송의 의중을 파악한터라, “명나라를 믿을 수 없으니 자주적自主的으로 국방력을 강화하자”고 건의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장정壯丁을 모집했으며, 조총鳥銃과 대포 등의 화기火器도 증강增強하였음.

6월, 왕명을 받고 영남에 내려가다가 안동에 계신 노모를 문안하다.⁴³⁾ 문안을 드리고 죽령竹嶺의 신림원新林院에 도달했을 때, 본도本道(원래 근무하던 도〈道〉란 뜻으로, 여기서는 ‘충청도’를 가리킴)에 체류하라는 명을 받고 여러 장수들을 단속해 놓은 다음, 신림원新林院에서 청풍현淸風縣으로 돌아온 후, 한벽루寒碧樓에서 업무로 인한 느낌을 7언율시로 표현함⁴⁴⁾.

7월,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본 뜬 군병 훈련을 실시하도록 건의하다.

8월, 압록강 연안沿岸의 중강中江에서 우리나라의 소금·철·은·면포綿布·동銅 등과 중국의 양곡糧穀을 교역하도록 해서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다.

9월, 왕명으로 다시 행재소行在所로 돌아오다.

10월, 선조宣祖를 모시고 환도還都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설치를 주청하다. 훈련도감訓練都監 도제조都提調를 겸무함. 계사啓辭를 올려, 변응성邊應星을 경기좌방어사京畿左防禦使로 임명하여 용진에 주둔시키기를 청함.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다.

윤월 11월, 조선을 더 이상 구원할 뜻이 없는 명명은 사신으로 사헌司憲을 파견하여 우리의 국정國情을 살피고, 명명은 왜군을 물리쳐 줄 것만을 바라는

43) 처음에 겸암공이 대부인을 모시고 난을 피하여 관동(關東)을 전전하다 태백산 아래 이르렀는데, 이때 와서 처음으로 인편과 길이 통하여 선생이 찾아가 문안을 드림.

44) 〈시 65〉를 참조 바람.

선조를 퇴위시키고, 직접 통치를 강요하겠다는 국서國書를 보내 왔으나, 선생이 이를 극력 반대하여 물리침. 선생의 충성심과 지략智略에 감탄한 사헌司憲은 선생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山河再造之功)이 있다”고 선조에게 극구 찬양하며 선생으로 하여금 국사國事を 전관專管토록 하라는 말까지 함. 결과 선조 양위讓位 사건이 무마됨.

1594(선조宣祖 27. 갑오甲午)년 53세

3월, 진관법鑑管法을 다시 쓰기로 하여 국민군國民軍 제도를 확립시키다.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으로 대신하여 바치도록 하고, 소금을 증산增産해서 이를 전매제專賣制로 하여 군량미를 확보토록 하다. 민심의 안정이 난국을 수습하는 기본임을 역설하여, 민생民生을 돌보는 안집도감安集都監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로 임명되다.

4월, 폐병을 앓아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석상서石尙書⁴⁵⁾가 참장參將 호택湖澤을 보내어 차부箭付로 본국의 대신大臣을 유시諭示하지⁴⁶⁾,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선생은 병중病中에 차자箭刺를 올려 재상宰相을 보내 왜적의 정세를 진주陳奏할 것을 청하다.

5월, 지방관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해이해진 관官의 기강을 쇄신하도록 건의하다.

6월, 대신을 명나라로 보내어 왜군의 동정動靜을 알리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다. <군국기무십조軍國機務十條>를 올림.

7월, 연병사무鍊兵事務를 병조兵曹에서 전담토록 하다. 문벌門閥·신분身分·출신지出身地의 차별 없이 총포銃砲·도검刀劍·기기器械·수학數學·광업鑛業·주철鑄鐵·화약火藥·제염製鹽 등에 유능한 인재를 널리 등용하도록 건의하다.

선생은 당시의 다사다난했던 시국時局의 구심점에서 시정가施政家로서 혹은

45) 석상서(石尙書) :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병부 상서(兵部尙書)를 지낸 석성(石星)을 말함. 동명(東明) 태생으로 자는 공신(拱宸)이며,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조정에 구원을 요청한 조선 정부를 적극 지원하였으나, 뒤에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어 죽었음.

46) 이때 중국 조정은 왜적이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는다고 천하의 병력을 다 동원할 수 없으니, 왜적의 요청에 따라 조공을 허락하고 군사를 해체할 것을 요청함. 석상서(石尙書)가 이 논의를 주장했으나 과도관(科道官)이 이를 공박하여 송경략(宋經略)은 이로 인하여 파직되어 돌아갔고, 시랑 고양겸(顧養謙)이 대신 왔었음.

군략가軍略家로서 쉽지 않았던 자신의 처세를 잡언체로 농 삼아 지어서 전하고 있음.⁴⁷⁾

1595(선조宣祖 28. 을미乙未)년 54세

1월, 한강 유역에 둔보屯堡⁴⁸⁾를 구축하고, 둔전병屯田兵 제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소疏를 올려 기축년己丑年(1589)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에 억울하게 죽은 이의 오명을 씻어줄 것을 건의하다.

10월, 휴가를 얻어 귀향하려고 여주驪州에 이르렀다가 소명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오면서, 노모가 계신 남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경기·황해·평안·함경 사도四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사도순찰사四道巡察使에게 군병軍兵의 교련을 유시諭示함.

11월, 관영官營의 제철장製鐵場을 설치하여 대포와 조총을 제조하도록 하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순시하고 승장僧將 사명대사四溟大師(惟政)에게 성책을 쌓고 창고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다.

과사성婆娑城에서 승병장僧兵將 의엄義嚴 장로에게 7언을시를 써줌.⁴⁹⁾

1596(선조宣祖 29. 병신丙申)년 55세

1월, 군사를 훈련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여 사도四道에 반포하다.

2월, 건주위建州衛⁵⁰⁾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변北邊의 방위를 강화할 것을 평안·함경 양도兩道 순변사巡邊使에게 지령하다.

3월, 청명清明에 금계金溪의 선영을 참배하다.

5월, 조원도趙完堵라는 자가 상소하여, “선생이 그의 아버지 조헌趙憲이 당연하게 얻을 군공을 업뎃었다”고 하자, 선생은 “신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47) 〈시 66〉을 참조 바람.

48) 둔보(屯堡) : 군대의 기능과 일반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마을.

49) 〈시 68〉을 참조 바람.

50) 건주위(建州衛) : 중국 명나라 성조(成祖)인 영락제(永樂帝) 때에, 남만주(南滿洲)의 건주(建州)지역에 사는 여진족(女真族)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군영. 이후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으며, 건주좌위(建州左衛)와 건주우위(建州右衛)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건주 삼위(三衛)가 되었음.

남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어, 직접 이름을 들어 배척받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신이 평소에도 남에게 가볍게 보인 소치이니, 외람되나 신의 관직을 체면(體面) 해 주소서”라고 사직(辭職)을 주청했으나, 윤희 받지 못한.

윤궤 8월, 선조가 대신에게 명하여 동궁(東宮)에게 청정(聽政)하게 하자 선생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문 앞에서 한 달 남짓 복합(伏閣⁵¹)하여, 윤희를 받아냄.

9월, 이순신(李舜臣)에게 죄를 주자는 의견에 반대하여 사직상소(辭職上疏)를 올린다.

11월, 청야책(淸野策⁵²)을 채용하여 왜적의 재침(再侵)에 대비하도록 하다.

전란 후 지방방어 상황순시를 위해 남행(南行)길에 오른 좌랑(佐郎) 정경임(鄭景任)에게 선생이 파사성(婆娑城)에서 5올로 된 시를 지어 주며, 내심을 보임.⁵³)

선생이 명명나라 장수를 따라 남정(南征)할 때, 잠시 하회(河回)에 들렀는데, 학기(學己)가 시집(詩集)을 들고 찾아와서 화운(和韻)을 요구하여, 그 시집에 수록된 시(운(韻)에 차운(次韻)해서 줌.⁵⁴)

1597(선조(宣祖) 30. 정유(丁酉)년 56세

3월, 이순신이 무함(誣陷)으로 파면될 때, 그 부당함을 극력 진언했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자, 그를 천거한 책임을 지고 5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림.

8월, 왕명을 받고 경기(京畿)를 순찰하다. 이때, 적이 재차 준동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이 모두 봉쇄되자, 선생이 왕명을 받아 곧바로 한강(漢江)에 나가 순찰하면서, 경기 우방어사(右防禦使) 유림(柳濂)에게는 무한산성(無限山城)을, 별장(別將) 조발(趙撥)에게는 독성(楸城)을, 좌방어사(左防禦使) 변응성(邊應星)에게는 파사성(婆娑城)을 각각 지키게 하고, 이로 인해, 강 연안 일대를 따라 왕래하면서 물살이 세고 얇은 곳을 잘 경비하도록 함.

경기(京畿)를 순찰하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이때 시국(時局)의 안정에 역량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5언율시로 표현한 시가 보임.⁵⁵)

51) 복합(伏閣)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적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이 대궐문(大闕)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엎디어 청하던 일을 말함.

52) 청야책(淸野策) : 적이 쳐들어 올 지역의 군대와 백성 그리고 군량미를 비롯한 모든 것을 철수시킨 다음, 들판을 불사르고 우물을 메운 후 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책략임.

53) <시 72>를 참조 바람.

54) <시 92>의 소서(小序) 안에 그 내용이 보임.

55) <시 82>를 참조 바람.

9월, 어가를 호종하고 강가를 나가 순찰하다. 왕명을 받고 나가 경기와 충청도를 순찰함. 왜적이 물러간 뒤 선조는 여러 대신을 각도에 보내어 그곳 백성들 위무하게 함.

10월, 왕명으로 경기·충청 지방을 순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제장諸將들의 공과功過를 살피다.

11월, 왕명을 받고 남쪽에 내려가다. 이때 양경리楊經理·마도독麻都督이 곧 남쪽에 내려가게 되자, 선조는 선생에게 먼저 가서 군량을 조치하라고 명함.

12월, 봉화에 가서 노모를 찾아뵈다. 이때 대부인이 난을 피해 봉화에 있었음. 경리經理에게 선생을 헐뜯는 자가 있어, 경리는 그 말을 믿고, “유모柳某는 군문軍門 형개邢玠에게 죄를 짓고 이쪽으로 도망 와서 군량을 운반하는 일 등을 전적으로 윤승훈尹承勳에게 맡겼다”라고 하자, 선생은 장계를 올려 상황을 말하고 직명을 삭제해줄길 청했으나, 윤허 받지 못함.

1598(선조宣祖 31. 무술戊戌)년 57세

여러 번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함.

1월, 왕의 소환을 받다. 다시 봉화로 가서 노모에게서 수 일 간 머물다.

2월, 조정에 돌아오다. 이때 운암雲巖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신曹伸이 거처하던 조그마한 정자를 임금이 하사한 호피虎皮로 구입하여 머물러 설 뜻을 가졌으나, 관직에 얽매어 뜻을 이루지 못함. 이때, 종사관 윤경립尹敬立과 더불어 노닐면서, 운암곶짜기 바위 위에 5언율시를 남김.⁵⁶⁾ 선생을 공박하는 자가 이를 두고, “전원이 온 나라 안에 두루 펼쳐져 있다(田園遍一國)”라고 하였음. 이에, 다시 사퇴서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함.

3월, 사직서를 올렸으나, 선조는 “지금은 나라가 몹시 위급한 시기인데(當此艱危之時), 대신이 어찌 가벼이 사퇴할 수 있는가(大臣豈可輕退)”라고 하며 윤허하지 않음.

4월, 어가를 호종하고 서강西江에 가서 진법陳法을 연습하다.

7월, 왕명으로 벽제碧蹄에서 군문軍門 형개邢玠를 맞이함.

9월, 명명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는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울산전투에서 패배

56) <시 84>를 참조 바람.

하고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본국도 양호와 합작하여 은폐했으며, 왜인 과도 통모한다고 탄핵. 이에 선조가 분개하여 동궁東宮에게 결제를 받게 하고 정사政事를 보지 않음. 서에는 정2품 이상의 관리를 인솔하여, 복합伏閣함. 이때, 형군문刑軍門의 차인差人이 과도관科道官을 보내와서 군량미 운반을 청했는데, 선조가 답을 하지 않음. 마침 이때 선생은 대궐 뜰에서 선조가 정사政事を 돌보기를 주청奏請하고 있었는데, 이조판서 홍진洪進이 관안官案을 가지고 선생 앞에 다가와서 차출하여 보낼만한 자를 묻자, 황급한 터라, 전한典翰 김신국金愼國 · 집의執義 황정철黃廷詰 · 병조정랑兵曹正郎 윤홍尹弘 · 지평持平 이이첨李爾瞻 등 네 사람을 낙점하고 서류를 갖추어 아뢰다. 이때 이이첨이 격노하여 혼자 계탈을 올려 선생이 자청해서 가지 않은 것을 탄핵하였고, 이에 윤홍의 소疏가 다시 이어지자, 선조는 이이첨 대신 송석경宋錫慶으로 교체하였음. 선생은 탄핵을 받았으나, 국사가 시급해서 회피할 수 없어, 한편으로는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계청啓請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과도徐科道에게 위의 사실에 대한 해명하는 글을 올렸음. 선조는 여전히 정사政事を 보지 않았고, 선생을 미워하는 자들은 벌떼같이 공박과 배척의 상소를 올렸음. 이에, 자신을 탄핵하는 차자箴刺를 올리고 사직을 주청하였으나 윤택 받지 못함. 명나라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 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하다.57) 선조는 여전히 이를 윤택하지 않아, 29일 동성東城 밖에 나가 왕명을

57) 명나라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한 내용 : “신이 이미 중한 탄핵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물러가 없드려 죄를 기다려야 하고 결코 조정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가 위급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공의(公議)에 거슬림을 무릅쓰고 재차 대궐에 나가 공무를 수행하며 공사(公事)를 아뢰었고, 또 신의 봉사(奉使 : 진주사(陳奏使)를 봉행하는 것) 등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 유숙(柳濶)이 또 소(疏)를 올려 신의 죄악을 극도로 열거했습니다. 소(疏)는 벌써 어전에 들어갔는데도, 신은 절연 내막을 알지 못하고 태연스럽게 공사(公事)를 아뢰었습니다. 신의 물골이 외롭고 위태로운 것은 이만해도 알 것입니다. 신이 이 지경이 되도록 논핵(論劾)을 당하였으니, 대신(大臣) 자리에 함부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진주사(陳奏使)의 봉행 문제는 곧 온 국가의 막대한 일입니다. 생각건대, 죄악이 많아 나라 안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를 선발하여 보내면 무엇보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신은 또한 무슨 면목으로 중국 조정의 사대부들을 만나 시비곡직을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금 이 말을 하면 신을 죄주려는 자들은 또 반드시 사행(使行)을 회피한다는 죄목으로 돌릴 것입니다. 사리가 이와 같으니, 사생(死生)과 영육을 구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 사직서를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음. 당시 사면초가에 처해 있던 선생을 희지希之 김대현金大賢이 그의 선친의 시집을 들고 찾아와서 보여줌에 7언 율시으로써 그간의 심경과 우의를 표현함.⁵⁸⁾

10월 6일, 마침내 진주사陳奏使를 체면遞免하다. 9일, 영의정領議政을 체면하다. 22일,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은 고금도古今島에서 선생이 논핵論劾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탄식함.

11월, 19일에 파직되자, 바로 20일에 남쪽으로 하행下行함. 22일에, 용진龍津을 건너 양근楊根 대탄大灘에서 유숙함. 이날 선생의 행차가 관직에서 파직되어 전원으로 돌아갈 때, 도미천渡迷遷에 이르러, 삼각산三角山이 보이자, 말에서 내려 네 번 절을 하고 이곳을 떠날 때의 감회를 7언절구絶句로 읊었음.⁵⁹⁾ 양근楊根에 사는 인척과 상사上舍 김언수金彦瑋가 각각 쌀 몇 말씩을 내서 노자로 주어, 길은 떠나게 되었으나, 가속家屬들은 다 도보로 따름. 30일, 충주 금탄金灘에서 유숙함. 31일 덕산촌德山村에서 유숙함. 산골길이 좁고 험한데 큰 눈이 몰아치고 날은 또 칠흑처럼 어두워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선생은 하인에게 명하여 부식들을 쳐서 불을 붙이게 하여, 험한 길을 간신히 지나 덕산촌에 당도하자 밤이 벌써 깊었다.

12월 5일, 태백산 아래 있는 도심촌道心村에 가서 노모를 찾아뵈다. 6일에는 모든 관작官爵이 삭탈되다.

1599(선조宣祖 32. 기해己亥)년 58세⁶⁰⁾

58) 〈시 86〉을 참조 바람.

59) 〈시 87〉을 참조 바람.

60) 〈시 91〉과 〈시 94〉의 작시(作詩) 배경 : 선생의 시작(詩作)에 작시(作詩) 연대가 기해(己亥)년으로 명기된 작품 1제(題 : 〈시 91〉)와 기해년으로 추정되는 1제(題 : 〈시 94〉)가 있다. 기해년이니 모두 서애가 58세 때의 작품으로, 이미 이때는 관직에서 파직된 이후의 시기에 속한다. 고로 마땅히 시의 배경이 ‘하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모두 태백산과 관련되어 있다. 전자인 〈시 91〉은 태백산 아래에 있는 ‘도심촌(道心村)’이란 민가(民家)이고, 후자인 〈시 94〉는 태백산을 마주하는 ‘서재(書齋)’이다. 연보에 의거하면, 서애는 이미 지난해(무술년(戊戌年)), 11월에 관직에서 파직되어 가솔을 데리고 귀향길에 올랐고, 12월에 노모가 계시는 피난지인 ‘도심촌’에 들렀다. 그리고 금년 2월,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고 하회로 돌아왔다는 기제가 보인다.

다시 연보를 보면, 서애는 3월부터 하회에서의 정착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4월에 노모가 도심촌에서 돌아왔고, 선생은 이를 축하드리는 조출한 잔치를 열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3월, 옥연서당玉淵書堂에 나가 있으면서 찾아오는 손님을 사절하다. 그들은 선생을 위해 소疏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선생은 급히 친한 사람에게 글을 보내 힘써 말림. 이때 정사精舍에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갑자기 ‘이 물건이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此物關我何事), 심체心體는 맑고 뚜렷해야하니 한 쪽으로 치우쳐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心體澄虛不可有偏著)’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시 한 수를 지음⁶¹⁾.

4월, 노모가 도심촌道心村에서 돌아옴에, 노모를 위해 송정松亭에서 조출한 잔치를 베풀다. 대부인은 선생이 관직이 삭탈되었는데도 화염火焰이 여전하다는 말을 듣고 밤마다 첫닭이 울면 반드시 일어나서 의복을 정제한 다음 정화수를 떠 놓고 하늘에 빌었다.⁶²⁾

6월 28일, 직첩職牒을 돌려주었다가 얼마 안 되어 직첩을 도로 회수해 감.⁶³⁾

9월, 겸암공과 함께 배를 타고 옥연서당에서 놀다.

10월, 노모에게 헌수獻壽하다.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에게 글을 주어 학문을 논하다.⁶⁴⁾

최소한 지난해, 12월에서 금년 4월 이전까지는 노모의 거처지가 하회가 아닌 태백산 아래의 ‘도심촌’이 되겠다. 아마도 효성이 지극했던 선생은 당시 가솔들은 먼저 하회로 이동시키고 노모는 추운 겨울을 피해 금년 일기 화순한 4월에 하회로 모셔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니, 선생은 노모가 계시는 도심촌에 임시 거처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주로 겨울철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위의 두 시작(詩作)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시작(詩作)을 참조 바람.

- 61) 연보(年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나, 권1에서는 관련 시작(詩作)이 보이지 않음.
- 62) “내 아들은 집에서 효자였고 나라에서는 충신이었습니다(吾子在家爲孝子, 在國爲忠臣)”라고 하는 기원을 수십 일 동안 기구(祈求)하였음.
- 63) 선조가 하명하여 직첩(職牒)을 돌려주자 삼사(三司)가 그를 논핵하였음. 선조가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에 비답(批答)한 것을 보면 : “논핵한 일이 실정에 너무 지나치니,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곁에서 보는 사람도 역시 복종하지 않는다. ‘주화(主和)’ 두 글자로써 탈을 잡아 심지어 진회(秦檜)와 비교하였는데, 진회는 오랑캐의 뜻을 받아들여 처자를 보전하였으며 송(宋) 나라에 잠입하여 금인(金人)을 위해 화친을 도모하여 악비(岳飛) 등을 죽인 인물이다. 지금 류성룡도 왜적의 뜻을 받아들여 남몰래 음모를 통해 그의 처자들을 보전하고 화의를 주장했다는 것인가. 이런 말로써 인심을 승복시키고 국시(國是)를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그리고 중론을 물리치고 한밤중에 사신을 보냈다는 말은 더욱이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조정의 의논을 널리 모아서 결정했고, 그 조정의 의논은 승정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과연 중론을 물리치고 독단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물며 파직된 자가 벌써 세월이 경과했는데 지금 어찌 관직을 복구할 수 없단 말인가”
- 64) “지금 사람들은 옛 사람이 학문을 논하던 경로에 대해, 견해도 없고 근거도 없으면서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정·주(程朱)를 얽잡아 보는데, 나는 일찍이 그러한 것에 대해 탄식하지

하회에서 선달 그림날 밤을 보내면서, 지난해 그림날 밤엔 태백산 아래 작은 불사佛寺에서 그림밤을 보내던 정경을 떠올려, 다시 명년의 선달 그림날 밤은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내용의 시가 보임.⁶⁵⁾

1600(선조宣祖 33. 경자庚子)년 59세

1월, 옥연정사玉淵精舍에 나가 보허대步虛臺에 소나무를 심다.

2월에 봄을 맞이하면서 노경老境의 정취를 읊은 시 한 수가 보임.⁶⁶⁾

3월, 노모를 모시고 옥연정사에 가서 꽃을 구경하다.

퇴계 선생 연보退溪先生年譜를 편찬함. 퇴계 선생 연보를 편찬 중에 선생이 병중이라, 본 작업에 참여한 김이정金而靜·김사열金士悅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월색이 아름다운 밤에 7언절구시 4수를 써서 그들에게 보냄.⁶⁷⁾

5월, 옥연서당에 나가 보허대步虛臺에 대나무를 심다.

8월 14일, 겸암謙庵과 함께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다. 18일, 보허대를 증축하고 이름을 달관대達觀臺로 고침.

10월 29일, 『대학大學』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 7언절구 10수 〈독대학유감십수讀大學有感十首〉를 쓰다.⁶⁸⁾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말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말해 주더라도 받아들여서 생각하여 살피려고 하지 않는데야 어찌겠는가.

도리만 환하게 눈앞에 있을 뿐이니, 아무리 상산(象山)이나 양명(陽明)이 지금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내 또한 갑자기 항복을 하라는 것발을 세우지는 못할 터이니, 하물며 지금 세상에 이른바 술지게미를 먹고 뭍은 술을 마시는(餽糟啜醢) 자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은 것은 다행히 사리에 어긋나거나 모나지 않으니, 천만번 더욱 힘써서 이설(異說)에 동요되지 않는다면 어찌 교유만이 다행스러울 뿐이겠는가?.

65) <시 110>을 참조 바람.

66) <시 112>를 참조 바람.

67) <시 115>을 참조 바람.

68) 본집 권2의 제8수에 보임. 또한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에게 준 글에도 관련내용이 보인다. : “지난 겨울에 『대학(大學)』의 격물설(格物說)을 생각하다가 보다 깊은 깨달음의 경계가 있는 것 같아서, 뜻하지 않게 7언절구 10수를 썼으니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며 지금 그대에게 보낸다. 그 말편(末篇)에,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진실로 다 마음인데, 그것이 인심인 줄 알고 그것이 도심인 줄 아는 그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 물건이 어둡지 않으면 간명하게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공부가 곧 여기에 있다’ 하였는데, 요사이 내가 이 뜻을 생각하여 분명하게 알았다”

선생은 또 일찍이 말하기를 : “『대학』 한 책에서 요점은 ‘지(止)자 하나에 있다. 뜻은 마땅히 성(誠)에서 멈추어야 하고, 마음은 마땅히 정(正)에서 멈추어야 하며, 몸은 마땅히 수

11월, 직첩職牒을 되돌려 받고 7언절구시를 남기다.⁶⁹⁾

1601(선조宣祖 34. 신축辛丑)년 60세

3월에는 검암공이, 8월에는 대부인이 별세하다.

12월, 서용敍用의 명이 내리다.

선생이 관직에서 축출되어 3년째 되는 해에 학기學己 승려가 찾아와서 시집 한 권을 보여주자, 불문佛門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 장단구長短句 시를 지어 그 시집후면에 써준다.⁷⁰⁾

1602(선조宣祖 35. 임인壬寅)년 61세

4월, 청백리淸白吏로 뽑혀 『염근청백록廉謹淸白錄』에 이름이 오르다.

『영모록永嘉錄』을 찬술하다. 서序와 발跋이 있음. 겨울에는 『상례고증喪禮考證』을 수찬하다.

1603(선조宣祖 36. 계묘癸卯)년 62세

10월 삼년상을 마치다. 이때 선생의 나이는 육순이 넘었는데도 상을 당하여서 초상 때부터 장례葬禮와 제사祭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몸소 처리하고 일찍이 자제에게 대행시키지 않았다.

1604(선조宣祖 37. 갑진甲辰)년 63세

3월,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김성극金省克을 송별하다. 이때 김공이 강릉의 임소로 가게 되자, 선생이 옥연정사에서 그를 송별하면서 술을 두어 잔 마신다

(修)에서 멈추어서, 가정·국가·천하에 이르기까지 만사와 만물이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격물치지(格物致知)도 다만 멈추어야 할 곳을 알아서(거기에서)멈추려고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논설(論說)’을 지어, 회재 선생(晦齋先生)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에서 경문(經文)의 오류를 검토해 고쳐야함을 언급했다.

69) 서에 59세 되던 해에 <성운을 입어 직첩을 되돌려 받고서(몽은금직첩(蒙恩給職牒))>라는 제목하에 지은 시 :

죽창<竹窓> 밖에 찬 눈 내려 밤이 쓸쓸한데(竹窓寒雪夜蕭蕭),

천 리 길 궁궐은 꿈속에서도 요원하구나(千里楓宸夢裏遙).

늙어서 새로운 은택 받았다고 한들(白首縱霑新雨露),

어찌 명철하신 주군<主君>의 조정 거둬 그르치랴(豈宜重誤聖明朝).

70) <시 92>를 참조 바람. <시 92>의 소서(小序)에 있는 2수의 시운(詩韻)에 다시 차운(次韻)하여 지은 것임.

음 일어났다. 김공이 갑자기 개연히 탄식하여,
 “선생을 황야에 몰려 나와 계시게 하니 시사時事가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자, 선생은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늙은 내가 변변치 못하여 국사를 이 지경
 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성은이 하늘과 같아서 내가 향촌에서 목숨을 연장하도
 록 해 주셨으니, 지금까지 7년 동안에 털끝만한 것도 다 하늘이 주신 것이네”
 이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5언율시 한 수를 지어 뜻을 붙임.⁷¹⁾
 6월, 옥연정사玉淵精舍를 나간다.
 7월, 『징비록懲毖錄』의 저술을 마친다. 다시 부원군府院君으로 서용敍用되고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서훈敍勳되다.
 9월, 충훈부忠勳府에서 선생의 초상화肖像畵를 그릴 화가를 보냈으나 나라에
 공이 없다고 사양하여 그대로 돌려보냄.
 『양명집陽明集』을 읽고 서序와 7언율시詩 2수를 지음.⁷²⁾

71) 서에 63세 되던 해에 성극당(省克堂) 김홍미(金弘微 : 1557-1604, 류성룡의 문인)가 옥연 정사를 방문했을 때, 주군(主君)을 생각하며 읊은 시 :
 성군의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무겁거늘(聖主洪恩重),
 미천한 이 신하는 과오만 허다하네(微臣罪愆多).
 한마디도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一言無報效),
 만 가지 계책이 모두 어긋나고 말았네(萬計悉蹉跎).
 효도 못하고 어버이 어의었으니 남쪽으로 돌아온 게 늦었고(風樹南來晚),
 궁궐 쪽에 구름 끼여 북쪽을 바라보니 아득하네(宮雲北望賒).
 남아 있는 몇 줄기 눈물이나마(惟殘數行淚),
 저 한강 물결에 뿌려 볼까하노라(寄灑漢江波).

72) ① 『양명집(陽明集)』을 읽고 쓴 서(序)의 요약 : “양명과 주자의 학문이 다른 큰 요점은 다
 만 치지(致知)와 격물(格物) 네 글자에 대해 의견을 별도로 세우는 데에 있다. 주자는
 ‘사람의 마음의 신령함은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없는 것이 없다’고 하
 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해서 그 앎을 극진히 하게 하였다. 양명
 은 ‘이치는 내 마음에 있으니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니, 그의 학문을 논하는 것은 한
 결같이 양지(良知)를 위주로 한다.

② 『양명집(陽明集)』을 읽고 쓴 시 2수 :

제1수(양명을 배척하는 내용) :

왕양명은 마음이 곧 이치라고 항상 말했거니와(陽明每說心爲理),
 이치는 내 마음에 있지 책에 있지 않다네(理在吾心不在書).
 사람은 입으로 맛을 알아낼 수 있다지만(人雖有口能知味),
 곰발바닥과 생선 맛을 구분해야만 빈틈이 없다네(味辨熊魚始不疎).
 도는 만 갈래 길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 법이며(道有萬殊歸一法),

1605(선조宣祖 38. 을사乙巳)년 64세

1월, 지행설知行說을 짓다.73)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짓다.

왕양명王陽明이 지·행知行을 합해서 하나라 하여, 주자朱子の 학설을 극력 반박하였는데, 선생이 이 설을 지어서 해명하다.

3월, 봉조하奉朝賀74)의 녹봉을 사양하는 소疏를 올렸으나 윤택되지 않다.

4월 24일, 큰아들 여씨가 죽다. 제문祭文과 행장行狀이 있음.

9월, 서미동西美洞(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豐山邑 소재)으로 이사하다.

이때 하회가 새로 홍수를 겪어서 수목樹木이 없어지고 바람이 거세어 요양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손님의 방문도 번거로워서 선생은 하회를 떠나 이곳 학가산鶴駕山 산속에 위치한 서미동으로 이사함.

김성극金省克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김공이 문학에 조예가 있으므로 선생의 사랑을 받았다. 이때 강릉 임소에서 죽자, 그를 애도하며 7언절구 한 수를 지었음.75)

땅은 호(胡)와 월(越)로 나뉘었지만 다 나의 집일세 地分胡越儘吾廬).
지금 친하는 홍수가 산릉(山陵)에 차오를 만큼 극심하니(如今天下懷襄甚),
애답다 누가 다시 <물길> 뚫어 소통토록 할것인고(惆悵何人更鑿疏).

제2수 : 속학의 폐단을 경각시키는 내용 :

가정년간 말학(末學)의 폐단은(嘉定年間末學弊),
지엽만 찾기에 여념이 없었던 길새(尋枝摘葉儘無窮).
단지 주나라 규범이 천하에 두루 미쳤다는 말만 듣고(徒聞姬轍周天下),
정진(正殿)을 종일토록 비워두고 돌보지 않았다네(不顧明堂盡日空).
깊은 곳을 비추는 것은 한 치의 거울임을 잊지 말고(燭幽莫忘徑寸鑑),
배 저어갈 때는 반쯤 올린 돛에 바람을 의지해야 하네(行船須倚半帆風).
저 시끄럽고 킁킁한 곳을 보게 되면(看他擾擾昏昏地),
일념(一念)으로 자신을 비취 봐야 효과를 보리라(一念回光便見功).

73) 서애가 쓴 지행설의 내용 :

“성현의 학문이 비록 실행에 중점을 두지만 아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리 독실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지극함에 이르지 못하면, 습득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행실이 주도면밀하지 못하면 끝내는 정미한 곳을 통하여 극치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옛 사람이 안다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도를 터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은 언어 문자의 말단에서 주위 모은 것으로 성리(性理)를 논하고도 스스로 안다고 여겨, 조금도 심신(心身)과 연관을 시키지 않는 자들은 다 덕(德)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하니, 차이가 여져 천리(千里)뿐이겠는가”.

74) 봉조하(奉朝賀) :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종2품 이상의 관원에게 사임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실제 사무는 보지 않으며, 다만 의식이 있을 때에만 관청에 나가서 참여하고 종신토록 녹봉을 받음.

『제왕기년록帝王紀年錄』을 지음.

1606(선조宣祖 39. 병오丙午)년 65세

3월, 서미동西美洞에 초당草堂을 짓다. 초당은 겨우 3칸으로 구조도 매우 꾸밈이 없고 누추하였으나, 선생은 거기에 거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농환弄丸’으로 이름을 붙이다.⁷⁶⁾

선생의 차자次子인 단襦이 『심경心經』⁷⁷⁾을 배우기를 요청하자 선생이 기쁘게 생각해서 〈조명설鈞名說〉⁷⁸⁾을 짓다.

『성유록聖論錄』 후면에 발문을 쓰다. 선생이 차례로 받은 비답批答과 교지教旨를 한데 모아 한 책으로 만들어 ‘성유록’이라 이름하고, 그 뒷면에 발문을 지음.⁷⁹⁾

12월 11일, 병을 무릅쓰고 망매亡妹 숙인淑人의 여친旅襯(객지에 있는 관棺)을

-
- 75) 성극당(省克堂) 김홍미(金弘微 : 1557-1604)의 타계(他界)를 애도한 시:
북풍이 매섭게 서쪽 숲을 흔들더니(朔風號怒動西林),
천 리 밖 서신이 와서 나쁜 소식 전하누나(千里書來報惡音).
이 백발 늙은이만 세상에 남았으니(白首人間惟我在),
알 수 없구나, 누구와 다시 마음 터놓고 얘기 나눌지(不知誰與更論心).
- 76) 서미동(西美洞)에 초당을 짓고 나서 자제를 훈계한 내용 : 일찍이 자제에게 이르기를 :
“사람이 이욕에 빠져서 염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까닭은 다 자족함을 알지 못한 데에서 나온다. 이 집이 비록 험소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를 넘기며 이곳에서 지낼 수 있으니,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무릇 사람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인들 살지 못하겠느냐.”
- 77) 『심경(心經)』 : 중국 송대 진덕수(眞德秀)가 경전(經典)과 송대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 총4권 중 권1, 2이다. 내용은 『서경』 1장 『시경』 2장 『역경』 5장 『논어』 2장 『중용』 2장 『대학』 2장 『예기·악기』 3장 『맹자』 12장으로 총 29장과 송대 도학자들의 글인 주돈이의 〈양심설(養心說)〉과 〈통서(通書)〉, 〈성기학장(聖可學章)〉, 〈정의〉 등 7편이 실려 있다. 진덕수는 이 명문들에 송대 유학자들의 논의를 주석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심경찬(心經贊)〉 1편을 덧붙였다.
- 78) 선조가 즉위하면서 유술(儒術)을 높이고 장려하여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이 유행했는데 발탁된 기로(耆老 :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죽자 그런 풍조가 변하면서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이 명예를 낚는 미끼라고 불리게 된 세태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어 정리한 논설임.
- 79) 『성유록(聖論錄)』의 발문(跋文) :
“소신이 변변치 못하는데도 성상의 끝없는 은혜만 입고 한 가지도 보답하지 못한 채, 끝에 와서 많은 죄과만 저질러 이토록 낭패하였는데도, 오히려 목숨을 보전하여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성상의 넓고 큰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의 개미같이 미약한 정성을 끝내 바칠 날이 없기 때문에, 삼가 평일에 받았던 교지를 수록하여 한 책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공경히 절하고 읽기를 바라니, 슬프고 또 감격해서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양리新陽里에 곡송하고 돌아온 후 병이 악화되다. 그러나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관대冠帶를 하고 외당外堂에 나가 자제들과 함께 『퇴도선생문집退陶先生文集』을 교정하며 의리를 강론하다가 간혹 한밤중이 되기도 하다. 또는 문집의 편질이 방대하여 강구講究하기가 어려울까 하여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예를 모방하여 약간 절목節目을 덜어 별도로 한 질을 만들어 후학들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병으로 이루지 못함.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을 교정하고 의리를 강론함.

1607(선조宣祖 40. 정미丁未)년 66세

1월 29일, 허노재許魯齋 형衡의 시를 써서 자제들에게 보여 주며 종신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당부함.⁸⁰⁾

2월 12일, 시 한 수를 지어서 자제들에게 보여 줌.⁸¹⁾

3월, 선생의 병보病報에 접한 선조는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환을 살피게 하다. 하루는 아들 진軫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다.

“죽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내가 어찌 죽음을 서러워하여 마음이 동요 되는 사람이겠느냐. 오직 나라를 향한 일념만이 죽을 때까지 잊기 어려울 뿐이다”

형님의 아들 의禧에게 명하여 유계遺戒를 쓰게 하다.⁸²⁾

80) 서애가 자제를 훈계할 때 인용한 이 시구는, 원(元)나라 주자학(朱子學)의 대가(大家) 허형(許衡, 1209-1281년 : 자(字)는 노재(魯齋))의 시로 다음과 같음.

“만 가지로 보양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萬般補養皆爲僞),
조심하는 것만이 중요한 비결일세(只有操心是要觀)”.

81) 서애가 자제들을 훈계한 시 :

숲 속에 새 한 마리 쉬지 않고 우는데(林間一鳥啼不息),
문밖에는 짹짹 장작 패는 소리 들리네(門外丁丁聞伐木).
만물의 원기(元氣)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공교로우나(一氣聚散亦偶然),
단지 한스러운 것은 평생 부끄러운 일 많이 한 것일세(只恨平生多愧作).
권하노니 자손들이 반드시 삼가 하여라(勉爾子孫慎慎旃),
충효 밖에 달리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임을!(忠孝之外無事業)

82) 서애(西厓)의 유계(遺戒) :

“너희들이 착한 일을 힘써 생각하고 힘써 행한다면 가세(家世)를 대체로 보전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공덕이 없었으니 죽으면 마땅히 검소하게 장사 지내라. 남에게 청해서 비명(碑銘)을 짓지 말고 만장(輓章)도 스스로 만들어서 보내준 것만 쓰도록 하라. 또한 가업을 지키는 데는 스스로 체통(體統)이 있어야 하니 문란하게 하지 마라. 효성(孝誠)과 화목은 곧

병중에 지은 시를 엮어 『관화록觀化錄』이라 명명命名하다.

5월 6일, 향리鄕里 농환재弄丸齋 초당에서 운명殞命하다.

부음이 서울에 전해지자 향곡巷哭이 일어났으며 1,000여 백성이 선생의 옛 집터에 모여 통곡하고 조정에서는 3일 동안 공휴公休를 선포하고 상민들은 자진하여 4일 동안 철시撤市하였다. 풍산현豊山縣 수동壽洞에 예장禮葬하다. 선조가 예조좌랑禮曹佐郎 구혜具惠에게 치제致祭도록 하다.

선생은 일찍이 말하였다.

“내가 평생에 세 가지 한이 있다(吾平生有三恨). 군친君親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한이고(未報君親之恩 一恨也), 작위爵位가 너무 분에 넘치는 데도 일찍 물러서지 못한 것이 두 가지 한이며(爵位太濫而不能早退 二恨也), 망영妄靈 되게도 도道を 배울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이 세 가지 한이다(妄有學道之志而無成 三恨也)”.

1610(光海君 2. 庚戌)년

조선 선조 재위시의 명재상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사후, 1610년에 이 풍악서원豊嶽書院의 서당을 바탕으로 하여 서원을 건립하고 류성룡 선생을 향사享祀한 것이 지금의 병산서원屏山書院이다.

1614(光海君 6. 甲寅)년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위판位版⁸³⁾을 봉안하였으며, 그 뒤에 남계서원南溪書院, 여강서원廬江書院, 삼강서원三江書院, 도남서원道南書院, 빙산서원氷山書院 등에 도 위판이 봉안되다.

1627(仁祖 5. 丁卯)년

문충공文忠公의 시호諡號가 하사下賜되다.

가업을 지켜 나가는 도리이고,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오직 정성과 공경에 있으니 풍성하게 장만하는 것을 힘쓰지 말라”.

83) 위판(位版) 또는 위패(位牌)는 자식이나 후손들이 많을 때 목판에 관직성명을 써놓고 집에서 받드는 것이다.

위의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은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을 저본底本으로 하였으며,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1. 류성룡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서애집 II』, 솔 출판사, 1977년.
2. http://blog.naver.com/nanjung_ilgi/100034997325

[출처] 서애 선생 연보 국역 원문 1, 2, 작성자 : 청명이

| | | | |
|----------|---------------|------------|--------------------|
| 가(家) | 114 | 객로(客路) | 74 |
| 가부(賈傅) | 319 | 객신(客神) | 30 |
| 가수(假手) | 237, 243 | 갱굉(鏗錙) | 23 |
| 가의(賈誼) | 319 | 갱여(更與) | 228 |
| 각화사(覺華寺) | 246 | 거(詎) | 258 |
| 간과(干戈) | 102, 172, 215 | 거국(去國) | 46 |
| 간락(刊落) | 255 | 거래금(去來今) | 124 |
| 간수(澗水) | 121 | 거세(舉世) | 268 |
| 간요(間繞) | 50 | 거실(去室) | 140 |
| 간용(幹聳) | 266 | 거연(居然) | 109, 283 |
| 간운(干雲) | 298 | 거족(擧族) | 241 |
| 갈석산(碣石山) | 287 | 거활(巨猾) | 240 |
| 감(龕) | 98 | 건곤(乾坤) | 112, 145, 183, 299 |
| 감사(感事) | 114, 169 | 건둔(蹇屯) | 254 |
| 감증(堪贈) | 35 | 건업수(建業水) | 142 |
| 강곡(江曲) | 104 | 검(劍) | 188 |
| 강남(江南) | 60 | 검악(劍鏢) | 239 |
| 강리(江離) | 63 | 격(隔) | 30 |
| 강상(江上) | 81 | 격자(格柝) | 145 |
| 강상대(江上臺) | 185 | 건권(緘緘) | 280 |
| 강위(江渭) | 62 | 견상(見賞) | 96 |
| 강장(絳帳) | 49 | 견절(堅節) | 104 |
| 강학(講學) | 327 | 견청(見淸) | 287 |
| 강함(江檻) | 162 | 결우(結宇) | 129 |
| 강호(江湖) | 292 | 겸암정사(謙巖精舍) | 10 |
| 개개(箇箇) | 104 | 경(竟) | 131 |
| 개부절(開府節) | 191 | 경륜(經綸) | 318 |

| | | | |
|----------|----------|------------------|----------|
| 경리화(鏡裏花) | 115 | 고풍(古風) | 246 |
| 경서(驚序) | 111 | 고풍(高風) | 34 |
| 경세(竟歲) | 2 | 고현(孤懸) | 60 |
| 경운루(慶雲樓) | 55 | 곡(曲) | 285 |
| 경임(景任) | 191, 193 | 곡강배음(曲江陪飲) | 330 |
| 경제(經濟) | 105 | 곡립(鵠立) | 33 |
| 경천(擎天) | 246 | 곡수(谷邃) | 231 |
| 계관(繫官) | 213 | 곤곤(袞袞) | 136 |
| 계명(鷄鳴) | 263 | 곤륜(崑崙) | 285 |
| 계수(桂樹) | 205 | 곤명궤회(昆明刮灰) | 180 |
| 계인(鷄人) | 279 | 공교(空敎) | 31 |
| 계일호(鷄一呼) | 311 | 공동검(空峒劍) | 188 |
| 계합(契合) | 282 | 공문(空門) | 233 |
| 계환자(季桓子) | 258 | 공장(空將) | 269 |
| 고(阜) | 37 | 공차임분(共此臨分) | 204 |
| 고개(孤介) | 319 | 공해(公廨) | 3 |
| 고경(古鏡) | 199 | 과재(果哉) | 270 |
| 고담(高談) | 29 | 곽경순(郭景純) | 237 |
| 고등(孤燈) | 245 | 곽박(郭璞) | 237 |
| 고로(孤露) | 299 | 관~련~(關~連~) | 187 |
| 고리(故里) | 66 | 관방(關防) | 179 |
| 고망(罟網) | 265 | 관산별의(關山別意) | 283 |
| 고반(考槃) | 82 | 관산별의입화도(關山別意入畫圖) | 283 |
| 고부(辜負) | 157 | 관자(觀者) | 275 |
| 고송(孤松) | 299 | 관재(官齋) | 119 |
| 고시(古詩) | 81 | 관정(關情) | 77 |
| 고와(高臥) | 147 | 관주(觀周) | 278 |
| 고운(孤雲) | 74, 328 | 관하(關河) | 15, 30 |
| 고의(苦意) | 303 | 관해(關海) | 233 |
| 고의연(故依然) | 223 | 괄병모(刮病眸) | 58 |
| 고인(故人) | 74 | 광생(匡生) | 22 |
| 고전요(苦纏繞) | 333 | 광세(匡世) | 176 |
| 고정(孤征) | 183 | 광시(匡時) | 209 |
| 고침(顧瞻) | 269 | 광연(曠然) | 334 |
| 고척(古堞) | 5 | 광풍(光風) | 136, 341 |
| 고촌(孤村) | 128 | 광형(匡衡) | 27 |
| 고파(鼓罷) | 274 | 괴기(壞奇) | 265 |

| | | | |
|------------|----------|------------|----------|
| 굉언(宏言) | 282 | 권경안(權景安) | 141 |
| 교교(皎皎) | 247 | 권생손행(權生巽行) | 148 |
| 교교(矯矯) | 274 | 권응시(權應時) | 45 |
| 교력(巧曆) | 120 | 권장중(權章仲) | 127 |
| 교리(蛟螭) | 290 | 권형숙(權亨叔) | 45 |
| 교수(翹首) | 34 | 권호문(權好文) | 127 |
| 교수(橋樹) | 60 | 귀도(龜圖) | 101 |
| 교칠(膠漆) | 240 | 귀몽(龜蒙) | 258 |
| 구(久) | 86 | 귀문관(鬼門關) | 226 |
| 구거(舊居) | 65 | 귀불귀(歸不歸) | 136 |
| 구구(區區) | 59 | 귀산(歸山) | 220 |
| 구당(瞿塘) | 84 | 귀숙(歸宿) | 160 |
| 구득(苟得) | 19 | 귀심(歸心) | 201 |
| 구림(丘林) | 275 | 귀안(歸鴈) | 206 |
| 구백담(具楮潭) | 88 | 귀여역(鬼輿蝥) | 243 |
| 구봉령(具鳳齡) | 88 | 귀와(歸臥) | 128 |
| 구손(九殮) | 146 | 귀운(歸雲) | 85 |
| 구심(舊心) | 194 | 귀전(歸田) | 254 |
| 구업(舊業) | 89 | 귀휴(歸休) | 54 |
| 구영(拘嬰) | 334 | 규(葵) | 145 |
| 구원가작(九原可作) | 238 | 균천(勻天) | 279 |
| 구유(舊遊) | 299 | 극목(極目) | 187 |
| 구이(久已) | 19 | 근(勤) | 148 |
| 구점(口占) | 302 | 금강(金剛) | 94, 181 |
| 국(鞠) | 268 | 금계재사(金溪齋舍) | 297 |
| 국열(麴蘖) | 261 | 금기(襟期) | 130, 157 |
| 군기(軍器) | 179 | 금생(琴生) | 133 |
| 군동(羣動) | 19 | 금석명(金石鳴) | 25 |
| 궁(窮) | 251 | 금오산(金烏山) | 100 |
| 궁경(躬耕) | 231 | 금장(金章) | 92 |
| 궁귀(窮鬼) | 306 | 금탄(金灘) | 193 |
| 궁도(窮途) | 317 | 금패(衿珮) | 28 |
| 궁양(穹壤) | 57 | 급협(急峽) | 72 |
| 궁음(窮陰) | 17 | 기(旣) | 15 |
| 궁촌(窮村) | 293, 300 | 기(寄) | 154 |
| 권(捲) | 86 | 기다(幾多) | 220 |
| 권객(倦客) | 191 | 기멸(起滅) | 272 |

| | | | |
|--------------------|--------------|--------------|-------------|
| 기사우(曁士友) | 45 | 남도(南道) | 214 |
| 기시(幾時) | 31 | 남상(濫上) | 279 |
| 기위(羈危) | 105, 219 | 남상(濫觴) | 285 |
| 기이(既而) | 166 | 남영(南楹) | 131 |
| 기절사(奇節士) | 239 | 남중(南中) | 213 |
| 기중(幾重) | 151 | 남취(嵐翠) | 57 |
| 기하(幾何) | 258 | 남하(南河) | 18 |
| 길재(吉再) | 102 | 남한강(南漢江) | 193 |
| 김내한 자점(金內翰 子瞻) | 45 | 남한산성(南漢山城) | 175 |
| 김대현(金大賢) | 218 | 남현(南軒) | 12 |
| 김미백(金美伯) | 148 | 내(乃) | 94 |
| 김사열(金士悅) | 324 | 내하(奈何) | 165, 203 |
| 김윤안(金允安) | 324 | 내한(內翰) | 44, 124 |
| 김이정(金而靜) 윤안(允安) | 324 | 냉랭(冷冷) | 121 |
| 김참의 창원 홍미(金參議昌遠弘微) | 216 | 냉연(冷然) | 116 |
| 김침(金瞻) | 45 | 노두(老杜) | 330 |
| 김태(金兌) | 324 | 노산아(老山阿) | 217 |
| 김홍미(金弘微) | 216 | 노성(魯城) | 257 |
| 김희지 대현(金希之大賢) | 218 | 노어분(魯魚分) | 25 |
| 나 (那) | 104 | 노유(露濡) | 130 |
| 나면(那免) | 148 | 녹경(錄呈) | 127 |
| 낙동강(洛東江) | 100 | 녹주(綠洲) | 113 |
| 낙목(落木) | 128 | 논교(論交) | 301 |
| 낙북(洛北) | 205 | 농환재(弄丸齋) | 315 |
| 낙서(洛書) | 101 | 누(累) | 133 |
| 낙성(洛城) | 206 | 누노(樓櫓) | 179 |
| 낙수(洛水) | 52, 85, 207 | 누의(虻蟻) | 267 |
| 난(蘭) | 165 | 능료(能了) | 124 |
| 난만(爛漫) | 232 | 능지(陵遲) | 270 |
| 난분분(亂紛紛) | 270 | 능파대(凌波臺) | 302 |
| 난위(難爲) | 227 | 능허(凌虛) | 272 |
| 남(嵐) | 128 | 다 (多) | 192 |
| 남가몽일장(南柯夢一場) | 91 | 단거(端居) | 15, 18, 333 |
| 남계곡(南溪曲) | 129 | 단구(丹丘) | 115 |
| 남계수(南溪水) | 129 | 단단(斷斷) | 242 |
| 남계정사(南溪精舍) | 76, 121, 129 | 단단(團團) | 248 |

| | | | |
|--------------|----------|------------|----------|
| 단명(圓明) | 122 | 도미(渡迷) | 223 |
| 단벽(丹碧) | 77 | 도미협(渡迷峽) | 222 |
| 단사(搏沙) | 109 | 도산(陶山) | 67 |
| 단심(丹心) | 293 | 도술(道術) | 281 |
| 단양(丹陽) | 224 | 도심(道心) | 147 |
| 단양행(丹陽行) | 224 | 도심리(道心里) | 230 |
| 단운(斷雲) | 201 | 도심산재(道心山齋) | 228 |
| 단장시(短長詩) | 198 | 도연명(陶淵明) | 143, 260 |
| 단전(丹田) | 335 | 도요(悼夭) | 105 |
| 단총조(短叢條) | 144 | 도운(道韻) | 246, 261 |
| 단하(丹霞) | 54 | 도장(都將) | 128 |
| 단혼(斷魂) | 305 | 도천(盜泉) | 261 |
| 달천(達川) | 193 | 도풍학설(鬻風虐雪) | 226 |
| 당(當) | 82 | 독(獨) | 176, 200 |
| 당~작(當~作) | 185 | 동공(董公) | 21 |
| 당년(當年) | 184, 332 | 동당(東堂) | 233 |
| 당숙(黨塾) | 48, 51 | 동대(東臺) | 309 |
| 당조(當朝) | 88 | 동락(東洛) | 91 |
| 당화(棠花) | 153 | 동릉과(東陵瓜) | 332 |
| 대(待) | 102 | 동림고성(東林古城) | 5 |
| 대(對) | 58 | 동문(洞門) | 72, 121 |
| 대도(大道) | 272 | 동문(洞門) | 78 |
| 대명어동교(待命於東郊) | 218 | 동복(僮僕) | 227 |
| 대부인(大夫人) | 169 | 동산(東山) | 151 |
| 대사간(大司諫) | 53 | 동산로(東山老) | 203 |
| 대수(查總兵大受) | 167 | 동암(東庵) | 233 |
| 대운(大運) | 160 | 동연(洞然) | 312 |
| 대정(大靜) | 133 | 동정(洞庭) | 256 |
| 대풍(大風) | 317 | 동정(彤庭) | 28, 279 |
| 대하음(大河陰) | 274 | 동종(同宗) | 240 |
| 덕휘(德輝) | 266 | 동주(東周) | 258 |
| 도(道) | 159 | 동중서(董仲舒) | 21 |
| 도(徒) | 2, 277 | 동진(東晉) | 236 |
| 도(到) | 204 | 동호(東湖) | 43 |
| 도계(道契) | 198 | 두변(頭邊) | 174 |
| 도무(都無) | 326 | 두보(杜甫) | 330 |
| 도무착(都無着) | 124 | 두서어(蠹書魚) | 98 |

| | | | |
|------------------|--------------|------------|----------|
| 득상(得喪) | 310 | 맥맥(脈脈) | 20 |
| 등갈(藤葛) | 94 | 맹상(孟嘗) | 262 |
| 등시(等是) | 313 | 맹상군(孟嘗君) | 262 |
| 람 (覽) | 266 | 맹씨(孟氏) | 313 |
| 랑구(琅球) | 280 | 맹자(孟子) | 313 |
| 려(廬) | 214 | 면막(綿邈) | 284 |
| 령(檉) | 100 | 면앙(旃仰) | 68 |
| 로(鷺) | 280 | 명당(明堂) | 252, 270 |
| 뢰(懶) | 251 | 명덕(明德) | 37 |
| 뢰(瀨) | 110 | 명도(明道) | 134 |
| 뢰유(賴有) | 29, 35 | 명도(名途) | 331 |
| 류운룡(柳雲龍) | 10 | 명멸(明滅) | 244, 309 |
| 류중영(柳仲郢) | 3, 39 | 명명(冥冥) | 77, 105 |
| 류진(柳珍) | 302 | 명성(明誠) | 321 |
| 마 우풍(馬牛風) | 61 | 명심적(明心跡) | 264 |
| 막막(漠漠) | 77, 247 | 명은(明恩) | 201 |
| 만(輓) | 88 | 명절(名節) | 205 |
| 만(謾) | 88 | 명절경기(名節更期) | 205 |
| 만경창파(萬頃蒼波) | 152 | 명홍(冥鴻) | 31 |
| 만만(漫漫) | 289 | 모당(茅堂) | 140 |
| 만방(萬方) | 34 | 모운(暮雲) | 320 |
| 만법(萬法) | 150 | 모재(茅齋) | 247 |
| 만벽(晩碧) | 86 | 목사(牧使) | 45 |
| 만복(晩卜) | 291 | 몽뢰정(夢賚亭) | 43 |
| 만상(萬象) | 325 | 몽불성(夢不成) | 162, 183 |
| 만생(晩生) | 277 | 묘(畝) | 89 |
| 만장(萬丈) | 145 | 묘묘(渺渺) | 289 |
| 만화(萬化) | 132 | 묘묘(杳杳) | 46 |
| 말로(末路) | 190, 204 | 묘연(杳然) | 60 |
| 말학(末學) | 326 | 무골(無滑) | 253 |
| 망단(望斷) | 299 | 무단(無端) | 319 |
| 망망(望望) | 241 | 무뢰(無賴) | 57 |
| 망망(茫茫) | 63, 212, 328 | 무몰(燕沒) | 96 |
| 망연(茫然) | 108, 327 | 무보익(無補益) | 98 |
| 매호(梅湖) | 141 | 무사(撫事) | 202 |
| | | 무소위(無所爲) | 248 |
| | | 무예(蕪穢) | 295 |

| | | | |
|----------------|----------|------------|---------------|
| 무완(撫玩) | 219 | 망형(芳馨) | 103 |
| 무창어(武昌魚) | 142 | 배소(拜掃) | 297 |
| 무초(茂草) | 269 | 백각(百刻) | 338 |
| 무협(巫峽) | 84 | 백구(百口) | 226 |
| 무홍(茂弘) | 239 | 백구(白鷗) | 42 |
| 묵자사(墨子絲) | 194 | 백년(百年) | 147, 157, 292 |
| 문경(聞慶) | 73 | 백두(白頭) | 284 |
| 문수(文殊) | 244 | 백씨(伯氏) | 297 |
| 문왕(文王) | 87 | 백아(伯牙) | 125 |
| 물상(物狀) | 197 | 백안(白眼) | 301 |
| 미(微) | 175 | 백운단(白雲端) | 9 |
| 미(麤) | 37 | 백운향(白雲鄉) | 65 |
| 미미(寔寔) | 17 | 백의(白衣) | 241 |
| 미미(微微) | 171, 216 | 백의창구(白衣蒼狗) | 328 |
| 미방(迷方) | 277 | 백인(伯仁) | 239 |
| 미생(微生) | 250 | 백일(白日) | 145 |
| 미우(微雨) | 74 | 백족(白足) | 245 |
| 미월(微月) | 299 | 백족화상(白足和尚) | 245 |
| 미응(未應) | 176 | 번(翻) | 39 |
| 박 | | 벽(癖) | 132 |
| 박감역(朴監役) | 45 | 벽(僻) | 134 |
| 박감역 대의(朴監役大宜) | 45 | 벽도(碧桃) | 77 |
| 반(斑) | 291 | 벽등(壁燈) | 111 |
| 반도(半道) | 105 | 벽라의의(薜蘿衣) | 259 |
| 반세(半世) | 196, 292 | 벽락(碧落) | 124 |
| 반숙(伴宿) | 309 | 벽애(碧崖) | 50 |
| 반야(半夜) | 123 | 벽제(碧蹄) | 167 |
| 반행(班行) | 276 | 번(邊) | 327 |
| 발단(髮短) | 19 | 변석(辨釋) | 242 |
| 발섭(跋涉) | 224 | 변응성(邊應星) | 178 |
| 방(方) | 163 | 변작(變作) | 252 |
| 방비(芳菲) | 304 | 병(病) | 85, 209 |
| 방수순심어사(防守巡審御使) | 189 | 병객(病客) | 183 |
| 방심(芳心) | 1 | 병진(兵塵) | 332 |
| 방어사(防禦使) | 178 | 병화(兵火) | 224 |
| 방촌(方寸) | 334 | 보운(步韻) | 159, 233 |
| 방촌지(方寸地) | 253 | 보허대(步虛臺) | 116 |

| | | | |
|------------|---------|-------------|-----------------------|
| 보허성(步虛聲) | 116 | 북담(北潭) | 83 |
| 복(卜) | 50, 160 | 북풍(北風) | 30 |
| 복거(卜居) | 213 | 분막(噴薄) | 286 |
| 복린(卜隣) | 214 | 분분(紛紛) | 19, 55, 197, 200, 229 |
| 복식(卜式) | 22 | 분수(分手) | 152 |
| 복옥(馥郁) | 2 | 분외(分外) | 325 |
| 복희(伏羲) | 87 | 분침(氛祲) | 329 |
| 복희씨(伏羲氏) | 316 | 불관(不管) | 229 |
| 본도(本道) | 169 | 불등(佛燈) | 309 |
| 봉(峰) | 184 | 불리(不理) | 156 |
| 봉가(鳳駕) | 257 | 불모(不謀) | 209 |
| 봉식자(封植者) | 103 | 불방(不妨) | 332 |
| 봉액(縫掖) | 280 | 불사(不思) | 93 |
| 봉필(蓬華) | 264 | 불사문(不事文) | 145 |
| 봉호(蓬蒿) | 264 | 불사선악(不思善惡) | 93 |
| 봉화(奉和) | 321 | 불여(不如) | 90 |
| 부(賦) | 238 | 불천(不遷) | 266 |
| 부귀(賦歸) | 213 | 불필(不必) | 84 |
| 부념(浮念) | 333 | 비(非) | 42 |
| 부령(簿領) | 142 | 비가(悲歌) | 278 |
| 부명(浮名) | 314 | 비공(飛空) | 137 |
| 부명(浮名) | 55 | 비보(飛步) | 335 |
| 부생평(負生平) | 323 | 비부(比附) | 144 |
| 부세(浮世) | 78 | 비유(非有) | 253 |
| 부양지경(俯仰之頃) | 219 | 빈(鬢) | 74, 202 |
| 부여(付與) | 62 | 빈구(貧婁) | 146 |
| 부월(鈇鉞) | 243 | 빈발(鬢髮) | 156 |
| 부유(浮遊) | 277 | 빙(憑) | 109 |
| 부인(夫人) | 86 | 빙고(憑高) | 212 |
| 부잠한(不暫閒) | 220 | 빙옥(冰玉) | 205 |
| 부전(扶顛) | 197 | 사(斜) | 115 |
| 부족빙(不足憑) | 154 | 사(辭) | 217 |
| 부착(斧鑿) | 286 | 사(莎) | 250 |
| 부천사(副天使) | 56 | 사(瀉) | 67 |
| 부토(抔土) | 102 | 사(賒) | 217 |
| 부해계(浮海計) | 199 | 사군(思君) | 38 |
| 부휴(浮休) | 187 | | |

| | | | |
|------------------|----------|----------|--------------|
| 사대수(查大受) | 167 | 상수선(上水船) | 108 |
| 사분(絲棼) | 220 | 상시(傷時) | 319 |
| 사인(舍人) | 43 | 상신(傷神) | 33 |
| 사절(使節) | 32 | 상억(尙憶) | 327 |
| 사초(莎草) | 250 | 상억(相憶) | 61 |
| 사해(四海) | 269 | 상우(尙友) | 277 |
| 산관(山館) | 53 | 상인(上人) | 232 |
| 산득난궁입해사(算得難窮入海沙) | 331 | 상적(相賊) | 102 |
| 산림(山林) | 49 | 상관(上坂) | 225 |
| 산수인(山水引) | 198 | 상하(上下) | 137 |
| 산아(山阿) | 176 | 상한(霜寒) | 130 |
| 산차(山茶) | 144 | 상회(傷懷) | 298 |
| 삼경(三更) | 123 | 새외(塞外) | 34 |
| 삼경(三逕) | 143 | 생령(生靈) | 287 |
| 삼부(三復) | 130, 231 | 생백(生白) | 133 |
| 삼성(參星) | 164 | 생세(生世) | 98 |
| 삼순(三旬) | 146 | 생애(生涯) | 92, 146, 229 |
| 삼야(三夜) | 123 | 서(緒) | 89 |
| 삼여상(參與商) | 164 | 서관(西關) | 272 |
| 삼영(三營) | 167 | 서극부(徐克夫) | 204 |
| 삼이(芟夷) | 241 | 서당(西堂) | 233 |
| 삼전역(三傳譯) | 29 | 서대(西臺) | 250, 325 |
| 삼정재(三靜齋) | 132 | 서루(西樓) | 64 |
| 삼춘(三春) | 74 | 서방(徐方) | 253 |
| 삼추(三秋) | 36 | 서번(西藩) | 252 |
| 삼탄식(三歎息) | 274 | 서인원(徐仁元) | 36, 204 |
| 삼삼(颯颯) | 216 | 서일(西日) | 291 |
| 상간(相看) | 245 | 서지(棲遲) | 194 |
| 상강죽(湘江竹) | 257 | 서현(西軒) | 99 |
| 상대(霜臺) | 241 | 석(夕) | 101 |
| 상로당(霜露堂) | 130 | 석지(石池) | 163 |
| 상마(相馬) | 196 | 선룡(先龍) | 297 |
| 상방(上方) | 247 | 선악(善惡) | 93 |
| 상사(相思) | 77 | 선어(禪語) | 93 |
| 상산(商山) | 207 | 선정(禪定) | 155 |
| 상성(商星) | 165 | 설색(雪塞) | 244 |
| 상수(湘水) | 259 | 설선(薛瑄) | 281 |

| | | | |
|------------|---------------|------------|----------|
| 설자(漂者) | 139 | 소파(素波) | 37 |
| 설후(薛侯) | 281 | 소평과(邵平瓜) | 332 |
| 섭난(攝亂) | 114 | 소현(小軒) | 317 |
| 성(誠) | 321 | 소호연(少好緣) | 109 |
| 성(省) | 42 | 소회(所懷) | 96 |
| 성궐(城闕) | 289 | 속려(俗慮) | 228 |
| 성근(省覲) | 76 | 속은(束纒) | 24 |
| 성명문물(聲名文物) | 278 | 속은걸화(束纒乞火) | 24 |
| 성의(城隄) | 180 | 속은청화(束纒請火) | 24 |
| 성절(聖節) | 279 | 속정(屬情) | 28 |
| 성철(聖轍) | 258 | 속차(屬此) | 36 |
| 성철(聖哲) | 334 | 쇄(鎖) | 138 |
| 성첩(城堞) | 176 | 쇄염(灑染) | 257 |
| 성하로(城下路) | 189 | 쇠(衰) | 172 |
| 세고(世故) | 220 | 쇠지(衰遲) | 254, 292 |
| 세념(世念) | 173 | 쇠질(衰疾) | 173 |
| 세도(世道) | 101, 233, 261 | 수(輪) | 203 |
| 세만(歲晚) | 136, 199, 235 | 수각(戍角) | 182 |
| 세심경(洗心經) | 78 | 수각(睡覺) | 311 |
| 세심대(洗心臺) | 9 | 수갈(繻葛) | 270 |
| 세우(細雨) | 128 | 수갈지전(繻葛之戰) | 270 |
| 세이난(歲已闌) | 301 | 수명(受命) | 266 |
| 세초(細草) | 52 | 수소(收召) | 168 |
| 세한심(歲寒心) | 37 | 수승소거(守僧所居) | 132 |
| 소(沂) | 191 | 수유(須臾) | 328 |
| 소(邇) | 303 | 수자(誰子) | 81 |
| 소(疎) | 98 | 수작(羞作) | 267 |
| 소류궁원(沂流窮源) | 254 | 수절(愁絕) | 309 |
| 소봉호(巢蓬蒿) | 264 | 수지(誰知) | 231 |
| 소부(召赴) | 169 | 수처(隨處) | 6, 229 |
| 소소(蕭蕭) | 135 | 수하(首夏) | 333 |
| 소소(昭昭) | 150, 251, 341 | 수향(睡鄉) | 313 |
| 소슬(蕭瑟) | 248 | 숙석(夙昔) | 141 |
| 소연(蕭然) | 147 | 숙석(宿昔) | 164 |
| 소정(小靜) | 132 | 숙향(叔向) | 238 |
| 소지(素志) | 194 | 순문(詢問) | 32 |
| 소축(小築) | 104 | 습정(習靜) | 154 |

| | |
|----------|---------|
| 승선(承宣) | 168 |
| 승소(承召) | 90 |
| 승일(勝日) | 56 |
| 승절(勝絶) | 213 |
| 승축(僧軸) | 150 |
| 시관(柴關) | 300 |
| 사이(時移) | 306 |
| 시인(市人) | 242 |
| 시장(試將) | 155 |
| 시향(試向) | 322 |
| 식력(食力) | 332 |
| 식로(識路) | 196 |
| 신(伸) | 284 |
| 신(身) | 91 |
| 신개(晨開) | 79 |
| 신평(神怪) | 289 |
| 신표(神交) | 30, 284 |
| 신킨(辛勤) | 25 |
| 신흥경(神獨警) | 120 |
| 신명(身名) | 272 |
| 신방(神方) | 142 |
| 신사업(新事業) | 194 |
| 신세(身世) | 254 |
| 신숭(神崇) | 33 |
| 신안(神眼) | 180 |
| 신안(新安) | 60 |
| 신우(神禹) | 286 |
| 신정(新亭) | 240 |
| 신제(新齋) | 55 |
| 실가(室家) | 332 |
| 심(潭) | 104 |
| 심(深) | 200 |
| 심간(心肝) | 205 |
| 심계(心計) | 54 |
| 심법(心法) | 249 |
| 심유경(沈惟敬) | 168 |
| 심행(尋行) | 24 |

| | |
|--------------|---------|
| 십회(心懷) | 70 |
| 십절(十絶) | 99 |
| 쌍리(雙鯉) | 284 |
| 쌍연(雙然) | 226 |
| 아 (訝) | 33 |
| 아양(裁洋) | 125 |
| 악(惡) | 83 |
| 악목(惡木) | 262 |
| 안(安) | 82, 334 |
| 안검(安劍) | 306 |
| 안득(安得) | 187 |
| 안색(顔色) | 103 |
| 안영(鴈影) | 301 |
| 안중(眼中) | 55 |
| 알(謁) | 32 |
| 암만(巖巒) | 225 |
| 암암(黯黯) | 211 |
| 암수(鴨水) | 33 |
| 애련당(愛蓮堂) | 134 |
| 애애(哀哀) | 130 |
| 애애(靄靄) | 20 |
| 야은(治隱) | 102 |
| 야은묘(治隱墓) | 102 |
| 약도(若道) | 329 |
| 약마(躍馬) | 194 |
| 약석(藥石) | 314 |
| 약속(約束) | 169 |
| 양(釀) | 289 |
| 양명(陽明) | 243 |
| 양무내(兩無奈) | 336 |
| 양빈(兩鬢) | 97 |
| 양어지(養魚池) | 133 |
| 양염(涼炎) | 241 |
| 양자연(良自然) | 266 |
| 양진(養眞) | 215 |
| 어별(魚鱗) | 287 |

| | | | |
|------------|----------|------------|---------------|
| 어약연비(魚躍鳶飛) | 340 | 연좌(燕坐) | 87 |
| 엄(淹) | 141 | 연좌루(燕坐樓) | 64, 85, 156 |
| 엄(揜) | 300 | 연파(烟波) | 57, 86, 113 |
| 엄관(揜關) | 173 | 연하(烟霞) | 215 |
| 엄류(淹留) | 53, 57 | 연화(年華) | 115, 197, 304 |
| 엄상(嚴霜) | 303 | 연회(沿洄) | 83 |
| 엄시관(揜柴關) | 300 | 열세(閱世) | 109 |
| 여(如) | 42, 195 | 염계(濂溪) | 135 |
| 여년(餘年) | 217 | 염구(念舊) | 220 |
| 여대로(呂大老) | 119 | 염락(濂洛) | 281 |
| 여사(如使) | 338 | 염액(簾額) | 315 |
| 여성우(呂聖遇) | 119 | 염염(冉冉) | 197 |
| 여승해(如乘海) | 114 | 염팔(念八) | 279 |
| 여일(麗日) | 33 | 영(映) | 118 |
| 여파(餘波) | 281 | 영(嬰) | 120 |
| 여하(如~何) | 191 | 영(永) | 19 |
| 역(易) | 76 | 영(寧) | 26, 217 |
| 역력(歷歷) | 333 | 영각(鈴閣) | 119 |
| 역루(驛樓) | 209 | 영각(靈覺) | 150 |
| 역정(驛亭) | 57 | 영고(榮枯) | 71 |
| 연(憐) | 33 | 영국(盈掬) | 159 |
| 연(烟) | 77 | 영귀대(詠歸臺) | 136 |
| 연곶(戀關) | 202 | 영대(靈臺) | 323 |
| 연당(蓮堂) | 103 | 영락(零落) | 275 |
| 연매(烟煤) | 298 | 영로(嶺路) | 54 |
| 연명(淵明) | 143, 260 | 영모재(永慕齋) | 130 |
| 연빙(淵氷) | 154 | 영현(楹軒) | 146 |
| 연산(燕山) | 61 | 영험(寧嫌) | 198 |
| 연서(燃犀) | 290 | 영회(榮廻) | 180 |
| 연서촌(延曙村) | 7 | 예(翳) | 151 |
| 연석(燕石) | 268 | 예(禮) | 28 |
| 연수(煙樹) | 40 | 예(曳) | 39 |
| 연시(燕市) | 278 | 오가(吾家) | 339 |
| 연어현(鳶魚軒) | 131 | 오군중주(吳君仲周) | 276 |
| 연운(燕雲) | 30 | 오대산(五臺山) | 288 |
| 연저(延佇) | 135 | 오색우(五色羽) | 269 |
| 연좌(宴座) | 336 | 오어(晤語) | 40 |

| | | | |
|--------------|-------------|------------|----------|
| 오언(晤言) | 96 | 요득(了得) | 163, 338 |
| 오유격유충(吳遊擊惟忠) | 169 | 요락(搖落) | 303 |
| 오유충(吳惟忠) | 169 | 요료(了了) | 63, 305 |
| 오주(吳洲) | 284 | 요아편(蓼莪篇) | 130 |
| 오주월(吳洲月) | 29 | 요요(寥寥) | 111 |
| 오중주(吳仲周) | 28, 59, 276 | 요요(擾擾) | 273 |
| 오천문(五千文) | 273 | 요요(遙遙) | 288 |
| 오풍(午風) | 118 | 요편(瑤篇) | 35 |
| 오호(嗚呼) | 165, 339 | 용(龍) | 197 |
| 옥류(玉旒) | 279 | 용랍(鎔鑼) | 225 |
| 옥신(玉宸) | 28 | 용문(龍門) | 286 |
| 옥연(玉淵) | 302 | 용문자(龍門子) | 274 |
| 옥연서당(玉淵書堂) | 91, 324 | 용슬(容膝) | 247 |
| 옥연정사(玉淵精舍) | 302 | 용심일차(用心一差) | 237 |
| 옥하주(玉河洲) | 283 | 용음(龍吟) | 267 |
| 온왕(溫王) | 176 | 용추(龍湫) | 90 |
| 옹계(甕雞) | 31 | 용학(聳壑) | 299 |
| 와부(瓦缶) | 273 | 우거(寓居) | 230 |
| 와일림(臥一林) | 326 | 우단(憂端) | 159 |
| 와담(臥榻) | 253 | 우도(右道) | 168 |
| 완심재(玩心齋) | 132 | 우두(牛斗) | 197 |
| 왕(枉) | 126 | 우서(偶書) | 308 |
| 왕경민(王敬民) | 56 | 우순(虞舜) | 149 |
| 왕기(枉起) | 203 | 우음(偶吟) | 211 |
| 왕도(王導) | 236 | 우의(羽衣) | 235 |
| 왕백(王伯) | 332 | 우저(牛渚) | 289 |
| 왕손(王孫) | 1 | 우정(郵亭) | 197 |
| 왕수인(王守仁) | 237 | 우제(偶題) | 230 |
| 왕양명(王陽明) | 237 | 운(云) | 102 |
| 왕정(王正) | 279 | 운경(雲肩) | 335 |
| 외(隈) | 182 | 운기(雲氣) | 256 |
| 외물(外物) | 227 | 운니(雲泥) | 283 |
| 요(要) | 114 | 운소(雲宵) | 103 |
| 요(耀) | 145 | 운암(雲巖) | 213 |
| 요(遙) | 32 | 운우(雲雨) | 306 |
| 요금(瑤琴) | 327 | 운표(雲表) | 184 |
| 요금(腰金) | 177 | 울울(鬱鬱) | 259 |

| | | | |
|----------------|-------------|--------------|----------------------------|
| 원(鵷) | 280 | 유분(游氛) | 162 |
| 원래(元來) | 154 | 유사(有似) | 139 |
| 원만(腕晚) | 296 | 유사(有司) | 48 |
| 원반(鵷班) | 33 | 유승(遊僧) | 179 |
| 원사(遠思) | 18, 164 | 유악(帷幄) | 223 |
| 원상로집(鵷翔鷺集) | 280 | 유연(悠然) | 24 |
| 원상전(原上田) | 23 | 유유(悠悠) | 17, 46, 137, 172, 183, 333 |
| 원서(圓書) | 156 | 유인(幽人) | 228, 232, 311 |
| 원역(遠役) | 212 | 유인(游人) | 325 |
| 원정(遠情) | 135 | 유자(猶自) | 143 |
| 원지정(遠志亭) | 118 | 유자(遊子) | 294 |
| 원지정사(遠志精舍) | 51, 71, 143 | 유장(惟將) | 62 |
| 원초(苑草) | 318 | 유재(悠哉) | 97 |
| 원헌(原憲) | 263 | 유경(劉綈) | 169 |
| 원헌빈(原憲貧) | 263 | 유주(維舟) | 151 |
| 원회장(遠懷長) | 232 | 유지(遊志) | 278 |
| 월악산(月嶽山) | 195 | 유천(顛天) | 242 |
| 월암(月暗) | 182 | 유충병정(劉攄兵綈) | 168 |
| 위(爲) | 328 | 유출(流出) | 72 |
| 위난(危欄) | 172 | 유편(遺編) | 326 |
| 위문(爲問) | 203 | 유환(遺恨) | 190 |
| 위좌(危坐) | 317 | 유형(遺形) | 334 |
| 위지(爲之) | 298 | 유회(幽懷) | 334 |
| 위차타(爲蹉跎) | 192 | 육력(戮力) | 240 |
| 유(遺) | 63 | 윤경립(尹敬立) | 213 |
| 유거(幽居) | 96 | 윤종사경립(尹從事敬立) | 213 |
| 유규(遺規) | 48 | 은근(慇懃) | 242 |
| 유기(幽期) | 199 | 은제(恩除) | 54 |
| 유년(流年) | 67 | 음(吟) | 288 |
| 유대수(俞大脩) | 44 | 음서(音書) | 142 |
| 유독(幽獨) | 160 | 음신(音信) | 276 |
| 유리(流離) | 226 | 음애(陰崖) | 225 |
| 유명(幽明) | 242 | 음양(陰陽) | 160 |
| 유목사 사영(俞牧使 思永) | 44 | 읍(挹) | 34 |
| 유별(流別) | 46 | 응위(應爲) | 325 |
| 유복(猶復) | 154 | 의(倚) | 63, 85 |
| 유본근(惟本根) | 255 | 의고(擬古) | 256 |

| | | | |
|----------------|----------|------------------|-------------------|
| 의고시(擬古詩) | 256 | 이참봉 평중(李參奉 宏仲) | 45 |
| 의공계(倚筇溪) | 137 | 이피(離披) | 232, 295 |
| 의관(衣冠) | 280 | 이혼(而魂) | 253 |
| 의루(依樓) | 299 | 이황(李滉) | 12, 158, 321, 324 |
| 의엄(義嚴) | 178 | 이효칙(李孝則) | 55 |
| 의의(依依) | 153 | 인(人) | 326 |
| 이(已) | 33 | 인과(忍過) | 89 |
| 이길(李洁) | 44 | 인동(仁同) | 76, 99 |
| 이내한 경연(李內翰 景淵) | 43 | 인동현(仁同縣) | 76 |
| 이덕홍(李德弘) | 45 | 인동현재(仁同縣齋) | 119 |
| 이도은(李陶隱) | 220 | 인문(人文) | 67 |
| 이래(邇來) | 284 | 인사(人事) | 55 |
| 이마(羸馬) | 8 | 인연(人煙) | 227 |
| 이묘(二妙) | 148 | 인정지막진난보(人情紙薄眞難保) | 220 |
| 이발(李潑) | 43 | 일곡(一曲) | 285 |
| 이백(李白) | 158 | 일기(一氣) | 115, 163, 325 |
| 이백년(二百年) | 278 | 일념(一念) | 251 |
| 이비루(二妃淚) | 256 | 일도(一度) | 221 |
| 이사인 경함(李舍人 景涵) | 43 | 일문(一門) | 150 |
| 이생찬(李甥燦) | 300 | 일미장(一味長) | 118 |
| 이숙재(李叔載) | 207 | 일석(一夕) | 57 |
| 이숙평(李叔平) | 107, 196 | 일소(一笑) | 152 |
| 이순인(李純仁) | 44 | 일실(一室) | 81 |
| 이숭인(李崇仁) | 220 | 일야근명생겁회(一夜昆明生劫灰) | 180 |
| 이심(已深) | 303 | 일엽주(一葉舟) | 104 |
| 이안(籬鴉) | 59 | 일월(日月) | 142 |
| 이언적(李彦迪) | 65 | 일월간음서(日月間音書) | 142 |
| 이여송(李如松) | 167 | 일일(日日) | 180 |
| 이인(伊人) | 86 | 일좌춘(一座春) | 29 |
| 이전(李填) | 207 | 일창(一窓) | 316 |
| 이절현(理絕絃) | 60 | 일침(一枕) | 161 |
| 이정(異情) | 313 | 임강대(臨江臺) | 181 |
| 이제독 여송(李提督 如松) | 166 | 임기(臨歧) | 128 |
| 이좌랑 백생(李佐郎 伯生) | 44 | 임분(臨分) | 204 |
| 이준(李竣) | 107 | 임엽(荏莢) | 37 |
| 이준(李竣) | 196 | 임우(霖雨) | 329 |
| 이찬(李燦) | 300 | 임진(任眞) | 240 |

| | | | |
|----------------|----------|------------|------------------------------|
| 입풍(臨風) | 227 | 장해(障海) | 109 |
| 입마(立馬) | 189, 210 | 장홍(長虹) | 197 |
| 입망(入望) | 74 | 재거(齋居) | 127, 321 |
| 입선(入禪) | 132 | 재사(齋寺) | 297 |
| 입암(立巖) | 39 | 재심(齋心) | 121 |
| 입해산사(入海算沙) | 331 | 적(適) | 19 |
| 자 금(自今) | 50 | 적엽십지(摘葉尋枝) | 109 |
| 자기(紫氣) | 53 | 전두(轉頭) | 54 |
| 자시(自是) | 292 | 전문(田文) | 262 |
| 자자(孳孳) | 313 | 전수(前修) | 277 |
| 자재(自在) | 152 | 전요(纏繞) | 334 |
| 자지(自知) | 98 | 전전(輾轉) | 183 |
| 자탄술(自坦率) | 240 | 전전(闕闕) | 83 |
| 작라문(雀羅門) | 307 | 전추(錢樞) | 89 |
| 작별(作別) | 46 | 전풍(顛風) | 317 |
| 잔(殘) | 204 | 절기(切忌) | 338 |
| 잔경(殘更) | 119 | 절난(折難) | 289 |
| 잔도(棧道) | 195, 225 | 절립(絶粒) | 246 |
| 잔등(殘燈) | 244 | 절막(切莫) | 126 |
| 잔영(殘英) | 303 | 절사(節士) | 239 |
| 잔원(潺湲) | 221 | 절승(絶勝) | 142 |
| 잔일(殘日) | 258 | 점복서(占卜書) | 101 |
| 잠(潛) | 143 | 점화(點化) | 323 |
| 장(丈) | 100, 187 | 접해(鰈海) | 30 |
| 장(將) | 203 | 정(正) | 144 |
| 장가(長歌) | 296 | 정(庭) | 282 |
| 장단구(長短句) | 233 | 정견우사(情見于辭) | 169 |
| 장로(長老) | 178 | 정경세(鄭經世) | 107, 124, 193, 198, 321 |
| 장로(長路) | 191 | 정경임(鄭景任) | 107, 124, 189, 193, 198, 321 |
| 장림역(長林驛) | 213 | 정계(鄭槩) | 318 |
| 장서일한(長書逸翰) | 108 | 정계(靜界) | 49 |
| 장소(長嘯) | 181, 212 | 정관(靜觀) | 251 |
| 장수(藏修) | 49 | 정난(汀蘭) | 86 |
| 장안(長安) | 292 | 정녕(丁寧) | 110 |
| 장천(長天) | 312 | 정대(亭臺) | 141 |
| 장한(長恨) | 220 | 정백(精白) | 242 |
| | | 정사(精舍) | 51, 79, 129, 232 |

| | | | |
|----------------|----------|------------|-------------|
| 정사(征叢) | 202 | 조종도(趙宗道) | 297 |
| 정상(精想) | 31 | 조종의(朝宗意) | 289 |
| 정식(鼎食) | 263 | 조차(造次) | 51 |
| 정오(鄭五) | 318 | 조천(朝天) | 276 |
| 정운(停雲) | 20 | 조천행(朝天行) | 276 |
| 정이(程頤) | 134 | 조혼(朝昏) | 251 |
| 정절(精切) | 339 | 종남산(終南山) | 223 |
| 정종사화백협(鄭從事和伯協) | 211 | 종사(從事) | 211 |
| 정좌랑경임(鄭佐郎景任) | 189 | 종성(鐘聲) | 42 |
| 정주(定州) | 3, 7 | 종적(蹤跡) | 283 |
| 정중천(井中天) | 59 | 좌(坐) | 16, 96, 296 |
| 정협(鄭協) | 211 | 좌랑(佐郎) | 44, 189 |
| 정호(程顥) | 134 | 좌래(坐來) | 131 |
| 정확(鼎鑊) | 241 | 주(走) | 258 |
| 제(題) | 147 | 주강(周綱) | 270 |
| 제(際) | 39, 172 | 주공(周公) | 105 |
| 제근(弟昆) | 144 | 주노실(周老室) | 125 |
| 제독(提督) | 166 | 주도(周道) | 268 |
| 제서(題書) | 98 | 주둔이(周敦頤) | 125, 135 |
| 제서감(題書龕) | 98 | 주리(珠履) | 262 |
| 제시(題詩) | 298 | 주목왕(周穆王) | 252 |
| 제야(除夜) | 308 | 주무(綢繆) | 284 |
| 제월(霽月) | 162, 341 | 주백인(周伯仁) | 236 |
| 제제(濟濟) | 280 | 주벽(晝闢) | 79 |
| 제철(提掇) | 340 | 주서원(注書原) | 102 |
| 조(朝) | 279 | 주서절요(朱書節要) | 12 |
| 조단(朝端) | 34 | 주석(住錫) | 232 |
| 조돈(朝墩) | 252 | 주역(周易) | 76 |
| 조맹(趙孟) | 238 | 주왕(周王) | 252 |
| 조무(趙武) | 238 | 주의(周顥) | 236 |
| 조문자(趙文子) | 238 | 주자(朱子) | 276 |
| 조물(造物) | 331 | 주즙(舟楫) | 289 |
| 조승훈(祖承訓) | 166 | 주하사(柱下史) | 271 |
| 조신(曹伸) | 213 | 주희(朱熹) | 10, 17 |
| 조안(照眼) | 61 | 죽오(竹塢) | 103 |
| 조양(朝陽) | 270 | 중구(重九) | 185 |
| 조양봉(朝陽鳳) | 265 | 중문(重門) | 3 |

| | |
|----------|--------------|
| 중방(衆芳) | 295 |
| 중소(中宵) | 115 |
| 중야(中夜) | 109 |
| 중정(中靜) | 133 |
| 중허(中虛) | 132 |
| 지(祗) | 103 |
| 지(旨) | 169 |
| 지(持) | 32 |
| 지(祗) | 68 |
| 지계(地界) | 162 |
| 지기(知己) | 59 |
| 지난(芝蘭) | 96 |
| 지락(至樂) | 118, 334 |
| 지란(芝蘭) | 233 |
| 지류(遲留) | 210 |
| 지음(知音) | 208 |
| 지인(至人) | 272 |
| 지자(只自) | 298 |
| 지지(遲遲) | 20 |
| 지척(咫尺) | 77 |
| 지치(至治) | 258 |
| 직(直) | 46, 132, 340 |
| 진(盡) | 124 |
| 진루(塵累) | 111 |
| 진면목(眞面目) | 94 |
| 진분(塵氛) | 80 |
| 진삼(陳三) | 318 |
| 진색(榛塞) | 233 |
| 진속(塵俗) | 134 |
| 진원(眞源) | 327 |
| 진의(盡意) | 322 |
| 진일(盡日) | 328 |
| 진초(陳楚) | 269 |
| 진회(塵灰) | 185 |
| 진환(塵喧) | 255 |
| 징강(澄江) | 326 |
| 징영(澄影) | 137 |

| | |
|------------|--------------|
| 차간(此間) | 322 |
| 차골(次骨) | 239 |
| 차문(借間) | 26 |
| 차운(次韻) | 17, 28, 219 |
| 차전운(次前韻) | 184 |
| 차취취(且取醉) | 296 |
| 차타(蹉跎) | 16, 18, 190 |
| 착(着) | 77 |
| 착벽(鑿壁) | 21 |
| 착안(着眼) | 322 |
| 착의(着意) | 132 |
| 참(驂) | 53, 148, 200 |
| 참동계(參同契) | 338 |
| 참란가학(驂鸞駕鶴) | 235 |
| 참봉(參奉) | 45, 46 |
| 참선(參禪) | 246 |
| 참심(參尋) | 108 |
| 참암(巉巖) | 225 |
| 참의(參議) | 216 |
| 참장(愬將) | 191 |
| 참참(慘慘) | 225 |
| 참천(攙天) | 225 |
| 창(敞) | 56, 92 |
| 창(窗) | 79 |
| 창구(蒼狗) | 329 |
| 창망(悵惘) | 135 |
| 창명(滄溟) | 124 |
| 창연(愴然) | 298 |
| 창염공(蒼髯公) | 145 |
| 창오(蒼梧) | 256 |
| 창창(蒼蒼) | 97, 156 |
| 창태(蒼苔) | 118 |
| 창합(閭闔) | 260 |
| 채채(采采) | 304 |
| 처(處) | 60, 152 |
| 처풍(懷風) | 131 |
| 천(薦) | 13 |

| | | | |
|--------------|---------------|------------|---------|
| 천고한(千古恨) | 68 | 초객(楚客) | 2 |
| 천기(天機) | 312 | 초계(草溪) | 168 |
| 천도(天道) | 340 | 초료(鷓鴣) | 264 |
| 천리(千里) | 91 | 초산(楚山) | 259 |
| 천문(天門) | 145 | 초연(悄然) | 228 |
| 천병(天兵) | 166 | 초요(岢嶢) | 184 |
| 천사(千駟) | 335 | 초운진수(楚雲秦樹) | 153 |
| 천생성(天生城) | 101 | 초은대(招隱臺) | 135 |
| 천심(天心) | 162 | 초창(惘悵) | 99, 235 |
| 천애(天涯) | 61 | 초체(迢遞) | 60 |
| 천오(天奧) | 180 | 촉첩평(觸輒平) | 120 |
| 천유(闡幽) | 243 | 촌교(寸膠) | 287 |
| 천장(天將) | 211, 232 | 촌음(寸陰) | 255 |
| 천장부(賤丈夫) | 242 | 충국(叢菊) | 232 |
| 천재(千載) | 277 | 총병(總兵) | 167 |
| 천재정(千載情) | 231 | 총섭(總攝) | 179 |
| 천지(天地) | 96 | 취퇴(摧頹) | 284 |
| 천천(芊芊) | 180 | 추(阡) | 128 |
| 청낙(淸洛) | 100 | 추(秋) | 278 |
| 청명(靑冥) | 266, 336 | 추벽(秋碧) | 137 |
| 청성도계(靑城道契) | 127 | 추색(秋色) | 295 |
| 청소(靑霄) | 320 | 추심(推心) | 240 |
| 청소(靑宵) | 81 | 추연(秋烟) | 295 |
| 청양(淸揚) | 280 | 추운(秋雲) | 151 |
| 청우거(靑牛車) | 271 | 추주(趨走) | 177 |
| 청준(淸樽) | 20 | 추창(惆悵) | 327 |
| 청추(淸秋) | 108 | 추호(秋毫) | 227 |
| 청편(淸篇) | 58 | 축(軸) | 52 |
| 청표(淸標) | 61 | 춘신(春申) | 262 |
| 청풍한벽루(淸風寒碧樓) | 166 | 춘신군(春申君) | 262 |
| 청헌(淸獻) | 88 | 출(出) | 112 |
| 청형(靑筵) | 309 | 출재(出宰) | 204 |
| 체급(逮及) | 241 | 충정(衷情) | 117 |
| 체도(體道) | 334 | 취(取) | 27 |
| 체찰사(體察使) | 166, 186, 209 | 취미(翠微) | 41 |
| 초(椒) | 165 | 층빙(層氷) | 225 |
| 초(楚) | 185 | 치둔(癡鈍) | 305 |

| | | | |
|--------------|---------------|--------------|-------------------------|
| 칠십자(七十子) | 283 | 편편(翩翩) | 269 |
| 침(枕) | 147, 182 | 편홍(便鴻) | 35 |
| 침명(沈冥) | 261, 313 | 포단(蒲團) | 309 |
| 침석(沈夕) | 86 | 포수(包羞) | 282 |
| 침침(沈沈) | 23 | 포휴(咆吼) | 226 |
| 타 (訖) | 143 | 표박(漂泊) | 172 |
| 타년(他年) | 72 | 풍마우(風馬牛) | 282 |
| 타옥(拖玉) | 177 | 풍번(風幡) | 253 |
| 타옥요금(拖玉腰金) | 177 | 풍상(風霜) | 96 |
| 탁영(濯纓) | 129 | 풍색(風色) | 82 |
| 탄금대(彈琴臺) | 193 | 풍신(楓宸) | 32 |
| 탄서천(歎逝川) | 136 | 풍악서원(豊嶽書院) | 48 |
| 탄술(坦率) | 240 | 풍진(風塵) | 195, 201, 215, 233, 292 |
| 담연(嗒然) | 244 | 필마(匹馬) | 175 |
| 당탕(蕩蕩) | 156 | 하 (下) | 102 |
| 태백(太白) | 244 | 하(荷) | 108 |
| 태운(太雲) | 244 | 하(何) | 18 |
| 태평책(太平策) | 275 | 하(河) | 216 |
| 탱(撐) | 108 | 하백(河伯) | 286 |
| 토탄(吐吞) | 317 | 하상(河上) | 232, 291 |
| 통(通) | 34 | 하연(訖然) | 225 |
| 퇴계선생(退溪先生) | 95, 321 | 하예(遐裔) | 277 |
| 퇴도선생(退陶先生) | 324 | 하유(何由) | 38 |
| 퇴도선생집(退陶先生集) | 158 | 하의(荷衣) | 92 |
| 투(渝) | 37 | 하증(何曾) | 71 |
| 파 (把) | 203 | 하한(河漢) | 311 |
| 파관귀전(罷官歸田) | 222 | 하허(何許) | 164 |
| 파사(婆娑) | 247, 270 | 하회(河回) | 232 |
| 파사성(婆娑城) | 178, 182, 189 | 하회촌(河回村) | 310 |
| 파사주(婆娑主) | 184 | 학기(學己) | 232 |
| 파파(幡幡) | 271 | 학기상인(學己上人) | 232 |
| 판(辦) | 187, 332 | 학선(學仙) | 335 |
| 팔준(八駿) | 252 | 한가(漢家) | 197 |
| 팔준유서번(八駿遊西藩) | 252 | 한강(漢江) | 288 |
| 편각(偏覺) | 205 | 한강음(漢江吟) | 288 |
| | | 한단몽(邯鄲夢) | 161 |

| | | | |
|----------------|------------------|----------------|---------------|
| 한마(汗馬) | 203 | 현지(懸知) | 142 |
| 한산자(寒山子) | 248 | 현천(玄天) | 122 |
| 한식(寒食) | 7 | 현추(懸秋) | 199 |
| 한신(間身) | 41 | 현표(玄豹) | 41 |
| 한아(寒鴉) | 171, 291 | 현회(顯晦) | 272 |
| 한열(寒咽) | 163 | 형(洞) | 130 |
| 한조(寒潮) | 183 | 형(荊) | 23 |
| 해도(解道) | 124 | 형덕(馨德) | 29, 61 |
| 해동(海東) | 34, 61 | 형설(螢雪) | 23 |
| 해수(解綬) | 73 | 형옥(荊玉) | 268 |
| 해시(奚啻) | 120 | 형진(荊榛) | 269 |
| 해후(邂逅) | 34, 57, 136, 141 | 혜(兮) | 164 |
| 행(行) | 224, 276 | 호(嗥) | 226 |
| 행(幸) | 243, 329 | 호(戶) | 79 |
| 행색(行色) | 186 | 호가(扈駕) | 166 |
| 행수(幸醜) | 278 | 호리(毫釐) | 281 |
| 행음(行吟) | 51 | 호전(湖田) | 229 |
| 행장(行藏) | 186, 196 | 호추(好醜) | 71 |
| 향(向) | 30 | 호해(湖海) | 193 |
| 향난(向闌) | 82 | 호호(呼號) | 227 |
| 향려(鄉廬) | 305 | 혼(昏) | 144 |
| 허(歔) | 68 | 혼(渾) | 57 |
| 허백(虛白) | 248 | 혼미(昏迷) | 338 |
| 허신(許愼) | 13 | 혼혼(昏昏) | 150, 325, 338 |
| 허실생백(虛室生白) | 248 | 홀경(忽驚) | 197 |
| 허적(虛寂) | 41 | 홀언(忽焉) | 164 |
| 허주(虛舟) | 120 | 홀홀(忽忽) | 67, 111 |
| 허참봉 행원(許參奉 行遠) | 45 | 홍(鴻) | 62 |
| 허참봉(許參奉) | 45 | 홍가신(洪可臣) | 44 |
| 허행원(許行遠) | 73 | 홍곡(鴻鵠) | 265 |
| 헌(軒) | 6, 40 | 홍정(弘靖) | 93 |
| 헌헌(軒軒) | 145 | 홍정랑 홍도(洪正郎 興道) | 44 |
| 헐(歇) | 37 | 홍하(紅霞) | 72 |
| 험이(險易) | 187 | 화(和) | 29, 191, 232 |
| 현감 허행원(縣監 許行遠) | 73 | 화(華) | 74, 203 |
| 현담(玄譚) | 33 | 화송(華嵩) | 159 |
| 현운(玄運) | 17 | 화우(和雨) | 206 |

| | | | |
|------------|--------------|----------|--------------|
| 화현(華軒) | 53 | 회암(晦庵) | 10, 17 |
| 환괴중소(還愧中宵) | 163 | 회재(晦齋) | 65 |
| 환성(喚醒) | 313 | 회중(晦仲) | 148 |
| 환종(還從) | 306 | 횡(橫) | 70 |
| 환패(環佩) | 116 | 횡돌(橫突) | 286 |
| 황(盲) | 24 | 효광(曉光) | 175 |
| 황권(黃卷) | 322 | 훈(薰) | 29 |
| 황내(況乃) | 241 | 훈심(薰心) | 62 |
| 황부(況復) | 15 | 훈유(薰猶) | 282 |
| 황우(黃虞) | 149 | 훤(暄) | 40 |
| 황정(黃庭) | 336 | 훤계(暄界) | 49 |
| 황제(黃帝) | 149 | 휴(畦) | 144 |
| 황종(黃鐘) | 273 | 흠명훈(欽明訓) | 231 |
| 황혈(黃歇) | 262 | 흥(興) | 66 |
| 황화(黃花) | 145, 185 | 흥회(興懷) | 169 |
| 황황(遑遑) | 173 | 희(喜) | 122 |
| 해해(噦噦) | 269 | 희단(姬旦) | 105 |
| 회(晦) | 302 | 희문(義文) | 87 |
| 회귀(懷歸) | 104 | 희음(希音) | 274 |
| 회난(懷難) | 205 | 희작(戲作) | 224 |
| 회사(懷沙) | 260 | 희제(戲題) | 91, 173, 229 |
| 회선(回旋) | 139 | 희황(羲皇) | 316 |
| 회수(回首) | 61, 192, 208 | 희희(嬉嬉) | 239 |



국역 및 감수



류명희(柳明熙)

本貫 豊山
臺灣 國立政治大 문학박사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주요논저

李清照詩詞箋釋
蘇東坡詞所表現的心路歷程研究
敦煌歌辭의 意境研究(1, 2) 외 다수

안유호(安維鎬)

本貫 順興
臺灣 國立師範大學 역사과 졸업
(前) 충북 충현고교 교사(한문·중국어)
학원강사(한문·중국어)

국역 서애전서 III- I

국역 류성룡 시 I

2011년 10월 15일 초판 발행
2012년 5월 30일 개정판 발행

발행인 류진(柳津)

발행처 사단법인(社團法人)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6층)

☎ 02)3406-5862, 5670

제작·공급처 한스북스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1-33 예장빌딩 301호

전화 : 3273-1247 FAX : 3273-1273

등록번호 제301-2011-205(2011. 11. 15)

비매품

ISBN 978-89-967692-2-4 04810

ISBN 978-89-967692-0-0 (세트)

뒤 표지 설명



서애 류성룡이 사용했던 책상과 그 밑 부분의 기문記文

56,5×30,0×25,5cm

풍산류씨 서애종택 충효당 소장

서애西厓선생의 대나무 책상(이는 사찰에서 스님들이 독경讀經할 때 쓰는 작은 책상인 '경상經床'으로, 당시 상류층 문인들도 서안書案 또는 서계書几 대신에 사용하였음)은 수암선생修巖先生(서애 선생의 아들 류진柳珍의 호)에게 전해졌고, 다시 빙군선생聘君先生(본 기문작성자가 자신의 빙장聘丈인 류성룡의 증손 류천지柳千之를 높여서 칭한 말)에게 전해졌으니, 이는 아마도 풍산 류씨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옛 물건인 듯하다. 내가 이 집안에 장가를 든 후에, 류여상柳汝常('여상'은 류천지의 아들인 류경하柳經河의 자, 본 기문작성자의 손위의 처남) 형이, 내가 고서를 읽고 옛것을 좋아한다하여, 그것을 내게 증여하였다. 무릇 물건은 오래되면 보배가 된다. 하물며 류문충공柳文忠公(서애 류성룡의 시호)께서, 천하를 경영했던 공업功業이나, 고금을 관통하는 학문을, 모두 이 책상 위에서 얻어냈으니, 더욱이 이 책상에 대해 감동을 받아 분발할 만 했다. 책상은 그 본 바탕이 나무로 되어있으나, 그 외장外裝의 문양은 대나무여서, 내면으로는 강직하고 방정함을 취하고, 외면으로는 절개와 지조를 취했으리라. 그러나 병화兵火를 겪은 뒤, 상판上板만 남아있고 받침대가 없어졌으므로, 마침내 없어진 부분을 보완하여 이를 새롭게 만들어, 내 서실의 기물로 삼았기에, 책상의 밑 부분에 이 기문記文을 적어 둔다.

-연안인延城人 후학後學 이만부李萬敷 삼가 적음

西厓先生竹几，傳于修巖先生，又傳于聘君先生，此蓋豐山世之舊物也。余既贅其門，柳友汝常父，以余讀古書好古，贈之。凡物舊則寶。況文忠公，經綸天地之業，貫通古今之學，皆從几上得之，尤可感發焉。几其質木，其文竹，內取剛，外取節。兵燹之餘，有板而無檠，遂補葺以新之，以作書室之器，仍記其下。延城後學李萬敷謹識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수록된 시의 총수는 총 725제題 888수首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수량을 보면,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에 120제題 168수首 ; 역시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의 본집 권2에 102제題 147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의 별집別集 권1에 152제題 167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 속집편續集篇에 301제題 355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 관화록觀化錄에 38제題 39수首 ; 기타 시에 12제題 12수首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 시를 국역함으로써 서애 선생 친필親筆의 전문집全文集의 국역이 완료되며 앞으로도 경향각지京鄕各地에 흩어져있는 선생의 옥고玉稿가 발견되는 즉시 추가하여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역된 제1권의 시집은 총 120제題 168수首입니다. 이 시집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이어서 후속편을 계속하여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 간행사刊行辭 중에서 -



비매품

